이 책을 내면서

이 소설은 히틀러파쑈도이췰란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위대한 조국전쟁시기에 쏘련(이전)군인들이 발휘한 전투위훈의 일단을 보여주고있다.

파쑈도이췰란드가 일으킨 전쟁은 수천만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갔으며 평화롭던 생활을 파괴하였고 인민들의 창조적로동으로 마련된 수많은 재부들을 재더미로 만들었다.

파쑈놈들은 모스크바부근까지 기여들었다.

조국의 운명에 가장 엄혹한 시련의 시기가 닥쳐왔다.

세계가 전쟁의 운명을 놓고 우려했다.

남녀로소가 손에 총을 들고 수도방위에 떨쳐나섰다.

붉은광장에서는 붉은군대의 거대한 열병식이 진행되였다.

히틀러는 전률했다. 모스크바를 타고앉았다는 보고가 아니라 전파를 타고 붉은군대의 보무당당한 발걸음소리가 들려왔던것이다.

소설의 주인공 와씰리를 비롯한 군관학교졸업생들은 전투세례를 받아보기도전에 열병식에 참가한다. 이는 이들모두에게 전투승리에 대한 신심을 북돋아준다.

하여 와씰리는 전쟁 전기간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적후에 들어가 무비의 희생성과 용감성을 발휘하여 수많은 도이췰란드군 《혀》를 생포함으로써 적의 전략전술적기도를 사전에 알아내여 전투승리에 크게 기여한다. 이 과정에 그는 유능한 정찰지휘관으로 성장한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전승의 열병식에 참가한다.

작가는 제2차세계대전시기 붉은군대 련대정찰병으로 복무하며 베를린까지 진격한 정찰영웅이다.

작가는 자신의 풍부한 체험과 함께 정찰병들의 활동에서 전형적이며 일반적인 자료들을 취하여 작품에 생동하게 재현하였다.

우리는 이 작품에서 위대한 조국전쟁시기 붉은군대 군인들과 인민들이 발휘한 열렬한 애국주의정신과 무비의 용감성, 대중적영웅주의에 대하여 잘 알게 될것이다.

편 집 부

와씰리 로마슈낀은 전선으로 떠나게 되였다.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곡절이 있었던가! 그러나 그 모든것이 한순간에 풀렸다.

방금 학교에서는 졸업시험이 끝났다.

졸업생들의 야회가 있은 후 동무들은 오래동안 거리에 나가 산보를 했다.

자그마한 가로등이 물속에서처럼 희미한 불빛을 포장도로우에 뿌리고있었다.

슈라는 건설학교에, 아샤는 의학학교에 그리고 학창시절의 시인으로 소문났던 위쨔는 두말할것없이 어문학을 전공하러 간다고 했다. 그런데 와씰리자신만은 항공학교에 갈 차비를 하고있었다.

총각들은 처녀들을 집으로 바래주면서 나무뒤에 숨어서 남몰래 입을 맞추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각에 조성된 정세는 이미 말한 그들의 희망과는 다르게 그들의 운명을 결정해버렸다.

서부국경도시들에서는 그들과 동갑이들이 벌써 원쑤들과 치렬한 격전을 벌리고있었으며 어떤 동갑이들은 파쑈놈들의 비행기가 파괴한 학교와 집들의 페허속에 무참히 파묻히였다.

전쟁이 시작되였다는것을 비로소 알게 된 와씰리는 자기 학급동무들도 찾지 않고 혼자서 군사동원부로 달려갔다.

《일을 방해하지 말구 어서 나가지 못할가. 크게 되면 어련히 부르지 않을라구.》
무뚝뚝한 대위가 말했다.
그렇지만 와씰리는 두달, 기껏해서 석달이면 붉은군대가 파쑈놈들을 다 소멸해버릴것이며 도이췰란드로동계급은 혁명을 완수하게 될것이라고 믿고있었다. 군사동원부 앞마당은 장마당처럼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고있었다.
녀인들과 남정들, 아이들이 군데군데 몰켜서있기도 하고 이리저리 돌아치기도 하였다.
마당은 방안 못지 않게 담배연기가 자욱했다.
명절날같이 흥분되였던 와씰리의 감정은 자기를 군대에 받아주지 않는다는 서운한 생각으로 그만 흐려지고말았다. 두리에서 녀인들과 나이든 남자들까지도 울었다. 이러한 광경은 와씰리의 신경을 몹시 건드리였다. 도대체 그들이 왜 울고있는것일가? 한 녀인은 얼굴에서 온통 눈물이 솟아나는것만 같았다. 눈확이 꺼진 우글쭈글한 눈언저리며 불그스레하게 부푼 코 그리고 이그러진 입술과 부석부석한 볼이 완전히 눈물에 젖어있었다.
《원 이런 불행이 어디 있소? 이런 변두 있는가말이요?》하고 녀인은 메마른 소리로 되뇌이였다.
와씰리는 밸이 울컥 치밀었다.
녀인의 속을 도무지 알수 없는 그는 그에게 너그럽게 말했다.
《아니, 그게 무슨 불행입니까? 그들은 이제 원쑤를 무찌르고 훈장도 타구 영웅이 될텐데요!…》
그 소리에 녀인은 와씰리에게 눈물어린 시선을 돌리고 부풀어오른 입술로 빙그레 미소를 짓더니 울적한 목소리로 말했다.
《에그나, 이 철없는것아! …체통은 락타새끼보다 큰데 생각은 탁아소애보다 못하구나.》
와씰리는 남들처럼 어서 열여덟살이 되기를 기다리지는 않았다.
그는 군사동원부와 구역공청위원회에 탄원서를 낸 다음에는 군사기관으로 뛰여다니면서 끝끝내 자기의 소원을 풀고야말았다.
마침내 와씰리는 군사학교 직속 소위양성소에 들어갔다.

와씰리가 양성소에서 한창 공부하고있을 때에 아버지도 붉은군대에 초모되였다. 소문에 의하면 아버지는 이곳 오렌부르그에서 한달가량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것이였다. 그런데 한주일 지나서 어머니가 숨이 턱에 닿아 양성소로 달려와서 헐떡거리며 말했다.

《아버지가 전선으로 떠나간단다. …난 정거장으로 가는 길이다. 빨리 오너라.》

와씰리는 중대직일임무를 수행하고있었다. 외출허가를 받아 교대를 하고 정거장으로 달려갔건만 텅빈 홈에는 눈물에 젖은 어머니만이 홀로 서있었다. 군용렬차는 벌써 떠나가고 없었다. 그리하여 와씰리는 전선으로 떠나가는 아버지를 만나보지 못하게 되였다. 서운한 감정을 누를길 없는 와씰리는 그래도 어머니와 자신을 위안하면서 말했다.

《어머니,내가 따라가서 만나보겠어요.…》

양성소에서 와씰리 로마슈낀에게는 두번씩이나 운수좋은 일이 생기였다. 그것은 첫째로 전선에 지휘관들이 많이 요구되였기때문에 두달이나 앞당겨서 명절날도 기다릴새없이 11월 1일에 졸업하게 된것이다.

둘째로는 와씰리가 최우등으로서 표창규정에 따라 단번에 중위군사칭호를 받은것이다. 훌륭한 졸업생이 된 와씰리를 배치할 때 소좌는 오랜 전통대로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

《어디서 복무하겠소?》

《모스크바부근전선에 나가렵니다.》

와씰리는 주저함이 없이 대답했다.

《주요방향에 가서 수도를 사수하고싶단말이지?》

《예, 그렇습니다. 저의 아버지도 거기서 싸우고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나자 와씰리는 마치도 인차 아버지가 큰 상관이여서 그의 보호를 받으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멋적어졌다.

《저의 아버지는 평범한 병사입니다. 제가 양성소에서 공부하고있을적에 군대에 초모되였는데 어느 부대에서 복무하고있는지는 딱히 모르지만 모스크바부근에 있다는것만은 사실입니다. 편지에 그렇게 써서 야전우편으로 보내왔습니다.》

《됐소. 거기 가면 알아보게 되겠지.》라고 말하고나서 소좌는 와씰리를 《모스크바수호자들》의 명단에 넣어주기로 약속하였다.…
렬차가 떠날 시간이 되였다.
《어머니, 안녕히 계셔요!》
《오냐, 내 아들아! 내 걱정은 말구 잘 싸우거라! 파쑈놈들을 몰아내고 꼭 돌아오거라!》어머니의 눈에서는 두줄기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차는 오렌부르그에서 북쪽을 향하여 달리고있었다. 가면 갈수록 추위는 점점 더해졌다.
《빨리 가야 본때를 보여주겠는데!》하고 와씰리는 생각했다. 그는 최전선에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부족하여 전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후퇴만 한다고 생각했다.
양성소를 마친 와씰리는 물론 옛날 10학년생처럼 사고하지는 않았다. 지금은 공격의 불의성과 기술적우세란 무엇이며 긴장되고 동원된 병사의 정신상태가 어떤것인가를 잘 알고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지식과 판단, 군복이며 절컥거리는 혁띠 그리고 권총집과 지휘관용크롬장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씰리는 아직도 진짜배기지휘관이 되지 못하고 자기의 용맹성만을 보여주려는 조급성에 사로잡힌 천진란만한 청년에 불과했다.
그는 전사할수 있다는데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죽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나려고 하면 《아니 전선에서는 다른 사람들만이 죽을것이다.》라는 제딴의 내적신념이 그 생각을 밀어내군하였다.
와씰리 로마슈낀과 함께 가고있는 집단은 20명이였다. 그중 열여덟명은 나프탈린냄새가 채 빠지지 않은 새 군복에 홍보석색갈의 별을 한개씩 단 자기처럼 얼굴이 애티나고 홍조를 띤 소위들이였다.
이 집단에는 와씰리외에 꾸르쟈꼬브라는 또 한명의 중위가 같이 가고있었다.
그는 졸업생들보다 서너살쯤 더 먹었는데 그들과는 많은 점에서 달라보였다.
그는 벌써 전쟁이 일어나기전에 군대에 입대했으며 가장 어려웠던 첫 한달동안에 전투에 참가하여 부상까지 당했었다.

불에 끄슬려 탄내가 밴 군복저고리의 가슴과 등뒤로는 총알이 빠져나간 두개의 구멍난 자리가 기워져있었다.

야전병원에서 갓 나온 꾸르쟈끄브의 얼굴은 몹시 파리했다. 광대뼈가 드러난 피골이 상접한 얼굴에는 누르끼레하게 병색이 돌았고 머리는 기계로 깎아서 반반했다.

푸르스름한 눈동자가 증오로 번뜩일 때면 가느다란 코는 창백해지군했다.

그에게서 이것을 빼놓으면 다른 무엇이 없는듯싶었다.

꾸르쟈끄브는 까닭없이 무턱대고 졸업생들에게 욕설을 퍼붓군했다.

간부과에서는 제일 경험있는 꾸르쟈끄브를 조장으로 임명했다.

전투참가자인 이 《로숙》한 군인은 전투를 해보지 못한 소위들의 응당한 존경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킬것 같았지만 상급과 졸업생들은 만나는 순간부터 서로 마음에 들지 않아했다.

통행증과 량식수첩에 명단까지 받아안은 꾸르쟈끄브는 대오를 정렬시키고 점검했다.

그는 경멸감을 감추지 못하고 말쑥하게 생긴 지휘관들을 훑어보았다. 그들이 똑똑하고 지나치게 큰 소리로 자기 이름을 대는바람에 그는 이마살을 찌프리기까지 했다.

점검을 마친 꾸르쟈끄브는 목청을 돋구어가며 자기의 림시부하들을 욕하였다.

《코흘리개들이 마치 열병식에나 나가듯 쭉 빼입었군. 대오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은 내가 직접 상판대기를 후려치겠다는것을 명심해두시오. 정거장으로 갑시다.》

그러나 양성소에서 제마음대로 다니는데 습관된 그들은 렬을 짓지 않고 걸어갔다.

소위들은 서로 눈짓을 하면서 꾸르쟈끄브를 따라 천천히 걸어갔다.

(혹시 전선에서 군인들이 이런식으로 행동하지 않을가. 그러니까 전투를 제대로 할게 뭐람. 이게 무슨 지휘관인가. 구령 한마디도 규정대로 칠줄 모르는게…) 하고 와씰리는 생각했다.

렬차에 오른 꾸르쟈꼬브는 옆사람과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벽쪽으로 얼굴을 돌린채 줄곧 잠만 쿨쿨 잤다.

소위들은 풋내기 수닭처럼 멋을 부리고 차칸으로 오가면서 용맹한 군인으로 자처했다.

군사칭호상 꾸르쟈꼬브와 동급인 와씰리는 같은 차칸에 자리를 잡지 않으면 안되였다.

한것은 자기 동무들이 그를 그 칸으로 밀어넣었기때문이다.

와씰리는 꾸르쟈꼬브의 비위에 거슬렸고 기분을 상하게 했다. 그는 자기 동무들과 휩쓸려 흥얼흥얼 코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내면서 담배연기를 뽀얗게 피워가며 우스개말을 곧잘 했다.

그바람에 모두들 명랑해졌다. 양성소에서의 엄격한 규률생활을 마친 소위들은 굴레벗은 망아지처럼 완전한 자유와 독자적인 생활감정에 휩싸여있었다.

바로 꾸르쟈꼬브만 없었더라면 려행은 참으로 재미있고 훌륭했을것이였다. 젊은 지휘관들의 화제는 줄곧 자기 상급에게로 돌아갔다.

《그의 자리를 컴컴한곳으로 정해주자구.》

씨니쯔끼가 아이들처럼 애티나는 입술을 비죽거리며 말했다.

《어떻게 컴컴한데 정하겠나. 그는 중위야. 그리고 와씰리도 중위구. 군사칭호가 꼭같거든. 그러니 와씰리는 아무 일도 없을거야.》

싸부로브가 신중하게 귀띔해주었다.

《암, 모시구말구.》

와씰리가 맞장구를 쳤다.

《나는 2급권투선수이긴 하지만… 어디 맞다들어봐야 알지.》

《우리한테 총을 주지 않은게 유감인걸.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는데.》 까라삐짠이 목청을 돋구었다.

《동무들, 꾸르쟈꼬브가 을러메면 반격을 가하자구.》

와씰리는 늦게야 자기 차칸으로 돌아왔다. 차칸에서는 거의 모두가 드러누워 자고있었다.

꾸르쟈꼬브는 실컷 자고 한낮이 되여서야 깨여났다.

지금은 그가 탁자앞에 홀로 앉아있었다. 그앞에는 완두콩을 넣은 돼지고기통졸임과 반나마 빈 술병이 놓여있었다. 그는 와씰리를 보자마자 코구멍을 씰룩거리더니 곧 창백해졌다.

《어디 갔다 이제야 나타나는군.》꾸르쟈꼬브는 입속말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나타났으면 어쩔테요?》와씰리는 도전적으로 반응해나섰다.

《내가 어데 가있건, 언제 오건 동무가 상관할게 있소?》

《뭣이 어쨌다구?》꾸르쟈꼬브는 서서히 몸을 일으키며 움쑥 머리를 움츠리였다.

《듣구서두 그래?》와씰리가 툭 내쏘았다. 그는 꾸르쟈꼬브의 시선과 마주치자 갑자기 가슴이 싸늘해졌다. 그러나 격한 감정이 순식간에 그 랭기를 가시였다. 와씰리는 어느새 해볼 태세로 스스로 맞받아나갔다.

《도이췰란드놈들에게 나라의 절반땅을 내주구두 우쭐대, 응? 도망병이 뭐 제법 영웅인체 해?》

순간 와씰리한테 번개같이 주먹이 안겨졌다.

그는 미처 권투자세를 취할새가 없었다. 꾸르쟈꼬브는 그의 좌우측 볼을 번갈아치면서 정신없이 달려들었다. 권투장에서 와씰리는 적수의 그런 미친듯한 시선을 한번도 본적이 없었다. 그는 어쩔바를 몰랐다. 성이 독같이 오른 꾸르쟈꼬브는 탁상에 놓인 병을 움켜잡았다.

와씰리가 손으로 잽싸게 방어하지만 않았더라면 그의 머리가 박산이 났을런지도 모른다. 꾸르쟈꼬브는 발작적으로 낡아빠진 권총집을 벗기였다. 웃당반에서 소좌가 달려들지 않고 옆칸에서 달려온 사람들이 덮치지만 않았던들 정말 그는 와씰리를 죽여버렸을것이다.

《자식, 죽여버릴테다!》꾸르쟈꼬브는 갈린 소리로 으름장을 놓으면서 지휘관들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왔다. 사람들이 꾸르쟈꼬브를 붙들자 소좌가 그의 손에서 권총을 빼앗아냈다.

《려행이 끝나면 주겠소. 진정하시오. 좀 잠자코있을 노릇이지. 명예를 더럽힐 작정이요?》

소좌는 한편 와씰리를 불쾌하게 바라보면서 내뱉듯 말했다.
《이녀석 어서 썩 사라지라구. 그러지 않다간 내가 자넬 당장 창밖에 내던지구말겠어. 그 주제에 누구한테 함부로 삿대질이야. 화선군인한테…》
남은 려행길에서 와씰리는 될수록 꾸르쟈꼬브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다.
모스크바에 도착한 그들이 전차를 타고 자기 부대를 찾아갈 때에도 꾸르쟈꼬브는 와씰리를 외면했다. 훌쭉한 볼과 울툭 삐여나온 광대뼈, 성이 삭지 않은 파란눈은 꾸르쟈꼬브가 그사이 벌어진 일들을 잊지 않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었다.
모두가 렬차의 승강대에 나가서 고요한 모스크바의 집들과 반땅크장애물과 모래자루로 가로막아놓은 반나마 비여있는 거리들을 묵묵히 바라보고있었다. 이때 까라삐짠이 문득 천진란만하게도 단도직입적으로 꾸르쟈꼬브에게 물었다.
《중위동무는 왜 우리를 그토록 증오합니까?》
꾸르쟈꼬브는 처음에는 어줍어하더니 조용히 확신성있게 대답했다.
《나는 동무들을 볼 때마다 화가 나서 못견디겠소. 단추와 장화는 닦아서 반질반질하지만 정작 대렬훈련에 나서면 거부기처럼 엉기적엉기적하지. 게다가 뭐 위훈까지 세워보겠다구?
어림도 없소.
도이췰란드놈들이 바로 모스크바 코앞에 와있단말이요. 그러니 이 전쟁마당에서는 증오심이 더 필요한것이요. 알겠소? 모든 사람들이 다 진짜증오심으로 불타야 하오.
그러면 파쑈놈들을 몰아내게 될게요. 그런데 동무들의 상판대기에는 아직도 어리무던한 기색이 떠돌고있거든. 그래 전쟁이란게 위훈이나 세우구 훈장이나 타면 다 되는줄 아오?》
꾸르쟈꼬브는 목청을 돋구어 그들을 욕했다.
《그렇게 번지르르하게 치장이나 하고 다니는 동무들은 영낙없이 죽을것이요. 그러면 다시금 나는 혼자서 도이췰란드놈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안된단말이요.》

《아니, 그럼 중위동지는 죽지 않습니까?》
《나말이요? 날 죽이지는 못하오.》
《그럼 이 구멍은 뭔가요?》 까라뻬짠은 군복저고리에서 실로 기운 총알구멍을 가리켰다.
《그런 일이 있군하오. 부상이란건말이요. 아무때건 우연히 다칠수도 있거든. 특히 공격할 때말이요. 하지만 날 죽이지는 못하오.》
《당신은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까라뻬짠은 머리를 가로저으면서 말했다.
《자, 이젠 그만하면 다 말한것 같소.》 꾸르자꼬브가 그의 말을 막았다.
와씰리는 꾸르쟈꼬브의 그 말이 자기를 두고 일부러 설명한것이라고 생각했다.
졸업생들이 도착한 부대에서는 급히 대렬편성을 진행했다. 병실과 복도 그리고 창고와 후방부로 새 군복을 입은 하사관들과 병사들이 분주히 오락가락했다.
여기저기에서 중대가 편성되고 지휘관들이 명단에 따라 전사들의 이름을 부르고 사관장들은 장구류들을 내주었다. 련대는 대렬편성을 빨리 끝내고 당장 전선으로 떠나가야 했다. 도이췰란드놈들이 또 어디를 돌파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와씰리는 그런 소문을 듣고 분명치 않은 포성을 감촉한듯싶었다. 그런데 그런 둔중한 포성은 좁다란 길가에서 덜컹거리며 달리는 전차소리같기도 하고 낮추 떠도는 수송기의 외로운 동음같기도 하였다.
젊은 지휘관들은 지체없이 중대들에 속속 배치되였다. 와씰리는 제2보병중대에 편입되였다. 그런데 일이 안될 때라 그의 지휘관으로 꾸르쟈꼬브가 임명되여 왔다. 화선군인인 그는 즉시 중대를 접수했다. 와씰리는 참모부에 가서 모든 사실을 해명하고 자기를 다른 대대로 보내달라고 제기하고싶었지만 전반적으로 대렬편성이 이미 끝난 뒤여서 어쩔수가 없었다.
와씰리는 자기 소대전투원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처음에는 스물두명이 다 꼭같아보였지만 젊은 사람들을 한편으로 하고 나이든 사람들을 다른 편으로 하여 점차 갈라졌다. 그중 두명은 마흔고개를 넘

어선 아버지같은 사람들이였다.

(내가 어떤 사람들을 지휘하고있는지 아버지가 봐주었으면!

어서 참모부에 물어봐야겠다. 혹시 아버지의 야전우편함이 있는 곳을 알고있을런지 모른다.)

사열식은 와씰리가 생각했던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 군악연주도 없었다. 피로해진 지휘관들은 무거운 표정으로 무기와 신발이며 복장을 검열하고 배낭을 헤쳐보았다. 나중에야 무질서하게 사방으로 흩어진 대렬이 련대장앞을 지나갔다.

그것으로 사열식은 끝났다. 저녁이 되여 와씰리는 담장밖으로 나가 사방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이렇듯 낡은 벽돌집과 해묵은 나무집들, 질벅한 눈에 어지러워진 초라한 거리가 모스크바라고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여직껏 그는 수도를 다르게 상상해왔었다. 물론 와씰리는 이곳이 수도의 교외라고 생각했다. 잠간이라도 시내중심에 들어가서 우편엽서를 보고 낯익혀둔 크레믈리와 레닌묘를 구경하고 지하철도를 타보고싶었다.

그러나 아무데도 외출하지 못한다는 명령이 내려지고 낮에는 단 일분도 자유시간을 주지 않았다. 다행히도 밤에는 이러한 외출이 례외로 되여있었다. 모든 병실들과 복도에는 인쇄소에서 찍어낸 명령문이 나붙어있었다.

국방위원회 결정

본 결정에 의하여 모스크바의 서쪽으로부터 100～120키로메터 떨어진 계선에서의 수도방위는 서부전선사령관 대장 쥬꼬브동지에게 위임되였으며 모스크바시 수비대장 중장 아르쬬미예브동지에게는 모스크바시 접근로들에서 방어할것이 위임되였다는것을 공포한다.

모스크바방어의 후방을 보장하며 모스크바를 수호하고있는 부대들의 후방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또한 도이췰란드파시즘의 간첩, 암해분자 및 기타 주구들의 파괴활동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1941년 10월 20일부터 모스크바시와 그와 린접한 구역들에서

비상경계령을 실시할것이다.

2. 밤 12시부터 아침 5시까지 개별적인 인원들과 자동차들의 일체 통행을 엄금(모스크바시 위수사령관의 특별통행증을 가지고있는 자동차와 인원은 제외)하며 공습경보가 있는 경우에 시민들과 자동차들의 통행은 모스크바 반항공방어사령부가 승인하고 출판물에 공포된 규정에 따라 진행할것이다.

3. 시내와 교외구역에서 질서를 정연하게 유지하는 사업은 모스크바시 위수사령관 대장 씨닐로브동지에게 위임한다. 이를 위하여 내무인민위원부의 내부경비대원들과 내무원들 및 로동자자원부대들을 위수사령관의 관할하에 둘것이다.

4. 질서위반자들은 즉시 군사재판소의 재판에 회부하여 책임을 추궁하며 도발자, 간첩 및 기타 질서위반을 추동한 적의 앞잡이들은 즉석에서 총살할것이다.

국방위원회는 수도의 전체 근로자들에게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며 모스크바를 방어하고있는 붉은군대에 온갖 형태의 방조를 다할것을 호소한다.

국방위원회 위원장 이. 웨. 쓰딸린

모스크바, 크레믈리 1941년 10월 18일.

× ×

와씰리는 진종일 추위에 떨었다. 그는 아침부터 전술훈련을 하고 점심식사가 끝나자 곧 지하실처럼 차거운 방에서 상학을 했던것이다. 총을 처음 쥔 병사들에게는 사격법을 가르쳐주었다. 좁다란 콩크리트바닥의 사격장에서 울리는 무거운 총성은 머리가 윙윙 돌 정도로 고막을 몹시 때리였다. 저녁을 먹고난 와씰리는 따스한 병실에서 소르르 밀려오는 피곤을 이겨내지 못했다. 그는 자리에 누워쉬다가 코를 고르롭게 골면서 그만 곤드라지고말았다.

꾸르쟈꼬브는 침대사이를 오가면서 훈기에 몸이 나른해서 우물쭈물하는 병사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총에 누기가 찼는데 어서 닦으시오. 맥이 다 빠졌소? 래일이면 전

선으로 떠난다는걸 벌써 잊었는가말이요?》
꾸르자꼬브는 와씰리의 침대옆에 와서 멈춰섰다. 와씰리는 장화를 벗어 복도에 밀어놓고 옷은 입은채로 자고있었다. 총도 되는대로 놓여있었다.
꾸르쟈꼬브는 그를 기상시키려고 하다가 그만두었다. 그는 달콤하게 잠든 와씰리의 말쑥한 얼굴에 피여난 홍조를 보면서 웬일인지 가슴속에서 동정심이 꿈틀거리고있음을 느꼈다.
그러다 자기의 그 《계집애같은》 나약성을 당장 눌러버렸다.
그러나 여전히 와씰리만은 깨우지 않고 노기등등해서 병사들을 점검해보며 걸어나갔다.
《총을 닦으시오. 동무들, 래일 우리는 장난하러 가는것이 아니라 싸움하러 간단말이요.》
병사들은 눅눅해진 총을 잡고 닦기 시작했다.
그러나 총신과 탄약실에는 여전히 누기가 끼였다.
《자, 보라구. 우리는 이렇게 성성한데 이 쇠덩어리라는게 꽁꽁 얼어서 말이 아니구만. 어서 쇠덩어리를 녹여주자구.》 젊은 병사 오쁠레뜨낀이 활기를 띠며 말했다.
《작작 지껄이게. 중위가 깨겠네.》옆에 있던 전사가 와씰리쪽으로 머리를 기웃하면서 말을 막았다.
《중위님은 녹초가 됐어. 아마 도회지에서 살았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런 벌판에서 요까짓 추위에두 옴짝 못하지.》
오쁠레뜨낀이 소곤거렸다.
중대는 10시에 잠들었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피곤해서 단번에 곯아떨어졌다.
와씰리는 자기가 방금 눈을 감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귀에 익은 싫은 소리가 들려왔다.
《기상! 기상!》
양성소에서 생활한 첫날부터 와씰리는 아침마다 수면부족이라는 《달콤한 고통》을 가까스로 이겨내군했다.
그는 《기상!》이라는 불쾌한 말을 내놓고는 군대에서의 모든 생활이 다 마음에 들었다.

오늘아침 기상은 유별나게 힘들었다.
시계를 보니 겨우 세시가 되나마나했다.
《아마 직일병이 잘못본 모양이야.》하고 생각하고있는데 인차 귀에 익은 꾸르쟈꼬브의 갈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기상! 빨리 세수하고 장구류를 다 갖추고 밖에 나가 정렬하시오.
남겨두는게 없어야 하오.
병실에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오.》
련대마당에서는 무엇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있었다.
중대는 행군종대로 늘어서는것이 아니라 길다란 횡대로 렬을 지었다.
꾸르쟈꼬브가 소대장들을 불렀다.
《정확히 키순서대로 서시오. 매줄에는 스물다섯명씩 세우시오. 정보로 행군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의할것은 횡대를 나란히 맞추는것이요.》
와씰리의 소대는 도합 스물두명밖에 안되였다. 그래서 소대전체가 한개 횡대를 잡고 모자라는 세명은 다른 소대에서 보충받았다.
어둠속에서 키를 맞추느라고 꾸물거리고있는데 꾸르쟈꼬브가 다가왔다.
《내 구령을 들으시오. 우로 돌앗! 종대를 정확히 맞추시오. 모자 벗엇! 간격없이 서시오. 좀 더 가까이. 앞사람뒤에 배를 바싹 붙이시오.》
리발기로 반반히 깎은 맨머리바람에 한줄로 늘어선 그들의 키는 들쑹날쑹하였다.
《동문 여기 앞으로 나오시오. 동문 여기로.》하며 중대장은 한사람한사람 군복소매를 당기면서 렬을 맞추어나갔다. 일분이 지나서 반반히 깎은 둥근머리들은 키순서대로 점차적으로 낮아지면서 하나의 그쯘한 렬을 이루었다.
《모자…》하고 꾸르쟈꼬브는 말머리를 쭉 끌었다가 급격히 구령을 쳤다.
《썻! 좌로 돌앗!》

와씰리앞에는 리상적으로 키순서가 맞아떨어진 자기 소대의 횡대가 서있었다. 꾸르쟈끄브는 조용히 말했다.
《동무들, 바로 이렇게 키순서대로 정렬해야 합니다.》
중대들은 벌써 병실사이에서 나와 훈련장으로 움직여가고있었다.
와씰리는 자기의 횡대를 련습시키면서 이런 훈련이 왜 필요한지 아직도 리해하지 못하였다. 횡대는 산만해졌다. 불룩하게 나오기도 하고 우묵하게 들어가기도 하더니 갑자기 톱날처럼 굽어들기도 하였다. 훈련장끝에 와서는 횡대들이 한곳으로 몰켜지면서 뒤로 돌아갔다. 여기서 동급생들을 만난 와씰리는 까라뻬짠에게 물었다.
《자넨 듣지 못했나? 왜 이런 연극이 필요한지?》
《열병식에 나가자는거겠지. 오늘이 11월 7일이 아니야. 벌써 잊었나, 응?》
《열병식은 무슨 열병식이야? 전쟁인데!》
꾸르쟈끄브가 다가오면서 그들의 말을 엿들었다.
《자네같은 목석은 미처 생각못할거야. 진짜열병식이란말이요. 도이췰란드놈들이 모스크바 턱밑에 와있지만 우리는 〈병사유희〉를 하거든. 그렇다구 우릴 들이치지 않으리라는 부질없는 생각은 아예 말게.》
와씰리는 대렬을 따라 뛰여갔다.
대렬앞에서 발을 재게 놀려 맞추고 앞으로 걸어나가면서 소리쳤다.
《발을 더 힘차게 구르시오. 하나, 둘!
나란히 맞추시오. 가운데가 왜 처졌소?》
훈련장에서는 야전밥통이 댕그렁거렸다.
병사들은 김이 무럭무럭나는 고기부스레기를 넣은 향긋한 죽냄새를 맡으며 아침식사를 했다.
련대가 시내어귀에 들어섰을 때는 벌써 땅거미가 졌다.
흰종이띠를 십자로 오려붙인 컴컴한 집창문가에서는 아무러한 불빛도 보이지 않았다. 련대는 열병횡대를 짓고 인적없는 고요한 거리로 움직여가고있었다. 붉은광장으로 잇닿은 거리들에서는 구령소리가

차고넘쳤다.
《정보로. 하나 둘. 하나 둘. 나란히 맞추시오.》
련대장 까라바예브소좌는 오랜 군무생활을 하면서 열병식에 여러 번 참가했었다. 지금 그는 꼬불꼬불하게 구부러진 횡대를 보면서 정치위원 가르부즈에게 조용히 말했다.
《열병식을 잘 준비하자면 적어도 한달은 걸려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붉은광장을 지나가겠는지 막연하구만. 게다가 장구류를 다 지구말이요. 자칫하면 우리자신은 물론 온 붉은군대를 망신시킬수 있지 않겠소.》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끼릴 알렉쎄예위치.》 가르부즈가 대꾸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알따이의 비쓰끼부근구역당 제2비서로 있던 그는 아직 대렬의 아름다운 면모를 가려볼줄 몰랐다.《우에서는 형편을 리해할겁니다.》 하고 그는 손가락으로 우를 가리켰다.
《내 판단이 정확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중요한것은 줄을 나란히 맞추는것이 아니라 열병식을 진행한다는 사실자체라구 생각됩니다. 도이췰란드놈들이 모스크바의 턱밑에 들어와서 온 세상에 대고 자기가 이겼다구 한창 고아대고있는판에 우리는 놈들의 코앞에서 배심든든하게 열병식을 한단말입니다! 히틀러가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면 아마 중풍환자처럼 벌렁 나가자빠질겁니다. 참 훌륭한 생각입니다!》
《열병식은 물론 대담한 착상이요. 하지만 성공하겠는지 아니면 실패하겠는지?》
《왜서요?》 가르부즈는 그 말을 리해못했다.
《만일 만사가 잘되면 우리한테는 좋을것이구. 헌데 붉은광장에 있는 우리에게 폭탄을 퍼부으면?》
가르부즈는 이마를 찌프리면서 대답을 끌었다.
《내 생각엔 거기서…》하며 손가락으로 우를 가리켰다.
《모든걸 다 예견할겁니다. 한놈도 들여놓지 않을겁니다. 이 열병식은 쓰딸린동지가 직접 맡아보는 행사라구 생각합니다.》
횡대는 그들의 옆을 계속 지나갔다. 병사들은 열심히 발을 쾅쾅 굴렀다. 추위에 꽁꽁 언 구두발소리는 사방으로 울려퍼지였다. 그러나

까라바예브가 전쟁전에 있은 열병식에서 늘 들어오던 한결같이 고르로운 그런 씩씩한 걸음걸이는 없었다.

까라삐짠은 와씰리에게 지하철도입구 꼭대기에서 푸른빛으로 비치는 로어로 쓴 《엠》을 대주며 이렇게 설명했다.

《전쟁전엔 이 〈엠〉자가 멀리서도 잘 보이라구 빨간색을 칠했는데 지금은 파란색이요. 도이췰란드비행사들이 잘 보지 못하게말이요.》

대오는 날밝을무렵에야 붉은광장에 들어섰다. 와씰리는 난생처음 제 눈으로 그림이 아닌 진짜 크레믈리를 보았다. 그는 톱날처럼 생긴 성벽이며 레닌묘, 높다란 첨탑들을 알아보고 경탄을 금할수가 없었다. 오각별은 붉은색이 아니라 색칠을 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씌우개를 덮어놓아서인지 풀색을 띠였다. 광장에는 랭기를 풍기는 축축한 안개가 자욱했다. 어둠침침한 하늘에는 반항공기구들이 두둥실 떠있었다. 마치 그것들은 짙은 재빛구름에 등을 의지하고있는것같이 보였다.

《날씨는 아주 좋군. 비행하기에는 불리하니까.》 까라삐짠은 기분이 좋아서 말했다.

《자넨 붉은광장에 와본적이 있나?》 와씰리가 물었다.

《와보구말구. 내 삼촌이 내무인민위원부에서 일했는데 나를 시위장에 데리구갔댔어. 그땐 밤에도 대낮처럼 사방이 눈부시게 환히 밝았댔어. 낮에는 이런 황홀경이 나타나구.》

《왜 모래자루를 치우지 않았을가?》 와씰리는 의아해하면서 블라쥐느이사원앞에 차곡차곡 쌓아놓은 자루더미를 가리켰다.

《이 사람아, 그건 특별히 가져다놓은걸세.

미닌과 뽀자르스끼동상이 폭격에 상할가봐 쌓아놓은거란말이요.》

《아니 그럼 우리한테 폭탄을 떨구기만 한다면? 상상해보라구. 여기서 무슨 복새판이 일어나겠는지…》

곁에 서있던 꾸르쟈꼬브가 입을 열었다.

《대렬에서 잡담을 그만두시오.》

군부대는 광장에 당도하자 지정된 장소에 자리를 잡았다.

병사들은 지휘관들의 승인을 받아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뽀야

연기가 대렬상공으로 피여올랐다.

눈이 내렸다. 처음에는 싸락눈이 내리더니 인차 함박눈이 펑펑 쏟아졌다. 와씰리와 까라뻬짠은 물론 열병식참가자들모두가 놈들이 폭격을 못하리라는 생각으로 못내 기뻤다. 이러한 안도감은 자신에 대한, 자기 생명에 대한 위구심을 덜어준데서 온것이 아니였다. 모두가 이것은 단순한 열병식이 아니라 반드시 거행해야 하는 열병식이라고 생각했기때문이다.

사람들의 생활에서는 장엄한 력사가 눈앞에서 시작된다고 느끼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 있군한다. 방금 음악이 울리면서 크레믈리종소리가 울려퍼지기 시작했다. 와씰리의 심장은 방망이질을 했다. 그 음악과 력사적시간을 알리는 종소리는 탑에서가 아니라 마치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것 같았다.

와씰리는 지금 자기가 보고 듣는 모든것, 광장에서 벌어지고있는 모든 사실들을 일일이 기억해두려고 했다.

그는 이것이 자기 일생에서 영원한 추억으로 남아있을것이라고 믿었다.

와씰리의 추억속에서 아니 모든 사람들, 전체 인민의 추억속에 영원히 살아있게 될 그러한 순간이 찾아온것이다.

바로 그런 현상을 가리켜 력사적사변이라고 한다. 그 력사적사변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있는것이다.

…5분전 8시에 붉은광장에는 마치 숲속에서 불어오는 바람과도 같이 술렁이는 소리가 지나갔다. 와씰리는 좌우측을 번갈아보면서 당장 무슨 일이 있겠는가 조바심을 가지고 기다렸다. 곁에 서있던 씨니쯔끼가 그의 옆구리를 툭 쳤다.

《거길 보지 말구 레닌묘쪽을 보게나.》

와씰리는 광장중심에 있는 대리석피라미드를 보다가 심장이 뚝 멎는듯했다. 그는 까라꿀양털깃을 단 외투를 입은 사람들이 있는 그쪽에 사진에서 눈에 익은 군복을 입고 라사천으로 만든 채양이 달린 풀색모자를 쓴 쓰딸린동지를 보았던것이다. 《쓰딸린!》하는 생각이 와씰리의 머리속에 번개처럼 지나갔다.

《그이가 털모자를 쓰셨으면 춥지 않겠는데…》

쓰빠쓰까야탑우에서 울리는 종시계의 숭엄한 선률이 광장으로 퍼져갔다. 말을 탄 대장이 갑자기 뭐라고 소리치더니 말이 앞으로 껑충거리며 나갔다. 쓰빠쓰까야탑으로부터 다리가 흰 말을 탄 기수가 대장을 마주 향하여 다가왔다. 그가 누굴가? 조용히 내리는 눈때문에 알아볼수 없었다. 기수들이 도중에서 만났다. 또다시 나무우듬지를 따라부는 바람소리와도 같이 대렬우로 《부죤느이! 부죤느이다!》하고 속살거리는 소리가 퍼져갔다.

부죤느이는 그들의 련대앞에 멈춰서서 건강을 축하했다. 그때에야 비로소 와씰리는 견장에서 원수별과 쩍 갈라진 시커먼 웃수염을 알아볼수 있었다. 아직은 연설하는 사람이 없었다. 사령관이 계속 대렬을 돌아보았다. 와씰리는 《만세!》하고 막 웨치고싶은 심정이였다. 그의 심장은 세차게 들먹이였으며 끓어오르는 숭엄한 격정으로 하여 머리가 핑 돌아갈 지경이였다. 그는 바로 이러한 군사복무를, 이러한 전쟁을 념원했다. 얼마나 멋들어지고 장엄하고 굉장한 모습인가! 와씰리는 오른쪽에 서있는 꾸르쟈꼬브를 곁눈질해보았다.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지고 턱은 꽉 눌리우고 코구멍은 떨리고 있었다.

와씰리는 이러한 인상이 무엇을 말해주는지 리해할수 없었다.

변함없는 증오심인가 아니면 무한한 충실성에서 오는 표정인가? 《자, 보라구.》하고 와씰리는 심술궂게 생각했다. 이윽고 광장 한쪽 붉은 벽돌집모퉁이에서 밀려오는 눈사태마냥 《만세》소리가 터져나왔다.

와씰리는 숨을 한껏 들이쉬고 자기 련대구역에서 우렁찬 합성이 터져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있는 힘을 다하여 웨쳤다.

자기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만세!》소리는 대렬우로 세차게 울려퍼지였다.

다음 그 소리는 여러번 대렬속에서 반복되였다.

와씰리는 만세를 부를 때마다 자기 목소리를 들으려고 했지만 도무지 분간할수 없었다.

그러는사이에 부죤느이는 레닌묘로 올라갔다.

쓰딸린동지는 그를 기다렸다는듯이 시계를 들여다보다가 겨우 알

릴가말가하게 미소를 지었다.

쓰딸린동지는 전국의 모든 라지오방송망을 련결하라고 하고는 마이크앞으로 다가갔다.

와씰리는 쓰딸린동지의 연설을 들으면서 주석단쪽으로 몸을 돌리였다. 두귀는 물론 온 신경이 연설을 듣는데 집중되였다.

쓰딸린동지는 크지 않은 목소리로 침착하게 말했다. 한마디한마디 타자수에게 읽어주듯 천천히 정확히 발음했다. 그는 매 문구를 강조하는것 같았다. 확신에 찬 그의 모든 연설은 지체없이 실현될것이다. 와씰리는 쓰딸린동지의 모습을 똑똑히 볼수 없게 눈앞을 가리며 흩날리는 눈송이를 저주하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일없어. 레닌묘앞을 지나갈 때 보면 되지.)하고 희망도 가져보았다.

쓰딸린동지는 공민전쟁시기에는 붉은군대가 갓 창건되고 동맹자들도 없이 열네개의 나라가 동시에 쳐들어와 원쑤들과의 싸움이 매우 어려웠으나 그때는 레닌이 우리를 간섭자들과의 투쟁에로 령도하고 고무하여 주었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레닌의 사상과 그의 필승의 기치는 23년전과 같이 지금 우리를 조국전쟁에로 고무하고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도이췰란드강점자들을 이길수 있으며 또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것을 의심할수 있겠습니까?

…붉은군대전투원들과 붉은 해병들, 지휘관들과 정치일군들, 남녀빨찌산동무들! 전세계사람들은 당신들을 도이췰란드강도배들을 소탕할수 있는 힘으로 지켜보고있습니다.

도이췰란드강점자들의 발밑에 짓눌리고있는 유럽의 예속된 인민들이 당신들을 자기의 해방자로 바라보고있습니다. 위대한 해방자적사명은 당신들의 어깨우에 지워졌습니다. 이러한 사명은 응당 수행될것입니다! 당신들이 진행하는 전쟁은 해방전쟁이며 정의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의 위대한 선조들인 알렉싼드르 넵스끼, 드미뜨리 돈스끼, 끄지마 미닌, 드미뜨리 뽀자르스끼, 알렉산드르 쑤워로브, 미하일 꾸뚜조브의 영용한 모습이 당신들을 고무할것입니다. 위대한 레닌의 필승의 기치가 당신들을 이끌어줄것입니다.》

와씰리는 자기 군대의 거대한 힘에 고무되여 또다시《만세!》하고 웨쳤다. 그는 자기가 나서자라고있는 조국, 이 거대한 사변이 벌어지고있는 위대한 조국을 수호하게 된다는 감격으로 하여 가슴이 벅차오름을 금할수 없었다.

흔히 열병식참가자들은 열병식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다른 사람들보다 잘 보지 못한다. 《열병대 앞으로!》하는 구령이 내린 후 와씰리는 정렬할 때는 물론 행진할 때에도 자기 횡대가 다른 횡대보다 더 잘 맞추며 처지지도 않고 두드러지지도 않도록 하자던 모든 생각을 잊어버렸다. 그는 횡대를 흘겨보면서 마지막 직선상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구령을 나지막하게 쳤다. 어딘가 모르게 본능적으로 《쓰딸린동지를 봐야 한다. 쓰딸린동지를.》하는 생각이 번개쳤다.

그런데 정보로 행진하면서 긴장된 기분에 다리를 높이 들 때 공교롭게도 그만 그 생각을 잊어먹고말았다.

갑자기 어느 병사의 야전밥통에서 숟가락이 절그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와씰리는 군악대의 음악을 듣지 못했다. 밥통에서 절그럭거리는 쇠붙이소리가 모든것을 삼켜버렸던것이다. 그 병사는 공포로 하여 온몸이 오싹했다. 그는 절그럭거리는 소리가 주석단앞에서 나게되면 열병식에 손색을 주리라고 생각한것 같았다. 그 순간 와씰리는 광장우에 가볍게 서서 좌우로 손을 흔드는 사람을 보았다.

와씰리는 그가 이 불길한 숟가락소리가 누구한테서 나는가를 찾는다고 생각했다. 그 사람은 행진하는 사람들의 머리우를 보았다. 《범죄자》를 찾는것이 틀림없었다. 와씰리는 가까이 접근해서야 그가 지휘자라는것을 알았다.

와씰리는 문득 생각나서 주석단쪽에 시선을 던졌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쓰딸린동지를 볼수 없었던것이다.

(이것으로 하여 나에게 있어서 열병식은 끝난셈이다. 하지만 그게 무슨 행진인가. 그것은 행진이 아니라 비행이다! 온몸이 앞으로 날아갈것만 같았고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으며 심장은 발걸음에 맞추어 《쿵, 쿵!》높뛰였었다. 밥통안의 그 저주로운 숟가락만 아니였던들 모든것을 그르치지 않았을것이다.)

와씰리는 까라쎄짠과 씨니쯔끼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웃고있었다.

그자신도 웃었다. 왜서 웃고있을가? 그건 모를 일이다. 진짜 마음속으로 좋아서 기뻐서 웃을수도 있다. 숟가락소리는 누구도 듣지 못한것 같았다. 꾸르쟈꼬브도 기색이 밝아지면서 파란눈에 정기가 돌았다. 그러나 와씰리와 시선이 마주치자 그만 얼굴이 흐려지면서 홱 돌아섰다. 모스크바강 건너편 좁은 골목에서 까라바예브소좌는 련대를 멈춰세웠다.《담배를 피울수 있음.》하는 구령이 중대에서 중대에로 전달되였다. 연보라빛의 담배연기가 눈이 앉은 모자우로 가불가불 떠올랐다.

붉은광장에서는 아직도 군악대의 장중한 음악이 연주되고있었다. 열병식이 계속되고있는것이다.

붉은군대복장을 한 네명의 처녀들이 유보도로 걸어가고있었다.

까라뻬짠은 그들과 말을 해볼 기회를 놓치고싶지 않았다. 그는 유보도로 성큼성큼 걸어가서 처녀들에게 씩씩하게 거수경례를 하고는 검은 눈섭을 실룩거리면서 물었다.

《물어봐도 좋겠습니까?》

《우리가 물어봐야겠어요. 동문 군사칭호상 상급인데요.》머리태가 모자밑에서 삐죽이 내민 파란눈의 처녀가 말했다. 다른 처녀들은 히히덕거리였다. 오직 밤색눈우에 실오리같은 눈섭이 보르르하게 돋아난 맵시있고 날씬하게 생긴 처녀만이 웬일인지 신중한 기색을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와씰리를 더 눈여겨보았다. 씨니쯔끼와 싸부로브는 까라뻬짠을 지원하여 그에게로 다가갔다. 와씰리는 준수하게 생긴 처녀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십니까, 이름이 뭔지요?》

《동문 지금이 교제하는데 적합한 시간이라구 보세요?》

《어째 안되는가요?》

《여하튼 우리의 교제는 전혀 무의미하니까요.》

《내가 전선으로 나가기때문인가요?》

처녀는 시무룩해서 그의 얼굴을 쳐다보며 리해되지 않는듯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는 다시 만날수 없지 않아요.》처녀는 상대가 모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덧붙였다.

《동무가 죽을수 있기때문에 그러는건 아니예요. 정말 지금 이런 교제가 소용없으니까 그러는거지요.》처녀는 분명 중위가 자기 말을 잘 리해하지 못했다는 위구심으로 하여 주춤거리였다.

《전 따냐라구 해요.》

《어디서 사오?》

《여기 모스크바부근 수림속에서 살지요. 명절을 쇠라구 우릴 집으로 보냈어요. 전 모스크바사람이예요. 곧 전선으로 떠날거예요.》

《혹시 거기서 만날수도 있지 않을가요?》

따냐는 머리를 저었다.

《만날리 만무하지요.》

행군종대로부터 구령이 내렸다.

《담배를 그만 피우고 정렬하시오!》

소위들의 웃음소리와 유쾌한 이야기들은 그만 중단되고말았다.

와씰리는 따냐와 헤여졌다. 그에게는 자기들의 상봉이 결코 우연적인것이 아니며 무엇인가 태동하려는 힘을 숨기고있으며 감격적인 상봉이 계속될것이라는 미지의 감정이 남아있었다.

《야전우편함번호를 대주오.》와씰리는 대렬에서 떨어져 재빨리 말했다.

《안돼요. 아무 소용없어요.》 따냐는 상냥스럽게 대꾸하고나서 집에서 뜬 풀색장갑을 낀 손을 흔들어 작별인사를 했다.

× ×

까라바예브소좌의 련대는 군용렬차에 올랐다. 포병과 련대참모부와 후방부대는 이미 밤중에 떠나갔다.

꽁꽁 얼어서 서리가 하얗게 낀 차칸은 사람들의 입김으로나 덥혀질 형편이였다. 그러나 담배연기가 자욱하여 인차 더운감을 느끼게 했다. 병사들은 열병식과 쓰딸린동지를 본 이야기들을 계속하고있었다.

기차는 멎지 않고 계속 달리였다. 차창밖으로 소담한 단층집들과 활달한 필치로 쓴 역이름들이 언뜻언뜻 지나갔다.

정치지도원이 차칸을 지나가면서 씨앗을 뿌리듯 이쪽저쪽에 신문

을 나누어주었다. 병사들은 신문을 펼치느라고 바스락거리였다. 저마끔 전쟁전과 마찬가지로 재미있는 면부터 먼저 보기 시작했다.
한 전사는 4면에 실린 사고소개기사와 극장소식을, 다른 전사는 사설을, 어떤 전사는 중간부분에 실린 전야와 공장들에서의 소식을 보고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모두가 쏘련통신사의 종합보도를 읽기 시작했다.
《11월 7일 아침 보도.
11월 7일 새벽에 아군은 모든 전선에서 적들과 전투를 벌리였다.》
《일이 잘 안되는데.》하고 와씰리는 생각했다. 이러한 보도가 있은 후 붉은군대가 후퇴했다는것을 밝히고있다. 계속하여 그 아래에 《끼예브를 내주었다.》, 《민스크를 내주었다.》, 《하리꼬브를 내주었다.》고 보도했다.
《남부전선에서 행동하는 와씰렌꼬와 꾸지민이 지휘하는 부대들이 하루동안에 벌린 전투에서 도이췰란드놈들의 땅크 60여대와 2개 대대이상의 적보병을 소탕하였다.》
《멋들어지게 하는군. 나도 동무들과 함께 놈들을 족쳤으면… 아직 일없어. 전선이 코앞인데 인차 파쑈놈들을 쳐갈기자구.…》와씰리가 말했다.
《남부전선에서 행동하는 루만쩨브소위의 저격부대는 60여대의 적땅크들의 포위속에 들었다. 하루동안에 전투원들은 수류탄과 인화병으로 12대의 적땅크를 까부시고 포위진을 뚫고나왔다.》
《루만쩨브라? 우리 학급출신이 아니야? 우리한테두 그런 이름이 있었던것 같은데. 루만쩨브는 남부전선에 당도하여 첫 전투에서 이름을 떨치지 않았는가! 하지만 그가 어떻게 60대의 땅크와 싸웠겠는가. 그가 만일 소대를 지휘했다면 전투원 한명에 두대의 땅크가 차례진다는건데. 혹시 중대일수도 있지. 가령 중대장이 전사했다고 치자. 그러면 루만쩨브가 중대지휘를 맡을수 있지 않는가. 어쨌든 참 장해. 모스크바방향에 대해 쓴것은 없는가? 옳지, 여기 있군.…》
그는 계속 신문을 훑어나갔다.
《11월 5일 야로슬로베쯔끼 전선구역에서 행동하는 골루베브부대의 박격포병들은 적 보병대대와 박격포대대를 분산격파하였다.》

(조밀한 력량은 못돼.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군이 후퇴하고있는것이다.) 하고 와씰리는 단정했다.

계속하여 후방근로자들의 소식이 소개되였다. 통신사의 보도에 의하면 후방에서의 투쟁도 전선에서의 전투에 못지 않게 진행되고 있었다.

전사들은 활기를 띠고 새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격정에 넘쳐 마라초연기를 연방 내뿜었다.

갑자기 기차가 급제동하면서 멈춰섰다. 모두가 앞으로 쏠리였다가 뒤로 나가자빠졌다. 어디선가 유리창이 쟁그렁소리를 냈다. 누군가 소리를 쳤다.

《에끼, 정신있어? 어디다 함부로 보총을 내흔드는거야?》

련이어 고함소리가 났다.

《공습이요! 공습!》

기차는 불안스러운듯 짧은 기적소리를 울리였다. 병사들은 차칸에서 후닥닥 뛰여내렸다. 그들은 비탈진 눈우로 뛰여가며 나무들이 듬성듬성한 수림으로 달리였다. 와씰리는 대원들과 함께 뛰면서 구령을 내렸다.

《소대 모엿!》

가까이에 있던 대원들은 그의 곁에 모여들었다.

몇개의 폭탄이 뒤에서 터지더니 뒤늦게 비행기동음이 머리우로 퍼져갔다. 와씰리는 수림속으로 달려갔다. 거기서는 호탕한 웃음소리가 났다. 자기는 미처 숨도 돌리지 못했는데 맹폭격이 진행되는 이런 위급한 순간에 누가 감히 호탕하게 웃어대고있는지 알수 없었다.

눈이 하얗게 덮인 숲속을 지나던 와씰리는 도이췰란드놈들이 웃고 있는것을 보고 소스라쳤다. 놈들은 폭격을 피하여 뛰고있는 사람들을 보고 웃고있는것이다.

《이놈들이 벌써 여기에 왔는가? 이렇게 빨리? 그럼 우리는 포위됐단말인가? 아니면 포로된것인가?》 당황해진 와씰리는 필사적으로 권총을 빼여들었다.

《어느놈을 쏠가?》 미처 결심을 내릴수 없었다. 드디여 그는 모든

사실을 리해하게 되였다. 좁다란 수림뒤로 신작로가 뻗어있었다.
거기에는 얼마 안되는 포로병들이 끌려가고있었다. 바로 그놈들이 자기들의 비행기를 피하여 뛰고있는 로씨야사람들을 보고 웃어댔던 것이다.

이것이 와씰리가 처음으로 맞다든 살아있는 파쑈놈들이였다. 그 놈들을 더 자세히 보려고 와씰리는 가까이에 바싹 다가갔다. 비행기앞에서 느낀 공포감은 간데온데없이 사라졌다. 그는 폭격한다는 생각을 완전히 잊었다. 뒤에서 폭음이 요란히 울려왔지만 와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껄껄 웃고있는 도이췰란드놈들을 쏘아보았다.

《로씨야놈들아! 어서 죽여라. 게링그원수가 네놈들을 멸살시킬게다.》 하고 목이 굵직하고 어깨가 쩍 벌어진 파란눈의 도이췰란드놈이 고아댔다. 나머지놈들은 다시금 껄껄 웃었다.

《에잇, 개자식들!》 갑자기 난데없이 나타난 꾸르쟈꼬브가 숨이 턱에 닿은듯 새되게 소리쳤다. 와씰리는 증오에 이글거리는 꾸르쟈꼬브의 시선을 포착했다. 꾸르쟈꼬브는 순간 권총을 뽑아들고 겨냥할 새없이 마구 쏘아댔다. 도이췰란드놈들은 땅에 납작 엎드리였다. 모두가 한방에 다 뒈진듯 옴짝하지 않았다.

호송하던 중위가 꾸르쟈꼬브한테 달려와서 도이췰란드놈들을 막아나서며 단호하게 웨쳤다.

《안되오. 동무? 당신은 책임지게 되오. 재판받는단말이요.》 중위가 위협조로 말했다.

《내가 파쑈놈들때문에 재판을 받는다? 에잇, 너두 저놈들과 같은 자식이야.》

중위가 꾸르쟈꼬브의 손목을 으스러지게 틀어잡았다. 도이췰란드놈들이 땅에서 일어났다. 놈들은 놀라서 서성거리며 한곳에 몰켜섰다. 중위가 헛방을 갈긴것이 다행이였다. 호송책임자는 이름을 밝히고 군부대번호를 대라고 했다. 그러나 어느새 소동이 일어난 곳에 다가온 대대장 쥬라블레브가 그에게 말했다.

《여보, 포로들이나 데리고 어서 가라구. 그렇지 않다간 사람들이 더 악이 나서 모조리 죽여버릴게요.》

중위는 떠날 차비를 서두르면서 여전히 위협했다.
《당신이 책임질줄 아시오. 어쨌든 난 알아내겠소.》
기차에서 구령이 울렸다.
《공습해제요. 기차에 오르시오.》
와씰리는 또다시 덜컹거리는 전선으로 내달리는 기차에 올라서 차창밖을 유심히 내다보았다. 군데군데 소담한 집들이 있는 촌락이며 확 트인 벌판과 숲이며 공장마당이며 그 어디나 할것없이 고사포병들, 땅크병들, 포병들, 방수포를 씌운 자동차며 짐수레들로 차서 군대가 없는 곳이란 거의 없었다.
(우리는 그렇게도 많은 사람과 그렇게도 많은 전투기재들을 가지고있어도 포로병들은 불과 한줌도 못된다. 어찌된 일일가? 어떻게 놈들이 우리를 치고있는가?!) 하는 생각에 와씰리는 심장이 쓰리였다.
폭격이 있은지 얼마 안가서 기차는 멎었다. 미처 몸을 녹일새도 없었다. 벌써 전선에 당도했던것이다.
《내리시오!》
수림속 길가에서 사관장이 탄약을 내주었다. 와씰리는 자기의 《뗴뗴》권총탄갑에 광택이 도는 새 탄알을 재워넣었다. 여기서 점심식사도 했다. 따근따근한 국이며 마카로니(국수의 일종)는 엄동설한에 더 맛있어보였다.
대오는 계속 걸어서 전진했다. 포성이 들려왔다. 전투가 지척에서 벌어지고있었다.
련대는 누군가 미리 파놓은 준비된 전호를 차지했다. 방어준비도 할새 없었다. 한 통신병이 부산스럽게 뛰여오더니 다급하게 말했다.
《중위동지, 수림속에 도이췰란드놈들이 있습니다. 제가 케블선을 따라가다가 끊어진 곳을 발견했습니다. 그놈은 저를 보구 쏘아댔지만 일이 될 때라 헛방이였지요.》
《놈들이 어데 있소?》 꾸르쟈꼬브는 못미더워 물었다.
《동문 우리를 혼란시키는게 아니요?》
《아닙니다. 바로 저 수림속에 있는데요.》

《놈들이 어데서 나타났겠소? 우리가 방금전에 그 수림속을 지나오지 않았소.》
《저를 이렇게 쐈는데두요.》
《몇놈이나 되오?》
통신병은 머뭇거리였다.
《한놈을 봤지요.》
《와씰리동무, 분대를 데리고 숲속을 샅샅이 뒤지시오.》 꾸르자꼬브가 명령했다.
와씰리는 진종일 지치였지만 늘 모범적으로 전투준비를 갖추고있었다.
그는 분대를 데리고 대오의 앞장에서 통신병을 따라 걸음을 재촉했다. 통신병은 계속 주절거리였다.
《글쎄 그놈이 제가 이 벌판에 나서자 땅 하고 쏘질 않겠어요. 케블선을 따라 걸어가는데말입니다.…》
《그런데 동무 왜 쏘질 않았소?》
《글쎄 제 총은 이렇게 잔등에 멘채로 있었으니깐요.》
《냉큼 벗길 노릇이지.》
《글쎄 벗긴 벗었지만, 한편 거기에 몇놈이 있겠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혹시 한개 륙전대가 아닌지? 나를 죽이게 되면 아군이 그놈들을 발견할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고하기로 작정했지요.》
《잘했소.》
와씰리와 그의 대원들은 수염이 꺼칠하여 나이들어보이는 포병상사를 만났다.
《중위동지, 도이췰란드놈들을 찾아갑니까?》
《동무 그걸 어떻게 아오?》
《그건 〈우리〉 도이췰란드놈이니까요.
그놈의 비행기를 우리가 맞혔는데 아, 글쎄 그놈이 락하산을 타고 뛰여내리질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놈을 포위하고있었지요. 탄알이 다 떨어질 때까지 내버려두자구.… 자, 보시오. 그놈이 코앞에 있는걸.》 상사는 해빛에 눈이 부신 어린 전나무숲속에 시

선을 던지였다. 거기서 권총소리가 들려왔다.
《탄알을 다 쏘게 하라지요.》
《동문 왜서 통신병을 그놈한테로 가게 그냥 내버려뒀소?》
《아니, 그래 자네가 빽소니치다니?》 상사는 통신병을 보고 웃었다.
《우린 저 동무를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중위동지, 저 동무는 길로 간게 아니라 무인지경으로 갔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발견 못했습니다. 그가 우릴 부르더군요. 아마 도이췰란드놈들을 찾는 모양이지요.》
《상사동무, 통신병이 없으면 도이췰란드놈도 종적을 감출수 있소. 게다가 벌써 땅거미가 지고있는데 당장 체포합시다. 그놈이 혼자라는게 사실이요?》
상사가 확신성있게 대답했다.
《산개대형으로 벌렷!》 와씰리가 구령을 쳤다.
《사격은 머리우에 대고 하시오! 그놈을 땅에 바싹 붙이여 옴짝못하게 합시다. 잘하면 생포할수도 있소.》
병사들은 격발기를 철컥거리며 중위를 의아하게 쳐다보았다.
《쏘랍니까?》
《사격!》
수림에 대고 사격을 퍼부었다. 대응사격소리는 산울림처럼 멀리서 들려왔다. 전사들은 눈우에 떨어진 나무껍질을 와락와락 밟으며 수림속으로 걸어갔다.
《또 쏘랍니까?》 중위옆에 있던 병사가 활발하게 물었다.
《물어볼게 있소? 전쟁하러 왔는데 어서 쏘시오!》
병사들은 키득거리였다. 그들은 만족스러운듯 울창한 수림속을 향하여 무질서하게 사격했다.
와씰리는 대응사격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런데 방금 총을 쏘라는가고 물어보던 그 병사가 갑자기 앗! 하고 꼬꾸라졌다.
《웬일이요?》
《뭣이 때린것 같습니다.》 병사가 넙적다리에 손을 눌렀다가 뗐다. 손에는 피가 묻어있었다.

《전 부상당했습니다. 중위동지.》병사는 놀라운 표정으로 면구스러워하며 말했다.
《어서 붕대를 감으시오. 당장 그놈을 체포합시다. 앞으로!》와씰리는 부상자가 병사들의 사기에 영향을 줄가봐 걱정하는듯 명령조로 웨쳤다.
《앞으로!》그들은 수림을 향하여 달려갔다.
《중위, 중위동지!》포병상사가 와씰리를 부르며 그의 자취를 따라 성급히 달려왔다.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중위동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죽여서는 안됩니다.》
와씰리는 치밀어오르는 분으로 하여 부들부들 떨고있었다. 전나무숲을 지나가면서 그는 문득 자기앞에서 도이췰란드놈을 발견했다. 몸에 걸친 비행사복은 갈기갈기 찢겨지고 곳곳에 불에 그슬린 흔적이 있었다. 흰머리카락은 바람에 헝클어지고 파란눈에서는 공포심을 조금도 찾아볼수 없었다. 비행사놈은 탄알이 다 떨어진 모양 칼을 들고있었다.
와씰리는 병사들에게 소리쳤다.
《쏘지 마시오.》그는 도이췰란드놈이 당장 칼을 쓰며 달려들 순간에 생포해야 하겠는지 어떻게 해야 하겠는지도 모르면서 스스로 멈춰섰다.
포병상사는 미소를 감추고 병사들에게 다가서며 태연스럽게 말했다.
《총을 인주시오.》
참나무막대기처럼 총을 으스러지게 틀어잡은 상사는 침착하게 마치도 이런 일을 여러번 해보기나 한듯 자신있게 도이췰란드놈을 맞받아나가더니 그놈이 칼을 휘두르는 순간 총탁으로 적의 목을 조심스레 내리쳤다.
《이젠 잡아가십시오.》
그들은 비행사놈의 팔을 부축하여 전호까지 끌고왔으나 그놈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와씰리는 기쁜 마음으로 꾸르쟈꼬브에게 보고했다.
《중위동지, 당신의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도이췰란드놈을 생포했

습니다. 우리한테 부상병이 한명 생겼습니다.》
《누가 부상당했소? 어딜?》
《그의 이름을 직접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다리를 좀 다친것 같습니다. …》 와씰리는 조금도 어색해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이 모든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로 생각되였다. 중요하게는 그가 도이췰란드놈을 생포하지 않았는가? 그것도 비행사를!
꾸르쟈꼬브는 로골적으로 와씰리의 공로를 무마시키려는듯 제기된 모든것을 일일이 캐물었다.
《부상병은 어데 있소?》
《데리고 옵니다. 뒤에 좀 떨어졌습니다.》
《붕대는 감았소?》
《네, 감았습니다. 도이췰란드놈을 좀 보십시오. 혹시 장교가 아닌지.》
《봐선 뭘하겠소. 저따위 더러운놈을 죽여버리지 않은게 유감이요. 이젠 저놈이 후방에서 동무 어머니가 만든 더 좋은 흘레브를 먹게 될거요. 나같으면 저따위 악귀들을 한놈도 생포하지 않았을거요.》
그러는사이에 비행사놈은 정신을 차렸다. 그놈은 눈우에 주저앉아서 피발이 선 눈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자기를 주시하고있는 병사들을 휘둘러보더니 갑자기 검댕이 묻은 더러운 손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흐느껴울기 시작했다. 와씰리는 그놈이 몹시 가련해보였다.
그놈은 좀 우는척하다가 벌떡 일어나서는 집회에서 연설하듯 무슨 말인지 한바탕 고아댔다. 다행히도 와씰리는 학교에서 도이췰란드말을 배운적이 있어서 개별적인 말마디를 알아듣고 대체로 그 뜻을 분간했다.
《난 너희들이 무섭지 않다. 이 로씨야돼지들아! 난 소좌 슈랑케다. 너희들을 경멸한다. 난 얼마전에 총통을 직접 만났댔다. 난 십자훈장수훈자란말이다. 난 죽는것이 두렵지 않다. 하일 히틀러! 하일! 하일!…》
와씰리는 포로병의 무례한 행동에 몹시 놀랐다. 로씨야사람들은 지금 비행사놈이 쓰디쓴 참패에 대하여 얼마나 번민하고있는가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불행은 추락된 거기에만 있는것이 아니였다.

며칠전에 이런 사실이 있었다.

이른 아침에 히틀러는 《텔레푼켄》상사의 선물을 가져다놓은 으리으리하고 번지르한 응접실로 다가가 문손잡이를 돌리였다. 방안에서는 씩씩하고 박력있는 로씨야군대의 행진곡이 울리였다. 음악을 통하여 위풍당당하게 지나가는 세찬 발걸음소리가 새여나오고 분간하기 힘든 말소리와 멀리서 울리는 구령소리가 들려왔다.

히틀러는 즉석에서 모든것을 알아차리고 재빨리 전화기에 다가섰다. 측근자들을 욕하자면 시간이 없었다. 그는 중앙군 참모부의 보크원수를 당장 호출하라고 명령했다. 누군가 응답하는 목소리를 들은 그는 상대를 놀래울가봐 억지로 진정하느라고 애썼다. 그렇지 않으면 만사가 곤경에 빠질것이다. 그래서 그는 침착하게 말을 꺼냈다.

《나요. 히틀러요. 린접 폭격기사단에 대시오.》

송수화기에서는 《알았습니다.》라고 응답했다. 히틀러는 얼마동안 말이 중단된 사이에 교환대의 잘칵거리는 소리를 듣고있었다. 그는 이 짧은 순간에도 교환대가 높은 속도로 개페되듯 그렇게 급속히 분이 치밀어올랐다. 《죽일놈들, 빨갱이들이 속이더니 이제는 제편두 속이구있어? 어디 두고보자. 본때를 보여줄테다!》

송수화기에서는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다.

《총통각하, 각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나요.》 히틀러가 말했다.

《게 누구요?》

《제 12 폭격기 사단장 대좌…》

《당신은 사단장이 아니라 하늘소요. 하늘소란말이요. 당신의 코밑에서 로씨야인들이 열병식을 하고있는데 당신은 돼지처럼 자빠져서 잠이나 자는가?》

《하지만 총통각하, 날씨가… 날씨가 비행에 불리하게… 눈이 내리고…》 사단장은 떠듬거리기 시작했다.

《우수한 비행사들은 어떤 날씨에도 비행하고있단말이요. 내가 그걸 증명해주겠소. 당신의 사단에서 제일 우수한 비행사를 골라 즉시 나에게로 보내시오.》

우수한 비행사들은 어딘가 멀리 떨어진 련대비행장에 있었다.
대좌는 뱀처럼 끔찍한 송수화기를 보면서 사무실에 우연히 들어온 장교를 눈짓으로 불렀다. 장교는 사단장이 누구와 말하고있다는것을 눈치채고 대뜸 씩씩하게 자기를 소개했다.
《상위 슈랑케가 전화받습니다.》
히틀러는 치밀어오르는 울분을 누르며 아주 상냥스럽게 말을 뗐다.
《친애하는 슈랑케씨! 당신은 벌써 상위가 아니라 대위요. 또 대위가 아니라 소좌란말이요. 내 손에는 무사도십자훈장이 있소. 폭탄을 퍼부으시오. 난 총통으로서 이것을 부탁하자구 하오. 난 언제든지 그 공적을 잊지 않겠소.》
《당장 뜨겠습니다. 총통각하!》 슈랑케는 목청껏 응답하고 출입문으로 달려갔다. 그의 머리속에는 무지개같이 희한한 화면이 언뜻거리였다. 그는 붉은광장에 폭탄을 던진다. 총통이 그에게 무사도십자훈장을 수여한다. 그옆에는 항공원수 게링그도 있다. 또 그리고… 정말 총통자신이 《그 공적을 영원히 잊지 않겠소.》 하고 말한 후에 뒤이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예견할수 있겠는가?
송수화기에서 탁탁거리는 소리를 듣고 사단장은 송수화기를 귀에 가져다댔다. 그러자 자기를 찾는 히틀러의 목소리가 들리였다.
《사단장, 사단장이요? 당신은 어데 갔댔소?》
《여기 있습니다. 총통각하.》 사단장은 주눅이 든 목소리로 겨우 대꾸하고나서 울적한 기분으로 (나를 당장 강직시킬것이다.)라고 생각했다.
히틀러는 사실상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요. 돼질놈같으니. 사단장, 당신은 대좌요. 아니 대좌도 아니요. 알짜 보급부대 장교란말이요!》 하고 소리치고싶었다. 하지만 히틀러는 지금 중요한것이 열병식폭격을 성공하는것이며 누구를 강직시키고 새로 임명할 겨를도 없으며 자기 목숨을 걱정하는 그 바보사단장이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도록 자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단장, 난 당신에게 자기 죄를 씻을 절호의 기회를 주겠소. 만일 당신이 붉은광장에 폭탄을 던지지 못하는 날에는 당신을 강직시키고 직무에서 해임시키겠소. 당장 내가 보낸 무사를 따라 당신의 모든 련합부대를 총출동시키시오. 당신이 직접 지휘하시오. 직접말이요. 돌아온 후 당신의 보고를 기다리겠소. 다요.》

몇분 지나서 햇내기소좌 슈랑케는 벌써 공중에 올랐다. 그는 자기 뒤를 따라 석대의 다른 폭격기들이 리륙하는것을 보았다.

《어쨌든 내가 선참이니까. 아무튼 총통은 나만을 기억하고있을게다.》하며 슈랑케는 운이 텄다고 생각했다. 구름이 어찌나 짙었던지 사위를 분간할수 없었다.

《일없어. 이건 나한테 더 좋아. 라침판과 목측거리를 따라 가면 돼.》 하고 슈랑케는 명랑하게 자신을 위안했다.

그는 항법사에게 목표에 정확히 진입하기 위한 계산을 잘하라고 명령했다.

슈랑케는 벌써 라지오방송과 영화, 신문들에서 단신으로 붉은광장을 폭격한 공중전의 맹수 슈랑케의 무사도다운 위훈이 소개되는것을 상상해보았다. 하지만 슈랑케는 모스크바까지 가지도 못하고 비행기와 함께 추락되였으며 그밖의 스물다섯대의 폭격기들이 불타고 나머지것들은 구사일생으로 도망쳤다.

슈랑케는 그토록 짧은 시간에 총통과 한 담화, 훈장, 소좌칭호, 휘황한 미래에 대한 기대와 어긋나게 포로냐 아니면 죽음이냐 하는 생사기로에서 밀려드는 정신적충격을 차마 이겨낼수가 없었다.

모든것이 공중루각처럼 허물어졌다. 히틀러와 담화하기전보다 훨씬 더 신세가 가련하게 되였다. 슈랑케는 분명 정신이 나간것 같았다.

그는 히스테리처럼 소리치기도 하고 엉엉 울기도 하면서 나중에는 벌렁 나가자빠지더니 경련을 일으켰다. 어느새 입술에는 희끄무레한 피거품을 물고있었다.

《에잇, 미치광이같은 자식!》와씰리는 당황해하며 말했다.

《자, 보시오. 동문 그놈때문에 한 전사를 부상시키지 않았소.》 꾸르쟈꼬브가 책망했다. 《부상자와 그놈을 후송하시오.》

×　　　×

밤에 꾸르자꼬브중위는 소대장들을 자기 감시소로 불렀다.

《전사들을 집합시키시오. 30분 지나서 1선전호로 갑시다. 거기서 살아남은 동무들과 교대합시다. 우리가 맡은 구역은 바로 여기요.》

꾸르자꼬브는 지도에서 중대의 방어선과 각 소대가 차지할 위치를 짚어갔다.

《현지에서 확정합시다. 자, 동무들. 래일 우리는 첫 전투를 하게 됩니다.》

중대는 야음을 타서 군데군데 끊어져나간 오솔길을 따라 전진했다. 눈밑에는 마가을부터 얼어붙은 울퉁불퉁한 흙무지들이 있었다. 앞은 쥐죽은듯 고요하고 캄캄했다. 이따금씩 예광탄이 백광을 그리며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전방이 가까와질수록 고인물이 얼어붙은 해묵은 크고 작은 웅뎅이들과 갓 생겨난 시커먼 웅뎅이들이 수두룩하였다. 파편에 아지들이 모조리 떨어져나간 나무들이 기둥처럼 서있고 검은 연기가 떠도는 두개 구역과 함께 와씰리는 뻬치까를 때고있는 자그마한 집을 접수했다. 그것은 집이 아니라 불에 타다남은 땅크들이였다. 와씰리는 1선전호가 텅 비여있는것으로 생각했다.

《누가 여기서 싸웠을가? 왜서 파쑈놈들이 전진못하고있을가? 여긴 아무도 없는데.》

그러나 전호의 세번째 굽인돌이에서 나이는 딱히 알수 없는 한 전사를 발견했다. 그는 면도를 하지 않아 수염이 더부룩하고 얼굴에 물과 비누를 칠한지도 퍼그나 오래된것 같았다.

모자귀를 아래로 내리워 끈으로 동여매고 흙투성이가 된 군용외투를 걸친 그는 성에가 뽀얗게 낀 가슴을 내놓고 앉아있었다.

《동문 혼자 있소?》 와씰리가 의아해서 물었다.

《왜 혼자겠소. 다른 동무들은 휴식하고있지요. 바로 저기 토굴안에서말이요.》

《어딘지 보여주시오. 우린 동무들을 교대하러 왔소.》

《그렇다면 좋소. 교대하러 갑시다. 그런즉…》하고 전사는 방수포

로 입구를 가리운 토굴에 다가가서 그것을 제끼고 컴컴한 구멍에 대고 소리쳤다. 《여보게들, 어서 나오라구. 교대가 왔네!》
토굴에서는 추위에 얼굴이 꽛꽛해진 네명의 병사들이 흙물에 얼룩진 외투를 입고 기여나왔다.
《교대요?》 한 전사가 물었다.
《자, 받으시오. 누가 상관이요?》
《소대장 중위 와씰리 로마슈낀.》
《소대장 전사 게라씨모브입니다.》
《중위동지, 구역을 보여주겠습니다.》
와씰리는 그를 따라 전호를 돌아보았다. 이곳 전호들은 교육용처럼 평탄하게 깊이 파놓은것들이 아니였다. 그것들은 포탄에 얻어맞아 여기저기가 터져나가고 어떤 곳은 반나마 묻혀버리고 모퉁이들이 무너지고 흉장밑에는 깊은 구멍까지 나서 형체를 가려보기 힘들었다.
게라씨모브는 힘든 작업을 하고나서 몹시 지친 사람처럼 천천히 기우뚱거리며 걸어갔다. 그는 주인답게 간단히 중위에게 설명해주면서 말할 때는 내무규정대로 《당신》이라고 하는것을 모르는듯 《자네》라고 했다.
《자네앞에는 평지가 있네. 땅크들이 거침없이 밀려올수 있거든. 오른쪽에는 골짜기가 있네. 거기에는 아군의 전호가 없지. 이를테면 린접파의 련계는 끊어진셈이요. 골짜기릉선에는 보병을 위해 중기관총을 배치하라구. 반땅크지뢰들은 이미 매설되였네. 폭격이 있거나 포병이 위협사격을 하면 인원들은 저 구멍으로 해서 들어가면 되네.》
그는 전호앞벽에 난 구멍을 가리켰다.
《땅크들이 머리우로 막 넘어갈 때면 저기 저 구멍에서 인화병을 준비했다가 자, 보라구, 이렇게 머리우로 던지게. 자칫하면 휘발유벼락을 맞을수 있네. 그러니 땅크대신에 자기가 타죽을수 있다는걸 명심하게.》
토굴로 돌아온 와씰리는 마치 상학이나 받은듯이 방어략도를 그리고 인계인수수표를 하려고 했다.
《아무 소용도 없는걸 괜히.》 게라씨모브가 말했다.
《난 그런 략도를 볼줄 모른다니까. 중위동무, 진지는 인계한셈이요. 우리가 진지를 고수했으니 이젠 자네가 교대할 때까지 고수해야

되네. 자, 잘 있게, 다시 만나자구.》
《어디 자네 소대가 있나?》
《소대는 바로 이거요. 이게 전부요. 사흘전만 해두 우리한테는 중위도 있었구 특무상사도 있었지요.…》
게라씨모브는 손을 흔들어 인사했다. 네명의 병사들이 그처럼 비칠거리면서 뒤를 따라갔다.
와씰리는 그들의 뒤를 바라보면서 연기에 그슬려 볼품없이 된 병사들이 무슨 힘으로 도이췰란드놈들의 기계화부대를 막아냈겠는가고 생각해보았다.
그는 전선영웅들을 장수로 여기였다. 그는 처음에 꾸르쟈꼬브를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여 싫어했다. 이제와서는 게라씨모브와 같이 순박한 병사들이 파쑈놈들을 족치고있다고 확신하게 되였다.
와씰리는 그 열정적이고 두려움을 모르는 기상을 가진 전사와 헤여지게 된것을 아쉬워했다.
그것은 죽음앞에서도 인간은 훌륭한 미래를 갈망하고있기때문일것이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의 죽음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전혀 무관심한듯싶었다.
와씰리는 전호에 분대들을 배치하고 기관총화력진지를 선택한 다음 감시병들을 임명했다. 그는 (잠복초소를 파견해야 한다. 별안간 놈들이 들이닥칠수 있으니까.)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상야릇하게 캄캄한 중립지대를 바라보고나서 그는 어디에 무엇이 있는가를 확정한 다음 래일 보내자고 결심했다.
새벽까지 와씰리는 종시 잠들수 없었다. 처음에는 꾸르쟈꼬브가 와서 방어선을 차지한 상태를 검열했다. 그후에 키가 크고 파리해보이는 대대장 쥬라블레브대위가 내려와서 시찰하고갔다. 그가 돌아간 다음부터는 좀처럼 자리에 누워있을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냥 엄페호에서 나와 귀를 강구고 캄캄한 전방을 주시하며 서있었다.
금방 파쑈놈들이 기여와 전호에 뛰여들것만 같았다.
그러나 여전히 쥐죽은듯 고요했다. (설마 놈들이 여기 새까만 벌판에까지 그렇게 바싹 다가올가?) 하고 와씰리는 생각했다.
(일없어. 래일이면 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자. 어서 잠이나

자자.)

동녘이 푸름푸름 밝아올 때에야 와씰리는 담배연기가 자욱한 캄캄한 토굴안에서 모든것을 잊고 그만 곯아떨어지고말았다.

와씰리는 요란한 폭음에 소스라쳐 깨났다. 출입구를 가리운 천막모서리를 통하여 아침해살이 스며들었다. 산들이 당장 무너져내리는것 같아서 밖으로 나가기가 무서웠다. 와씰리는 권총을 뽑아들고 훌쩍 뛰여나갔다. 머리우에서는 귀청을 째는듯한 요란한 소리가 울렸다. 온몸의 힘살이 뻣뻣해지고 땅에 잦아드는것만 같았다. 와씰리는 몸을 움츠리고 가까스로 힘을 모아 하늘을 쳐다보았다. 폭격기들이 깜장새들마냥 쏜살같이 아래로 내리꽂히고있었다.

비행기는 련발사격을 하면서 기우뚱하더니 밭에 씨를 뿌리듯 폭탄을 내던지고는 부랴부랴 날아갔다. 떨어지는 폭탄들은 비행기의 동음처럼 앵앵거렸다. 순간 사방에서 쿵쿵하며 폭탄이 터졌다.

땅이 울리고 파헤쳐지면서 여기저기서 화염이 일더니 흙먼지가 하늘로 타래쳐올랐다.

산너머에서 또다시 비행기들이 날아와 앵앵거리면서 가파로운 산언덕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듯 아래로 내려꽂히는것이였다.

《도대체 몇대나 되는지? 좀 세여나 볼가?》하고 와씰리가 머리를 비스듬히 쳐들고보니 폭격기들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것들은 유희장의 회전마처럼 줄을 지어 쉴새없이 선회하였다.

한 편대가 지나가면 다른 편대가 꼬리를 물고 나타나 폭탄을 떨구군했다.

폭발로 하여 생긴 매캐한 연기와 화약냄새가 전호안에 확 풍기였다.

폭탄을 던진 편대가 날아가면 와씰리는 조금이나마 안도의 숨을 내쉴수가 있었다.

그러나 폭탄이 터지는바람에 땅은 온통 벌둥지처럼 되고 대지가 진동하면서 시커먼 흙먼지가 부채모양으로 련속 치달아올랐다.

《도대체 폭탄이 어디서 날아든담? 비행기들은 다 가버렸는데…》하고 와씰리는 의심쩍은 생각이 들었다가 인츰 포사격을 하고있다는것을 깨달았다.

두개의 포탄이 전호에 날아들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순간 다른 포탄이 또 터지는바람에 그 비명은 간데없이 사라졌다. 《혹시 누가 죽은게 아닐가?》 와씰리는 가슴이 섬찍했다.

갑자기 《오른쪽으로 땅크들이 온다.》 하는 외마디소리가 울렸다. 와씰리는 정신을 가다듬고 꼼꼼히 생각해보았다. (비행기가 폭격하고 포사격을 한것이 바로 여기로 땅크와 보병을 들이밀자는것이였군. 내가 지휘관인이상 한놈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전방은 온통 뿌연 연기로 뒤덮여 공격해오는 놈들을 전혀 가려볼수가 없었다.

드디여 와씰리는 구령을 내렸다.

《전투준비! 수류탄준비!》

와씰리는 저도 모르게 무서운 생각이 들었지만 아직도 위훈을 세워보려는 불타는 열정과 희망은 사그러지지 않았다. 《이제 내가 본때를 보여주마.》 하고 와씰리는 사위를 둘러보았다. 누가 그의 용감성을 평가해줄것인가? 전호에는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구멍에 들어박혀있었던것이다. (그럼 누가 땅크가 온다고 소리쳤는가? 아마 감시병일수도 있다. 나는 그들이 구멍에 들어가 숨는걸 금지했댔지.)

포탄이 전호앞에 날아와 터지면서 흙덩이와 파편을 사방으로 줘뿌리기도 하고 시커먼 눈무지들을 산지사방으로 파헤쳐놓기도 했다.

총알이 우박치듯 연방 날아들었다.

와씰리는 전호앞을 내다보기가 께름직했다.

하지만 그는 머리를 들고 거연히 일어섰다.

처음에 와씰리는 벌둥지처럼 파헤쳐진 웅뎅이와 흰눈이 깔린 중립지대에서 어지러운 벌판밖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어디에 땅크가 있는가? 아! 저기 있군.》

와씰리는 멀리서 성냥갑 같은것이 움직이는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장기판을 그리듯 석줄로 나란히 기여오고있었다. 퍼그나 많았다.

모두가 와씰리중위의 소대를 향하여 오는것 같았다. 적 보병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포탄터지는 소리가 와씰리의 귀청을 째는듯했다. 그는 벌렁 나가

넘어지면서도 전호끝의 토굴에서 통나무들이 부서져 날아나는것을 볼수 있었다. 그것들은 진짜나무가 아닌듯 가볍게 허공으로 날아올랐다가 떨어졌다. 사위는 온통 연기로 뒤덮여있었다. 와씰리는 비칠거리면서 가까스로 일어나 토굴로 갔다. 눈앞에서 벌어진 살벌한 광경은 그를 망연하게 만들었다. 병사들은 자기의 용모를 다 잃어버리고 벽에 의지하여 서있었다. 새까맣게 탄 통나무에는 불그스레한 피자국도 있었고 그 무슨 새하얀 헝겊쪼각같은것도 붙어있었다. 와씰리는 더럭 겁이 나서 한옆으로 비켜섰다. 전호로 달려가는 그의 발길에는 희생자와 부상자들이 결치군했다. (난 누굴 데리고 싸운단말인가? 놈들은 아직도 멀리에 있는데. 소대는 벌써 형체없이 되지 않았는가?) 하고 절망적인 생각에 잠긴 와씰리는 그제야 비로소 신문들에서 대포옆에 혼자 남아 싸운 포병이며 단번에 두정의 기관총으로 사격한 기관총수며 혼자서 세대의 적땅크를 맞받아나간 병사들의 용감성에 대하여 쓰고있는 까닭을 알게 되였다. (놈들이 제아무리 폭탄과 포탄으로 흙속에 뒤섞어놓는다해도 우리는 오직 공격할것이다! 하지만 놈들과 어떻게 싸운단말인가? 놈들은 전호에 산 사람이 얼마 남지 않으면 당장 쳐들어올것이 아닌가? 도대체 우리 비행기와 대포는 어데 있는가? 왜 우리를 엄호하지 않는가?)

와씰리는 십자모양의 검은 비행기들이 떠돌고있는 하늘가를 바라보았다.

《틀림없이 비행기다.》 가까이 기여오는 땅크들사이에서는 시커먼 흙덩이들이 분수처럼 연방 솟구쳐올랐다.

벌써 땅크 한대가 연기에 휩싸여있었다.

(틀림없이 우리 포병이 답새기고있다. 그런데 내가 왜 당황해할가? 대원들을 잃었다구?…) 와씰리는 자기 소대와 교대하던 다섯명의 병사들을 회상했다. (그들은 진지들을 사수하지 않았는가! 우리라구 지켜내지 못할게 뭐람?) 그는 전호로 걸어가면서 소리쳤다.

《성한 동무들은 대답하시오!》

《제가 살아있습니다. 오쁠레뜨낀!》

《저 역시. 끄루쥘린.》

《저두 아직은 성합니다. 중위동지.》

《여기두 살아있습니다.》 깊은 굴속에서도 응답했다.

와씰리는 마음이 좀 놓이는듯했다. (전우들이 있다. 싸움할 전우들이 있다.)

《아직은 전호에 앉아있으시오.》 와씰리가 명령했다. 《놈들이 바싹 다가오면 신호를 하겠소.》

《중위동지는 자신을 매장하자구 그럽니까. 감시병들두 있는데.》 오쁠레뜨낀이 귀띔해주었다.

《감시병들은 이미 전사하고 없소.》 와씰리는 시체들을 보면서 말했다.

헐떡거리며 뛰여오던 꾸르쟈꼬브는 자기의 예민한 시선으로 와씰리와 중립지대 그리고 땅크들과 전호들을 단숨에 빙 둘러보았다.

그는 젊어진듯했으며 얼굴에는 미소까지 어려있었다. 와씰리는 그처럼 명랑해진 꾸르쟈꼬브를 처음 봤다.

《그래 여기 일은 잘되오?》 꾸르쟈꼬브는 자기들사이에 반감도 다툰적도 전혀 없었던것처럼 쾌활하게 물었다.

《두고봅시다.》

《당장 밀려오고있는데 다친 사람들은 없소?》

《벌써 소대의 절반은 없어졌지요.》

《아직은 일없소. 다른덴 형편이 더 나쁘오.》 꾸르쟈꼬브는 심중한 표정을 지었다.

《자네 친구들인 까라뻬짠과 씨니쯔끼와 싸부로브는 이미 대오에 없소.》

《부상당했습니까?》 와씰리가 물었다.

《전사했소. 자, 땅크를 까부실 준비나 하기요. 인화병과 수류탄묶음을 손으로 던질수 있게 해야 하오.》 꾸르쟈꼬브는 다시금 빙그레 웃으며 와씰리가 쥐고있는 권총을 흔들면서 명랑하게 말했다.

《동무는 그 장난감을 감추라구. 자, 희생된 전우들의 보충을 찾아잡소. 보충이래야 적을 더 많이 잡을수 있소. 육박전에서두 믿음직하구. 괴상하긴 하지만 지휘관은 대원들보다 사격은 더 많이 하는데 규정에는 보충이 해당되지 않거든. 그럼 됐소. 꼭 지켜내시오. 한걸음도 물러설수 없소. 만약 경우에 련락병을 보내시오.》 꾸르쟈꼬

브는 허리를 구부정하고 교통호를 따라서 되돌아갔다.
와씰리는 전우들이 희생되였다고는 생각할수 없었다. 까라뻬짠이 어디선가 멀리서 영채도는 새까만 눈으로 자기를 지켜보는것만 같았다.
곁에서는 씨니쯔끼가 호탕하게 웃고 또 싸부로브가 희끄무레한 눈섭을 찡그리고있는듯싶었다.
(정말 그들이 전사했단말인가?
그럼 지금 그들은 어떻게 되였을가?
그건 알아 뭘한담? 전우들의 숨결은 멎었고 미소도 사라졌는데.)
적땅크들이 전호를 향하여 바투 기여오고있었다. 도이췰란드놈들의 대포와 박격포사격에 합세하여 땅크포들이 짖어대기 시작했다. 쿵— 쾅, 쿵—쾅 숨돌릴틈도 없었다.
와씰리는 권총을 집어넣은 다음 희생된 감시병의 보총을 잡고 참호앞턱에 벌떡 뛰여올랐다.《보병은 어데 있는가? 그렇게도 우리를 치지 못해 발악하는 그 개놈들이 어데 있는가?》
땅크뒤에서는 풀색나는 군복을 입어서 가려보기 힘든 자동총수들이 산개대형으로 따라오고있었다. 놈들은 자동총탁을 배에 붙이고 련발사격을 했다. 와씰리는 더럭 겁이 났다. 그를 놀라게 한것은 땅크들이나 산개된 보병이 아니라 그들의 덤덤한 태도였다. 신문 풍자만화에서 본 비겁한놈들이 아니라 진짜백정들이 다가오고있었다.
놈들은 일터로 나가듯 태연스럽게 걸어오고있었다. 《전투준비!》하고 와씰리는 총탁을 어깨에 지그시 가져다댔다.
《파쑈놈들을 향하여!》하고 자신과 흉장우로 솟구쳐오르는 대원들에게 구령을 쳤다. 대원들은 모두가 이미 중위가 자기들을 포사격으로부터 구원했으며 이제 명령만 내리면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와씰리는 손이 떨려서인지, 땅이 진동해서인지 풀색나는 놈들을 조문으로 도무지 포착할수 없었다. 포탄이 가까이 날아와 터지는바람에 그는 풀썩 주저앉지 않으면 안되였다. 자리에서 비스듬히 일어서자마자 왼쪽에서 또 다른 포탄이 날아와터졌다. 미처 허리를 펼새가 없었다. 머리우로는 총알이 픽픽 소리를 내면서 전호앞턱에 박히

였다.

(이젠 놈들이 당장 머리우로 쓸어들텐데, 머리를 쳐들 틈을 조금도 주지 않는군.…)

와씰리는 다시 소리쳤다.

《사격!》

대원들은 총을 앞에 내대고 있는 힘을 다하여 마구 사격했다.

1선에 선 땅크들이 턱밑에 다가왔다.

보병은 3선에 있는 땅크들의 뒤에서 따라오고있었다.

와씰리는 세대의 땅크가 자기를 겨냥하고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여전히 자제력을 잃지 않고 구령을 내렸다.

《수류탄과 인화병을 준비하시오.》 하고 구령을 친 와씰리는 자기도 전호바닥에서 묵직한 풀색나는 인화병을 틀어잡았다. 와씰리는 닳아서 반들반들한 무한궤도판을 보자 벌떡 일어났으나 병을 던질 힘이 모자랐다.

금시 맥이 풀리면서 도로 엎어졌다.

땅크가 짜르릉거리며 뜨거운 가스냄새를 풍기면서 전호로 굴러왔다.

(뒤에서 치면 더 좋을것이다. 뒤에는 기관총이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후닥닥 일어서며 어지러운 땅크의 후미에 대고 인화병을 던지였다. 병이 파렬되면서 파편쪼각들이 쨍그렁소리를 냈다. 그러나 와씰리가 고대하던 불길은 일어나지 않았다. 1선에서 오던 땅크들이 성한채로 전호를 유유히 통과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왜 땅크들이 불붙지 않을가?》 와씰리는 당황해났다.

그는 사슴뿔처럼 네개의 손잡이를 가진 수류탄묶음을 잡았다. 핑장히 무거웠다. 와씰리는 멀어져가는 땅크의 뒤를 따라가며 수류탄묶음을 던졌다. 그러나 그것은 절반도 가지 못하고 그만 눈우에 떨어지고말았다. 그는 파편에 맞을가봐 냉큼 그자리에 꿇어엎디였다.

2선에 있는 땅크들이 역시 짜르릉거리며 기여오고있었다. 발동기의 소음속에서도 보병들의 고함소리가 간간이 들려왔다.

이때 꾸르쟈끄브가 땅밑에서 솟아나오듯 벌떡 일어섰다.

《이게 무슨 일이요? 젠장, 전호에선 잠을 잤소? 왜 땅크들을 통과시켰소?》와씰리를 본 꾸르쟈끄브는 놀랄 지경이였다.

《동무는 살아있는데 어떻게 땅크를 통과시켰소? 죽여버릴테요.》

꾸르쟈끄브가 소리쳤다.

《내가 직접 던졌는데 불붙지 않습니다.》와씰리가 송구스러운듯 말했다.

《던지긴 던졌군. 그래 어데다 던졌소?》꾸르쟈끄브는 목에 피대를 세우고 물었다.

마음이 섬찍해진 와씰리는 《병을 던질 때 발동기에 인화물질이 흘러들어가게끔 후미에 던져야 한다.》는 말을 되새겨보았다.

《동무하구 그러구있을 짬이 없소.》꾸르쟈끄브는 인화병을 잡고 땅크의 앞을 가로질러나갔다. 와씰리도 인화병을 쥐고 그의 뒤를 따랐다. 꾸르쟈끄브는 땅크를 통과시킨 다음 인차 가스가 나오는 후미에 병을 던지고 엎디였다. 와씰리도 자기 병을 던지고는 갈데가 없어서 그한테 가서 덮치였다.

잠시후 꾸르쟈끄브가 꿈지럭거리더니 와씰리를 홱 뿌리치며 어이없다는듯 허구프게 웃고말았다.

《왜 그러오?》 와씰리는 어안이 벙벙했다.

《인화병은 수류탄이 아니니 터질리 만무하지. 동무나 나나 다 똑같은 바보란말이요. 터질가봐 냉큼 엎디였으니…》 꾸르쟈끄브는 숨돌릴새없이 전투장의 소음을 누르며 소대에 즉시 구령을 내렸다.

《보병을 향하여 사격.》꾸르쟈끄브는 격발기를 날래게 움직이면서 사격했다.

꾸르쟈끄브는 탄창의 탄알을 다 써버리고나서 물었다.

《동무, 기관총이 어데 있소? 왜 잠잠하오?》

와씰리는 전투를 앞두고 기관총을 배치해놓았던 곳으로 달려갔다.

붕대를 감은 기관총수가 전호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있었다.

《그래, 어떻소? 서있을만 하오?》

《네.》 기관총수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왜 그러구있소? 어서 사격해야지.》하고 재촉하면서 와씰리는 그를 기관총좌지로 부축해주고는 다른 곳으로 달려갔다.
두번째 기관총수는 희생되였다. 와씰리는 풀색나는 목표를 겨냥하고 불을 토했다. 놈들이 허우적거리면서 꼬꾸라졌다. 첫번째 기관총도 련발사격을 했다. 놈들은 땅에 엎드리였다.
《옳지, 성차지 않는 모양이군.》하고 와씰리는 눈우에서 꿈틀거리는 파쑈놈들을 향하여 명중탄을 퍼부었다.
꾸르쟈꼬브는 기쁜김에 달려왔다.
《정말 멋들어지오. 자, 보라구, 놈들의 땅크가 불타고있지 않는가.…》
와씰리는 사위를 둘러보면서 불길에 휩싸여 들판으로 달리는 땅크들을 발견했다. 좌우측에서도 다섯대의 땅크들이 불타고있었다.
포병들이 요정낸것이였다. 포병들은 전호앞쪽에 엎디여있던 놈들에게 불의에 포탄세례를 안기였다. 포사격이 멎는 순간에야 간신히 살아남은 놈들이 불속에서 벗어나 3선에 있는 땅크뒤로 뺑소니를 쳤다. 이때 수림너머에서 날개에 붉은별을 새긴 아군습격기들이 나타나 놈들의 땅크서렬을 향하여 진입했다. 폭탄이 터지면서 번쩍이는 섬광과 파도치는 눈보라, 흙먼지와 연기가 중립지대를 온통 뒤덮어놓았다. 벌판에서는 파괴된 땅크들이 불타면서 매캐한 연기를 내뿜고있었다. 어떤 땅크는 포탄에 얻어맞아 파렬되고 장갑판이 떨어져나가 안에서는 시뻘건 불길이 쏟아져나왔다.
《이렇게 사수해야 하오.》 꾸르쟈꼬브는 만족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명심할것은 앞으로는 모든것을 동무자신이 혼자서 직접 지휘해야 하오. 내가 동무를 대신해서 소대를 계속 지휘해줄수는 없지 않소.》하고 덧붙이고는 돌아서서 자기 감시소로 갔다.
《하필 그렇게 말할게 뭐람?》와씰리는 섭섭하게 생각되였다. (일이 제대로 된것 같다고 하면서두 또 나무란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옳긴 옳아. 그가 없었다면야 일이 순조롭게 끝나지 못했을건 뻔하지 않는가. 그러니 내가 등신이야.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인화병던지는 법두 제대로 모르고있었으니.)

저녁까지 또 한차례의 공격을 물리쳤다. 맥이 빠진 와씰리에게는 외투가 천근같이 무겁게 느껴졌다. (오늘도 우리는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하루 세끼를 다 굶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전혀 먹고싶지 않았다. 그저 따끈한 차라두 한고뿌 있었으면 하는 생각뿐이였다.

와씰리는 살아남은 대원들을 돌아보면서 전사자들을 전호뒤의 후미진 곳으로 옮겨가라고 했다. 부상자들을 점검해보았지만 그들자신이 혼자서 후방으로 떠나갈수는 없었다. 와씰리는 가무잡잡한데다가 해쓱해진 대원들의 얼굴을 보고 자기들도 며칠전에 교대했던 그 전사들과 다른 점이 없다는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지금은 그의 대원들도 그들처럼 피로해서 어기적거리며 흙먼지와 탄내로 덞어진 외투를 입고다니였던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전쟁마당에서 잡부가 된셈이군.) 하며 와씰리는 전쟁이란 자기가 상상하던것과는 전혀 다른것이라고 생각했다. (다른 동무들은 어디서 알았을가? 그들도 전선이라고는 금시 초면이겠는데. 그런데 난 여직껏 왜 그 모든것을 모르고있었을가?)

황혼이 깃들자 련락병이 와씰리를 데리러왔다.

《중대장이 오랍니다.》

와씰리는 감시소에서 세명의 중사들을 만났다. 그들은 새로 임명된 소대장들이였다. 와씰리를 내놓고는 한명의 소대장도 살아남지 못했다.

《내가 동무한테 가봤으면 좋겠지만 동무를 부르기로 했소. 손실을 보고하시오.》 꾸르쟈꼬브는 호의적으로 말했다. 그러나 와씰리는 그가 제일 어려운 순간에 소대를 분주히 오가며 도와주었다는것을 알았다.

첫 소대부터 차례로 보고했다.

《전사자 8명, 부상자 4명입니다.》 와씰리가 말했다.

《부상자는 보통 두배나 더 많은 법인데 동무네는 반대요.》 꾸르쟈꼬브가 대꾸했다.

《토굴에 포탄이 날아든바람에 단꺼번에 여섯명이 잘못됐습니다.》 와씰리는 사실을 론증하려 했다.

《그래 동문 어딜 갔드랬소? 포사격을 할 때에는 사람들을 분산시켜야지.

그래야 직탄에 맞아두 한사람만 잘못된단말이요. 헌데 동무는 그렇게 하지 않아 한개 분대나 단번에 잃었으니말이요.》

꾸르쟈꼬브는 중사들이 있는데서 중위를 욕하려고는 하지 않았지만 교훈적으로 계속 훈시했다.

《그리구 또 일부 동무들은 인화병도 제대로 던지지 못하고있소. 던지긴 하지만 보다싶이 땅크는 불타지 않고있단말이요. 발동기가 있는 부분에 던져야 하는데 포탑이나 무한궤도에 던져서는 소용없소.》

대대장 쥬라블레브가 허리를 구부정하고 토굴로 들어왔다.

《아, 책임자들이 다 모였구만. 때마침 왔는데. 그래 일이 잘되오?

대원들을 제대로 먹이구있소? 희생된 동무들도 다 묻어주었겠지?》

《남은 동무들을 제대로 먹이자구 확인중입니다. 희생된 동무들은 아직 어쩌지 못하고있습니다.》

꾸르쟈꼬브가 대답했다.

《남은 동무들은 몇이나 되오?》

《중대의 절반 인원이 됩니다.》

《땅크를 몇대나 요정냈소?》

《두대입니다.》

《동무네 중대구역에서는 일곱대나 녹아났는데.》

《다섯대는 포병동무들이, 두대는 저의 중대가 소각했습니다.》

《전부 합쳐보시오.》

《저 우리가 두대, 포병이 다섯대… 보고한대로 일곱대가 됩니다. 누구한테 보고하랍니까?》

《동무는 똑똑한체하지 말라구.》쥬라블레브가 쌀쌀하게 말했다. 《일곱대가 소멸됐으니 그렇게 보고하시오.》

《우리는 두대를…》하고 꾸르쟈꼬브는 고집을 부렸다. 그의 코등이 창백해졌다.

《그럼 그만하기요. 수학자동무.》대대장은 성난 기색이였다.
《자, 지도를 받소. 오늘 보내온거요. 3중대에는 참모장이 가져갔소. 난 동무들에게 주자구 가져왔소.》쥬라블레브는 지도를 번지면서 표식을 하나하나 검열했다.
《이건 뭣에 필요합니까?》꾸르쟈꼬브는 모스크바교외구역을 찍은 두장의 지도를 가리켰다.
쥬라블레브는 물음에 담긴 숨은 뜻을 리해하고 즉시 대답해주었다.
《만약 경우를 생각한거요.》
《나에게는 만약 경우란 있을수 없습니다.
우리 소대장들에게 지도를 주지 마십시오.
나는 뒤걸음질하는 사람은 누구건 무조건 총살하겠습니다.》
꾸르쟈꼬브는 대대장에게 모스크바교외지도를 도로 내밀었다.
쥬라블레브는 순간 말없이 그를 지켜보았다.
와씰리는 자기 전호에 돌아와서 꾸르쟈꼬브에 대한 생각만 했다.
(참, 이상한 동문데? 싸움마당에서는 웃고 고요한 정적속에서는 사람들과 으르렁대구, 지어 대대장도 칼날같이 대하니…)
와씰리는 눈우로 걸어가면서 전방 멀리 허공으로 띠염띠염 백광을 그리며 날아오르는 예광탄들을 바라보았다. 와씰리는 첫 전투세례를 받고난 지금은 그만하면 전투가 잘됐으며 자기가 이제는 진짜 화약내 풍기는 화선군인이 되였다고 흡족하게 생각하였다. 그때 별안간 예광탄줄기가 그에게로 날아들었다. 와씰리는 미처 피할새없이 예광탄에 가슴을 얻어맞았다. 그자리에 꼬꾸라진 그는 마치 땅벌에 쏘인것처럼 벌써 심장의 어느 한구석을 갉아먹고 쿡쿡 찌르는감을 느꼈다.
《도대체 이럴수 있는가? 왜 하필 나를?》와씰리는 놀랄지경이였다. 《땅벌》은 눈앞이 아찔해질 정도로 아프게 찔렀다.
소대에서는 와씰리가 중대장한테 가있는줄로 알고있었다. 새벽에야 대원들이 그를 발견하고 폭탄구뎅이로 날라갔다.
꾸르쟈꼬브는 자기 중대의 마지막소대를 살피려고 왔다. 그는 늘 와씰리를 욕하고 자기의 반감도 털어놓았다. 그렇지만 마음속 한구

석에서는 그를 자기 중대에서 가장 능력있는 소대장으로 지목하고있었다. 그의 죽음을 보는 순간 진정으로 애석하게 여겼다. 더우기 그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어서 앞으로는 그가 한몫 하리라 믿고있었다.

꾸르쟈꼬브는 앞호주머니 단추를 벗기고 와씰리의 증명서를 꺼내려고 손을 가슴에 대는 순간 희미한 온기를 감촉했다. 그는 와씰리의 가슴에 귀를 대보았다.

《동무들은 그를 어데로 끌고 가자구 했소?》 결김에 꾸르쟈꼬브는 어리둥절해진 전사들에게 물었다.

《동무네 소대장은 살아있단말이요! 빨리 군의소로 데려가시오. 젠장, 동무들도 슬라브형제들이요?》

《그가 이렇게 온몸이 짯짯해 SSSSSSSS 져서.》

오쁠레뜨낀이 죄송스러운듯 말했다.

《동무자신이 업어보라구.

산 사람을 묘지에 가져가다니.

빨리 날라가시오. 소생할수 있소.》

× ×

눈을 뜬 와씰리는 흰수건을 쓴 나이지긋한 녀인을 보았다.

《응, 이제야 정신이 들었군.》 그 녀인이 말했다. 와씰리는 놀랐다. 도대체 녀인이 나를 어떻게 알가? 나를 《락타새끼》라고 욕하던 그 녀인이…

그런데 어떻게 여기로 왔을가?

와씰리는 낯익은 얼굴을 쳐다보며 물었다.

《그때 군사동원부마당에서 울던 아주머니가 아닌가요?》 그 녀인은 고개를 끄덕이였다.

《옳네. 그게 나였지. 그때 아낙네들이 울면서 자식들을 바래주기도 하구, 죽었다는 전사통지서를 받기두 했지.》

《아니, 전 6월 22일 그때를 두고 말하는겁니다.》

《옳아. 바로 그날이였어.》

와씰리는 자기가 환자이기때문에 그 녀인이 긍정한다고 리해했다.

언제인가 아버지가 앓아누웠을 때 어머니는 아버지가 아무말도 하지 않고 가만있어도 그저 《네, 네.》 하면서 모든것을 긍정하던 일이 생각났다.

그러니 나는 중환자인셈이다.

《내가 지금 어데 와있습니까?》

와씰리는 녀인에게 물었다.

《자넨 야전병원에 와있어, 야전병원에…》

《어느 도시인가요?》

《도시는 무슨 도시겠나. 인쥬쉬끼노마을이라네.》

와씰리는 빙그레 웃었다.

《이름이 참 우습구만요.》

《우습단말이지. 자넨 더 말하지 말라구. 자꾸 말하면 나빠.》

《왜요? 제가 어데 상했길래?》 와씰리는 예광탄이 가슴을 찌르던 일이 문득 떠올랐다. 그는 가슴이 아프게 마른 기침을 했다.

《그 예광탄을 빼내주시오. 예광탄을!》 하고 그는 신음소리를 냈다.

《다시금 예광탄얘길 하는군요. 마리야 니끼포로브나.》 곁에 있던 간병원이 말했다.

《그건말이지.》 마리야는 베개를 바로 잡아주면서 응답했다.

《벌써 정신이 든다는건 회복된다는걸 말해요.》

와씰리는 최전선에서 약 20키로메터 떨어진 야전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다.

이곳에는 후방으로 후송할 필요가 없는 경상자들뿐아니라 적당한 수송수단이 없어서 그럭저럭 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별의별 부상자들이 다 있었다. 중한 상태에서 벗어나면 인차 후송해갔다. 와씰리는 부상이 아니라 감기와 심한 출혈로 하여 입원한 《중환자》였다.

와씰리는 인차 회복되기 시작했다. 지금은 그전처럼 심한 혼수속에서 헤매는 일이 없이 늘 정신을 차리고있었다. 오직 고통스러운것

은 가슴을 허비는 기침뿐이였다. 기침때문에 상처가 쓰려나고 출혈이 더 심해졌다.

견장을 단 군복우에 흰 위생복을 껴입은 나이지긋한 군의가 쾌활하게 말했다.

《참 놀라운 일이요! 평화적시기라면 꽃다발을 받을 사람이요. 옛날같으면 가슴에 관통상을 입구 게다가 코루프성폐염까지 겹친 사람이 회복되자면 적어두 한달은 잘 걸려야 하는데 지금은 한주일이면 알아보니 참 장하오.》

《한주일만 더 지나면 춤추러두 가겠군.》 간병원 마리야가 웃으면서 부추겼다.

군의가 나가자 부상자들이 모여앉아 이야기판을 벌려놓았다. 와씰리는 자기옆에 누워있는 사람들만을 알뿐이였다. 왼쪽에는 키가 크고 름름하게 생긴 대대장 고르제쯔끼대위가 누워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대포소리처럼 높고 웅글었다. 오른쪽에는 말쑥하고 멋지게 생긴 대대정치위원 린뜨와레브가 있었다. 그는 수염을 반반히 깎고 눈섭은 시꺼멓고 머리카락은 숱이 많은데다가 곱실곱실했다. 와씰리는 이처럼 멋지게 생긴 매우 총명해보이는 정치위원이 곁에 있는것이 한결 기뻤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라고 했으며 《미안합니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했다.

고르제쯔끼대위는 좀 거칠어보였다. 그는 자기의 대포소리같은 목소리로 와씰리의 말을 삼켜버리면서 롱담도 즐겨했다. 하지만 그의 롱담은 웃음을 자아내지는 못했다. 와씰리가 몸을 떨면서 기침을 할때면 대대장은 이렇게 말하군했다.

《자넨 그런 버릇을 당장 버리구 앓는체하지 말라구. 어쨌든 최전선으로 보낼테니까.》 그리고는 와씰리를 베개와 함께 조심히 부축하면서 기침을 그치도록 도와주었다.

《컹컹 기침이나 하지 말구 당반에 대구 으르렁거리게. 그러면 당장 바람이 뒤에서 감돌게 아닌가.》

포병의 옆에는 어깨가 쩍 벌어지고 키는 작지만 오달지게 생긴 땅크병 제민상위가 누워있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희슥희슥하고 눈섭은

희끄무레한데다가 겨울에도 해빛에 탄듯 얼굴은 거무스레한 빛을 띠고있었다. 제민은 진종일 침대에 누워 신문이나 책을 볼뿐 말하는 때가 거의 없었다.

와씰리는 자기 병실에 있는 다른 환자들은 모르고있었다. 그중 몇 사람은 쌍지팽이로 자기 몸을 의지하고 지나가면서도 와씰리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야전병원은 학교건물에 자리잡고있었다. 군관병실은 비교적 널직했다. 거기에는 열대여섯대의 침대를 들여놓았다. 병실문은 홀쪽으로 향하고있었다. 강당에는 병영에서와 같이 침대들을 길게 쭉 배치해놓았다. 거기에는 누르끼레해진 속내의를 입은 병사들이 입원하고 있었다.

군관병실에서는 약냄새와 말라버린 피냄새가 풍기였다. 강당에서도 상처썩은 냄새와 발싸개냄새가 코를 찔렀다.

와씰리는 침대에 누워 강당의 작은 벽을 바라보았다. 교단의 벽에는 가운데가 휘고 모서리의 색칠이 벗겨진 액자속에 봇나무 서있는 언덕우에서 들판을 바라보고있는 처녀를 형상한 농촌풍경의 그림이 걸려있었다.

(신통히도 나의 학교같군. 혹시 꼭같은 설계로 지은게 아닐가. 옛날에 우리는 이와 똑같은 강당에서 졸업증을 받았지. 지나, 슈라, 아샤, 위쨔, 그들이 지금 어데 있을가? 지나에게 편지를 써야지.) 하고 와씰리는 생각했다.

지난날 그들이 하던 말다툼은 지금은 한갖 시시한것으로 생각되였다.

와씰리는 자기가 항공학교에 입학할 차비를 한다고 지나에게 말했을 때 그가 대답한 모욕적인 말도 죄다 기억하고있었다.

와씰리는 지나의 주소를 기억할수 없었다.

오쏘아비아히모브쓰까야거리라는것만 알뿐이였다.

집번호도 잊어버렸다.

와씰리는 손목을 움직이면서 연필을 놀릴수 있게 되자 인차 집에 편지를 써보냈다.

(다음번 편지에서 어머니한테 지나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해야겠어.

그 다음에 편지를 쓰자. 아버지는 어디서 어떻게 싸우고있는지? … 혹시 부상당하지나 않았는지?)
저녁에 강당에서는 영사기를 설치하고 영사막을 치고 영화를 돌릴 준비를 했다.
관중들은 침대에 누워있었다.
걸어다닐수 있는 군관들은 자기 의자를 가지고 앉았다.
상영준비가 다 되였을무렵에 와씰리는 그만 잠들어버렸다. 고르제쯔끼와 린뜨와레브는 장기를 두고있었다.
《자, 어서 빨리, 시보를 돌리는새에 자넬 먹어치우겠네.》 고르제쯔끼가 재촉했다.
《어서 잡수시우. 그저 당신이 먹히지만 말았으면…》 린뜨와레브가 대꾸했다.
와씰리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마치 그가 붉은광장에 서있고 흰장갑을 낀 지휘자가 손을 흔들고있는것 같았다. 그런데 꾸르쟈꼬브와 와씰리가 생포했던 그 정신나간 도이췰란드비행사가 지휘자앞에서 풍이라도 만난듯 와들와들 떨고있었다. 이어 도이췰란드놈과 꾸르쟈꼬브는 서로 권총을 틀어쥐고 칼로 찌르고 발밑의 돌멩이를 집어들어 머리를 때리며 맹렬한 싸움을 벌렸다. 하지만 여전히 음악이 울리고 지휘자는 흰장갑을 낀 손을 흔들고있다.
와씰리는 꿈에서 깨여났다. 방안에서는 열병행진곡이 울리고 눈앞에는 병사들이 서있는 붉은광장이 나타났다. 와씰리는 11월 7일 열병식시보를 보여준다는것을 선뜻 리해하지 못했다. 이윽고 무엇이 진행되는지 판단하고는 호기심을 가지고 주시해보았다.
(혹시 나를 보여주지나 않을가? 우리 곁에서도 촬영가들이 찍었댔으니까.)
영사막에는 어딘지 우에서 내려다찍은 군인들이 서있었다. 련이어 열병식참가자들의 숭엄한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모자와 어깨에는 눈이 하얗게 내리덮였다.
그러나 와씰리는 자기를 찾아보지 못했다.
《내가 저기 있었댔습니다!》 와씰리는 연방 큰소리로 말했다.
《어데말이요?》 고르제쯔끼가 물었다.

《열병식에말이지요.》
튼튼한 체구에 모자와 외투를 입고 침착하고 무게있게 연설하는 쓰딸린동지의 모습이 나타났다.
와씰리는 연방 기침을 하면서 찌를듯한 아픔을 참느라고 신음소리를 냈다.
《저는 죄다 기억하고있지요.…
제가 저기에 참가했댔으니까…욱 흑흑…》
고르제쯔끼는 와씰리에게 눈짓하면서 잠자코있으라고 했다.
《당신은 왜 이상하게두 늘 일선에 대해서 말합니까?》
고르제쯔끼는 빙그레 웃으면서 담배연기에 누래진 이발을 다물고 말했다.
《그 말에는 이런 사연이 담겨져있었네. 내가 원동지방에서 복무하고있을 때였지. 전쟁이 시작되자 모두들 전선으로 탄원해나섰네. 그런데 련대장은 누구도 내보내지 않았거든. 하지만 문제는 그한테 달린게 아니였지. 그는 꾀있는 사람이여서 모두에게 〈훌륭한 일을 할만한 사람은 일선으로 추천하겠소.〉 하고 약속했었지. 련습사격에서 나하구 대대장인 치주노브대위가 모범을 보여 련대장은 대렬앞에서 〈현역부대에 추천하겠습니다.〉 하질 않겠나. 그리고는 꿩궈먹은 자리였지. 그렇게 되여 군관들속에서는 〈일선으로 추천하겠소.〉 하는 일화가 생겨나게 됐네. 이 말은 한동안 끈덕지게 나돌았지. 그래서 나두 잊어버릴수 없게 됐네.》
친절한 마리야 니끼포로브나는 농촌마을에서 우유를 얻어다가 거기에 내장에서 빼낸 기름을 섞어 따뜻하게 덥혀가지고 와서 와씰리더러 마시라고 했다.
《내장기름은 약손처럼 잡병을 다 없애버린다더군. 이건 가루우유가 아니라 진짜 우유야. 가루우유는 아무런 효력도 없다네. 가루에 물을 타면 물밖에 더 있을게 있나. 그게 무슨 우유겠나?》
와씰리는 마리야 니끼포로브나가 걱정해주는바람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한편 그는 늙은 간병원이 자기를 간호해준다는 서운한 감정도 없지는 않았다. 큰 병실에는 그대로 눈섭먹도 바르고 풀을 먹여 매끈하게 다린 수건을 맵시있게 쓴 젊은 간호원들이 다니였던

것이다. 그런 간호원들이 곁에 있으면 그럭저럭 말도 건네고 손이라도 다쳐보면 괜찮겠는데 마리야도 하얀 수건을 쓰긴 했지만 로파들처럼 턱밑을 동여매고 다녔다. 마리야는 총각이 젊은 간호원들쪽으로 때때로 시선을 돌리고는 맹랑한 기분에 휩싸여 얼굴색이 달라지군하는것을 눈치챘다.

《인차 일어나게 되면 춤추러 가자구. 그땐 내가 자넬 간호한것처럼 나하구 춤을 추지 않겠나.》

와씰리는 점직해하면서도 롱담을 꺼려하지 않았다.

《마냐아주머니, 난 아주머니하군 사교춤을 추겠습니다.》

병원에는 새로 들어온 부상자들로 초만원이였다.

와씰리는 벌써 걸어다닐수 있었다. 영화구경이 있을 때는 자기 의자를 가지고 강당에 앉아 젊은 간호원들과 롱담도 하군했다.

그의 병실에는 까싸노브상위가 새로 들어왔다. 그는 전투에서 발이 떨어져나갔지만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와씰리에게 부탁했다.

《발을 덮어주게, 얼겠네.》

와씰리는 까싸노브에게 최근에 있은 전투들에 대해 캐물었다.

《동문 어데 있었댔소? 어느 구역에?》

《이쓰뜨라를 모르오? 거긴 저수지가 있소.》

《들은적이 있긴 있는데.》

《바로 그곳을 방어했댔소.》

《저수지기슭에서 방어하는것이 그래두 괜찮지. 다른데처럼 개활지대가 아니니까.》

《뭐 좀 낫다구요? 저수지가 꽝꽝 얼어붙어서 땅우에서처럼 다닐수 있었는데두.》

《그렇긴 하지만 흥분하지 말구 좀 진정해서 말하게.》

《어떻게 흥분하지 않겠나. 거기서 우릴 막 죽이자구 달려들었는데. 글쎄 한밤중에 얼음우로 은밀히 기여와서는 갑자기 공격을 들이대더니 진지를 장악하질 않았겠나. 응, 바로 그 요새에서 나는 어깨와 발을 부상당했네. 동무도 봤겠지만 내 상처가 얼마나 큰가.》

《온통 붕대투성이군.》 와씰리는 시선을 떨구고 말했다.

《일없어. 인차 낫겠지, 일인즉 그렇게 됐네. 놈들이 쭉 깔린 얼음

우로 살금살금 기여들자 우리는 얼음을 까버렸지. 그러니까 놈들은 깨진 얼음장우에 올라타기도 하구 얼음장사이에서 헤염치기도 하면서 공격하질 않겠나. 아군과 놈들의 포탄에 얼음은 온통 죽탕이 됐는데 그래서 물참봉이 되구말았지. 지금껏 발은 언채로 있네. 좀 덮어달라구.》

와씰리는 붕대를 감은채 혼자서 약을 타러 다니군했다. 처치실에 한동안 앉아있으면서 머리카락이 불그스레하고 살결이 흰 리따와 말하기도 하고 눈이 새까만 따따르처녀 파끼마와 말을 건네기도 했다. 마리야는 지금 까싸노브의 침대곁에서 시간을 보내고있었다. 그 무슨 《춤》에 대해서, 그를 인차 후송해갈 따스한 따슈껜트에 대해서 그곳에 가면 고향이니까 몸을 꽉 녹일수 있을것이라는 말을 주고받았다.

병원에서의 낮시간은 너무도 단조롭고 지루했다. 부상자들의 대다수가 젊은 총각들이여서 제발로 걷기만 하면 심심풀이할 곳을 찾아다니군했다. 사방이 둘러막힌 방안에 들여박혀 무슨 생각인들 안한담?

그러나 여전히 유쾌하게 시간을 보냈다.

첫 일과는 일찌기 일어나서 방송을 통하여 종합보도를 듣는것이였다.

그리고는 신문이 오기를 인내성있게 기다리였다.

린뜨와레브는 나중에 읽군했다.

병실에는 《쁘라우다》와 《크라스나야 즈베즈다》가 한부씩 배포되였던것이다. 군관들은 전선소식을 빨리 훑어보았다. 신문이 손에 잡히면 린뜨와레브는 사설로부터 마지막줄까지 빠짐없이 읽어가며 무엇인가 두툼한 노트에 베껴쓰군했다.

때로는 땅크병 제민이 그와 열기를 띠고 론쟁도 했다.

《자, 도이췰란드놈들이 몽땅 맥이 빠졌소!》신문의 어느 한 기사를 읽고난 린뜨와레브가 입을 열었다.

《그래, 누가 그걸 확인합니까?》 제민이 인차 호응해나섰다.

《정세의 객관적인 과정이 말해주지요.》

《구체적으로는?》

《여기에 도이췰란드신문에서 인용한것이 있소. 파쑈놈들이 이제는

계획적인 공격에 대하여 더는 보도하지 않고있다는거요. 말하자면 동부전선에서 추위가 극성스러워 대규모의 공격을 할수 없게 됐다는 거요.》

《그게 어쨌단말인가요?》제민이 물었다.

《정확히 쓰고있지 않는가. 사실 겨울에는 전투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눈때문에 기동도 제지당하구. 게다가 놈들은 우리 나라의 추위에 습관되지 못했지요.》

린뜨와레브는 땅크병이 자기 말을 다하기를 인내성있게 기다렸다. 와씰리는 조소를 띤 그의 얼굴에서 무게있게 론박할 차비를 하고있음을 눈치챘다.

《놈들이 엄혹한 겨울날씨에 익숙되지 못했다는건 옳은 말이요. 하지만 그게 무슨 겨울이요? 어디 추위가 엄혹하오? 추위는 아직 령하 3~4도밖에는 내려간적이 없었소. 게다가 금년겨울은 늦어지고있소. 그러니까 날씨때문에 놈들이 불리한건 없지 않소. 그런데 왜 놈들이 추위에 대해 그처럼 요란스럽게 떠들고있겠소? 이를테면 제놈들의 실패를 정당화하려는 구멍을 찾자는거요. 결국 놈들이 기진맥진했다는게 아니겠소.》

와씰리는 론쟁에 끼여들지는 않았지만 그새 진짜 추위가 없었다는 린뜨와레브의 말엔 공감을 가지였다.

《쏘련통신사가 이런 기사를 날린것은 아주 잘한 일이요. 이것은 공식적인 문건이니까. 때가 오면 력사가들은 〈쁘라우다〉 오늘호를 펼치면서 도이췰란드놈들이 론증하듯이 그들을 제지시킨것은 마로즈(추위)대장이 아니라 바로 우리 붉은군대였다는것을 알게 될겁니다.》

린뜨와레브는 확신에 넘쳐 말했다.

와씰리는 간호원들의 눈을 피하여 몰래 이곳을 빠져나가려는 심사에서 퇴색한 자기 위생복을 두르고 산보할 차비를 했다.

와씰리는 1층으로 내려가서 문밖에 나섰다.

신선한 찬 공기와 눈냄새에 갑자기 머리가 핑 돌았다. 그는 매일과 같이 산보시간을 늘구면서 병원뜨락에서 무엇을 하고있으며 어디에 어떤 과들과 치료실이 자리잡고있는가를 알아냈다.

종전에 그는 마당 한구석에 있는 큰 고간에서 마치소리가 나는것을 들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고간에 다가갔다. 거기서는 역시 자기처럼 푸르스름한 위생복을 두르고 허리춤에 붕대쪼각을 붙인 건장하게 생긴 사람이 나왔다.

《여기는 무슨 수리소입니까?》와씰리가 무슨 심심풀이할 일거리라도 찾으려는 조바심에서 물었다.

《우리 동무들한테 주자구 난로를 만들고있지요.》 건장한 전사가 대꾸했다.

《뭐라구요?》 와씰리는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다.

《동무, 들어와서 보라구.》

와씰리는 고간안을 들여다보았다. 크고 널직한 고간벽에는 널판자로 짜서 만든 판들이 주런이 세워있었다.

와씰리는 비실비실 뒤로 물러섰다.

《왜 마음에 안드시오? 다른 일거리도 있지요. 저 수림속으로 가보면 알게 될겁니다.》 건장한 사람이 말했다.

《난 그렇게 멀리 갈수 없소.》

《멀어두 200메터밖에는 안되지요. 아마 베를린에 당도할 차비는 했겠는데요. 그렇다구 도이칠란드놈들이 동무가 갈 길을 단축시켜주지는 않을겁니다.》 건장한 사람이 심드렁해서 말했다.

와씰리는 모욕감을 느끼였다.

《자네한테 어떤 수다쟁이가 있는가를 보라구, 정치위원. 귀담아들어야 하네.》 하고 말하던 린뜨와레브를 생각하면서 대답했다.

《허풍쟁이같은게, 내가 왜 나왔는지는 전혀 생각밖이군.》

건장한 사람은 껄껄 웃었다.

《일없소. 가보면 좀 증오심이 날뿐인데. 그건 쓸데가 있지요.》 와씰리는 꾸르자꼬브를 회상했다.

《그가 살아있기나 한지? 그 역시 말끝마다 증오심에 대하여 말했었지. 전투에서는 유쾌하구 웃기도 했지. 땅크때문에 나를 당장 쏴죽이겠다고 하고는 오히려 도와주지 않았는가.》

사흘이 지나서 와씰리는 담장을 넘어 전사가 대준 그 수림속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공동묘지가 있었다.

와쎌리는 묘지를 조용히 돌아보면서 비석의 이름들을 읽어보았다. (혹시 전우들인 까라뻬쨘, 싸부로브, 씨니쯔끼가 묻히여있지 않을가? 그럴리 만무하지. 그들은 부상당하지 않았으니까.) 와쎌리는 자기와 같은 성을 보고 갑자기 어리둥절해졌다. 다시한번 읽어보았다. 《전사 뻬. 엔. 로마슈낀.》 발끝에서 심장까지 싸늘한 기운이 돌았다. (전사… 뽀뜨르 니꼴라예위치… 그럴수 없다. 왜 그럴수 없는가? 까싸노브는 불과 사흘도 못있어 실려나가지 않았는가. 그는 다리가 없다는것을 모르지 않았는가.) 그는 아무리 생각을 딴데로 돌리려고 애를 써도 불안한 마음을 가시지 못했다.

와쎌리는 병원으로 달려가 치료의사를 만났다.

《왜 그렇게 성을 내시오?》 그를 침착한 사람으로 여기던 준의가 물었다.

《부상자 로마슈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나이는 중년이구 좀 여윈데다가 키가 큰 편이지요. 그를 여기서 치료했습니다. 그가 이곳에 매장되여있는데요. 이름과 부칭도 딱 맞습니다. 나의 아버지하구 꼭 같으니말입니다. 예?》

《진정하시오. 당장 검열해봅시다. 아버지 군사칭호는?》

《전사입니다.》

《알만하오. 나는 미처 그를 알아볼수 없었소. 그때 내가 인차 군관병실을 담당했으니까. 갑시다.》

병원관리부에는 이전에 입원해있던 부상자들의 치료문건들이 있었다.

《어서 보시오. 〈에르〉자로 표시한 문건에서도 로마슈낀이란 이름을 찾아보시오.》 군의는 녀인에게 잘 보라고 했다.

그 녀인은 《에르》라고 집은 표식을 한 카드들속에서 병력서를 하나 꺼내여 군의에게 주었다. 군의는 병력서를 펼쳐보다가 와쎌리를 허구프게 쳐다보면서 조용히 말했다.

《옳소. 이게 그 사람이요. 모든게 일치하오. 오렌부르그. 이름과 부칭, 주소도 같소. 예까쩨리나 리보브나, 중위동무에게 의자를 주시오. 앉아서 읽어보오. 여게 다 씌여있소. 병력서는 병실로 가져갈수 없으니 여기서 읽어보오.》

와씰리는 푸른 뚜껑을 한 병력서를 펼치고 읽어보았다. 《뾰뜨르 니꼴라예위치 로마슈낀. 1903년생, 로씨야인, 무소속, 흉부관통상, 심장손상.》

와씰리는 눈언저리에 고인 눈물이 뺨으로 흘러내린다는것을 느꼈다.

낮동안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침대에 누워있었다. 옆침대는 비여있었다. 까싸노브대신에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다.

《여보게, 그런 일이야 수없이 많은건데. 이젠 진정하라구. 임자야 이젠 다 큰 사람이 아닌가.》

마냐아주머니는 조용히 말하면서 와씰리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그 녀자의 눈언저리도 축축해있었으나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어제 까싸노브가 죽었을 때 울었기때문일것이다.

《제 생각두 해얄게 아니냐. 제 몸두 돌보구. 이젠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 진정하라구.》

이날부터 와씰리는 전선으로 나가려고 조급하게 서둘렀다. 그의 조급성은 남보다 뛰여난 사람이 되자거나 자기의 대담성을 보여주려는데서 온것이 아니였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복수, 전우들에 대한 복수심에서 나온것이였다. 그는 가슴이 굳어지는것만 같았고 전선에 나가야만 마음이 편할것 같았다. 그래서 될수록 하루빨리 전선으로 나가 파쑈놈들을 더 많이 무자비하게 족칠 일념으로 가슴을 불태웠다.

의사는 완치되자면 반달은 더 병원에 있어야 하겠으니 휴가를 가라고 했다.

《집으로 가시오. 어머니를 보게 되면 인차 슬픔도 사라질게요.》

어머니와의 상봉은 와씰리를 몹시 놀라게 할것이다. 방안에 앉아서 영원히 오지 않을 아버지를 추억하면서 어떻게 쉴수 있겠는가.

《안됩니다. 어떻게 휴가를 갈수 있습니까. 전선에만 갈수 있습니다.》 하고 와씰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매일과 같이 군의를 못살게 굴면서 처치를 받으러 가지 않고 병실에 들어박혀있었다. 그래 그런지 파리해지기까지 했다.

그러한 때에 어머니한테서 편지가 왔다. 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하여 불안해진 어머니는 어데 부상당했으며 기분은 어떠한지, 완쾌될수 있는지 하는것을 일일이 물어왔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어머니는 이 병원에서 보낸 남편의 사망통지서를 받았다. 와씰리는 병력서에서 그 통지서 사본을 직접 보았던 것이다.

《만일 어머니가 그렇게 지낸다면 마음이 한결 가벼울것이다.》 하고 생각하면서 와씰리는 어머니에게 상처는 보잘것 없으며 인차 전선으로 나가게 되며 새 주소도 보내주겠다고 했다. 아버지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둘만이 아는 비밀에 붙이였다. 사람들은 흔히 차례지는 슬픔의 대부분을 자신만이 감수하고싶어하는것이다.

× ×

11월 16일에 모스크바에 대한 도이췰란드놈들의 새로운 공격이 개시되였다.

야흐르마와 쏠네츠노고르쓰크구역에서 놈들은 수많은 땅크를 공격에 들이밀었다. 한개 구역에서 아군의 방어선이 뚫리였다. 밤중에 도이췰란드땅크들과 장갑수송차에 탄 보병이 인쥬쉬끼노마을로 쳐들어왔다.

병원은 한창 잠들고있었다. 난데없이 사격소리와 폭발소리가 났을때에야 움직일수 있는 부상자들이 침대에서 소스라쳐 일어났다.

《도이췰란드놈들이다!》

《놈들이 어디서 나타났소?》

《어데서 나타났는지 모르겠소?》

《불을 끄시오.》

《끄긴 왜 꺼요? 폭격두 아닌데.》

《도루 다 켜시오. 병원에 뭣이 있는지 다 보라구말이요.》

의사와 간호원들이 위생복끈을 성급히 매면서 자기 방에서 달려왔다.

《동무들!》하고 대대정치위원 린뜨와레브가 병실의 한복판에서 위엄있게 소리쳤다.

《제자리에 들어가시오. 부상자들은 국제〈적십자〉기구의 보호를 받고있소. 의료일군들이 놈들에게 여기가 병원이라는것을 설명할것입니다.》

《당신은 도이췰란드놈들을 잘 모르는구만. 놈들은 당신을 다른 십자가로 축복할게요.》 쌍지팽이를 짚은 전사가 말했다.

《동무는 비치지 말구 어서 규정대로 행동하시오. 난 대대정치위원으로서 모든 동무들에게 안정할것을 명령하오.》

《당신은 속내의바람에 견장두 없지, 당신이 정치위원이라는것도 모르지 않소.》 전사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군의가 참견하면서 린뜨와레브를 두둔해나섰다.

《옳소. 동무들, 부상자들에 대한 국제규정이 있소.》

규률에 습관된 전사들은 침대에 눕기도 하고 아무데나 걸터앉기도 했다. 마냐아주머니는 흰수건을 벗고 이마에 적십자표식을 한 수건을 동여맸다.

《우리 총이 어데 있소?》 와씰리가 물었다.

《창고에 있소. 총을 가져오게 되면 모두들 잡아갈거요. 창고로 가지 마시오.》

《창고가 어데 있는가말이요?》

《저기 고간뒤에 있소.》

고르제쯔끼대위는 베개밑에서 권총을 꺼내여 말없이 품속에 넣었다.

《에끼, 동무한테 권총을 준게 공연한짓이였소.》땅크병 제민이 섭섭해했다.

《누우시오. 침대에 누우시오.》 린뜨와레브가 모두를 진정시켰다.

《당신들은 걷지 못하는체 하시오.》

1층아래에서 쾅쾅 문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모두가 얼어붙은듯 꼼짝 안하고 걱정스레 귀를 강구고있었다.

계단에서는 묵중한 장화가 뚜벅거리고 철갑모가 부딪치는 소리가 났다. 와씰리는 징을 박은 도이췰란드놈들의 장화뒤축을 눈앞

에 보는것만 같았다.

군의가 계단으로 올라오는놈들을 마중하려고 문가로 다가갔다. 간호원들이 놀라서 벽에 기대여있었다. 갑자기 유리창이 쟁그렁하고 박산나더니 문이 활짝 열리였다. 풀색나는 외투를 입고 하얀 서리가 낀 뿔난 철갑모를 쓴 도이췰란드놈들이 자동총을 비껴들고 강당으로 욱 밀려들어왔다.

《여긴 부상자들뿐이요.》군의가 도이췰란드놈들의 앞에 나서서 팔을 벌리고 말했다.

점발사격에 군의가 한쪽으로 팔을 내려뜨리고 맥없이 넘어졌다. 간호원들이 아우성을 쳤다. 련이어 자동총이 불을 토하기 시작했다. 흰옷을 입은 간호원들이 벽에 기대여 마루바닥에 미끄러져내렸다. 놈들은 소스라쳐 일어나는 사람이건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건 모조리 쏘아눕혔다.

와씰리는 창문가로 달려가 발로 문들을 차버리고 차겁고 폭신한 눈우로 내리뛰였다. 그 뒤를 따라 제민과 린뜨와레브가 뛰여내렸다.

《동무들, 뛰시오. 내가 엄호하겠소!》 고르제쯔끼대위가 우에서 소리치면서 린뜨와레브와 제민앞을 가로질러 뛰는 도이췰란드놈들을 향하여 사격했다.

와씰리가 벽을 따라 집모퉁이로 뛰는동안 우에서는 아직도 총소리가 났다. 그는 고르제쯔끼가 필사적으로 저항하고있다고 짐작했다.

그들은 나무로 지은 고간뒤에서 벽돌집을 발견했다. 창고같았다. 그러나 그들이 고간모퉁이를 벗어나려는 순간 엄한 고함소리가 그들을 제지시켰다.

《섯, 누구야?》

보초병이 참호에서 지키고있었다. 거기에는 성에가 하얗게 낀 털모자만이 삐죽이 올라와 있었다.

《자기편이요.》 제민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무슨 자기편이요? 보초장은 어데 있소?》

《도이췰란드놈들이 쳐들어왔소! 동문 총소리 듣지 못했소?》

보초병은 잠잠했다. 그는 사격소리를 듣긴 했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며 어떻게 해야 할지 영문을 모르고있었다. 그들은 다시금 앞으로 다가갔다.

《우리에게 총을 주시오. 저기서 부상병들을 죽이고있소.…》 와씰리가 말했다.

《접근하지 마시오. 쏘겠소!》 보초병이 격발기를 절컥거리였다.

《난 대대정치위원이요. 날 믿으시오. 우린 도발자가 아니요.》 린뜨와레브가 위엄있게 말했다. 《지금 사격소리가 요란히 울리고 총알이 머리우에서 비발치고있소. 우리 셋은 눈우에 뛰여내려 빠져나왔소. 명령하오. 어서 통과시키시오.》

《당장 통과시키지 못하겠소? 정치위원이 명령하는걸 듣구서두 끝까지 버틸 내기요? 놈들을 족쳐야 할게 아니요.》 땅크병 제민이 얼나간 사람처럼 웃으면서 주먹으로 눈을 내리치고 흥분해서 소리쳤다.

《언제까지 그러구 있겠소? 언제까지? 명령에 도발로 저항하면 되겠소, 응?》

갑자기 제민이 벌떡 일어나서 보초병을 맞받아나갔다.

《개자식 쏴라! 제편을 쏘란말이야! 파쑈놈들이 부상자들을 죽이구있는데 도대체 네놈은…》

보초병이 바빠맞아 방아쇠를 당기였다. 그러나 제민은 계속 걸어나갔다. 드디여 참호에 당도한 그는 보초병한테 달려들어 총을 빼앗아내고는 발로 그의 얼굴을 걷어찼다.

《에익, 빌어먹을 자식! 네놈을 쏴죽였어야 하는걸, 난 네가 날 무장해제하도록 우정 헛방을 놓았댔어. 규정은 널 보초소에 들여놓지 않게 됐단말이야. 권한이 없어.》 보초병이 큰소리로 말했다.

제민은 길게 말할새없이 창고문에 달려들어 총대를 자물쇠고리에 찌르고 뒤번 툭툭 쳤다. 자물쇠고리가 떨어져나갔다. 안에서 성냥불을 켜고 총과 탄알을 찾아 헤매였다.

《자, 여기 있소.》 보초병이 제민뒤에서 대주었다. 《바로 저 상자에 자동총이 있구 저기엔 보총이 있소.》

《수류탄은 어데 있소?》와씰리가 물었다.
《수류탄은 없소. 당신이 1선에 둬두었다구 하질 않았소.》
《그럼 탄알은?》
《탄알도 역시 조금도 없지요. 내무규정에는 병원으로 후송되면서 탄알은 전선에 남아있는 동무들에게 주게 되여있다는걸 알아야지.》 보초병이 규정을 인용했다.
《그만 닥치지 못할가. 빌어먹을 현학자같은게! 탄알이 어디 있는지 어서 말이나 해!》 제민이 큰소리로 말했다.
《바루 저기 있지요.》 보초병이 나무상자를 열어제끼니 거기서는 아연으로 만든 뿌연 함들이 보였다.
와씰리는 상자에서 자동총을 꺼내들었다. 총에서는 걸죽한 그리스가 흘러내렸다.
《무슨 총이 이래?》
와씰리는 걸레를 쥐고 자동총의 외부와 격발기를 닦았다.
《국가재산은 아껴야 하지.》 보초병이 태연하게 훈시했다.
와씰리는 컴컴한 구석으로 뛰여가 외투이건 군복저고리이건 잡히는대로 가져왔다.
《빨리 입으시오! 장화는 여기에 있소. 또 외투도 입으시오. 흘내의 바람에 뒈지기전에 어서 입으시오.》
그들이 옷을 주섬주섬 다 입었을 때는 병원근처에서 사격소리가 띠염띠염 들려왔다. 땅크엔징소리가 으르렁거리고 포성이 차거운 대기를 째는듯이 헤가르며 포탄이 병원근처에서 터지였다.
네명이 창고에서 슬금슬금 나왔다. 땅크들이 도망치는 도이췰란드놈들을 뒤쫓아 사격하면서 마을 한복판으로 달음쳐나갔다.
와씰리는 제민과 린뜨와레브의 뒤를 따라 병실로 뛰여들어 이른새벽에 벌어졌던 처참한 광경을 목격했다. 희생자들은 여기저기에 형언할수 없는 자세로 누워있었다. 그들모두가 구원을 바라며 갈팡질팡하다가 쓰러진것이 분명했다.
와씰리는 자기 병실 출입문앞에서 두명의 도이췰란드놈들의 시체를 넘어서면서 (이놈들은 고르제쯔끼한테 뒈진놈들이군. 그가 어데 있을가?) 하고 생각했다.

고르제쯔끼는 창문앞에 쓰러져있었다. 그 주변에는 어지러운 장화자국과 놈들의 탄피가 지저분하게 널려있었다. 고르제쯔끼에게 자동총사격을 한것 같았다. 문옆의 마루바닥에서 군의처럼 팔을 축 늘어뜨리고 누워있는 마냐아주머니를 발견했다. 그들 역시 놈들을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결연히 앞을 막아나섰던것이다.

병원에는 파쑈놈들을 족친 대대지휘관들이 들어왔다.

린뜨와레브는 어디선가 자기 옷을 찾아내여 복장을 완전히 갖추고 혁띠를 조이고 그들에게 다가가 숭엄하게 말했다.

《동무들, 이 모든 광경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시오. 그리고 증언자로 되시오. 법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국제협약에 대한 란폭한 위반행위이며 야만적인 범죄입니다.》

양가죽반외투를 입은 지휘관이 그를 침울하게 쳐다보며 무뚝뚝하게 대꾸했다.

《아니요. 우리는 증언자들이 아니란말이요. 우리는 판사들이요. 우리한테는 그 어떤 법조서도 필요없소. 우리는 개놈들을 무자비하게 족쳐야 합니다.》

그들은 모두 헤여져갔다. 린뜨와레브는 와씰리와 제민에게 물었다.

《혹시 우리끼리 같이 작성할수 있지 않겠소?》

《썩 가지 못하겠소.… 어딜 가야 하는지 모르오?》 제민이 거칠게 말했다.

《상위동무, 명심하오. 난 군사칭호상 당신의 상관이요.》 린뜨와레브가 그의 말을 막아나섰다.

그러나 제민은 그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병실에서 휼 나가버렸다.

와씰리는 사물고에서 면도칼과 지도철이며 어머니한테서 받은 편지들을 차곡차곡 집어넣고 자기 옷을 찾으러 창고로 갔다. 복장을 제대로 하고 병원에 돌아왔을 때는 어디서 왔는지 낯모를 의료일군들이 병실을 다 정돈해놓았다.

《당신은 여기 부상자인가요?》 아르메니야사람 비슷한 녀군의가 물었다.

《난 이미 퇴원한 사람입니다. 나한테 퇴원문건도 있지요.》와씰리는 거짓말을 했다.

녀군의는 동정심을 가지고 중위를 바라보았다. 중위는 손가락이 창백해질 정도로 자동총을 으스러지게 잡아서 마비된듯했지만 자신은 그것도 감촉하지 못했다. 녀군의는 중위가 여기서 될수록 빨리 떠나가야 한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혹시 동무를 다른 병원으로 후송할수 있지 않겠어요?》녀군의가 인정어린 어조로 물었다.

《아니, 안됩니다. 오직 전선으로만 갈수 있습니다.》 와씰리는 몹시 흥분하여 대답했다.

《나도 리해해요. 하지만 동무의 건강이 어떠한지? 아직도 붕대를 풀지 못했으니.》 헤쳐진 군복깃밑에서 붕대가 보였다.

《이건 마지막으로 감은겁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저를 퇴원시키려구 했지요.》

《좋아요, 중위동무, 참모부로 갑시다. 거기 가서 동무의 병력서를 보고 수속합시다.》

한시간이 지나서 와씰리는 자기의 증명서들과 예비군관파견장이며 량식수첩을 받고는 꼴바싸 한가락지와 두마리의 청어며 오래된 돼지비게 한쪼각과 검은빵 한덩어리 그리고 신문에 싼 약간의 사탕가루를 길량식으로 탔다.

와씰리는 공동묘지가 있는 수림속으로 들어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묘앞에 멈춰섰다. 《아버지, 지금 아버지곁에는 마냐아주머니와 고르제쯔끼대위, 미꾸노브의사와 그리구 간호원들인 리따와 파끼마가 누워있습니다.》와씰리는 희생된 동지들에 대한 애석한 생각이 들었다. 그는 그들에게서 훌륭한것만 보아왔던것이다.

《잘 있으십시오. 아버지. 잘 있소. 동지들…》하고 와씰리는 조용히 말했다. 그는 마을변두리에 있는 행길에 나서서 걸어갔다. 거기로는 땅크들이 분주히 내달리고 짐수레들이 추위에 삐걱거리며 지나갔다.

와씰리는 맨발로 또 홑내의바람으로 눈우로 달리는 법을 배워두지

않은 자신을 원망했다. 그러나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 특히는 머리속에 열기도 온기도 그 무엇도 든것이 없는듯싶었다. 머리속에는 마치 동무들이 희생된 후에 병실에 남은 괴괴한 정적만이 차있는것 같았다. 어딘가 마음속 한구석에서 새로운 감정이 솟아났다. 가슴을 허비며 불에 타는듯한 감정, 그가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아픈 감정만이 되살아날뿐이였다. 와씰리는 그 새로운 감정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랐다. 그 감정은 무엇과 비슷한가? 문득 꾸르쟈끄브가 어떻게 싸웠으며 어떻게 놈들을 닥치는대로 미친듯이 족치였는가를 회상했다. 바로 와씰리도 당장 도이췰란드놈들을 그렇게 족치고 쏘아눕히며 총창으로 찌르고 손으로 숨통을 눌러죽이며 이발로 물어뜯어 죽이고싶은 충동에 휩싸여있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이다.》 하고 와씰리는 생각하면서 그 증오심에 귀를 귀울이고 치밀어오르는 분노의 격정을 가슴속에 더 잘 간수하려는듯 가던 발걸음을 멈추기까지 했다.

× ×

1941년 12월 6일부터 시작된 붉은군대의 반공격으로 하여 히틀러군대는 처음으로 심대한 패배를 당하였다. 파쑈도이췰란드강점자들은 모스크바부근과 뚤라, 다른 주들의 일부 구역에서 완전히 쫓겨났다. 60개이상의 도시들을 포함하여 11만개이상의 촌락들이 적들로부터 해방되였다.

모스크바부근 벌판에는 불에 탄 땅크들과 자동차들, 포신이 파렬되여 만신창이 된 대포들이 수천수만을 헤아리는 적의 시체와 함께 사방에 널려있었다. 그것들은 땅우로 낮추 몰아치는 눈보라에 점점 깊이 파묻히고있었다.

그러나 아군도 전투과정에 큰 손실을 입었다. 대양의 폭풍마냥 드세게 들이대던 련대와 사단들의 공격도 점차 힘이 진하여 뜸해지면서 나중에는 한곳에 머무르게 되였다. 그리하여 얼기설기 헝클어진 전선에서는 국부적인 전투로 넘어갔다.

병원에서 돌아온 와씰리가 배속된 련대도 완전히 맥이 빠졌다. 력량이 줄어든 대대들은 불타버린 두개 마을어간의 눈덮인 개활지대에서 지탱하고있었다. 그들은 얼어붙은 땅을 까고 차후지시를 기다리며 방어선을 견제하고있었다.

설날밤이였다. 사나운 바람이 울부짖고 눈보라가 휘몰아쳤다. 하늘에서는 재빛포장지에 굵은 점을 찍어놓은듯 뿌연 점만이 희미하게 보였다.

와씰리 로마슈낀은 추위에 짯짯해진 천막을 밀어제끼고 엄폐호에서 전호로 나왔다. 따스한 외투깃에 목을 움츠러뜨리고 한참 우두커니 서서 어둠속에 눈이 익숙되기를 기다렸다. 차거운 공기가 그의 얼굴을 홱 에돌면서 군복밑에서 빵과 담배내가 풍기는 토굴안의 온기를 밀어내버리였다. 그 상쾌한 온기가 식어질가봐 와씰리는 까딱하지 않고 조용히 습관적으로 중립지대를 둘러보았다. 밋밋한 비탈면은 얼음밑에 잠겨버린 시내물을 따라 아군과 적군이 차지한 진지쪽에서 수풀쪽으로 뻗어내려갔다. 사위는 안개가 자욱하고 고요했다. 눈보라가 전호쪽으로 몰아치더니 《쉬》소리를 내며 짯짯한 눈가루를 얼굴에 모질게 휘뿌려쳤다. 와씰리는 눈가루를 입으로 불어서 날려보낼 생각만 하고 호주머니에서 손을 꺼내려고 하지 않았다. 그것은 아직도 호주머니속에는 토굴의 따스한 온기가 남아있었기때문이였다.

중년이 되여보이는 직일기관총수 예프레모브는 굽인돌이뒤에서 감시하고있었다. 그의 외투앞자락은 전방을 살피느라고 전호벽에 부벼대서 흙먼지가 묻어 어지러웠다. 지휘관을 본 그는 침착하게 서두르지 않고 자기 부사수와 이야기하고있었다.

《왜 오늘 식사를 아직도 가져오지 않을가?》

《산보를 하겠지요. 아마 우리 생각도 할겁니다.》젊은 병사 마흐뜨낀은 활발하고 쟁쟁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설날인데 오늘이야 산보하라구 했을텐데요.》

《그렇게 할수 없소.》 예프레모브가 추위에 갈린 음성으로 침착하게 말했다.

《만일 자네가 거기에 눌러앉아서 우릴 잊지 않았다구 하세. 자네

는 건망증이 많기로 소문난 사람이지. 게다가 중대장은 아예 기억하지 못할수 있지 않소.》

와씰리자신도 배가 고파났다. 전사도 인차 리해했다.

《제가 전화를 걸었는데 다들 나가구 없었지요.》 전사는 전방구역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나간지 오랬습니다. 어디서 돌아치는지 누가 알겠어요?》

기관총수들은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마흐뜨낀만은 예프레모브에게 눈짓하면서 아마 《질서가 그렇구, 알아볼대로 다 알아봤지요.》 하는 뜻으로 말했다.

와씰리는 이따금씩 도간도간 날아오르는 도이췰란드놈들의 예광탄을 바라보면서 자신에 대하여 생각해보았다.

(설날에 점을 친 희망은 꼭 들어맞는다고들 한다. 그렇다면 나의 희망은 무엇이였던가? 무엇을 점칠것인가? 죽지 않을라구? 오늘은 우리도 도이췰란드놈들도 모두 이런 점을 치고있을것이다. 모두가 살아남겠는가구… 아니다. 무엇이건 보다 현실적인것을 생각해봐야 한다.)

와씰리는 몇달전에 전선으로 달려나가면서 전쟁이 너무 빨리 끝나게 되면 위훈을 세우지 못한다고 걱정하던 일, 그렇게 되면 훈장도 메달도 구경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던 일을 회상했다. 그처럼 그는 적기훈장을 받고싶어했다.

부지중 자신에 대하여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바보같은게, 무슨 생각을 했담!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을 전선으로 바래주면서 슬픔으로 하여 심장이 미여지지 않았는가.》

와씰리는 자신에 대한 경멸감으로 하여 침을 탁 뱉고는 초소들을 검열하러 나갔다.

초소는 세개였다. 기관총수들이 있는 한개 초소는 이미 돌아보았다. 다른 초소는 전호의 우익과 좌익에 있었다.

와씰리가 나왔던 엄페호는 가운데에 위치하고있었다. 사방이 벌판인데다가 그 전호를 가로질러나간 낮은 고지는 납작하게 눌러놓은 빵처럼 보였다. 고지는 대대진지앞에 멀리 나와있어서 그것을 차지한 병사들은 적들이 전진하는 경우 남먼저 발견하고 견제하면서 대

대로 하여금 반격할 기회를 주어야 했다. 그래서인지 이 고지와 이곳 전호에 위치한 스무명의 병사들을 거느린 와씰리는 전투경계중위라고 불리워지게 되였다.

대낮에는 여기로 아군도 도이췰란드놈들도 범접하거나 기여들수없었다. 그대신 밤중에는 전호앞에 지뢰마당도 철조망도 없어서 아무곳에서나 마음대로 접근할수 있었다. 소대와 대대의 주력을 이어놓은 실오리같이 가느다란 유일한 신경은 검은 통신선이였다. 그것은 눈우에 로출되여있어 아마 놈들쪽에서도 쌍안경으로 잘 보이는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놈들의 박격포가 할 일이 없어 장난질하듯 여러차례나 전화선을 끊어버리였다. 그후 소대는 한동안 외부와의 통신이 두절되여있었다.

…와씰리는 전호의 맨끝에 있는 모서리까지 슬며시 접근했다. 굽인돌이에서 보초병이 보였다. 그는 와씰리한테 등을 돌려대고 서있었다.

《잠자는가?》

《여기서 잠들다니요? 배에서는 지금 샤르망까(손풍금의 한가지 -역주)를 타듯 쪼르륵소리가 나는데요.》 보초병이 침울하게 말했다.

《중위동지, 저는 다 들었습니다. 예프레모브와 말하는걸, 추운 때에는 멀리까지 다 들리지요. … 도대체 우리 부양자들은 어데 있습니까? 중위동지! 어째서 먹을걸 가져다주지 않습니까?》

《곧 가져올거요.…》

좌익에서 전사 비류꼬브가 보초를 서고있는데 그 역시 자지 않고 먹을것을 요구했다.

와씰리는 미처 응답할새 없었다. 예광탄들이 교예단의 동물교예사의 채찍처럼 머리우로 앵-하면서 지나갔다. 중위와 전사는 허리를 굽히였다. 기관총탄이 전호의 앞턱에 와 박히면서 흙덩이와 눈부스레기를 사방에 휘뿌렸다.

《제길, 혼내주자구?》 비류꼬브가 중얼거리였다.

지형을 상세히 그려본 와씰리는 불만스러운듯 전사에게 말했다.

《도이췰란드놈들이 혼내자구 하는데 동무도 그렇게 해낼수 있

겠소?》

비류꼬브는 중위를 놀라운 기색으로 쳐다보면서 그의 군인다운 엄격성을 감촉하고는 예프레모브처럼 외투앞섶에 묻은 흙먼지를 털며 아무 대답도 못했다. 류다른 솜씨는 없었지만 그래도 《차렷》자세를 유지하느라고 몸을 꼿꼿이 세우고 서있었다.

와씰리는 얼어서 빳빳해진 훌렁한 외투아래로 벌리고선 전사의 다리를 유심히 바라보면서 학창시절의 열정적이고 아름답게 생긴 동무들을 회상하면서 성난듯 비류꼬브를 책망했다.

《전사동무! 왜 잠자코 있소? 놈들처럼 쏠수 있는가말이요?》

전사는 제자리에서 서성거리면서 면구스럽게 대답했다.

《놈들을 쏴죽이겠습니다, 중위동지.》

《쏴죽이긴 죽이겠다, 어디서? 모스크바근처에서, 스몰렌스크에서 바로 저기 놈들의 배후에서말이요?》

《네, 그렇게 족치겠습니다. 중위동지, 만약에 모퉁이에서 대가리를 힘껏 내리치면 아무리 건장한 놈도 배겨내지 못합니다. 이젠 일이 제대로 되는판이라 모스크바에서두 내쫓지 않았습니까?》

《그래 고작 생각해낸 말이 제대로 됐다 그게요?》와씰리는 얼굴을 찡그리면서 전사의 말을 흉내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한게 아닙니다, 중위동지.》

《그럼 됐소. 우리한테 설날선물을 가져오지 않았다 해도 더 잘 감시하시오.…》

와씰리는 엄페호입구에 와서 안에서 말하는 소리를 듣고있었다.

조명탄이 백광을 뿌리며 하늘로 치달아오르더니 누리를 환히 비치며 흐늘흐늘 아래로 떨어졌다.

와씰리에게는 조명탄에 의하여 밝게 비쳐진 둥실한 눈판이 권투장으로 련상되였다. 권투장도 바로 그렇게 조명되였었다. 그것은 원형이 아니라 사각형일따름이였다. 그리고 크기가 좀 작고 바줄로 둘러막아놓은것이다. 관중들은 조명밖의 어둠속에서 구경했다.

와씰리는 지나간 권투경기장면을 똑똑히 회상했다. 흰옷을 입고 목에는 깜장나비넥타이를 매고 사방으로 왔다갔다 하던 심판원,

방송원이 인차 선수소개를 했다.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와씰리 로마슈낀입니다. 〈스파르타크〉팀의 2급선수, 무게는 경량급, 36회의 권투경기를 했는데 32회 승리한 선수로서 권투를 시작한지 3년이 됩니다.》 관중들속에서 누군가 그에게 《장하오. 로마슈낀! 꽃다발이요!》라고 호응했다. 체육관은 웃음소리로 요란했다. 그의 상대방 응원자들은 다른 말들을 했다. 《오늘 로마슈낀을 넙적하게 되게 치라구! 좋아하는지 나빠하는지 점을 쳐보자구. …》

와씰리는 허구프게 웃었다. 그들이 지금 어데 있는가? 나의 적수들과 나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던지던 사람들도 물론 모두가 싸우고있을테지. 아마 많은 선수들이 벌써 기술을 《완성》했을것이다. 지금은 와씰리가 그들모두를 형제처럼 맞아줄것이다. 그렇긴 하지만 그때 와씰리는 자기의 적수들에게도 그들의 응원자들에게도 악의를 품지 않았으며 오직 적수를 더 잘 리해하고 파악하고 보다 민첩하고 재치있게 대하려고만 했다. 악의없이 경기를 하면서도 승리자가 되기 위해 단호하고 완강하게 싸웠던것이다.

《그렇겠지, 이젠 많은 선수들이 기술을 〈완성〉했을테지.》 하고 와씰리는 다시 생각에 잠기였다. 권투선수들이 하는 《완성》했다는 친근하고 평범한 말을 회상하기가 쓸쓸했다. 경기를 끝낸 선수들에 대해서는 그렇게들 말했다. 와씰리는 이 말귀에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는 이마를 찌프리였다.

권투에 대한 생각, 전쟁전의 즐겁고 행복한 생활에 대한 생각은 바람처럼 싸늘하게 스며들었다. 자기와 함께 그 련대에 왔던 학우들이 거의다 없어졌다. 한때 와씰리도 부상당하여 대오에서 떨어졌었다.

와씰리는 그때 돌이킬수 없는 소대장들의 운명에서 강한 충격을 받았다. 겨우 한차례의 전투에, 한차례의 공격, 두세개의 도이췰란드놈들의 참호를 극복하고나니 중대에는 한명의 소대장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중대와 소대들은 력량이 훨씬 줄어들긴 했지만 존재하고있었다.

사색할 시간적여유가 있었던 병원에서 와씰리는 전쟁에서 사람들

의 생명은 집단의 운명에 달려있다는 한가지 중요한 결론을 스스로 내릴수 있었다. 우리가 곧 소대이며 우리가 곧 대대이며 우리가 곧 련대인것이다. 소부대와 집단으로 이루어진 림시적인 련합부대도 오래동안 기억에서 떠나지 않는다. 바로 와씰리자신도 스무명으로 구성된 집단을 데리고 양성소에서 련대로 왔지만 가는 곳마다에서 언제나 집단과 하나의 전일체를 이루어왔다. 역전에서 사령관은 매 개인에게 자리를 배당하는것이 아니라 집단별로 배당해주었으며 식료품도 한개의 량식문건에 의하여 집단전체에 《한꺼번에》 내주었다. 오직 련대에 도착하여 대대와 중대로 뿔뿔이 흩어져갈 때에만 그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할수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역시 그들에게 어느 집단에서 왔는가를 물었으며 전투가 끝나면 또한 한자리에 모였다. 물론 모두가 다 모일수는 없었다. 병원으로 후송된 사람들과 공동의 위업을 위해 싸우다 희생되여 공동묘지에 안치된 전우들이 례외로 되였던것이다.

전투는 계속되기마련이다.

스무명의 소위들이 양성소를 나왔을 때에는 위대한 모스크바격전이 치렬하게 벌어지고있었다. 그들이 붉은광장에서 열병행진을 하고있을 때에도 그 격전은 계속되고있었다. 와씰리는 그사이 병원에 누워있다가 다시금 돌아와 여러날동안 수도를 지키는 성전에 참가하고있다.

오한이 난 와씰리는 엄페호의 포근한 온기에 막 파묻히고싶어 문에 가리워놓은 방수포밑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비류끄브의 목소리가 쟁쟁히 울리였다.

《섯! 누구얏! 쏜다!》

뒤이어 어디선가 한켠에서 낮은 소리로 대답했다.

《우리편이요. 우리편. 잠간만. 쏴두 백그람을 마시고 쏘게나.》

와씰리는 목소리가 들리는쪽으로 다급히 걸어갔다. 두명의 대원이 왔다. 외투밑에 껴입은 솜옷이 불룩하게 나와있었다. 눈가루가 뽀얗게 앉은 그들은 보건대 피로해서 전호로 겨우 기여온것 같았다.

모자털과 얼굴에는 하얗게 성에가 끼였다. 예프레모브가 정확히 표현한것처럼 전사들은 진짜 먹을것을 끌고왔다. 한사람은 멜띠가

달린 네모나게 생긴 진한 풀색보온병을 눈우로 끌고왔으며 다른 사람은 좀 연한 풀색배낭을 두개나 끌고왔다.

예프레모브와 마호뜨낀은 그들로부터 먹을것을 넘겨받았다. 배낭에서는 흘레브냄새가 풍기고 보온병에서는 마개를 막긴 했어도 틈새로 구수한 남새국의 향기가 흘러나왔다.

《그래 명절음식을 가지러 모스크바에 갔다온게 아니요?》마호뜨낀이 물었다.

《신통히두 맞혔군. 〈발추그〉식당에서 동무들에게 주자구 비프스티크(료리의 일종)를 얻어가지고 곧장 오는 길일세.》보온병을 가져온 전사가 침울해서 대꾸했다.

배낭을 끌고온 다른 전사는 좀 수다스러웠다. 그는 초소에서 먹을것을 지루하게 기다렸다는것을 눈치채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글쎄 한 동무가 상하지 않았겠소. 우린 처음에 둘이서 갔드랬는데… 몹시 다쳤지요. 배를말이요. 좀 일없기만 했어두 그더러 혼자서 되돌아가라고 하겠는데 그렇게 할수는 없었지요. 부축하지 않으면 안되였으니까…》

도이췰란드놈들은 말소리를 듣고 전호를 향하여 사격을 했다. 모두가 무릎을 꿇고앉았다. 탄알에 흩날린 눈가루가 머리우에 내려와 앉았다.

《바루 이건 설날 사탕가루요.》 마호뜨낀에게 보온병을 넘겨준 전사가 말했다.

《여보게, 자넨 진짜 식당에서 일한게 아니요? 비프스티크도 다 알구, 사탕두말이요.》 마호뜨낀이 말했다.

그러나 보온병을 넘겨준 전사는 전쟁전의 생활을 말해달라는 공공연한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한숨만 쉬면서 와씰리중위에게 보고했다.

《여기에는 다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식사는 건식으로 하구 점심식사도 있습니다. 워드까는 이 물통에 그리구 빵과 사탕은 저 배낭안에 있습니다. 그리구 중위동지, 보충적으로 과자와 빠다도 더 가져왔습니다.》

《고맙소.》하고 말하고나서 와씰리는 예프레모브를 보고 지시

했다.

《동무는 여기 남아서 놈들이 손님대접을 어떻게 달가와하지 않는가를 살피시오. 동무들을 인차 교대시켜주겠소. 저 동무들이 식사를 하면 곧 교대를 보내주겠소.》

《일없습니다. 중위동지.》 예프레모브가 대답했다.

와씰리는 량식대원들을 엄페호에 들여보내고는 자신은 한동안 전호에 서있었다. 그는 식료품분배절차를 달가와하지 않았다. 그렇게 나누지 않아도 모두가 량심껏 나누어먹고있다는것을 알고있었다. 사기협잡은 전혀 없었다.

엄페호에서는 벌써 떠들썩하기 시작했다. 전사들은 편리한대로 여기저기 눌러앉아서는 밥통을 두드리였다. 우스개말들이 오가는 가운데 귀에 익은 목소리도 울리였다.

《누가 못받았소?》

누군가 머리에 뒤집어쓴 외투밑에서 투박하게 대답했다.

와씰리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다.

《예프레모브요.》

《그 다음은 누구요?》

역시 투박한 목소리가 대답했다.

《비류꼬브요.》

《또 그 다음엔?》

《중위동지요.》

분배의식이 다 끝나자 와씰리는 방수포를 제끼였다. 담배연기가 자욱했다. 흙벽에 스며든 온기는 그의 몸에 푸근히 와닿았다. 포탄깍지로 끝을 납작하게 만들고 거기에 탁탁한 천쪼각심지를 끼워 등잔을 만들었다. 등잔은 독한 연기를 뿜으면서 엄페호안을 밝게 비치였다. 전사들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있었다. 쭈글쭈글하게 구겨진 재빛천을 깔아놓은 좁다란 통로에는 솥과 국자를 놓았다.

그 옆에는 흘레브와 사탕가루도 있었다. 여기서는 다리를 펴고 비스듬히 기대여있을수 있었다.

와씰리는 엄페호가 편리하게 만들어진데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했다. 각각 여덟명으로 구성된 두 교대가 한꺼번에 뜨뜻하게 휴식할수

있게 되였으니 마치 자기 소대를 위해 특별히 계획된듯싶었다.

지휘관을 위해서는 한쪽구석에 흙으로 둔덕을 만들어놓았다. 그 둔덕 맞은편에는 어디서 얻어온것인지 알수 없는 벽돌로 쌓은 작은 뻬치까가 있었다. 진흙으로 여러번 매질해놓은것이 사방이 터져 빨간 불덩이가 틈새기에서 비쳐나왔다. 뻬치까우에는 새까만 전화선토막을 늘어놓고 거기에 발싸개와 장갑을 걸어놓아 말리고있었다. 그래서인지 엄페호안에는 시큼시큼한 모직천냄새며 땀내 그리고 천타는 냄새가 차있었다. 지금은 그 모든 냄새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남새향기에 말려들고말았다.

(그리고 엄페호가 좋은게 또 뭣이 있을가?) 하고 와씰리는 곰곰히 생각해보았다. (머리우의 천정에는 보통 통나무를 두겹으로 깔고 그우에 진흙과 눈으로 다져놓아서 그 미욱한 박격포탄도 뚫지 못할것이다. 물론 중포탄이 곧바로 날아들면 내부를 파괴할수 있다. 그러나 전쟁마당에서 직탄에 얻어맞는 일은 그렇게 흔하지 않은것이다.)

와씰리는 자기 소대를 데리고 진지교대를 적지 않게 해보았다. 그때마다 생활조건은 각이하게 주어졌다. 뻬치까가 없는 곳에서도 또 어떤데서는 엄페호도 없이 게다가 물이 무릎까지 올라오는 전호속에서도 싸워보았다. 하지만 오늘의 편리한 조건과 도이췰란드놈들이 조용해진 이 시각 와씰리는 진짜 명절기분에 사로잡혀있었다. 그는 자기의 고뿌를 쳐들고 진정어린 소리로 말했다.

《자, 슬라브형제들, 새해를 축하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베를린까지 함께 갑시다!》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마시는것을 본 량식대원들은 보온병과 배낭과 멜띠를 걷어가지고 돌아갈 준비를 했다.

《우리가 엄호할테니 무사히 가시오.》 와씰리가 말했다.

투박하게 생긴 량식대원들이 전호에서 기여나와 허리를 구부리고 고지의 비탈면을 따라 둥근 빵모양으로 아래로 슬슬 굴러내려갔다.

와씰리는 경계심을 가지고 기다리고있었다. (혹시 도이췰란드놈들이 근질근질해서 사격을 하게 되면 그들이 잘못될수 있지 않을가.) 그러나 기관총들은 입을 다물고있었다. 예광탄도 더는 날아

오르지 않았다. 전방은 쥐죽은듯 고요하고 캄캄했다. 오직 린접앞에 있는 익측들에서만 좌우측으로 이따금씩 거리상 희미하게 보이는 황록색철갑모들이 민들레꽃처럼 피여나군했다. (아마 놈들도 저녁을 처먹고있는 모양이지?) 하고 와씰리는 도이췰란드놈들에 대해 생각했다. (그놈들도 뭘 좀 가져온거겠지? 혹시 쓰씨스끼 아니면 지진 가두배추를 섞은 게사니고기가 아닐가? 개자식들, 우리 꼴호즈원들의 재산을 강탈해 먹는구나.)

지진 가두배추에 대한 표상은 직접 냄새를 맡고있는것처럼 생동하게 떠올랐다. 혹시 도이췰란드놈들의 전호에서 풍겨오는 가두배추냄새가 아닐가? 그러니 우리가 놈들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것이 아닌가.

갑자기 와씰리는 중립지대의 눈더미가 설렁설렁하는감을 느꼈다. 예광탄이 아래로 환히 떨어지는 순간에 그렇게 보이는 때가 있군했다. 그러나 지금은 예광탄이 없지 않는가. 와씰리는 귀를 바싹 강구었다. 몇개의 눈더미가 또 움직이는것을 발견했다.

《망할놈들같으니, 정말 백그람값을 치르자는건가?》와씰리는 전호 모퉁이에 배를 착 붙이고 앞을 뚫어지게 내다보았다.

놈들이 흰옷을 입고 살금살금 기여오고있다. 그래서 놈들은 기관총도 예광탄도 쏘지 않았던것이다.

와씰리는 기여드는 도이췰란드놈들을 지켜보면서 중기관총좌지로 쏜살같이 달려갔다. 그가 맨 먼저 생각한것은《쥐여총! 파쑈놈들을 향하여 쏴!》하는 구령을 당장 내려야 한다는것이였다. 그가 권투선수만 아니였다면 아마 그렇게 행동했을런지 모른다. 그러나 훈련지도원이 그에게 첫 인상을 로출시키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경기과정을 침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었던것이다. 그래야 정확히 판단하고 타격할수 있기때문이다.

와씰리가 기관총좌지로 달려가는 동안이면 정황을 판단하는데는 충분했다. 놈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것도 전전선에 걸쳐 기여드는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조를 무어 기여들고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총공격이 아니라 정찰이든가 혹은 공격에 앞서 대규모의 력량을 아군의 전투경계로부터 떼내려는 기도일수 있었다.

《혀》를 체포하는것으로 새해를 그럴듯하게 맞을수 있지 않을가?

그렇게 하자면 소란을 피우지 말고 조용히 해내야 한다.
와씰리는 침착하게 기관총에 새 탄띠를 재우면서 예프레모브와 마흐뜨낀에게 말했다.
《기여오는게 보이오?》
기관총수들은 전호벽에 배를 붙이고 나란히 서있었다.
《문둥이같은놈들, 어디 보자.》하고 욕하고나서 마흐뜨낀은 조급하게 굴었다.
《어서 쏩시다. 중위동지, 왜 꾸물거립니까?》
《좀 기다리시오. 마흐뜨낀. 이제 우리가 놈들을 가까이에서 맞이합시다. 좀 바투 기여오게 놔두시오. 예프레모브, 잘 살피시오. 벌떡 일어서는놈만 보이면 무조건 쏘시오. 난 동무들을 불러오겠소.》
와씰리는 엄페호로 달려가 방수포를 벗기고 흥분되여 갈린 목소리로 구령을 내렸다.
《쥐여총! 조용하시오. 놈들이 기여오는데 스무명은 잘되오. 정찰인것 같소. 모두들 보이지 않게 허리를 굽히고 나오시오. 수류탄을 준비하고 내 구령에 따라 사격하시오. … 꿀라진중대장에게 전화로 보고하시오. 내가 전호에 있다구.》
와씰리는 다시금 눈이 깔린 벌판에서 툭 삐여진 둔덕을 찾아냈다. 그곳까지는 아직도 60메터는 잘 되였다.
(이런 거리에서도 달려들지 않는군. 수류탄도 뿌리지 않구. 그러니 허리를 쭉 펴고 일어나는 순간에 바로 전호로 달려드는 순간에 붙잡아야 한다. 엎뎌있는 놈들은 얼마되지 않는군.)하고 와씰리는 열기를 띠고 생각했다.
전사들은 좌우측으로 재빨리 산개했다. 그들은 전호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재빛모자채양밑으로 조심스레 지휘관을 바라보며 맨손으로 레몬모양의 수류탄을 틀어쥐였다. 수류탄을 본 와씰리는 (놈들이 벌떡 일어서는 순간이 천금처럼 귀중하다.)하고 내심으로 강조하면서 명령했다.
《수류탄고리를 벗겨.》
그 조용한 구령은 순식간에 전호로 퍼져갔다. 전사들은 서로 옆사

람에게 구령을 전달해주었다.

《… 고리를 벗겨.》

와씰리는 배후에서 혹시 슬그머니 기여드는놈이 있을수 있다는 조바심에서 뒤를 둘러보았다.

《익측을 주의깊게 살필것.》

그 짧은 구령은 또다시 지휘관으로부터 전호의 반대쪽으로 《병사전화기》마냥 확신성있게 전달되였다.

흰옷을 입고 유령같이 움직이는 희미한 그림자가 가까이 다가오면 올수록 거동은 매우 조심스러웠다. 와씰리는 고도의 긴장성으로 하여 자기도 모르게 《자, 어서 빨리! 뭘 꾸물거려.》하고 놈들을 부르는것이였다. 그의 심장은 어찌나 높뛰였던지 놈들이 그 소리를 듣지 않았을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갑자기 온몸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는 외투단추를 벗기였다.

(놈들이 달려들기전에 저지시켜놓고 뒤떨어진 놈들을 기다려야 한다.) 라고 와씰리는 판단했다. 그 순간 한놈이 벌떡 일어서자 나머지 놈들이 일격에 따라 일어서며 조용히 솜뭉테기처럼 소리없이 깊숙한 눈우로 미끄러져내리였다.

《쏴!》와씰리는 힘껏 구령을 치고 수류탄을 던지였다. 전사들은 전호바닥에서 일어났다. 좌우켠에서 손들을 훌쩍 들어올리는것이 얼른거리였다. 예프레모브의 기관총이 다급히 불을 토했다. 수류탄터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쾅쾅 울리였다. 번쩍이는 불빛과 시꺼멓게 솟구치는 흙먼지사이에서 흰옷을 입은 놈들이 곤두박질하기도 하고 아우성을 치면서 갈팡질팡하기도 했다.

《놈들을 족치라.》와씰리가 웨쳤다.

와씰리는 수류탄을 내던진 즉시 자동총을 비껴들고 쏘기 시작했다. 좌우측에서도 보총사격소리가 탕－탕 울리였다.

만사가 생각하던바대로 제대로 잘되여간다는 기쁨과 특히는 꼬리가 빳빳해서 줄행랑을 놓는 놈들의 거동은 와씰리로 하여금 전호밖으로 내달리게 했던것이다.

《놈들을 생포하시오. 동무들! 날따라 앞으로.》

와씰리는 쏜살같이 앞으로 내달리다가 푸실푸실한 깊은 눈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 놈들을 쏴눕히였다. (생포해야 한다. 한놈만이라도 생포하자.) 라는 생각에 도망치는 놈들을 따라갔다. 어느새 코앞에는 숨이 턱에 닿은듯 헐떡거리면서 새된 소리를 치는놈이 걸려들었다. 그놈은 숨을 쉬는것이 아니라 너무도 긴장하던 나머지 《으흑! 으흑!》 하고 신음소리를 냈다.

와씰리는 도이췰란드놈의 어깨를 꽉 부여잡았다. 그러자 손에는 푹신한 솜뭉치가 잡혔다.

《개자식같은게, 정찰을 나오면서 무던히두 껴입었군!》 하고는 총탁을 번쩍 쳐들었다. 그 순간 문득 (머리를 박산내서는 안된다. 슬쩍 쳐야지.) 하고 생각하며 놈의 머리를 내리쳤다. 놈은 팔을 휘저으며 눈우에 나가 너부러졌다. 그러나 인차 소스라쳐 일어나면서 와씰리에게 달려들어 갈구리처럼 앙상한 손가락을 쩍 벌리고 목을 잡으려고 기를 썼다.

《이놈이 어느새 장갑을 벗어던졌을가?》

와씰리는 여러번 권투장에서 써왔던 습관된 동작으로 그놈의 손을 한쪽으로 쳐버리는 동시에 그놈의 턱을 향해 강타를 먹이였다.

그놈은 윽-하고 벌렁 나가넘어졌다. 와씰리는 마치 권투장에서 셈을 세듯이 《하나, 둘, 셋…》 하고 속으로 뒁겨보았다.

와씰리는 전투가 벌어진 곳을 빙 둘러보았다. 모든것이 끝났다. 전사들은 앙탈을 부리면서 버티고있는 두명의 도이췰란드놈 멱살을 부여잡고 질질 끌고왔다. 벌써 여러놈이 얼굴을 눈에 틀어박고 뒈지였다. 여섯놈이 살아서 도망치는것이 멀리에서 언뜻거리였다. 비류꼬브는 곧추서서, 마흐뜨낀은 무릎을 꿇고 놈들을 향하여 사격했다.

《다 도망쳤군. 빌어먹을놈들.》 마흐뜨낀은 분한김에 욕설을 퍼부으면서 사격을 그쳤다.

와씰리는 적사상자들을 보고 머리를 끄덕이였다.

《동무들, 죽은놈들을 모아놓고 전호로 빨리 가시오. 이제부터 설명질을 쉽시다.》

포로놈의 팔소매를 잡아당기며 《에잇, 어서 걸엇. 그만 꾸물거려. 난 네몸을 되게 두들기진 않았어.》하면서도 어쨌든 마음을 먹고 힘껏 박았다는것을 솔직히 인정했다.

강타를 먹은 도이췰란드놈은 흐리멍텅한 눈알을 데굴거리며 머리를 부르르 떨면서 망연한 자세에서 벗어나보려고 기를 쓰다가 조심스럽게 중위를 쳐다보았다.

《가자, 개자식, 당장 네 친구들이 밀려들기 시작할게다. 이제 네놈의 목숨은 네 친구들에게 달렸어. 그러나 네 친구들은 네놈을 죽여치우는걸 더 좋아해. 그렇지 않으면 정보를 다 불테니까. 알았는가?》하고 와씰리는 말했다.

전사들은 죽은놈들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한쪽에 끌어다가 치웠다. 때가 되면 파묻어야 한다.

모든 전사들은 한결같이 자기 지휘관을 《젊긴 했어두 참 령리한 사람이야.》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다.

비류끄브는 소대장에게 자기가 잡은 도이췰란드놈을 끌고와서는 마치도 갓 시작한 이야기를 계속하듯 말했다.

《이놈입니다. 중위동지, 이놈이 글쎄 총을 잘 쏘더란말입니다. 그래서 전 이놈을 생포했습니다.》

《장하오, 비류끄브동무는 로씨야곰처럼 생겨서 그놈을 좀 휘둘러놔야겠소.》

비류끄브는 이마살을 찌프리였다.

《제가 무슨 곰인가요? 전 사람이구 붉은군대 전사입니다. 저한테 아이들두 있는데요. 애들은 아마 곰새끼는 아닐겁니다.》

《노여워마오. 도이췰란드놈들은 우리모두에 대해, 로씨야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들 말하고있소. 혹시 그게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르오. 그것은 우리가 그닥 동작이 민첩하지 못하구 꾸물거리고 있기때문이요. 하지만 일단 곧추서게 되면 냅다밀면서 짓뭉개버리거든.》

《만일 그러한 의미에서라면 저는 동감입니다.》비류끄브는 미소를 지었다.

밝기전에 포로병들을 중대장감시소에 보내야 했다. 대낮에는 그놈들을 데리고 빠져나가지 못한다. 그리고 포로들이 눈먼 총알에 맞아 뒈지지 않게 해야 한다.

와씰리는 전화로 중대장에게 전선에서 지금도 널리 쓰이고있는 누

구든지 헛갈릴수 없는 쉬운 암호로 모든 정황을 보고했다. 《나에겐 〈우〉도 없고 〈에르〉도 없습니다. 〈감자〉를 보내주십시오. 〈완두콩〉은 필요없습니다. 세개의 〈풀색연필〉을 나의 두개의 〈연필〉이 호송해갑니다. 》

《풀색연필을 당장 보내주시오.》 꾸르쟈꼬브중위가 높고 위엄있는 어조로 말하였다.

그는 와씰리와 말할 때마다 노상 그런 티를 냈다. 그와 관등급이 같은 조건에서 중대장의 직무를 차지했기때문에 응당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것 같다.

첫 박격포소리가 쿵 하더니 포탄이 전속으로 휙휙 허공으로 치달아오르다가 전투경계구역의 고지에서 터졌다. 전호가까이에 떨어진 포탄은 귀청을 째는듯한 소리를 냈다.

련이어 얼어붙은 땅우에 포탄들이 우박처럼 떨어졌다.

중포탄들도 땅을 벌둥지처럼 들쑤셔놓았다. 경비대원들도 엄페호에 은페하고있었다. 모두가 말없이 담배만 뻑뻑 빨고있었다. 얼굴들에는 태연하면서도 침착한 기색이 떠올랐다.

포탄이 지척에서 터질 때마다 천정에 깔아놓은 통나무틈새기들에서 흙이 우수수 떨어졌다.

포탄이 계속 날아드는바람에 통나무들짬으로 밝은 빛이 새들어왔다.

전사들은 겉으로는 불안한 감정을 내비치지 않았지만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포탄에 맞겠는지 맞지 않겠는지 점을 치군했다. 하느님도 미신도 믿지 않으며 기도드릴줄도 모르는 순진한 전사들이건만 그 어떤 초인간적인 힘을 바라서인지 소심해서 《제발 옆에만 떨어지렴! 옆에만…》하고 빌고있었다.

× ×

련대장의 엄페호는 그래도 좀 널직해보였다. 포탄상자를 뜯어서 만든 탁상에는 련대장 까라바예브소좌와 련대정치위원 가르부즈가 마주앉아있었다.

겉보기에도 가르부즈는 어딘가 모르게 정치일군다운데가 있었다.
키는 보통이고 어느 정도 사교성도 있었고 새파란 눈에 머리카락은 아마빛을 띄고있었다. 그래서인지 그의 얼굴에는 가정적인 온화한 표정이 어려있었다. 반면에 키가 장대하고 어깨가 쩍 벌어진 까라바예브는 이마가 넓고 좀 삐여진데다가 늘 면도를 매끈하게 하고 다녔으며 천성적으로 지휘관으로 태여난듯 목소리는 귀가 막힐 정도로 우렁우렁했다.
그의 눈길에는 엄격한 랭혹성이 깃들어있었고 강한 의지를 말해주는 꽉 다문 입술에는 꿋꿋한 기질이 엿보이였다.
전쟁전만 해도 까라바예브는 벨라루씨 특수군관구에서 복무하면서 두번이나 단기강습소를 나온 후 소대로부터 중대, 대대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지휘관으로 승급되였다.
1941년에 그의 대대는 여러번 적의 포위에 들었댔다.
그러나 능숙하게 부대를 이끌고 포위진을 뚫고 자기편으로 돌아왔다.
그때마다 까라바예브는 전투에서 희생된 지휘관들을 교체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뱌짐부근에서 그는 저격련대의 남은 력량을 포위로부터 빼내여 모스크바에서 보충완비한 후 다시금 전투에 진입했다. 지금은 그 직위에 임명된 완전한 권한을 가진 부대장으로 되였다. 그런데 전선정치국은 그에게 가르부즈를 정치위원으로 파견했다.
평화적시기에 그는 알따이에서 구역당 제2비서로 사업하다가 8월부터 전투에 참가하면서 역시 쓰라린 후퇴도 체험하고 첫 승리의 기쁨도 맛볼수 있었다.
지금은 까라바예브와 가르부즈가 늘 유쾌한 감정을 가지고 사이좋게 지냄으로써 방금 사단장으로부터 칭찬까지 받게 되였다. 와씰리 중위는 자기가 남다른 기민성을 가지고 많은 상관들에게 기쁨을 가져다주었다는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와씰리의 소대가 도이췰란드놈들을 반격하여 거둔 전과에 대한 소식은 전화로 상급에 보고되였다. 그러나 어디선가 중도에서 중위의 이름이 빠지였다. 까라바예브소좌가 사단장에게 간단히 보고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에게 첫 공로자가 있습니다. 쥬라블레브라고 합니다. 야간습격을 물리치면서 적을 세놈이나 포로했습니다. 》

사단장은 자기대로 군단장에게 보고했다.

《우리 까라바예브동무가 새해 첫시작을 잘 뗐습니다. 포로들을 보냅니다. …》

집단군사령관은 보다 함축된 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드브로호또브관할구역에서 야간전투가 있었소. 그 결과에 포로들을 잡았소. …》

그후에 전투자료는 같은 경로를 따라 반대로 아래로 통보되여 나중에는 와씰리한테까지 알려지게 되였다. 그는 어두워지면 련대장에게 도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와씰리는 못내 기뻐했다. 그것은 첫째로, 후방에 가게 된다는 즐거운 마음에서였다. (그는 련대참모부를 깊은 후방으로 생각하고있었다.)

둘째로, 거기서는 자기를 욕하지 않으며 오히려 좋은 말만 해주며 혹시 명령으로 자기에게 《감사》를 줄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일이 잘 될세라 그가 오솔길을 따라서는 사이에는 아무데서도 류탄이 날아오르지 않았다.

련대장의 엄폐호는 와씰리가 놀랄 정도로 마음에 들었다. 안은 허리를 쭉 펴고서도 천정까지 모자 두개높이만큼 여유가 있었다.

비록 상자로 만든 탁상이긴 해도 거기에는 석유등잔과 알루미니움고뿌며 통졸임통과 상점에서 나온 차고뿌와 밀접시며 차숟가락들이 그쯘하게 놓여있었다.

한쪽구석에는 재빛담요를 펴놓은 나무침대와 새하얀 깃을 씌운 베개가 있었다. 그리고 환한 등잔불옆에는 어디서 전선으로 보내왔는지 알수 없는 반쪼각의 시누런 레몬이 접시에 놓여있었다.

와씰리는 레몬을 보는 순간 군침이 돌면서 탁상엔 과자가 없었지만 과자냄새도 느끼였다.

와씰리는 도착보고를 하였다.

《자, 영웅이 왔구만.》까라바예브는 쾌활하게 말하면서 그를 마주

향해 걸어나갔다.
와씰리는 자기가 입고온 낡고 어지러워진 외투를 생각하면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외투에는 전호의 흙들이 어찌나 푹 배였는지 밤색흔적을 지울수 없었다. 와씰리는 조금이라도 영웅다운 자세를 잡아보려고 훌쭉한 배를 어느 정도 끌어당기고 다리에 힘을 주고 아래턱을 약간 우로 들었다.
《잘했소!》하고 까라바예브소좌는 와씰리를 칭찬하면서 그의 손을 힘있게 잡아주었다.
정치위원 가르부즈도 와씰리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옷을 벗소. 외투를 벗으라구.》 정치위원이 친절히 말했다.
와씰리는 저도 모르게 점점 더 뒤숭숭해졌다. 그는 자기를 이렇게 맞이하리라고는 예측 못했다. 그저 감사나 전하고 건강을 축복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옷을 벗으라고 말한다. 그는 근 반달째나 옷을 벗지 못하지 않았는가! 사실 그동안 와씰리는 반외투를 입고있었다. 방금 련대참모부로 올 차비를 하면서 긴외투를 갈아입었다. 그는 외투를 좀 더 맵시있고 깨끗하게 거두리라는 생각을 하였다. 옷을 갈아입으면서 혐오감을 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우글쭈글하게 꾸겨진 군복을 입고있었는가를 알게 된것이다.
(당장 련대장과 정치위원앞에 그렇게 나타날수 없다.)
《저…》 하고 와씰리는 쭈밋거리였다.
《일없어. 한증을 하겠는데. 여긴 무더우니까. 어서 벗으라구.》 정치위원이 끈덕지게 말했다.
복종해야만 했다. 와씰리는 군복저고리를 팽팽하게 연방 쥐여당겨보았지만 그때마다 후줄근해지면서 마치 옷섶이 혁띠밑에서 우정 기여나오듯했다.
《됐어, 어려워말라구.》 련대장이 고무해주었다.
《다른데가 아니구 전방에서 왔는데 뭐라나. 여기 탁상에 나와 앉으라구.》
와씰리가 겨우 쭈그리고 앉자 우렁우렁한 가르부즈의 목소리가 울렸다.
《자기가 한 일을 다 얘기하시오. 참, 장하오.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동무에 대해서 아는것이 적소.》
《잠간만, 안드레이 다닐로위치.》 까라바예브가 가르부즈를 지체시켰다.
《그렇게 당장 사업얘기부터 하면 되겠소?
자, 중위동무에게 백그람을 권합시다. 추위에 떨었는데. 새해도 축하할겸 용감한 행동에 대해 사의도 표합시다.》
《동감이요. 끼릴 알렉쎄예위치.》
《글리예브, 술통을 가져오시오!》
눈섭이 새까맣고 깝까즈사람처럼 시선이 날카롭게 생긴 련락병이 탁상곁에 날래게 나타나더니 고뿌에 술을 따랐다.
《자, 영웅동무, 마시라구. 훈훈해날거요.》 까라바예브가 말했다.
와씰리는 양성소에서 《음주》하는것이 위반행위로 치부되던 일을 회상했다. 그런데 지금 까라바예브소좌자신이 직접 그에게 백그람을 권하고있는것이다. 그리고 와씰리는 그것을 받아서 상급이 보는데서 직접 마시고있다.… 와씰리는 흥분된 나머지 술의 도수도 쓰거운 맛도 느끼지 못했다.
까라바예브는 그에게 순대와 비게쪼각을 담은 접시를 내밀었다.
《안주를 들면서 어디 말해보라구.》
《뭐 말할게 있습니까.》 와씰리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리고는 다시금 자기가 입은 군복이 참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군복에는 반외투에서 묻은 털오리들이 여기저기에 지저분하게 묻어있었다.
《음, 알만하오. 그런 겸손성은 영웅을 더 돋보이게 한다니까.》
가르부즈는 고무적으로 미소를 던졌다.
《여하튼 얘길 해보오,중위 . 어디서 살았으며 공부는 어디서 했구 련대에는 언제 왔는지말이요.》
와씰리는 고향도시 오렌부르그와 학교에 대하여, 이곳에 맨 처음으로 함께 왔던 집단에 대하여 그리고 부상을 당하여 완쾌된 후 련대로 다시 돌아온데 대하여 이야기했다.
《그러구보니 동무는 또 우리의 로병이구만! 보오, 끼릴 알렉쎄예위

치. 우리가 간부들을 어떻게 연구하고있는가말이요. 련대가 편성된 날부터 중위는 전투적인 청년으로 소문났는데 우린 금시초문이거든.》
가르부즈가 큰소리로 말했다.
《그럼 중요한 새 이야길 더 하라구. 련대의 애국자로 찬양받을만하단말이요.》라고 까라바예브가 말했다.
와씰리는 고개를 숙이였다. 련대장은 그를 진짜 《련대의 애국자》로 알고있는것이다. 예비역지휘관들은 거의다 자기 부대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러나 와씰리는 첫 전투에서 자기의 동기생들이 어떻게 전사했는가를 되새기면서 한때 무섭게 굴던 중대장 꾸르쟈끄브를 생각했다. 그는 꾸르쟈끄브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픈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 그런데 간부과에서는 중년의 소좌가 피로한듯 와씰리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물었다.
《보나마나 자기 부대로 가겠다는거겠지?》하고는 답변도 기다리지 않고 결심해버렸다. 《그렇게 해주겠소. 련대를 찾을 필요는 없소. 엎디면 코닿을데니까. 오후에 명령서를 가지러 오시오.》
그렇게 되여 와씰리는 또다시 꾸르쟈끄브의 중대로 오게 되였다.
헌데 그에게 지금 그 공로에 대하여 표창내신을 해주고있다. 그 공로가 무엇인가?
와씰리는 우울한 생각이 들었다. (이젠 그만하고 보내주면 좋으련만… 그러나 다시 부상당하는 날에는 꼭 우리 련대를 찾아갈테다. 그것은 공로를 칭찬한다고 해서가 아니다. 또한 지금 이곳에서 까라바예브나 가르부즈가 자기 소대의 전사들을 손금보듯 빤히 알고있다고 해서도 아니다. 중요하게는 그들이 내가 어떤 사람이며 무슨 능력을 가지고있는가를 알고있기때문이다. 분명 이것이 매우 중요한것이다.)
《전쟁전까지 집에서는 어떻게 살았소? 아버지와 어머니는 무엇을 하오? 그리구 동무는 무슨 일을 하자구 했소?》가르부즈는 계속 깐깐히 캐물었다.
그 질문에 와씰리는 한숨을 쉬면서 대답했다.
《아버지는 시집행위원회 건설부문에서 일했는데 얼마전에 전사했

습니다. 여기 모스크바부근에서말입니다. 어머니는 력사교원을 했지요. 저는 비행사가 되려구 했지만 그만 시력때문에 불합격되였지요. 0.1이 모자라는바람에. 그렇지만 권투는 아직도 놓지 않았습니다.…》
《권투에서 성공했소?》 련대장이 말을 가로챘다. 《급수는 몇급이요?》
와씰리는 픽 웃었다.
《〈스파르타크〉팀의 경량급선수였습니다.》
《그것 보지. 와씰리, 이제 보니 자넨 진짜 보배덩이구만.》 가르부즈가 감탄했다. 《우린 여기서 련대장동무와 함께 자넬 좋은 직무에 배치하려구 했소. 야간전투에만 써먹자구 했는데 알구보니 동무 그런직무에 아주 적임자요.》 가르부즈는 까라바예브를 쳐다보면서 대답을 기다리는듯 말을 끊었다. 련대장이 와씰리에게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게 하자는것 같았다.
《련대에는 보병정찰소대가 있소.》 까라바예브가 말머리를 뗐다. 《그 소대를 까자꼬브중위가 지휘하고있소. 지휘한지 오래되지만 지금까지 눌러앉아있소. 때가 되면 그를 중대로 내보내자구 하는데 적합한 교대자가 없어서… 거기는 특수한 사람이 필요되오. 말하자면 정열적이구 령리하구 민첩한 사람말이요. 동무는 그런 기질을 다 겸비하고있소.》
《그보다 더 나으면 나았지 못하지 않소.》 가르부즈가 확신성있게 말했다.
《그밖에 동무는 권투계에서도 일정한 전적이 있지 않소.…레스링선수건 쌈보(격술의 일종)선수건 체조선수건 권투선수건 할것없이 체육선수는 다 정찰병이 될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구있단말이요. 그러나 와씰리동무, 명심해둘것은 정찰병의 힘이 그 주먹에만 있다구 생각지 말아야 하오. 정찰병에겐 또 명석한 두뇌가 필요하오. 이것은 더 론할 여지가 없소.》 까라바예브가 침착하게 말했다.
와씰리는 그 의견이 너무도 뜻밖에 제기된것이여서 의혹을 품기까지 했다.
《제가 해낼수 있겠는지?》
《이미 하고있는데 뭘 그러오.》 가르부즈가 활달한 목소리로 확신

시켜주었다. 《단번에 세놈의 〈혀〉를 잡구서두 또 뭣이 필요되오?》
와씰리는 까라바예브소좌가 겨우 알릴가말가하게 이마살을 찌프리고있는것을 눈치챘다. 가르부즈 역시 그것을 감촉했다.
《미안하오, 끼릴 알렉쎄예위치. 내가 당신의 말문을 막은게 아니요?》
까라바예브는 본의아니게 자기가 얼굴을 찡그려 정치위원을 무안하게 하지 않았는가고 생각되여 왜 얼굴을 찡그렸는지를 바삐 설명해나섰다.
《안드레이 다닐로위치, 당신도 알겠지만 알따이초원에서 소리치는데 습관되여 그럽니다.》
《그런 잘못두 있는법이요.》 가르부즈가 공감했다.
《중위가 위구심을 가진다는건 지당한 일이요. 정찰근무도 수업을 요구하니까. 하지만 일없소. 얼마든지 해낼수 있소. 까자꼬브가 경험을 대줄거요. 한두번 임무를 같이 수행하게 하겠소. 그러느라면 뭐가 뭔지 다 알게 될거요.》 까라바예브는 시계를 들여다보고는 묻기라도 하듯 정치위원에게 눈짓했다. 《이젠 그가 올 시간이 됐는데…》
《좀 늦어지는구만.》 가르부즈가 응답했다.
와씰리는 까자꼬브가 지체되는줄 알았다. 그런데 인차 말발굽소리가 나더니 삐걱거리며 썰매가 멈추어섰다.
련대장과 정치위원은 외투도 입지 않고 모자만 쓰고 문가로 달려갔다. 엄폐호안으로는 뭉게뭉게 피여오르는 하얀 증기와 함께 장령이 허리를 구부정하고 들어왔다. 까라바예브는 손을 올리고 그에게 정확히 보고했다.
《장령동지, 926보병련대는 종전계선에서 방어중에 있습니다. 어제밤에 당신에게 보고한것외에 제기된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오, 동무들!》 장령은 가르부즈보다 더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장령은 까라꿀양털로 만든 장군모를 쓰고 잘 지은 재빛외투를 입고있었는데 그것이 기병외투처럼 몹시 길어보였다.

《자, 당신의 야간전투영웅은 어데 있소?》하며 장령은 침착하게 외투단추를 벗기였다.
《바로 저 동무입니다.》 까라바예브가 와씰리쪽으로 머리를 기웃했다.
장령은 돌아보지도 않고 어느새 뒤에 서있는 글리예브의 손에 외투를 던져주었다. 그는 와씰리를 훑어보면서 추위에 꽛꽛해진 손으로 그의 손을 꾹 잡고 위엄있게 말했다.
《중위동무, 수훈을 축하하오. 최고쏘베트상임위원회의 이름으로 동무에게 〈군공〉메달을 수여하오.》
키가 늘씬하고 멋지게 생긴 상위가 사단장에게 메달이 들어있는 붉은 갑을 전달했다.
《칼이나 가위나 아무거나 주시오.》 장령이 요구했다.
까라바예브소좌가 그에게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 뾰족하게 깎은 연필을 가져다주었다.
《연필이라두 일없소.》 장령은 꼬깃꼬깃해진듯 너무나도 볼품없이 된 와씰리의 군복저고리단추를 벗기고는 호주머니 웃부분에 연필끝을 대고 돌리며 구멍을 냈다. 거기에 메달의 나사못을 끼우고 와씰리의 품속에 손을 넣고 손더듬으로 나트를 맞추고나서 그의 어깨를 탁 치며 말했다.
《젊은이, 달고다니라구. 건강한 몸으로 공을 많이 세우시오!》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일에 정신이 얼떨떨해진 와씰리는 가르부즈가 슬그머니 눈짓하는것을 겨우 눈치챘다. 마침내 정신을 차린 그는 좀 늦긴 했어도 기운차게 웨쳤다.
《쏘련을 위하여 복무함!》
가르부즈는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장령은 그를 칭찬했다.
《참, 장하오!》
부관이 탁상우에 지도를 내놓자 사단장이 거기에 다가서면서 까라바예브와 가르부즈를 불렀다.
와씰리는 엄페호 한복판에 혼자 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영문을 몰랐다. 처음으로 그가 마음먹은것은 누구도 자기의 혐오스러운 군복을 보지 못하도록 외투를 입는것이였다. 그의 군복에는 여직껏 그

처럼 만지고싶어하던 진짜메달이 환히 번쩍이고있었다. 그런데 문옆에는 글리예브가 서있어서 전사앞에서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보이기가 싫었다. 그래서 와씰리는 련락병에게 조용히 물었다.

《내 외투가 어데 있소?》

《여기 있습니다, 중위동지.》 글리예브는 제자리에서 까딱 움직이지 않고 대답하면서 메달을 눈여겨 바라보았다. 《좀 봐두 되겠습니까? 중위동지.》

《호기심이 나는 모양이지?》 와씰리는 상냥스럽게 승낙했다.

글리예브는 조심스레 두손가락으로 메달을 쳐들어보았다.

《묵직한데요. 은메달이겠지요?》

《물론이지.》 와씰리는 확신있게 대답했다.

와씰리는 외투를 입었으나 엄폐호 복판에서 한참 지도를 내려다보고있는 상관들에게 감히 말할 용단을 내리지 못했다. 장령은 사실상 가르부즈보다는 키가 크고 까라바예브보다는 훨씬 작았지만 어쩐지 그들중에서 제일 커보였다.

마침내 련대장이 뒤를 돌아보자 와씰리는 조용히 물었다.

《가봐도 되겠습니까?》

까라바예브는 그에게로 성큼성큼 다가서더니 나직이 말했다.

《참모장에게로 가보시오. 그가 까자꼬브를 불러서 필요한 지시를 주게 되여있소. 아마 그가 다 알려줄거요.》

와씰리는 밖으로 나가서 차거운 공기를 한껏 들이켰다. 엄페호를 지키던 보초병이 미소를 던지면서 와씰리쪽으로 머리를 기웃해보였다.

《중위님이 몹시 혼난 모양이군. 보라구. 한증탕에 들어갔던 사람처럼 땀투성인걸.》 보초병이 장령 호위병에게 비양조로 말했다.

《혹시 우리 사단장이 호되게 욕했을수 있지요.》

와씰리는 그 말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고요한 정적과 신선한 랭기에 취하여 행복스럽게 서있었다. 자기를 둘러싸고있는 백설로 뒤덮인 세계는 마치도 자기를 축복하여 찬연히 반짝이고있는것 같았다.

참모장인 꼴로꼴리쩨브소좌는 와씰리를 반가이 맞이했다. 그에게

는 일이 많이 밀리여서 중위와 미처 말할 겨를이 없었다. 하지만 참모장은 중위로 임명된것과 메달을 수여받은데 대해서도 그리고 와씰리와 까자끄브를 대면시켜야 하는것 등 모든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다.

《앉아서 좀 기다리시오. 곧 까자끄브가 올거요.》 그리고는 무엇인가 쓰기도 하며 펼쳐진 지도를 대충 더듬어보기도 했다. 적군과 아군의 위치가 색연필로 그려져있으며 참모부들이 기발로 표식되여있었다.

와씰리는 자기 주위를 두리번두리번 살펴보았다. 참모장의 엄페호는 련대장의 엄페호보다 작기는 하지만 그대로 아늑하고 일하기 편리하다고 생각되였다.

탁상은 널직하고 좌우측벽에 못으로 박아놓은 당반우에는 두개의 등잔불이 놓여있었다. 그것들은 엄페호안을 환히 비쳐서 지도를 잘 가려볼수 있었다. 다른 당반에는 색연필과 지휘관용부호자며 콤파스와 라침판이며 곡선자와 종이묶음 그리고 양초들이 놓여있었다.

참모장은 굵직하고 멋진 필체로 글을 갈겨썼다. 그의 얼굴은 누르끼레하게 반사되였다. 그것은 등잔불때문에도 아니고 피로하여서도 아니였다.

전화기가 따르릉하자 참모장은 수화기를 잡고 글을 계속 쓰면서 침착하게 《네, 련대장이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아니요. 련대장이 그걸 동의하지 않았소.》, 《안되오. 련대장에게 제기하지 마시오. 엄금하오.》라는 말로 답변을 주었다. 그리고는 쓰던 글을 부지런히 써내려갔다. 자기 목소리처럼 글도 똑똑하고 고르롭게 썼다.

와씰리는 처음으로 련대참모장이 일하는것을 목격했다. 여기서 본 많은것들이 그를 놀라게 했다. 참모장은 련대장이 무엇을 동의하고 무엇을 반대한다는것을 어떻게 알고있을가? 어떻게 그가 련대장의 의견도 받지 않고 그처럼 동요없이 확신성있게 자기 이름으로 지시를 주고있을가? 지어 련대장에게 말하는것을 금지시키고있지 않는가. 와씰리는 참모장에게 이런 권한과 권리가 있다는것을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다.

와씰리의 사색은 까자꼬브가 나타나자 중단되고말았다. 까자꼬브는 모자뒤를 올려썼다. 모자밑에서는 새까만 머리카락이 삐여져나왔고 코밑에는 고사리수염이 붙어있었다. 눈에서는 유쾌하고 능청맞은 시선을 엿볼수 있었다.

까자꼬브는 격식없이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보고했다.

《도착했습니다, 소좌동지.》

《어서 들어오시오. 이완 뻬뜨로위치, 인사하오. 바로 이 동무가 동무와 교대하게 됐소.》 어째서인지 참모장은 자기 일을 보면서 그에게 허물없이 응답했다. 까자꼬브와 손을 굳게 잡고 만족스럽게 악수를 하는 순간 와씰리는 그의 개방적인 성격과 우정에 대한 확고한 태도, 너그러운 마음이 내비치는듯한 그의 담찬 모습에 그만 매혹되고말았다.

《드디여 나타났단말이지요?》 까자꼬브는 와씰리를 힐끔 쳐다보았다.《참 잘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보겠습니다. 소좌동지.》

《잠간만!》 꼴로꼴리쩨브는 까자꼬브를 지체시켜놓고는 쓰던 글을 마저 다 쓰고 말을 계속했다.《그럼 이렇게 하시오. 이완 뻬뜨로위치동무는 와씰리에게 소대를 그저 넘겨주면 안되겠소. 그에게 잘 대주시오. 한 두어번은 임무를 주어 료해하게 해야겠소. 대원들과도 낯을 익히게 하면서 잘 도와주시오. 그러느라면 아마 동무의 매들도 자연히 어떤 지휘관인가를 알게 될거요.》

《일이 제대로 되게 하겠습니다, 소좌동지.》 얼굴이 밝아진 까자꼬브는 확신있게 말했다. 《전사들이 중위동무를 좋아할겁니다. 안심하십시오. 제가 잘 봐주겠습니다.》

《동무를 믿소. 이완 뻬뜨로위치, 률렌꼬브동무가 완쾌될 때까지 그 동무의 사업을 맡아하시오.》 그리고는 와씰리에게 설명해주었다.

《나의 정찰참모인 률렌꼬브대위가 지금 대대구급소에서 치료를 받고있소.》

까자꼬브는 단호히 반대해나섰다.

《저는 중대로 갈 차비를 했습니다. 소좌동지, 그런데 률렌꼬브를 대신해달라니, 중위동무를 도와도 주구 배워도 주어야 하지 않습니

까. 참모장의 부관노릇을 할수 없습니다. 종합보고요 지도요 하면서 밤낮 종이장만 주물러야 하는데 전 그런걸 모릅니다.》
《동무가 률렌꼬브의 일을 대신하라는건 림시적이요.》
《림시적이라도 할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야 전혀 깜깜이 아닙니까.》
《됐소. 정 그렇다면 와씰리동무와 같이 일하시오.》
《알았습니다. 중위동무, 갑시다.》 까자꼬브는 참모장이 또 무슨 일을 꾸며내지나 않을지 위구심을 가지고 재촉했다.
정찰병들의 숙소로 가는 길에 까자꼬브는 결이 나서 잠자코있다가 두덜거리기 시작했다.
《림시적이라구!… 률렌꼬브야 지금 앓으니까 그렇지 늘 박혀있을 사람이 아닌가.》 하고는 와씰리에게 머리만 돌리고 말했다.
《됐소. 동무자신에 대해 좀 얘기하라구.》
까자꼬브는 와씰리의 말을 주의깊게 들으면서 동감인듯 머리를 끄덕이고는 결론적으로 말했다.
《정찰에서 중요한건 굳센 의지요. 언제든지 덤비지 말고 침착해야 하오. 그렇지만 늘 서둘러야 하오. 동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적정을 알게 되니말이요. 알만하오?》 하고 까자꼬브는 웃기 시작했다.《응당 질서가 있는 법이니 와씰리동무, 이제 우리 동무들에게 인사부터 시키겠소. 진짜 매들이요. 베를린에 가서라두 〈혀〉를 잡아올 기세들이요.… 우리 〈궁전〉으로 들어갑시다.》
사실 정찰병들의 숙소는 첫눈에 괜찮아보였다. 숙소는 순전히 통나무로 지었는데 땅밑에 반나마 들어가있었다. 지붕밑에는 두개의 창문이 있었다. 벽을 따라가며 사방 판자로 침대를 만들어놓았다.
침대에는 향기로운 마른 풀을 다져놓고 그우에 방수포를 깔아놓았다. 머리맡에는 자동총과 수류탄, 멜띠들이 걸려있었다. 침대사이의 통로에는 탁상이 놓여있었는데 신문과 잡지며 빈 통졸임통에 넣은 도미노(골패의 일종— 역주)와 도이췰란드놈들의 야전밥통에 넣은 장기쪽이며 파라핀등잔이 놓여있었다.
(괜찮게 사는군.) 하고 와씰리는 생각하면서도 그 모든것이 이제 곧 자기의《세간살이》로 되리라는 확신은 완전히 가지지 못했다.

정찰병들은 휴식하고있었다. 몇사람은 침대에 누워있고 두 사람은 자동총을 닦고있었다. 한사람은 창가에 비스듬히 앉아서 너덜너덜하게 떨어진 책을 읽고있었다.
《동무들!》까자꼬브는 우렁차게 소리쳤다. 모두가 그쪽을 향해 돌아서자 심중한 어조로 말했다.《내가 이미 말했지만 생우유는 잘 끓여야 한다는걸 강조하오. 내가 이미 확인했지만 끓이는 물건은 모두 철도역들에서 무료로 내주고있다는것을 재삼 일러두는바요.》
정찰병들은 키득거리면서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무슨 새 소식이 없습니까, 중위동지?》 건장하게 생긴 대원이 정다운 시선으로 어린애처럼 지휘관을 바라보면서 물었다.
《이제 새 소식을 말하겠소.》 까자꼬브가 계속했다.《동무들에게 새로운 지휘관인 와씰리 로마슈낀중위를 소개하오. 화선에서 싸운 동무요. 어제밤에 단번에 세놈이나 생포했소. 누구도 그와 아웅다웅하지 말아달라는것을 특별히 권고하는바요. 왜냐하면 그가 권투선수권보유자이므로 자칫하면 머리가 떨어져나갈수 있기때문이요.》
정찰병들은 와씰리가 생각했던바대로 몹시 흥미있어서인지 그를 보자 슬금슬금 탁상에 나와 마주앉았다.
《그러니까 아예 떠나간단말인가요?》건장한 대원이 시무룩해서 물었다. 《우릴 버린단말이지요?》
《내가 어떻게 동무들을 버리겠소? 아마 어느 한 련대에서 복무하게 될게요. 전투를 하면서 놈들을 족치겠소.》까자꼬브는 될수록 쾌활한 기분으로 대꾸했다.
《거기에 가면 봉급을 더 많이 주는가요?》 다른 대원이 물었다.
《한 백루블은 더 줄게요.》
《그렇다면 우리 둘이서 나눠가집시다.》
와씰리는 그저 심심풀이로 하는 롱담이 아니라 정찰병들이 사랑하는 지휘관과 헤여지는 쓸쓸한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리해했다.
전사들은 까자꼬브를 신뢰했다. 까자꼬브는 그들과 함께 죽음을 맞받아 나간적이 한두번이 아니였다. 자기의 기민하고 대담한 행동으로 전사들을 위기에서 구원한적 또한 얼마였던가! 바로 지금 그들이 옛 지휘관과 헤여지게 된다.

까자끄브는 이러한 서글픈 분위기를 롱담으로 넘겨버리려고 했다.

《동무들, 문제는 돈을 얼마 받는가에 있는것이 아니라 내가 전쟁전기간에 소대장으로 함께 있을수 없다는 거기에 있소. 글쎄말이요. 집에서 편지를 받아보느라면 이웃 동무였던 니꼴라는 대대를 지휘한다, 찌모페이는 중대를, 루고워이 역시 대대를 지휘한다 하질 않겠소. 그래 나라구 다른 사람들보다 못할게 뭣이 있소? 만일 그저 소대장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아마 장모가 생 야단일거요. 그러구보면 참 우리 장모는 륙신박격포보다도 더 사납단말이요. 정 소원이면 내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 작정인가를 동무들에게 말해주겠소.》

와씰리는 정찰병들이 주저하는것을 보았다. 그들은 지금이 롱담할 때가 아니라는 인상을 주려고 했지만 어느새 벌써 눈시울이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아무 얘기두 일없습니다. 중위동지.》하고 누군가 호응해나섰다.

까자끄브는 탁상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말을 계속했다.

《자, 글쎄 내가 대위복장을 하고 집에 나타난다구 생각해보시오. 내 가슴팍에는 훈장이 번쩍이구, 배낭안에는 선물이 가득차 있구말이요. 사랑하는 안해도 물론 당장 달려나오면서 나에게 척 안길게요. 장모는 만두며 삐로그며 여러가지 안주를 한상 푸짐히 차릴게 뻔하지 않소. 그때 나는 이렇게 말하겠소. 〈아닙니다. 잠간만, 친애하는 여러분네들, 제가 우선 당신들에게 전쟁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해드리구 전쟁이 어떤가를 실물로 보여드리자구 합니다. 모두들 마당이나 아니면 저기 공원으로 가십시다. 그리구 삽들두 하나씩 드십시오.〉하구말이요. 그 다음에는 한사람에게 땅을 3메터씩 재준단말이요. 〈어서들 파시우. 깊이는 모가 나게 한메터 반을 파야 합니다.〉하구 요구하겠소. 그러면 모두들 파기 시작할게 아니요. 손에 피멍이 들 때까지 파다가는 〈우릴 제발 놓아주게, 이완 뻬뜨로위치.〉하고 애원할게요. 이때 난 〈안됩니다. 어서 파십시오.〉하고 말하겠소. 그리구 전호를 다 파게 되면 한사람당 물 두바께쯔씩

차례지게 길어다가 머리에 막 끼얹으면서 〈그 구뎅이에서 젖은채로 적어두 하루밤만은 앉아서 지내시오.〉하고 명령하겠소. 그러면 그들은 다시금 〈제발 우릴 좀 놔주게나, 이완 뻬뜨로위치.〉하구 빌거란말이요.》

까자끄브는 정찰병들에게 그 모든것을 상상할 기회를 주는듯 숨을 돌리고는 말을 계속했다.

《물론 그 다음에 그들을 놔주면서 이렇게 말해주겠소. 〈바로 여러분들은 그런 조건에서 하루밤도 배겨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나는 무려 두해째나 견디여냈습니다. 말하자면 수백일 낮과 밤을 눈비속에서 싸웠습니다. 게다가 엎친데 덮친다구 매일과 같이 포탄과 폭탄이 나에게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 모든것을 인내성있게 참으면서 당신들을 보위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십시오. 당신들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경의를 표해야겠는가를 말입니다.〉가령 이런 이야기를 엮어댄 후부터는 아마 우리 장모도 내곁을 지날 때마다 발끝으로 조심스레 걸어가게 될게요.》

정찰병들은 한결 명랑해졌다.

《됐습니다. 중위동지, 이젠 대위로 옮겨앉으십시오.》

롱담이라고 하지만 그들자신은 훌륭한 지휘관인 그가 전쟁전기간에 중위로만 눌러앉아있을수 없다고 리해했다. 그렇다면 이젠 그들은 바로 와씰리에게 주의를 돌려야 한다. 그는 즉시 그것을 예감하고 자기의 메달을 되새겨보면서 (옷을 벗어야지. 모두가 볼수 있게.) 하고 마음먹었다. 그리고는 가슴에 훈장을 단 정찰병들이 없는가를 슬며시 둘러보았다.

《여긴 참 덥구만.》와씰리는 목소릴 약간 높이면서 외투를 벗고 걸어놓을 곳을 살펴보았다.

《미안하오, 동무. 미처 옷을 벗으라구 못했구만.》까자끄브가 면구스럽게 말했다. 《저기 저 구석이 내 자리요. 거기에 걸어놓소. 잠은 거기서 나하구 같이 자면 되오. 사관장이 침구를 갖춰줄게요.》

와씰리는 못에 외투를 걸어놓은 다음 군복저고리를 바로잡고 메달을 번쩍이면서 탁상옆에 나와앉았다. 정찰병들이 메달을 번갈아보는게 분명했다. 그들의 인상에 만족한 와씰리는 군복이 쭈글쭈글해진

데다가 반외투에서 털까지 묻어 희슥희슥하긴 해도 자기가 그 어떤 후방군인도 아닌 바로 전호에서 싸운 화선지휘관이라는것으로 하여 여기서는 응당 자기의 권위가 선다고 생각했다. 정찰병들이 그러한 지휘관을 존경하리라는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 ×

대낮에는 경계초소쪽으로 기여갈수 없었다. 그리하여 와씰리는 어두워질 때까지 머물러있었다.

《저런, 영 못볼줄 알았더니 나타났군.》 꾸르쟈끄브는 여느때나 다름없이 무뚝뚝하게 와씰리를 맞이했다. 《난 동무가 이젠 다시 오지 않을거라구 생각하면서 제1선에서 갑자기 떨어졌다구 못내 기뻐했소.》

와씰리는 이러한 말투와 모욕적인 언사가 부러움에서 나오는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꾸르쟈끄브에게 복종되여있지 않으며 중대장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있는것이다. 서로 복종관계에 있을 때에도 와씰리는 그앞에서 굽신거리지 않았다. 그리하여 오늘도 와씰리가 명백히 호소하듯 대꾸했다.

《중위동무, 난 1선중립지대 훨씬너머로 사라졌댔소. 대체로 그만하면 모든것이 종전대로요. 나는 전방에 있구 당신은 나의 배후에 있으니까.》

와씰리는 그전에 꾸르쟈끄브에게 종종 《너》라고 함으로써 약을 올려주군했는데 이번에는 《당신》이라고 존대말을 썼다. 그것은 그가 이제는 더 자기를 보고 《너》라고 할수 없으며 《당신》이라고 해야 한다는것을 상기시켜주는것이였다.

꾸르쟈끄브는 와씰리의 이런 행동에 대하여 그전에는 어리석게 놀다가 이제 와서는 놀랄만치 거드름을 피우는 출세한 사람의 철면피성으로 감수하였다. 꾸르쟈끄브도 《당신》이라는 말을 강조하였지만 그 말투에는 소대장과 중대장사이의 복종관계라는 종전의 냄새가 그대로 풍기였다.

《당신은 아브제예브중사에게 규정된 격식대로 소대를 인계하

시오. 다음에 중사와 같이 와서 인계인수정형을 보고하시오.》
와씰리는 중대장의 지시에 깔려있는 숨은 뜻을 리해했다. 크게 인계할것이 없어도 형식상 꾸르쟈끄브가 말한것이 옳다. 소대가 가지고있는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은 흔히 병원으로 떠나가거나 전사하였을 때 소대지휘관들이 그것을 인계해준 일이 거의나 없었다. 그렇지만 내무규정에는 인계인수절차를 그대로 밝히였다.
《그렇게 하겠소. 중위동무.》와씰리는 일부러 규정대로 대답하지 않고 다시한번 꾸르쟈끄브를 골려주려는 심산에서 이렇게 제기했다. 《그런데 혹시 특별한 경우를 생각하여 당신이 직접 나와 함께 경계초소를 돌아보며 인계인수과정을 친히 살피는게 어떻소. 그리구 현지에서 직접 새로운 지휘관에게 전투명령을 주면 안되겠소?》
꾸르쟈끄브는 랭소하듯 비웃었다.
《난 당신이 념려하지 않아도 그런것쯤은 생각하였소. 와씰리동무. 거기에 나가보면서 할건 다 해놨단말이요. 당신의 소대는 벌써 여기에 와있소. 경계근무는 중위를 비롯한 다른 구분대가 맡았소. 그러니 어서 가서 재산이나 인계하시오. 당신의 보고를 기다리겠소.》
와씰리는 자기 소대를 첫번째 전호에서 만났다. 그 전호는 자기가 전방 외딴고지에 자리잡고있던 전호보다는 좀 길죽해보였다. 전호벽들에는 《여우굴》을 파놓고 사격을 하거나 공격할 때 뛰여나가기 편리하게 계단을 만들어놓았다. 그리고 엄폐호도 더 든든해보였다.
《2소대장 중사 아브제예브.》인수자가 자기 소개를 했다.
《축하하오.》와씰리가 말했다.
《뭘 말입니까? 첫 공격자로 나서게 된걸말입니까?》중사가 물었다.
《지휘관이 된걸말이요.》
《그럼 제가 말하겠습니다.》
소대를 인계하는것은 그닥 까다로운 일이 아니였지만 어쨌든 꾸르쟈끄브가 사소한것까지 시시콜콜히 다 캘수 있으므로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중사와 무엇이든지 빠짐없이 따져가면서 약속해야

했다.

아브제예브는 좀 수다스러운 편이여서 와씰리의 말을 듣고 제꺽 응해나섰다.

《소대인원은 스무명인데 맞소?》

《네, 맞습니다.》

《보총은 열한정이고 중기관총은 한정인데 맞소?》

《맞습니다.》

《작은 삽이 열한개이고 방독면도 열한개인데 다 있소?》와씰리는 정신을 바싹 차리였다. 방독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있지 못했다. 그것들은 내버린지 퍼그나 오래되였다. 그리하여 방독면주머니에는 먹을것과 탄약이며 기타 개인물건을 건사해두었다.

《다 있습니다.》중사는 생각도 없이 대꾸했다.

《그런데 방독면이 지금 어떻게 되여있는지 직접 알고있어야겠소.》

《다 알고있습니다, 중위동지.》

《그럼 어떻게 돼있소?》

《만일 화학경보가 나면 우리 정찰이 어련히 놓치지 않을거라구 생각합니다. 아마 그때엔 새 방독면을 가져다줄겝니다.》

《내가 말하는건 중대장에게 하는 보고를 말이요.》

《네, 중위동지. 크게 보고할게 있습니까? 그저 당신이 인계해주구 나는 전량을 인계받았다구 하면 되지요.》중사는 말을 슬쩍 중둥무이하더니 자신없이 간청했다. 《가능하면 당신의 그 자동총을 소대장에게 주듯 저에게 주면 안되겠습니까?》

와씰리는 정찰할 때 자기는 자동총을 얻게 될것이며 만일 얻지 못한다해도 까자꼬브가 자기것을 가져가지 않고 내놓을것이라고 생각했다.

《가지시오. 중사동무, 그 총은 동무에게 진짜 필요될거요. 자, 받으시오. 예비탄창도 있소. 두개의 탄창에는 가뜩 장탄되여있소. 또 내 배낭에는 탄알이 좀 있소. 같이 가기요. 그것두 마저 줄테니…》

묵중한 자동총에 습관된 와씰리는 그것을 벗겨주자 무엇인가 잃어

버린듯 허전한감이 들었다. 그는 엄페호에서 자기 전사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바래주겠는지 흥미있는 일이다. 정찰병들은 까자꼬브가 떠나간다는것을 알고 서글퍼했다. 나의 전우들은 무엇이라고 말할가? 나는 그들과 한전호에서 같이 싸우고 생활하면서 한가마밥을 먹고 한 기관총으로 사격도 같이하고 화약내도 같이 맡지 않았던가. 혹시 내가 떠나간다면 오히려 기뻐하지 않을가? 그렇게는 되지 않을거야. 나는 꾸르쟈꼬브처럼 시뿌둥한 사람은 아니였으니까.…) 그가 비록 내무규정대로 정확히 행동하고 자기 권한에 속하는 문제보다 더 많이 물어보지 않았어도 어딘가 모르게 와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꾸르쟈꼬브의 말에 대한 반감과 그의 모욕적인 랭담을 막아보려는 욕망이 꿈틀거리고있었다.

와씰리는 마흐뜨낀과 비류꼬브, 예프레모브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와씰리가 구령을 내리면 그들은 언제나 맨 선참으로 일어나 내달렸으며 그와 함께 원쑤들의 기관총을 맞받아나갔다. 어제밤에만 해도 그들은 흠잡을데 없이 훌륭히 행동했다. 참 좋은 동무들이다.

와씰리는 자기의 울적한 기분을 숨기지 못한채 그들에게 말했다.

《자, 그럼 슬라브형제들, 헤여집시다.》

전사들은 그를 에워쌌다. 마흐뜨낀이 모두를 대표하여 말했다.

《우릴 잊지 말아주시오. 중위동지.》

《내가 어떻게 잊겠소?》 와씰리는 자기 가슴팍의 메달을 생각했다. 어쩐지 그들앞에서 도이췰란드놈들을 함께 족치였는데 자기만이 메달을 달았다는 거북스러운 생각이 없지 않았다. 《어떻게 동무들을 잊겠소?》 와씰리는 저도모르게 그 말을 다시 되풀이했다. 《보시오. 동무들이 나를 얼마나 잘 도와주었소.》

와씰리는 외투단추를 벗기고 앞가슴에 번쩍이는 둥근 메달을 보여주었다. 전사들은 메달을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쓴 글자와 번호를 읽었다.

예프레모브가 눈치빠르게 응해나섰다.

《그 메달이야 중위동지가 응당 수고해서 탄게 아닙니까. 대번에 그런 비범한 일을 다 생각해내구 도이췰란드놈도 직접 붙잡지 않았습

니까. 그러니 중위동지가 받아야 하는건 당연한 일이지요.》
《난 다른 동무들도 같이 받았으면 했소. 말하자면 비류꼬브동무와 마흐뜨낀동무도 놈들을 잡지 않았소.》
《우린 앞으로 탈 때가 있을겁니다.》 마흐뜨낀이 쾌활하게 말했다.
《아직 베를린까지 밟아보자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데요.》
와씰리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아직은 그의 전우들이 까자꼬브에게 쏟아붓던 정찰병들의 그러한 사랑의 감정을 다 내비치지는 못했어도 여전히 와씰리에게 관심을 두었다.
(하긴 그래, 어쨌든 난 까자꼬브가 아니니까.) 와씰리는 내심으로 강조했다. (그 사람은 얼마나 장한가. 난 반나절을 그와 같이 있으면서 그에게 정들지 않았는가.)
《우리한테 종종 들리십시오.》 마흐뜨낀이 말했다.
《동무들을 어떻게 지나치겠소. 도이췰란드놈들한테로 가자면 동무들을 거쳐야 하는데. 그럼, 동무들, 잘 있소. 아브제예브동무, 가서 중대장에게 보고합시다.》
…꾸르샤꼬브는 규정대로 보고를 받으려고 일어섰다. 그는 보고를 다 듣고나서 아브제예브에게 엄하게 물었다.
《다 넘겨받았소?》
《정확히 다 받았습니다.》 중사가 선뜻 대답했다.
《자동총도 받았겠지?》
《네, 그것도 정확히 받았습니다.》
중대들에 자동총들이 차례진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그것도 아직은 소대장과 일부 중사들에게만 내주었다. 그리하여 꾸르샤꼬브는 《한정의 자동무기》라도 떼우고싶은 생각이 없었던것이다.
와씰리는 꾸르샤꼬브가 언질을 잡지 않겠는가를 기다렸지만 끝내 트집을 잡지 못하였다.
《동무는 가도 되겠소.》 꾸르샤꼬브는 아브제예브중사에게 말했다. 그는 중사가 나가자 와씰리에게 자리를 권했다. 《앉으시오. 사내답게 헤여집시다.》

《그렇게… 헤여질수 있지요.》 와씰리가 시무룩해서 응했다.
《동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싶구만.》
와씰리는 대담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난 당신을 종전에 생각하던것처럼 생각하지요. 그게 다요.》
와씰리는 노기가 터지길 바랐다.
그러나 꾸르쟈꼬브는 그저 미소를 지으면서 그의 옆을 쳐다보며 화해조로 말했다.
《수닭들이 싸우는걸 본 일이 있을거요. 푸다닥, 푸다닥하면서 서로 떨어지지 않는걸말이요. 그것들이 왜 싸우는지 알겠소? 물론 모를테지요. 그것들도 모르고있소. 바로 동무가 그 수닭이나 다름없단 말이요. 아직 생활에서 본거란 아무것도 없을테니까. 양성소에서 날아와서는 고작 한번 공격을 해보고 꼬끼요—하면서 병원에 갔다오질 않았소. 사실말이지 지금은 진짜 더 크게 꼬끼요, 꼬끼요—하고 울고있소. 용맹한 군인으로 자처하면서 … 자, 그만하기요. 가시오. 수닭동무, 우리들중에서 누구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후에라도 알게 될거요. 건강하길 바라오.》
와씰리는 어안이 벙벙해서 밖으로 나왔다. 련대참모부로 가는 얼마되지 않는 시간에 그는 꾸르쟈꼬브와 함께 근무한 지난날을 돌이켜보았다.
여하튼 주어진 사실은 와씰리가 항상 옳은것이 아니였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꾸르쟈꼬브가 일부러 자기의 권한을 시위하려고 생각했겠는가. 그는 권력을 시위한것이 아니라 중대장의 의무를 다했을뿐이다. 깔보지 않았는가? 바로 그는 양성소의 전과정을 졸업하고 1941년 6월부터 전투에 참가했다.
와씰리는 이러한 사색을 가정문제에로 돌리였다. (당분간은 어머니에게 새로 임명된데 대하여 편지를 쓰지 않겠다. 그렇지 않으면 공연히 걱정하면서 어머니는 전혀 잠들수 없게 될것이다.)

× ×

와씰리는 자기가 벌써 다음날 밤에는 정찰병들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러 갈것이며 《혀》도 끌어올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혀》를 잡으러 가기 앞서 대상을 골라 구체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까자꼬브중위는 두명의 정찰병을 데리고 와씰리와 함께 첫번째전호를 따라 련대의 여러 방어구역에 나가보았다. 쌍안경과 포병들의 포대경을 리용하여 도이췰란드놈들의 진지를 감시했다. 까자꼬브는 적의 화점에 포대경의 초점을 맞추어놓고 와씰리를 불러 그가 무엇을 보았는가를 물어보고 직접 그에게 발견된 목표물에 대하여 말해주었다.

늘 그러하듯이 까자꼬브는 숨겨진 대상들을 훨씬 더 많이 찾아내군 하였다. 와씰리는 그의 침착하고 친절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만일 꾸르쟈꼬브가 나보다 더 많이 발견하기만 하면 그는 벌써 내 앞에서 거드름을 피웠을것이다.)라고 생각했다.

가끔 와씰리는 의혹을 품기까지 했다.

《아무데서 〈혀〉를 잡든 다를게 무엇이요? 어디 가든 사격을 받기야 매한가지가 아니요?》

《사격을 받을수 있다는건 사실이요. …그럴수 있소. 사격은 이발로 땅바닥을 물어뜯을 정도로 그렇게 세차게 진행되기도 하오.》까자꼬브가 동감했다. 《동무는 모든 일을 조용히 처리해나가자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를 좀 생각해보오.》

《조심히 기여나가야 하지요.》

《그것도 옳긴옳소. 하지만 명심해둘것은 어디서 기여나가는가 하는것이요. 개활지대로 기여가느라면 백메터두 못가서 발견되고말거요.》

《왜서 개활지대로 가겠습니까?》

《음, 적 대상물로 접근하는 길을 찾아내야 한단말이요. 유리한 접근로를… 나하구 같이 그걸 찾아내봅시다. 대상물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런데 유리한 접근로는 모든 대상물에 다 있는건 아

니요.…》
드디여 고지에 있는 중기관총이 대상물로 선택되였다. 와씰리는 자기가 그런 대상물에 접근하느라고 오래 지체하지나 않겠는지? 정말 거기로 몰래 접근할수 있을런지?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러나 까자끄브가 곧 유리한 골짜기를 찾아냈다.
《거기로 갑시다. 그곳에는 사계가 있어야 하오. 뻐젓이 서서는 가지 못하지만 기여서는 갈수 있소.》
캄캄한 밤중에 까자끄브와 와씰리 그리고 두명의 정찰병인 끄노뽈레브중사와 로가찐전사가 중립지대로 떠나갔다.
그들은 고지에로 가는 접근로를 주의깊게 더듬어갔다. 기관총이 짖어대면 눈무지에 파고들어가 반듯이 누워서 예광탄의 백광을 바라보군했다.
목표물에 가깝게 접근한 그들은 수풀뒤에 웅크리고 앉아 담배를 피워물었다. 그러면서 담배불이 적의 눈에 뜨일가봐 모두들 놈들의 전호쪽으로 등을 돌려대고있었다.
《정찰을 준비함에 있어서 대상물에 너무 바싹 접근하지 말아야 하오.》 까자끄브가 나직한 목소리로 조용히 귀띔해주었다. 《눈우에 흔적을 남기게 되면 놈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인차 알아차리게 되오. 그때에는 사격을 받게 되오. 알겠소?》
와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을 하긴 했지만 조급성에 사로잡혀 몹시 안달이 났다. 무엇때문에 꾸물거리기만 하는가? 오늘 당장 모든 정찰병들을 다 여기로 데리고올수 있으련만. 그들은 철조망가위만 있었어도 곧 도이췰란드놈들의 장애물에 접근하여 통로를 내고 놈들을 끌고올수 있었을것이다. 로가찐이나 끄노뽈레브와 같은 동무들은 혼자서 어떤 놈들이나 다 묶어올수 있다. 와씰리는 오직 도이췰란드놈들의 전호에 돌입할 생각으로 하여 자기자신에 대하여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러나 까자끄브는 여전히 서두르지 않고있었다. 낮에는 다섯명의 정찰병들을 더 뽑아서 그들을 전선쪽이 아닌 련대후방으로 해서 포병진지너머로 데리고갔다. 그곳에서 밤에 가기로 계획한 대상과 비슷한 고지를 하나 선택했다. 보충적인 통보를 하지 않고 즉시 임무

를 설정했다.
《와씰리동무는 모든 조들의 지휘관으로서 생포조의 책임자요. 생포조에는 동무와 함께 끄노뽈레브와 로가찐을 임명하오. 보장조의 조장은 루즈긴중사요. 동무에게는 네명을 주겠소. 쁘로레뜨낀, 포멘끄, 쓰뚜질린, 찌꾸노브동무들이요. 그밖에 우리에게는 두명의 공병이 있소. 루즈긴동무는 자기 조와 함께 공병이 개척한 통로옆에 엎디여 기다리시오. 일이 성공되면 〈혀〉를 데리고가는 중위동무를 통과시키시오. 꼭 그렇게 한 후에만 퇴각하시오. 만일 놈들이 생포조의 퇴각을 방해하게 되면 수류탄을 던지며 자동총화력으로 저지시켜야 하오. 혹시 놈들이 많은 력량으로 추격하여오면 한발의 적색신호탄으로 포화력을 요구하시오. 나는 포병과 미리 약속해두겠소. 신호총을 휴대하는것을 잊지 마시오. 알만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훈련해봅시다. 보장조 앞으로!》
루즈긴과 함께 네명의 조원들이 고지로 올라갔다.
《동무들과 같이 공병들도 가오.》까자꼬브가 말을 계속했다. 《와씰리동무, 이제 동무네 조는 루즈긴조로부터 한 50메터씩 떨어져 가시오. 앞으로 갓!》
까자꼬브자신도 옆에서 걸어갔다.
두개 조가 고지에 100메터쯤 접근하자 까자꼬브가 설명해주었다.
《좀더 가시오. 혹시 잊을수 있겠는데 끌짜기로 해서 기여가시오. 물론 여기에는 골짜기가 없소. 하지만 동무는 포대경으로 그것을 봐두었다는걸 잊지 마시오. 어제 밤에 거기로 기여갔다오지 않았소.》
《꼭 새겨두겠습니다.》 와씰리가 확신성있게 대답했다.
《공병들이 철조망을 자르게 되면 동무는 가만히 엎디여 감시하시오. 루즈긴동무, 통로가 준비되면 어떤 신호를 주겠소?》
《손을 흔들겠습니다.》
《그런데 손이 보이지 않으면?》
《그때엔 좀더 가까이 기여가서 손을 흔들겠습니다.》
《기여간다는것은 위험한 일이요. 거기서는 쓸데없이 움직이다가는

로출될수 있소. 그렇게 되면 수고는 수포로 돌아가게 되오. 기여가지 않는게 더 좋소. 와씰리동무와 생포조전체가 루즈긴동무를 주의깊게 살펴야 하오. 그가 손을 흔드는가를 놓치지 말고 꼭 봐야겠소.》

《꼭 보겠습니다.》

《그럼 좋소. 이제 몇가지 철수방법을 련습해봅시다. 첫번째 방법은 추격을 받는 경우이고 두번째는 추격을 받지 않는 경우요. 그리구 세번째는 희생자와 부상자를 데리고 철수하는 경우요.》 까자꼬브는 와씰리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면서 처음으로 엄격하게 말했다.

《중위동무, 명심해둘것은 정찰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단 한명의 부상자와 희생자도 떨구지 않는것이요. 물론 희생자가 어디에 놓여있건 관계없소. 그러나 만일 희생자를 내버려두게 되면 다음번에는 살아있는 동무들이 꼭 동무와 함께 가는걸 꺼려하게 되오. 각자는 부상자를 적후에 남겨둔 사람이 없는지,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바로 그런 일이 누구에게서 생기지나 않겠는지 하는것을 의례히 생각해야 하오.

그러므로 임무를 수행하러 떠나갔던 정찰병들은 무조건 돌아와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하오. 누가 살았으며 누가 희생되였는가를 알아야 하오.》

정찰훈련은 오래동안 진행되였다.

와씰리는 깊은 눈속에 빠지면서 뛰기도 하고 기여가기도 하여 온몸이 끈끈해났다. 다른 대원들의 옷도 젖어있었다.

와씰리는 정찰병들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아마 나를 책망하겠지. 내가 햇내기다나니 그들이 곱절 힘들것이 아닌가. 그들은 오래전부터 구체적인 행동방법을 다 꿰들고있을텐데.) 훈련이 끝났을 때는 까자꼬브도 역시 땀투성이가 되여 이마에는 고팡나무잎이 달라붙기까지 했다. 까자꼬브는 와씰리에게 교훈적인 말을 해주었다.

《와씰리, 바로 그렇게 매개 임무수행과정을 련습해야 하오. 여기서 만단의 준비를 하시오.》

그는 적이 있는쪽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적들이 있는 그쪽에서는 말은 물론 구령 한마디도 줄수 없소. 거기서는 모든 행동을 작성된 대본에 따라 해야 하오. 알겠소?》

《잘 알았습니다.》

《알았으면 됐소. 그리고 내가 동무와 같이 끄노뻴레브와 로가찐 두 동무를 데리고 사방에 다닌게 무엇때문이겠소? 경계를 위해서요 아니면 산보하자구? 물론 그런게 아니요. 그 동무들은 지금 우리의 모든 의도를 잘 알고있소. 그럼 무엇때문에 그랬겠소?》

《잘 도와주게 하자는거지요.》

《동무는 참 머리가 좋소!》까자꼬브가 칭찬하면서 보태였다.

《우리는 전쟁을 하고있소. 동무나 나나 임의의 순간에 지어 정찰을 준비할 때에도 잘못될수 있소. 그런데 정찰에서는 휴식이 있어서는 안되오. 내가 잘못되면 동무가 대신 나가구 동무가 잘못되면 그들이 정찰조를 지휘해야 하오.》

(선량하고 전술에 능한 지휘관이야. 정찰병들이 그를 좋아하는것이 공연한 일이 아니로군.) 하고 와씰리는 확신했다.

《자, 동무들, 이젠 식사하러 갑시다.》 까자꼬브가 명령했다.

이러한 류의 명령은 늘 삽시에 집행되는 법이다. 정찰병들이 다닌지 오래된 발자국을 따라 줄지어 걸어갔다.

까자꼬브는 와씰리에게 조용히 물었다.

《그래, 지금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고있소?》

《일렬종대로 걸어가지요.》

《맞았소. 내무규정에서는 그걸 그렇게 부르고있소. 그러나 정찰병들은 자기 구역안에서도 앞사람이 걸어간 발자국을 따라서만 다니게 되여있다는것을 잊지 마시오. 이것은 생활이 가져다준 교훈이요. 그러니 동무는 꼭 앞사람의 발자국을 따라서만 다녀야 하오. 지뢰를 밟는 날에는 한사람을 그저 잃게 되오. 될수록 생눈길이나 풀숲이나 밭으로 다니는것이 안전하오. 그리구 한사람이 다닌것처럼 발자국을 남겨야 하오. 이것은 전투에서도 매우 중요한거요. …》

× ×

임무를 수행하러 떠나기전까지 아직 일정한 시간이 남아있었다. 정찰병들은 저녁식사를 하고 좀 휴식할수 있었다. 그러나 침대에 올라가 눕자고 서두르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다. 까자꼬브가 야간정찰에 선발한 대다수 정찰병들은 준비를 계속하고있었다. 지금 흥분되여있는 사람들이 있을수 있지만 그렇다고 외적으로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없었다. 오히려 모두가 안정되고 명랑한 기분에 싸여있었다.

이완 로가찐은 흰눈우에 자동총이 거멓게 나타날가봐 거기에 깨끗한 붕대를 감고있었다. 건장하고 어깨가 쩍 벌어진데다가 입이 무거운 그는 덤비지 않았다.

로가찐의 곁에 앉아있던 싸샤 쁘로레뜨낀은 어린애같이 깜찍해보였다. 그의 동작은 매우 민첩하였다. 쁘로레뜨낀은 코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역시 자동총에 감았던 붕대를 새것으로 갈아대면서 여느때처럼 또 로가찐에게 치근거렸다.

《어디 말 좀 해보게나. 이완, 하필 자네 성은 왜 그렇게 달았나?》

모두가 조용해지더니 그들의 말을 엿듣고 쁘로레뜨낀이 무슨 엉뚱한짓을 꾸며낸다는것을 눈치챘다.

로가찐은 대답을 인츰 하지 않았다. 말없이 한동안 붕대를 탐탐하게 감아내려가다가 한마디 툭 내뱉았다.

《그런데 어쨌단말이야?》

《응, 보통이름이 아니여서 그래. 로가찐(로씨야말에서 사냥할 때 쓰는 창의 이름—역주)이란게 뭐야. 자네가 언제 창같은걸 다 찔러봤을라구?》

로가찐은 책망하듯 머리를 저었다.

《그래 나한테 왜 그런 성을 붙여주었나 그 말인가? 글쎄 내 할아버지가 창을 가지고 곰사냥을 다니질 않았겠나.》

《그럼 자네두 갔댔나?》

《난 총을 가지구 갔댔지. 지금은 창이 없이두 할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넨 사냥군이군?》

《사냥군이라구는 말할수 없지. 난 농사를 지었댔으니까. 말하자면

밭을 가꾸어 자넬 먹여살렸지. 사냥이라는거야 심심풀이로 하는건데 그건 휴식하는거나 같아.》

《그러나 자넨 어쨌든 사냥군이 아닌가.》

《그렇다구 하세.》 로가찐이 긍정했다.

《이완, 자네 기린고기를 먹어본적이 있나?》

《기린은 우리 고장에 없어. 그건 아프리카에서 살아.》

《헌데 난 기린을 먹어봤거든.》 싸샤가 침착하게 말했다.

《너따위가 어떻게 아프리카에 다 가봤겠나?》

《나라구 왜 못가겠나? 아군이 끼예브에서 물러날 때말이야. 거기서는 동물원의 맹수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겠나. 그래서 나는 한 친구와 함께 기린고기를 다 맛보게 됐네. 하마고기두 먹어보자구 했던건데 그만 기름이 너무 많아서 좋지 않길래 먹지 않았어.》

《그만 닥치지 못할가?》

로가찐이 규탄하듯 말했다.

《왜 그래?》

《그 사건으로 자넬 재판에 넘겼어야 했을걸. 어디 그럴수 있나. 희귀한 동물들을 마음대로 쏘아죽이다니?》

《자넨 참 날랜 사람인데.》 싸샤는 이완앞에서 곤경에서 빠져나갈 궁리를 했다. 《그럼 자넨 쏘지 않았나?》

《내가 어떻게 쏜담?》

《그러니까 자넬 재판에 넘겨야겠네. 후퇴하면서 파쑈놈들에게 아무것도 넘겨주지 말라면서 소개하든가 아니면 없애치우라고 하는 명령이 내린걸 몰랐어? 기린이야 어떻게 소개해? 그건 아무리 큰 차칸에도 실을 자리가 없단말이야. 무개차에 실으면 철도신호주에 걸리는걸 어떻게 하겠어. 자네 기린모가지를 보지 못했나? 이것 봐. 그건 자네 모가지보다 더 굉장해!》

정찰병들은 좋아라고 웃어댔다.

이야기가 끝나자 모두들 잠시 잠잠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입을 다물고있다는것은 그닥 달가운 일이 못된다. 바로 임무를 수행하러 나가기 직전에 수없이 다가올 난관과 위험성을 미리부터 우려하기보다 얼마동안 생각을 딴데로 돌리는것은 언제든지 좋은 일이다.

입이 무거운 이완 로가찐은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알고있는터이라 자기 말에 이목이 집중되리라고 타산하고는 노상 자신이 화제를 재미있게 돌려대군했다.

《여보게들, 인생의 행로는 과연 복잡다단하단말이요. 말하자면 자네들은 혹시 믿지 않을수도 있겠지만 바로 내 경우가 그렇단말이요. 난 38년도에 기한이 다 되여 군사복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였는데 모두들 순서대로 차칸에 올라앉아서는 집에 인차 간다구들 하면서 전보를 보내질 않겠소. 기차가 블라예브라는 간이역에 와닿자 그만 나는 내렸네. 거기서 우리 마을까지는 엎디면 코닿을데였지. 한 100키로메터밖에 안되였으니까. (씨비리에서 100키로메터라면 가까운 거리로 보니까.) 처음에 산림보호원이 나를 사륜마차에 태워가다가 그다음엔 수의사가 이륜마차에 태워가질 않겠소. 빠블리노브끼부근에서 그는 길 한켠으로 돌아들어가더니 글쎄 날더러 묵어갈때가 됐다구 하더군. 그래서 난 새 트렁크를 들고 마을을 따라 장화를 삐걱거리면서 걸어갔댔지. 가슴팍에는 〈로동과 국방에 준비됨〉과 〈워로쉴로브 사격선수〉라는 글자가 씌여있었네. 그런데 아낙네들이 날 보더니 고래고래 소리치질 않겠나.》

《아무렴 드살이 센 녀자들이 자네와 롱담을 안할라구.》하고 싸샤가 껄껄 웃었다.

《자네 좀 참견하지 말라구.》 이완이 그의 말을 막았다.

《그래서 나는 마을 한복판으로 걸어가는데 앞에서 음악소리가 울려오질 않겠나. 산보를 한다는거지. 한 농가에 다가가보니 창문에는 그림자들이 언뜻거리구 신발뒤축들이 마루를 다닥다닥 구르고있더군. 이때 누군가 현관에서 뛰여나오더니 날보구 직접 〈전사동무, 우리 결혼식에 초청합니다.〉라고 말하질 않겠소. 그래서 난 겸손하게 〈싫습니다. 초청해줘서 감사하긴 합니다만 길가는 외인이 결혼식에 참가해야 무슨 소용 있습니까.〉하고 거절했댔네.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당신이 무슨 외인입니까. 당신은 우리 조국의 수호자가 아닙니까!〉하더니 이를테면 나를 집으로 끌고들어갔단말일세. 손님들이 빽빽이 조여앉더니 나에게 자리를 권하지 않겠나. 그래서 나는 신랑신부를 축하하여 한잔 마시고 〈에잇, 술맛이 쓰

군!〉했더니 그들이 서로 입을 맞추질 않겠나. 신부는 참 건장하게 생겼더군. 그닥 씨원스레 곱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든든하게 생겼더군.…》

《물론 자넨 신랑의 얼굴은 보지 못했을테지. 군대에 나갔다오는 길이니까. 자네 눈에는 신부얼굴밖에 더 보였겠나.》 다시금 싸샤가 끼여들었다.

이완은 힐난하듯 싸샤를 쳐다보았다.

《에끼, 수다쟁이같은게. 자넨 호각안에 든 완두콩알처럼 혀를 작작 놀리라구. …신랑두 봤단말이야. 그런데 신랑은 날 쳐다보지두 않더군. 얼굴에 무슨 여드름같은게 잔뜩 돋아난데다가 키는 요렇게 작더군.》 이완은 싸샤를 보면서 그에게서 값을 받아낼 작정을 했다.

《글쎄 자네처럼 그렇게 치수가 작더란말이야.》

싸샤는 게면쩍어하면서 입을 다물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고 하니 나두 춤판에 끼여들었지. 처음에는 한창 로씨야민요를 불러대다가 그 다음엔 축음기에 맞춰 처녀들과 함께 춤을 추면서 돌아갔네. 내가 춤을 추고있는 동안 결혼식장에서는 무슨 불화가 생긴 모양이더군. 체호브의 소설에서 나오는것과 신통히두 비슷했지. 말하자면 소설에서는 신랑에게 뭘 좀 모자라게 주니까 신랑이 떼를 쓰지 않았나. 신부의 얼굴에서는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 신랑은 마루에 안주접시를 훌 내던지고는 그 안주를 질근질근 밟으면서 문앞으로 걸어가지 않겠나. 자기 저고리에 넣은 꽃뭉치를 꺼내서 마루바닥에 내동댕이치며 〈다 당신들의거요.〉하더군. 그리고는 휙 나가버렸지. 소설에서처럼 여기서도 맨숭맨숭하던 사람들이 만취되여 주정을 하면서 정신이 나가 뻐드러지질 않았겠나. 그래서 사위는 쥐죽은듯 고요해졌지. 그런데 웬일인지 신부가 흐느끼며 울고있더군. 어쩐지 난 신부가 측은하게 생각되더란말이네. 헌데 신부를 어떻게 달래야 할지 도무지 생각나지 않아서 무턱대구 〈원하신다면 내가 그 쭉정이 밤송이같은 자식의 다리를 비틀어놓구 바지가랭이를 당장 찢어버리구말테요.〉라고 말해주었지. 그러자 신부의 에미가 〈이러쿵저러쿵해두 임자야 나무랄데없는 우리 수비대원이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소름이 끼칠정도로 우리를 지켜주어서는 안되네. 혹시 뻬쨔가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을수 있지

않을가 .〉하고 생각을 털어버리더군. 그래서 나는 그 대답으로 〈글쎄 열번이라두 마음을 고쳐먹으라구 하세요. 정말 그가 따님의 천상배필이 될가요? 따님은 괜찮은데 신랑이야 여드름투성인데 아무렴 그보다 잘난걸 못얻을라구.〉라고 말했더니 신부에미가 〈하여튼 그야 신랑이 아닌가. 신랑이 없이야 내 딸이 어떻게 살겠나 응? 누가 이제 그 욕된 딸을 데려가겠노?〉하면서 날 타이르지 않겠나. 그래서 나는 〈그렇다 해도 저는 진심으로 털어놓고 말하는겁니다.〉하고 말해줬지. 신부가 울음을 뚝 그치자 손님들이 글쎄 합창단에서 가수들이 아—하고 노래를 부를 때처럼 그렇게 입이 항아리만 해지질 않겠소. 모두들 내 얼굴만 쳐다보더군. 그때 내 마음도 얼마나 기쁘던지! 나는 신부옆에 척 틀고앉아서 〈나한테 오지 않겠소?〉하고 물었지. 그러자 신부의 두눈에서는 가벼운 미소가 떠오르면서 〈당신의 말이 진짜라면 기꺼이 가겠어요.〉하더군. 그래서 나는 붉은군대 병사이므로 나한테 아무리 비방해야 소용없소, 나는 그 쭉정이 밤송이같은 녀석은 아니니까 어떠한 지참금도 필요없소, 그저 나하구 당신이 제손으로 필요한 모든걸 얻어내구 만들어내면 된다고 했지. 나를 믿은 손님들은 다시금 산보를 하구 춤도 췄지만 나를 믿지 않은 손님들은 또 일이 글러질가봐 사라지고말았지. 사실 군대에서 석삼년동안 술이라고는 입에 대지도 않다가 습관되지 않은 술을 어찌나 들이켰던지 그자리에 그만 푹 꼬꾸라지구말았네. 그때 어찌나 무안하던지…》

《황소같은 자네가 뻐드러진걸 보니 자네 입에 막 부어넣었던게로군.》 싸샤 쁘로레뜨낀이 참지 못했다.

이완 로가찐은 그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말만 계속 엮어나갔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깨여났는데 내가 어데 누워있었는지 알아? 글쎄 내밑에는 새털이불이 깔려있지 않았겠나. 잠자리도 완전히 새것이였는데 지어 사르륵사르륵 소리까지 나더군. 내옆에는 얼굴이 발그레하고 예쁘장스럽게 생긴 처녀가 누워자고있었지. 그런데 머리에서는 마치도 짐차가 올리막을 올라가면서 지칠 때 내는 그런 소리가 나질 않겠나. 그러자 처녀가 영채도는 파르스름한 두눈을 또렷이

뜨더니 옛말에서 나오는 선녀처럼 나를 정겨웁게 쳐다보지 않겠나. 그래서 〈당신은 누구요?〉하고 물으니까 〈누군 누구겠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안해지요 뭐, 벌써 잊었나요?〉라고 대답하더군. 그런데 보니까 처녀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있지 않겠나. 나는 어제저녁 결혼식에서 벌어진 란장판을 생각하면서 처녀를 위로해보았지만 계속 울고 또 울더군. 그래서 〈여보 웬일이요? 눈물은 왜 흘리오? 난 싫다구 하지 않았는데. 어제저녁에 언약한대로 영원히 당신하구 살겠소.〉하고 말해보았지만 또 울길래 〈여보, 털어놓구 말해보오. 무슨 일이 있었소?〉하고 물었지. 그러자 처녀는 〈글쎄 저는 당신때문에 우는건 아니예요. 저자신때문에 울어요. 참 불쌍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 두번씩이나 시집가는 법이 어데 있어요. 저같은건 결코 당신의 안해로 될수 없어요.〉하고 대답하질 않겠나.》

엄페호에서는 어찌나 요란스럽게 웃어대는지 와씰리가 앉아있는 옆창문유리가 마치도 포탄이 가까이 날아와 터질 때처럼 바르르 떨리기까지 했다.

《그래 어떻게 끝났소?》모두들 웃음을 그치자 와씰리가 물었다.

《뭐 별루 끝난게 없습니다.》이완이 점잖게 대답했다.《나하구 그루냐는 이날이때까지 깨가 쏟아지게 살고있습니다. 당신도 물론 사람들이 보통 처음에 사랑이 시작되다가 장가든다구 생각하겠지요. 말하자면 처음에 장가들구 다음에 사랑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는겁니다.… 내가 왜서 첫 정찰에 나가서 도이췰란드놈의 목을 누르지 못했겠습니까? 그건 다 바로 사랑때문이였지요. 하지만 파쑈놈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안해들을 마음대로 희롱하며 박해하는걸 생각하면 막 이가 갈리군한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나는 지금도 파쑈놈들을 죽여치우지 못한것이 괴롭소.》

이완 로가찐은 동무들의 얼굴을 빙 둘러보았다. 정찰병들은 웃지 않았다.

그는 와씰리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말끝이 아닌데 와서 내가 마치나 무슨 종지부를 찍어놓은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중위동지, 난 사실 결혼식을 하구 한주일 지나서 글쎄 그루냐가 생선국을 먹고싶다구 하길래 고기낚으러 강가에 나갔댔지요. 그런데 강가에는 그 새끼손가락만한 여드름쟁이가 나타나질 않았겠습니까. 그밖에도 끌끌한 사내들이 몇이 있었는데 날 죽이지 않으면 다리라도 분질러 불구로 만들어놓을 기세더군요. 그러면서 (진짜 나를 없애치울 잡도리를 하구 온게 아니야?) 하고 정황을 가늠해봤는데 뻬쨔가 〈자식, 축기가 꽤 빠른데.〉하며 씨근덕거리길래 〈왜 왔어? 처녀때문에 또 다투자는건가? 그루냐는 나의 법적인 안해야. 어림도 없지.〉하고 툭 쏴줬더니 말문이 막혀서인지 당황해하질 않겠습니까. 그런데 뻬쨔가 나서며 하는 말이 〈옳아, 안해다. 헌데 도대체 넌 누구한테서 홀쳐가지구 그래 응?〉하고 쥐치더군요. 이때 말몰이군 나자르가 뻬쨔를 말엉덩이밑에 밀어넣어 자빠뜨리고는 숲속으로 줄행랑을 놓는바람에 가까스로 일어난 뻬쨔는 〈나를 대접할대신에 나를 감히 모욕해!〉하고 고함을 쳤지요. 이때 나자르가 〈네가 직접 우리를 모욕하지 않았나. 일을 졸렬하게 그르쳐놓구서두. 그래 법적인 남편을 때리는게 옳단말이냐? 대신 술 두리터를 더 부어놓구 이완을 초청하라구. 그렇지 않다간 가로등에 매달구말테다.〉하고 을러메더란말입니다. 그후 안해가 날보고 〈당신은 뭘 그렇게 생각해요? 뻬쨔가 술을 내놓았어요. 화해를 하자구 말이예요.〉하더군요. 그후 나의 어머니가 그루냐를 집에 데려오지 않구 자기 승인없이 마음대로 혼자서 길가에서 장가들었다구 어찌나 서운해하던지.》

《어쨌든 일이 잘됐으니 대단히 좋네!》 보그단이 환성을 올렸다.

《이완, 자넨 대단한 사람이야. 정말 자네 마음은 너그럽기 그지없네. 글쎄 여직껏 나한테 시집오겠다는 처녀는 하나두 없으니말이야.》

정찰병들은 의심스러운듯 보그단을 쳐다보았다. 그는 눈섭이 새까맣고 이발은 하얀데다가 눈가에는 항상 명랑한 기운이 어려있는 우크라이나태생의 총각이였다.

사실 아래턱은 앞으로 약간 나와있고 코는 한쪽으로 치우쳐있는듯했다.

그러나 그것은 자세히 볼 때에만 겨우 눈에 뜨일뿐 대체로 균형이 잡힌데다가 키는 크고 억세게 생겼다. 말할 때 그는 우크라이나 말을 곧잘 섞었다.

《보는바대로 나는 지금 아주 멋진 사내인데 무용지물이 되구말았네. 나는 다락에 절구통처럼 진종일 누워있지 않으면 안되였지. 그건 내가 열살되던 해에 류마치스에 걸렸댔으니까. 다리를 절뚝거리며 집안에서 무슨 일을 할가, 동무들과 놀아볼가 하면서 맴돌지 않으면 안되였지. 그러나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했네. 그럭저럭 열일곱살까지 먹으면서 집에 누워있었네. 7학년까지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선생도 침대에 누워있는 나를 잊지 않더군. 어느새 내가 장가갈 나이가 다 되였지만 글쎄 어떤 처녀가 나한테 시집오겠다구 하겠나? 웬 처녀가 이런 절구통을 좋아하겠는가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임자같은 사람을 군대에 다 받아들였어?》 끄를레위치가 놀란 기색을 보였다.

《가만, 끄스쨔, 앞질러 묻지 말라구. …그러나 나한테 글을 배우려고 처녀애들이 많이 다니군했네. 그중에는 정말 곱게 생긴 처녀가 하나 있었지. 갈랴라구 했어. 눈이 뒤집힐 정도로 그렇게 멋진 처녀였네. 진짜 그 처녀의 눈은 바다처럼 푸르렀어. 지평선 저 멀리까지 내다보는것 같았지. 눈은 하늘의 뭇별들처럼 유난히도 반짝이고 있었네.》

보그단은 흥분한 나머지 두볼이 발그스레해지고 눈에서는 역시 별들이 반짝이듯 영채가 돌고있었다.

《난 환자요. 환자란말이요. 아름다움은 알고도 남음이 있었지. 그 갈랴를 보면 막 정신이 나갈 지경이였지만 난 갈랴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처녀가 아니라구 보았댔소. 하지만 어쩔수 없었지. 그 처녀가 거리에 나서기만 하면 내 심장이 춤추듯 설레이는데… 갈랴한테 청혼하러 따라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많았다구. 하리똔이라는 한 총각은 작업반장이구 수훈자였지. 미하일로는 뜨락또르운전수였구. 말하자면 모두가 뿌슈낀같은 위인들이였네. 게다가 학교선생들을 놓고보더라도 넥타이를 척 매고 다니는게 다 문명한 신사들이니 정신이 다 아찔해지더군.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그 갈랴가 내 침대앞

에 와서 무릎을 꿇고 달려들지 않겠나. 그리고는 내 어깨에 얼굴을 기대고 흐느껴울면서 《당신이 그렇게 일생동안 고민하게 되면 저는 행복할수 없어요. 하필 당신이 학교에서 우리를 가르칠게 뭐예요? 어떤 학자가 말한것처럼 우리는 자연에서 혜택을 기다려서는 안돼요. 제손으로 행복한 생활을 꾸려나가야 해요. 저는 당신의 안해가 되겠어요.》라고 말하더군. 그래서 그 처녀가 말한것처럼 나에게 있어서 만사가 급변된 셈이였지. 관절부위에 댔던 받치개들을 늦추니 갑자기 피가 통하지 않던곳에서 피가 흐르지 않겠나. 우리 결혼식도 이완이 말한것처럼 범상치 않았네. 나두 결혼식을 할것을 바라지 않았네. 그래서 나는 갈랴더러 좀 생각해보라구 하니까 갈랴는 날 보고 《안돼요. 결혼식을 뻐젓이 차려서 사람들이 모여 축하하게 하자요.》하고 말하더군. 신랑감이 올방자를 틀고 가만히 앉아있구 절세의 미인인 새색시가 혼자서 내옆에서 춤을 추게 되면 기분좋을게 없다는거야 뻔하지 않소. 손님들은 남몰래 눈물을 닦을거구. 그렇지만 나의 갈랴는 춤을 추고 노래도 부르는게 아니겠소.》

보그단은 잠시 말을 끊고 한숨을 쉬였다.

《결혼식이 끝난 후 안해는 나를 사과꽃이 만발한 정원으로 데려내가더군. 어떻게 데려내갔겠나. 제팔에 안아서 내갔었지. 그러니 모두들 웃으면서 롱질을 하지 않았겠소. 방안에는 축음기와 라지오가 놓여있고 벽에는 화보《아고뇨크》에서 떼낸 그림들이 붙어있었는데 그림에는 활짝 핀 아름다운 꽃들과 검푸른 바다며 고운 새들과 파도를 헤가르는 군함들, 무연한 수림들이 선명하게 그려져있었지. 갈랴는 의사의 신세를 지지 않구두 나에게 걸음마를 떼게 해주었고 그다음에는 달리기도 하고 헤염치기하는것을 배워줬지. 그리구 꼽바인 운전법도 배웠지. 그렇게 되니까 온 마을이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를 보질 않겠나. 내가 밭에서 돌아올 때면 갈랴는 기다리기가 안타까운듯 막 달려나와 마중하군 했지. 그처럼 달콤한 행복을 느끼던 때가 어제같은데 전쟁으로 하여 그만 사랑하는 안해와 헤여지지 않으면 안되였네.》

자기자신과 갈랴에 대한 보그단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났다.

엄페호안은 뜨뜻했다.

뻬치까에서는 알뜰한 살림솜씨를 보여주듯 빨래가 마르며 냄새를 풍기였다.

달랑거리며 끓는 차주전자소리가 정답게 울리는가운데 기관총사격소리가 멀리서 띠염띠염 들려오면서 통나무천정을 드르릉 울리군하였다.

《동무들, 또 장가가던 얘길 할 사람이 없소?》 루즈긴이 물었다. 《혹시 꼬스쨔가?》

꼬스쨔는 부끄러움을 타서인지 얼굴이 빨갛게 물들면서 파란눈을 속눈섭으로 슬며시 내리깔았다.

《나는 장가를 가지 않았는데요…》

《그래두 봐둔 색시감이야 있겠지?》

꼬스쨔는 침묵을 지켰다. 까자꼬브는 꼬스쨔를 난처한속에서 끌어내고 골로샤뽀브를 이야기에 끌어들이였다.

《골로샤뽀브, 동무가 자기 생활을 좀 얘기해보라구.》

골로샤뽀브는 뒤통수를 긁적거리면서 말하였다.

《모든게 통 혼미해서 모르겠군! 모든 사람들이 다 장가간 첫해는 깨가 쏟아지게 달콤하게 살겠지요. 그렇지만 한 10년, 20년 지나게 되면 또 당신들의 그루냐가 갈랴처럼 될런지 누가 알겠소.》

《자넨 문둥이처럼 놀지 말라구.》 정찰소대 사관장인 주마첸꼬가 골로샤뽀브를 제지시켰다. 《하필 사람들을 모욕할게 뭐요? 말하겠으면 자신에 대해서나 말할노릇이지. 그렇지 않으면 잠자코나 있게. 사람들을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구.》

《내걸 말하는데 뭘 자네에 대해 말한다구 그래?》

골로샤뽀브는 수그러드는체하더니 갑자기 주위사람들을 쏘아보면서 털어놓기 시작했다.

《글쎄 난말이요. 제 색시를 막 때리지 않았겠소.… 색시가 하두 잘 생겼으니까 사방에서 초청장이 날아들어오더니 여기저기 꼬리를 달고다니질 않겠소. 그래서 내가 색시에게 엄하게 꾸짖으면서 〈당신은 남편이 있는 녀자라는걸 잊지 말란말이요 .〉하고 말했소.》

《그런 말은 듣기도 싫네.》사관장이 손을 내저었다. 《쥬크, 동무가 좀 말해보라구. 동무는 그래두 기사겠다 또 생활을 도회지에서

하지 않았나.》
쥬크는 소대에서 무전수로 있었다. 무전기는 사실 정찰소대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도이췰란드놈들한테서 로획한것이여서 지금까지 여기에서 가지고 리용했다.
쥬크는 무전기내막을 제꺽 료해하고 무엇인가 몇번 뗐다가 맞추더니 그때로부터 소대무전수로 되였던것이다.
《그럼 첫째로는말이요. 난 우선 기사가 아니요. 무전수밖에 안되오.》하고 주마첸꼬의 말을 부정했다. 《그리구 둘째로는말이요. 나의 가정생활은 그닥 재미있는것이 못된다는것이요 .》하고 잠간 머뭇거리면서 생각하더니 말을 계속했다. 《처음에는 모든 일이 순조로이 아주 잘돼갔소. 사랑도 있었구. 그러나 그만 헤여지구말았지요. 우린 서로 리해하지 못했구 서로 제나름으로 말을 하군했지요. 처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는 또 처의 말을 리해해줄수 없었구.》
《왜 그렇게 됐소?》 소대 공청책임자인 꼼꼼한 꼬노쁠레브가 관심을 가지고 물었다.
《글쎄 모든게 그 샤리크때문이였죠.》 쥬크가 아리숭하게 대답했다.
《무슨 샤리크(로씨야에서 《지구》를 이르는 말—역주)때문이요? 지구같은걸 말이요? 그럼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했댔소?》
《아니지요. 우리한테 개새끼가 한마리 있었는데 그 이름을 샤리크라고 했지요.》
동무들은 마침내 와—하고 웃어댔다.
시작은 모든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들렸다.
《교양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그 무슨 개새끼때문에 생활에서 잘못되는 일이 있음직이나 하오?》 꼬노쁠레브가 의아하게 생각했다.
《있구말구요.》 쥬크는 자신있게 말했다. 《전쟁전에 나는 모스크바부근의 뿌슈낀시에서 살고있었는데 거기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개인집을 가지고 살았지요. 샤리크는 늘 마당에서 뛰놀군 했답니다. 보통 집을 지키는 그놈은 털이 불그레한 수개로서 꽤 반반하게 생겼지요. 전문학교를 마친 나는 까라깐다에 일하러 갔댔는데 그곳에서 처녀를 하나 사귀였지요. 이름은 리자라구 했지요. 그 처녀두 전문학교를 나온 후 치과기술을 배우고있었지요. 처녀는 모스크바처녀이

겠다 나도 모스크바 총각이겠다 이를테면 배필을 무었지요. 돈을 좀 벌어서 세바퀴 오토바이를 한대 사서 그럭저럭 좀 편안하게 살았지요. 그런데 아버지하구 어머니는 편지를 쓸 때마다 〈아들아, 어서 오너라. 꼭 오너라.〉하고 연방 재촉하면서 〈우리는 이제 다 늙은게 누구한테 집을 주겠니.〉하지 않겠소. 나하구 리자는 맡겨진 하루일을 다하고는 집으로 달려갔지요. 밤이 깊었는데 샤리크가 여느때처럼 훌쩍훌쩍 뛰면서 다정스럽게 달라붙어 손을 핥으며 우리를 반겨맞더군요. 샤리크는 오토바이가 달갑지 않았던지 냄새를 맡아보더니 한쪽으로 물러서질 않겠소. 그러던 어느날 리자가 나보구 〈멋진 개를 얻어다 키우자요.〉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는 〈왜 샤리크가 나빠서 그러오?〉하고 물었지요. 그런데 리자는 〈좋은 개를 얻어다 키웠으면 벌써 우량종이 됐을텐데요 뭐. 제가 모스크바에 가서 직접 얻어오겠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훌륭한 종자개가 있어요.〉하질 않겠소. 샤리크가 옆에 서서 어찌나 더워하던지 혀바닥으로 슬슬 부채질을 하겠지요. 개가 정다운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안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게 알게 뭐겠나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며느리와의 관계가 흐려질가봐 말없이 앉아서 그렇게 말하다가도 아무때든 잊어먹겠거니 생각하고있었는데 리자는 종시 잊어먹지 않았거든요. 아니나다를가 둬주일 지나더니 부르독종자를 한마리 가져오질 않았겠소. 그 개의 증명서도 가져왔는데 거기에는 여섯대의 개의 족보가 씌여있었지요. 양육자는 네른이라구 밝혔더군요. 샤리크는 네른을 상냥스럽게 맞이하면서 비록 건강하게 생기긴 해도 강아지새끼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나는 강아지가 한마리이건 두마리이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생각했지요. 그런데 리자가 나를 오토바이 있는데로 가자고 해서 가보니 〈어서 발동을 거세요.〉하더군. 그래서 〈왜 발동을 걸라는거요?〉하고 물었더니 글쎄 〈샤리크를 날라가자요. 샤리크는 옆좌석에 앉혀놓고 방수포를 씌워놓았어요.〉라고 대답하질 않겠나요. 할수없이 우리는 교외로 나갔지요. 리자가 샤리크를 몰아내니까 가련하게 짖어대면서 나한테 바싹 달라붙지 않겠소. 그래서 나는 〈래일이면 개상인이 그놈을 붙잡아갈거요. 그럴바엔 좀 더 농촌으로 실어내가기요. 거기 가면 개상인은 없을테니까. 아

무데나 끼여들어갈게요.〉라고 설명해주었지요. 그런데 리자는 말없이 홱 돌아서더군요. 나는 그만 맹랑해서 샤리크를 내버리고말았지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우리들의 가족관계에서는 어쩐지 심중한 문제가 생겼는데 어느날 아버지는 〈혹시 우리때문에 너하구 리자사이에 무슨 불화라도 있는게 아니냐? 우리는 일생동안 싸움 한번 못하구 살아왔는데 까라깐다로 가겠으면 어서 가거라. 아니면 우리가 방해되면 우리를 아무데든 보내다오.〉라고 하지 않겠소. 나는 아버지한테 한마디도 말못하고 〈그럼 샤리크처럼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유모차에 태워 실어내다가 내버리겠다.〉고 속으로 생각해보았지요.》

《동무는 하필 자기 리자를 눈감아줄건 뭐요?》 골로샤뽀브가 분개해서 말했다.

《사랑했으니까 그랬지요.》

골로샤뽀브는 화가 나서 침을 탁 뱉았다.

누군가는 시답지 않다는듯 한숨을 쉬기까지 했다.

《룡두사미격이 되구말았군.》

《동무들, 그렇게 평화로운 생활을 회상하기만해도 좋소. 전쟁을 하는 때이니…》 까자끄브가 말했다. 사관장 주마첸끄가 와씰리에게로 다가왔다. 그는 키가 작달막하고 통통한데다가 농촌냄새가 푹 배인 가벼운 눈초리를 가진 활발한 군인이였다. 이런 군인은 못이면 못, 뜨락또르면 뜨락또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것을 다 얻어올수 있었다. 그의 이런 기질을 보고 그를 정찰소대에 두게 하였던것이다. 그는 자기 임무를 능숙히 감당해냈다. 정찰병들의 위험한 임무를 두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해당된것은 물론 해당되지 않는것이라 해도 필요된다면 다 얻어다주려고 애썼다. 후방창고에서 물자를 타올 때에도 조금도 점직해하지 않았다. 만일 이따금씩 그의 비상히 날랜 《솜씨》를 폭로하게 되면 그는 자기의 순결성을 능란하게 변명했으며 진지한 목소리로《나는 정찰병들을 위해서 한 일이요. 그걸 리해해주시오.》라고 말했다.

이런 경우에 창고장은 늘 너그럽게 대했다. 정찰병들에게는 마라초대신에 거의나 권연을 내주었으며 고기통졸임은 꼴바싸(순대의 일

종)로, 리터술은 병술로 바꿔주군했다.
 주마첸끄는 좀처럼 당황해하는 일은 없었지만 이제 와서는 좀 난처해하는 기색이였다. 그는 와씰리를 보기 꺼려하면서 면구스럽게 말했다.
《중위동지, 미안합니다. 당신의 증명서와 메달은 규정대로 인계했어야 하는건데…》
 와씰리는 그런 규정을 알고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모든것을 미리 예견하고 인계하지 못한 자신을 책망했다.
《규정이 그런데 뭘 미안할게 있소. 자, 받으시오. 신분증과 공청원증과 메달이요. 여기에 또 편지와 돈도 있소. 어서 받으시오.》
《다 건사해드리겠습니다. 중위동지, 정히 건사하겠으니 념려마십시오.》주마첸끄는 와씰리를 정답게 바라보면서 확신성있게 말했다.
 비록 주마첸끄가 꾀가 많은 사람이라 해도 모두들 알고있는것처럼 그의 마음만은 비단결같았다. 정찰병들이 임무를 수행하러 떠나기전에 그는 그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준비해놓았다.
 와씰리로부터 증명서들을 넘겨받은 사관장 주마첸끄는 앞으로 새로운 지휘관과 가져야 할 자기와의 관계를 당장 명확히 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저자신은 임무를 수행하러 다니지 못할수 있습니다. 워낙 환자처럼 마음이 약해서말입니다. 철조망있는데도 채 못가서 죽을겁니다.》
《됐소, 주마첸끄동무. 걱정하지 마시오. 대신 동무는 이곳 후방에서 몸건사나 잘하시오.》하고 와씰리는 그의 말을 중둥무이해버렸다.
 그 말에 마음이 놓인듯 사관장은 걸치레로 와씰리에게 다시 변명해나섰다.
《중위동지, 사실 모두들 날보구 그렇게들 생각하고있는데 나는 누구하구 속이는 일이 없습니다. 또 그렇다구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일도 없구요. 나는 그저 잘못 내려지는 지시만을 집행하지 않을뿐입

니다. 그것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웅적인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이 잘되라구 그러는겁니다.》

《그만하오. 됐소. 정당한 위업을 위한 투사동무!》까자꼬브가 그의 말을 다시금 막았다. 《우리가 올 때면 감자를 다 삶아놓고 차도 따끈하게 잘 끓여놓도록 수고해주시오. 그리구 대원들에게는 알콜을 두통 준비하시오. 나와 와씰리중위동무에게는 밀봉한 병이 한개면 되오.》

《모든걸 정량대로 준비해놓겠습니다. 아마 그보다도 더 많을수 있을겁니다. 중위동지, 그저 제발로 돌아오기만 하십시오.》

와씰리는 자기도 오랜 전투적전통을 잘 알고있다는것을 정찰병들에게 보여주고싶었다. 그는 배낭에서 깨끗한 내의를 한벌 꺼내여 천천히 산뜻하게 갈아입었다.

대원들은 서로 눈짓했다. 와씰리는 그러한 시선을 리해하지 못하고 아마 칭찬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까자꼬브는 옆에 아무도 없는 기회를 타서 이렇게 말했다.

《동무는 공연히 내의를 갈아입는것 같소. 임무를 수행하자면 매일밤 나다녀야겠는데 그러다간 전문 내의상점이 하나 있어도 당해내지 못하겠소.》

까자꼬브의 목청에는 부추기려 하거나 비웃는듯한 어조는 없었다. 그는 그저 동지적으로 충고를 주었을따름이였다.

와씰리는 점직해하면서 깨끗한 내의를 도로 벗어야겠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다. 까자꼬브는 얼른 그의 눈치를 알아차리고 그를 안심시켜주었다.

《일없소. 벗지 않아도 되오. 동무는 첫 전투세례를 받는것이나 같으니까. 그렇게 입어도 일없소. 대원들이 리해할거요. 앞으로 참작하면 되오.》

흰 위장복을 입고 가재다리 비슷한 길다란 가위를 든 두명의 공병대원이 왔다.

까자꼬브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동무들, 길을 떠납시다. 성공을 바라오.》

지휘관의 뒤를 따라 임무를 받고 떠나는 사람이건 초소에 남아있

는 사람이건 모두들 일어섰다. 순간 주위에는 정적이 깃들었다. 와씰리의 생포조가 남은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문을 향하여 걸어갔다. 전방전호까지는 앞사람의 발자국을 밟으며 묵묵히 전진했다. 온몸은 가뿐했다. 위장복밑에는 솜바지와 덧저고리를 껴입었다. 무장은 자동총과 그리고 수류탄이였다. 와씰리는 전투경계근무를 서면서 생포했던 도이췰란드놈이 얼마나 옷을 많이 껴입었던가를 생각했다. 지금 와씰리는 마치 그전날 전투장에 나선것처럼 옷이 훌렁해서 방금 날아갈듯한 기분이였다. 경기를 앞두고 느끼는 이러한 감정은 늘 승리를 예언해주었다. 그러나 여기는 권투경기장이 아니다. 벌써 총알이 앙칼진 소리를 내면서 언덕과 나무등걸에 날아와 픽픽 박히는곳이다.

정찰병들은 첫번째 전호에서 담배를 피우고있었다. 보병구분대 전투원들이 그들에게로 다가와서 존경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손님으로 초청되여 도이췰란드놈들을 찾아가는가요?》 누군가 침착하게 물었다.

《거기 아니면 어디 갈데 있소.》 쁘로레뜨낀이 되는대로 뇌까렸다.

그러나 까자꼬브는 이야기를 나눌 틈을 주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담배를 그만 피우시오. 자, 와씰리동무. 지휘하시오. 나는 더 가지 않겠소.》 이것은 와씰리에게 있어서 뜻밖의 일이였다. 그는 첫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까자꼬브가 계속 붙어있을것이라고 생각했다. 순간 당황해났다. 그러나 인차 그렇게 하는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다. 설사 까자꼬브가 경험있는 정찰병이라 해도 어쨌든 와씰리는 자기의 힘을 시험해보지 않고서는 참지 못하는 성미였다.

와씰리는 담배꽁초를 길바닥에 떨구어 발로 비벼끈 다음 정찰병들을 쳐다보며 명령했다.

《앞으로!》

와씰리는 맨 먼저 흉장우로 뛰여올라 허리를 구부리고 중립지대로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어느새 흰 복장을 한 두명의 대원들이 옆에 나타났다. (음, 생포조의 꼬노쁠레브와 로가찐이로군.) 하고 와씰리

는 판단했다. (헌데 저 동무들이 왜 나를 앞서나가려 할가? 앞사람의 자취를 따라가지 않구?)

《동무, 어디로 가오?》 와씰리가 로가찐에게 물었다.

《중위동지, 지휘관은 척후병처럼 앞서나가서는 안됩니다.》 하고 로가찐이 엄하게 말하고나서 보장조를 향하여 명령했다. 《자, 기린사냥군, 포멘꼬와 함께 어서 척후로 나가시오.》

싸샤와 포멘꼬는 군소리없이 앞으로 나갔다. 그들이 시야에서 벗어지게 되자 로가찐이 와씰리에게 고개를 끄덕이였다. 모두들 앞으로 전진했다.

예광탄이 대낮같이 환히 밝아지는바람에 모두들 냉큼 땅에 엎드리였다. 와씰리가 까자꼬브와 함께 미리 와보았던 그곳에서는 도무지 일어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기여갈수밖에 없었다. 눈은 어찌나 꽁꽁 얼었던지 메마른 가루처럼 흩날리였다. 눈가루가 사락사락 하는 소리는 굉장히 요란하게 느껴졌다. 축축한 랭기가 떠돌면서 사위는 짙은 안개와도 같은 운무속에 잠기였다. 도이췰란드놈들이 쏘아대는 예광탄과 기관총소리는 방위를 판정하는데 도움이 되였다.

와씰리는 정찰조가 어쩐지 오른쪽으로 치우친다고 생각되였다. 그는 몸을 반쯤 일으켜 기관총이 자리잡은 고지를 내다보려고 했지만 어찌나 캄캄한지 전혀 찾아볼수가 없었다. 갑자기 마치 무슨 신호가 있었던듯 조원들모두가 까딱하지 않고 일제히 눈우에 착 들어붙었다. 흰 위장복을 입은 몇명의 사람들이 나머지사람들을 따라 앞서면서 눈무지로 해서 앞으로 움직여갔다. 와씰리는 그들이 공병들이라고 확정했다.

그는 자기대신에 누군지 지휘하는 사람이 있다는 불쾌한 예감이 들었다. 그러나 전투라는 생각에 와씰리는 (아마 모든 일이 저절로 진행되는지 모른다. 까자꼬브는 모든것을 규정대로 하도록 요구했을 것이다. 나는 다만 루즈긴이 통로개설에 대한 신호를 주는것을 놓치지 말아야겠는데…)라고 생각하면서 진정했다.

와씰리는 얼굴을 다시 쳐들었지만 루즈긴도 철조망도 발견하지 못했다. 앞에는 거무스레한 관목림이 보일뿐이였다. 와씰리가 그곳으로 기여가는찰나에 누군가 갑자기 우에서 그의 다리를 붙잡으면서

옆으로 바싹 다가왔다. 그는 로가찐이였다. 로가찐은 관목림쪽으로 손을 흔들면서 거기로 가지 말라고 머리를 흔들었다. (왜서 그가 나를 보호하느라고 애쓸가?) 와씰리는 기분이 언짢아졌다. (관목림이 우리를 잘 위장해주는데.) 그리고는 못미더워서인지 다시한번 그 방향에 대고 손을 흔들었다. 그때 로가찐이 귀에 대고 조용히 말해주었다.

《바스락소리가 날가봐 그럽니다.》

와씰리의 눈앞에서는 헤염치는 물고기를 그리는듯 손가락이 얼른거리였다. 와씰리는 관목림을 우회하여 변두리로 기여나가라는것을 알아차렸다. 그리하여 보장조가 헤쳐놓은 눈길을 따라 전진했다.

와씰리는 얼마 안가서 곁에서 흰 위장복을 입은 두명의 대원들을 발견했다. 한 대원이 반듯이 누워서 두손으로 가시줄을 누르면 다른 대원은 그 사이를 가위로 끊어나갔다. 그는 가시줄이 절그덕소리를 낼가봐 조심하면서 두끝을 각각 다른쪽으로 갈라서 벌려놓았다. 철조망밑으로 빠져나가는데 편리하게 맨 아래줄만 끊어놓았다.

와씰리는 등골이 오싹했다. (만일 우리가 발각되는 날에는 한사람도 피하지 못하고 놈들의 코앞에서 몽땅 죽고말것이다.) 와씰리는 얼마전에 그와 비슷한 환경에서 도이췰란드놈들을 직접 혼내우던 일이 화면처럼 되살아났다.

어딘가 분명 멀지 않은곳에서 신호총소리가 났다. 예광탄이 사르륵하며 허공으로 날아오르더니 가볍게 펑 하면서 커다란 우산모양으로 옆으로 퍼져나갔다. 정찰병들은 눈우에 얼굴을 박았다. 그들의 흰 위장복이 가리우지 못하는곳은 얼굴뿐이였다.

그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긴장해서 누워있었다. 와씰리는 심장마저 멎는것 같았다.

그러나 예광탄이 다 타버리자 한동안 사위는 캄캄해졌다. 눈아지랑이가 없어진 후 와씰리는 루즈긴이 통로가 준비되였다고 자기에게 손을 흔들어 신호하는것을 보았다.

앞으로 기여나가야 했다. 와씰리는 부자연스럽게 그 누구한테 구속된감을 가실수 없었다. 드디여 결심을 내린 와씰리는 손에 수류탄을 잡고 천천히 기여가기 시작했다.

적의 참호앞까지 바싹 기여간 와씰리는 커다란 정신적인 힘으로 공포감을 이겨내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러나 거기에 도이췰란드놈들이 숨어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참호는 한놈도 없이 텅 비여있었다. 어느새 긴장한 마음이 가벼워졌다.

와씰리는 참호바닥에 내려섰다. 그의 뒤를 따라 꼬노쁠레브와 로가찐도 미끄러져내려왔다. 와씰리는 위구심을 가지고 조심조심 앞으로 걸어나갔다. 언덕에는 공격할 때 쓸 기관총좌지가 있었다.

참호벽에 쇠고리로 고정해놓은 전화케블선을 발견한 와씰리는 그것을 꼬노쁠레브에게 대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했다. 와씰리는 전화선을 잘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꼬노쁠레브는 줄칼을 꺼내여 케블선을 쓸어서 자르기 시작했다. 그때 굽인돌이에서 흰옷을 입은 두놈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 도이췰란드놈들도 정찰병들처럼 그렇게 위장복을 입고다니였다. 순간 놈들은 주춤하다가 와씰리가 케블선을 손질하는것을 보았고 정찰병들을 자기들의 통신병으로 리해하고 안심했다. 한놈이 뭐라고 큰소리로 지껄여댔다.

지척에서 들려오는 놈들의 말소리에 와씰리는 그만 못박힌듯 옴짝하지 않았다. 갑자기 맞다든놈들때문에 굳어진 몸을 가늠할수조차 없었다. 그는 머리속의 신경을 곤두세우고 놈들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았다. 그 신경이 전기개폐기처럼 민첩하게 동작하여 위기를 면하게 했다.

와씰리는 자동총을 비껴들고 짧은 점발로 가까이에 있는 놈을 쏴갈기였다. 그놈은 주저앉고 다른놈은 뺑소니치려고 했다.

《왜 그럽니까? 생포해야 합니다.》로가찐이 귀띔해주었다. 그리고는 좁다란 참호속에서 와씰리의 옆을 지나 도망치는놈을 따라가려고 했다. 와씰리는 그를 저지시키고 자신이 죽은놈을 넘어뛰여 서너번 도약하더니 굽인돌이에서 참호벽을 긁으면서 벽을 넘어 도망치려고 기를 쓰는 파쑈놈을 따라잡았다. 그놈은 어깨를 틀어잡히우자 기겁하여 돼지새끼처럼 째지는 소리를 질렀다.

정찰병들은 조용히 계획된 작전을 실현해야 한다는 한가지 생각뿐이였다. 그런데 난데없이 무서운 고함소리가 났다. 와씰리는 도이췰란드놈을 칼로 쿡 찔렀다. 자지러진 소리가 멎더니 놈은 맥없이 참

호바닥에 너부러지고말았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놈을 죽였으니.》 로가찐이 곁에서 언짢아 했다.

와씰리는 눈이 휘둥그래서 어슴푸레해진 사위를 둘러보며 (내가 진짜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공포로 하여 정신이 나가지 않았을가.) 하고 생각하고는 자제력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했다.

《이제 또 찾아냅시다.》

《찾지 못합니다. 소란을 피웠으니 이제는 철수해야 합니다.》

와씰리는 굽인돌이에서 참호를 향하여 자동총사격을 하는바람에 미처 대답할새 없었다. 총알이 흙벽에 날아와 부딪치더니 마른 흙먼지를 일쿠면서 미친듯이 파고들었다.

정찰병들은 맞은편 벽에 바싹 붙었다. 사격은 코앞에서 하는것 같았다. 그런데 총성은 왜서인지 분명치 못했다. 와씰리는 굽인돌이를 힐끔 내다보았다. 거기에는 엄폐부가 있었다. 놈들은 그 안에서 마구 쏘아댔던것이다.

와씰리는 허리춤에서 수류탄을 꺼내여 문앞으로 내던지였다.

쾅— 하고 요란한 폭음이 울리였다. 문짝이 와지끈 하고 떨어져나갔다. 엄폐호에서는 아우성소리가 들리더니 얼마 안있어 다시금 자동총을 쏘아대기 시작했다. 로가찐이 컴컴한 문안으로 수류탄을 던지였다. 또다시 폭음이 울리였다. 엄페호안은 삽시에 쥐죽은듯했다. 문안에서는 뿌연 연기가 쏟아져나왔다. 누군가 컴컴한곳에서 신음소리를 냈다.

(빨리 들어가 《혀》를 잡자.) 하고 와씰리는 결심했다. 이상하게도 그는 그닥 평온한 기색은 아니지만 이제는 비교적 침착하고 신중하게 행동했다.(어떻게 엄페호로 기여갈가? 틀림없이 자동총을 쏠 준비를 하고 지켜보고있을것이다. 그렇다고 앉아뭉갤수야 없지 않는가. 당장 옆에 있는 대원의 방조를 받아 돌입하자.)

그러한 결심은 순식간에 내려졌다.(아니다. 수류탄고리를 뽑지 말고 통채로 내던지자. 살아남은놈은 터질가봐 냉큼 엎딜것이다. 그찰나에 나는 불이 번쩍 나게 돌입하겠다.)

순간 수류탄이 엄페호에 날아들었다. 동시에 와씰리도 쏜살같이

거기로 돌입했다. 엄페부의 문턱을 넘어서자 문설주를 배경으로 과녁이 될가봐 인차 한켠으로 물러섰다.
엄페호안은 어찌나 캄캄한지 지척을 분간할수 없었다. 그을음과 땀내에 미안수냄새까지 뒤섞이여 악취가 코를 찔렀다. 가까이에서 도이췰란드놈들이 가쁘게 숨쉬는 소리가 들려왔다. (부상당한 모양이군. 붙잡기만하면 죽이지는 않겠는데. 그놈이 어데 있는가? 부상당한놈이…) 앞으로 걸음을 내디딘 와씰리의 발에는 흐물흐물한 시체가 걸치였다. 그놈은 까딱하지 않았다. 와씰리는 발더듬을 하면서 너부러진 몇놈의 시체를 더 찾아냈다. 드디여 그는 엄페호 한구석에서 신음소리를 내고있는 놈에게로 바싹 접근했다.
대원들은 문안으로 손전지를 들이비치였다.
《중위동지, 어디 있습니까?》 꼬노쁠레브가 보이지 않는곳에서 걱정스레 물었다.
《여기 있소. 무사하오.》 와씰리가 대답했다.
부상당한 도이췰란드놈은 땅에 꿇어앉더니 마치 얼굴을 얻어맞을가봐 방어하는듯 손을 우로 쳐들고있었다. 와씰리는 그놈에게로 바싹 다가갔다. 그러자 그놈은 놀라서 구석으로 후닥닥 물러서더니 흙벽에 가 들어붙었다. 와씰리는 그놈의 멱살을 틀어쥐고 곧추 들어올렸다가 메쳤다. 도이췰란드놈은 일어설수가 없었다. 다리가 고무다리처럼 꺾어졌던것이다.
《일어섯!》 와씰리가 명령했다.
도이췰란드놈은 기를 쓰며 일어서긴 했지만 온몸을 와들와들 떨었다. 와씰리는 겁에 질린 원쑤놈과는 전혀 다른 기분이였다. 그는 승리에 대한 신심과 자기의 우월감에 휩싸여있었다. 그는 도이췰란드놈을 문쪽으로 밀치면서 대원들에게 말했다.
《받으시오.》
로가찐은 능숙한 솜씨로 포로의 손목을 묶고 입에는 헝겊뭉치를 틀어막았다. 그러는 사이에 꼬노쁠레브는 죽은놈들의 호주머니에서 문건들을 꺼내고 뭘 좀 가져갈게 없는가고 엄페호안을 살피였다.
《됐소. 갑시다.》 로가찐이 말했다. 《1시가 돼오고있소.》

정찰병들은 시원한 밖으로 나왔다.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아무러한 징후도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참호를 따라 아래로 슬슬 내려갔다. 고지아래기슭에서 하마트면 흰옷을 입은 사람들과 마주칠번했다. 그들은 자동총을 쏠 차비를 하고 마주 향하여 소리쳤다.

《제편이요.》 루즈긴을 알아본 로가찐이 그들에게 대꾸했다.

《동무들은 왜 여기 와있소?》와씰리는 이런 행동이 예견되지 않았다는것을 간파하고 즉시 물었다.

《거기서 복새판이 벌어진것 같아서 지원하자구 했습니다.》

《우리는 일없소. 자 빨리 철조망을 넘어섭시다.》

모두들 이미 개척되였던 통로에 들어서서 위장복이 가시줄에 걸리는것을 조심스레 피해가며 골짜기로 내달리였다.

가까이에서 예광탄이 타올랐다. 정찰병들이 물속에서처럼 눈속으로 뛰여들어갔다. 로가찐은 풀색옷을 입은 도이췰란드놈우에 엎디여 그놈을 자기의 흰옷으로 가리웠다.

예광탄이 꺼지면 벌떡 일어나서 날쌔게 앞으로 전진했다. 로가찐은 손을 묶고 입에 헝겊을 틀어막은 도이췰란드놈을 끌고 달리기가 힘에 부쳐서인지 그놈을 쿡쿡 밀치였다. 그놈은 돌에 다리가 걸리여 허우적거리며 넘어졌다. 로가찐은 그놈을 일으켜세우고 갈린 목소리로 소리쳤다.

《자, 어서. 자식, 꾸물거리겠어?》

포로는 뭐라고 한창 웅얼거리면서 움직이더니 넘어졌다가는 또 일어나서 순순히 앞으로 걸어나갔다.

이윽고 거무스레한 줄처럼 길게 늘어진 아군진지에 당도했다. 전호에 뛰여든 정찰병들은 기진맥진하여 땅우에 풀썩 주저앉았다.

까자꼬브가 뛰여왔다. 정찰조는 약속된곳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벗어진 지점으로 돌아왔다. 까자꼬브는 갈구리모양으로 등허리가 구부러진 도이췰란드놈을 보자 못내 기뻤다.

《끌고왔구만. 참 용감하오. 자, 와씰리 첫번째 〈혀〉를 잡아온 동무를 축하하오.》

정찰병들은 어찌나 숨이 찼던지 말도 제대로 번질수 없었다.

지휘관을 그저 행복한 시선으로 바라볼뿐이였다.
《무슨 일로…우리가… 그렇게… 부랴부랴 도망쳐왔습니까? 도이췰란드놈들이 추격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게 됐으니까.》 로가찐이 갈린 목소리로 대꾸했다.
《뭘 걱정할게 있소.… 기본은 모두가 무사히 돌아오구 〈혀〉도 잡아왔다는것이요.》 까자꼬브는 줄곧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참 장하오. 숨을 크게 쉬시오. 산소를 씨원히 들이키시오. 참 빨리들 해냈소. 글쎄 두시간밖에 안걸렸소.》
쁘로레뜨낀은 남들보다 먼저 숨을 돌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위장복머리쓰개를 뒤로 제끼고 감개무량하여 말을 했다.
《와씰리중위는 참 훌륭합니다. 그 중위때문에 이렇게 일이 잘된게 아닙니까. 사격이 시작되구 수류탄이 터지자 나는 모든게 끝장이라구 생각했지요. 생포조도 철조망에 걸려 그만 빠져나가지 못할거라구말입니다. 그런데 눈을 척 뜨고보니까 모두들 달려오지 않겠습니까. 도이췰란드놈들도 잡아끌구말입니다. 게다가 뒤따르는 놈들두 없으니.》
로가찐은 무릎을 짚고 일어나서 쁘로레뜨낀과 다른 동무들에게 정황을 설명해주었다.
《사실 추격할놈도 없었지요. 중위동지가 수류탄으로 모조리 해치웠으니까. 엄폐호안에서 폭발소리가 났는데 아마 곁에 있던 놈들이 듣지 못한 모양이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전쟁이 아닙니까. 자칫하면 여기서도 쾅, 저기서도 쾅 박격포세례를 받을수 있었지요.》
꼬노뻘레브가 지지해나섰다.
《놈들이 지금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것 같습니다.》 까자꼬브가 급하게 말했다.
《자, 동무들 어서 올라가시오. 그렇지 않으면 놈들이 손실을 알아차리고 악에 받쳐 여기로 박격포를 쏘아댈수 있소. 엄폐호로 갑시다. 일어섯!— 어서!》
사관장 주마첸꼬와 이번에 임무수행에 참가하지 않은 대원들이 기쁨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정찰조원들을 맞이했다. 그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와씰리는 등잔불빛에 자기 조원들의 얼굴을 둘러보고 달라진 모습을 발견했다. 그들모두의 얼굴은 해쓱해지고 이틀밤이나 꼬박 새운것처럼 눈확이 컴컴하게 움푹 들어갔고 위장복은 땀에 푹 젖어있었다. 게다가 철조망밑을 기여나온 대원들의 잔등과 장갑에는 천쪼각이 너덜너덜해있었다. 꼬노쁠레브와 로가찐은 물론 와씰리자신도 얼굴이 그슬려 가무잡잡해진것 같았다.

손목을 풀고 입에서 헝겊뭉치를 빼주니 도이췰란드놈은 어리벙벙하여 문앞에서 정찰병들을 이상하게 쳐다보았다. 그놈에게 주의를 돌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주마첸꼬는 돌아온 대원들에게 손수건에 싼 증명서들을 나누어주었다.

《자, 받으시오. 뽐내라구.》 와씰리에게도 그렇게 말했다. 《어디 뽐내보십시오.》

와씰리는 사관장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처음에는 리해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가 저녁식사를 준비할데 대한 명령을 받았는데 왜 식탁이 비여있을가?) 하고 생각했다.

《임무수행을 보고하고 포로를 인계해야 합니다.》 까자꼬브가 귀띔해주었다.

《보고는 누구한테 하랍니까?》 와씰리가 물었다.

《련대장 아니면 참모장에게 하시오. 같이 갑시다. 아마 그들도 자지 않고 기다릴게요. 그들에게 벌써 전화로 〈혀〉를 잡아왔다는것을 보고해주었소. 하지만 동무가 직접 보고하게 되여있소.》

《당신이 보고해도 되지 않습니까? 당신이 다 준비하고 조직한 일인데…》

《군소리는 그만하오. 와씰리! 내가 무슨 일로 여기 있소? 어서 갑시다.》

련대장과 정치위원은 사단지휘소에서 호출하여 떠나가고 없었다. 와씰리는 포로를 참모장에게 끌고갔다. 까자꼬브도 그들과 같이 들리였지만 좀 뒤에 떨어져 서있었다.

《소좌동지,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왔습니다.》 와씰리는 공식적인 어조에서 벗어나 기쁜 마음에서 말끝을 맺었다. 《〈혀〉를 받아주

십시오.》
늘 무슨 근심에 싸인듯하던 참모장은 대번에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축하하오. 중위. 정찰근무에서 첫 걸음을 잘 뗐소. 지휘부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오.》
《쏘련을 위하여 복무함.》하고 와씰리는 마디마디 똑똑하게 말하고나서 제나름으로 《차렷》자세로 일어선 도이췰란드놈을 보고 껄껄 웃기 시작했다. 《소좌동지, 저놈이 똑바로 선것을 보십시오.》
《규률에 익숙된거요.》 참모장 꼴로꼴리쩨브가 통쾌하게 말했다.
《됐소. 그놈의 걱정은 말고 어서 가서 휴식하시오. 포로는 우리가 심문하겠소. 동무에게 흥미있는것이 있으면 알려주겠소.》
참모장한테 갔다오는동안에 정찰소대의 엄폐호에서는 놀랄만한 변화가 일어났다. 식탁에는 벌써 깨끗한 신문지를 깔고 주연을 시작할 준비가 되여있었다. 식탁에는 큼직큼직하게 썰어놓은 꼴바싸와 비게며 흘레브와 옥파 그리고 법랑고뿌가 두줄로 놓여있었으며 라사천으로 씌운 도이췰란드제 물통도 몇개 있었다. 지휘관들이 앉아야 할 식탁끝쪽의 주빈석에는 봉인된 반리터짜리 술병이 번쩍거리였다.
와씰리는 그제야 저녁식사를 왜 미리 준비하지 않았는가를 알아차렸다. 만일 정찰조가 돌아오기전에 식탁을 미리 차려놓으면 정찰이 실패할수 있다는 나쁜 징조로 된다고 한다. 그래서 주류와 안주는 모두가 자리에 나앉을 때에 내놓는다.
식탁에는 임무를 수행하러 갔다온 사람들만이 앉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리가 없었다. 그들은 자기 고뿌를 들고 곁에 서서 성공하고 돌아온 동무들의 어깨와 잔등을 두드리며 함께 마시였다.
와씰리는 사관장 주마첸꼬가 왜 자기보고 뽐내라고 말했는지를 지금에 와서야 리해했다. 로가찐의 군복저고리에는 적기훈장이, 꼬노쁠레브에게는 붉은별훈장이, 쁘로레뜨낀에게는 《용감성을 위하여》메달이 있었다. 와씰리는 정찰병들과 인사를 나눌 때 외투를 벗고 그들을 놀래우려고 하던 일을 되새기면서 점직해하였다.
(나도 바로 저렇게 번쩍거리며 자기 메달로 누구를 놀래우려고 하

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햇내기가 오히려 메달을 뽐내려 한것이 어색해졌다.

주마첸꼬는 자기 몸을 쭉 들이키고 재빨리 비게로 입가심을 하고는 식탁주위를 분주히 오가면서 정찰병들에게 먹을것을 받쳐주었다. 땀에 이마가 번지르르해진데다가 빨갛게 달아오른 주마첸꼬는 이렇게 언명했다.

《동무들, 어서 안주를 들라구. 그렇지 않다간 취해 빠드러질수 있소.》

까자꼬브가 임무를 수행한 후에는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평가하게 되여있다고 상기시켜주었다.

《와씰리, 어서 지휘관으로서 매 개인에게 평가를 내리시오.》

《모두가 행동을 옳게 했습니다.》 와씰리가 말했다. 《루즈긴, 쁘로레뜨낀, 포멘꼬동무들이 특별히 잘했습니다. 이 동무들은 사격소리를 듣고 즉시 우리를 지원하러 달려왔댔습니다. 정찰준비시에 이런 행동은 예견하지 않았지만 루즈긴동무자신은 결심을 정확히 했습니다.》

《말할수 있습니까?》 루즈긴이 물었다.

《어서 말하시오.》 까자꼬브가 허락했다.

《저는 우리가 철수하던 일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생포조건 보장조건 모두가 함께 무리를 지어 퇴각했는데 그래도 〈혀〉를 잡았다구 좋아들 하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꼬리가 빳빳해서 기지로 내뛰였습니다.》

《동무가 엄호하게 되여있지 않았소.》 까자꼬브가 취기어린 시선으로 능청맞게 말했다.

《저 역시 기뻐서 숨돌릴새없이 같이 뛰였지요.》

《글쎄 어떻게나 황급히 뛰였는지 눈앞이 다 캄캄했습니다.》 쁘로레뜨낀이 덧붙였다.

《기린도 그 사람은 따라잡지 못했을텐데요.》 로가찐이 유쾌하게 슬쩍 끼여들었다.

《앞으로는 참고해야 합니다. 철수도 정찰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까자꼬브가 충고를 주었다. 《일은 그렇게 될수 있었소.

말하자면 놈들이 있는 참호에서는 손실이 없이 무사히 빠져나오다가 부랴부랴 철수할 때에는 우연한 사격에 맞다들어 몇사람이 잘못될수도 있습니다.》 평가사업이 끝난 후 엄페호에서 나온 와씰리는 담배를 꼬나물었다. 밤 하늘가의 뭇별들은 유난히도 밝았다. 반짝이는 별들은 순간적으로 수많은 자동총들을 사격할 때의 불줄기를 련상시켰다.

골짜기는 쥐죽은듯 고요했다. 참모부도 잠들었다. 보초병들만이 눈우에서 바스락거리며 엄페호앞을 왔다갔다했다.

와씰리의 뒤를 따라 로가찐이 나왔다. 로가찐은 그의 곁에서 기침을 하고는 무엇인가 머뭇거리며 말하려다가 그만두었다.

《왜 그러오? 로가찐?》

《이거 미안합니다. 중위동지, 사실 제가 대줄 임무를 받고갔지만 중위동지가 직접 구령을 주는바람에…》

《고맙소, 로가찐》 와씰리는 마음속에서 존경심만이 아니라 친절하고 용감한 동지에 대한 그 어떤 정다움이 용솟음치고있음을 느끼였다. 《앞으로도 잘 도와주길 바라오. 내가 설사 중위라고 해도 어쨌든 풋내기가 아니요.》

《중위동지도 알면서 뭘 그러십니까. 엄페호에 수류탄을 던질 생각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제가 엄페호로 다가갔을 때 저는 하마트면 중위동지의 어깨를 잡을번했습니다. 그자리에서 어디다 던질가 하고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그 묘한 꾀를 눈치채지 못했지요. 정말 날쌔게 생각해냈습니다.》

이러한 칭찬은 와씰리의 마음을 한결 기쁘게 해주었다. 그는 문뒤에서도 자기에 대하여, 자기의 대담성에 대하여 말하고있는것을 들었다. 쁘로레뜨낀은 벌써 여러번이나 반복했다.

《우리 소대장은 정말 훌륭합니다. 그러니 일이 잘됐지요.》

× ×

련대나 사단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있는 적의 행동과 기도에 대해서는 흔히 누구보다 정찰병들이 먼저 알게 된다. 그대신 부분적으로 다른 새 소식들은 그들에게 늦게 전해지군한다. 그것은 정찰병들이 임무를 새벽이 아니면 밤에 수행하고는 인차 잠자리에 눕기때문이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매번 련대가 신문을 다 보고 방송도 다 들은 후 《병사들의 통신》을 통하여 새 소식을 전해듣군한다.

이번에도 그렇게 되였다.

와씰리는 찬 눈으로 대강 세수하고 엄폐호로 뛰여들어가 바둑판무늬가 있는 수건으로 몸을 문질렀다. 그의 용사들이 벌써 식탁에 둘러앉아 아침식사를 기다리고있었다. 끄노뽈레브는 매일과 같이 남먼저 신문을 읽고나서 동무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때마다 공청책임자는 마라초연기를 내뿜으며 주의깊게 듣고는 자기 의견을 보태군했다.

와씰리가 식탁으로 다가왔다. 그는 끄노뽈레브가 펼쳐든 신문에서 문득 굵은 문자로 《따냐》라고 쓴 제목을 발견했다. 련대가 방금 편성을 끝내고 전선으로 나가는 길에 모스크바부근에서 만났던 그 처녀가 생각났다.

《좀 보자구. 잠간만.》 신문을 받아든 와씰리는 식탁에 나와 앉지 않고 선자리에서 쭉 내리읽었다. 《1941년 12월 1일 웨레이구역부근 뻬뜨리쉐보에서 도이췰란드놈들이 18살의 빨찌산처녀를 사형하였다. 처녀는 따냐라고 했다. … 이것은 모스크바가 가장 커다란 위험에 처하여있던 시기에 있은 일이였다. 11월 16일에 시작된 우리 수도에 대한 도이췰란드놈들의 총공격이 절정에 이른 때였다.… 모스크바는 용감한 자원병들을 선발하여 전선으로 보내여 유격대를 돕게 하였다. 바로 이때 웨레이구역에서 따냐라는 처녀도 나타났다.》

와씰리는 기억을 더듬어보았다. (모든것이 일치한다. 18살의 처녀라… 우리는 11월 7일에 만났다. 전선으로 간다고 말했다. 그래서 자기의 모스크바주소도 대주려고 하지 않았다. 아차, 따냐로군. 그 따냐가 맞아!)

와씰리는 자기 앞에 나타났던 수심어린 처녀의 밤빛 눈동자며 추위에 발그스름해진 두볼과 엄하게 다문 얇은 입술이 선히 떠올랐다. 처녀는 외투를 몸에 딱 맞게 멋지게 해입었으며 집에서 정성들여 뜬 장갑을 끼고있었는데 아마 어머니가 만들어준것 같았다. 와씰리는 그때 그 처녀에게 있어서 장갑이 매우 귀중한것으로 생각되였다.

신문에는 따냐의 심문내용이 그대로 서술되여있었다.

《당신은 누구요?》—장교가 물었다.

《말 못하겠다.》

《당신이 어제 마구간에 불을 질렀소?》

《그렇다. 내가 불질렀다.》

《당신의 목적은?》

《네놈들을 멸살시키자는것이다.》

《당신은 언제 전선을 넘어섰소?》

《금요일에 넘어섰다.》

《당신은 너무 빨리 당도했구만.》

《그래 할 일없이 멍청하니 앉아있어야 좋겠소?》

계속하여 놈들은 따냐에게 누가 전선으로 파견했으며 또 누구와 같이 있었는가를 물었다. 자기의 벗들을 대라는것이였다. 그때마다 처녀는 《대지 않겠다.》, 《모른다.》, 《말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명의 파쑈놈들이 고문했다. 처녀는 한마디의 비명도 지르지 않았다. 놈들은 처녀에게 추잡한 고문을 들이댔다.

《보초놈이 보총을 비껴들고 따냐보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했다. 그놈은 따냐의 뒤에 서서 총창을 잔등에 바싹 가져다대고 거리로 걸으라고 했다. 이렇게 따냐는 맨발로 찢어진 홑내의바람에 눈우로 걸어나갔다. 보초놈이 오한이 나서 따뜻한 집안으로 돌아갈 때까지 끌리워다니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놈은 한시간에 15~20분동안 처녀를 거리에 끌고다녔다.》

와씰리는 따냐의 사형직전 마지막순간에 대한 글을 거듭 읽었다.

《따냐가 가지고있던 소지품들인 브라우스와 바지 그리고 양말을 가져왔다. 거기에는 배낭도 있었다. 배낭안에는 사탕가루와 성냥과

소금이 들어있었다. 털모자와 솜털이 보르르한 털내의와 펠트장화는 없어졌다. 그것들은 도이췰란드하사관놈들이 서로 나누어가질수 있었다. 그러나 장갑은 장교식당 료리사놈이 가졌다.》

바로 그 벙어리장갑이로구나! 보통 수갑이나 실장갑이 아니라 벙어리장갑이다. 무슨 색갈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따냐의 장갑은 연한 풀색이였다. 와씰리는 처녀가 그 풀색장갑을 손에 끼고 작별할 때 손을 흔들던 장면이 되살아났다.

그 다음은 사형에 대한 내용이 실렸다.

《교형리들은 용감한 처녀를 부축하여 상자우에 올려놓고 목에 올가미를 씌웠다. 장교 한놈이 자기의 〈콘탁스〉사진기렌즈를 교수대에 맞추었다. 도이췰란드놈들은 사형과 매질하는 장면을 찍는것을 일종의 쾌락으로 느꼈던것이다.

교형리는 바줄을 잡아당기였다. 따냐의 목은 올가미로 조여졌다. … 처녀는 얼굴을 쳐들고 있는 힘을 다하여 웨쳤다.

〈동무들, 잘 있으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주시오!〉》

와씰리의 목에도 당장 올가미가 조여지는것 같았다. 그는 신문을 놓고서야 엄폐호안이 조용하고 모두가 자기를 지켜보고있다는것을 알았다.

꼬노쁠레브는 신문을 받아들고 계속 읽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조용하더니 점점 랑랑해졌다. 나중에는 공청책임자가 연단에 나서서 대원들을 향하여 또박또박 말하였다.

《동무들! 파쑈놈들의 가슴팍을 겨누면서 따냐를 잊지 마시오. 그러면 총알은 틀림없이 명중될것이며 따냐의 복수를 할것이요. 공격하며 앞으로 전진할 때에도 따냐를 잊지 마시오.》

정찰병들은 지휘관을 곁눈질해보았다. 쁘로레뜨낀은 조바심이 나서 끝내 와씰리에게 물었다.

《중위동지, 그 처녀를 압니까?》

《좀 아는 처녀요.》

와씰리는 대원들에게 모스크바에서 그 처녀와 한번 만났던 일을 이야기해주었다.

《중위동지, 어느 도이췰란드사단이 따냐를 사형했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맞다들수 있지 않습니까.》 꼬노쁠레브가 말했다.
《옳게 말했소.》 와씰리가 긍정했다.
그리하여 바로 그날에 와씰리는 률렌꼬브대위와 함께 당면임무를 토의하면서 그렇게 요구했던것이다.
《빨찌산처녀 따냐를 사형한 도이췰란드놈들이 어느 사단에 소속된 놈들인지 좀 알아봐주면 좋겠습니다.》
《그건 알아서 뭘하겠소?》
와씰리의 의견에 공감을 가진 률렌꼬브는 즉시 군단참모부에 전화를 걸어 알아보려고 했다.
《정찰과에서는 다들 알고있소.》 하고 와씰리에게 말하고는 인차 송수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가시〉요? 〈봄〉을 대시오!… 정찰과에서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있어야 하거든.》 률렌꼬브가 조용히 계속했다. 그리고는 다시 소리쳤다. 《〈봄〉이요? 여보시오. 어서 〈수풀〉을 대주시오.》 하고는 와씰리에게 말했다. 《그런 일로 해서 군단정찰과장을 걱정시킨단말이지.… 〈수풀〉이요? 27번을 주시오.… 27번동지입니까? 오늘신문에서 빨찌산처녀 따냐에 대한 기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나는 정치위원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자는건 어느 사단이 귀축같은 만행을 저질렀는가 하는것입니다.… 197사 332련대인데 련대장은 중좌 류델레르라고 한단말입니까? 사형장면을 찍은 사진도 있습니까? 우리한테 사본도 보내줄수 있겠습니까? 우리한테 따냐를 잘 아는 동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률렌꼬브는 수화기를 놓고 와씰리에게 말했다.
《때마침 하사관 한놈이 포로되였소. 그놈한테서 사형장면을 찍은 사진이 나왔소. 동무에게 사본을 보내주겠다오.》
《고맙습니다. 대위동지. 우리 맞은편에 그 197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와씰리는 진짜 사진묶음을 받았다. 그것들은 매우 어슴푸레했다. 한 사진은 솜바지를 입고 모자가 없이 교수대밑에 서있는 따냐를 보여주었다. 앞가슴에는 《건물방화자》라는 글자를 쓴 판대기가 걸려있었다. 그런데 와씰리는 처녀의 얼굴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모스

크바에서 만났던 그 처녀와 비슷한 모습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때는 머리카락이 길어서 모자밑으로 삐죽이 나와있었지만 지금은 남자들처럼 깎은 머리였다. 《후방으로 떠나기전에 겸사 깎을수 있었을테니까.》라고 와씰리는 추측했다. 따냐의 손에는 장갑이 없었다. 《참, 그것을 장교식당 료리사가 덮쳤다고 했지.…》

교형리들은 따냐를 수많은 군중들속으로 끌고다니였다. 처녀는 놈들앞에서 얼굴을 높이 쳐들고 태연하게 서있었다.

《에잇, 죽일놈들같으니, 어느놈이건 걸려만 봐라.》와씰리는 이를 부드득 갈았다.

× ×

4월의 이른아침 먼동이 터오자 정찰병들은 도이췰란드놈들의 진지에서 시커먼 파시스트표식을 한 기발을 발견했다. 적 전호뒤의 고지우에 있는 길다란 기둥에 매여단 기발들은 바람에 펄럭이고있었다.

와씰리는 꼬노쁠레브와 골로샤뽀브를 데리고 밤새껏 전방지대를 헤매면서 《혀》를 손쉽게 잡을수 있는 곳을 가늠해보았다. 축축한 밤이였다. 그들이 새벽녘에 들렸던 련대감시소의 흙벽들은 누기로 하여 미끈미끈한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마루바닥에서는 진흙이 게발라진 북데기들이 시큼시큼한 냄새를 풍기였다.

정찰병들은 온몸이 꽁꽁 언데다가 피로했다. 와씰리는 포대경에 몸을 가져다댔다. 야간작업이 끝났으니 이제는 푸근한 엄폐호로 돌아가서 따끈한 차도 마시며 누워서 잠도 실컷 자보리라는 생각을 하니 기쁘기도 했다. 그런데 포대경을 오른쪽으로 약간 돌리자 파쑈놈들의 기발이 눈에 띄웠다. 처음에는 하나가 보이더니 다음에는 여러개가 보였다.

《저건 무엇을 의미할가?》

《어쩐지 우리 면상을 치는것 같군요.》 골로샤뽀브가 침울해서 말했다. 그의 목에 삐여져나온 울대뼈가 신경질적으로 움직였다.

와씰리가 꼬노쁠레브에게 말했다.
《동무는 어제 신문보도기사를 읽어보지 못했소? 도이췰란드놈들이 어데서 공격하고있소?》
《제가 읽어보긴 했지만 그런것이 없었습니다.》 골로샤뽀브가 여전히 흥분된 심정으로 대답했다.
와씰리는 골로샤뽀브의 성격때문에 그와 론쟁하고싶은 생각이 없었다. 그는 파쑈놈들에 대해 말이 나올 때마다 그놈들을 욕하며 무슨 말을 꺼내게 되면 꼭 해내군했다. 아직은 운명이 그에게 관대성을 베풀어주어서인지 1941년 옹근 한해를 련대에 있으면서 수많은 전투도 하고 여러번 포위속에 들기도 하고 중립구역에서 오래동안 시간을 보냈지만 부상 한번 당하지 않았다.
와씰리는 참모부에 전화를 걸어 도이췰란드놈들의 기발에 대해 보고하였다. 정치위원 가르부즈가 직일관의 송수화기를 들었다.
《도이췰란드놈들이 뭘하고있소?》
《잠잠합니다.》
가르부즈는 동안을 두었다가 강조하면서 말했다.
《오늘과 같은 날에 불길한 일이 생길수 있다는것을 명심하시오.》
《무슨 날입니까?》
《곧 감시소에 가서 대주겠소. 거기서 날 기다리시오.》
가르부즈는 노상 말끝마다 《하십시오.》,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대단히 좋을것입니다.》라고 보태군했다. 그렇다고 명령방법을 다 고칠수는 없었다. 그는 지시를 주면서 《차렷》자세를 취하는것을 피했다. 그에게는 그것이 우스운 일로 생각되였던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부즈가 일단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하고 말하게 되면 련대의 모든 성원들이 한결같이 그의 요구를 가장 훌륭하게 집행하느라고 부글부글 끓고있었다.
그리고 정치위원 가르부즈에게 있어서 또하나의 고유한 성품은 그가 군무와는 관계없는 부차적인 일로 부하들을 고생시키게 될 때 미안해하며 괴로와하는것이였다. 와씰리는 가르부즈가 기침을 하면서 모스크바에 있는 어느 양성소로 공부하러 떠나가던 한 후방일군에게 한가지 개인부탁을 하면서 우물쭈물하던 일이 생각났다. 그 부탁이

란 모스크바시내의 아무 우체통에나 자기의 개인편지를 넣어 알따이에 빨리 가닿도록 해달라는 보잘것 없는 부탁이였다.

…와씰리는 그 더러운 기발에 대해 보고한 자신이 유감스럽게 생각되였다. 그는 앉아서 밀렸던 잠과 휴식을 청하며 가르부즈를 기다리였다.

한참만에야 정치위원이 나타났다. 그가 좁다란 입구로 비비고 들어서자 온 감시소안이 꽉 찬것만 같았다. 그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었다. 악수를 하는 법도 역시 오래전에 사민으로 있을 때 붙은 습관그대로였다.

가르부즈의 몸에서는 미안수냄새가 풍기였다. 그의 크고 둥그스름한 얼굴은 방금 면도를 해서인지 번들번들했다. 그는 포대경에 몸을 기울이고나서 이마를 찡그리였다. 그는 허리를 구부린채 와씰리에게 설명해주었다.

《명절을 쇠구있소. 와씰리동무, 저 기발은 히틀러의 생일을 축하한다는거요.》

와씰리는 쌍안경으로 가까운데 매달린 기발을 바라보았다. 기발은 여전히 바람에 서서히 펄럭이고있었다. 《저놈의 기발을 떼버릴테다.》하고 와씰리는 다짐했다.

와씰리는 정치위원에게 시선을 돌리였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있다는것을 눈치챘다. 대대들에서는 정치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파쑈놈들의 행사가 오히려 전사들의 신경을 건드린다고 보고했다. 포병들이 기발을 없애치우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지금은 모두가 정찰병들만이 그 기발을 걸레쪼각처럼 찢어버릴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있었다.

가르부즈는 줄곧 와씰리를 주시해보면서 정황을 료해하고있었다. 와씰리의 얼굴은 피로해졌고 눈확이 꺼져들어가 거밋해졌다. 정찰근무를 맡아본지 넉달도 채 못되는 사이에 벌써 얼굴색갈은 희끄무레해졌다. 지금처럼 얼굴이 허옇고 푸르스름한 색채를 띤 그가 눈만 감게 되면 어딘가 모르게 죽은 사람같다고 볼수 있었다. 가르부즈는 그 젊은 지휘관을 사랑했으며 그의 성과에 못내 기뻐도 했다. 솔직히 말하면 언제인가는 이러한 성과가 혹시 와씰리중위를 변질시키지

않겠는가고 걱정도 해보았다.
가르부즈는 와씰리를 구태여 모험하게 하려는 생각은 없었지만 자신의 의무감으로 하여 지금 동지들이 기발을 떼버릴 정찰병들을 기다리고있다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수 없었다. 와씰리도 슬그머니 분이 치밀었다. 《왜 늦장을 부립니까? 할건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고 일부러 막 내뱉았다.
《우리가 그 기발을 찢어버리겠습니다. 정치위원동지, 걱정마십시오.》
《그게 결코 간단하게 되는 일이 아니요.》 가르부즈가 반대했다. 《게다가 동무들에게는 시간이 없소. 밤이면 도이췰란드놈들이 기발을 내릴거요. 깐깐한놈들이니까. 스물네시 정각에는 꼭 내리울게요. 그러니 동무에게 차례지는 시간이 불과 네댓시간밖에 안된다는건데, 이로부터 모든것을 세밀히 따져봐야 하오.》
와씰리는 엄페호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이 해야 할 행동을 꼼꼼히 구상해보았다. 물론 기발에는 특별위병대를 붙여놓았을것이며 거기에는 선발된 병정들이 배치되여있을것이다. 놈들이 근무를 어떻게 서고있을가, 보초병이 오솔길로 다니겠는가, 아니면 참호에 눌러앉아있겠는가, 교대휴식을 하는 위병대는 어데 있을가, 보초병으로부터 멀리에 떨어져있을가, 그 모든것은 그곳 적진에서만 알수 있는것이다. 두개의 생포조를 구성하여 매조에 두명씩 배치해야 한다. 이 조들은 맞은편 고지를 우회하여 거기에서 보초병에게 접근하기 유리한 곳을 찾아내며 한조가 보초병을 맡는 동안 다른 조는 기발에 접근하여 기발을 내리워 가져간다. 이런 기동을 은밀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 위병대를 차단하기 위한 세번째 조가 있어야 한다.
위병대를 차단하는 방도는 그닥 달가운것이 못되여 그것을 생각해보고싶지 않았다. 그러나 와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다 생각해보았다.
정찰병들의 엄페호에서는 률렌꼬브대위가 와서 와씰리를 기다리고있었다. 와씰리는 가르부즈대위가 보내서 온것이라고 추측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률렌꼬브는 계획된 작전을 환히 꿰들고있었다.
와씰리는 종이장에 지형도를 그리고 기발이 있는 곳에 굵은점을

찍어놓고 률렌꼬브에게 자기의 구상과 행동순차를 설명해주었다. 지휘관들의 주위에 둘러선 정찰병들이 주의깊게 듣고있었다. 그들은 모험적인 임무수행에 누가 참가하는지 모르고있었다.
열한시경에야 작전계획이 완전히 작성되고 일부 변경된 내용은 련대장이 비준했다.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정찰병들은 일찌기 식사를 하고 잠자리에 누웠다. 나머지 사람들은 엄페호를 떠나갔다.
와씰리는 오래동안 잠들수가 없었다. 나중에는 자신에게 어서 잠들라고 명령까지 했다.
그리고는 혼곤히 잠들어버렸다.…
전방으로 나가기전에 정찰조는 엄폐호앞에 모두 정렬하였다. 꼬노뽈레브와 로가찐, 쁘로레뜨낀과 골로샤뽀브, 루즈긴이 흰옷을 입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서있었다.
《제자리에서 뛰엿!》 와씰리가 명령했다.
정찰병들이 손에 자동총을 쥐고 마치 땅바닥에 걸레쪼각이 떨어지듯 소리없이 조용히 제자리에서 훌쩍 뛰여올랐다가 떨어지군했다. 그 순간 와씰리가 딸가닥거리는 작은 소리를 포착했다.
《누구한테서 소리가 나오?》 와씰리가 물었다.
《저의 자동총이 나빠서, 이제 퇴치하겠습니다.》 쁘로레뜨낀이 대답했다.
와씰리는 흠잡을데가 없을가 하여 정찰병들을 다시한번 유심히 살피였다. 그는 어쩐지 오늘 대원들의 복장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복장이 너무 하얗지 않는가. 이제는 흰눈도 그렇게 없는데…)
《주마첸꼬, 위장복을 가을용으로 바꿔주도록 하시오.》 하고 와씰리는 지시하고 대원들에게 설명해주었다. 《지금은 곳곳에 맨땅이 드러났습니다. 만일 예광탄이 눈에 덮인 벌판을 비치게 되면 까딱하지 말고 누워있으시오. 도이췰란드놈들은 눈이 녹은 맨땅인줄로 알것입니다.》
정찰병들은 누르끼레한 점이 찍힌 풀색옷을 입었다.
《산귀신갈군.》 로가찐이 롱담을 했다.
와씰리는 어둡기전에 자기 조를 첫번째 전호까지 떠나보내고싶었다. 시간을 아끼자는것이였다. 그러나 마지막순간에 와서 그는 생

각을 달리했다. 도이칠란드감시병들이 전방으로 접근할 때 그들을 발견하고 그것이 《푸른 악마》들이라고 제꺽 알아맞출것이 아닌가. 은밀히 진출하는것이 귀중한 밤시간을 삼십분 잃는것보다는 훨씬 나을것이다.

첫번째 전호에서는 정치위원과 포병중대장 아가냔대위와 정찰참모 률렌꼬브가 정찰병들을 기다리고있었다.

《사기가 어떻소?》 가르부즈가 물었다.

《좋습니다.》 와씰리가 대답했다.

《신호총은 가졌소? 색갈도 검열해봤소? 나는 적색탄을 보고 사격하겠소.》 아가냔이 일러주었다.

《대위동지.》 와씰리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동무에 대한 걱정뿐이요.》

《자, 와씰리, 성공을 바라오.》 가르부즈가 그의 말을 가로챘다.

가르부즈는 껴안으려는지, 악수를 하려는지 주저하고있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없었던듯 주먹을 힘있게 흔들면서 말했다.

《어서 떠나시오.》

어서 떠나라는 이 짧은 말속에는 파쑈놈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도 그처럼 훌륭한 전사들을 생사를 가름하는 위험한 격전장에로 내보내야 하는 괴로움도 그들의 성공을 축원하는 마음도 모두 함께 표현되고있었다.

정찰병들은 꼬리를 물고 전호속에서 솟구쳐나왔다. 흙이 사르륵거리면서 전호바닥으로 흘러내렸다.… 그들은 처음에는 꿋꿋이 서서 갔다. 예광탄의 불줄기가 어딘가 한쪽으로 멀리 행방없이 지나갔다. 발밑에서는 보드라운 땅이 약간 폭신한감을 주었다. 그것은 대낮에 땅이 녹았다가 저녁이 되면 날씨가 차지면서 표면이 살짝 얼어붙어 탄성을 띄게 되였던것이다. 와씰리는 눈무지를 에돌아갔다. 그는 얼어붙은 눈이 바스락소리를 낸다는것을 알았다.

도이칠란드놈들의 전호까지 200메터가량 떨어진 곳에서는 네발로 기여가기 시작했다. 어느새 100메터를 나갔다.

거기에는 아직 철조망이 없었다. 놈들은 아직 전호를 완전히 쭉 내파지 못했다. 귀를 강구고 앞을 주시하고있던 와씰리는 정찰조를 무

사히 끌고나가려고 전호사이에서 조의 위치를 확정했다. 와씰리는 낮에 포대경으로 끊어진 전호들을 미리 봐두었다. 그것들은 구불구불한 점선식으로 뻗어있었다.

오른쪽에서는 기관총이 긴 점발사격을 하고있었다. 그것은 정찰병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있긴 하지만 그 사격으로 하여 다른놈들을 긴장시킬수 있었다. 《어떤놈이 잠을 깨웠을가?》 우리쪽에서는 《막씸》중기가 불을 토했다. 놈들의 기관총이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막씸》이 뒤따라 대응사격을 했다. 도이췰란드놈들은 잠잠해졌다.

이따금씩 예광탄이 타올랐다. 그 불빛이 땅에 떨어지는동안 아군전호들에서는 단발사격소리만이 울리였다. 총알은 예광탄을 쏜쪽으로 정확히 날아갔다.

와씰리는 지금 뒤에서 정치위원이 자기들을 걱정하고있으리라고 믿었다. 도이췰란드놈들의 기관총이 두차례나 사격할 때 가르부즈는 아마 우익 중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쥬라블레브동무, 왜 동무네 구역에서는 놈들의 기관총이 그처럼 극성스럽게 짖어대오? 제발 부탁하지만 관심을 돌리시오. 더는 전화를 걸지 않도록 해주시오.》라고 말했을것이다.

와씰리는 쥬라블레브가 전화기에서 갈린 목소리로 욕질을 하면서 누구에게 지시를 주든가 아니면 그가 직접 기관총소대로 뛰여가는것을 방불하게 상상해보았다. 바로 그렇게 되여 파쑈놈들을 잠잠하게 만들었던것이다.

도이췰란드놈들의 침침한 목소리가 앞에서 들리였다. 와씰리는 바싹 긴장되면서 조심스럽게 왼쪽으로 기여나갔다. 그리고는 뒤를 돌아보면서 뒤떨어진 조가 없는가를 확인했다. 대원들은 조용히 와씰리의 뒤를 따라 미끄러져 내려갔다. 이제는 자동총을 찰가닥거리거나 마른기침을 터뜨리기만해도 당장 주변이 콩볶듯 끓을것이다. 예광탄이 공중으로 치달아오르다가 비발처럼 쭉 내리쏟아지고 멀리서는 수류탄터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말소리는 점차 뒤로 멀어져갔다. 와씰리는 앞이 확 트인 조건에서 이제 관목숲까지 무사히 기여가기만 하면 거기서 기발이 있는 고지

가 멀지 않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촘촘한 검은 나무가지들이 눈에 뜨이자 와씰리는 벌떡 일어나서 허리를 구부리고 조를 데리고 어두운 관목숲속으로 들어가 숨었다. 검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하여 앞에 있는 고지의 륜곽이 명확히 드러났다. 가까이에 접근한 와씰리는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열시가 되였다. 꼭대기에는 컴컴한 기발이 매달려있었다.
와씰리는 손가락으로 끄노뿔레브와 골로샤뽀브에게 신호하고 다른쪽으로 손을 흔들었다. 그들은 거기로 진입해야 했다. 끄노뿔레브는 자기 조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어둠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두번째 조에는 와씰리와 로가찐이 있었다. 세번째 차단조의 임무는 아직 규정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와씰리는 루즈긴에게 손을 흔들어 쁘로레뜨낀과 함께 자기를 따라오라고 했다.
가까이에서 보니 고지는 퍼그나 커보였다. 고지아래 기슭에는 관목숲이 무성하게 우거지고 시커먼 웅뎅이들이 강물에 씻기여 움푹하게 패워있었다.
큼직한 웅뎅이 하나를 골라잡은 와씰리는 비스듬히 몸을 일으키면서 루즈긴조에 손짓하여 거기에 남아있으라고 하고는 자신은 로가찐과 함께 앞으로 기여나갔다. 그들은 눈이 덮여 굳어진 개바닥을 따라 기여갔다. 드디여 보초병이 보였다. 외투를 입은 그놈은 철갑모를 쓰고 가슴에 자동총을 대고 서있었다. 그놈은 기발이 있는데서 아래켠으로 치우쳐있는 오솔길로 천천히 왔다갔다 했다. 그놈이 서있는데는 우리쪽에서 날아오는 총알을 완전히 피할수 있는 안전한 곳이였다. 오솔길은 낮에 놈들이 밟고다녀서인지 어둠속에서도 두드러져보였고 길의 한끝은 웅뎅이쪽으로 뻗어가고 끄노뿔레브와 골로샤뽀브가 기여와야 할 다른쪽 끝에서는 숲도 보이지 않고 웅뎅이도 없는것 같았다.
(이곳 접근지는 보초놈들을 해제끼는데 좀 유리하다.) 하고 와씰리는 확정했다.
와씰리는 로가찐에게 자동총을 넘겨주고 권총을 품속에 찔러넣었다. 육박전에서는 위장복안에 찬 권총집을 벗길새가 없는것이다. 단도를 꺼내여 광택이 보이지 않게 팔소매에 감추었다.

이렇게 격전을 앞두고 만단의 준비를 갖춘 와씰리는 혼자서 보초놈앞으로 기여갔다. 그놈이 마주오게 되면 까딱하지 않고있다가 뒤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 앞으로 기여나갔다. 한편 와씰리는 위병대가 있는 곳을 확정하려고 주위를 살펴보았다.

보초병이 보초소에 몇시간이나 서있을가, 두시간일가? 보초교대를 한 후에 즉시 해제끼면 좋을것이다. 그렇게 되면 무사히 돌아갈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된다. 반대로 당장 보초놈에게 달려들어 해제끼다가 교대가 진행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오솔길까지 대여섯 발자국이 남아있었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가? 보초가 보기때문에 더 가까이 기여갈수는 없다. 그놈이 뒤로 돌아설 때 달려들가? 장화소리가 나지 않을가? 저놈이 발자국소리를 듣고 돌아설수 있지 않을가?

와씰리는 장화를 눈여겨보았다. 장화에다 무엇을 감아야 하지 않을가? 그렇다면 무엇으로 감을가? 장갑은 들어가지 않는다. 벗는게 낫지 않을가? 맨발로 달려들면 미처 소리칠새도 없을것이다. 와씰리는 누워서 장화를 벗었다. 발싸개도 버려야 한다. 언땅에 발바닥이 솔바났다. 그는 주먹을 그러쥐였다.

달려들 순간이 다가왔다. 와씰리는 단도를 으스러지게 틀어잡았다. 적을 칼로 찔러 단번에 넘어뜨리는 일이 그리 헐하지 않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러자면 적지 않은 힘이 있어야 한다.

와씰리는 꿈결에서와 같이 보초놈의 거밋한 모습을 가려볼수 있는데까지 가볍게 살짝 뛰여가서 있는 힘을 다하여 그놈의 목을 단도로 쿡 찔렀다. 다른 손으로는 불이 번쩍나게 입을 틀어막아 고함을 치지 못하게 했다. 타격을 받은 보초놈이 땅에 너부러지는 순간 소리치지 못하게 그놈을 덮치였다. 그찰나에 역한 담배내와 퀴퀴한 땀냄새가 코를 찔렀다.

때마침 로가찐이 다가왔다. 그들은 둘이서 보초놈이 숨질 때까지 견제했다. 와씰리는 날래게 달려가 맨발로 장화를 신었다. 발싸개를 할새가 없었다. 이런 정황에서는 두번째 생포조가 기발을 이미 내리웠어야 했다. 그러나 기발곁에는 누구도 없었다. (꼬노쁠레브와 골로샤뽀브가 정말 겁을 먹은게 아닐가? 그럴수 없다. 모두가 믿음직

한 동무들이다. 그런데 왜 그들이 없을가? 우리가 보초놈을 해치운것을 보지 못했을가? 그렇다면 기발을 직접 벗겨야 한다.)

기발은 쇠장대에 달아매있었다. 쇠장대는 칼로 자를수 없었다. 어떻게 할가? 와씰리는 그것을 아래로 당겨보았으나 뻣뻣해서 휘여지지 않았다. 둘이서 둥둥 매달려 당겨보았다. 기발이 서서히 아래로 내려왔다. 큼직한 기폭이 바람에 펄럭이면서 방해했다. 《제기랄 크기두 하군. 멀리서 볼 때는 작은것 같더니.》 와씰리가 화를 냈다.

드디여 기발이 땅에 드리워졌다. 대문짝만한것을 말아놓으니 큰 꾸레미가 되였다. 로가찐은 그것을 등에 지였다. 그들은 아래켠에 있는 루즈긴한테로 달려갔다.

《저런, 굉장한거구만요. 중위동지.》 루즈긴이 속살거렸다.

《기뻐할 때는 이르오. 아직 철수하지 못했으니까.》 와씰리가 조용히 대꾸했다. 그는 끄노뻘레브가 돌아오지 못한것을 보고 무슨 곡절이 생긴것이라고 걱정했다.

《여전히 잠잠합니다.》 루즈긴이 응답했다.

《됐소. 여기에 더 머무를수는 없소. 기발을 개여가지고 빨리 철수하시오. 나는 로가찐과 함께 끄노뻘레브와 골로샤뽀브를 찾아보겠소.》

루즈긴은 거절하려고 했다. 《중위동지, 오늘 그렇게 수고했는데 제가 가도 되지 않겠…》

《말한대로 움직이시오.》 와씰리가 그의 말을 중둥무이했다.

임무를 앞에 놓고 와씰리는 어떠한 반대의견도 들을수 있었으며 지어 자신도 론쟁에 끼여들군했다. 그러나 적후에서는 어떠한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귀로에 오른 정찰병들은 고지의 비탈면에서 어두운 그림자를 발견했다. 그 그림자는 마치 뒤발로 일어선 곰을 련상시키며 서서히 가까와졌다. 모두가 종적을 감추고 지켜보았다.

골로샤뽀브가 끄노뻘레브의 잔등에 업히여왔다.

《무슨 일이요?》 와씰리가 물었다.

《부상당했습니다.》 끄노뻘레브가 한숨을 내쉬였다.

《어쩐지 조용하다 했더니.》로가찐이 입을 열었다.
《그래서 조용했지요.》꼬노쁠레브가 애매하게 대꾸했다.
《됐소. 돌아가서 알아봅시다.》 와씰리가 말했다.
와씰리는 다시금 앞장에 서서 지나온 흔적을 찾아내여 그 길을 따라 돌아가려 했다. 그러나 어둠속에서 그렇게 할수 없다는것을 생각하였다. 낯익은 숲속을 지나서 와씰리는 자기들이 뚫고나가야 할 길어귀에서 놈들의 말소리가 나는것 같아서 귀를 강구었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사위는 고요했다.
조용히 기여가던 와씰리는 앞에서 갓 파놓은 흙무지를 발견했다.
그뒤에는 참호가 있었다. 그는 조원들에게 손을 쳐들어 조심하라고 했다.
적당하게 파놓은 참호는 텅 비여있었다. 그러나 첫 굽인돌이뒤에 혹시 놈들이 있을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위험한 곳을 에돌아 중립지대에 이르렀다.
정찰병들이 이제는 한시름을 놓았다고 숨을 돌리고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불안스러운 고함소리가 들리였다. 도이췰란드놈들이 자기 방어선종심에 있는 기발대의 기발이 없어졌다고 소리쳤던 모양이다. 뒤이어 하늘로는 예광탄이 연방 치달아오르면서 주위를 환히 비치였다.
(이젠 눈치챘군! 당장 시작되겠지. 그러니 더 기여갈수 없게 됐군. 그렇다고 포사격을 요구할수 없지 않는가. 아군의 포탄에 맞아 죽을수 있으니까.) 하고 와씰리는 속으로 툉겨보았다.
적진에서는 복새통이 일어났다. 놈들은 어방대고 무작정 갈겨댔다. 정찰병들은 웅뎅이에 들어가 바닥에 바싹 붙어서 정황을 가늠해보았다.
(뛰여나가도 일없을가? 임무를 다하고 철수하는 일만이 남았는데.) 하고 와씰리는 생각했다.
예광탄들이 백광을 뿌리며 허공으로 솟구쳤다가는 사라졌다. 그때마다 광명이 암흑으로, 암흑이 광명으로 바뀌였다. 마치도 누군가 여닫개를 련결했다가 끄면서 장난질하는것 같기도 했다.
련이어 오르는 예광탄이 발광하는 순간에 와씰리는 도이췰란드놈

들의 전호를 또 발견했다. 그 전호는 왼쪽으로 약 50메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것을 넘어서면 중립구역이 시작되는것이다. 전호에 있는 놈들은 정찰병들을 보지 못했다. 놈들의 주의는 온통 아군진지쪽으로만 쏠리였다. 그러나 정찰병들은 그뒤에 엎디여있었다.

전호는 길지 않았다. 여기서는 한개 분대밖에 방어할수 없었다. 와씰리는 땅우에 솟아나온 아홉개의 철갑모를 발견했다.

(이놈들을 없애치우지 않으면 철수하지 못한다. 모두가 근거리에서 사격을 받아 희생될수 있다.) 순식간에 정황을 판단하고 결심을 내린 와씰리는 위장복밑에 손을 넣어 두개의 수류탄고리를 벗겨냈다. 그는 모로 누워서 예광탄이 발광할 때 가까이에 있는 정찰병들에게 조심스레 수류탄을 내보여주었다. 그들도 역시 지휘관의 의도를 리해하고 수류탄을 꺼내여 뒤에 있는 동무들에게 보여주었다. 정찰조가 전투준비되였다는것을 확인한 와씰리는 전호쪽으로 기여가 50메터되는 거리에서 엎디여 수류탄을 던져내겠는가를 가늠해보았다.

정찰병들이 와씰리의 뒤를 따라 기여갔다.

그러나 그들이 불과 몇메터도 나가지 못했는데 도이췰란드놈들이 주위를 두리번거리였다. 와씰리는 예광탄이 발광할 때 그놈의 하얀 얼굴을 똑똑히 보았다. 도이췰란드놈이 어찌나 크게 고함을 질렀는지 와씰리는 잔등에 바늘이 날아와 꽂히는것처럼 섬찍해났다. 이제 더 숨어있다는것은 무의미한 일이였다. 와씰리는 벌떡 일어나면서 전호에 수류탄을 던지고 냉큼 엎디였다. 옆에 있던 로가찐과 루즈긴 그리고 쁘로레뜨낀도 뒤따라 수류탄을 던지고 땅에 엎드렸다. 몇개의 수류탄이 전호에 못미쳐서 터지는바람에 파편이 사방에 날아와 떨어졌다.

와씰리에게 있어서 신관이 타들어가는 그 3초가 그처럼 끝없이 길어보인적은 한번도 없었다. 와씰리는 지어 수류탄이 고장난게 아닐가 하고 생각했다.

수류탄은 연방 꽝꽝 터지였다.

가까스로 기다리던 와씰리는 와닥닥 일어나면서 《앞으로!》하고 구령을 쳤다. 그리고는 모두들 일어났는지, 골로샤뽀브와 기발을 제

대로 날라가는지 살피였다. 와씰리는 전호를 넘어뛰면서 바닥에 너부러진 컴컴한 시체들을 보았다. 놈들은 파편에 맞아 뒈지기도 하고 폭발에 허리가 뭉청 부러져나가기도 했다. 와씰리는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여 손에 쥔 수류탄고리를 마저 뽑아 전호에 또 던지고 신호총을 틀어잡았다. 신호총은 시꺼먼 하늘로 곧추 날아오르며 빨간 불꽃으로 확 피여났다.

와씰리는 아군의 포탄이 여기로 날아오는동안이면 정찰조가 안전한 곳으로 철수할수 있으리라고 타산했다. 그러나 포병들은 벌써 격동기끈을 팽팽하게 당길 준비를 하고있는것 같았다. 신호탄이 채 꺼지기도전에 멀리서 포성이 울리더니 첫 포탄이 철수하는 정찰병들의 가까이에 날아와 터졌다. 그바람에 그들은 땅바닥에 넘어지고말았다. 파편이 어찌나 낮게 날아가는지 고개를 쳐들수조차 없었다. 화염이 번쩍이는 도이췰란드군진지는 순식간에 흙먼지와 연기의 짙은 연막속에 잠기였다.

정찰병들은 기진맥진하여 겨우 자기 전호로 기여갔다. 골로샤뽀브도 두명이 교대로 업으면서 데려왔다. 도이췰란드놈들의 기관총이 악에 받쳐 중립지대에 대고 계속 사격했다. 예광탄들이 도처에서 번쩍거리였다. 그러나 와씰리는 지금 놈들이 어디에 대고 사격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있다고 생각했다. 도이췰란드놈들의 포도 아가리를 열기 시작했다. 와씰리는 중립지대 복판에 있는 좁다란 골짜기에 이르러 조원들에게 숨돌릴 틈을 주었다. 지금은 여기가 자기들의 전호보다 안전했다. 포사격은 멋들어지게 공격할 때처럼 격렬해졌다. 와씰리는 어둠속에서 골로샤뽀브와 한조인 끄노쁠레브를 찾아 물었다.

《동무네는 무슨 일이 있었소?》

끄노쁠레브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중위동지가 보초놈에게 달려드는것을 보고 우리는 즉시 기발에 달려가자구 했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찰나에 교대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놈들은 둘이였는데 한놈은 보초장이구 다른놈은 보초병같았습니다. 이때 중위동지한테 소리치게 되면 당장 소동이 일어날것같이 생각되더군요. 놈들이 우리 곁을 지나는 순간에 와락 덮쳐서

감쪽같이 해치우자구 했지요. 나는 총탁으로 한놈의 대가리를 까구 골로샤뽀브는 칼로 해제끼자구말입니다.》
죽은것같이 보이던 골로샤뽀브가 갑자기 몸을 뒤채기더니 독기어린 목청으로 나직하게 말했다.
《멋들어지게 해제끼자구 했지만 어디 소원대로 돼야지요.》
와씰리는 기뻤다.
《살아났소?》
《네, 살아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한 대원이 키득거리였다. 그러나 그것이 그닥 적절한 웃음이 못되였던지 다른 대원들은 좀 주저하다가 나중에는 모두들 스스럼없이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와씰리도 따라 웃었다. 그리하여 어느덧 정신적긴장은 가셔지고 분위기는 어느정도 완화되였다.
《동무들, 조용들하시오! 그 동무의 말을 마저 다 들읍시다.》 와씰리가 말했다.
웃음이 채 멎지 못했는지 누군가 남몰래 키득거리고있었다.
《골로샤뽀브, 어서 말하게.》 와씰리가 부상자에게 말했다.
《다 말하랍니까? 내가 미처 그놈을 칼로 찌르지 못했지요. 보니까 그놈은 아가리를 쩍 벌리면서 막 소리치자구 하더군요. 나는 부랴부랴 칼을 던졌는데 그놈의 목젖에 꽂혔지요. 있는 힘을 다해서 그놈의 목을 누르는데 그 더러운놈은 손발로 나를 홱 뿌리치더니 글쎄 온 상판대기를 다 허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땅에 넘어졌지요. 그런데 어느새 그놈의 손에 내 칼이 쥐여져있었지요. 첫번에 그놈은 나한테 칼을 박더군요. 아직 그놈에겐 힘이 있었으니까. 순간 나는 선뜩한 철물이 갈비사이로 들어오는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놈의 목을 바싹 조이면서 놓지 않았지요. 그다음엔 어떻게 됐던지 통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잃었댔으니까.》
꼬노쁠레브가 그이후의 정황을 마저 이야기해주었다.
《저 동무가 도이췰란드놈을 어찌나 필사적으로 누르고있었는지 참 손가락이 벌려지지 않아 그놈의 목에서 손을 겨우 떼냈지요.》
《말은 바른대로 나는 망신을 한셈이지요. 글쎄 도이췰란드놈이

내 칼로 나를 찔렀으니…》골로샤뽀브가 쑥스러운 생각에 한숨을 쉬였다.
《동무는 장하오. 동무가 맡은놈이 꽥 소리를 질렀더라면 우리는 빠져나오지 못할번하지 않았소.》와씰리가 칭찬했다.
자기의 습관에 충실한 골로샤뽀브는 쿨쿨거리면서 욕할 사람을 찾는것 같았다. 그러나 화제가 자기자신에게 돌려진것만큼 자기비판으로 제한되고말았다.
《그게 무슨 장한 일입니까? 그놈이 나를 각을 뜨자구 할 때 하마트면 울번했는데두요.》
《붕대를 제대로 감았소?》와씰리가 물었다.
《옆구리의 기본상처는 감았는데 다른 곳에는 붕대가 모자라서 그만 감지 못했습니다.》끄노쁠레브가 대답했다.
《왜 여직껏 말하지 않았소? 갑시다. 동무들! 골로샤뽀브가 피를 적게 흘리게 하자면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응결되여 마른것 같습니다.》골로샤뽀브가 시무룩해서 말했다.
전호에서는 정찰병들을 불안한 마음으로 맞이했다.
《그래 어떻소? 모두들 돌아왔소?》
《남겨둔 부상자들은 없소?》
《기발은 가져왔겠지?》…
가르부즈는 와씰리를 감격적으로 포옹하였다. 련대장은 정치위원옆에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있었다.
감격의 첫 파도가 사라지자 정치위원이 련대장에게 말했다.
《자, 끼릴 알렉쎄예위치, 이제 저 동무들에게 한상 차려줘야겠습니다. 그 일은 내가 직접 맡겠소.》 그리고는 정찰병들을 향하여 말했다. 《나도 동무들처럼 미신적인 사람이 되고말았소. 글쎄 맞을 준비를 하나도 하지 말라고 했단말이요. 어서 가서 휴식하시오. 후에 동무들의 축하회를 하겠소. 그리고 나한테 한가지 계획이 있는데 그건 휴식한 다음에 말해주겠소.…》
《축하회》는 이튿날 참모부 식사를 준비하던 식당주변의 골짜기에서 진행되였다. 정찰병들을 진짜 식탁에 앉히였다. 그들앞에는 구경

한지 오랜 하얀 사기그릇을 놓고 남새국에 지진 꼴바싸며 고기쏘스를 친 메밀밥을 올려놓았다. 식탁에는 말쑥하게 벗긴 둥글파며 어디서 구해왔는지 염장오이를 담은 접시들도 있었다. 속이 비고 우글쭈글한 오이라고 해도 4월에 먹어본다는것은 기이한 일이였다. 술은 백그람 기준이 아니라 마시고싶은대로 따라주었다. 그러나 정찰병들은 지휘관들을 꺼려하면서 조심스레 마시였다.

그날은 모두가 명절기분이였다. 4월 봄에 접어들면서 두텁게 쌓였던 눈더미도 어느새 다 녹아빠졌다. 따스한 땅에서는 증기가 하늘하늘 피여오르고 낮은 곳에 있는 물웅뎅이들은 눈석이가 모여들면서 점점 넓게 불어났다. 푸르른 하늘가에서는 베개잇마냥 새하얀 구름들이 뭉게뭉게 떠돌고있었다. 가까운 수림속에서는 이젤가 저젤가 하면서 움트려는 봇나무싹들이 쌉쌀한 냄새를 풍기고있었다.

와씰리는 대자연속에서 만물이 소생하고있음은 물론 오늘은 사람들속에서도 무엇인가 달라지고있음을 감촉했다.

정찰병들을 푸짐히 대접한 정치위원 가르부즈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하였다.

《정찰병동무들, 다시한번 동무들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이제부터 대대로 다니면서 동무들을 우리 련대에 다 보여주겠습니다. 와씰리동무, 아직은 동무들이 첫 임무를 수행한데 불과합니다. 사실 제일 어렵고 힘든 임무를 절반밖에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앞에는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와씰리는 정치위원이 무슨 일에 대하여 말했는지 인차 리해하지 못했다. 정치위원은 중대와 대대들에 정찰병들을 데리고 다니였다.

전호들은 눈석이가 흘러내려 발바닥에는 흙탕물이 무릎까지 튀여올랐다. 그러나 정치위원은 그들을 계속 데리고다니면서 구분대들에 들릴 때마다 이렇게 말해주군했다.

《동무들, 바로 이 동무들이 우리의 영웅들이요! 이 동무들이 우리가 고지에서 본 파쑈놈들의 기발을 찢어버렸소. 머지 않아 우리는 히틀러의 코앞까지 갈것입니다. 동무들, 공격을 준비하시오. 파쑈놈들이 자기의 기발을 지켜낼수 없게 한것은 우리가 그놈들을 꼭 굴복시키리라는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

니까. …》

여기서 정치위원은 련대의 구체적인 사업으로 넘어갔다. 그는 포병들과 저격수들, 공병들과 통신병들, 그 누구와 말하든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설명해주었다.

정찰병들은 그 즉흥적인 모임으로 하여 어찌나 피로했던지 투덜거리기 시작했다.

《정치위원동지, 전호에 왔다갔다하기보다 놈들의 기발을 떼러 다시 갔다오는 편이 더 좋겠습니다.》

가르부즈는 드디여 정찰병들과 악수를 나누고 헤여졌다.

와씰리는 엄페호로 들어가기전에 언덕에 홀로 남아서 얼마전에 파쑈놈들의 기발이 펄럭이던 고지를 바라보았다. 지금 거기에는 장대도 없었다. 축축한 땅은 포탄에 얻어맞아 여기저기에 벌둥지처럼 파헤쳐지고 가시철조망들은 갈기갈기 흩어지고 곳곳에 사람들이 묻혀있었다. 와씰리는 처음으로 자기 련대의 힘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했다.

와씰리는 자기 엄페호에서 의사들을 만났다. 그는 문턱에 들어서면서 골로샤뽀브의 흥분된 목소리를 들었다.

《비적들이 까마귀처럼 달려들고있는데 난 아무데두 못가겠소. 그게 다요. 빌어먹을 병원은 무슨 병원, 그 병원때문에 련대도 동지들도 다 잃어버릴수 없단말이요. 난 못가겠소.》

까라바예브소좌는 와씰리를 호출하였다.

그는 혼자서 지도를 펴놓고 앉아있었다. 와씰리는 지도에서 푸른 수림지대며 실오리같은 도로와 하늘색 강줄기들을 보았다. 그밖에 지도에는 적아를 표식한 빨간색과 푸른색 부호들이 줄지어 배렬되여있는데 거기에는 같은 색갈의 화살표식들이 서로 맞서있었다.

(바로 저 사이에서 나는 벌써 석달째나 밤마다 기여다녔구나.) 하고 지도를 보면서 와씰리는 생각했다.

소좌가 머리를 끄덕이는게 그닥 반가운 기색은 아니였다. 그는 즉석에서 정찰병을 긴장시키는 말을 꺼냈다.

《와씰리, 나는 동무를 욕하지도 또 책망하지도 않는다는것을 옳게리해해주길 바라오. 맹목적으로 싸우지 말고 적을 잘 알아야 하오.

흔히 적을 더 잘 알아야 할 정황이 생기군하오.》
와씰리는 머리를 기웃하고 긍정하면서 속으로는 (시작부터 신중한 걸 보니 아마 어려운 임무가 제기된 모양이군.) 하고 흰겨보았다.
《자신이 좀 판단해보오. 1선전호에 있는 도이췰란드놈으로부터 적정을 충분히 탐지해낼수 있겠소?》 까라바예브가 계속했다. 《도이췰란드놈이 자기 련대의 번호도 대주고 련대장은 누구며 그가 언제 여기로 왔는가를 불었소. 그런데 놈들의 전망은 어떻소? 놈들이 뭘 준비하고있는가말이요? 놈들이 무슨 예비대를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고 있소? 그런데 1선전호에서 잡아온 〈혀〉는 그것을 모르고있다는것이요. 우리한테는 바로 이러한 자료들이 당장 필요되오. 머지 않아 공격이 곧 개시될것 같소.… 그러니 종심으로 뚫고들어가 거기에 있는 장교나 하다못해 참모부서기라도 잡아와야 하오. 문건이나 전화통을 많이 주무르는놈은 누구보다 많은 자료를 알고있는 법이요.》 까라바예브는 연필로 지도를 짚었다. 《바로 여기 씨마끼 마을에 놈들의 련대참모부가 있소. 마을은 전연에서 6키로메터나 떨어져있소. 밤시간에 거기에 갔다가 돌아올수 있는 거리요. 만일 시간이 부족하면 하루밤을 더 지체하시오. 수림속에서 위장을 하고 감시하면서 참모부의 배치상태를 연구하고 다음날 밤에 행동을 개시하는게 좋겠소. 기본임무는 정보를 많이 알수 있는 〈혀〉를 잡아오는것이요. 알만하오?》
《알겠습니다.》
《그럼 행동하시오. 동무에게 3일간의 여유를 주겠소.》 와씰리는 무슨 굉장한 임무라도 주리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임무를 놓고 걱정하기까지 했다. 그게 무슨 큰 임무인가? 보통일이 아닌가. 벌써 이와 비슷한 임무를 여러번 수행하지 않았는가. 그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임무도 있었다. 기발을 떼오는 일도 했다.
와씰리는 조에서 가장 믿음직한 대원들을 선발했다. 적후로 은밀히 침투할수 있는 곳을 찾아내고 어둠속에서 길을 헛갈리지 않도록 방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했다. 그리고 침투작전을 열번나마 시도했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밤에도 도저히 전선을 넘어설수가 없었다. 낮

에는 눈이 질적하게 녹아내리다가 밤이면 살짝 얼어붙어 눈우에서는 바삭바삭 깨지는 소리가 났다. 그래서 놈들은 수백메터밖에서도 정찰병들이 접근하는것을 알고 사격을 들이대여 자기들의 진지에 달라붙지 못하게 했다.

(어떻게 할것인가?) 와씰리는 깊은 사색에 모대기고있었다. 아침부터 그는 엄페호에서 나와 혼자서 수림사이의 공지로 오가며 임무를 어떻게 수행할것인가를 궁리해보았다. 오솔길은 적진쪽으로 뻗어간 얼어붙은 강쪽에 잇닿아있었다. 한번은 정찰병들이 강판으로 해서 적진으로 돌입하려고 시도했지만 허탕을 치고말았다. 도이췰란드놈들은 강기슭에 화점을 배치해놓았다. 사격장에서 사격하듯 비탈면에서 머리만 내밀어도 쏘아댔다.

와씰리는 기슭으로 해서 자기 후방으로 걸어갔다. 전연으로부터 얼마간 떨어진 곳에서 강을 건너보려고 했다. 그러나 푸석푸석 녹아빠진 얼음장이 뿌지직하고 깨여져나갔다. 그바람에 와씰리는 무릎까지 빠지고말았다. 엄페호로 돌아온 그는 뻬치까우에 젖은 발싸개들을 걸어놓았다.

그때 돌연히 생각이 떠올랐다. 얼음이 깨졌어도 적의 화점은 잠잠하지 않았는가.

와씰리는 맨발에 누구의 장화를 신고 반외투를 걸치고 다시 강가로 뛰여갔다. 두번이나 얼음우에 들어섰지만 그때마다 물에 빠지였다.

그리하여 와씰리는 얼음우에 엎디여 손으로 헤염치듯 기여보았다. 얼음이 깨지지 않았다! 강한복판에 기여가서 그는 좌우측으로 돌면서 강판에 진동을 주었다. 그런데 움씰움씰 하면서도 깨지지는 않았다.

와씰리는 엄페호로 돌아와서 자기의 마른 장화를 신고 1선전호와 잇닿아있는 강가로 나갔다. 거기서는 중년의 기관총수가 직일을 서고있었다.

《아바이, 저 강안에 있는 도이췰란드놈의 화점이 밤에는 사격하지 않습디까?》

《글쎄 닷새째나 입을 다물고있는데.》

《왜서요?》

《아마 놈들두 여러번 물참봉이 된것 같아. 얼음이 얇아서 자꾸 부서지니까. 그래서 필경 그 진지를 내버리고 간 모양이요.》

《강얼음이 얇다는것은 어떻게 압니까?》

《저기 얼음구멍이 보이오? 그건 내가 시험하느라구 돌멩이를 던져서 터진 구멍이요. 혹시 놈들이 밤에 여기로 달려들지 않겠나 해서 … 그러나 일이 될세라 달려들지 않았지.》

《곧추 서서 건너가게 되면 강판이 견디지 못하지요. 기여서는 갈수 있습니다. 내가 방금 시험해봤지요. 기여가면 어떻겠습니까?》

기관총수아바이는 웃었다.

《자, 보시오!》 아바이는 수류탄묶음을 가리켰다. 《앞으로 넘어만지면 몽땅 빠지구말게요. 빠지지 않은 사람은 기관총세례를 받을거구. 강판에서는 뛰지도 못하지. 자네가 말하듯 기여만 갈수 있을거요.》

아바이가 하는 말이 옳았다. 와씰리는 우리 정찰병들이 강판에서 발견되는 경우 그러한 정황에 대처할 각오가 되여있다는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혹시 도이췰란드놈들이 강기슭에 감시병들을 배치해놓았을수 있다.

어쨌든 거기로 나가야 한다. 이것은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출로이다. (도이췰란드놈들은 얼음우로 다닐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건너가는 경우를 연구해보자.) 하고 와씰리는 결심했다.

와씰리는 임무를 수행하러 떠나는 정찰병들에게 사관장으로부터 위장복을 두벌씩 받으라고 지시했다. 흰 위장복은 얼음우에서 기여갈 때 입고 얼룩위장복은 눈이 녹은 지대에서 리용하려는것이였다. 그리고 포로가 입을 위장복도 예비로 한벌 더 준비했다.

포로도 위장해야 하는것이다.

땅거미가 지자 정찰병들은 강기슭으로 나갔다. 조에는 일곱명이 선발되였다. 그중에서 《뚝쟁이》는 두명뿐이였다. 로가찐은 노상 말없이 조용한 사람이며 쁘로레뜨낀도 역시 이번에는 말이 없는 축에 속했다. 지난 사흘밤을 련이어 실패한것때문이라고들 했다.

강기슭에 이르러 그들은 어려운 일을 앞두고 늘 그러하듯이 앉아서 담배를 피웠다. 다시한번 얼음판을 시험해보았다. 저녁이 되여 얼음이 좀 두터워진것 같았다.

《중위동지, 이번 임무에 로가찐을 데리고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쁘로레뜨낀이 습관적으로 입을 열었다.

《어째서?》

《쇠뭉치같은 뚱보니 얼음이 당장 꺼지겠는데요.》

로가찐은 무뚝뚝하게 대꾸했다.

《어이 싸샤, 념려말게. 자네는 여하튼 빠지지 않을걸세. 말똥같은 거야 우에 떠오르기마련이니까.》

《잡담을 그만두시오!》 와씰리가 엄하게 꾸짖었다. 《호상간격은 5메터를 유지하시오. 가까이 바싹 붙지 말아야 합니다. 빠질수 있소. 어둠속에서 설정된 간격을 확정하고 곁사람을 인차 알아보자구 5메터 간격으로 매듭을 지은 이 노끈을 준비했소. 각자는 매듭을 쥐고 당기면서 곁사람에게 빨리 기라든가 혹은 멈추라고 신호해야겠습니다.》

정찰조는 적진을 향하여 떠나갔다. 경사가 가파로운 강기슭에 들어서니 우에서보다 더 캄캄해보였다. 와씰리는 (이것은 우리에게 유리하다. 파쑈놈들이 머저리가 아닌 이상 정신을 차리고 살펴야 한다. 얼음을 깨놓을수도 있으며 박격포를 쏠수도 있다. 신호줄에 걸리게 하거나 통졸임통을 널어놓아 소리가 나게 할수도 있는것이다.)라고 생각했다.

강판앞에는 무슨 컴컴한 물체가 보였다. 물론 그것은 화점이였다.

와씰리는 화점에서 20메터 떨어진 곳에 가 멈추어서서 귀를 강구고 그안에서 무슨 인적기가 나지 않는가를 살피였다. 그곳은 잠잠했다. 꼭대기에서는 기관총들이 중립지대에 대고 띠염띠염 짖어댔다. 와씰리는 수류탄을 꺼내들고 화점으로 슬금슬금 기여갔다. 오른쪽에서는 로가찐이 기여갔다. 멀리에서 문이 열려있는것이 보였다. 그것은 화점이 텅 비여있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러니 그안에는 놈들이 없다는것이다.

그들은 량쪽에서 동시에 다가갔다. 화점안을 살피였다. 바닥에는 밟아서 짓뭉개진 짚오래기와 담배꽁초며 탄피들이 지저분하게 널려있었다. 아무도 없는것이 틀림없었다.

와씰리는 기슭에서 꼭대기를 올려다보면서 《강에 들어서기만하면 다 빠져죽는다》는 기관총수의 말이 떠올랐다. 도이췰란드보초놈들에게 발견되면 영낙없이 물에 빠져죽을것이다. 사실 률렌꼬브대위는 박격포대대와 약속해두었다. 박격포는 지금 전투준비태세에 있으면서 위급한 순간에 화력으로 지원하게 되여있었다. 그러나 사격은 강가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붉은 신호탄이 오르기전에는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 박격포탄은 몇분 지나야 날아오게 된다. 가장 어려운 순간이 닥쳐오고있다.

정찰조가 도이췰란드놈들이 내버려둔 화점으로부터 200메터가량 기여나갔을 때 와씰리는 로가찐에게 손을 흔들어 강기슭의 숲속에서 나오라고 신호했다. 그 뒤를 따라 쁘로레뜨낀과 나머지 다섯명이 돌아나왔다. 와씰리는 마지막사람이 기슭에서 벗어져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끝내 통과하고야말았군 . 도이췰란드군의 참모부가 있는 촌락까지 4키로메터쯤 남았다. 거기서 《혀》를 골라잡자. 좋기는 장교놈을 생포해야 한다.) 라고 생각했다.

와씰리가 순간적으로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잊고 그만 팔굽을 얼음우에 대고 기여가자 뿌지직하고 소리가 났다. 차거운 물이 온몸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와씰리는 부서진 얼음모서리를 잡았다. 얼음은 다시금 떨어져나갔다. 그는 머리채 물속에 잠기였다. 물속에서 솟구쳐나온 그는 얼음우로 훌쩍 뛰여오르려고 했지만 여전히 얼음이 깨져나갔다. 흠뻑 젖은 옷때문에 와씰리는 자꾸 바닥에 가라앉았다. 그는 기슭에서 로가찐이 던진 혁띠를 잡고서야 겨우 기여오르게 되였다.

누군가는 자기의 내의를 벗어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고리와 발싸개를 벗어주었다. 와씰리는 마른것으로 갈아입었지만 조금도 온기를 느끼지 못했다. 그는 오한이 나서 부들부들 떨었다.

《이럴 때는 술을 마셔야 제격인데.》 로가찐이 말했다.

《이제 그걸 어디서 얻겠소?》 쁘로레뜨낀이 대꾸했다. 《동무들,

중위동지의 주위에 빙 둘러앉기요. 어디 알쿨이 없이도 덥혀보자구.》
모두들 위장복을 제끼고 덧저고리 단추를 벗기여 옆으로 벌린 다음 와씰리를 따스한 몸으로 감싸주었다. 항상 명랑한 쁘로레뜨낀이 인사의 말을 했다.
《중위동지, 입김으로 덥혀줍니다.》
와씰리는 대원들앞에서 부끄러워졌다. (일이 잘두 시작되는군. 물에 빠진 병아리신세가 되다니. 게다가 자동총은 강바닥에 내던지구.) 와씰리는 분이 치밀어올랐다.
《고맙소, 동무들, 그만하시오.》 와씰리는 대원들의 품속에서 빠져나왔다. 《고맙소, 나를 그렇게 온밤 앉아서 덥혀줄새는 없소. 떠나야 합니다.》
와씰리는 예비위장복을 두벌이나 껴입고 신호줄을 허리춤에 걸었다.
《떠납시다.》
씨마끼촌락은 길 좌우켠으로 길게 늘어져있었는데 지대가 낮은 곳에 들어앉아서 몹시 컴컴해보였다. 정찰병들은 남새밭쪽에서 돌입했다. 창고쪽으로 슬그머니 접근한 그들은 거기서 담장에 다가섰다. 와씰리는 담장밖을 살피면서 정황을 판단해보았다. 가까이에 보초놈들이 없는지? 옆집들에서는 잠을 자고있을가? 우리가 여기서 지나가는 도이췰란드놈을 덮치게 되면 증원대가 어느쪽에서 나타날수 있을가?
창문에 불이 켜져있는 집들이라고는 부근에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와씰리는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두명의 정찰병에게 담벽옆에 있는 통나무로 문을 버티여 놓으라고 명령했다. 길 맞은켠에 초가집이 한채 있었다. 그처럼 초라한 농가에 도이췰란드놈들이 거처하고 있을리 없었다. 매복장소로서는 적합한것 같았다. 이제는 거리에 《고급장교》가 나타나기만하면 된다. 기다리기로 했다. 집에서 나오는 놈을 잡는것은 위험하다. 그런 일은 대체로 조용히 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소동을 피워서는 안된다. 그래야 추격을 당하지 않고 유유히 강쪽으로 철수할수 있다.
《만일 한놈이 나타나면 나하구 로가찐이 맡기요.》 와씰리가 대원

들에게 소근거리였다. 《여러놈이 지나가면 그대로 통과시킵시다.》
 와씰리는 어떻게 하면 담장을 뛰여넘겠는가를 가늠해보았다. 그러나 그가 담장까지 겨우 접근하는데 우지끈 소리를 내는바람에 모두가 놀라서 쭈그리고앉았다. 어떻게 불의에 달려들수 있을가? 빌어먹을 담장이 소리를 내고있으니…
 와씰리는 네발로 짚고 엎디였다.
 《로가찐, 내 잔등에 올라서서 담장을 넘어뛰라구. 그러면 내가 동무뒤를 따라가겠소.》
 《중위동지, 제가 먼저 엎디겠습니다.》 쁘로레뜨낀이 제기했다.
 《만일 그 강도배가 중위동지의 뒤로 달려들게 되면 일을 다 망치구말텐데요. 저는 가볍습니다.》
 《명령대로 하시오. 지금은 롱담할 때가 아니요.》 와씰리가 성을 냈다. 쁘로레뜨낀은 죄송스러운듯 침묵을 지켰다.
 그들은 초조하게 기다렸다. 갑자기 발자국소리가 들려왔다. 보초교대가 지나갔다. 한놈은 하사관이고 두놈은 졸병이였다. 놈들은 코앞에서 지나가고있었다. 손을 내밀어도 잡힐수 있었다. 세놈이여서 어차피 조용히 해낼수 없다. 도이췰란드놈들이 거리 한쪽끝에 가서 보초를 교대하고 돌아오고있었다. 또다시 곁을 지나갔다.
 (이러다간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을가?) 와씰리는 조바심이 났다. (간난신고를 겪으며 이곳까지 뚫고왔는데 한놈도 잡을수 없단말인가? 당장 밝을텐데…)
 《보초병을 잡읍시다.》 와씰리는 단호하게 《다른놈을 고를수 없소. 길끝에 가서 보초소를 찾아내여 현지에서 모든것을 최종적으로 타산해봅시다.》 그들은 개들이 알아차릴가봐 남새밭으로 해서 담장쪽으로 조심히 걸어갔다. 뜻밖에 앞에 있는 집에서 삐거덕소리가 나더니 문이 활짝 열리였다. 전지불이 땅바닥을 비치다가 사라지고 문이 닫기였다. 어떤 도이췰란드놈이 집에서 나와 길을 따라 정찰병들쪽으로 곧바로 걸어오고있었다.
 와씰리는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다른 사람은 없었다. 네발로 땅에 엎디여 로가찐을 보고 뛰여넘으라고 신호했다.
 로가찐은 와씰리의 잔등을 밟고 담장을 훌쩍 뛰여넘으면서 지나

가는놈을 덮치였다. 그들은 넘어지면서 땅에 딩굴었다. 와씰리도 담장을 넘어뛰여 쏜살같이 곁루마당에 날아들었다.

로가찐은 도이췰란드놈의 목을 꽉 눌러서 소리치지 못하게 했다. 와씰리는 재빨리 그놈의 입에 장갑을 틀어막고 두개의 무슨 가방과 은줄이 달린 모자를 앗아냈다. 《옳지, 장교놈이군.》

정찰병들은 포로를 담장너머로 끌고가서 손목을 혁띠로 묶었다. 와씰리는 정찰병들의 숙련된 동작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괴짜들이군. 그들은 귀신도 마귀도 무서워하지 않지만 얼마나 자기 신념을 믿는가? 《혀》를 잡으러 떠나면서도 노끈이나 입을 틀어막을 헝겊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지금 도이췰란드장교의 아가리에 내 장갑을 틀어막고 혁띠로 손목을 묶어놓은것이다. 내가 얼음밑에 들어갔을 때에도 나한테 혁띠를 던지지 않았는가. 이처럼 노끈은 절실히 필요했다. 그런데 내가 노끈을 가지고가라고 명령했던가?)

와씰리는 쁘로레뜨낀에게 노끈을 가져왔는가고 물었다. 그는 천진란만한 시선으로 와씰리를 바라보면서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중위동지, 제가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일없습니다. 걱정마십시오. 아마 가지고온 사람이 있을겁니다.》

와씰리는 빼앗은 가방의 뚜껑을 열었다. 그안에는 표면이 반들반들한 네모반듯한 나무상자가 있었는데 그 무슨 그림판을 련상시켰다. 상자의 고리를 제끼고 뚜껑을 열었다. 무엇이든지 다 있으리라고 생각했지만 당장 필요되는것은 없었다. 《에끼, 이런 변이라구야! 다른 가방에도 이런것뿐이겠는가?》 와씰리는 다른 가방도 열어보았지만 역시 다른것이 없었다.

참모부의 문건과 지도는 하나도 없다. 안쪽에 비로도천을 댄 우아하게 생긴 가방에는 포도주가 한조 그쯘히 들어있었다. 특이한 모양을 가진 매 병들은 라크칠을 한 띠로 고정되여있었다. (아마 도이췰란드놈이 어디로 나들이를 가던 모양이군. 우리가 면바로 붙잡았군. 그렇지 않으면 빌어먹을놈이 혼자서 다 마셔버렸을테니까.) 와씰리는 속으로 웃었다.

정찰병들은 포로를 마을에서 끌고나오면서 이상이 없는가 주의깊

게 살피였다. 이제는 조용히 철수하는 일만이 남았다.

그러나 《혀》는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꼼짝하지 않았다. 그놈은 입이 막히고 손목이 묶여서인지 제발로 걸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놈을 일떠세워 잔등을 밀치였지만 한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 들고 가려고 해도 퍼그나 무거웠다. 게다가 쳐들기만 하면 발버둥질을 했다. 정찰병들은 더는 참지 못했다. 로가찐은 파쑈놈이 무릎을 꿇게 하고 불이 번쩍나게 후려갈겼다. 그놈은 죽은것처럼 땅우에 뻐드러졌다. 모두들 달려와서 포로가 꼼짝 못하고 반듯이 누워있는것을 보고 못박힌듯 굳어지고말았다. 죽었던것이다.

《동무, 정신있소?》 와씰리가 로가찐에게 달려들었다.

《저는 슬쩍 다쳤는데요. 교양을 좀 줘보자구 했습니다. 중위동지.》 로가찐이 변명했다.

정찰병들은 다시 놈을 일으켜세웠다. 그놈은 죽지 않았다. 겁이 나서 로가찐을 보며 눈알을 데굴데굴 굴리였다. 로가찐이 가까이 다가서면 슬쩍 피해 달아나군했다. 이제는 파쑈놈이 어찌나 꼬리가 빳빳하게 뛰는지 미처 뒤따라가지 못할 지경이였다.

드디여 정찰병들은 강기슭에 당도했다. (이제는 어떻게 할가? 포로는 혼자서 가지 못하겠는데, 그렇다구 그놈곁에서 같이 기여갈수도 없지 않는가. 그놈이 발버둥질하면 얼음판이 꺼지여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빠질수 있을것이다.) 하고 와씰리는 생각했다.

《그 포로놈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놈을 썰매에 태우겠습니다.》 쁘로레뜨낀이 제기해나섰다.

《무슨 썰매말이요?》

《자, 보십시오.…》

쁘로레뜨낀은 숲속에서 길다란 나무장대를 두개 꺾어가지고 와서 소리쳤다.

《동무들, 혁띠를 좀 주시오.》

모두가 그에게 혁띠를 풀어주었다. 쁘로레뜨낀은 포로에게 흰옷을 입히여 장대에 눕혀놓고 혁띠로 그놈을 동여맸다. 포로놈은 옴짝달싹 못하게 되였다.

한사람씩 얼음우로 기여갔다. 포로는 쁘로레뜨낀이 맡았다. 붕대

로 길다랗게 끈을 만들어 장대에 비끄러매고 그놈을 썰매와 함께 끌어당기였다.

앞에서 낯익은 기관총수가 소리쳤다.

《중위동지가 아니요?》

《예, 우리 사람들이요.》

《얼음이 일없소? 깨지지 않겠소?》

《일없소.》

《일없다구요? 그새 강을 한번도 살피지 못해서 이제 보겠소. 뭘 끌고 오우?》

《큼직한걸 잡아왔소.》

아침 여섯시가 되였다. 참모부에서는 아직 잠을 자고있었다. 그러나 상관은 무슨 좋은 소식이 없겠는가고 기다릴수 있다.

와씰리는 포로를 꼴로꼴리쩨브한테로 끌고갔다. 포도주가 든 가방은 아직 넘겨주지 않기로 했다. 그것은 문건도 아니고 또 지휘관의 결심에 영향을 주는 물건도 아니였다.

참모부에서 돌아온 와씰리는 정찰병들을 식탁앞에 불러놓고 음모가들처럼 가방 하나를 열었다.

《어이구, 희한해라.》 모두들 감탄했다.

가방안에 댄 진주색 비로도가 불빛에 뽀얗게 반사되였다. 그안에서는 목이 길다랗고 배가 불룩한 병과 또 목은 짧으면서도 허리가 잘룩하게 들어간 병 그리고 컵처럼 생긴 병이며 갖가지 모양의 병들이 번쩍거렸다. 정교하게 금박으로 글을 쓴 상품들이 우아하게 빛을 뿌렸다.

정찰병들이 어느새 고뿌를 가져다놓고 마개를 뗐다.

《백그람씩만 하시오.》 와씰리가 일러두었다.

《네, 그이상 더 마시면 소대에 다 차례지지 않습니다.》 진귀한 포도주를 맛보지 않고서는 견딜수 없이 된 쁘로레뜨낀이 마치 자신은 무관심한것처럼 스스럼없이 대꾸했다.

《프랑스제요.》 쥬크가 상표를 보고 확인했다.

《다른 가방은 련대장에게 선사합시다. 그이한테도 상관이 오군하는데 례식을 차리게 해야지요.》 사관장이 제때에 제기했다.

《그렇게 하는게 좋겠소.》 보그단이 지지해나서면서 《장령동지, 프랑스 포도주를 맛보십시오. 우리 훌륭한 정찰병들이 저에게 가져온 전리품입니다.》 하고 상관을 접대하는 까라바예브를 상상했다.

《한개 가방은 련대장에게 선사합시다.》 와씰리가 동의했다.

한병은 진한 홍포도주이고 다른 병은 먹처럼 검은 흑포도주였다. 그리고 어떤 병들은 오렌지색과 이른봄에 갓 돋아난 잔디색을 띠였다. 정찰병들은 고뿌를 입에 대고 꿀꺽꿀꺽 들이키고나서 이마를 찌프리였다.

《참 달콤하구만.》 골로샤뽀브가 내뱉았다.

《그런데 도수가 좀 약하군.》 로가찐이 유감인듯 말했다.

쥬크가 마시는 법을 설명해주었다.

《이렇게 견본으로 그쯘하게 수집된 포도주를 마셔본 사람이 있소? 매 병에는 특유한 자기 향미가 들어있으니 어서 덤비지 말구 그윽한 향기를 코끝으로 맡아가면서, 또 혀끝으로 진맛을 보면서 천천히 마셔야 한단말이요.》

보그단이 히죽이 웃었다.

《난 그런 향미를 맡을줄 모르오. 그래서 우리 식의 향미를 좀 맡아볼가 하는데.》 보그단은 물통마개를 빼고 고뿌에 버젓이 술을 부었다. 그것을 단번에 마시고는 옷소매로 입을 문지르고 만족스럽게 웃음을 지었다. 《이, 이게 진짜 향미요. 이게 우리 식의 향미란말이요. 온몸이 얼근해지는군.》

정찰병들은 웃으면서 프랑스제를 마시였다.

낮에 와씰리는 련대장 까라바예브에게 포도주가방을 가져다주었다. 련대장은 그에 사의를 표하고 마개를 따지 않은채 그대로 글리예브에게 넘겨주었다.

《보이지 않게 잘 건사해두시오. 갑자기 귀한 손님들이 오게 되면 가져오시오.》 하고는 와씰리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혹시 전승의 그날까지 보관할수 있지 않겠소? 그때 가서 동무와 함께 승리를 축하하여 마실수도 있을거요.》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우리는 더 좋은걸 얻어오겠습니다.》 와씰리는 확신성있게 약속했다.

×　　　×

와씰리는 고요히 흐르는 강기슭에 앉아 물속에서 노는 버들고기새끼들을 바라보기도 하며 숲속에서 뭇새들이 지절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순간 전쟁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것들의 세계가 부러워났다. 수풀속에서 맑고 신선한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은 수풀기슭에 만들어놓은 부엌에서 풍기는 밥타는 냄새를 어디론가 쫓아버리였다. 이곳에 나온 와씰리는 《군사번역사전》에서 모를 단어들을 발취하여 외워보려고 했다. 률렌꼬브대위가 그에게 사전을 주었던것이다. 그는 도이췰란드말을 자유롭게 번지였다. 와씰리는 학교에서 도이췰란드어를 경솔하게 대하던 일을 생각하면서 자주 후회하군했다.

그때 배워준 단어라도 다 기억했으면 지금은 내가 도이췰란드놈들이 자기 전호에서 뭐라고 지껄여대는지 다 알아들을수 있었을것이며 포로병들과도 마음대로 말할수 있지 않았겠는가.

와씰리는 직심스레 공부했다. 사전은 물론 도이췰란드신문도 읽었으며 직접 번역문을 만들어보기도 했다.

련대통신장인 모레이꼬대위가 다가왔다. 그는 키가 후리후리하고 균형이 잡힌데다가 코날은 매끈하고 시선은 애틋해보였다. 와씰리에게는 모레이꼬가 자기의 아름다운 외모에 점직해하면서 용감한 군인으로 돋보이고싶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인지 그는 말할 때에는 어려워하는 기색도 없이 자주 《네에미》라는 상말을 섞어했지만 오히려 그것은 꾸르쟈꼬브앞에서 점잖은 티를 내던 때보다 더 어색해보였다.

《정찰성과를 축하하오!》

《통신병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단어를 외우오?》

《그렇게 해야 하니까.》

《아깝지 않소?》

《뭘 말입니까?》

《시간이말이요. 죽게 되면 모든게 수포로 돌아갈터인데 2제대로 갔더라면 더 좋았을걸 그랬소. 거기에는 재정관리장옆에 녀자회계원 자리가 생겼다구 하는데 거기로 가서 일해보지 않겠소?》
모욕적으로 경솔하게 내던진 모레이꼬의 죽음에 대한 말은 와씰리의 비위를 몹시 거슬리게 했다. 와씰리는 이 등신같은 대위에게 한대 먹이고싶었지만 꾹 참고말았다.
《그러니까 녀성의 일자리를 차지하고픈 마음이 없단말이지?》
모레이꼬가 시끄럽게 굴었다. 《그럼 꼼꼼히 생각해서 직접 골라보자구. 참모장이 동무를 부르오.》
모레이꼬와 더 말하고싶지 않았지만 심심풀이로 그저 침묵을 지킬수가 없어서 이렇게 물었다.
《대위동지는 또 직일을 섭니까?》
《팔자가 그러니 할수 없지. 화학참모에다 기사근무장에다 그리구 내가 부끄럽게도 참모부의 종신직일관이란말이요. 내가 화학참모 고글리제의 역을 놀았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소?》 모레이꼬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계속했다. 《어제 화학참모에게 련대 부참모장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구 말해줬더니 글쎄 그 가련한 친구가 그 자리에서 어안이 벙벙해서 〈왜서? 내 일두 할게 많은데.〉하질 않겠소. 그래서 등용했다니까, 그건 자넬 잠을 못자게 이리저리 굴리겠다는거나 같다고 말했더니 그가 어찌나 성이 났던지 하마트면 싸움을 다 할번했소. 지금은 나하구 아예 말도 하지 않거든. 말하자면 우습기 짝이 없지. 자, 가기요. 정찰병, 꼴로꼴리쩨브가 기다리는데…》
꼴로꼴리쩨브는 차를 마시고있었다. 이것은 그가 한가로운 시간에 제일 즐기는 일이였다. 컴컴해진 자그마한 싸모와르며 고불고불한 무늬가 난 묵직한 은빛차관이며 금도금을 한 차숟가락은 참모부의 본토배기들에게는 잘 알려져있었다. 그러나 참모장이 그렇게 차를 마시고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있는지는 누구도 모르고있었다.
꼴로꼴리쩨브의 마음속에서 그처럼 소중한 싸모와르와 차관을 내놓고 그의 영원한 전선길동무로서는 니켈도금을 한 담배마는 기계였다. 그는 짬이 있으면 직접 원통권연지에 담배를 채워넣군하였다. 권연은 공장에서 만든것처럼 단단하게 말아졌다.

꼴로꼴리쩨브는 1920년대와 1930년대의 자기의 군관경력을 부끄러워하며 침묵을 지키였다.

그는 제1차세계대전 초기에 장교로 되였다. 그는 똠쓰크종합대학에서 나와 제정로씨야군대의 소위양성소에 들어갔다. 그후 서부전선에서 두개의 《게오르기》훈장을 받고 륙군중위로 승급했다. 혁명후에는 붉은군대에 들어왔다. 그러나 공민전쟁시기에 특별한 열정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 사실은 평정서에 올라있었으며 군무생활도 씨원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예비역으로 제대되여 전문학교에서 수학교원을 하게 되였다. 그는 군인의 직업에 대하여 벌써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 그런데 그를 다시금 군대에 초모하여 대대참모장으로 임명했을 때는 속이 타서 어쩔줄 몰라했다. 이것은 1939년도에 핀란드전투를 앞두고 있은 일이였다.

꼴로꼴리쩨브는 만네르헤임전선돌파전투에 참가하여 붉은별훈장과 소좌의 군사칭호를 받았다. 그때로부터 지난날의 부족점을 없애려는듯 군무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였다.

꼴로꼴리쩨브소좌는 자신의 가치를 잘 알고있는 인간의 침착성과 실무적수완을 겸비하고있었다. 그는 자기의 참모들을 인내성있게 배워주면서 처음에는 문건을 몇번씩 고쳐만들게 하고 지도도 새로 완성하게 했던것이다. 그후부터는 조용히 차를 마시면서 문건을 보지 않고 수표해주었다. 그는 이제는 참모들이 보고에서 자료를 놓치지 않고 제대로 종합해나간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꼴로꼴리쩨브는 자기의 참모들을 때로는 욕하기도 하고 때로는 춰주기도 했다. 그는 이것이 처음에는 좀 쓰기는 하지만 후에 가면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기때문에 불가피한 일로 여겼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그런식으로 가르쳐주었다.

꼴로꼴리쩨브는 와씰리도 례외로 하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의 군무상 의무감으로써만 아니라 내심적인 열정에서 나온것이였다. 그는 와씰리를 통하여 자기의 청춘시절을 되새겨보았다. 그자신이 도이췰란드전선에서 그처럼 젊은 혈기에 쉬임없이 싸워나갔던것이다. 단둘이 말할 때에는 와씰리를 《귀여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부칭과 이름을 꼭 함께 부르군했다.

《앉으시오. 와씰리 뻬뜨로위치, 차를 마시지 않겠소?》
《고맙습니다. 소좌동지, 저는 벌써 먹었습니다.》
《차는 먹는게 아니요. 귀여운 사람…》
와씰리는 육중하게 생긴 차관을 보면서 자기도 그 차관처럼 그렇게 듬직하게 앉아서 천천히 차를 마시고싶었다.
《난 오래전부터 동무의 아버지가 제정시대 군대에 복무하지 않았는가를 물어보자구 했소.》
《아닙니다.》하고 대답하면서 와씰리는 저도 모르게 호기심이 났다.
《소좌동지는 왜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합니까?》
《동무한테는 어쩐지 군관다운 기질이 없는것 같소. 가정세태적인 인테리겐챠가 아닌지, 동무는 물론 인테리가정에서 태여났겠지요?》
끌로끌리쩨브에게는 《인테리겐챠》라는 말이 매우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다. 그는 웬일인지 《겐》자를 길게 끌면서 발음했다.
《저의 아버지는 건설기사였습니다. 1941년도에 모스크바부근에서 전사했습니다.》
《귀여운 사람이 내게 말해주던 일이 생각나오.… 그럼 본론에 들어갑시다. 내가 동무를 부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매개 병사는 자기의 행동을 알아야 한다〉고 한 쑤워로브의 유언을 실현하자구 해서였소. 와씰리 뻬뜨로위치, 나는 이 말을 중위로 있을 때만해도 수백번도나마 들어왔지만 그 말의 참뜻을 깨닫게 된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소. 그건 바로 핀란드전선에서였소. 알고보니 기본이 병사가 어디서 우회하고 포위하는것과 같은 무슨 전술적행동을 아는데 있는것도 아니였소. 그렇다구 물론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는것은 아니요.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것은 쑤워로브가 보다 폭넓게 사색했다는것이요. 말하자면 병사는 무슨 일이든 보다 훌륭하게 량심적으로 비상한 열의를 발휘하여 해내야 하오. 그러자면 병사는 제기되는 임무의 내용과 필요성을 설명해주게 되면 자기의 두뇌와 자기의 심장으로 완전히 파악해야 한다는것이요.
귀여운 사람, 쑤워로브명장의 말뜻이 바로 여기에 있소. 우리 군대에서 그 사업은 정치위원들이 하고있소. 바로 그들이 먼저 자기의

행동을 똑바로 알도록 전사들을 도와주고 나아가서는 우리들모두를 도와주고있는것이요.》

와씰리는 참모장과의 이러한 담화를 즐겨했다.

상대자에 대한 그의 신뢰와 류다른 존경심은 와씰리를 못내 기쁘게 했다. 그러나 와씰리는 그가 늘 모든 일을 그처럼 기분좋게 대하는것이 아니지만 서론에는 반드시 실무적인 부분이 따른다는것을 알고있었다.

《동무는 요즘 〈쁘라우다〉를 읽어봤소?》 꼴로꼴리쩨브가 뜻밖에 묻는것이였다.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임무를 수행하고 그만 잠을 자다나니…》

《변명하지 마시오. 귀여운 사람, 동무의 형편을 잘 알고있소. 이게 신문이요. 여길 읽어보시오.》 꼴로꼴리쩨브는 1942년도 공중전에 대한 《쏘련통신사》의 보도를 가리켜주었다.

와씰리는 주의깊게 읽어내려갔다.

《초여름에 도이췰란드사령부는 남부전선구역에 수많은 보병과 수천대의 땅크와 비행기를 들이밀었다. 그들은 프랑스와 벨지끄,네데를란드에 주둔하고있는 병력을 몽땅 끌어모은것이였다. 최근 두달동안에만도 거기로부터 쏘도전선에 22개의 사단이 투입되였다. 이딸리아, 로므니아, 마쟈르, 슬로벤스꼬에서 히틀러는 북쪽의 핀란드군대를 내놓고라도 70여개의 사단과 려단을 동원하여 쏘도전선에 내밀었다.》

신문들에는 그해 여름철에 워로쉴로브그라드, 노보체르까쓰크, 로스또브, 크라스노다르쓰크공격작전이 가뭇없이 사라졌다는 사실도 소개되였다. 그다음 통신사의 종합보도에서는 《쓰딸린그라드》라는 말이 눈에 띄였다. 오늘 보도에서는 바로 그곳이 현재 가장 긴장한 곳이라고 강조하였다. 혹시 1941년도의 모스크바부근에서와 같은 정황일수도 있다. 꼴로꼴리쩨브도 그러한 결론에 도달했다.

《다 읽었소? 대단히 좋소. 모스크바격전은 벌써 력사로 되였소. 도이췰란드놈들은 모스크바를 정면으로 타격해서는 장악하지 못한다는것을 알고있소. 놈들은 볼가강쪽으로 진출하여 우리를 배후에서

절반으로 갈라놓자구 기도하고있소. 만일 적들이 쓰딸린그라드를 점령한다면… 그렇지만 그걸 허용할수 없소.》 꼴로꼴리쩨브는 와씰리를 심각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동무는 다시금 맡은 일을 해야 하오. 우리도 다른 부대들과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 련대를 반대하여 전선을 장악하고있는 적을 잘 알고 놈들이 여기서부터 자기의 력량을 철수하여 남부전선에 투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오. 그러자면 와씰리 뻬뜨로위치, 아마 매일과 같이 더 좋기는 매일 밤 적의 집단을 확인해야 될것 같소. 당장 그 필요성을 아는게 중요하오. 볼가강에서 조국의 운명이 결정되오.》

참모장은 와씰리가 영화에서만 보아오던 제정시대 장교처럼 차렷자세로 머리를 쳐들고 숭엄하게 그 말을 했다. 그리하여 본능적으로 영화의 주인공을 흉내내듯 와씰리도 힘있게 일어서서 가슴을 쭉 펴고 이전에 한번도 해본적이 없던 경의를 표하면서 참모장에게 박력있게 대답했다.

《저는 있는 힘을 다하여 꼭 해내겠습니다.》

《훌륭하오.》 꼴로꼴리쩨브는 말하면서 악수를 청했다. 땅거미가 지자 엄페호에서 나온 와씰리는 아직 해빛이 비치고있는 푸른 산언덕을 바라보면서 비로소 영화화면이 아닌 엄연한 현실적감정에 휩싸이게 되였다.

자기 엄페부앞에서 와씰리는 벌써 꼴로꼴리쩨브가 불어넣은 환상에서 벗어나 그의 말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따져보았다. (령감이 제멋대로 말한다. 적을 과대평가하고있다. 만일 도이췰란드놈들이 볼가강을 도하하더라도 우리가 놈들을 내쫓는데야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러나 어쨌든 정세는 나쁘다. 특히 우리 형제들에게 나쁘다. 그러니 모두가 방어태세를 갖추게 하고 정찰병들을 당장 내보낼것이다.)

그 이튿날과 밤에 와씰리는 다시한번 적방어선을 살피면서 자기 감시병들에게 임무를 주고는 단번에 세개의 공격대상물을 료해해나갔다. 이때 까자꼬브가 와씰리를 도와주었다. 보병중대를 지휘하면서 까자꼬브는 여전히 《혀》를 잡는데 흥미를 가지고있었다.

《내가 뭘 고안해냈는가를 보오.》 까자꼬브는 와씰리를 전호돌출부

로 데리고갔다. 《자, 보시오.》
와씰리는 땅에 박아놓은 굵은 말뚝을 보았다. 거기에는 도이칠란드놈들의 파란 전화케블선의 끈이 매여져있었다. 그것은 중립지대로 가서 숲속에서 사라졌다.
《봤소? 도이칠란드놈들에게 버릇을 굳혀주자구 그러오.》
《모르겠는데요. 무슨 버릇을 굳혀주자는건지?》
《놈들이 소동을 피우게말이요. 우리는 지난밤에 다른쪽 끝을 철조망에 비끄러매놓았소. 거기에는 가시줄을 자를 때 동무들을 잡자구 빈 깡통두 잔뜩 매달아놓았소. 그래서 나는 도이칠란드놈들을 훈련시키자구 하오. 저녁이 되면 오라구. 다 보여주겠으니까.》
와씰리는 가겠다고 약속하고 꾸르쟈꼬브의 중대로 가서 자기 감시병들을 검열했다.
《자, 왜들 기뻐서 그러오. 무슨 새 소식이 없소?》 와씰리는 쁘로레뜨낀에게 물었다.
《다 정상입니다.… 중위동지, 우리앞에는 종전사단이 그대로 있습니다.》 쁘로레뜨낀이 씩씩하게 대답했다.
《무슨 증거라도 있소?》
《약국에서 약을 내듯이 모든것이 명백합니다.》 쁘로레뜨낀이 확신있게 계속했다. 《쌍안경으로 내다보십시오. 저기 앞기슭에서 뒤로 뒤키로 들어가있는 길쭉한 골짜기에 재빛말을 방목하고있는것이 보입니까?》
와씰리는 쌍안경렌즈를 돌리면서 멀리에 있는 재빛말에 대고 정확히 초점을 맞추었다. 말이 풀을 뜯어먹고있는것이 틀림없었다.
《중위동지, 그 말은 밤이면 1선전호로 먹을걸 날라가는데 만일 사단이 철수하게 되면 말은 내버리지 않구 짐을 싣고 갈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말이 있으니 사단도 있다는거지요.》
쁘로레뜨낀이 말하고있는동안 로가찐은 비양조로 코웃음을 쳤다.
《이완, 자넨 말할게 없나?》
《저 사람은 수다쟁입니다.》 로가찐이 한숨을 내쉬였다.

《자넨 도이췰란드놈에 대해 말하라구.》쁘로레뜨낀이 거칠게 대꾸했다.
《다 본지도 오래네.》 로가찐이 머리를 저었다.《말두 쌍안경이 없이도 제꺽 확정했네. 얼마나 눈에 잘 띄는가말이야.》
쁘로레뜨낀은 분이 치밀어올랐다. 정신을 가다듬고 반격을 가하려고 했지만 좀처럼 기회를 얻지 못하여 그저 소란스럽게 한숨을 내쉬고는 침묵을 지켰다.
《혹시 도이췰란드놈들이 우리를 속여넘기자구 그 말을 특별히 남겨둔게 아닐가요?》 로가찐은 가만있지 않았다.
쁘로레뜨낀은 종시 자기의 생각을 가다듬었다.
《정찰병은 나타난 정황을 여러가지 징조로 판단해야 해. 그런데 자네는 계속 제힘만 믿구 도이췰란드놈을 거꾸로 자기 전호로 끌어들여서 잡자구 하는데 자네 정찰이란게 그게 단가, 머리를 써야 해.》
《동감이네.》 로가찐은 태연하게 대꾸했다.
《판단할줄 알아야 돼.》쁘로레뜨낀이 의기양양해졌다.
《자네 판단이란게 뭐야?》 로가찐이 불쑥 질문을 들이댔다.《자네가 방금 말하지 않았어?》
《뭘말이야?》
《생각나지 않아? 됐어. 내가 대주지. 〈여러가지 징조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한걸말이야. 자네 그 여러가지 증거라는게 도대체 어디 있어? 겨우 말새끼 하나 가지구 그것마저도 수말이 아닌가.》
《자, 그만하시오.》 와씰리가 화해시켰다. 《동무들, 잘 감시하시오. 오후에 동무들의 교대를 보내주겠소.》
와씰리는 교통호로 해서 후방으로 갔다. 골짜기로 내려가다가 꾸르쟈꼬브를 만났다.
《안녕하오!》 꾸르쟈꼬브가 친절히 말했다. 《어디로 가는 길이요?》
《집으로 가지요.》
《나한테 가서 점심이나 같이 먹기요.》
꾸르쟈꼬브는 취하여있었다. 그래서 와씰리는 그한테 가고픈 생각이 없었다. 와씰리가 거절하는바람에 꾸르쟈꼬브는 무안해졌다. 그

래서인지 습관적으로 자기의 이전 소대장을 욕하기까지 했다.
(일없어. 다음번에 찾아오지.) 하고 와씰리는 생각했다.
저녁에 와씰리는 까자끄브가 고안해낸것을 보려고 끄노쁠레브와 함께 그한테로 갔다.
까자끄브는 그들을 낮에 보여주었던 말뚝이 있는데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오.》 그리고는 케블선을 잡고 힘껏 당기였다.
그러자 도이췰란드놈들의 기관총이 사방에서 짖어대기 시작했다. 그것은 기관총수들이 중립지대를 빗질하는 일상적인 사격이나 대응사격이 아니였다. 기관총들은 미친듯이 불을 토했다. 적이 나타만 나면 그런식으로 사격한다는것이다. 《좀 앉아서 담배나 피우기요.》 까자끄브가 담배를 권했다. 《일이 잘되오? 동무들은 잘 있소?》
와씰리의 머리속에는 문득 모험적인 생각이 떠올랐다.
《까자끄브동무, 당신의 수법을 써먹을수 있습니다.》
《물론 쓸수 있소. 그래서 꾸며진게니까.》
《당장 오늘 써먹어야겠습니다. 대낮에 도이췰란드놈들이 왜서 철조망에 달아맨 깡통들이 소리났겠는가 의심하여 검열하다가 케블선을 발견하게 되면 잘라버리겠는데 그때엔 끝장이 아닙니까. 오늘 날 밝기전에 행동해야 합니다. 셋이서 할수 있겠습니까?》
《할테면 해보기요.》 우정 무관심한체 하면서 까자끄브는 자기의 련락병에게 철조망절단가위를 가져오라고 했다.
두명의 군관과 중사—이렇게 셋이서 전호에 앉아 케블선을 계속 당기였다. 그들의 심장속에서는 용맹성이 끓어넘치였다. 적들은 또다시 자기의 장애물에 대고 연방 기관총사격을 했다.
밤 세시가 되여서야 비로소 도이췰란드놈들은 자기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놈들은 케블선을 잡아당기여도 거의나 반응이 없었다.
《자, 때가 됐소.》 까자끄브가 말했다.
《까라바예브가 알면 욕하지 않겠소?》 와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와서 동요하기 시작했다. 《당신은 중대장이 아니요.》

《물론 욕할것이요.》 까자끄브는 쾌히 인정했다. 그리고는 인차 자기의 한 소대장을 불러 명령했다. 《내대신 여기에 남아있으시오. 중대의 모든 동무들에게 알려서 나하구 중위와 중사가 중립구역에 나가 일을 좀 한다구말이요. 그러니 우리한테 사격하지 말며 필요한 경우 량익측에 대고 하라고 하시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갑시다.》
그들은 흉장앞으로 기여올라 허리를 구부리고 케블선을 따라 뛰여갔다. 후미진 곳에 이르러 까자끄브가 엎디면서 소근거리였다.
《한번 더 소리내기요.》
케블선을 잡아당기였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느릿느릿한 점발로 두어번 퉁탕거리였다. 그들은 앞으로 계속 기여나갔다.
드디여 철조망에 다가섰다. 끄노쁠레브가 드러누웠다. 그옆에 와씰리가 누워서 조심스레 두손으로 가시줄을 잡아주었다. 끄노쁠레브가 가위로 제꺽 잘라버렸다. 와씰리는 한끝을 까자끄브에게 넘겨주었다. 까자끄브는 가시줄을 땅에 조심스레 내리워 깡통소리가 전혀 나지 않게 했다.
어느새 통로가 준비되였다. 까자끄브가 머리를 끄덕이였다.
와씰리와 함께 그들은 전호쪽으로 기여갔다. 끄노쁠레브는 앞에서 기여나왔다. 와씰리는 그를 멈춰세우고 뒤에서 엄호하면서 통로를 넓히라고 했다.
까자끄브가 전호에 먼저 내려갔다. 그뒤를 와씰리가 따랐다. 그들은 귀를 바싹 강구었다. 사위는 쥐죽은듯 조용하였다.
까자끄브는 가까운 굽인돌이에서 앞을 내다보다가 후닥닥 물러섰다. 그쪽으로 엄지손가락을 내보이고는 지시손가락을 쳐들었다. 와씰리는 거기에 한놈이 있다는것을 알아차렸다. 까자끄브는 가슴을 가리키면서 와씰리에게 자동총을 보여주고 전호를 따라오라고 손짓하였다. 와씰리는 그가 직접 포로를 잡으려 하고 자기는 엄호해야 하는것으로 짐작했다.
까자끄브는 허리를 구부리고 무릎을 쭉 펴고 서있었다. 그의 자세는 도약대에서 방금 뛰여내릴 차비를 하는 수영선수를 방불케 했다. 그

는 안정성을 가늠하는듯했지만 사실에 있어서 결정적인 도약을 위하여 힘을 모으면서 일분간 지체했다가 마침내 앞으로 내뻗었다. 와씰리는 그 뒤에 있었다. 까자꼬브는 손으로 기관총수의 목을 불시에 틀어잡고 곧추 쳐들었다. 정찰병들은 그 수법을 《매달기》수법이라고 불렀다. 도이췰란드놈은 목구멍을 갈그랑거리며 다리를 휘저었다. 까자꼬브는 어느새 그놈에게 칼을 내보이며 소리치지 못하게 했다. 그놈은 입을 다물었다. 와씰리는 포로놈의 입에 헝겊을 틀어막고 손을 동여맸다.

모든 일은 재빨리 조용히 끝났다.

한시간이 지나서 그들은 둘이서 중좌칭호를 받은지 오래되지 않은 까라바예브련대장의 엄폐부에서 차렷자세로 서있었다.

《이것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요.》 까라바예브는 분개했다. 《지휘관이 둘이나 무슨 코흘리개 졸병놈을 잡으러 갔소. 그것도 중대장과 정찰소대장이말이요. 와씰리중위는 그래도 자기 일이니까 그렇다치고 까자꼬브동무는 정찰과는 무슨 인연이 있소?》

《저두 이전에 정찰하러 다니지 않았습니까.》 까자꼬브가 풀기없이 변명했다.

《이전에야 다녔지. 그럼 오늘은 누가 보내서 갔댔소? 누가? 왜 말이 없소? 누구도 승인하지 않았소. 누구도 그런 정찰은 허용하지 않았단말이요.》

《어디 솜씨를 좀 보이자구 했겠지.》 정치위원 가르부즈가 책상뒤에서 낮은 소리로 말했다. 《한사람은 공산당원이구 다른 사람은 공청원이라.》

《그러니 누구보다 동무의 잘못이 크오. 상위동무.》 까라바예브는 까자꼬브를 힐끔 쳐다보면서 엄하게 꾸짖었다. 《동무야 그래도 직무상 상급이구 중대장이 아니요. 그런데 왜 자기 구분대를 버리고 자리를 떴는가말이요?》

《저는 부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까자꼬브는 모욕감을 느꼈다. 《자기 중대구역에 있었습니다. 조금 앞에 나가봤을뿐입니다.》

《그래. 동무는 어디에 위치하게 돼있소?》

와씰리는 까자꼬브를 건져내려는 심산에서 안타까운 시선으로 참

모장 꼴로꼴리쩨브를 바라보았다. 그는 와씰리의 시선에 부딪치자 헛기침을 하면서 자기의 삐걱거리는 의자를 움직여놓고 듬직하게 말했다.

《혹시 일부 측면에서 이번 사건에 내 잘못도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어제 와씰리동무를 불러서 그에게 정세도 료해하게 하구 적의 집단을 매일밤 확정해야 한다구 말해줬습니다.》

까라바예브는 놀라운 기색이였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워또르 일리이치? 그들을 비호해나서다니? 아니, 안되오. 용서할수 없소. 명령서에 당신이 직접 처벌내용을 쓰시오. 이렇게말이요.…》 까라바예브는 잠시 생각하다가 처벌방안을 골랐다. 《말하자면 상위 이완 까자꼬브에게는 경고의 책벌을 주며 중위 와씰리 로마슈낀에게는… 그에 대해서는 주의로 대치합시다.》

까자꼬브와 와씰리는 지휘부엄페부에서 나와 멍하니 한동안 서로 외면하고있다가 갑자기 껄껄 웃었다. 마음이 그닥 아픈것이 아니였다. 지금까지 그들은 습격을 성과적으로 진행했다는 기쁨에 휩싸여있었으며 그러한 희열은 뒤따라온 불쾌감을 짓눌러버렸던것이다.

《우리한테 가서 저녁식사나 같이 합시다.》 와씰리가 조용히 청했다.

그러나 까자꼬브는 응해나서지 않았다.

《나한테 가는게 더 나을거요. 전화두 걸어올수 있으니까, 또 중대에서 자리를 떴다구 욕하겠는데.》

× ×

그러한 유쾌한 일이 있은 후 와씰리에게는 쓰거운 실패만이 거듭되였다. 그들이 셋이서 그처럼 열성스레 잡아온 《혀》는 오래동안 그들의 마지막 《혀》로 남아있었다.

꼴로꼴리쩨브가 예견했던대로 사단참모부에서는 매일과 같이 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요구했다. 최고사령부에 이르기까지 상급참모부는 적이 언제 어디서 자기의 일부 력량을 남부 쓰딸린그라드방향에

투입하려고 하는가를 제때에 알아내라고 했다. 구두와 서면으로 명령이 꼬리를 물고 연방 내려왔다. 부대정찰병들은 녹초가 되였다.

그들은 밤마다 중립지대에서 헤매였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도이췰란드놈들을 그저 약이 오르게 했을뿐이였다. 그리하여 놈들은 밤이면 참호들에 이전에 했던것처럼 직일기관총수만 남겨둔것이 아니라 1제대구분대의 완전력량을 다 배치했다. 어디 한번 들어와서 《혀》를 잡을테면 잡아보라는식이였다.

와씰리는 피로하던 나머지 지칠대로 지치였다.

어느날 가르부즈가 그를 불렀다. (또 욕하자구 하겠지.) 하고 와씰리는 울적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정치위원은 욕하지 않았다. 그는 와씰리의 해쓱해진 뒤숭숭한 얼굴을 쳐다보면서 조용히 말을 뗐다.

《내 생각엔 전술을 좀 바꿔야 할것 같소. 동무는 판에 박은 방법에 매달리고있소. 그러니 실패를 거듭할수밖에 없는것이요. 동무들을 기다리고있는놈들은 동무들의 모든 행동거지를 사전에 알고 있소.》

《우리의 행동에서 무슨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낼수 있겠습니까?》 와씰리는 어깨를 으쓱했다.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적의 전호로 기여갔다오는것인데 조심스럽게 행동하기만 하면 되지요. 이게 우리의 기본전술이 아닙니까?》

《뭘 좀 다른 방안을 생각해내야 하오.》 가르부즈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무슨 계책이 없겠소? 아니면 파쑈놈들을 중립지대로 유인해낼만한 전술이라도 없겠는지? 그것이 바로 뭣인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수법을 찾아내야 한다는것만은 사실이요. 가서 좀 생각해보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또 오시오. 토론해봅시다. 필요하다면 내가 직접 정찰보장사업을 조직하겠소.》

와씰리는 마음속에 허심탄회한 담화에 대한 감사의 정을 안고 정치위원방에서 나왔다. 만일 정치위원이 지지하여준다면 혼탕이 된 일도 바로잡힐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정찰병들을 존대하게 될것이라고 확신하였다.

《그럼 무슨 방책을 찾아낼가?》

와씰리는 아무리 머리를 짰지만 좀처럼 그럴듯한 묘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뻐로레뜨낀은 와씰리를 동정하면서 할수 있는껏 위로해주기도 하였다.
《너무 속을 썩이지 마십시오. 중위동지, 지금 조건에서야 머리가 열두개라두 어쨌든 〈혀〉는 잡지 못합니다.》
 와씰리는 허구픈 웃음으로 응대하고는 자신없이 이리저리 궁리해보았다. (만일 도이췰란드놈들이 밤에 자지 않는다면 낮에는 잘것이다. 온 구분대가 하루, 이틀, 사흘을 자지 않고 뜬눈으로 밝힐수는 없다. 바로 이런 약점을 리용하면 어떨가?) 하지만 그 생각은 인차 뒤로 물러서고말았다. (진짜 무슨 잠꼬대를 하는게 아닐가? 만일 밤에 성공못하면 낮에는 더우기 안된다.)
 그러나 대낮에 《혀》를 잡을데 대한 모험적인 생각은 와씰리의 머리속에서 좀처럼 떠나지 않고 줄곧 꿈틀거리면서 점차 깊어갔으며 나중에는 그것을 가지고 소대적으로 토론에 붙이기까지 하였다. 처음에 정찰병들은 그 의견에 커다란 의혹을 품었다가 유리하겠는가 불리하겠는가 하면서 꼼꼼히 더듬어보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현실적인 방도라고 확신했다.
 와씰리는 자기의 계획을 지휘부에 보고하였다.
 련대장은 쾌히 승인하였다. 그리하여 어느날 밤에 여섯명의 정찰병들이 비옷과 자그마한 공병삽을 휴대하고 중립구역으로 나갔다. 놈들의 철조망근처에는 벌써 관목숲이 우거진 나지막한 언덕이 있었다. 거기에 깊숙한 홈을 파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고도의 긴장성과 조심성을 가지고 일했다. 그것은 적들의 전호까지는 백메터가 되나마나한데다가 무슨 바스락소리라도 나는 날에는 계획된 일이 다 파탄될수 있기때문이였다.
 날이 밝으면 놈들의 주의가 쏠릴가봐 흙을 파서 비옷에 담아 웅뎅이에로 날라갔다.
 와씰리와 꼬노뻘레브, 로가찐은 진종일 홈채기에 앉아있었다. 그들은 엄폐호를 준비하는 일에 참가하지 않고 임무수행을 앞두고 힘을 아끼였다. 밝기전에 그들을 데리러 련락원을 보내였다. 물론 그

들 셋은 하나도 눈을 붙이지 못했다. 드디여 극히 모험적인 일이 준비되였다.

과연 이런 일에 잠이 올수 있겠는가.

보장대가 은폐호에 기여와 쭈그리고앉아서 그들에게 먹을것과 물이며 예비탄약과 수류탄을 내려놔주었다. 매 사람들의 머리우에 장대를 가로지르고 그우에다 잔디를 가려놓았다. 그들은 어둠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고있었다.

적들의 손에 산채로 잡힐가봐 겁이 났다. 잠못이루는 이 밤에 도이췰란드놈들이 그들의 신경을 토막내고있는것이다. 와씰리앞에는 이전에 목격했던 파쑈놈들의 고문에 갈기갈기 찢기운 포로병들의 시체가 선히 떠올랐다. 특히 어느 한 헛간에서 꽁꽁 언채로 희생된 사람이 생각났다. 그의 손가락과 발가락은 놈들의 도끼에 다 잘리워있었다. 와씰리는 몸을 옹송그리고 앉아서는 자기 손가락끝이 저려나는감을 느끼기까지 했다.

자기들이 추리해낸 판단에 미심쩍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도이췰란드놈들이 숲속에서 법석거리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생겼는지 당장 검열하러 기여들수 있지 않을가? 혹시 놈들이 우리의 기도를 미리 알아차리지나 않았을가? 날이 밝으면 적들이 공격을 시작하리라는것도 예측해야 한다. 이것은 물론 정찰병들을 피멸시킬수 있는 위험으로 된다.)

간혹 사람들은 《무덤에서 빠져나갈 출로가 없다.》고 말들을 하군한다. 와씰리자신도 이런 말을 여러번 들어왔다. 지금도 그는 그것을 회상하면서 침울한 생각에 잠기였다. (정말 내가 무덤속에 있는게 아닌가.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법이다. 이렇게 하루만 참으면서 적의 동태를 연구하자. 필경 래일이면 행동을 개시할수 있을것이다.)

동이 터오기 시작했다. 와씰리에게는 틈새기로 하늘이 또렷이 내다보이였다. 처음에는 거무스레하던 하늘이 점차 재빛으로 변하다가 어느새 파래지면서 해가 떠오르자 연한 하늘색으로 단장되였다.

와씰리는 조심스레 잠망경을 쳐들었다. 그 자그마한 잠망경은 얼마전에 련대에서 보내온것이였다. 길이가 한메터도 못되는 푸른관은

한쪽 끝에 시준구가 있고 다른쪽 끝에는 고무로 만든 보호체를 두른 대안렌즈가 달려있었다. 잠망경은 은페호에서 일어서지 않고도 전방을 감시할수 있게 간편하게 생겼다. 그러나 와씰리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인지 아래우로 떨면서 렌즈에 가까스로 눈을 댔다. 갑자기 심장이 굳어지면서 손이 본능적으로 자동총에 가닿았다. 보이는 모든 공간에는 시들시들한 볼따귀에 불그레한 털이 부시시하고 부석부석한 상판대기로 가리워졌다. 바로 그놈이 웅뎅이를 살피고있었다.

잠망경의 렌즈는 원리대로 적을 바투 볼수 있게 해주었다. 현실적으로 적은 불과 60메터도 못되는 곳에 있었다. 와씰리는 판단력이 굼뜬 자신을 책망하면서 다시금 잠망경을 조정했다. 도이췰란드놈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있었다. 그놈은 면도도 하지 않고 잠에 취하여 무사태평한 기분이였다. 그놈의 곁에는 기관총좌지가 있고 전호의 좌우켠으로 두놈이 떨어져있었다. 놈들은 중립구역을 내다보지도 않고 서로 뭐라고 지껄이고있었다. 밤이 새자 놈들은 낮에는 안전하다고 본 모양이였다.

와씰리는 유년시절에 탐정영화에서만 볼수 있었던것처럼 그렇게 긴장된 호기심을 가지고 적의 전호생활을 감시하고있었다. 도이췰란드놈들은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다가 제자리에서 서성거리기도 하였다. 놈들의 얼굴은 몹시 피로한 기색이였다.

와씰리는 린접이 걱정되여 제꺽 살펴본 다음 지대를 하나하나 연구해나갔다. 벌판을 지나 앞에는 철조망이 늘여져있었다. 그것은 녹이 쓸어서 불그레해보였다. 철조망을 따라 전호를 쭉 파놓았는데 그 앞에 잔디를 쌓아 흉장을 만들어놓았다. 전호로부터 후미진 곳으로 몇개의 교통호들이 갈라져나갔다. 거기서는 놈들이 허리를 펴고 뻐젓이 나다니였다. 그곳에는 엄페부가 있었다. 그 나들문앞에는 두놈이 주전자에서 나오는 물을 손으로 받아서 서로 세수를 하고있었다. 뒤쪽에는 자그마한 고지가 있었다.

여덟시가 되자 도이췰란드놈들의 움직임이 완전히 중지되다싶이 하였다. 모두가 엄폐부로 들어갔다. 아마 드러누워 잠이나 자려는 모양이였다. 와씰리앞에는 기관총을 지키는 주홍색털부숭이만이 남아있었다.

그놈은 앞뒤로 빈둥거리면서 무엇에 찔린듯 눈섭을 쪼프리다가는 입술을 삐죽거리기도 했다. 무엇인가 사색하는것 같았다. 그놈의 좌우켠으로 좀 떨어진 거리에 각각 한놈씩 흔들거리고있었다. 이것은 전술상 해명하기 힘들지 않았다. 엄페호에서 관찰한 구간에서는 한개의 보병소대가 방어하고있었다. 지금 여기에 세놈의 감시병을 배치한것으로 보아 매 분대에서 한놈씩 선발한것이 틀림없다.

두시간이 지나서 머리털이 흰놈이 주홍색털부숭이를 교대했다. 그놈은 보다 활동력이 있어보였다. 그놈은 줄곧 우리쪽을 살피면서 가끔 가다가 기관총을 잡고서는 조심히 겨냥하고 마치 기회를 엿보기나 한듯 불의에 마구 쏘아대군하였다.

열두시가 되여서 정황은 완전히 밝혀졌다. 아직도 기나긴 낮시간이 기다리고있었다. 와씰리는 빵과 꼴바싸를 입에 넣고는 물통에서 물을 한모금 마시였다. 담배를 피우고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그러나 유혹을 피하려고 일부러 담배를 가지고오지 않았다. 엄페호안에 옴짝 못하고 앉아있다나니 손발이 저려나고 등이 막 쑤시였다. 거기서는 허리를 굽히고 얼마든지 돌아앉을수 있었다. 때로는 목구멍에서 기침이 가랑가랑하게 되면 소리가 날가봐 덧저고리를 뒤집어쓰지 않으면 안되였다.

낮동안에 와씰리는 엄폐부에 둥지를 틀고있는 적병정놈들의 얼굴생김새와 습성을 다 가려보게 되였다. 놈들은 감시초소에 한명씩 차례로 교대하였다. 그리하여 와씰리는 놈들을 소소한 점에 이르기까지 다 분간할수 있었다. 머리속에서는 문득 이런 생각이 언뜻거리였다. (저기에 따냐에게 고통을 주던놈들이 아무튼 있기만하면 나는 사진에서 본 놈들의 얼굴을 꼭 알아냈을텐데.)

드디여 황혼이 깃들기 시작하자 전호에서 놈들이 활기를 띠고 나왔다. 와씰리는 자기앞에 나타난놈들을 보고 조소했다. (한놈씩 나오는게 신통히두 극장에서 공연이 끝난 뒤갈군. 모두가 실컷 잠을 잤던 모양이지.)

도이췰란드놈들은 나무받침대우에 총을 고정해놓고는 규정된 목표에 대고 사격을 해보면서 야간전투준비를 하고있었다.

완전히 어두워지자 와씰리는 자신이 물속에서 헤염치는 물고기처

럼 느껴졌다. 그는 우두커니 누가 도와주러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자신이 직접 머리우의 《뚜껑》을 헤집고 로가찐에게로 기여갔다. 그는 슬그머니 자기 구멍에서 빠져나와 중위를 따라갔다. 그들은 끄노뻴레브를 데리고 《집》으로 향하였다.

와씰리는 접근로에서 자기 대원들을 만나리라고 타산했지만 실지로 중립구역가운데서 20메터가량 어긋나서 그들을 발견했다. 캄캄한 어둠속에서도 대상물을 쉽게 가려보며 움직임을 제꺽 포착해내는데 익숙된 눈을 가지고있는 그였지만 정찰병들을 겨우 알아보았다. 와씰리는 땅우에 낮게 붙어서 그림자처럼 얼른거리는 대원들을 만족스럽게 바라보며 (동작을 괜찮게 하는군.) 하고 생각했다.

감시병들의 자립적인 출현은 계획에 예견되지 않았다. 와씰리는 그들이 자기들을 도이췰란드놈으로 잘못 알가봐 나직이 소리쳤다.

《싸샤! 쁘로레뜨낀!》

이것은 다른 군호보다 믿음직했다. 순간 그림자들이 까딱하지 않고있다가 그들에게로 달려나갔다.

《아니 어떻게? 다 무사합니까?》

《후에 말하기요. 후에… 빨리 〈집〉으로 갑시다.》 와씰리가 대꾸했다.

《집》에서는 모두가 오래동안 리별했다가 만난것처럼 와씰리와 로가찐과 끄노뻴레브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들에게 따끈따끈한 남새국과 빵쪼각이며 진하게 탄 차를 한고뿌씩 성의껏 내주었다. 그들은 성가시게 캐묻지도 않고 참을성있게 기다렸다. 감시병들자신이 그 끝없이 기나긴 낮에 보고 남긴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스스로 하기를 바랐던것이다.

와씰리는 식탁에 종이장을 펴놓고 도이췰란드놈들의 소대방어략도를 그려나갔다. 로가찐과 끄노뻴레브는 자기들이 본것을 상세한 점에 이르기까지 다 보충해주었다. 그리하여 그들 셋은 대낮에도 《혀》를 잡을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러자면 어두워질 때에만 철조망에 바싹 접근할수 있으며 놈들이 휴식하러 가는 기회에 전호로 뚫고들어가야 한다. 여기서 성공하면 보초병을 잡을수 있으며 그것이 안되면 엄페부를 차단하고 거기서 어떤 놈이든지 끌고와야 했다.

그렇다면 차후에는? 물론 정찰병들은 발견될것이다. 그때에는 할수없이 중립구역을 빠져나와야 한다. 련이어 적의 모든 방어선에서는 그들을 향하여 불을 토할것이다. 과연 이러한 사격을 무릅쓰고 전호까지 당도해낼수 있겠는가?

시험해봐야 한다.

밤이 이슥하여 모든 정찰소대원들이 적의 철조망으로 진출하였다. 거기서 다섯개의 엄페호를 더 파놓았다. 그리고는 낮에처럼 세명이 아니라 여덟명을 떨구었다.

날이 밝자 와씰리는 잠망경으로 내다보면서 어제 낮동안에 낯을 익힌 놈들을 쉽게 알아보았다.

해살이 붉게 타오르는 명랑한 아침이였다. 하지만 와씰리에게는 이 밝은 해빛이 오히려 고통을 가져다주었다. 그는 주로 밤에만 임무를 수행하러 다니는데 습관되였었다. 대낮에 기습하는것은 비록 도이췰란드놈들이 잠잠하다 할지라도 모험적인 행동으로밖에는 생각되지 않았다.

어제처럼 기관총 낮직일은 주홍색털부숭이가 먼저 서고있었다. 오늘은 그놈이 면도까지 했다. 적적한 모양인지 전호로 왔다갔다하면서 왼켠에 있는놈의 옆으로 다가서더니 그놈과 말을 주고받았다.

정찰병들은 유리한 순간이 그렇게 빨리 도래하리라고는 미처 생각못하였다. 쁘로레뜨낀은 맨먼저 엄페호에서 빠져나와 철조망쪽으로 뱀처럼 기여가서는 냉큼 돌아누워 가시줄을 자르면서 통로를 부지런히 개척해나갔다. 모두들 가슴을 조이며 그를 주시하고있었다.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도이췰란드놈들을 겨누고있었다.

쁘로레뜨낀은 철조망말뚝사이를 빠져 날쌔게 앞으로 나갔다. 드디여 그는 말없이 손을 저었다. 엄페호에서 두명이 기여나와 그에게로 다가갔다. 바로 그찰나에 정찰병들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서있던 도이췰란드놈이 고함을 치면서 주홍색털부숭이한테 기여오는 사람을 대주었다.

자동총이 두번 일제히 점발사격을 했다. 도이췰란드놈들이 엎디기도 하고 무릎을 꿇기도 하였다. 와씰리는 통로쪽으로 달려가 철조망

밑으로 바삐 기여나갔다. 가시줄이 옷을 째면서 잔등을 아프게 긁었다. 엄호를 맡은 정찰병들도 전호에 뛰여들어 좌우측으로 갈라지면서 자동총으로 감시병들을 쏴눕히였다.

와씰리는 주홍색털부숭이한테 달려갔으나 그놈은 이미 뒈지고말았다. 두번째 놈은 겨우 숨이 붙어있는것 같았다. 그놈의 어깨죽지에 피자국이 내배였을뿐이였다. 그놈은 손에 수류탄을 쥐고 위협해나섰다. 와씰리는 그것을 빼앗아내여 멀리 내던지고는 그놈의 혁띠를 부여잡고 전호에서 들어올려다 철조망쪽으로 끌어갔다. 그놈은 필사적으로 반항하면서 새된 소리를 질렀다.

그 순간 엄페부안에서 휴식하고있던 놈들이 뛰여나왔다. 와씰리는 전호모서리에 의지하여 엄페부를 향해 련발사격을 들이댔다. 두놈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나머지놈들은 엄페부로 피해들어갔다. 와씰리는 입구에 대고 계속 사격을 하였다. 그사이에 로가찐은 벌써 《혀》를 철조망밖으로 끌고나갔다.

다른 정찰병들도 3면에 대고 사격하면서 퇴각하기 시작했다. 쁘로레뜨낀이 나중에 철조망을 빠져나오자 와씰리는 아군보병대에 신호를 주었다. 그의 신호탄이 채 꺼지기도전에 땅이 진동하면서 시커먼 흙먼지가 허공으로 솟구쳐올랐다.

허리를 구부리고있던 정찰병들이 이제는 버젓이 서서 자기의 전호로 내달리였다. 포탄이 바로 머리꼭대기로 지나가면서 잉잉거리였다. 처음에는 아군의 포탄이 날아가더니 얼마 안있어 도이췰란드놈들도 대응사격을 하였다. 엎드려야 했다. 중립지대가 교차구역으로서 지금은 제일 안전한 곳이였다.

포로놈의 어깨에 붕대를 감았다. 그놈은 로가찐곁에 순순히 엎디여있었다.

《날 똑똑히 봐. 부산을 피우지 말란말이다.》로가찐이 그놈에게 손가락을 내대며 위협조로 말했다. 《그렇지 않다간 네놈의 모가지가 도망갈줄 알아.》

도이췰란드놈이 머리를 끄덕이며 긍정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히틀러가 망하고있소.》

《령리한놈인데.》 로가찐이 웃었다.

포성이 좀 뜸해지자 다시금 자기 전호를 향하여 기여갔다. 이윽고 모두가 한결같이 다친데없이 무사히 당도했다.

포로를 사단참모부로 보내기전에 여느때처럼 률렌꼬브대위가 먼저 심문했다. 대위는 엄페부입구옆에 있는 통나무에 걸터앉아있었다. 모든 참모부일군들은 사격이 멎으면 땅밑에서 나와 해바라기를 하군했다.

와씰리는 률렌꼬브곁에 기대앉았다.

《우리앞에 있는 사단은 변함없이 종전대로요.》률렌꼬브는 와씰리에게 말하고나서 즉시 도이췰란드놈에게 질문을 련속 들이댔다.

《그러니까 당신은 로동자란말이요?》

《네, 저는 선반공입니다. 드레즈덴에 있는 공장에서 일했지요.》

《그런데 당신은 왜 우리를 반대하여 싸우고있소? 우리 나라는 로동자와 농민의 국가가 아니요.》

《저는 군대에 강제로 징집되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싸우지 않을수 있습니까?》

와씰리는 다시한번 포로를 살펴보았다. 그렇다. 이놈이 바로 얼굴이 창백한 금발머리 그놈이였다. 지금은 어진 사람인체 하지만 전호에서는 전혀 다르게 행동했었다. 와씰리는 천천히 아는 말을 골라가면서 그놈에게 상기시켜주었다.

《네놈이 사격을 제일 많이 했어. 우리를 감시하면서 사격까지 했단말이야.》

《그건 저의 의무입니다. 저는 병사가 아닙니까.》

《다른 병사들은 낮에 총 한방 쏘지 않구있었는데 네놈만이 중뿔나게 눈에 쌍심지를 켜구 사격했단말이야.》

《중위가 다 봤소.》률렌꼬브가 명백히 해주었다. 《그는 이틀동안 당신네 철조망앞에 누워있었단말이요.》

《아, 중위는 매우 용감한 사람입니다.》포로는 환심을 사려고 넉두리를 했다. 《우리는 당신들이 대낮에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못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당신들이 밤에만 오리라고 예견했지요.》

그놈은 자기가 다른놈들보다 더 많이 사격했다는 화제를 외면하려

는것이 틀림없었다. 와씰리에게는 어쩐지 주홍색털부숭이가 이놈보다 더 솔직하고 정직하다고 생각되였다. 그리하여 주홍색털부숭이가 어떤놈인가를 알고싶었다.

률렌꼬브는 질문을 통역하였다.

《그를 프란찌쉐크라고 합니다. 그는 부르노태생인 체스꼬사람이지요. 전쟁전만해도 도장공이였습니다.》 포로가 자진해서 대답했다.

《당신네는 무슨 혼합부대가 아니요?》 률렌꼬브가 저으기 관심을 가지였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도이췰란드군부대들과 구분대들이 다른 나라의 병사들로 보충되고있지요. 우리는 커다란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건 바로 체스꼬나 마쟈르, 로므니아와 같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반대하여 싸우려 하지 않는데 당신들은 그들을 싸움판으로 내몰고있기때문에 그렇지 않소?》

《모르겠는데요. 저는 작은 사람이니까 정치는 저하구 관계가 없습니다.》 그 교활한놈은 와씰리를 점점 더 분개시켰다. 《로동자로 가장하여 목숨을 구하려드는군. 더러운 파쑈놈같으니.》 와씰리는 속이 께름직해서 그놈한테서 물러나고말았다.

자기 엄페부로 돌아온 와씰리는 쁘로레뜨낀에게 말하였다.

《싸샤! 동무가 수말을 보고 판단한 정황은 옳았소. … 우리앞에는 여전히 그 사단이 주둔하고있소.》

쁘로레뜨낀은 불시에 얼굴이 환해지면서 로가찐을 승리자의 기세로 쳐다보았다.

《중위동무의 말을 들었는가? 그래, 보라구. 누가 허풍쟁인가?》

로가찐은 난처한듯 뒤통수만 긁적거리였다.

나머지시간에 와씰리는 모든 대원들과 함께 사관장 주마췌꼬가 차린 성찬에 참가하였다. 명랑한 기분에 휩싸이긴 했지만 가끔 가다가 온몸에 불쾌한 소름이 끼쳐지는것 같았다. 대낮에 있었던 일이 좀처럼 믿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적들의 면전에서 《혀》를 끌어오고 아무런 손실도 없이 무사히 돌아오지 않았는가.

엄페부에서 와씰리는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워 잠들려고 했으나 신

경이 발작하기 시작하였다. (진정할수 없군.) 하고 와씰리는 쓸쓸하게 생각했다. (설사 신경이 철사로 되였다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모두가 지켜보는 대낮에 수행하기로 결심했던가? 만일 이런 임무를 수행하려 나를 또다시 보낸다면 아마 힘이 모자랄수 있다. 하지만 대낮에 당장 보내지는 않을것이다.)라는 생각에 그는 안도감을 가지였다. (지휘부도 이런 일은 한번밖에 해내지 못하리라고 믿고있을것이다.)

까라바예브의 련대는 여름내내 방어를 하고있었다. 9월부터는 준엄하면서도 얼핏 보기에는 전혀 소용없는 공격전투들이 시작되였다. 전투는 그칠새 없었다.

녹초가 된 와씰리는 갈기갈기 찢어진 위장복을 가까스로 벗었다. 맥없이 늘어진 손을 들어올릴 기력조차 없었다. 그의 대원들도 역시 그러한 지경에 처하여있었다.

와씰리는 사관장을 불러서 이렇게 명령하였다.

《주마첸꼬, 동무와 함께 남아있는 대원들을 데리고 밤시간에 교대제로 직일을 세우시오. 일선전호에는 백메터어간에 전사 한명씩 있을뿐이요. 그들도 벌써 잠들었는지 모르오. 어떻게 하나 도이췰란드놈들이 맨손으로 우리모두를 죽이지 못하도록 해야 하오.》

《도이췰란드놈들도 뿔뿔이 아무렇게나 누워있는걸 봐서 중위동지가 오늘 그놈들을 단단히 혼내운 모양입니다.》 주마첸꼬가 응답했다. 《경비는 제가 다 세우겠습니다. 편안히 휴식하십시오. 중위동지!》 습관적으로 자꾸 중위라고 불렀다. 사실은 어제부터 와씰리는 상위로 되였다. 그러나 그자신은 아직도 새로운 군사칭호를 달지 않았다.

《자기 익측을 다 내주었소.》 골로샤뽀브가 말하였다.

그리하여 와씰리는 지금 수적으로 적은 중대들이 또다시 공격마당에로 나가는것을 상상해보았다. 생각할수록 피로왔다.

(공격할 력량이라고는 없다. 놈들이 반공격을 해오는 날에는 자기 진지도 지탱해내지 못할것이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와씰리는 옷을 입은채로 딱딱한 다락에 쓰러져 인차 잠들었다. 방

금 눈을 붙였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누군가 다리를 슬쩍 쥐여당기였다.
《상위동지, 어서 일어나십시오.》
엄페부안은 캄캄했다. 한쪽구석에 있는 양철난로옆구리가 벌겋게 비칠뿐이였다. 아직도 피곤이 채 가셔지지 않았다. 피곤은 따스한 공기속에서 온몸에 끈덕지게 달라붙었다.
《련대장이 부릅니다.》 사관장은 사람들을 깨울가봐 조용히 말하였다. 그의 속살거리는 소리는 와씰리를 더 깊이 잠들게 했다.
(왜서 부를가?) 와씰리는 잠에 취한채 속으로 툉겨보았다. (또 《혀》를 잡으러 보내려는게 아닐가?)
와씰리는 다리를 휘청거리며 겨우 일어나 자동총을 손더듬하여 찾아쥐고는 습관적으로 어깨에 걸치고 눈도 뜨지 못한채 잠에 취하여 문쪽으로 걸어갔다.
맵짠 새벽추위는 단번에 취기를 몰아내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하였다. 와씰리는 목을 움츠리고 손을 호주머니에 찌르고는 골짜기로 해서 근심스럽게 걸음을 옮기였다. 하얀 눈은 마치도 아프다는듯 발밑에서 빠드득거리였다.
련대장엄페부앞에는 무슨 사람들이 서서 직심스레 마라초를 태우고있었다. 와씰리는 그들에게로 가까이 다가갔다. 거기에는 대대장들과 포병대대장 그리고 정치일군들과 후방일군들이 와있었다.
까라바예브와 가르부즈는 부관이 다들 도착했다고 보고하자 밖으로 나왔다. 련대장의 얼굴도 역시 침울한데다가 눈확은 컴컴했다. 가르부즈는 좀 활기가 있어보였다.
《지휘관동무들.》 까라바예브가 나직이 입을 열었다. 《우리 엄페부에 들어가기보다 바깥이 나을것 같은데 여기서 그냥 말합시다. 나는 동무들을 오래 지체시키지 않겠소. 나는 정치위원동무하고 방금 사단에서 돌아오는 길이요. 우리에게는 다시금 공격하라는 임무가 하달되였소!》
와씰리는 자기 귀를 의심했다. 《그렇게 될수 없다!》 다른 사람들도 분명 동의할수 없다는듯 침묵을 지켰다.
파리하고 키가 큰 대대장 쥬라블레브대위가 막연한듯 물었다.

《중좌동지, 누굴 데리고 공격하랍니까? 중대에 사람이 있대야 한둘밖에 안됩니다.》
까라바예브는 동정어린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확신성있게 대답하였다.
《어쨌든 공격해야 합니다. 파쑈놈들이 우리 전선에서 군대를 철수하여 쓰딸린그라드쪽으로 투입하고있습니다. 어제 정찰병들이 잡아온 포로병이 그것을 확인했소. 우리와 대치된 도이췰란드련대는 지금 우리 사단의 두개 련대를 상대로 하여 넓은 전선에서 방어하고있소. 따라서 그의 린접은 오른쪽에서 후방으로 옮겨갔소.》
쥬라블레브대대장은 도이췰란드놈들이 자기 력량을 재편성하고있는 잘못이 마치도 와씰리에게 있는것처럼 그를 화가 나서 쳐다보았다.
《우리에게는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까라바예브가 계속하였다. 《모든 사단들이 …기껏해야 한개 사단력량밖에 안되지만 여하튼 몇개 사단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가능성을 동원하여 공격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적의 계획을 파탄시켜야 합니다. 나는 이미 후방구분대들을 동원하여 보병중대를 보충할데 대한 지시를 주었소. 료리사이건, 작가이건, 마부이건, 수리공이건 할것없이 다 1선으로 보내오고있소. 누가 누구를 받고 누가 누구를 주어야 하는 문제는 참모장한테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되오. 이제부터 전투명령을 들으시오.》
까라바예브는 보병대대와 포병대대, 특수구분대들에 임무를 하달하였다. 그는 정찰소대를 자기의 예비대로 남겨두었다. 와씰리는 련대감시소옆에 위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련대장의 말이 끝나자 가르부즈가 말하였다.
《동무들, 나는 동무들이 다 지쳤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쓰딸린그라드부근에서는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고있습니다. 이것을 모든 대원들에게 인식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들은 리해할것입니다. 공산당원들과 공청원들은 공격할 때에 앞장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나가야 합니다.…》
와씰리는 날이 밝기전에 지적된 장소에 자기 소대를 배치하였다.

정찰병들은 작은 나무잎들을 깔고앉아서 예비대를 호출할 때를 기다리며 추위속에서도 모자라는 잠을 보충하였다.

와씰리는 쌍안경을 눈에 가져다댔다. 아침에 내린 눈은 해빛에 반사되여 파르스름하게 보였다. 중립구역에는 컴컴한 관목숲들이 드문드문 우거져있었다. 어제밤에 죽어넘어진 놈들은 없었다. 밤에 다 날라간 모양이였다. 적의 전호들은 아직은 어슴푸레하였다. 그러나 아군 전호에 있는 전사들의 얼굴은 똑똑히 가려볼수 있었다. 순간 눈섭이 시꺼먼 낯익은 얼굴이 얼른거리였다. 《글리예브구나. 그러니 련대장은 자기의 련락병까지 전초소에 내보냈군.》하고 와씰리는 생각하였다.

일곱시에 포들이 입을 열고 박격포가 일제히 사격을 들이댔다.

첫포탄들이 눈밑에서 검은 흙덩이를 휘뿌리면서 들볶아놓았다. 아군의 포화력은 평시보다 약한것 같았다. 일제사격은 하고있지만 포성은 한결같이 화합된 소리로 울리지 못했다. 적진에 날아든 포탄들이 띠염띠염 터지는바람에 한번 치달아올랐던 먼지와 연기는 그 사이에 얼마든지 가라앉을수 있었다.

와씰리의 마음은 그저 애타기만 하였다. (진짜 포병준비사격을 못하고 이렇게 재채기하듯 드문드문 사격하고서야 어떻게 보병이 마음놓고 공격에로 나가겠는가?) 그러한 정황속에서도 푸른 신호탄이 가까스로 날아오르더니 전투원들이 전호에서 뛰쳐나와 성긴 산개대형으로 벌판으로 전진해나갔다. 그들은 달리지 않았다. 웬일인지 천천히 걸어가면서 사격하였다.

도이췰란드놈들의 기관총이 마치 재봉기가 드르륵거리듯이 두드려대기 시작하였다. 여러개의 박격포탄이 날아와 여기저기에서 터지였다. 그것은 우리의 보병을 답새기며 몰아대는것 같았다. 그러자 전사들이 앞으로 내달리였다. 와씰리는 까라바예브가 포병들에게 전화로 소리치는것을 엿들었다.

《적의 화점을 제압하시오. 보이지 않소!》

포탄이 적진에 련속 날아들면서 뒤죽박죽이 되게 했다. 기관총좌지부근에서 꽃다발처럼 환을 그리며 포탄들이 터졌다.

그리하여 1대대는 벌써 놈들에게 접근하여 단숨에 전호를 뚫고 들

어갔다. 《참 잘하는데, 쥬라블레브! 처음에는 으르렁대며 꽥꽥거리더니 이제는 제법 멋들어지게 답새기는군.》와씰리는 우리 전사들이 전호를 향하여 달려가며 놈들에게 수류탄벼락을 안기는것을 보면서 활기를 띠였다.

까라바예브중좌는 여전히 포병들을 달구고있었다. 정치위원 가르부즈도 전화로 2대대장을 불러 책망하였다.

《쓰베리도노브, 동무는 왜 앉아뭉개기만 하오? 쥬라블레브는 놈들의 1선을 돌파한지 오랜데 동무는 계속 꾸물거리구있단말이요. 난 지금 다 보고있소. 아주 잘 보인단말이요. 동무나 쥬라블레브나 다 손금보이듯하오.》

막연한 작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공격이 성공한셈이였다. 정오가 되여 련대는 두번째 전호까지 장악하였다. 까라바예브는 새로운 감시소로 옮겨앉았다. 그와 함께 예비대도 따라갔다. 지금 까라바예브는 앞으로 전진해나간 2대대와 직접 말하면서 쓰베리도노브의 기운을 돋구어주었다. 《동무도 판단했겠지만 우리앞에 있는 적의 력량은 보잘것 없소. 그러니 공격속도를 늦추지 말아야겠소. 익측은 아직도 트이지 못했소? 엄호해주겠소. 당장 쥬라블레브한테 전화를 걸겠소. 그가 곧바로 밀고나가면서 엄호해줄거요.》

그러나 쥬라블레브대대의 공격은 기관총밀집사격과 맹렬한 박격포사격으로 하여 일시적으로 좌절되고말았다.

《돌아서는군. 개자식들.》까라바예브가 결김에 욕설을 퍼부었다.

《돌아서지 못하게 하시오. 자동포가 없어진지 사흘째나 되오.》가르부즈가 명백히 해주었다.

《이제 그들이 쥬라블레브에게 담배불일 틈을 줄것이요.》까라바예브는 속이 타서 계속하였다. 《젠장, 엎디긴 왜 엎디는지? 저러다가는 평지에서 흙에 다 묻히구말텐데.》그리고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쥬라블레브! 약진하시오. 빨리 2선전호를 차지하시오.…왜 못하겠소? 힘을 내시오. 전호에 들어서면 좀 낫단말이요. 린접에서도 익측을 엄호해줄게요. 이제 화력지원을 하겠소.》

그러나 포사격도 쥬라블레브를 크게 도와주지 못했다. 어느새 전

사들은 웅뎅이에 뛰여들어가 마치도 대대가 하나도 없는듯 했다. 쓰삐리도노브는 말은 못하고 전화기에 대고 그저 안타깝게 탄식할뿐이였다.
《나의 우익을 엄호해주시오. 우회하겠소. 이제 전호에서 나오게 되면 몽땅 전멸되고말것이요.》
《지금 당장 해주겠소.》 까라바예브가 자신있게 약속하고 곧 와씰리를 불렀다.
《네, 왔습니다.》
《소대를 데리고 빨리 1대대로 달려가시오. 거기서 사람들을 일궈세워 전호를 장악하시오.》
《알았습니다.》
일분 지나서 정찰병들이 1대대가 엎디여있는 폭탄구뎅이로 곧장 내달리였다.
적박격포들이 예비대의 움직임을 발견하고 거기에 대고 사격을 퍼부었다. 그러나 정찰병들에게는 그것이 신기하게만 생각되였다. 그들은 포탄을 피하여 좌우측으로 왔다갔다하면서 여전히 같은 속도로 와씰리를 따라나갔다.
드디여 보병들이 은페하고있는 시꺼먼 웅뎅이가 나타났다. 와씰리는 대대장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또 어느 중대장인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구령을 쳤다.
《자, 슬라브형제들! 나갑시다. 날따라 공격앞으롯.》
아무도 그의 호소에 꿈쩍하지 않았다.
《동무들, 뭣들 하오? 날따라 앞으롯.》 와씰리는 다시한번 고함을 치고 정찰병들에게 명령하였다. 《자 동무들, 저 사람들을 폭탄구뎅이에서 내쫓으시오.》
《어서 나오시오.》 로가찐이 웅글은 목소리로 웨쳤다.
《어째서 땅바닥만 긁고있소? 나도 죽지 않는걸 보라구. 어서 나오지 않으면 내가 자넬 디디고 서겠어.》 쁘로레뜨낀이 누구를 달래고 있었다.
골로샤뽀브도 자기대로 활동하였다. 그는 길다란 나무손잡이에 맨 도이췰란드제 수류탄을 위협조로 흔들면서 엄하게 물었다.

《자, 아저씨, 어서 혼자 일어나지 못하겠어요? 도와달랍니까?…》

중대장들과 소대장들도 대책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멀리 벌판에서는 처음에 한사람이 호소하듯 손을 흔드는것이 보이더니 그 뒤를 따라 인차 산개대형을 지었다. 대형은 앞으로 돌진해나갔다. 기관총이 아무리 짖어대고 총알이 우박치듯 쏟아졌지만 전사들은 산개대형으로 끝끝내 전호에 당도하여 뛰여들었다.

전호에서는 즉시에 육박전이 벌어졌다. 와씰리는 탄알을 아껴가며 짧은 점발로 놈들을 쏘아눕히면서 제발 탄알이 떨어지지 말았으면 하는 위구심을 가지였다. 그런데 도이칠란드놈들은 전호모퉁이와 엄페부안에서 계속 뛰여나왔다. 그때마다 와씰리는 명중탄을 안기면서 당장 격발기가 멎으면 다음번놈이 자기를 쏘지 않겠는가고 줄곧 걱정하였다. 주위에서는 적아가 뒤섞이여 갈팡질팡하면서 마구 갈겨대고 총탁으로 치고받고 하는통에 미처 탄창을 갈아댈새도 없었다. 적들은 아군보다 더 많아보였다. 그리하여 까자꼬브는 도이칠란드예비대가 왔다고 했던것이다. 처음에 전호에 있는 재빛외투를 입은 놈들은 어딘가 모르게 굼뜨고 서투르게 행동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금은 공포를 모르고 미친듯이 악—악 소리를 치며 한사람에게 두세놈씩 달려들어 멱살을 틀어잡고있다.

자지러지는 총소리, 고함소리, 구두발소리, 수류탄 터지는 소리—이러한 혼잡속에서 와씰리는 기다리던 격발기가 불운하게도 희미하게 잘칵 하는 소리를 들었다. (아, 이젠 다구나. 바로 이 잘칵소리는 나의 죽음을 의미한다.)

와씰리앞에는 안경을 낀 수염이 꺼칠하고 페병환자처럼 파리하게 생긴 도이칠란드놈이 문득 나타났다. 와씰리는 그놈의 자동총구의 검은 조성이 포아가리처럼 보였다. 눈앞에서는 불빛이 언뜻하더니 오른쪽귀가 멍멍하였다. 그런데 순간 도이칠란드놈이 뒤로 벌렁 넘어지면서 자동총을 떨구었다. 와씰리가 뒤를 돌아다보았다. 뒤에는 얼굴이 콩마당처럼 얽둑얽둑하게 생긴 붉은군대전사가 서있었다. 그는 니코틴이 푹 배인 이발을 드러내놓고 소리쳤다.

《저는 레와쇼브라고 합니다. 값을 톡톡히 치러야 하겠습니다. 상

위동지!》하고는 앞으로 달려나갔다.

와씰리는 성급히 탄창을 바꿔끼우고 주위를 살펴보았다. 《어디다 쏠가?》그러나 어느새 육박전은 끝나고 전호에는 놈들의 죽은 시체가 지저분하게 널려있었다. 교통호로 해서 구사일생으로 빠져나간 놈들은 뒤에 있는 전호에서 악에 받쳐 미친듯이 쏘아댔다.

와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적정에 대한 자료를 얻어야 했다. 그는 그것을 기본의무로 생각했던것이다. 그리하여 죽은 장교놈들의 가방을 날쌔게 뒤져가면서 적의 작전지도나 다른 중요한 문건들이 없는가를 살펴보았다. 엄페부로 들어가는 문어귀에는 어깨가 벌어지고 체통이 큰 하사관놈이 얼굴을 천문짝에 대고 쓰러져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두툼하고 넙적한 귀가 삐여져나오고 굵직한 모가지에는 다 아문 둥그스름한 종처자리가 희끄무레하게 보였다. 와씰리는 그놈의 주머니에서 종이에 쓴 몇장의 편지를 끄집어냈다. 그중에서 어느 한 페지를 읽어보면서 도이췰란드어공부를 이악하게 한것이 은을 낸다고 저으기 만족스럽게 생각하였다. 그는 옹근 한페지를 쉽게 읽을수 있었다.

《사랑하는 프리드리흐, 오늘 또다시 방송에서는 전투에서 모범을 보인 사람들은 동방에서 분여지를 받게 된다고 알려주었어요. 당신은 이미 철십자훈장을 가지고있는데 내 생각에는 당신이 훌륭한 자리를 좀 봐두었으면 해요. 나도 그런 자리를 골라보겠어요.》

죽은 프리드리흐의 안해에게 남의 땅에서 무슨 약속된 분여지가 차례지겠는가. 와씰리는 시간이 없어서 더 읽지 않았다. 하사관놈의 야전가방을 뒤지다가 보다 흥미있어보이는 무슨 교범비슷한 책을 발견하였다. 어떤 문장에는 연필로 두드러지게 밑줄을 그어놓았다. 《도이췰란드병사들을 무자비성의 정신으로 교양해야 한다.… 자기의 행동으로 도이췰란드민족앞에서 공포를 불러일으키도록 병사들을 고무해야 한다. 성별과 년령에 관계없이 그 누구에 대해서든지 어떠한 나약성도 보여서는 안된다.…》

와씰리는 자동총을 잡고 사격자세를 취하며 하사관놈을 건너서 맞불질이 요란스럽게 계속되고있는 멀리 전호의 한쪽끝으로 달려갔다.

놈들은 두번씩이나 자기의 진지를 탈환해보려고 시도했지만 허탕을 치고말았다. 두번째 반공격이 있은 후 얼마 안있어 땀에 흠뻑 젖은데다가 몹시 해쓱해진 쥬라블레브가 와씰리를 찾아냈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가며 말하였다.

《구원해주어서 고맙소. 친구, 자기의 매들을 데리구 어서 돌아가시오. 련대장이 예비대를 돌려보내라구 명령했소.》

와씰리는 정찰병들을 집합시키러 갔다. 쁘로레뜨낀과 로가찐은 그앞에 로획물을 가져다놓았다. 그것은 부상당한 도이췰란드놈이였다.

감시소로 돌아온 와씰리는 련대장에게 자기 소대의 행동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하였다. 련대장은 비로소 그날에야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고 생각되였다.

《참 장하오! 참모장동무, 포로를 심문하시오.》

포로는 정찰병들이 휴식하고있는 골짜기근처에 있었다. 노끈에 묶인 포로는 노기등등해있었지만 웬일인지 꼴로꼴리쩨브가 나타나자 눈을 내리감았다. 그는 포로에게 몇가지 질문을 들이댔다. 포로는 눈을 감은채 입을 다물고 외면하였다.

《개자식, 말하지 않겠어?》로가찐이 성이 나서 말하였다.

《몹시 놀라서 그러겠지, 이젠 끝장이라구 생각할텐데.》쁘로레뜨낀이 예측해서 말하였다.

《정말이지 나는 이놈하구 말할 필요가 없소.》꼴로꼴리쩨브가 조용히 말하면서 포로의 호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여 훑어보았다. 말하지 않아도 모든것이 명백하였다. 포로는 여기서 철수했던 바로 76련대에 소속된자였다. 놈들이 되돌아선것이 틀림없다.

꼴로꼴리쩨브는 알아낸 자료를 가지고 련대장을 기쁘게 해주려고 다시금 감시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기쁜 마음에 피로움과 불안한 생각이 저절로 뒤섞이였다. 그렇다. 그들은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끝내 적의 예비대를 자기네한테로 끌어냈다. 그러나 놈들을 무엇으로 견제한단말인가. 무력해진 중대들은 차지한 진지를 고수해내지 못하고있다.

벌써 두주야째나 련대는 우세한 적의 력량을 물리치며 서서히 뒤

로 물러서고있었다. 와씰리는 쌍안경으로 전투마당에서 이미 경탄을 자아냈던 그곳을 유심히 살피면서 (누가 거기서 치고있는가. …)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적의 반공격은 그치지 않았다. 놈들이 아군의 전호에 가까스로 접근해오자 놈들에게 기관총집중사격을 퍼부었다. 그들앞에는 난데없이 재빛외투와 양털반외투를 입은 놈들이 나타났다.

나흘째나 보병은 잠도 잊고 혹한속에서 적들과 싸우고있었다. 이따금 감시소에서는 목이 쉬였지만 여전히 우렁찬 가르부즈의 목소리가 울려왔다. 가르부즈는 전화로 사단에 보고하고있었다.

《전사 나쉐낀은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총탄을 재워 전우들에게 주고있습니다. 기관총수 예프레모브는 부상당한 몸이지만 정확한 사격으로 중대의 익측을 엄호하고있습니다.》

《내 친구 예프레모브가 모범을 보이는구나.》하고 와씰리는 만족스럽게 생각하였다. (아직 살아있군. 다른 동무들은 어떻게 되였을가?)

정찰병들이 낮에 그 어디에 가있건 주마첸꼬사관장은 두번씩이나 그들을 따라 보온병을 가지고 기여다니였다. 구수한 냄새가 풍기는 따끈따끈한 죽을 대접하고 규정대로 백그람씩 부어주었다. 그리고 정찰병들이 자기 몫을 마시는동안 그들을 동정심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나흘째 되는 날에는 사람들이 완전히 힘이 진하여 허우적거리고있었다. 그리하여 련대는 이전에 공격을 시작했던 옛진지에 다시 주저앉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놈들이 아무리 기를 쓰고 달려들어도 갈길은 막히였다. 하는수없이 놈들은 밤중에 중립지대를 떠나 반나마 허물어진 자기의 엄폐부로 철수하고말았다.

련대장 까라바예브는 맥없이 입을 열었다.

《일은 계획대로 했으니 이제는 꼭 지탱해내야 하오. 한걸음도 뒤로 물러설수 없소.》

까라바예브는 포대경에 이마를 대고 그만 잠들어버렸다. 참모장 꼴로꼴리쩨브는 대대들에 지시를 주어 수비대책을 세우며 정찰을 조

직하도록 하였다.
다른 전화기옆에서는 정치위원 가르부즈가 갈린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일이 다 끝났지만 정치위원만은 아직도 모범전투원들과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보고를 쓰고 모두가 제대로 먹었는지, 전투원들의 휴식이 제대로 보장되는지를 검열할 일이 남아있었다.
그러는사이에 정찰병들이 자기의 정든 엄페부로 돌아왔다. 사관장이 뜨뜻이 덥혀놓고 알뜰하게 정돈해놓은 엄페부는 그들에게 있어서 고향집처럼 생각되였다. 훈훈하고 환한 엄페부의 식탁에는 흘레브와 고기국을 섞어서 만든 따끈한 죽그릇이 놓여있었으며 바께쯔에는 눈물같이 맑은 물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천복을 다 누릴 힘이 없었다. 그래서 천천히 옷을 벗고 세수를 하고는 식탁에 마주앉았지만 당장 드러누워 눈을 감고 자고 또 자고싶은 생각만이 간절하였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잠간 드러누울 짬마저 주지 않았다. 참모부에서 달려온 련락병은 참모장이 와씰리를 부른다고 하였다. 지쳐서 얼굴색이 컴컴한 재빛으로 변한 참모장은 와씰리의 얼굴을 동정어린 시선으로 쳐다보면서 부드럽게 말하였다.
《동무는 련대가 지금 어떤 지경에 처해있는지 모르지는 않겠지? 모두가 기진맥진했소. 그러니 소대를 세조로 갈라 량익측과 중앙으로 해서 중립지대로 진출시켜야 하겠소. 도이췰란드놈들의 철조망밑까지 바싹 접근하시오. 그것은 놈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않던 일을 꾸미지 못하도록 하자는거요. 알겠소? 잠은 래일 자도록 하시오. 어서 가서 행동하시오. 서둘러야겠소.》 참모장은 이상야릇한 미소를 지으면서 와씰리를 손짓으로 불러 확신성있게 말하였다. 《쓰딸린그라드부근에서 아군이 공격에로 넘어갔소. 방송에서 그렇게 보도했소.》
순간 와씰리는 묵직한 짐을 벗어놓은듯싶었다. 그러나 여전히 육체적인 피로는 풀수 없었다. 무슨 씨원한 바람이 마음속으로 가볍게 스쳐지나가는것 같았다. 《그래서 우리앞에 있는 도이췰란드놈들이 잠잠해있군.》
엄페부로 돌아오는 길에 와씰리는 (이 새 소식을 가지고 대원들에

게 직접 이야기해주자. 기쁜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것이다.)라고 생각하였다.

엄폐부에 다가선 와씰리는 골로샤뽀브의 새된 목소리를 엿들었다. 누구와 론쟁하고있었다.

《자넨 특수한 존재가 못돼. 뭐니뭐니 해도 우리야 제일 보잘것없는 병마개에 불과하지 않아. 남들은 다 방어선에서 휴식하는데 정찰병은 〈혀〉를 잡으러 가구 보병은 드러누워있는데 자네보구 그들을 공격에로 일떠세우라구 하지. 어디에서 도이췰란드놈들이 덤벼들면 정찰병을 보구 당장 위험에서 구출하라구 하니말이야.》

《바로 그걸 보구 우리가 특수하다는거야.》뻐로레뜨낀이 반박해나섰다. 《누구도 그렇게 할수 없지만 자네만은 그런 일을 할수 있지 않나.》

《만일 나하구 자네가 강철로 만들어지구 총알이 우리를 피해 달아난다면 더 말하지 않겠어. 그렇지만 우리 목숨두 다른 사람들처럼 한개밖에는 안되거든.》골로샤뽀브가 수그러들지 않았다.

와씰리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모두가 구령을 치기나 한듯 잠에 취해 흐리멍텅한 얼굴을 쳐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임무가 내려진게 아닐가.》하고 대원들은 침울해서 기다렸다. 그들은 일어설 힘이 없는것 같았다.

《동무들, 아군이 쓰딸린그라드부근에서 공격에로 넘어갔소.》와씰리는 기쁨어린 쟁쟁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삽시에 그들의 얼굴에서는 피로가 영영 사라진듯했다. 정찰병들은 움찔움찔 하면서 미소를 짓기도 하고 명랑해지면서 왁자지껄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이 결코 헛된것이 아니였소.》

《쓰딸린그라드사람들이 잘 싸웠소.》

《그들은 우리보다 몇갑절 어려웠을거요.》

와씰리는 동안을 두었다가 계속하였다.

《동무들, 차비하시오, 우리한테 또 새로운 전투임무가 제기됐소. 말하자면 힘들면서도 보람있는 일이요.》

《또 특수임무인가요?》골로샤뽀브가 능글맞게 실눈을 지으며 물

었다.
《그렇소. 지금 련대모두가 잠을 자고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지켜내야 하오. 만일 우리가 편히 잠을 자게 되면 도이췰란드놈들이 련대를 들이칠텐데 그때엔 우리를 총살할것이요. 이것이 골로샤뽀브동무한테 알맞는 일이요.》
《저한테 적절합니다. 그런 새 소식을 들으니 얼마든지 해낼만 하지요. 내 턱밑에 칼을 박아놓아 잠이 오지 않게 하겠습니다.》 골로샤뽀브가 건방지게 굴었다.
와씰리는 끄노쁠레브를 조장으로 하여 몇명의 정찰병들을 우익으로 보내고 좌익에는 로가찐이 지휘하는 다른 조를 보냈다. 그리고 자신은 중간구역을 맡았다.
도이췰란드놈들의 장애물까지 접근하는동안은 모두들 정신이 몽롱해졌다. 웅뎅이에 들어간 그들은 단번에 취해 넘어졌다. 서로 밀치고 당기기도 하고 얼굴에 찬물을 문지르기도 하며 맨바닥에 엎디여 차례로 담배도 피워보았지만 도움이 될것은 전혀 없었다. 와씰리는 피멍이 지도록 입술을 깨물어보았다. 그래도 여전히 졸음에 못이겨 머리를 끄덕이면서 눈을 뜨지 못하였다. 와씰리는 언젠가 《사형집행자》라는 옛말을 읽으면서 사람을 고문하여 잠을 재우지 않던 대목을 생각했다. 그리하여 이틀째나 고문을 당한 그 사람은 의지가 약하여 사흘째나 되는 날에는 그만 완전히 의식을 잃고말았던 것이다.
《우리는 닷새째나 자지 못했는데 이렇게 견디여 제 정신을 가지고 싸우고있지 않는가.》
하고 와씰리는 감탄해마지 않았다.
오늘은 와씰리의 일생에서 제일 길고 긴 밤이였다. 그러니 이 밤은 모든 정찰병들에게도 그렇게 보였을것이다. 아침에 깨나보니 대원들의 얼굴에는 온통 성에가 끼여 몰라보게 되였다. 꽁꽁 얼어서 시퍼래진 그들은 겨우 옴지락거리였다.
꽛꽛해진 다리를 끌고 돌아오는 길에 와씰리는 (이전에는 잠을 못자는것이 《혀》를 잡는 일보다 더 힘들며 당장 죽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한적이 한번도 없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하였다. 엄페부앞에서

는 또 참모부련락병이 와서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와씰리는 하마트면 절망에 싸여 눈을 치뜰번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누구도 아무데서도 그를 부르지 않았다. 련락병은 신문만을 가져다주었다.
《정치위원동지가 당신에게 가져다주라고 해서…》
와씰리는 엄페부에 들어가서 자동총을 걸어놓고 양철판처럼 뻣뻣해서 꾸겨지지 않은 신문을 마지못해 가까스로 펼쳐들었다. 《결정적시각에 쓰딸린그라드구역에서 아군의 성과적인 공격》이라는 제목에 주의를 돌렸다.
그 제목아래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게재되였다.
《쓰딸린그라드로 들어가는 도로들에 배치된 아군부대들은 최근에 파시스트도이췰란드군에 대한 공격에로 넘어갔다. 공격은 쓰딸린그라드의 서북쪽과 남쪽 두개 방향에서 시작되였다.》
와씰리의 사색은 헝클어지고말았다. 짙은 안개속에서와 같이 이런 문장이 어슴푸레하게 보였다. 《60～70키로나 전진했다. …까라츠시와 아브가네로브시가 장악되였다. …두개의 철도가 절단되였다. …사흘동안의 전투에서 1만 3천명을 포로했다. 전투마당에는 1만 4천명이상의 사상자가 있었다.…》
와씰리의 눈은 저절로 감기였다. 이제는 보지도 느끼지도 못하면서 비스듬히 기대여 자고있었다. 사관장 주마첸꼬와 로가찐이 그를 부축하여 다락에 눕히였다.
《녹초가 됐군.》
로가찐이 머리를 흔들면서 자신도 죽은 사람처럼 와씰리곁에 와서 쓰러졌다.
주마첸꼬는 엄페부안을 빙 둘러보면서 무시무시한 생각이 들었다. 마치 흰눈우에서처럼 정찰병들이 쥐죽은듯 되는대로 여기저기에 드러누워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죽은 사람 못지 않게 파리해지고 창백해진데다가 머리털은 꼿꼿했다.
식탁에는 빵쪼각이 불룩하게 솟아있고 흰사탕가루통이 있었다. 솥에 있는 죽에서는 흰 김이 가볍게 떠올랐다. 그러나 그것을 입에 대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또 며칠이 지나갔다. 쓰딸린그라드부근에서는 적의 대부대를 성공적으로 포위하였다. 와씰리는 완전한 호의를 가지고 자기에게 미소를 던지는 도이췰란드놈을 난생 처음 보았다. 이것은 이러한 정황에서 있은 일이였다.

정찰병들이 당면한 야간정찰임무를 받고 길을 떠났다. 아군의 전호와 적진을 갈라놓는 거리의 절반쯤 기여갔을 때였다. 갑자기 그들앞에는 진짜 땅밑에서 솟아나오듯 도이췰란드병사가 우뚝 나타나서 나직하게 기뻐서 웨쳤다.

《히틀러가 망했소!》

손을 쳐든 컴컴한 그림자는 어슴푸레한 하늘을 배경으로 류달리 웅장해보였다. 그 도이췰란드놈이 던진 말투는 그닥 익숙되지 못했다. 와씰리는 처음에 글자 그대로 히틀러가 죽었다고 리해했다.
(혹 폭격에 죽었을가?)

《히틀러가 죽었소. 난 포로가 되겠소. 포로말이요.》

(도대체 웬일인가? 스스로 포로가 되겠다니?) 그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무슨 꿍꿍이가 있는게 아닐가 하는 위구심에 사로잡힌 와씰리는 투항자를 만나기전에 도이췰란드말로 엄하게 구령을 쳤다.

《섯, 꼼짝말앗! 손들엇!》

도이췰란드놈은 리해했다는듯 아군의 전호쪽으로 순순히 걸어왔다. 전호에 들어서자 정말 다정한 기분으로 와씰리에게 미소를 던지였다.

률렌꼬브대위가 투항자를 심문하였다. 심문조서는 와씰리가 꾸몄다. 참모장 꼴로꼴리쩨브는 약간 떨어진 곳에 앉아서 자기 일을 하고있었다.

와씰리앞에는 도이췰란드놈의 대답만을 적은 규격용지가 놓여있었다.

이름 《마틴 쩨이너르》

난날 《1916년》

난곳 《드레즈덴》

지식정도 《중졸》

입대전 직업 《교원》
군사칭호와 직무 《현재는 전사임, 얼마전에 사관장으로 되였음. 포로수용소 경비대에 있었음. 거기에서 당신들편으로 넘어오기로 결심했음. 위수사령관 페터에게 고의적으로 무례한 언사를 던짐으로써 전사로 강직되여 내가 바라던대로 최전선에 파송되였음.…》
쩨이너르는 눈섭이 거멓고 가느스름한데다가 눈은 생기를 띠고 머리카락은 실오리처럼 깨끗하게 빗어서 가리마를 냈다. 그를 믿을만했다. 그는 심문할 때마다 목에 매달리면서 《장교나리!》, 《옳습니다, 장교나리!》라고 한가지 대답만을 되풀이하는 거치른 병정놈들과는 전혀 달랐다. 게다가 그는 《저는 작은 사람인데요》, 《저의 임무는 명령을 집행하는것입니다.》라고 교활하게 굽신거리던 놈들과 비슷하지도 않았다. 그는 모든 이야기를 자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애매한데가 없이 정확히 엮어나갔다.
《수용소에는 어떤 사람들이 갇혀있었소?》
《규정대로 하면 포로병들만을 수용했어야 하는데 사민들도 있었지요. 사민들이 많았습니다.》
《수용소는 어디에 있소?》
《뱌지마에서 멀지 않습니다.》
《거기에 몇사람이나 갇혀있소?》
《제가 도착했을 때는 철조망안에 2만명가량은 잘 있었습니다.》
《당신은 고정적으로 경비를 섰소?》
《당신들이 공격을 개시하기전에 30명으로 된 집단에 저를 배속시켜 거기로 보냈는데 우리는 포로들을 후방으로 깊숙이 압송해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수용소에서 포로들을 몇명이나 어디로 끌고갔소?》
《천오십명을 슈몰렌스로 데려갔습니다.》
《그 도시는 어데 있소? 도이췰란드에 있소?》
《아니, 아닙니다. 그건 당신들의 도시인데…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슈몰렌스라고 하지요.》
《스몰렌스크라고 말하는거요.》 꼴로꼴리쩨브가 문건을 들여다보면서 해명했다.

《왜서 당신은 천오십명만 데려갔소? 나머지는 어디에 가있소?》
《나머지는 갈수 없었습니다. 특히는 녀인들과 늙은이들 그리구 부상자들이였으니깐요. 그들은 철조망안에 갇혀있었습니다.》 쩨이너르는 잠시 말이 없더니 흥분하면서 매몰스럽게 털어놓았다. 《수용소경비대가 그들을 죽였습니다. 제가 직접 그것을 봤지요. 그때 그런 저주로운 일이 저를 위한게 아니라는것을 깨달았습니다. 경비대가 우리와 같이 떠나갔는데 그들이 바로 그곳을 차지했지요. 우리는 슈몰렌스로 3천명만 데려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만 2천명은 어데로 갔소?》
《사람들은 기진맥진해서 힘을 가다듬으며 서있다가는 땅에 넘어지군했지요. 그러면 그들을 총탁으로 때리구 쏘아죽였습니다.》
《대렬에서 탈주하는 경우는 없었소?》
《네, 있었습니다. 한번은 여라문명이 호송원에게 달려들더니 그를 돌로 까서 죽이고 자동총을 빼앗아들고 수림속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일곱명이 붙잡혀서 대렬이 움직여가고있는 길가로 끌려왔더군요. 그들에게 개를 풀어놓아 물어뜯게 했습니다. 개들은 그들모두가 보는데서 물어뜯었지요. 도망친 사람들이 속한 조에서 매 다섯번째 사람들이 총살당했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였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차례로 번호를 부르라. 5번들은 20보 앞으로 나오라. 가운데로 모엿! 사격!〉 이를테면 나머지 사람들에게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생기는 경우에 그렇게 죽인다는것을 예고해준거지요. 위수사령관 페터는 경비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로병들과 체포된자들은 될수록 줄여야 한다. 그래야 당신들의 안해와 어머니들에게 먹을것이 더 많이 차례진다. 이 짐승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라. 이놈들 입에 풀칠을 한다고 해도 모든것을 다 먹어치울수 있다.〉》
와씰리는 기분이 나빠 심문장에서 나왔다. 그는 쩨이너르가 말한 모든것을 신문에서 여러번 읽었던것이다. 게다가 자신이 직접 해방된 마을에서 희생된 녀인들과 어린이들을 여러번 목격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에게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혹시 그 사람들이 폭격이나 포격에 아니면 눈먼 총알에 우연히 맞아죽을수 있지 않는가? 와씰리는 그 도이췰란드놈을 심문한 후에야 강점자

들이 무방비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소멸하고있다는것을 확신하였다. (포로병이 증견자다. 그러니 그에게는 과장할 필요가 없다. 무엇을 감출수도 있으며 줄여서 말할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도 강점자인만큼 과장할수도 없는것이다.)

계속하여 와씰리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 (생활이란 참으로 이상하게 벌어지고있다. 바로 우리로부터 불과 몇백메터도 안되는 가까운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법과 다른 질서를 가지고있으니. 우리한테서는 모든 생활이 좋게, 정확히 법적으로 진행되고있는데 저기서는 반대로 적의를 품고 비난받을 일만 하고 비법적으로 행동하고있다. 우리와 그놈들사이에는 낭떠러지나 저 하늘까지 가로막는 장벽도 없지 않는가. 그런데 한땅덩어리에 같이 앉아서 서로 죽이고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놈들을 죽이는것은 그들이 미친개이고 식인종들이기때문이다. 만일 그놈들의 손발을 얽어매놓지 않으면 온 강토에 쩨이너르가 말하던 그러한 질서가 횡행할것이 아닌가. 도대체 그들은 어떤 놈들인가? 어떻게 놈들이 20세기의 야수로 태여났을가? 바로 도이칠란드사람인 마틴 쩨이너르도 환멸을 느끼지 않는가. 그는 모든것을 깨닫고 자진하여 우리에게로 넘어왔다. 그런데 언제 깨달았는가? 쓰딸린그라드격전이 있은 후일가? 사람이 자신을 완전히 리해하자면 정말 오래동안 많은 체험을 해야만 하는가?)

× ×

률렌꼬브대위는 도이칠란드포로병들을 《광신자》와 《사려깊은자》 그리고 《우유부단한자》로 갈라보았다.

광신자들이 전쟁초기에는 우세하였다. 그들은 심문할 때마다 《하일 히틀러!》하고 소리치면서 대도이칠란드제국이 로씨야를 점령하게 되면 모두를 목매달아죽이겠다고 으르렁거리였다.

률렌꼬브는 모스크바부근에서 아군이 승리를 거둔 후에 처음으로 《사려깊은자》들과 맞다들었다. 그들은 심문중에 속이 타서 머리를 흔들면서 공손한 태도를 보이였다.

쓰딸린그라드부근에서 제6군이 괴멸된 후에 《우유부단한자》들

이 부지기수로 늘어났다. 그러한 축에 속하는 포로들은 쩔쩔매면서 알랑거리며 임의의 계획된 허위보다도 더 과장하여 허튼 소리를 꾸며댔던것이다.

률렌꼬브는 《우유부단한자》들을 달가와하지 않았다.

률렌꼬브는 자기의 독특한 심문방법을 점차적으로 거의나 무르익혀갔다.

그는 《당신의 이름은?》하고 질문을 들이대고는 첫 물음에 대한 대답을 통하여 포로의 반응을 살피면서 자기 앞에 있는놈이 《광신자》인가 《사려깊은자》인가 아니면 《우유부단한자》인가를 즉시에 판단하였다.

방금 와씰리가 잡아온 《혀》는 처음에는 어리무던하게 행동하였다. 첫번째 질문을 들은 그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이렇다하게 비굴한 태도가 없이 대답하였다.

《전사 프란쯔 지흐터입니다.》

《당신이 속한 부대번호는?》

포로는 머뭇거리다가 군사비밀을 물어봐서 그런지 군인다운 자세를 잃었다. 그는 뒤에 누가 서서 때리는것 같아 두리번거리였다.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어서 말하시오.》률렌꼬브가 엄하게 재촉하였다.

《저는 197사단 332련대 2대대 5보병중대에 속해있습니다.》활기없는 대답이였다.

《당신네 련대의 임무는?》

포로는 어깨를 으쓱했다.

《저는 전사입니다. 련대의 임무는 모릅니다.》

《당신네 중대는 뭘하게?》

《방어를 하게 되여있습니다.》

률렌꼬브는 지흐터가 무엇인가를 채 말하지 않는 인상을 받았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방어를 하구 또 뭘하오?》

《얼마전에 들은 소문에 의하면 방어진을 정리하구 그와 동시에 우리는 새로운 계선으로 철수하게 된다구 합디다.》

《그 계선은 어데 있소? 언제 철수하게 돼있소?》률렌꼬브는 연거

펴 질문을 들이대면서 포로를 책상에 펴놓은 지도쪽으로 불렀다.
《저는 지도를 볼줄 모릅니다.》포로가 망설이였다.
《여기를 보시오!》률렌꼬브가 명령하였다. 《지금 당신네 중대가 여기에 와있소. 그리구 바로 여기가 당신네 련대참모부요. 이것은 강이구. 그러니 당신네는 어디로 철수해야 하오?》
《모르겠습니다. 장교님. 저는 기관총직일을 서면서 그저 말하는걸 엿들었을뿐입니다.》
《전혀 모르겠소? 아니면 말하지 않겠다는거요? 어느쪽이요?》률렌꼬브가 어성을 약간 높여 다그쳤다.
《대위동지. 그만두십시오.》와씰리가 불쑥 참견하였다. 《그놈은 완전히 공포에 휩싸여있습니다.》
률렌꼬브는 성을 내면서 단호히 말문을 막았다.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시오.》그러나 인차 누그러들면서 상관의 위치에서 《당신》이라고 하던것을 평소에 하던대로 《자네》라고 불렀다.《도무지 리해되지 않는구만. 자네가 거기서 어떻게 포로를 다 잡아왔는지? 부자집 외딸같은게…》
《거기서야 그놈도 총을 잡구 우리도 총을 잡았으니 다 동등하지 않습니까?》
《정말 무사다운 사람이요.》
와씰리는 론박하지 못하였다. 자신도 그가 옳은지 나쁜지 분간하지 못하였다. 방어할 힘이 없는 놈을 관대하게 대한다고 나쁠것은 없지 않는가. 그러나 지금 와씰리는 자기앞에서 따냐를 괴롭히던 놈들중에서 한놈을 보았다. 프란쯔는 197보병사단에서 온 놈이다.
(내가 그놈의 손아귀에 걸려들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고 와씰리는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그놈은 나에게 아무런 례절도 차리지 않았을것이다. 그런데 우리 로씨야사람들은 약한자를 언제나 동정하며 악에 대해서 그다지 오래 새겨두지 않는것 같다. 우리의 원쑤들에게는 이것이 마음에 들것이다.
그러나 우리자신에게는 이러한 온순한 성격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가?)

포로는 로씨야군관들사이에 무슨 화해되지 않는 일이 있음을 눈치채고 의자에 앉아 불안스러워서 안절부절 못하였다. 그러나 의견상이는 어느새 사라지고말았다. 대위는 《사려깊은자》와 관계되는 문제를 확정할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만일 그렇다면 심문을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와씰리의 생각이 옳은것이다. 즉 포로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어서는 안된다.

률렌꼬브대위는 프란쯔 지흐터한테서 압수하여 심문을 시작하기전에 세밀히 조사된 편지와 사진을 거의 기계적으로 차례로 만지작거리였다.

《그러니까 당신은 진실을 말하지 않겠다는거요?》이제는 률렌꼬브가 자기 질문을 다른 방법으로 들이댔다. 《그러면 당신의 어머니가 쓴 편지를 가지시오. 다시한번 읽으면서 어머니가 당신에게 한 말을 생각해보시오.》

프란쯔는 쓸쓸하게 미소를 지으며 낯익은 편지를 슬슬 읽어내려갔다.

《사랑하는 프란쯔야!

우리는 무서운 불행을 겪었다. 나는 아들을 잃었단다. 너는 맏형이 아니냐? 우리의 귀여운 헨리흐는 이 세상에 더는 없다! 옹근 한달동안 그한테서 편지가 안왔다. 그러다가 이제야 소식이 날아왔는데 글쎄 헨리흐가 뻬쩨르부르그부근에서 죽었다질 않겠니. 이 참혹한 전쟁은 우리의 모든 생활을 파괴하구 망쳐버리게 했다. 듣자니까 라지오로 새로운 승리를 알리는데 우리 군대가 도시 한개를 또 점령했다구 하더라. 그래 나를 위로하려는거겠지. 그렇지만 남의 나라 도시가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는가말이다. 나에게 나의 헨리흐를 돌려보내주게 해다오. 이제는 나한테 너밖에 남은게 없다. 그러나 갑자기 너를 또 무슨 도시를 점령하러 보내게 되면 너두 거기서 헨리흐처럼 죽을수 있지 않겠니.… 우리 라이프찌히에는 불구자가 수없이 생겨났다. 다리없는 사람, 팔이 떨어져나간 사람… 언젠가 내가 너를 감기걸릴가봐 애쓰던 일이 지금 생각난다. 그러니 너한테 손발이 없어도 일없다. 오직 네가 목숨만이라도 붙어서 그 저주로운 전쟁마당에서 벗어났으면 한다.…》

《아마 어머니는 기뻐할게요. 당신이 죽지 않구 포로가 됐으니. 지

금은 당신이 죽지 않구 살아있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게 됐소.》 대위가 말하였다.
《네, 고맙습니다.…》 프란쯔가 말을 머뭇거리였다.
률렌꼬브는 끝맺지 못한 그 말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것임을 포착하였다.
《바로 당신이 우리에게 사의를 표했으니 이제는 우리를 도와줘야 하지 않겠소.》 률렌꼬브가 계속하였다. 《그러니 좀 생각해보시오. 뭘 도울게 없겠는지? 당신의 친구들이 살아남자면 전쟁이 빨리 끝나게 해야지 않겠소. 다른 편지에서 어머니가 당신에게 한 말을 읽어보시오.》 률렌꼬브는 포로에게 1941년 7월이라고 쓴 편지를 주었다.
《나의 귀여운 프란쯔야! 나는 너희들의 승리에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매일과 같이 신문들에는 너희들이 장악한 도시이름이 길게 소개되고있단다. 이것은 오직 우리와 같은 대군만이 감당할수 있는 일이다. 헨리흐가 자기 사진을 찍어보내왔다. 그 애가 잘 번졌드라. 나한테 그런 끌끌한 아들이 있다는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포로의 손에 쥐여진 편지가 바르르 떨리였다. 프란쯔는 놀란 시선으로 률렌꼬브를 바라보면서 《때가 됐군.》 하고 결심하였다. 그러나 외적으로는 다르게 표현했다.
《내가 당신에게 준 편지는 그것이 아닌데.》
《네, 네, 그것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오랜 편집니다.》 프란쯔가 확인하고 책상에 편지를 올려놓았다.
률렌꼬브는 날자를 읽어보았다.
《그닥 오랜 편지는 아니요. 2년전에 쓴것이군.》
포로는 고개를 숙이였다. 그는 대위를 충분히 리해하고 쓸쓸하게 한숨을 지었다.
《불쌍한 헨리흐야…》
그러자 즉시 결연히 일어서더니 지도가 있는 책상앞으로 다가갔다.
《래일밤에 우리 대대의 주력이 바로 이 길을 따라 강을 건너 철수합니다.》 프란쯔는 지도에서 도로와 강과 새로운 방어계선을 짚어갔다.
그는 지형을 정확히 판단하였다. 《지금 우리 련대가 있는 곳에는

대대들에서 한개 소대씩 선발한 엄호대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소대가 엄호대로 지정되였기때문에 그것을 잘 압니다. 여기에 남아있는 모든 력량은 사격을 많이 하면서 외견상 정세가 조금도 변한것이 없으며 종전력량이 방어진을 그대로 견제하고있다는 겉치레를 하고있을뿐입니다.》

《참 훌륭한 정보요. 나는 당신한테서 더 바랄게 없소. 그렇지만…》룰렌꼬브는 프란쯔에게 도이췰란드병사들과 장교들의 단체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귀틀집옆에 서서 침울하게 사진기를 바라보며 찍었다. 《이 사람들중에서 누구든지 아는 사람이 없소? 그들은 당신네 197사단 동료들이겠는데.》

프란쯔는 한참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머리를 가로저었다.

《없습니다.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룰렌꼬브는 그에게 다른 사진을 주었다. 거기에도 역시 같은 사람들이였다. 그러나 측면으로 교수대가 선명하게 보이였다. 누군가 흰옷을 입고 올가미에 매달려있었다. 그는 《따냐》였다. 조야 꼬스모제미얀쓰까야…

프란쯔는 옆으로 슬쩍 물러섰다. 아마 《나리님,내가 첫번째 사진에서 아는 사람이 없는게 얼마나 다행입니까.》라고 생각하는것 같았다.

룰렌꼬브는 포로를 인차 진정시키였다.

《우리는 그 모든 비극을 죄다 알고있소. 사형된 처녀의 이름은 무엇이며 교형리는 누구며 어디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를 잘 알고있소. 내 동무가 (그는 와씰리쪽으로 머리를 기웃했다.) 한가지 문제만을 알고싶어하는데 만일 당신이 그 마을에 우연히 들렸다든가 아니면 젊은 빨찌산처녀한테 풀색나는 뜨개장갑이 있었다고 하는데 생각나지 않는가말이요.》

《저는 그런걸 들은적이 없습니다.》프란쯔는 위구심에서 다시한번 사진을 힐끔 쳐다보고 자기 버릇대로 론리적인 판단에 이렇게 보태였다. 《그 처녀는 속치마만 입구 매달려있었는데 어떻게 그 처녀에게 장갑이 있을수 있겠습니까?》

《당신네 병정들이 그 처녀의 옷을 발가벗기고 신발도 빼앗아 맨발

로 눈우로 끌고다녔소. 그렇게 하기전만 해도 그 처녀는 옷을 입고 있었소. 그래서 우리는 그 처녀한테 바로 그 풀색나는 장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는것을 알아보자구 했소.》

《제발 저를 믿으십시오, 장교님.》 포로가 애원하기 시작했다. 《저는 사형문제와 아무런 인연이 없습니다.》

포로를 사단참모부로 보냈다. 련대는 적을 추격할 준비를 하고있었다. 꼴로꼴리쩨브는 와씰리를 불러서 명령을 주었다.

《동무는 다른 사람들을 앞질러 도이췰란드놈들을 뒤따르시오. 대대들이 전선에서 조여들게 되면 즉시 중심으로 뚫고들어가 정찰을 진행하시오. 특히 적의 중간계선에 지뢰마당이 없는가, 다리와 도로들의 상태는 어떠한가를 잘 살피시오.》

와씰리는 률렌꼬브와 함께 참모장의 엄페부에서 나왔다. 률렌꼬브는 그에게 이렇게 충고를 주었다.

《와씰리, 대대들이 공격하기를 기다리지 마시오. 적후에는 공격이 시작되기 직전에 들어가는것이 더 좋겠소. 교차사격이 진행되면 손실을 입을수 있소.》

와씰리는 그 말에 동감을 가지였다. 만일 도이췰란드놈들이 여기에 엄호대만 떨군다면 뚫고들어가기는 힘들지 않을것이다.

《나는 소대 전체를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와씰리가 말하였다. 《만약 경우를 생각해서 당신에게 중사를 비롯한 정찰병을 몇명 남기겠습니다.》

《옳소.》 률렌꼬브가 찬성하였다. 《주마첸꼬도 거기서는 더는 할일이 없겠는데 그더러 자기의 가산을 걷어가지구 참모부로 오라구 하시오. 겸사겸사해서 그곳에 련대참모부자리도 골라보시오. 우리도 여기 오래 지체하지는 않겠소. 그런 일을 위해서 공병들이 동무를 도와주도록 하겠소.》

《예삐파노브중사의 소대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하구 같이 일해본적이 있으니까.》

《됐소, 예삐파노브를 붙여주겠소.》 률렌꼬브가 약속하였다. 그는 마음속으로 와씰리의 성공과 영예를 시기심을 가지고 대해왔다.

오늘의 군무상 처지로 하여 자신이 임무수행에 직접 나서서 다니

지 못하는것을 못내 서운해하였다. 그 젊은 청년이 하는 모든 일이 그렇게 잘돼가는데 자기도 정찰에 보다 조예가 깊은 사람으로서 일이 더 잘될것이라고 믿었던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와씰리를 할수 있는껏 도와주었다.

공병으로 증강된 와씰리의 소대는 밤에 일선전호에 당도하였다. 물론 까자꼬브의 중대가 위치하고있는 곳이였다. 거기서는 벌써 진격할 만단의 준비를 다 갖추고있었다. 전사들은 허리춤에 묵직한 수류탄들을 달아매고 잔등에는 《사과술》통을 지고 어깨에는 자질구레한 세간살이를 빼곡이 채워넣은 방독면주머니를 메고 안타깝게 신호가 내리기를 기다리고있었다. 추격을 한다고 하여 포병화력의 지원을 받으면서 적의 기관총을 맞받아나가야 하는 그러한 영구방어진을 돌파하는것도 아니다. 여기서는 엄호대와 충돌하는 일밖에 없다.

까자꼬브는 와씰리를 못내 부러워했다.

《동무는 자유로운 새처럼 가고픈대로 다 가보지 않소. 부끄럽게도 나는 그렇지 못하단말이요. 보다싶이 오른쪽도 경계선이요, 왼쪽도 경계선인데다가 그 계선으로 10시 00분에 진출했다가 5시 00분에 다시 돌아와야 하질 않겠소.》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높은 상관이 된셈이지요.》 와씰리는 롱담조로 말하였다.

까자꼬브는 롱담을 외면하고 정색해서 말하였다.

《여보게 와씰리, 만일 동무가 잡은 도이췰란드놈이 허풍을 쳤다면 어떻게 하겠소? 그리구 그곳에서 엄호대가 아니라 진짜 주력과 맞다든다면?》

《그렇게 될수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도이췰란드놈이 진실을 말했다구 보는데요.》

《정찰병의 격언을 모르오? 검토하고 검토하고 또 검토하라!》

《그래서 검토한거지요. 만일 적의 주력과 조우하게 되면 온 련대에 알리겠습니다.》

《동무는 소대장이니까 경솔하게 단번에 추측하지 말고 처음에 척후병을 보내서 냄새를 맡아봐야 하오. …》 까자꼬브는 놈들의 기관총소리에 귀를 기울이였다. 《불안해서 쏘아대는것 같군. 엄호대가

공연한 열성을 내고있소.》
《제 생각엔 오늘 사격이 많아질것 같습니다.》 예삐파노브가 말하였다.
까자끄브는 그를 쳐다보면서 조용히 충고를 주었다.
《중사동무는 그런 일을 념려하지 말구 발밑이나 주의깊게 살피시오. 도이췰란드놈들이 퇴각하면서 교활하게 함정을 만들어놓을수 있으니까. 기억나지만 어느 마을에서는말이요, 한 전사가 글쎄 계단밑에 지뢰를 매설한줄도 모르고 지붕밑으로 달려들었다가 그만 폭발하지 않았겠소. 다른 집에서는 도이췰란드놈들이 문에다 지뢰를 비끄러매놓아 창문으로 해서 문을 열다가 터진 일이 있었소. 그러니 주의깊게 살피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삐파노브가 확신성있게 대답하였다.
《자, 그럼 동무들, 갑시다.》 까자끄브가 재촉하였다.
《그런데 당신은 어디로 가자구 그럽니까?》 와씰리는 놀랐다.
《나는 동무들을 도이췰란드놈들의 일선전호까지 안내해주겠소. 나도 동무들이 제대로 통과했는지 못했는지 하는것을 알아야 할게 아니요. 그곳에 특별히 내가 관심을 가지는 좋은 골짜기가 있소. 옛 친구로서 다시 도와주자구 그러오.》
《저런, 까라바예브가 알게 되면 또 혼쌀이 날라구.》
까자끄브는 곧 모두를 데리고 수풀이 무성한 컴컴한 골짜기로 나가면서 와씰리에게 소곤거리였다.
《여기는 지뢰가 없소. 내가 검열해본 곳이요.》
그는 소원을 풀어볼가 하여 밤이면 여기로 왔다간지 여러번 되는것 같았다.
까자끄브는 직접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였다.
《례컨대 한증탕에서 목욕채로 자신을 한창 후려치구나면 아프기도 하구 기분이 상쾌해지기도 하지. 숨이 막혀서 당장 죽을것 같지만말이요. 그와 마찬가지로 중립지대에 척 들어서면 사방에서 나를 죽이자구 달려들지만 나는 죽음하구 숨박곡질하는게 퍽 재미있소. 물론 이것을 모든 사람이 다 리해하지는 못하오.》
그러나 와씰리만은 그것을 리해하였다.

골짜기에서 로가찐과 보그단 그리고 쁘로레뜨낀이 척후로 파견되였다.
그들은 인차 돌아왔다.
《전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고지 맨 정점에는 기관총을 지키는 도이췰란드놈이 있을뿐입니다. 제가 그놈을 해치우자구 제기하니까 로가찐이 반대해서 … 글쎄 제 살을 떼내는 한이 있더라도 안된다구 자꾸 분부하길래 그만 제끼지 못했습니다.》 쁘로레뜨낀이 보고하였다.
주어진 환경에서는 아마 기관총수를 제끼는것이 옳다고 생각할수 있었다.
그러나 로가찐을 난처하게 만들고싶은 마음은 없었다. 그리하여 와씰리는 로가찐을 지지해나섰다.
《동무들을 보낸것은 정찰을 하라는것이였소. 그러니 도이췰란드놈을 해치우지 않은것은 잘된 일이요. 그렇지 않으면 소란을 피울수 있지 않겠소.》
《그래서 우리는 그놈을 소문없이 조용히 해제끼자구 했지요.…》 쁘로레뜨낀이 설득시키려고 했다.
《해치우는게 옳을수도 있소.… 우리 중대가 한결 쉬울게 아니요. 기관총 하나라두 계속 줄어드니말이요.》 까자꼬브가 장난군처럼 눈을 슴벅이였다.
와씰리는 그의 까만 눈을 쳐다보았다. 눈에서는 사냥군의 열정적인 불꽃이 반짝이였다.
《그러면 안되오. 까라바예브가 알게 되면 동무한테 좋을게 뭐가 있소. 우리 손으로 기관총수놈을 해제껴서 동무네 중대를 도와주겠소.》
까자꼬브는 한숨을 쉬였다. 눈에서는 어느새 불이 꺼지고말았다.
《이젠 됐소. 우선 자기 소대만 데리구 먼저 놈들의 전호를 넘어서게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소동이 일어나서 작전이 파탄될수 있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완 뻬뜨로위치, 우리는 모든 일을 깨끗이

해낼것입니다.》 로가찐이 말하였다.
까자끄브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다.
《동무가 해낼수 있단말이지.》
정찰소대는 계획대로 도이췰란드놈들의 전호에 접근했다. 정찰병들과 공병들이 서로 손을 흔들어 신호하면서 숲속에 몸을 감추었다.
모두가 모인 가운데 로가찐이 비스듬히 일어나서 와씰리를 쳐다보았다. 와씰리가 머리를 끄덕이였다. 로가찐은 쁘로레뜨낀을 툭 다치였다. 그들은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와씰리는 긴장하게 귀를 기울이였다. 그의 곁에 누워있던 예삐파노브가 소곤거리였다.
《혹시 그들에게 보장조를 붙여주었어야 하지 않을가요?》
《혼자서 해낼거요. 보장해줄 사람도 없소. 전호에는 도이췰란드놈들이 얼마 안되오.》
《방어선을 쭉 지나가면서 보초놈들을 모조리 제껴치웠으면.》예삐파노브가 속이 탄듯 한숨을 내쉬였다.
《우리 임무는 다르오.》
《까자끄브에게도 말해줬지만 그는 자기 대원들을 데리구 해봤으면 했소.》
《우리가 없는데서 점을 치겠다는건데…》
수풀이 우거진 아래켠에서 컴컴한 그림자 둘이 언뜻거렸다.
쁘로레뜨낀이 시꺼멓게 칠한 쇠붙이가 번쩍이는 기관총을 잡았다.
《아니 자네가 그걸 어떻게 빼앗았나?》 예삐파노브가 물었다.
말이 다사한것은 물론 지나친 호기심은 정찰병들에게 있어서 비난거리로 되였다. 후에 휴식하는 동안이면 얼마든지 롱담을 섞어가면서 다 말할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는 쓸데없는 말을 절대로 삼가하기로 되여있었다.
《제대로 됐습니다.》 로가찐이 간단히 대답하고 와씰리의 한쪽 옆구리에 와서 누웠다. 그는 숨이 차서 헐떡거리며 손까지 떨었다.
분명 일이 쉽게 된것 같지 않았다.
《담배를 피워도 되겠습니까.》 로가찐이 물었다.
와씰리가 허락했다.

《어서 피우게, 이완. 자, 동무들, 그를 가리워주시오.》

정찰병들이 위장복의 널직한 앞섶을 량쪽으로 쩍 벌리고 로가찐을 에워쌌다. 로가찐은 부시돌을 쳐서 어슴푸레한 쑥심지에 담배를 붙여물었다. 향기로운 연기가 정찰병들의 코구멍을 찔렀다.

굉장한 사변이 아닌가. 이처럼 어려운 순간에 사람에게 담배를 피우게 하다니? 그리하여 바로 로가찐에게는 그것이 지휘관의 민감성과 동지에 대한 동정심이라고 생각되였다.

로가찐은 동지들의 그 모든 관심에 기꺼이 보답하려고 했다. 전투장에서든가 휴식할 때든가 그 어디서든지 때가 오면 좋은 일을 해줄것이다.

크건작건 관계없이 병사는 병사를 도와주었다. 종종 그렇게들 한다.

어떤 때에는 자기 몸으로 적의 흉탄을 막아나설수도 있는것이다.

정찰병들은 그토록 빈번히 생명을 무릅쓰고서라도 누가 누구에게 빚을 진것도 없지만 서로 앞을 다투어가며 재난속에서 동지들을 수없이 구출해내고있는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빚을 가지고 서로 구출해준것을 꼬치꼬치 따지거나 따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것은 정찰소대가 화목한 하나의 가정이기때문일것이다.

지금 그 소대는 길 아닌 길을 헤쳐가며 크와쉬노마을을 향하여 걸음을 재촉하고있었다. 이전에 그곳에는 적의 련대참모부가 있었다.

지금은 참모부가 딴데로 옮겨앉았다. 그러나 와씰리는 그곳에서 서기라든가 하다못해 경리책임자라도 잡아내리라는 희망을 가지였다.

그러면 그들로부터 매우 긴요한 정보를 얻을수 있을것이며 밤에는 개별적인 감시를 하면서 참모일군들이 흔히 말하듯이 눈으로는 찾아내지 못하는것을 알아낼수 있을것이다.

마을어귀에서 정찰병들은 계속 사람들의 말소리를 엿듣고있었다.

여기저기에서 손전등불빛이 얼른거리였다.

《정말 참모부가 후퇴하지 않았을가?》 와씰리는 가슴이 섬찍하였다.

《남아있는 놈들이겠지요. 무슨 행정경리부서놈들일겝니다.》

꼬노쁠레브가 확신있게 대답했다.

와씰리는 정찰병들에게 남새밭고랑사이에 누우라고 명령하고 자신은 꼬노쁠레브와 로가찐을 데리고 마을로 통하는 하나밖에 없는 길목에 접근하였다. 길가에서 짐수레를 메운 말들을 발견했다.

그 뒤에서는 짐차들이 우르릉거리고있었다. 사람들은 무슨 상자들을 마차에 싣느라고 바삐 돌아쳤다.

《짐을 싣고있소.》 와씰리는 정찰병들한테로 돌아와서 설명해주었다.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시간이요. 이 순간을 놓쳐서는 안되겠소. 꼬노쁠레브는 보그단과 쓰뚜질린,꼴로샤뽀브,예삐파노브를 데리고 공병들과 함께 우리가 갔다온 거기로 가시오. 로가찐,동무는 쁘로레뜨낀과 쥬크,빤쩰레예브와 함께 동쪽어귀로 가시오. 나머지 동무들은 나와 함께 서쪽어귀로 갑시다. 시간을 맞추시오. 지금은 한시반이요. 정각 십오분 지나서 놈들에게 수류탄을 던지면서 자동총사격을 하시오. 중요한것은 소란스럽게 복새통을 일쿠는것이요. 보병대대들이 퇴각했으니만치 우리가 무서워할놈들이 더는 없소. 습격이 끝나면 다시 여기에 모입시다. 만일 추격을 받는 경우에는 저기 보이는 저 고지로 철수하시오. 알겠소?》

《알겠습니다.》

《다 기억했습니다.》

이러한 명확한 대답을 통하여 와씰리는 대원들의 기분상태가 괜찮다고 리해하였다. 게다가 그자신도 명랑한 기분에 휩싸여있었다.

이것은 성공을 확고하게 예언해주는듯싶었다.

《행동하시오.》

와씰리는 나머지 소대원들을 데리고 적의 퇴로라고 짐작되는 곳으로 진출하면서 보충적인 임무를 주었다.

《우리는 꼬노쁠레브조와 로가찐조가 총성을 울린 다음에 사격합시다. 그 동무들이 먼저 사격을 시작하게 되면 놈들은 마을에서 황급히 도망치게 될것이요. 그때 우리는 여기서 그놈들을 답새깁시다.》

와씰리는 전선을 넓게 차지하도록 대원들을 배치하고 각기 수류탄을 두개씩 준비하고 전리품시계의 야광바늘을 들여다보면서 때를 기다리고있었다. 바늘은 마치도 멎어있는듯했다. 시계를 귀에 바싹 가져다대니 찰칵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드디여 기다리던 시간이 되였다.

《자, 때가 됐소.》 와씰리가 조용히 말하였다. 마치도 고요한 그 목소리는 반대쪽어귀에서와 마을중심에서 다 엿듣는것만 같았다.

그곳에서는 수류탄이 쾅하고 터지면서 자동총사격이 시작되였다.

도이췰란드놈들의 고함소리와 무질서한 대응사격소리가 들려왔다. 벌써 길가에는 두대의 짐수레가 뽀얗게 먼지를 일쿠며 달려오고 그 량켠으로는 도이췰란드놈들이 정신없이 헐떡거리며 뛰여오고있었다.

와씰리는 바싹 긴장되였다. 온몸에 피가 솟구쳤다. 그는 벌떡 일어서며 짐수레를 겨냥하여 수류탄을 던지였다. 어두워서 보이지 않지만 그의 곁에 누워있던 정찰병들이 뒤따라 사격을 들이댔다. 와씰리도 자동총을 어깨에 지그시 가져다대고 여러번 방아쇠를 당기였다. 말들이 비명을 치더니 땅우에서 곤두박질하며 나가 뻐드러지고 수레채가 와지끈 하며 부러져나갔다. 다른 말은 넘어진 짐수레를 질질 끌면서 벌판으로 내뺐다.

와씰리는 허리를 구부정하고 길가에 남아있는 짐수레앞으로 달려갔다.

《짐수레를 빨리 뒤져서 문건을 다 모으시오.》 와씰리가 명령하였다.

《부상병이 있을수 있으니 잘 살피시오. 제 발로 걷는놈만 고르시오. 이젠 끌고갈새가 없소.》

울타리옆에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와씰리는 자동총을 틀어잡았다.

《상위동지, 쏘지 마시오. 나요. 싸샤요.》

《왜 여기서 서성거리고있소?》

《이렇게 전리품을 당신한테 다 가지구 왔습니다.》

《짐차는 어데 있소? 놓쳤소?》

《아닙니다. 제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수류탄으로 자동차를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지뢰가 있습니다. 옹근 한차나 됩니다. 여기에 공병놈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길에다 지뢰를 매설하자구 했을겁니다.》

《우리가 정말 제때에 요정냈습니다.》 어둠속에서 로가찐이 불쑥 입을 열었다.

《동무도 여기 있었소?》

《저는 한 집에 뛰여들었는데. 혹시 무슨 문건이라두 떨군게 없는가 해서 살펴보니 아무것두 없었습니다.》

찌꾸노브가 와씰리를 불렀다.

《장교가 뒈졌습니다. 보십시오.》

와씰리가 시체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보니 중년이 되는 뚱뚱하게 생긴 상위였다. 그놈이 죽었으니만치 흥미있는 일은 없는것이다.

《자, 다됐소! 집결장소로 갑시다. 찌꾸노브, 잊지 말구 장교놈의 문건을 거두시오.》

《저는 여기서 트렁크를 얻었습니다. 아마 트렁크안에는 문건과 사진이 많이 들어있는것 같습니다.》

《가져가시오. 돌아가 알아봅시다.》

모두가 지정된 장소에 모였다. 흥분된김에 담배를 두손바닥사이에 감추고서 연방 피우고있었다. 와씰리가 물었다.

《다친 동무들은 없소?》 모두들 대답이 없었다.

《그럼 갑시다.》

정찰병들은 줄을 지어 길옆으로 걸어갔다. 로가찐과 쁘로레뜨낀은 자동총사격준비태세를 갖추고 앞에서 약간 떨어져나갔다.

새벽에 정찰병들은 도이췰란드놈들의 중대를 발견하였다. 놈들은 고지비탈면으로 뻐젓이 서서 다니면서 참호를 파고있었다.

《바로 여기가 중간계선이요.》 와씰리가 확정하였다. 《나는 보고를 준비하겠소. 예삐파노브, 동무는 전호앞에 지뢰가 없는가를 확인하시오. 빨리 하시오. 다치지 않게 주의하시오.》

예삐파노브중사는 몇명의 공병대원을 데리고 수풀속으로 사라졌다.

와씰리가 략도를 그리고 종이장에 거의 완성된 전호와 거기에서 발견된 기관총좌지를 그려넣는 동안에 예삐파노브는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올수 있었다.

《지뢰는 없습니다.》

《어떻게 확인했소?》

《놈들이 직접 전호앞을 싸다니면서 잔디를 가지러 골짜기로 내려가고있습니다. 오솔길로 다니지 않고 생각나는대로 아무데나 막 다닙니다.》

《좋소. 그렇게 보고합시다.》 와씰리가 만족스럽게 말하였다.

《쓰뚜질린과 골로샤뽀브동무는 련대로 돌아가야겠소. 이 략도를 참모장이나 률렌꼬브대위에게 전해주시오. 그리구 사관장 주마첸꼬를 찾아서 그가 참모부와 같이 움직이겠는데 그들과 함께 행동하라고 하시오.》

거의 모든 정찰병들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숲속에서 주위의 지형에 어울리는 얼룩위장복속에 몸을 잠그고 잠을 자고있었다.

《동무들, 기상!》 와씰리가 구령을 쳤다. 《여기서 우리는 할일이 더 없소.》

저녁무렵에 그들은 적들이 구축하고있는 새로운 방어전연에 당도하였다.

그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도이췰란드놈들은 별로 경각성을 높이지 않았다. 와씰리는 이런 기회를 감쪽같이 리용하였다. 예삐파노브는 여기에서 참모부의 엄페부를 만드는데 매우 유리한 경사가 급하고 길다랗게 늘어진 골짜기를 봐두었다. 골짜기는 록음이 우거지고 잡초가 무성한데다가 그 바닥으로는 시내물까지 흐르고있었다.

《참모부가 아니라 료양소라도 세우겠소.》 와씰리는 그곳을 선택하는데 동의하였다. 그는 감시병들을 배치하고 정보를 가진 척후를 련대에 보내고나서 마음이 놓인듯 거뜬하게 한숨을 쉬였다.

《동무들, 우리는 자기의 전투임무를 다 수행했소. 이제는 숨을 돌려도 되겠소. 상위놈의 트렁크를 가져오시오. 거기에 뭣이 들어있는지 알아볼 때가 됐소.》

찌꾸노브는 트렁크를 열어 철십자훈장과 무슨 휘장들이 달린 례복을 꺼내며 들썩하게 말하였다.

《꽤 공을 세운놈이였소.》 호주머니를 뒤지고나서 옷을 숲속에 내버렸다.
《그런데 이건 쓸모가 있을것 같구만. 햄과 통졸임이 있소. 이 통에서는 무슨 냄새가 나누만. 고약같은데…》
《어디 보자구… 참 신기한 물건이요. 이건 치즈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치즈란말이요.》
《사진이 수두룩하군. 편지두.》 찌꾸노브가 트렁크안의 물건짝들을 일일이 검열했다.
사진들을 번갈아가며 보았다. 한 사진에는 찌꾸노브가 풀숲에 내버렸던 그 례복을 입은 상위놈이 키가 껑두룩하고 빼빼마른 녀인곁에 서서 찍은것이 보이였다. 그 녀인의 눈은 무슨 부엉이눈같이 흐리멍텅하였다.
와씰리는 애매한 필체를 하나하나 가려가면서 편지를 읽었다.
《1942년 7월 26일 웨이머에서.
나의 사랑하는 한스!
나는 하루에도 여러번 당신의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당신에게 매혹되군해요. 총통께서 우리에게 무슨 행복을 가져다주었는가요. 나는 당신과 함께 얼마나 적적한 생활로 세월을 보냈나요.
우리를 알아준 사람은 하나도 없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당신이 장교가 되구 철십자훈장까지 타지 않았어요. 나는 참으로 행복해요. 당신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이것이 정말 나의 한스인가를 의심했어요. 드디여 기다리던 여름이 왔어요. 대도이췰란드를 위하여 새로운 위훈을 세워주기를 간절히 바래요. 앞으로 용감히 나아가세요. 귀중한 그대여! 총통께서 당신을 보고있어요. 부드러운 키스를 보내요. 당신의 그레흐헨.》
《참 너절한놈이군.》 와씰리가 침울해서 욕을 했다.
《그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쓰라구 내려먹일겁니다. 마음대로 편지를 쓰지 못합니다.》 끄노뻘레브가 말하였다.
《아니요. 그 녀편네는 진심을 썼소. …》
갑자기 가까운 곳에서 사격소리가 띠염띠염 났다. 도이췰란드놈들의 전호들에서 박격포를 쏘아댔다. 와씰리는 쌍안경으로 우리 전투

원들의 대렬을 발견하였다.

《오는구나! 여전히 꾸르쟈꼬브중대가 앞에서 오는군.》 와씰리는 쌍안경으로 살피면서 기뻐했다.

적진에서 자기 군대를 본다는것은 매우 흥미있는 일이였다.

전투원들은 허리를 구부리고 달려오는데 웬일인지 사격을 하지 않았다. 꾸르쟈꼬브는 자동총을 가슴에 내대고 전투서렬가운데서 거리를 널직하게 잡고 걸어오면서 뒤떨어진 대원들에게 뭐라고 소리쳤다. 욕하는 모양이였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명랑해있었다.

《찌꾸노브! 그들을 마중나가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도이췰란드놈으로 잘못 볼수 있소.…》

찌꾸노브의 안내를 받아 꾸르쟈꼬브가 어느새 정찰병들한테로 다가왔다.

《참 뜻밖인데요.》 와씰리가 쾌활하게 말하였다.

《무위도식하는게 아니요?》

《뭘 아직은… 방어선을 정찰하구 당신들을 기다리는중이요.》

《우리가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았댔구만. 동무들을 따라잡았으니…》

《모두가 따라설 동안에 뭘 좀 요기하지 않겠소?》와씰리가 눈을 끔뻑이였다. 《앉으시오. 여기에 전리품도 있는데.》

《먹는것두 나쁘지 않지만 어디 짬이 있어야지.》꾸르쟈꼬브가 인정했다. 《놈들이 정신차리기전에 방어선을 빨리 돌파해야 하오. 혹시 저 고지에 달라붙을수 있겠는지. 나는 정찰이 아니니까 숲속에서 싸우지 않소. 그럼 안녕히!》

꾸르쟈꼬브는 자기 대원들을 따라 뛰여갔다.

도이췰란드놈들의 방어선에서 기관총소리가 나면서 포탄이 쿵쿵거리기 시작하였다. 꾸르쟈꼬브가 가는 방향에서 밀집사격이 진행되였다. 꼬노쁠레브는 쌍안경으로 전투과정을 살피면서 거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보고하였다.

《아군이 고지에 매달렸습니다. 꾸르쟈꼬브도 보입니다.…》

《정말 귀신같군.》 와씰리가 감탄하였다. 《계속 기여가는군. 제기랄. 놈들이 꾸르쟈꼬브를 위협하고있소. 도와줍시다. 동무들. 일어

섯! 예삐파노브, 동무는 공병대원들과 함께 여기에 남아서 참모부를 맞이하시오.》

《나도 당신들과 같이 가야 합니다.》 예삐파노브가 간청하였다.

《안되오. 중사동무, 우리는 이미 동무와의 협동동작을 끝냈소. 이제 동무의 임무는 땅을 파는것이요. 감시소를 준비하시오. 까라바예브는 후방에 눌러앉아있는 성미가 아니니까.》

× ×

적후에서 도이췰란드군의 제복을 입고 적의 참모부와 국가기관에서 일하고있던 정찰병들은 1943년봄에 꾸르쓰크구역에서 도이췰란드놈들이 새로운 위험한 공격을 준비하고있다는 정보를 맨먼저 입수하였다. 그러니 와씰리에게도 자기의 소대원들과 함께 이 격전을 앞두고 할 일이 많았다. 지금은 정치위원이 아니고 정치부련대장이 된 가르부즈가 정찰소대의 엄페부로 다가왔다. 그의 걸음이 잦은것으로 보아 필경 무슨 곡절이 있는것 같았다.

정찰병들은 빨간줄이 간 복판에 별을 단 검푸른 견장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명령에 의하여 견장은 모든 군인들이 1월부터 새로 갈아달게 되여있었지만 후방에서 채 만들지 못하여 그것을 전선으로 날라오자면 시간이 퍼그나 걸리였다.

《동무도 인차 달도록 하겠소. 사단에서 견장을 받아오게 되는데 며칠내로 우리한테로 가져다줄것이요. 그런데 이제부터 좀 말할게 있소. …》

가르부즈는 도이췰란드군 참모부에서 계획된 작전에 대하여 그리고 히틀러가 그 작전에 큰 기대를 걸고있다는데 대해서 말하였다. 그런것만큼 우리 지휘부가 그쪽 전선에서 벌어지고있는 정황을 항상 정확히 알고있는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벌써 여러번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러는사이에 온 련대는 전호를 땅속깊이 파들어갔다.

벌판과 언덕에 뒤덮인 새로운 전호망은 개바닥으로 내려가서 작은 숲속으로 뻗어갔다. 간난신고를 겪으면서 병사들은 기본전호와 예비전호며 차단전호와 허위전호, 전방전호와 후방전호 등 무슨 전

호인들 안파보았으랴! 그들의 손이 얼마나 조국의 땅을 파헤쳤으면 처음에는 손바닥이 소뿔처럼 딴딴하게 굳어지다가 나중에는 하얗고 멀건 물집이 생기면서 인차 장미빛피고름으로 변했겠는가. 그리하여 삽자루를 틀어쥐기만 하면 생살이 눌리면서 살가죽이 툭툭 터져나갔다. 매일과 같이 사단지휘부의 군관들이 와서 방어축성물건설을 검열하였다. 참모부의 지휘관들도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다. 어느날 련대에는 군사위원 보이꼬브소장이 찾아왔었다. 그는 련대장과 참모장, 포병대대장과 그리고 자기를 안내하려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수원이 필요없소. 가르부즈만 데리고 대대를 돌아보겠소. 수원이 따르면 도이췰란드놈들이 눈치채고 일할 틈을 주지 않는단 말이요. 그때는 사격을 피해서 엎디여있지 않으면 안되오.》

장령과 함께 온 사단정치부장도 돌려보냈다.

《정치부장동무도 자기 계획대로 행동하시오.》

한낮이 되여 보이꼬브는 련대방어선을 거의다 돌아보고나서 우익대대에 들려 까라바예브에게 전화를 걸었다.

《련대장동무! 우리는 일을 다 끝냈는데 인차 돌아가겠소. 20분후에 참모부일군들과 부근에 있는 구분대지휘관들을 다 모이게 하시오.》

《열한시에 점심식사를 해야겠습니다.》 까라바예브가 상기시켜주었다.

《우리는 벌써 여기서 식사를 했소.》 보이꼬브가 대답하였다.

《식사가 마음에 들었소. 전사들은 국그릇에 숟가락이 있는걸 좋아하오. 나하구 가르부즈동무가 숟가락이 있는가를 검열해봤소! 그러니 우리 전사들도 다 만족해하고있소.》

회의에 초청된 사람들중에는 와씰리도 있었다.

그들은 제일 큰 참모부 엄페부에 모였다. 엄페부안은 사람들이 어찌나 빼곡이 들어앉았는지 문을 활짝 열어놓았어도 무더웠다.

장령은 문옆에 먼지가 묻은 비옷을 던지였다. 얼굴에는 홍조를 띄고 낮은 천정밑으로 구부정하고 씩씩하게 들어왔다. 그의 가슴팍에서는 쏘련영웅 금별메달이 자그마한 밝은 해발처럼 빛나고있었다.

와씰리는 그처럼 가까운 곳에서 가장 높은 전투표창을 받은 사람을 난생처음 보았다.
《무슨 공로로 탔는가요?》 와씰리는 금별메달을 보면서 곁에 앉아있는 률렌꼬브대위에게 조용히 물었다.
《만네르헤임전선을 돌파한 공로로 탄거요. 그때 그는 련대정치위원이였소.…》 률렌꼬브가 소곤거리였다.
보이꼬브는 처음에 련대방어상태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말하면서 일을 잘했다고 칭찬하였다. 우측 린접과 접촉되는 지점에 주의를 돌릴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이꼬브는 전선형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후방근로자들의 로력적위훈에 대해서도 평가하였다. 로동자들과 꼴호즈원들이 전투승리에 필요되는 모든것을 전선에 다 보내주고있다는것을 수자를 들어가며 확인하였다.
떠나기전에 보이꼬브는 문득 이렇게 물었다.
《끼릴 알렉쎄예위치, 한가지 물어본다는걸 잊었댔구만. 동무가 아는 사람들중에서 뽀차뜨낀이라는 기사가 없소?》
《기사말입니까? 모스크바부근에서 나의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뽀차뜨낀이라구 했는데. 이젠 늙었을겁니다. 공민전쟁참가자였으니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젊었소. 오늘아침에 이 근처에서 그를 억류했댔소. 지방사람이라구 생각해서 증명서를 보니까 모스크바사람이더군.》
《잠간, 뽀차뜨낀이라구 하지 않았습니까?》
《옳소!》
《그럼 그 사람은 나의 이웃집사람의 아들입니다.》
《맞았소. 그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했댔소. 그러면서 당신네한테서 복무하겠다고 했소. 일부 성급한 동무들이 그를 재판소로 보내겠다고 했소. 간첩이 아니면 도피분자일거라구 하지 않겠소. 그래서 나는 무슨 도피분자겠는가구 말해줬소. 도피분자라면야 전선에서 도망쳐오겠는데 그 사람은 전선으로 온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 그를 데려오시오. 당신이 보면 다 알테니까 수속해서 복무하게 하시오.

보건대 총각은 괜찮을것 같소. 그를 데리려 아무 사람이나 특수과에 보내시오. 거기로 갈 사람이 있으면 겸사해서 갔다오게 하시오.》

《와씰리상위동무!》 까라바예브가 불렀다.

와씰리가 다가왔다.

《장령동지와 같이 군단참모부에 갔다오시오. 돌아오는 길에 겸사해서 억류된 뽀차뜨낀이라는 사람을 데려오시오. 그가 억류되긴 했어두 〈혀〉처럼 데려와서는 안되겠소.》 까라바예브가 미소를 지었다.

《이 동무가 설날밤에 모범을 보인 그 와씰리동무가 아니요?》 장령이 물었다.

《바로 그 동무입니다. 그는 지금 여기서 정찰소대를 지휘하고있습니다.》 까라바예브가 말해주었다.

《알게 되여 반갑소. 갑시다, 상위동무…》

보이꼬브는 야전승용차의 운전사곁에 앉아서 낮동안에 몰려든 피로로 하여 인차 눈을 붙이였다.

그러나 졸음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그는 눈을 뜨고 와씰리를 돌아다보았다.

《상위동무, 동무는 설날밤에 싸움을 잘했소. 그래 지금은 일이 잘되오?》

《그리 씨원치 않습니다. 정찰이라는거야 복잡한 일이 아닙니까.》

《배워야 하오. 지도랑 볼줄 알겠지?》

《그럭저럭 봅니다.》

《그럼 어디 보기요. 자, 쓰쩨빠늬치, 좀 멈춰세우오.》 장령은 차에서 내리여 지도첩을 펼치여 와씰리에게 주었다. 《우리가 서있는 지점과 우리 주위에 뭣이 있는가를 판단해보시오.》

와씰리는 첫순간에 당황해하다가 지도에서 련대가 있는 위치를 찾아냈다. 전방에서 얼마나 벗어졌는가를 가늠하고 주위를 둘러본 다음 보고하였다.

《바로 이곳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건 수림입니다. 우리 진지에서 남쪽으로 800메터 떨어져있습니다. 굴뚝들이 솟아있는 여기는 루끼노마을입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가고있는 길입니다. 앞에는 강을

건느는 다리가 있습니다.》
《옳소! 앉으시오. 갑시다.》
승용차는 닦아놓은지 오래되여 울퉁불퉁해진 길을 따라 덜컹거리며 굽인돌이를 돌아갔다. 와씰리도 고개를 떨구고 졸다가 한쪽 구석에 기대여 어느새 잠들었는지도 몰랐다.
길바닥의 어느 한 홈채기를 넘어서는 순간에 충격으로 하여 그들은 잠에서 깨여났다.
《안녕히 주무셨소?》 장령이 롱담을 하면서 다시 차를 세웠다.
《그럼 상위,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딘지 알겠소?》
와씰리는 차에서 내려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지도우의 한 점을 가리켰다.
《참 장하오! 비행사처럼 제꺽 알아맞추는구만.》
《그런데 저를 비행사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와씰리가 인정하였다.
《훌륭한데, 잠은 채 깨지 못하고서도 지형을 날쌔게 판단하니…》
특수과에 도착한 와씰리는 장령과 헤여지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장령동지, 제가 현지를 판단한것은 당신의 승용차속도계를 보구한것입니다. 여섯키로나 온것을 길을 따라 맞춘 다음 다시 네키로 왔으니까 그걸 합쳐 계산하면 지점을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동무는 참 기특하오.》 장령이 호탕하게 웃었다. 《정찰병이 그만하면 괜찮소. 건강하시오.》 그리고는 마주 오는 특수과일군에게 간단히 말해주었다. 《억류된 뽀차뜨낀을 상위동무에게 넘겨주시오.》
뽀차뜨낀은 중사의 호송을 받으며 밖으로 나왔다.
춘추외투를 입고 검은 털모자를 쓴데다가 오른쪽다리가 약간 절뚝거리는 그의 외모는 전선구역에서 대뜸 의심을 받을수 있었다. 얼굴에는 수염이 꺼칠하고 표정은 침울했다.
《알만하오?》 직일관이 딱딱하게 물었다.
와씰리는 뽀차뜨낀을 마주보면서 안다고 할수 없었다.
《우리 련대장이 잘 알지요. 나는 이 동무를 감시소까지 데려다줄 의무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억류된 사람을 넘겨받았다는 수표를 하시오.》 직일관이

인계대장을 내밀었다.

《그럼 길가에서 달아나지 못하게 잘 보시오. 혹시 그 사람이 아닐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으로 가장할수도 있단말이요. 알겠소?》

(그렇다면 전선으로 올수 있습니까?) 보이꼬브의 말을 되새기면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전선으로 왔다. 그가 우리 사람들을 다 속인다. 만일 파쑈놈의 간첩이 우리한테로 와야 한다면 그가 어디로 가겠는가? 정말 우랄로 가지 않을가?)

와씰리는 경각성을 높이였다. (세상에는 별의별 일이 다 있을수 있지 않는가? 까라바예브는 아직 그를 보지 못했다.

혹시 다른 사람의 증명서를 가지고 여기서 무엇을 내탐하려는게 아닐가? 도이췰란드놈들의 후방이라면 나도 그렇게 행동할수 있지 않는가.)

와씰리의 경계심을 눈치챈 뽀차뜨낀은 이야기도 하려 하지 않고 묵묵히 그의 곁에서 걸어갔다.

도로에 들어섰다. 와씰리는 전선으로 달리는 차앞에서 매번 손을 쳐들었지만 어느 한 차도 세우지 않고 그의 옆을 지나가기만 하였다.

《여기 있다가는 일이 안되겠는데, 교통정리원한테 갑시다.》 뽀차뜨낀이 귀띔해주었다.

《그러구보니 동무는 꽤 경험이 있구만.》

《나는 모스크바에서부터 길가는 차들을 잡아타고왔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동무가 이전에 잡히지 않았소?》

뽀차뜨낀이 입을 다물었다.

와씰리는 교통정리원처녀한테 다가가서 빌었다.

《처녀동무, 우리를 좀 태워주지 않겠소? 도브로호또브장령의 농장쪽으로 갑니다. 그런 곳을 들어본적이 없소?》

《들어봤어요. 나는 동무네 농장을 다 알고있어요.》 교통정리원처녀는 착실하게 대답하였다. 《방해하지 말고 좀 비켜서라요. 그리로 가는 차가 있으면 부르겠어요.》

와씰리와 뽀차뜨낀은 길옆의 둔덕진 곳에 앉아있었다. 거기서는

여러 사람이 앉아서 담배를 태우고있었다. 처녀는 이따금씩 지나가는 차를 세우고 사람들을 불렀다.

《니끼쉰농장이예요. 타세요.》

《누가 뜨레구보브농장을 물어봤어요?》

둔덕에서 차례로 길손들이 뛰여갔다. 뛰여가면서도 교통정리원처녀에게 인사를 하였다.

《고맙소, 아름다운 처녀동무!》

《고맙소, 처녀동무. 제발 멋진 신랑감을 만나시오!》

어느새 와씰리의 차례가 되였다. 한시간도 못되여 그들은 벌써 련대장의 엄폐부에 당도하였다.

까라바예브는 뽀차뜨낀을 얼싸안고 기뻐서 환성을 올리였다.

《쥀까! 아니 네가 벌써 어른이 다 됐구나! 다 컸어. 네가 기사라는게 정말이냐?》

《자격을 받은지 얼마 안됐어요. 여기 자격증이 있어요.》 뽀차뜨낀은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파란 증명서를 꺼냈다.

와씰리는 옆에 서서 지시를 기다렸다. 까라바예브는 허물없이 말하였다.

《옷을 벗구 앉게나. 와씰리… 나는 동무들이 친숙해지길 바라오.》 그리고는 돌아서서 뽀차뜨낀에게 말하였다.

《이 동무는 우리 정찰병이요. 아주 훌륭한 동무요.》

뽀차뜨낀은 마치 련대장의 말을 부정해나서듯이 나무라는 눈초리로 와씰리를 쳐다보았다.

거북해진 와씰리는 거기에 남아있을 생각이 없었다.

게다가 가까운 사람들끼리 만났는데 방해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 자기들끼리 앉아서 말하게 하자. 그리하여 와씰리는 조심스러우면서도 완강하게 들이댔다.

《가도 되겠습니까? 중좌동지, 저는 일이 있어서…》

《그래, 동무들이 무슨 사이가 틀린게 아니요?》 까라바예브가 어림짐작하였다. 《무슨 일이 있었니, 쥐냐야?》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가 나를 수표하구 넘겨받아서 호송해왔지요.》

《오해하면 되냐. 그의 임무가 그런건데.》 까라바예브가 화해시키듯 말하였다. 《어서 식탁에들 나앉으라구. 쥐냐, 넌 배고프겠구나. 응? 허 참. 죄수가 됐으니! 말이 났으니말이지 어머니하구 아버지한테 도망친다구 알리지 않았니?》
《편지를 써서 책상에 둬두고 왔어요.》
《오늘 당장 편지를 보내여 무사히 와닿았다구 알려라.》
《저는 면도두 하구 세수했으면 좋겠어요. 끼릴 알렉쎄예위치!》
《미안하다. 인차 그랬을걸. 글리예브, 면도칼을 가져오시오. 손님이 세수하게 해주시오. 쥐냐야, 여기는 목욕탕이 없다. 그러나 그렇게 버릇붙여야 한다. 저기 구석에 가거라. 글리예브가 물을 끼얹어줄게다.》
쥐냐가 세수하는 동안 까라바예브는 이렇게 말하였다.
《저 동무는 여러번이나 도망친 동무요. 열두살에는 아프리카로 내빼지 않았겠소. 그때 너를 어디서 붙잡았더라? 클린에서든가?》
《월로꼬람스크에서…》 쥐냐가 두서없이 대답하였다.
허리춤까지 발가벗은채 바께쯔우에 허리를 구부리고있었다.
와씰리는 제꺽 판단하였다. 《체육선수같군. 어깨와 팔근육이 탄탄하고 울뚝불뚝한걸 보니…》
까라바예브는 와씰리의 시선을 알아차리고 그에게 설명해주었다.
《2급체조선수요. 또 어렸을 때부터 두려움을 모르고 자랐소. 한번은 글쎄 밖에 나와보니 쥐냐 어머니가 마당에 서서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하듯 우만 쳐다보고있지 않겠소.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하고 물었더니 어머니는 날보구 조용하라구 하더군. 그러면서 우리집 천정을 가리키질 않겠소. 꼭대기를 올려다보니 글쎄 쥐냐가 굴뚝에 게바라올라가서 거꾸로 서있는데 어머니는 자기 애가 놀라서 떨어질가봐 간이 콩알만해서 찍소리도 못하게 하더군.… 너는 아직도 그런 재간이 있느냐? 거꾸로 서는가말이다?》 까라바예브가 물었다.
《서구말구요.》 쥐냐가 자신있게 대답하였다.
그리고는 의자끝을 잡고 신발을 신은채 몸을 우로 가볍게 들어올리여 통나무천정까지 쭉 폈다.

글리예브는 어리둥절해서 손님을 바라보았다.
그가 놀란것은 손님의 민첩성에서가 아니라 련대장앞에서 감히 다리를 거꾸로 올리고 선것이였다. 까라바예브는 분명 쥐냐에게 정신이 팔린것 같았다.
《엄동설한에 감을 딴격이군.… 꽤 힘이 있는데. 너를 어디다 쓴다?》
《정찰병으로 보내주십시오.》쥐냐가 발을 마루에 내리우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와씰리한테 고개를 기웃했다. 《저 동무한테말입니다.》
《거긴 안돼.》 까라바예브는 위협조로 손짓을 했다.
《왜서요?》
《너를 죽이게 되면 내가 너의 부모들에게 뭐라구 말하겠니?》
《내가 여기서 그를 모욕했다구 그가 나를 위험하게 할수 있다는겁니까? 아니면 저를 소중히 건사해둬야 하는가요?》
《좀 참아라. 성을 내지 말구. 너는 대학을 나오구 또 기사자격까지 있으니 내 부관으로 있는게 좋겠다.》
《안됩니다. 끼릴아저씨, 저는 부관노릇을 못합니다. 특수과로 돌려보내주는게 더 나을겁니다.》
《그래 나하구 론쟁할셈이냐?》
《저는 아직은 군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쥐냐가 웃었다.
《그건 옳다.》 까라바예브가 긍정했다. 《그럼 됐다. 지금은 내 권한으로 너에게 중사의 군사칭호를 주구 어디든 보내주마.… 하긴 어디로 보낸다? 음, 네가 기사이니까 공병으로 있는게 좋겠다.》
《뭐 아무렇게나 합시다. 그래두 정찰에 있으면 안됩니까?》
《공병들도 정찰하러 다닌다. 와씰리한테 물어보렴. 그래 누가 그들의 통로를 열어주오?》
《공병들입니다.》 와씰리가 대답하였다. 그리고는 자신도 (쥐냐를 정찰병으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고 생각하였다.
《결국 결정한셈이다. 군인선서를 가져다가 외우구 우리와 함께 파쑈놈들을 족치자구.》
《당신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끼릴아저씨!》 어째서인지 쥐냐는 철

없는 어린애처럼 까라바예브를 정신없이 쳐다보면서 웨쳤다.
와씰리는 자기도 학창시절에 바로 줴냐처럼 군관복을 멋지게 차려입은 옆집사람을 보고 얼마나 부러워했던가. 그때 까라바예브와 같은 군관이 되고싶어했던 일을 어제런듯 똑똑히 되새겨보았다.
글리예브는 벌써 식탁에 통졸임한 고기며 돼지비게, 구운 물고기를 담은 접시들과 기장죽을 담은 사발을 가져다놓고 가운데에는 마치 도끼로 뭉청 잘라놓은것 같이 굵직한 검은 빵쪼각을 담은 그릇을 올려놓았다.
《동무들, 어서 든든히들 먹으라구.》 까라바예브가 권했다.
줴냐는 천천히 음식을 집어서 역시 덤비지 않고 씹어삼키려고 했다. 그러나 이따금씩 빈그릇에 눈길이 쏠리다가는 근심어린 표정을 짓군하였다. 와씰리는 그가 몹시 허기졌다고 생각하였다. 까라바예브도 줴냐의 상태를 리해하고 그가 점적해할가봐 화제를 가정문제로 끌고갔다.
《아버지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있니? 어머니는 잘 있느냐?》
줴냐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다.
《지금 모두들 일하고있습니다. 아버지는 년로보장을 받기전까지는 일하겠다구 다시 공장으로 나갔지요. 어머니는 집에서 일하는데 병사들이 입을 내의를 만들고있어요. 그럭저럭 앓지 않고 지냅니다.… 아저씨네 집도 다들 잘 있습니다. 왈레리는 학교에 다니구 류바는 얼굴이 발그레해서 마당에서 뛰놀고있지요. 제가 지난주에 가봤댔습니다. 아냐아주머니는 나보구 앉아서 차나 마시라구 하더군요. 류바는 아주머니의 품에 안기여 재롱을 피우다가는 〈난 줴냐아저씨한테 안길래.〉하구 응석을 부리지 않겠습니까. 참 재미있는 익살꾸러기지요. 마루에 기여내려서 뚜벅뚜벅 제한테로 다가와서 무릎우에 척 올라앉아서는 갑자기 눈을 부라리며 〈아니, 사탕이 어디 도망쳐갔나요?〉하구 묻질 않겠어요. 우리가 모두들 껄껄 웃고있는데 류바가 사탕그릇때문에 나한테 온것 같더군요.
아냐아주머니는 그걸 눈치채구 류바가 마루에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이에 사탕그릇을 슬쩍 감췄는데…》 줴냐는 말을 중둥무이했다가 인차 이어나갔다. 《이건 제가 사탕에 대해 그렇게 겸사겸사해서

생각나는대로 한 말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사탕을 좋아하니깐요.》
《됐다. 너는 말재간이 꽤 늘었구나. 그렇게 빙빙 꼬지 말아라.》
까라바예브가 시무룩해서 미소했다. 《다 알만해. 그런데 참 이상하구만. 동무들, 우리가 집에서 멀리 떨어지면질수록 마음이 더 편안하니말이네.…》

× ×

이 고장은 비교적 구릉이 많은 지대였다. 야산들은 온통 구뎅이로 파헤쳐진 해묵은 밭들과 잇닿아있었다.
며칠째 소낙비가 계속 쏟아졌다. 이랑사이에는 뿌연 물웅뎅이들이 생겨났다. 좁다란 강물이 불어나면서 나지막한 비탈에는 물이 차올랐다. 저녁이 되자 써늘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날씨는 갑자기 차지기 시작하였다.
정찰병들은 늦어서야 임무를 수행하러 떠나게 되였다. 모두들 혹시 빨리 어두워지지 않겠나 하고 기다리고있었다. 그러나 중천에 걸린 달빛은 어찌나 밝았던지 모든 중립지대가 대낮처럼 환하게 보이였다.
첫 백메터를 지나오면서 와씰리는 이런 조건에서 《혀》를 잡을수 있겠는가고 궁리해보았다.
도이췰란드놈들이 중립지대복판에서 그들을 발견했다.
그리하여 밭이랑사이에 고여있는 얼음처럼 차거운 물탕에 엎디지 않으면 안되였다. 옷은 단번에 다 젖어들었다.
적기관총들이 처음에는 한곳에서, 다음에는 다른 곳에서 긴 련발사격을 들이댔다. 정찰병들은 물웅뎅이에서 딴딴한 흙이 있는 곳까지 파고들면서 진탕을 밭이랑모서리로 밀어냈다.
와씰리의 눈앞에서는 불시에 불기둥이 솟구쳤다.
폭발소리에 귀가 멍멍해졌다. 박격포를 쏘아대는것이다. 와씰리는 철수구령을 내리고는 자신도 밭고랑을 헤집고나왔다. 옆에서는 비명소리가 나지막하게 울려왔다.
《누가 부상당했소?》 와씰리가 물었다.

《루즈긴입니다.》
《혼자 기여올만 하오?》
《네.》
《어서 먼저 철수하시오.》
전호에서 률렌꼬브가 근심어린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하였다.
《모두가 살아왔소?》
《루즈긴이 부상당했습니다. 루즈긴, 어딜 다쳤소?》
《다리를 좀 다쳤습니다.》
정찰병들은 어찌나 흙탕칠을 했는지 서로 얼굴을 겨우 알아볼지경이였다.
《자, 그럼 어서 가서 옷을 말리면서 목욕도 하시오.》
이튿날 밤에는 여전히 피로운 일이 되풀이되였다. 사흘째되는 밤에도 실패를 면치 못하였다.
둥근달마저 정찰병들을 보고 비웃는듯 했다.
사단정찰과장 루뜨꼽쓰끼가 와씰리를 불렀다. 그는 앉은자리에서 날카롭게 물었다.
《동무는 아직도 세가지 오(로씨야말에서 단어의 첫머리가 《O》자로 시작되는 뜻에서 한 말)자만 보고할 작정이요?》
와씰리는 세가지 《오》자만 보고한다는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있었다. 그것은 로출되여 사격을 받으면서 퇴각했다는 세가지 뜻에서 쓴것이였다. 그 말은 실패에 부아가 나서 하는 책망이였다.
나아가서 야간정찰을 잘 준비하지 못하고 진행한 무능력에 대한 비난일수도 있었다. 루뜨꼽쓰끼는 정찰을 그만두라고 하고싶었지만 단념하고 그저 엄하게 타이르고말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혀〉를 잡아오시오.》 그들을 구원할수 있는 유일한 출로는 궂은 날씨뿐이였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는 즐거움을 주고 정찰병들에게는 약만 오르게 하는 날씨, 낮에는 따스하고 밤이면 차겁고 환해지기만 하는 좋은 날씨가 계속되였다.
한번은 도이췰란드놈의 철조망 있는데까지 겨우 가닿을수 있었다. 그들은 조심스레 철조망아래줄을 끊어나갔다. 와씰리는 행동신호를

주고 이발처럼 앙상하게 벌리고있는 구멍을 통하여 제일먼저 기여나왔다. 이러한 순간에는 보통 흥분에 불가피한 재난이 들이닥치군했다.

그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 정찰병들이 좁다란 통로를 지나가자마자 전호 한쪽옆구리에서 예광탄이 거의 정면으로 날아올랐다.

《이젠 다구나.》

와씰리가 결심하는찰나에 누군가 땅우로 벌떡 솟구치더니 기관총을 향하여 내달리는것을 발견했다. 기관총은 기겁해서 미친듯이 사격하였다. 그러나 그는 수류탄을 던질수 있었다.

쾅 하고 요란한 폭음이 울리였다. 기관총이 아가리를 다물었다.

정찰병들은 인차 뒤로 물러섰다. 그들은 철조망밑으로 기여나가면서 가시줄에 옷이 째지고 살이 긁히면서도 아픈줄을 몰랐다.

와씰리는 수류탄을 던진 대원이 철조망안에 떨어지지 않았는가고 확인해보았다. 그를 끌고오는것을 본 와씰리는 전호에 대고 자동총을 몇발 갈기고 계속 퇴각하였다.

도이췰란드방어선은 온통 콩볶듯 법석댔다. 그 불길한 정황속에서 와씰리는 사방으로 흩어져서 달리는 대원들을 똑바로 가려보며 그들이 땅에 쓰러지지 않았다는것을 알았다. 그저 누가 살아있는지, 누가 죽었는지 모를뿐이였다.

언덕에 정찰조가 모이였다. 와씰리는 대원들을 즉시 점검해보았다.

《누구요?》

《끄스쨔 끄를레위치입니다.》로가찐이 대답하면서 손에 붕대를 쥐고 감아줄 차비를 하고있었다.

로가찐은 끄스쨔의 군복저고리단추를 벗기고 상처자리를 찾았다.

《그만두라구.》쁘로레뜨낀이 그를 저지시키고 끄스쨔의 머리에 거멓게 피가 진 둥그스름한 두개의 구멍을 가리켰다.

거기서부터 가느다란 가리마가 시작되였다.

부상당한 사람이 더 있었다. 끄노뽈레브는 어깨를 다치고 쓰뚜질린은 손을 상하였다. 가시줄에 긁힌 사람들은 셈에 넣지도 않았다.

골짜기로 내려가 정찰소대의 엄페부부근에 꼬스쨔를 눕히였다.
처음에는 꼬스쨔가 모든 대원들과 함께 그 떠들썩하는 생활속에 끼여들지 못하였다.
엄페부에서는 사관장 주마첸꼬가 웬일인지 오랜 전통을 깨뜨리고 벌써 식탁을 차려놓고 대원들을 기다리고있었다. 와씰리에게는 (꼬스쨔를 희생시켰기때문이구나.) 하는 어리석은 생각이 피끗 떠올랐다.
그러면서도 일부러 그에게 물었다.
《동문 왜서 상을 차렸소?》
《그건 대원들이 불쌍해서, 참 며칠밤을 새웠습니까.… 그래서 얼른 저녁밥을 먹구 빨리 잠자리에 눕게 하자구 했지요.》
주마첸꼬가 죄송스러운듯 대꾸하였다. 그의 뺨이 떨리는것이 눈에 띄였다.
식탁에 나앉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정찰병들은 총을 닦고 위장복을 벗고 잠자리에 누웠다.
그러나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모두가 꼬스쨔를 생각하였다. 이제는 그가 우리곁에 없다.
하지만 모두는 그가 얼마나 선량하고 어진 사람이였던가를 잘 알고있었다. 그는 누구와 언쟁한 일도 없었으며 싸움 한번 하지 않았다.
와씰리의 눈앞에는 살아있는 꼬스쨔가 선히 떠올랐다. 그의 눈은 파랗고 얼굴은 수줍은 미소를 띄고있는 처녀의 볼처럼 발그스름하였다. 대원들이 꼬스쨔를 아가씨라고 부른것은 우연한것이 아니였다. 그러나 그러한 발명은 악의를 띤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비웃는것도 아니였다. 그것은 오직 꼬스쨔의 생김새의 특징을 반영한것이였다.
그러한 용모로 하여 와씰리는 처음에 그를 임무수행에 망라시키는것을 피해왔다. 꼬스쨔에게 임무를 줄수 있다고 리해한 후에는 그를 보장조에만 망라시켰던것이다.
점적해하는 꼬스쨔의 선량하고 티없이 맑은 하늘색눈동자는 생포조에서 하는 무자비한 행동에는 어울리지 않았다.

(내 잘못으로 꼬스쨔가 희생된것이 아닐가?)라는 생각에 와씰리는 더럭 겁이 났다. (임무수행에 망라시키지 않고 생포조에도 넣지 않았다. 나는 그가 무슨 일에 적합한 기질을 가지고있는가를 증명하기로 했던것이다.)

아침에 꼬스쨔의 장례를 치렀다. 묘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으라는 의미에서 엄페부근처에 있는 습기가 없는 언덕에 자리잡았다. 바닥에는 소나무가지를 펴놓았다. 천막에 감싼 꼬스쨔를 폭신한 솔잎우에 내려놓자 쁘로레뜨낀이 조심히 뛰여내려 꼬스쨔의 모자귀가리개를 바로잡아놓고 끈으로 매주었다.

그렇게 한다고 하여 꼬스쨔를 따스하게 해주랴. 와씰리는 동지에 대한 그 마지막걱정을 마음속으로 지지하였다.

사판장 주마첸꼬가 혼자서 울었다. 그는 거북해하지 않고 덧저고리소매로 눈물을 훔치면서 아낙네처럼 곡을 했다.

조총소리가 대지우로 쟁쟁히 울려퍼지였다.

묘지에는 나무비석을 세웠다. 거기에는 빨간 도료로 별을 그려붙이고 검은 유화구로 다음과 같이 새겨넣었다.

《꼬스쨔 꼬틀레위치. 1922년생. 정찰병. 1943년 6월 30일 전투임무수행중에 영웅적으로 전사함.》

× ×

그렇다. 꼬스쨔 꼬틀레위치는 우리곁을 떠났다.

그러나 《혀》는 잡아야 한다. 이런 조건에서 또 몇사람을 희생시킬수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희생은 파쑈놈들과의 싸움으로 보상해야 한다. 《혀》를 잡아오게 되면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된다. 적에 대한 타격도 정확하게 할수 있다. 그러니 이 일은 수백명의 전사들의 생명을 보존하는것으로 된다.

와씰리는 기진맥진하여 첫번째 전호로 오가면서 적의 방어선으로 접근하는데 유리한 곳을 찾아보았다. 그러면서도 줄곧 꼬스쨔에 대한 생각을 하고있었다. (만일 그가 수류탄을 던지지 않았다면 한사람만 죽지 않았을것이다.)

이러한 때에 린접사단구역에서는 계속 포로를 잡아왔다. 모든 구분대에 보낸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도이췰란드군사령부는 엄격한 명령을 발포하였다. 놈들의 편성을 비밀에 붙이며 로씨야정찰병들이 〈혀〉를 잡아가는 경우 그 제1선 구분대지휘관들을 즉시 현직에서 해임하여 전사로 강직시킨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도이췰란드놈들의 진지로 뚫고들어가기가 그처럼 어렵고도 힘든것이였다. 그럴수록 적후에 침투해야 하며 체계적으로 정보를 장악해야 한다. 전선형편은 긴장되였다. 도이췰란드놈들이 정해진 공격날자를 취소하고 부대를 배비변경하고있으며 《범》이라는 무서운 이름을 가진 새로운 중땅크제대를 포함하여 예비대를 계속 끌어들이고있었다.

수백수천의 렌즈들이 감시소에서 적의 거동을 살피며 공중에서는 적의 진지와 후방부대들에 대한 촬영에 힘을 집중하고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료를 가지고 도이췰란드사령부의 기도를 부분적이나마 알수는 있어도 그것을 말로 설명할수 있는 산 《혀》가 필요한것이였다.

정찰조들이 여러번 실패를 거듭한 후 사단장은 공개적인 전투를 통하여 《혀》를 잡기로 결심하였다. 이러한 극단한 조치는 정찰병들의 마음을 몹시 괴롭히였다.

정찰소대의 실패로 하여 보병중대나 공병, 포병들에게 부담을 주게 된것으로 하여 그들의 얼굴을 보기가 거북스러웠다.

꼴로꼴리쩨브를 비롯한 련대참모부는 진종일 토의하여 정찰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집행은 까자꼬브대위의 중대에 위임되였다. 정찰소대도 림시로 까자꼬브의 관할하에 들어갔다.

와씰리는 여직껏 정찰병들의 엄페부안이 그처럼 조용해본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생각되였다.

대원들은 말없이 총과 수류탄, 탄약, 붕대들을 준비하고있었다. 늘 명랑하던 쁘로레뜨낀까지도 롱담을 꺼내지 않았다.

와씰리는 자기 대원들을 바라보면서 우울해있었다. 《례외없이 우리모두를 비옷에 담아 날라갈것이다.…》 그들은 이런 기분을 가지

고 전투에 나가서는 안된다. 자신부터 활기를 띠고 대원들을 격려하며 모두가 사기충천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동무들, 왜 락심하고있소?》 와씰리가 말을 뗐다. 《우리가 정말 이전에 모험한 일이 없었소? 로가찐, 쥬크, 쁘로레뜨낀, 보그단, 꼬노뽈레브, 골로샤뽀브와 같은 매들말이요. 그러니 우리모두가 진짜 그 비루먹을 도이췰란드놈 하나 끌고오지 못한단말이요?》

《그 비루먹을 놈을 잡으러 갈 필요야 없지요. 잡아올바엔 더 많이 아는 실무적인 놈을 잡아와야지요.》 공청책임자가 반대할듯하더니 동시에 와씰리를 지지해나섰다.

나머지대원들은 참견하지 않고 가만있었다.

《동무들이 까자꼬브와 헤여지기 싫어하던 일이 생각나겠는데 이제 그와 함께 임무를 수행하러 가게 됐소.》

《오늘 저도 데리고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관장이 청원했다.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롱으로 여겼다. 주마췌꼬는 제스스로 자신을 남들의 말밥에 올렸다. 《사관장동무야 그럴 필요가 없지.》 《주마췌꼬가 〈혀〉를 잡으러 왔다는것을 알게 되면 놈들이 뿔뿔이 다 도망치고말텐데… 그렇게 되면 또다시 〈혀〉를 잡지 못할거네.》

《동무는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나?》주마췌꼬가 허리에 량손을 얹고 말하였다. 《나야 얌전한 사람인데 어떻게 헤여진다구 그래. 이 정다운 사람때문에 일이 안되여 뼈도 못찾게 되면 실컷 혼쌀을 내라구.》

사관장의 노력과 지휘관의 고무적인 말도 다 리해되였다. 정찰병들은 이러저러한 말들을 저으기 고마운것으로 여기고 점잖게 받아들이였다.

밤에 와씰리는 대원들을 데리고 까자꼬브의 중대로 가서 출발위치를 차지하였다. 련대장이 마지막으로 당부하였다.

《성공의 열쇠는 불의성과 기동성이라는것을 명심하시오. 우리는 동무들을 힘자라는껏 지원하겠소. 그러나 어디까지나 중요한것은 신축성이요.》

와씰리는 축축한 땅우에 엎디여 귀를 강구고 나무가지를 바스락거

리거나 기침을 깇는 사람이 없는가를 살피였다. 앞에서는 벌써 뽀차뜨낀의 공병들이 일하고있었다.

전투정찰에 참가하는것은 일반공격전투보다 훨씬 무서운것이다. 일반공격전투는 려단과 군단이 전진하기전에 적의 방어선을 포병과 항공대가 까부시게 된다. 이때 살아남은 적은 대대들이 각기 자기 방향에서 공격하게 된다. 그러나 전투정찰을 하는 경우에는 예비사격도 없이 적의 강력한 방어진을 향해 모험적으로 달려나가야 한다. 그때는 놈들의 모든 박격포와 대포들의 집중타격을 받게 되며 사방에서 사격을 당하게 되는것이다.…

공병들이 돌아와서 말없이 한쪽에 엎디였다. 뽀차뜨낀이 와씰리에게 소곤거리였다.

《제대로 됐습니다.》

동녘이 푸릇푸릇해지기 시작하였다.

뒤에서 갑자기 돌쩌귀에 기름을 치지 않은 수십개의 철문을 일시에 열어제낄 때와 같은 자지러진 소리가 울렸다. 하늘을 누런 화광으로 물들이며 불기둥이 허공으로 질풍같이 날아올랐다.

《까쮸샤》의 일제사격은 공격에 대한 지원인 동시에 총공격신호로 되였다. 와씰리와 까자꼬브는 선참으로 일어나서 앞으로 내달리였다. 와씰리는 야간정찰에서 구령을 치는데 습관되였지만 이번에는 말없이 철조망을 향하여 뛰면서 대원들이 떨어지지 않고 따라올것이라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러나 까자꼬브는 계속 뒤를 둘러보면서 소리치며 달려갔다.

《날 따랏! 떨어지지 마시오.》

드디여 그들은 공병이 준비한 통로에 이르렀다. 철조망은 다 잘라놓았었다. 한켠에는 해제된 지뢰들이 널려있었다. (고맙네, 줴냐. 일을 잘했어. 통로가 아니라 완전한 길이요. 중요한것은 그 모든것을 감쪽같이 해치운것이요.)하고 와씰리는 고맙게 생각하였다.

도이췰란드놈들의 전호에서는 위장망을 씌운 철갑모가 언뜻거렸다. 자동총들이 소란스레 짖어대고 총알이 잉잉거리였다. 전투소음이 아무리 굉장해도 와씰리의 예민한 귀는 총알이 곁을 스칠 때마다 돌멩이를 힘있게 내던지듯이 철썩철썩하는것을 다 포착하였다. 총알이

사람의 몸에 맞을 때에는 어쩐지 가벼운 소리가 나는것 같았다. 《누가 맞았을가?》주위를 돌아볼새도 없었다. 와씰리는 전호에서 삐죽이 내민 철갑모를 향하여 명중사격을 했다.
수류탄들이 터지였다. 어딘가 뒤에서 던진것들이였다. 까자꼬브는 전호를 넘어서면서 와씰리에게 소리쳤다.
《빨리 행동하시오.》 그리고는 즉시 대원들을 불렀다.
《날 따랏! 전호에서 지체하지 마시오.》
까자꼬브의 중대는 예정한바대로 아직도 전진해야 한다. 그래야 정찰병들의 작전을 순조로이 보장할수 있다.
와씰리의 대원들은 죽은체하는 놈들이 있다는것을 알던터이다. 너부러진 놈들을 하나하나 쳐들어 뒤집어놓으면서 살아있는 놈을 찾기 시작하였다. 로가찐은 엄페호안에서 기를 쓰는 건장하게 생긴 하사관놈을 끌고나오면서 그놈의 목덜미를 어찌나 힘있게 틀어쥐였던지 그의 힘에 눌리여 그놈은 눈만 휘둥그래졌을뿐이였다. 《로가찐이 무사하구나.》 와씰리는 기뻤다. 보그단이 뛰여왔다. 쥬크와 골로샤뽀브, 꼬노뻴레브도 익측에서 얼른거리였다.
《희생된 동무들은 없는가?》 이러한 생각은 하늘이 방금 무너져내리는것만 같은 그러한 순간에 겨우 사라졌다. 자기들의 1선전호가 점령되였다고 믿었을 때에야 도이췰란드놈들이 거기에 대고 포사격을 가했던것이다. 처음에는 부근에 있는 대대들이 사격하더니 얼마 안있어 집중사격이 시작되였다.
누르끼레하고 뿌연 연기내가 들어찬 전호에서는 숨쉬기조차 힘들었으며 사방에서 포탄과 지뢰들이 파렬되였다.
《포로를 맡은 동무는 당장 철수하시오.》 와씰리가 소리쳤다.
그의 명령을 들은 대원들이 하사관과 다른 두놈을 더 끌고갔다.
《살아남기만했으면…》하며 와씰리는 자신보다 오히려 포로들에 대해서 걱정했던것이다.
우리 포병도 있는 힘을 다하여 부지런히 사격하였다. 그러나 그 포성은 적탄이 파렬되는바람에 들리지 않았다. 그리하여 정찰병들에게는 누구도 자기들을 지원하지 않으며 도이췰란드놈들만이 사격하고 있다고 생각되였다.

《모두들 돌아갑시다.》 와씰리가 구령을 치며 손을 흔들었다.
《까자꼬브가 어떻게 됐을가? 그는 우리보다 힘들텐데.》 와씰리는 포탄이 터지는바람에 타래쳐오르는 연기와 흙먼지속에서 까자꼬브의 중대도 그자신도 보지 못하였다.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는지 도와주고싶었다. 그러나 전투정찰조의 강철같은 규률은 무엇보다도 포로들을 데리고갈것을 요구했다.
와씰리도 기본임무를 되새기면서 포로들이 있는가, 정찰병들모두가 퇴각하는가를 살피고 자신도 흙덩이를 걷어차며 폭탄구뎅이로 미끄러져내리면서 허리를 구부리고 그냥 뒤로 내달리였다.
《까자꼬브는 머리가 도는 사람이니까 내가 귀띔해주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있을것이다.》
감시소에서는 사단장이 그들을 기다리고있었다.
그는 자기앞에 세놈의 포로를 내놓자 만족한듯 으흠 하고 소리쳤다.
포로들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 장령을 보자 완전히 어쩔바를 몰라했다. 몇분전만해도 중대장인 상위가 자기들을 직접 만난 가장 높은 상급으로 되였던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기껏해야 세발자국 되나마나한 곳에 사나운 로씨야장령이 나타났다. 그의 텁수룩한 눈섭만해도 놈들을 전률케 하였다. 게다가 옆에는 장령의 수원들인 대좌들과 소좌들, 대위들이 둘러섰다.
도브로호또브는 포로들을 훑어보고 루뜨꼽쓰끼에게 명령하였다.
《놈들에게 기본적인것을 물으시오. 지금 놈들은 어리벙벙해서 구체적인것을 댈수 없을거요. 자세한것은 후에 알아봅시다.》
《당신들의 공격은 언제 시작되오?》 루뜨꼽쓰끼가 물었다.
졸병들은 하사관을 슬쩍 훔쳐보았다. 그자는 자기가 상관의 지위에 있다는것을 상기시키면서 점잔을 빼며 도도한 기세로 병정들에게 심문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직접 보여주려고 하였다.
《그들을 갈라놓아야겠습니다.》 루뜨꼽쓰끼가 조용히 말하였다.
《상급과 하급을 따로 떼놓아야 합니다. 여기서는 정신적인 요인이 작용합니다. 대체로 심문할 때에는 개별적으로 해서 모의할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장령에게는 초보적인 규정을 소홀히 대하는것이 어색해졌다.
그러나 책에는 없는 다른 규정도 존재하고있는것만큼 여기서는 상관의 말이 항상 정당한것이다. 장령은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 루뜨꼽쓰끼를 질책하였다.
《젠장, 동무는 규정대로 하지 않고 뭘 하자는거요? 그거야 동무가 할 일인데 얼마든지 하시오. 나는 동무가 말하는 그 〈요인〉이니, 〈정신〉이니 하면서 파고들 짬이 없소. 당장 하라는대로 조직하시오.》
《하사관을 데려내가고 졸병들을 서로 갈라놓으시오. 이놈을 놔두시오.》 루뜨꼽쓰끼가 포로를 감시하는 정찰병들에게 명령하였다.
로가찐은 하사관놈의 팔소매를 쥐여당기였다. 그놈은 아마 로씨야장령이 성이 나서 자기를 총살하라고 명령한것으로 생각한것 같았다.
《내가 다 말하겠소. 다 말할테요.》
루뜨꼽쓰끼는 자기의 처음계획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리하여 그놈부터 심문하기로 하였다.
제각기 따로 떨어져서 심문을 받은 하사관과 두명의 졸병은 도이췰란드군의 공격이 5월중순으로 계획되였다가 후에 6월말로 미루었는데 지금은 부대들에서 7월 5일에 준비태세에 들어갈데 대한 명령이 하달되였다고 실토하였다.
《군단장에게 보고하러 갔다오겠는데 동무는 심문을 계속하시오.》
도브로호또브가 지시하고는 전화를 걸려고 감시소의 사다리를 밟고 우로 올라갔다.
와씰리는 심문하는 소리를 듣는둥마는둥 하였다. 그의 정신은 까자꼬브의 중대가 있는 골짜기 한끝으로 쏠리였다. 거기에는 천막에 날라온 전사자와 부상자들이 있었다. 까자꼬브자신은 대원들속에서 천천히 오락가락하며 무슨 지시를 주고있었다.
와씰리는 자기의 대원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모두가 다 있는것 같았다. 로가찐은 한켠에서 쁘로레뜨낀의 상처에 붕대를 감아주고있었다. 보그단의 곁에서는 쥬크가 붕대를 쥐고 분주히 돌아쳤다.
(그런데 왜 꼬노쁠레브가 안보일가? 혹시 정치부련대장에게 가지 않았을가?) 하고 와씰리는 추측했다.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면 끄노뻘레브가 늘 가르부즈에게 모범적인 공청원들을 보고하군하였다. 그러나 지금 가르부즈는 여기에 와있지 않는가. 공청책임자인 그가 보이지 않았다.

《끄노뻘레브는 어데 갔소?》 와씰리는 더럭 어성을 높였다.

대원들은 그가 마치나 곁에라도 있기나 한듯 심드렁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누가 그를 마지막으로 봤소?》

《마지막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저기 전호에서 봤습니다. 그는 엄페부로 뛰여갔댔습니다.》 쁘로레뜨낀이 대답하였다.

《그 다음엔?》

《그 다음엔 제가 바루 저 도이췰란드놈을 끌구왔지요.》 쁘로레뜨낀이 대답하였다.

《끄노뻘레브가 엄페부에서 나오지 않았소?》

《모르겠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소?》 와씰리는 끈덕지게 따지였다. 그러나 자신도 벌써 돌이킬수 없는 무슨 불길한 일이 생겼다고 짐작했다.

《그가 엄페부로 들어갔다면 거기서 도이췰란드놈이 덮쳤을런지 모릅니다.》 쁘로레뜨낀이 추측하였다.

《끄노뻘레브는 도이췰란드놈이 방해가 될 그런 동무가 아니요. 게다가 그가 엄페호에 분별없이 막 뛰여들 그런 머저리는 아니란말이요. 두말할것없이 조심히 들어갔을겝니다.》

《거기에 도이췰란드놈이 서넛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소? 단번에 숨통을 조였을텐데.》 쁘로레뜨낀이 우겼다.

《자, 그럼…》 골로샤뽀브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럼 이제라두 도이췰란드놈들이 제 정신이 들기전에 당장 기여가서 해제껴야지.》 로가찐이 단호히 말하였다.

《이젠 늦었다. 벌써 정신을 차리구두 남았겠는데.》 골로샤뽀브가 결론적으로 말하였다.

《그래 쎄르게이를 내버릴텐가, 응?》 로가찐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버릴수도 없소. 무슨 다른 수를 써서라두 구출해내야 해.》골로샤뽀브가 침착하게 말하였다.
(구출해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어떻게 하면 끄노뿔레브를 구원해내겠는가?) 하고 와씰리는 골똘히 생각하였다. 그자신도 무슨 믿음직한 대책을 세울수 없다는것을 포착하고 사실을 빨리 련대장에게 보고하기로 하였다.
그러는사이에 사단지휘관들이 포로를 데리고 벌써 떠나가버렸다. 련대의 참모군관들도 후방으로 떠나고 없었다. 그것은 도이췰란드놈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면 악에 받쳐 아군진지에 대고 중포탄을 쏘아대며 위협할수 있으므로 그들을 구태여 무모하게 위험에 처하게 할 필요가 없었기때문이였다. 까라바예브와 가르부즈도 감시소를 떠나 참모부로 가려 했다. 그러나 와씰리의 보고로 하여 그들은 지체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까라바예브는 정찰소대장의 애매한 보고를 다 듣고나서 이를 악물고 외면하였다. 가르부즈는 손벽까지 쳤다.
《왜 동무는 그걸 미리 발견못했소?》
와씰리는 죄송스러운듯 머리를 떨구고 서있었다.
《공청책임자를 잃다니. 잃은게 아니라 남기고 왔단말이요. 그건 수치요. 혹시 그가 부상당할수도 있지 않겠소?》
포대경으로부터 감시병의 목소리가 근심스레 울려왔다.
《소좌동지, 당신이 말하는 그 정찰병이 보입니다.》가르부즈가 포대경앞으로 달려왔다.
《어데 있소?》 와씰리가 감시병에게 조용히 물었다.
《저기 철조망 말뚝에 결박되여있습니다.》
《살아있소?》
《모르겠는데요. 살아있는것 같지 않습니다. 바줄에 매달려있는데…》
언제나 친근한 전우가 죽는것을 바라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그 순간에 와씰리는 쎄르게이 끄노뿔레브에 대한 생각으로 하여 심장이 터지게 아파났다. (만일 그가 죽었다면 오히려 나을것이다. 고통을 면할수 있지 않는가.)

가르부즈한테서 포대경을 넘겨받은 까라바예브는 렌즈에서 눈을 떼고 와씰리를 불렀다.

《이리 와서 보라구. 자네 눈이 더 밝겠는데…》

와씰리는 렌즈에 눈을 대고 앞을 내다보았다. 검은 십자조준선이 쎄르게이 꼬노쁠레브의 모습을 지워버렸다. 그는 철조망 말뚝에 매여있었다. 팔은 말뚝뒤로 제껴지고 반나마 드러낸 맨몸은 피투성이였다.

위장복과 군복저고리는 다리아래로 드리워있었다. 포대경에 비낀 모습은 참혹성을 더해주는듯 둘로 갈라졌다. 그러나 와씰리는 다른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조준경을 조절하지 않았다. 상관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했다. 와씰리는 모든 사실을 좀더 자세히 살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서도 계속 시준구에 눈을 대고 쏟아지는 눈물을 감추고있었다.

가르부즈는 단호하게 와씰리를 비켜세우고 시준구 고무테에 흘린 눈물을 보고서 동정어린 목소리로 말하였다.

《너무 슬퍼말게, 와씰리! 전쟁판에서야 별의별 일이 다 있는 법인데. 쎄르게이는 놈들의 마수에 걸려들어 벌써 잘못되였지만 설사 부상당해서 살아있다구 하기요. 그러면 그에게 심문을 들이댈텐데 고통인들 얼마나 당하겠소. 반면에 우리한테 구경시키려구 말하자면 희생된 전우를 내왔다구 하기요. 그렇다구 그에게 도움이 될건 없지 않소.》 까라바예브도 그를 위로해나섰다.

《까자꼬브의 중대에서는 손실이 더 많소. 부상자 여섯명에 전사자가 세명이나 되오. 그러나 와씰리, 우리는 임무를 다 수행하고 포로를 세놈이나 잡아왔다는걸 생각해보시오.》

《하지만 쎄르게이는 온 련대에서 제일 훌륭한 동무가 아니였습니까! 그러니 그를 그렇게 그냥 내버릴수야 없지 않습니까.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와씰리가 어성을 높이였다.

《구체적인것을 말하시오. 나는 련대를 동원할수는 없소. 그렇다구 대대를 내버릴수도 없는것이요. 놈들의 력량이 얼마나 집중됐는지는 나보다 더 잘 알지 않소.》 까라바예브는 순순히 긍정하면서도 인차 전선형편을 예고해주었다.

《우리가 밤에 데려올수도 있지 않습니까?》 와씰리는 절망적으로 물었다. 그는 끄노쁠레브의 시체옆에서 매복이나 지뢰에 걸릴수도 있으며 다른 무슨 치명적인 《사건》에 말려들수도 있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련대장도 그것을 리해하고 확고하게 대답하였다.

《밤에라도 올가미에 기여들어가게는 못하겠소. 정찰은 련대에 절실히 필요되는 사업이요. 그래, 동무는 경험있는 사람들을 다 없애치우고 자신도 죽자구 그러오? 안되오. 와씰리, 감정을 리성으로 억눌러야 하오. 전쟁마당에서는 건전한 사고력과 사업상의 리익을 다른 모든 일보다 첫자리에 놓아야 하오. 동무가 제할대로 하면 파멸을 면치 못하오. 도이췰란드놈들은 쎄르게이를 미끼로 내세워 동무들을 잡자구 기다리고있지 않소.》

와씰리는 정치부련대장을 바라보면서 애원의 시선을 보냈지만 그는 외면하였다.

《혹시 지원병들이 갔다올수 있지 않습니까?》 와씰리는 지휘관의 엄격성을 피하려고 하였다.

《쓸데없이 고집을 부리지 마시오.》 까라바예브가 말을 잘랐다. 《동무한테 있는 지원병들이야 고작해서 소대밖에 더 되오? 됐소. 돌아가서 쎄르게이를 복수할 궁리나 해보시오. 도이췰란드놈들이 당장 제발로 여기로 달려들텐데. 그 하사관놈의 말이 기억나오? 가서 대원들을 그 방향에서 준비시키시오.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한데 대해서 감사를 주오. 모범적인 대원들에게 표창을 내신하시오.》

《알았습니다.》 와씰리는 조용히 대답하고 감시소에서 나왔다.

저녁에 뽀차뜨낀이 지나가던 길에 정찰병들한테 들리였다. 아마 와씰리의 기분상태를 알아맞힌 모양이였다. 그는 문턱에서 머리를 끄덕이였다.

《가서 말합시다.》

와씰리가 공손히 엄페부에서 나왔다. 그들은 말없이 묵묵히 갱기슭을 따라 걸어갔다.

《쎄르게이의 제사도 지낼수 없으니…》 와씰리가 괴로운 심정으로 말을 꺼냈다.

여름에는 군인들에게 《백그람마취제》를 내주지 않았다. 그것은 추운 겨울에만 해당되였다. 그렇지만 정찰병들에게는 사시절 그 백그람만은 특수한 몫으로 예견되여있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벌써 두주일째나 그것을 가져다주지 않았다.
《조금 얻을수 있습니다.》 뽀차뜨낀이 잠시 생각하면서 말하였다.
《어데서?》
《생각납니까. 상위동지가 까라바예브에게 가져다준 가방이 있지 않습니까?》
《글리예브가 주지 않을거요.》
《한번 말해보는건 죄가 아니니까…》
그들은 홑이불과 베개잇이며 여름에는 겨울옷을, 겨울에는 여름옷같은 물품을 건사해두는 헛간앞에서 글리예브를 만났다. 거기에는 등피가 깨지면 갈아댈수 있는 유리와 우연히 손님들이 오게 되면 쓰려는 그릇들도 있었다.
글리예브는 무슨 책을 읽고있었다. 책장은 구불구불한 시커먼 지렁이비슷한 괴상한 표식들로 얼룩져있었다.
《훌륭한 사람이였습니다. 참 멋들어지게 싸웠습니다!》 련락병 글리예브가 큰소리로 말했다.
《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소.》 뽀차뜨낀이 그의 말을 들으면서 긍정하였다.
《왜 없겠소? 얼마든지 있소. 몹쓸놈의 전쟁이니까. 이를테면 포탄도 폭탄도 모두 모진것들이 아니요. 누구도 그것을 보지 못하면야 무슨 고결성이 있을수 있겠소. 일전엔 영웅들이 만사람이 보는데서 싸우지 않았소.》
《그래 동무는 정말 도이췰란드놈의 철조망에서 쎄르게이 꼬노뿔레브를 보지 못했단말이요?》
《왜 보지 못했겠습니까. 쎄르게이야 모두가 보는데 있었는데요.》
《글리예브, 그래 동무네 풍습에는 영웅들을 어떻게 추모하게 되여있소?》 뽀차뜨낀이 예상된 목표를 향하여 조심스레 한걸음을 내디디였다.
그러나 와씰리는 (우리가 비굴하게 매달리는게 아닐가? 뽀차뜨낀

을 저지시켜야 한다.) 하고 생각하였다.

《아! 우리 풍습이야 얼마나 훌륭하오. 남자들은 울지 못하게 돼있지 않소. 남자들은 옛날 노래를 부르며 둥글게 원을 지어 어깨를 마주 대고 춤을 추며 술도 마시구 그저 마음속으로만 울뿐이지.》 글리예브가 호응하였다.

《나하구 상위동지야 깝까즈노래를 부르는거구 게다가 춤출줄도 모르지. 그러니 술이라도 마시면서 전우를 추모하자구.》

글리예브의 두눈에서는 열정이 번뜩이였다.

《자, 어서 마시자구.》 그러나 그는 인차 걱정스레 물었다. 《헌데 술은 어데서 얻는다?》

《우린 술이 없소. 우린 자네가 꿔주리라구 생각했지.》

《나한테두 없는데요.》

《그 가방이 생각나지 않소? 상위동지가 가져다준걸말이요?》

《그건 안되네. 련대장이 손님대접용으로 아끼라구 한건데.》

《이제 당장 싸움이 벌어질판인데. 언제 손님이 온다구 그래. 후에 상위동지가 더 좋은 술을 얻으면 어련히 가져다주지 않을라구.》

와씰리는 이러한 놀음이 공연한것이라고 생각했다. 글리예브는 이런 행동에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있었다. 그러나 보건대 그 방책이 그의 심장을 몹시 자극한것 같았다. 뽀차뜨낀은 후에 술을 꼭 갚아주리라는것을 믿게 했다. 글리예브는 칼이라도 쥔듯이 손을 단호히 휘저었다.

《아니, 글리예브야 훌륭한 정찰병에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동의하지 않았소. …》

그들 셋은 좁다란 헛간에 겨우 비집고 들어갔다. 글리예브는 지휘관의 외투를 펴고 거기에 통졸임과 흘레브를 꺼내놓았다. 그는 컴컴한 은으로 만든 뿔잔도 찾아냈다.

《아버지가 전선으로 바래주면서 선사한거요.》 글리예브가 설명하였다. 《여기에는 〈전쟁은 전쟁으로 없애버리고 피는 피로써 씻어버리며 죄악은 그것을 빚어낸자에게로 돌아가기마련이다.〉라고 씌여있소.》

글리예브는 가방을 열고 우아한 상표도 들여다보지 않고 선뜻 병

마개를 따서 뽈잔에 포도주를 부었다. 그리고는 구슬픈 노래를 한곡조 불렀다. 그는 눈을 비스듬히 감고 이리저리 몸을 흔들면서 조용히 노래를 불렀다.

와씰리와 뽀차뜨낀은 가사를 몰랐지마는 인츰 노래가락에 말려들었다. 노래는 눈물을 자아내거나 설음을 억누르지 못했지만 마치 심장의 중하를 가볍게 덜어주고 어깨를 쭉 펴고 용기를 안겨주는듯 했다. 뽀차뜨낀의 잔꾀로 하여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았다. 뽀차뜨낀과 와씰리는 물론 글리예브도 옛날 례배식의 참가자로 되였다는감을 느끼면서 그의 엄숙성에 완전히 포로되였던것이다. 용량이 큰 뽈잔은 그들의 자그마한 둘레를 몇바퀴 돌아갔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와씰리는 글리예브에게 청했다.

《어서 마시기요. 글리예브, 어서 마시라구. 자네의 민요는 포도주보다 더 효과가 있네.》

× ×

도이췰란드놈들의 공격을 예견하여 꾸르쓰크전선에서 방어하고있던 쏘련군 련대와 사단들은 정원으로 보충되였다.

까라바예브의 련대에는 아침 일찌기 보충인원이 도착하였다. 전투원들은 하차역에서부터 밤새껏 걸어서 기진맥진해졌다. 골짜기아래에 두줄로 정렬한 그들의 모습은 그닥 아름답지 못하였다. 대형은 불룩 나오기도 하고 쑥 들어가기도 했으며 고르롭지 못한 땅의 기복마냥 우로 올라가는가 하면 아래로 처지기도 하였다. 보충인원의 대다수가 방금 전선으로 초모되여온 젊은 청년들이였다. 그들의 외투는 닮어지지 않았으며 다리미처럼 크고 묵직하게 생긴 신발도 아직은 새것이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비록 군복이 닳아빠지긴 했어도 맵시있게 받쳐입은 야전병원에서 갓 퇴원한 전선군인들도 있었다. 그들의 소가죽장화는 언제 어떻게 로획한것인지는 알수 없었다.

꼴로꼴리쩨브소좌가 보충인원들을 배치하러 나왔다. 근무장들과 병종구분대 지휘관들이 대형앞으로 왔다갔다하면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골라보았다.

《목공, 단야공 그리구 건설일군들이 있으면 대답하시오.》 련대기사 비르낀이 큰소리를 치고는 대답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었다.
《무전수들과 전화수들은 없소?》 통신근무장 모레이꼬대위가 불렀다.
《전쟁에 참가해본 동무는 없소?》 포장 보그다노브가 웅글은 목소리로 물었다.
모두가 완성된 사람들을, 최악의 경우에는 자기 부문에 약간한 조예가 있는 사람이라도 고르려고 하였다. 그러나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배치하는데서 규정된 순차가 있었다. 그리하여 쫄로꼴리쩨브는 즉시 질서를 세웠다.
《그만들 고르시오.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할수 없소.》
률렌꼬브대위가 맨 먼저 사람들을 골라잡을 권한을 가지였다. 그는 오른쪽판자노리에 군모를 내려쓰고 와씰리와 함께 날파람있게 대렬앞에 나섰다.
《정찰을 지망하는 동무들은 대렬 3보 앞으로.》
대렬은 까딱하지 않았다.
《아마 당신의 말을 듣지 못했거나 리해 못한게 아닙니까?》 와씰리가 의아해하면서 대위에게 조용히 말하였다.
률렌꼬브는 보충인원들과의 사업을 한두번만 해보지 않았다. 그는 와씰리에게 비양조로 대꾸했다.
《그들은 모두 리해했소. 알겠지만 이건 영화가 아니란말이요.》 다시금 대렬을 향하여 사람을 얼리는 어조로 말하였다. 《정찰병에게는 특별한 대우를 해주오. 겨울과 여름에는 백그람씩 준단말이요.》
《아홉그람의 총알도 남먼저 받지요.》 누군가 대렬안에서 호응했다.
《옳소. 그런 몫은 전쟁판에서 누구든지 다 받을수 있소. 그러나 정찰은 매우 흥미있는 일이요. 특별히 중요하고도 영예로운 사업이란말이요.》
전사들은 고개를 숙이고 서있었다. 누구도 률렌꼬브대위의 시선과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다.
《여기에 온 동무들이 모두 겁쟁이들이 아니요?》 와씰리가 화를

냈다.
《잠간만, 화를 내지 마시오.》 률렌꼬브가 그를 저지시켰다.
《그런데 여기에 비겁성하구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밤빛눈섭에 얼굴이 길죽하게 생긴 키큰 전사가 모욕감을 느껴서인지 어성을 높여 물었다.
《왜 관계가 없소? 정찰하러 다니는게 두려우니까 그러는거겠지.》 와씰리가 계속 열을 올렸다.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비겁해서 그런건 아닙니다.》 키큰 전사가 응수를 하였다.
《그럼 동무를 어떻게 리해해야겠소?》
《그렇게 리해하십시오. 대위동지가 정확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정찰은 특수한 사업이라구. 그러니까 모두가 정찰병이 되여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못한단말입니다. 그래서 꺼려할테지요. 그런데 당신들은 대번에 우릴 보고 겁쟁이라고 하니 나쁩니다, 상위동지.》
와씰리는 당황해났다. 함부로 내던진 말이 그들모두를 모욕한것으로 하여 한편으로 거북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자, 그만하시오.》 률렌꼬브가 화해시켰다. 《그럼 동무는 정찰병이 되겠소?》
《필요된다면야 정찰병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오.》
《그럼 동의합니다.》
《이름은 뭐요.》
《자하르 쎄워스찌야노브입니다.》
《쓰시오, 와씰리. 또 지망하는 동무가 없소? 동무들이 군대에서 정찰병은 희망에 따라 받는 유일한 병종이라는것을 명심하시오.》
《그런데 정말 누구도 원하지 않으면 그때엔 정찰이라는게 없을게 아닙니까? 그러면 맹목적으로 싸워야 하지 않습니까. 네?》 눈은 파랗고 눈섭과 수염이 까만 우크라이나사람이 쟁쟁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때엔 명령으로 임명해야 하오. 어느 누구도 정찰병이 없이 싸

우지는 않았소.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 소망에 따라 들어오게 되면 더 좋은 일이요. 그런데 동무는 왜서 싫어하오?》 률렌꼬브가 물었다.

《그건 제가 정찰병이 될만한 기질이 있는지 몰라서 그러는거지요. 혹시 저한테 그런 자격이 없지 않을가요?》

《동문 건강하구 쾌활한 청년이요. 우리한테는 바로 동무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오. 받겠소. 훌륭한 정찰병이 되길 바라오. 게다가 우리 정찰소대에는 동무와 한고장태생인 보그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심심치 않을거요.》 률렌꼬브가 말하였다.

《그럼 등록해주십시오. 성은 찜발류크이구 이름은 미꼴라이라구 합니다.》

《대위동지, 말 좀 합시다. 저두 쓸모가 있을겁니다.》 얼굴에 주근깨가 배기고 장난꾸러기같은 인상을 주는 허약한 청년이 청원했다. 그는 잘다란 이발을 드러내고 히죽이 웃었다.

《이름은?》 률렌꼬브가 물었다.

《꾸자 쁘랴힌입니다.》

대렬안에서는 폭소가 터졌다. 그러나 쁘랴힌은 당황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웃는 사람들에게 면박을 주었다.

《앙천대소할 필요는 없소. 나는 꾸지마라구 하오. 꾸자는 간략해서 부른거요.》

대위는 쁘랴힌을 평가하듯 유심히 바라보았다.

《어느 고장 태생이요? 초모되기전에는 무슨 일을 했소?》

《랴잔부근에서 났습니다. 농촌 꼴호즈원이였지요. …저는 속이지 않습니다. …》 꾸지마는 《농촌》이라는 말을 제대로 쓰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속이지 않는다.》는 말을 어색하게 해서인지 점적해하였다.

《좀 약골이구만. 그 몸엔 도이췰란드놈들과 육박전을 해내지 못하겠소.》 대위가 말하였다.

《사실 저는 그래서 앞에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정찰을 하구픈 마음은 있어두…》

《와씰리, 어떻게 생각하오?》

《좀 크게 봐둡시다. 나는 기다릴새가 없습니다. 래일에는 당장 임무를 수행하러 떠나야겠는데…》

젊은 병사는 면구스러운듯 대렬안으로 들어갔다. 와씰리에게는 그가 가엾게 생각되였다. 그러나 어쩔 도리가 없다. 정찰을 하자면 힘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률렌꼬브는 대오를 다 훑어보면서 겨우 세명을 골랐다. 그들은 쎄워스찌야노브와 찜발류크 그리고 건강하게 생긴 하미둘린이였다. 그는 전투에 참가한적이 있었으며 부상당하기전에는 쓰딸린그라드에서 싸웠다.

와씰리는 선발된 정찰병들을 수림속에 창고로 지어놓은 새집으로 데려갔다. 그들은 문곁에 서서 자기 짐들을 어데다 놓아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있었다.

《동무들, 식탁에 나와들 앉소.》와씰리가 그들의 용기를 돋구어주었다.

《주마첸꼬, 어서 동무들을 대접하시오. 동무들, 여기 와앉소. 제 집처럼 생각하시오.》

정찰병들이 마루에 깔아놓은 건초더미에서 일어나앉아서 신입대원들을 눈여겨보았다.

《동무는 정말 자뽀르쥐예까자크같구만.》 쁘로레뜨낀이 수염이 긴 우크라이나청년에게 말하였다.

《옳습니다. 자뽀르쥐예까자크지요, 내 할아버지가 진짜 자뽀르쥐예까자크였습니다. 나만이 뜨락또르꾹대기에 앉아서 까자크생활을 했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까자크요, 아버지는 까자크사람의 아들이니 동무야 틀림없는 개꼬리가 아니요.》 골로샤뽀브가 끼여들었다.

찜발류크가 책망하는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런 주제에 무슨 정찰병이요. 초면에 어리석게 함부로 말하는걸 보니 우둔한 사람이군.》

동무들은 골로샤뽀브를 비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잠시동안 분위기가 명랑해졌다. 누구도 찜발류크의 역성을 들지 않았다. 악의를 띤 어느정도 유해로운 골로샤뽀브의 행동은 전투에서 검토된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그가 어떤 재간이 있는지도 아직 수수께끼로 남아있었다.

《한고향친구, 나한테 좀 오라구.》 보그단이 불렀다. 《나하구 얘길 좀 하자구.》

《꼼바인운전수겠다, 게다가 뜨락또르운전수까지 보태면 호흘라쯔끼에 꼴호즈를 세울수 있겠소.》 쁘로레뜨낀이 춰주었다.

《맞았어.》 보그단이 긍정해나섰다. 《우리는 자네도 받아들이겠네. 그러면 하마새끼가 기린을 낳는격이 될걸세.》

《동무는 어데서 왔소?》 로가찐이 다른 신대원에게 물었다.

《난 꾸반에서 왔습니다.》 자하르가 씨원스레 대답하는체하다가 머뭇거리였다. 《내 직업은 그닥 전투적이 못됩니다. 빵굽는 일을 했지요. 그러나 힘은 좀 있습니다. 기계화가 되기전만해도 떡반죽을 손으로 했으니까. 한교대에 한톤을 넘긴적이 한두번이 아니였지요.》

자하르는 식탁에 팔꿈치를 기대고 팔씨름을 청했다. 《견주어볼 사람이 없소?》

처음에 싸샤 쁘로레뜨낀이 나앉았다. 자하르가 싸샤를 쳐다보지도 않고 빈 팔소매처럼 그의 손을 눌렀다. 다음번 피해자는 쥬크였다. 자하르는 별로 힘을 쓰지도 않고 차례로 모든 사람들을 지워버렸다. 로가찐만은 한동안 버티여냈다. 그러나 아무리 기를 써도 자하르를 제낄수는 없었다.

《진짜 힘장사요! 틀림없는 제빵공이요!》

《못이 없소?》 자하르가 물었다.

《얻어보기요.》 쁘로레뜨낀이 약속하였다.

그는 벽에서 자동총을 벗기고 못을 흔들어 잡아당겼지만 나오지 않았다. 겨우 흔들어 뽑아냈다.

자하르는 오래된 그 큰 못을 보고 문앞에 있는 보그단에게 청했다.

《장작개비든가 몽둥이든 아무거나 주게.》

자하르는 못끝을 식탁에 대고 장작개비로 대가리를 가리운 다음 설명하였다.

《손이 상하지 않게 하자는거요.》

정찰병들이 정신을 차리기전에 벌써 자하르는 식탁에 세운 못을 주먹으로 몇번 두드려 대가리까지 거의 들어가게 박았다.
모두가 환성을 올리면서 칭찬하였다. 자하르는 삐죽이 나온 못끝을 쥐고 손가락이 하얗게 될 정도로 힘을 주더니 단번에 뽑아냈다.
《여보게, 동무는 교예단에서 출연해두 손색이 없겠네. 말편자두 구부리구 널판자두 쪼개면서말이야.》쁘로레뜨낀이 큰소리로 말하였다.
《나는 마스는걸 좋아하지 않지요. 내 힘은 평화로운것이니까. 살게 되면 다시금 사람들에게 빵을 만들어 대접해얄게 아니요. 이 세상에서 빵냄새만큼 향기로운것은 없지 않소. 난 일하러 가겠소. 내 없는데서 빵을 꺼내거나 빵이 가마에서 구워지는중이라두 나는 한키로밖에서도 그 냄새를 맡는단말이요. 참 동무들, 빵굽는 일이 얼마나 매혹적인 로동이요! 한교대동안에 분주히 일을 하고나면 피로해서 다리가 후들거리고 손맥이 풀리다가두 아침에는 생오이처럼 시원한 기분에 일어나선 다시금 빵구으러 달려가군했소.》
《그러니 자네 빵은 아마 이런것 같지는 않겠지.》쁘로레뜨낀이 식탁에 놓인 거무스레한 빵을 툭툭 치면서 말하였다.
《뭐 그걸 아무렇게나 막 만드는줄 아는가.》 주마첸꼬가 부정해나섰다. 《자네 도이췰란드놈들의 전리품을 보라구. 내 생각엔 거기에 톱밥이 절반나마 섞인것 같아.》
주마첸꼬는 자기 고간에서 종이에 겹싼 빵덩어리를 가져다놓았다. 종이에는 《1939년 제조》라고 찍혀져있었다.
자하르는 그 괴상한 제품을 호기심이 나서 살펴보았다.
《자네 맛이 어떤가 보게나.》주마첸꼬가 권했다. 빵은 속이 하얗게 생겼지만 자하르가 한쪼각을 떼내여 씹어보니 빵맛이라고는 전혀 느낄수 없었다.
《톱밥이군.》
《대용품이요. 틀림없소.》로가찐이 결론을 지었다.
《아니, 동문 왜 잠자쿠 있나?》 주마첸꼬가 하미둘린에게 물었다.
《어디 순서가 차례져야지요. 》 그는 부드럽게 대꾸하였다.

《이름이 뭐라드라?》

《나일입니다.》

《어디서 살았소? 무슨 일을 했소?》

《볼가강변의 고리끼시에서 살았는데 한톤반짜리 짐차 〈엠까〉를 만들었지요.》

《땅크를 많이 만들었드라면 더 좋았을걸.》 골로샤뽀브가 중얼거렸다.

《그건 내 전문부문이 아니지요.》 하미둘린이 롱조로 말하였다.

《가정은 있소?》

《없습니다. 미처 꾸릴새가 없었지요.》

《그렇다면 좋겠소.》 주마첸꼬가 한숨을 쉬면서 말하였다.

《왜 좋을가요?》

《정찰을 하자면 가정이 없는게 더 나으니까 하는 소리지… 그래 자동차를 내놓구 또 무슨 일 해봤소?》

《레스링을 해봤지요. 2급선수권을 가지고있습니다.》

주마첸꼬는 하미둘린과 힘내기를 해볼 사람을 찾기나 하듯 정찰병들을 둘러보았다.

《로가찐, 자네가 혹시 안되겠소?》 주마첸꼬가 물었다.

《어림도 없지. 그 동문 모르는 수법이 없소.》 로가찐이 손을 내저었다.

《무슨 수법이든 다 알지요. 바란다면 제가 배워주겠습니다.》 하미둘린이 확신시켰다.

쁘로레뜨낀은 멋없이 질질 끄는것을 달가와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식탁에서 물러나 통로에 나와섰다.

《어디 보여주게나.》

나일은 그를 훑어보더니 머리를 흔들었다.

《여기서는 안되오. 자칫하면 내가 동무의 갈비를 분질러놓겠소. 널직한데 나갑시다.》

《벌써 겁을 먹었군.》 쁘로레뜨낀이 가슴을 내밀고 골을 냈다.

《자, 그만들 하시오. 동무들, 참 상학때 하면 좋겠소. 신대원들에게 대주면서, 뭘 좀 생각해보기요. 제복을 입어야 하니까…》

× ×

어두운 밤이 되였다.

포로의 진술대로 하면 이 밤에 도이췰란드군이 공격해와야 한다.

아군의 전호에서는 누구도 잠들지 않고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와씰리는 캄캄한 어둠속을 주시해보았다. 그는 적들때문에 얼마나 많은 력량을 여기로 끌어들였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었다.

산들거리는 바람결에 전야에서 익어가는 밀냄새가 구수하게 풍겨왔다. 밤은 푸근했지만 와씰리는 가끔 온몸이 떨리면서 신경이 오싹해지는바람에 어깨를 으쓱했다.

새벽 2시 12분에 쏘련군사령부는 적에게 치명적인 《선물》을 가져다주었다. 야밤삼경에 《까쮸샤》의 예광선이 어둠을 헤가르며 밝게 날아올랐으며 대구경포들이 천지를 진감하였다. 반타격준비포성과 포화가 어찌나 드세였던지 마치도 옆에 있던 산들이 허물어져나가는것 같았다. 포병들이 옹근 하루분의 긴장된 전투정량을 불과 몇분동안에 다 써버렸다.

《지금 도이췰란드놈들한테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있을것이요. 무서운 참경이!》

와씰리는 곁에 서있는 률렌꼬브에게 소리쳤다. 그러나 그는 포성으로 하여 와씰리의 말을 듣지 못했다.

와씰리는 공격을 앞두고 집결된 병사들로 붐비는 적의 전호를 상상해보았다. 놈들은 타격을 피할 엄폐호가 부족하다. 지금 놈들은 서로 무질서하게 엎친데덮친격일것이다. 출발계선에 나선 땅크들은 전투에 진입할새없이 불타고있을것이다. 아군방어선을 파괴하고 제압하기 위해 준비한 수천톤의 포탄들이 자기들의 대대화력진지들에서 폭발되는바람에 온통 뒤죽박죽이 되였을것이다.

《쎄르게이! 자네 목숨은 도이췰란드놈들에게 정말 비싼 대가를 치렀네. 우리는 그놈들의 공격날자와 시간을 알아내고 드디여 그놈들

에게 있어서 가장 위급한 순간에 답새겨댔어.》하고 와씰리는 꼬노쁠레브에 대한 생각을 하고있었다.

적들은 많은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에로 넘어갔다.

땅크들이 다 익은 밀밭을 짓뭉개면서 까라바예브의 련대를 향하여 달려들고있었다. 땅크들은 어찌나 많았던지 파도처럼 련달아 밀려오고 렬을 지어 장기판모양으로 기여오지만 않았다면 아마 철의 장벽을 가로질러놓은것 같았을것이다.

이 전투에 참가한 매개 전투원들은 이 가렬처절한 격전에 대하여 자기식의 의의를 부여했다. 중부전선사령관 로꼬쏩쓰끼는 그 전투를 북쪽에서 꾸르쓰크에로 달려든 도이췰란드 제9군과의 단독전으로 보았다. 워르네쥬전선사령관 와뚜쥐에게 있어서 그것은 남부에서 꾸르쓰크에로 뚫고나가려는 적의 제4땅크군단의 기도를 파탄시키는 격전으로 여겼다. 사단지휘관인 도브로호또브와 련대장 까라바예브는 자기들의 전투서렬에 집중된 땅크들을 정면타격으로 격파하는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와씰리에게 있어서 그것은 정찰병들의 진지로 뚫고들어온 유일한 《범》땅크들과의 치렬한 격전으로 되였다.

와씰리는 그러한 땅크를 처음 보았다. 그것은 덩지가 크고 모서리가 뚝 삐여져나온것이였다. 벌써 겉만 보아도 땅크 《범》들의 장갑이 몇갑절 견고하고 두텁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보호장갑이 그렇게 믿음직한 경우에는 땅크형태를 류선형으로 꼭 만들 필요가 없는것이다.

《범》땅크의 뒤로는 팔소매를 걷어올린 자동총수들이 따라오고있었다. 그렇게 팔을 부르걷어올린 놈들은 무섭게 행동하였다.

그들은 그 어데서도 멈춰서지 않으려는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일터에로 나가듯 걸어왔다. 놈들은 와씰리가 1941년도에 모스크바부근신작로에서 처음으로 보았던 그 도이췰란드병졸과 다름없었다.

그러나 정세는 그때와는 달라졌다. 그때 우리의 무기는 보잘것없었다. 지금은 도이췰란드급강하폭격기들이 아무리 날치여도 방어구역상공에서 수직으로 내리꽂을수 없다. 어쩌다 겨우 나타나게되면 인차 추격기들이 구름을 뚫고나와 그놈들에게 달려들었다. 고속

도포들이 입을 열면 《융케르스》와 《멧쎄르슈미트》들이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련이어 땅우에 곤두박히였다. 아군의 《야크》와 《라보츠낀》도 떨어졌다. 그러나 놈들은 지상전투서렬에 폭탄을 제대로 떨어뜨리지 못했다.

《범》들은 추격기가 멀리서 나타나기만해도 도저히 어찌할수 없이 무서워했다. 유효사격거리에 들어서기만하면 아군의 신형 《지쓰》포들이 특수포탄으로 장갑을 뚫고 불태워버렸다.

전투의 기본력량인 아군보병도 놈들이 얼마만한 력량으로 언제 어디로 공격해온다는것을 잘 알고 전호에 태연하게 앉아서 놈들을 기다리고있었다. 지금 병사들의 손에는 깨지기 쉬운 인화병이 아니라 특별한 반땅크수류탄이 쥐여져있었다. 매개 소대에는 포신이 길다란 시꺼먼 반땅크포도 있었다.

그것들은 《범》의 껍데기를 불태워버렸으며 앞을 못보게 했으며 굴대에서 무한궤도를 벗겨버렸다.

(그렇다. 이제는 우리가 그전날의 군대가 아니다. 이제는 우리를 그렇게 쉽사리 건드리지 못한다! 인민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단련된 인민이며 병사는 적을 때려 승리의 기세로 충만된 병사들이다.

여기에는 싸움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 셋이 있을뿐이다.) 하고 생각하면서 와씰리는 자기 대원들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들은 묵묵히 서서 《범》의 측면에 새겨진 검은 십자표식과 지팽이모양의 포신이며 흙에 닳아서 번쩍이며 절그덕거리는 무한궤도를 아니꼽게 바라보고있었다.

와씰리는 1선진지에서 공격을 좌절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에게는 자기 력량에 대한 자신심으로 하여 정찰소대가 언제나 예비대로 차지하고있는 이곳 련대의 2제대로 한대의 《범》이 뚫고들어와도 나쁘지 않을것이라는 괴상한 욕망이 꿈틀거리였다.

그 괴물과 한번 직접 맞다들어볼 때가 안타깝게 기다려졌다.

마치 그러한 어리석은 욕망을 실현하듯이 《범》들이 1선을 지나 2선전호까지 기여들었다. 그것들을 격상시키고 불태우고 폭파하였으나 성한놈들은 앞으로 기여오면서 전진로상에서 마주치는 모든 생

명체들을 모조리 쓸어버리였다.

드디여 《범》이 자기의 포신을 곧바로 와씰리의 면전에 돌려대는 순간이 닥쳐왔다. 그 포신의 둥근 아가리는 어찌나 넓게 보였던지 전투장과 하늘에서 벌어지는 모든 광경을 다 가리우는것 같았다. (이제 그 아가리에서 불기둥이 날아오르게 되면 나한테 남은것이란 아무것도 없을것이다.) 하는 생각이 와씰리의 의식속에 스쳐지나갔다.

방금전만해도 와씰리의 마음속에 차고넘치였던 자신심은 갑자기 물거품이 되고말았다. 《범》과 겨루어보자던 희망은 재난을 가져오게 한 미욱한 생각이였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바보같은게 직접 간청했으니 이제는 톡톡히 대접을 받는군!)

땅크가 아가리를 열었다. 화염에 와씰리의 눈이 부시더니 삽시에 깊은 정적이 깃들었다. 영화에서도 그렇게 소음이 없어질 때가 있군 한다.

와씰리는 여전히 주위에서 폭탄이 터지는바람에 흙먼지가 하늘로 솟구쳐오르고 병사들이 입을 크게 벌리고 무엇인가 웨치고있지만 그 모든것이 조용하게 여겨졌다. (고막이 터진게 아닐가?) 와씰리는 마치도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듯 점점 다가오는 《범》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고 주시하고있었다.

와씰리는 땅크의 뜨거운 배기가스가 얼굴에 풍기는 순간에 날쌔게 수류탄을 던지였다. 흙과 연기가 하나의 분수처럼 소리없이 솟구쳐올랐다. 쇠고리가 떨어져나간 땅크의 무한궤도가 땅우에 와르르 미끄러져내렸다. 와씰리와 그의 뒤를 따라 로가찐과 보그단이 앞으로 내달리였다. 그들은 땅크에 바싹 다가설수록 안전하다는것을 알고있었다.

로가찐은 땅크의 후부에 기여올라 뚜껑우에 서서 자동총을 쥐고 사격자세를 하고있었다. 그것은 승무원이 무한궤도를 고치려 하거나 혹은 극단한 경우에 그 철갑안에서 타죽지 않겠다고 기여나올수도 있기때문이였다. 로가찐은 정확히 판단했다. 마침 뚜껑이 비스듬히 열리였다. 그는 번개같이 틈새기에 자동총구를 밀어넣고 땅크안에 긴 련발사격을 했다. 보그단은 뚜껑을 쳐드는놈이 없어졌을 때 그것

을 훌쩍 들어올렸다.

와씰리는 수류탄터지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저 꽉 닫겨지지 않은 뚜껑틈새기에서 흘러나오는 누르끼레한 연기만을 볼뿐이였다.

보그단과 로가찐은 뭐라고 입을 놀리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정말 영원히 귀머거리가 된게 아닌가?) 다시금 와씰리는 자신에게 묻고나서 대원들에게 자기 귀를 보여주고 전혀 들리지 않는다고 손시늉을 했다. 로가찐은 집요하게 어딘가 뒤로 고개를 기웃거렸다. 주위를 살펴본 와씰리는 도이췰란드땅크들이 불타고있을뿐만아니라 줄어든 놈들의 전투서렬이 점점 깊숙이 아군의 방어선을 뚫고 들어오고있다고 확신하였다. 《범》들과 그들을 따라나선 보병이 벌써 련대참모부와 후방을 지나 어딘가 사단예비대가 있는 곳으로 향하였다. (어떻게 자동총수들이 우리를 죽이지 않았을가?) 와씰리는 놀라서 전호뒤에 뛰여들어가 새로운 도이췰란드땅크에 접근하였다.

놈들은 모든 전선에 걸쳐 련속적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구분대별로 분산되여 오고있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가 포위되였단말인가? 련대가 살아있는가? 까라바예브는 어데 있는가? 가르부즈는?) 와씰리는 망원경으로 련대감시소를 바라보았다. 거기서는 아군의 철갑모같은것을 쓴 누구의 머리가 얼른거리였다.

《날 따라 앞으로!》하고 와씰리는 구령을 치고나서 다시금 놀랐다. 그는 자기 목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그러나 대원들은 구령을 알아들었다.

살아남은 중대병사들이 련대감시소에 모여들었다. 전투에서 늘 그러하듯 흥분되여 명랑해진 꾸르쟈꼬브가 정열적으로 몸짓을 했지만 와씰리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였다. 련대지휘부도 그대로 살아있다. 까라바예브는 언덕과 골짜기를 가리키면서 지시를 주고있었다.

로가찐은 자기 소대장을 유감스럽게 쳐다보면서 손가락으로 포탄에 뒤집혀진 부드러운 흙우에 《우리는 원형방어선을 차지합니다.》라고 썼다.

와씰리의 귀에서는 물을 쏟아넣은것처럼 괴괴한 정적이 윙윙거리는 소리로 바뀌였다. 머리가 아프고 뒤통수가 쑤시였다. 대원들이 그를 부축하여 소대방어선의 지정된 구역으로 데려갔다. 거기서 와씰리는 의식을 잃었다. 그는 수림속에 누워서 혼수상태에 들어갔다.

도이췰란드놈들은 자기들의 후방에 남아있는 쏘련군에 주의를 돌리지 않고 줄곧 앞으로만 뚫고나갔다. 오직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꾸르쓰크근처에서 자기의 량면포위를 실현해보려고 발악하였다.

와씰리가 이따금씩 정신이 들어서 눈을 뜨게 되면 그에게 누군가 허리를 구부리고 물을 마시게 하며 입에 먹을것을 넣어주었다.

와씰리는 자기가 어데 있으며 주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리해하지 못하였다. 또다시 그는 잠꼬대도 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자기가 본 땅크들이 밑빠진 항아리도 아닌 그 어디에로 빠져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그는 쩍 벌어진 함정속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깐힘을 다썼지만 그 무엇이 자기를 자꾸 잡아당기는바람에 나올수 없었다. 머리에 타박상을 입은 상위를 소개해갈 곳도 없었다.

엿새만에야 와씰리는 좀 회복되였다. 그는 눈을 뜨고 가르부즈를 보았다. 정치부련대장앞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을 일으킬수가 없었다.

《누워있게. 누워있으라구.》 가르부즈가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래 기분이 어떻소?》

《정상입니다.. 소좌동지.》 와씰리가 대답했다. 그는 목소리가 높고 똑똑하다고 생각했지만 가르부즈는 겨우 떼는 그의 나직한 말을 가까스로 알아들었다.

《그래 내 말이 들린단말이요?》 가르부즈는 기뻤다.

《물론이지요. 제가 당신과 말하는데두요.》

《옳소. 이젠 론리적으로 사색하고있소. 그러니까 모든게 정상이요.》

《공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도이췰란드놈말이요?》

《아군의 공격말입니다.》

《우리가 공격한다는 소리는 어디서 들었소? 우리가 퇴각할 때에

자네는 타박상을 받았는데.》
《알고있지요. 우리가 공격해야 합니다.》
가르부즈는 그러한 확신에 감동되였다.
《여보게, 모든 일은 제 날자가 있는 법이요. 도이췰란드놈들은 맥이 빠지고있소. 한주일동안에 겨우 뽀늬리쪽으로 7키로밖에 전진못했소. 벨고르드쪽에서는 30키로 좀 벗어나나마나 했소. 놈들의 포위기도는 성사되지 못했소. 꾸르쓰크까지는 들어가지 못하오. 와씰리, 어서 몸이나 추세우라구. 곧 아군이 도이췰란드놈들을 몰아낼텐데. 우리도 합세해보자구.》
《저는 지금이라두 싸울수 있습니다.》 와씰리는 일어서고싶었지만 그을린 밀밭과 불타버린 시커먼 땅크들이 널려있는 벌판과 자기를 둘러싸고있는 가르부즈와 정찰병들이 흔들거리면서 기우뚱거리는 바람에 비틀거리는 대지를 따라 어디론가 수평선으로 정처없이 굴러가는것 같아서 자리에 도로 눕고말았다.
《시큰둥해서 그러지 말구 누워있게.》
가르부즈가 명령하였다.
꾸르쟈끄브도 와씰리의 병문안을 왔다. 피로한 그였지만 유쾌한 롱말을 하였다.
《와씰리, 참 잘 싸우오. 이젠 그만하면 다 배운셈이군.》
《발동이 겨우 걸렸을뿐이지요.》 와씰리는 히죽이 웃었다.
《나는 말이요. 늘 태엽을 주듯 보채는 사람이였지.》 꾸르쟈끄브는 아주 친절하게 실토하였다.

숨막힐듯한 시꺼먼 연기가 가없는 전야와 무연한 수림우로, 사과나무가 늘어선 과수원과 불타버린 촌락우로, 폭격에 여지없이 허물어진 철도역들과 강 한복판에 동강이 나 무너져내린 다리우로 서서히 퍼져갔다.
2백여만의 사람들이 낮에 밤을 이어 그 매캐한 연기와 흙먼지속에서 서로 달려들면서 대포며 땅크포며 기관총을 쏘아대고 총창으로 찌르며 총탁으로 때리고있었다. … 항공폭격에 포사격까지 받아 만신창이 된 도이췰란드땅크련합부대들은 전야에서 불타고있었다.

드디여 파쑈놈들은 뒤걸음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줄곧 필사적으로 반공격을 하면서 서서히 물러나더니 점차 속도를 내면서…

놈들은 한계선에서 다른 계선에로 퇴각하고있었다. 아군은 놈들의 뒤를 따라 숨돌릴 틈을 주지 않고 계속 추격하였다. 결사적으로 방어하던 부대들은 물론 예비대로 있던 사단도 추격에 참가했지만 역시 력량이 부족했다. 면도도 하지 못한데다가 화약내가 온몸에 밴 전투원들은 극도로 피로해졌지만 밤낮으로 적을 밀어냈다. 그들은 어찌나 지쳤던지 짐수레나 대포 혹은 옆사람을 붙잡고 걸어가면서 자기도 하고 눈을 감은채로 잠에 취하여 행군하였다.

그들과 함께 와씰리도 자기 소대원들을 데리고 걸어가고있었다.

때때로 타박상이 되살아나 머리가 아프고 메스껍기도 했다. 그러나 앞으로 전진하는것이 그 어느 야전병원에 쓰러져있는것보다 더 즐겁고 명랑하였다. 이윽고 와씰리는 건강을 회복했다.

× ×

9월중순에 사단참모부에서는 률렌꼬브와 함께 와씰리를 불렀다.

그곳 자그마한 숲속에는 다른 련대들에서 온 정찰군관들도 있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타고 어떤 사람은 로획한 모터찌클을 타고왔으며 어떤 사람은 도이췰란드짐차를 타고왔다.

와씰리는 낯익은 목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추었다. 뒤를 돌아다보니 예고르 워로비예브가 있었다. 그도 정찰소대장이였다.

《살아있구나!》 와씰리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들은 여직껏 두번밖에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옛친우처럼 반갑게 만났던것이다.

와씰리는 남다른 대담성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고있는 스무살나는 용감한 중위가 마음에 들었다. 예고르는 멋진 장화에 얼룩얼룩한 위장복바지를 입고 허리에는 칼을 차고있었다.

초가을의 맑게 개인 따스한 날이지만 꾸반사람처럼 빨간 반외투를 입은 그의 모습은 여느때나 다름없이 그림같이 아름다와보였다.

사단정찰과에서 일하는 월로쟈 클리모브가 다가와서 점잖게 인사

를 했다. 그는 딱딱하고 말이 적은 축이여서 워로비예브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였다. 와씰리는 클리모브의 눈길이 그처럼 매우 신중해진것을 처음 보았다.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말이 적은 반면에 많은것을 생각하고있는것이 특징이다.

클리모브는 도착한 모든 사람들을 공지 한곳에 모이게 했다.

여기에는 사단참모장 쓰따로두브쩨브대좌가 와있었다. 그는 사단공격구역에 조성된 정황을 자세히 말하고나서 련대들사이에 계선이 있는것만큼 정찰병들이 될수록 자기 련대구역에서 활동하며 서로 방해하지 말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동무들은 당분간 주력과 떨어져서 행동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적의 중간계선에서 지체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동무들의 기본임무는 드네쁘르강의 서쪽기슭으로 진출하여 그곳 방어상태와 도이췰란드놈들의 력량을 탐지해내는것입니다. 특별한 지시가 있기전까지 뒤로 돌아서서는 안됩니다. 알겠습니까?》

정찰병들이 침묵을 지켰다. 드네쁘르강은 가까이 있는것도 아니다. 거기까지 가자면 아직도 멀었다.

공식적으로 하달된 임무는 적을 추격하면서 정찰하는것이였다.

그러면 그것은 실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추격하는 과정에 쌍방은 부단히 이동된다. 적은 매복을 조직하고 도로와 다리 그리고 집들에 지뢰를 매설하며 중간계선에서 중요한 방어선을 부단히 꾸리여 아군을 좀 더 견제해보려고 할것이다. 그렇다면 정찰병들은 적의 후방이든가 익측으로 침투하여 그 모든 기도를 제때에 포착하여 자기 부대에 알려야 한다.

이번에 와씰리는 임무수행에 열두명을 선발하였다. 정찰조에는 물론 제일 경험이 많은 정찰병들인 로가찐, 쁘로레뜨낀, 보그단, 골로샤뽀브와 쥬크가 망라되였다. 쥬크는 무전수이기때문에 특별히 책임이 무거웠다. 정찰에서 얻은 자료가 아무리 중요하다해도 제때에 전달되지 못하면 아무런 가치도 없게 된다.

쥬크는 자기의 무전기와 그 부속품만해도 어찌나 무거웠던지 그것이 내려누르는바람에 다리가 다 후들거리였다. 그리하여 그의 재산을 다른 조원들에게 일부 나누어주지 않으면 안되였다.

정찰조는 저녁에 떠나갔다. 그래야 어둠을 타서 적후에 깊숙이 뚫고들어가 날이 밝으면 임무수행에 착수할수 있다. 지금은 전개된 전호도 철조망도 없었다. 전선은 군데군데 무수히 동강났다.

도이췰란드놈들은 신작로와 철길을 따라서 퇴각하였다. 마을길과 오솔길에서는 통행단속을 하지 않았다.

와씰리의 정찰조는 그러한 오솔길을 따라 슬그머니 빠져들어갔다.

새벽녘에 와씰리는 깊숙한 골짜기를 골라잡고 보초를 세운 다음 나머지 대원들을 보고 누워서 자라고 명령하였다.

《이게 진짜 명령이야. 이런 명령은 얼마든지 내리라지.》 쁘로레뜨낀이 익살을 부리였다.

《참, 자네는 유치원아이같군. 자넨 온통 반가운 일밖에 생각하는게 없어.》 로가찐이 한숨을 쉬고는 배낭에 머리를 기대고 인차 잠을 청했다.

쁘로레뜨낀은 몸을 옹그리고 누워서 로가찐의 넙적한 잔등에 기대고 역시 깊이 고르롭게 숨쉬기 시작했다.

모두가 잠들었다. 보초병만이 졸음을 이겨내면서 언덕에 기여올라가 선선한 바람을 들이켰다. 와씰리는 특별히 쌍보초를 세웠다.

사람들이 그렇게 지쳐있을 때에 한사람에게 기대를 걸어서는 안된다. 대원들이 정말 기진맥진했기때문에 일부러 휴식을 조직했던것이다. 극도로 피로한 상태에서 정찰행동을 시작하는것도 모험이다. 정찰병에게는 맑은 정신과 즉시적인 반응이 필요하다.

동녘하늘이 훤히 밝아질무렵에 와씰리가 선참으로 깨났다. 어둠이 사라지면 숲속의 그늘밑이나 골짜기마다에 파쑈놈들이 숨어있을수 있었다. 얼마 지난 후 정찰병들은 가까운 린접도로에서 도이췰란드놈들을 발견하였다.

놈들은 길에 늘어서서 가고있었다. 오륙십명정도 되였다. 어떤놈들은 어깨에 60미리박격포를 메고갔다. (보병중대로구나!) 하고 와씰리는 판단하였다. 이런 박격포는 보병중대들만이 무장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중대의 인원은 얼마 안되였다. 보통 그 인원수는 백여명이 넘

었다. 한개 소대를 뒤에 떨구어 엄호하게 한것이 틀림없다.… 그럼 이것이 중대라면 그의 대대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십중팔구는 대대의 주력이 벌써 어둠을 타서 퇴각하여 중간계선에서 방어선을 차지하고있을것이다. 그러니 지금 중대가 그들을 쫓아가고있을것이다.

바로 이렇게 정찰에서는 한가지 실마리를 가지고 전반적인 정세를 밝혀내게 된다.

쥬크는 무전기로 지휘관의 판단과 중간계선을 정찰하러 나가려는 그의 결심을 전달하였다.

이제부터 정찰조는 경계심을 가지고 전진하였다. 앞에는 보그단과 골로샤뽀브를 척후로 파견하였다. 그들은 숲속에서 수림속으로, 수림속에서 골짜기로 날쌔게 빠져나가며 개활지대를 극복하였다.

엄페부에 이르러 그들은 《길이 트이였다》고 신호하였다.

정오가 되여 척후는 소대장을 오라고 련락했다. 와씰리가 고지로 기여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니 부락앞에서 도이췰란드놈들이 일하고있었다. 웃동을 벗어던진놈들이 전호를 파고있었다. 다른놈들은 강기슭에서 잔디를 떠다가 흉장을 위장하느라고 돌아쳤다.

와씰리는 쌍안경을 조준하면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곳에서 몇개의 구분대들이 역시 같은 작업을 하고있는것을 발견하였다. 여기서도 중간계선을 꾸리고있는 모양이였다. 전호뒤에서도 놈들이 땅을 파고있었는데 포병들과 박격포병들인것 같았다.

《자 동무들, 모든것이 명백하오. 바로 여기가 중간계선의 전연이요. 이제 종심을 살펴야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면 좋겠소?》 와씰리가 말하였다.

쁘로레뜨낀이 선참으로 자기 견해를 털어놓았다.

《줄을 지어 뻐젓이 전진합시다. 도이췰란드놈들이 우리를 제편인줄 알구 마실걸 줄지 알겠습니까.》

쥬크가 쁘로레뜨낀을 곁눈질하면서 조소하였다.

《그러다 우리를 알아보면 어떻게 하겠소? 쌍안경으로 보면말이요?》

《그때는 물러서야지 뭐.》 쁘로레뜨낀이 확신있게 대꾸하였다.

《물러선다!》 로가찐이 흉내냈다. 《그러면 먼지가 뽀얗게 피여오

르게 우리를 내몰겠는데 그럼 자네가 여기서 줄행랑을 놓는동안에 련대는 아무 소식도 모르고있을게 아닌가.》
뻐로레뜨낀은 굽어들려고 하지 않았다.
《동무는 왜 시비질만 하고있어? 무슨 좋은 의견이 있으면 내놓을 노릇이지. 어서 제기하라구.》
정찰병들은 잠잠하였다. 이윽고 로가찐이 여느때처럼 천천히 물어보았다.
《상위동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계곡에 대해서말입니다.》
그 계곡은 가까이에서 도이췰란드놈들이 우글거리고있는 고지를 에돌아가서 마을 맞은편 변두리로 뻗어나갔다. 거기에도 푸른 수림이 우거져있었다.
《물으나마나한 일이지.》 뻐로레뜨낀이 비양조로 말했다. 《도이췰란드놈들이 그 계곡에 자네가 갈 길을 마련해줄것 같은가. 그놈들이 무슨 바보라구. 그런 우회로에 지뢰도 묻지 않고 가만있을줄 아는가?》
《그래 자네는 지뢰가 무서워서 그러는가? 지뢰를 처음 봤어? 도이췰란드놈들이 지뢰를 파묻었으면 우리가 해제하면 그만이 아닌가.》
로가찐의 의견이 통과되였다. 정찰병들은 기여서 골짜기쪽으로 접근하였다. 그 바닥으로는 구리빛같은 강물이 흘러내렸다. 거기서는 썩은 진펄냄새가 풍기였고 모기새끼들이 극성스레 달려들었다.
무릎과 팔굽밑으로는 썩어문드러진 나무가지들이 변절자처럼 바작바작 소리를 냈다. 앞에서는 골로샤뽀브가 잡초를 손더듬하면서 조심스레 살금살금 기여나갔다. 그는 다른 공병들보다 쉽게 인발용지뢰선과 인발고리를 발견했다. 그의 주의깊은 감시로 하여 그저 무심히 스쳐지나간 의심스러운 징후는 조금도 없었다. 풀이 찢겨지지 않았는가? 숲속의 나무가지들이 끊어지지 않았는가? 그러자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드디여 골로샤뽀브가 멈춰서더니 와씰리를 손짓으로 불러 조용히 말하였다.
《자, 어떻게 했는가 보시오.》
주의깊게 살피고있던 와씰리는 말뚝마다에 달아맨 홈이 패운 쇠뭉치를 발견했다. 그것들은 좀 크다뿐이지 수류탄 비슷하였다. 이 장

난감은 쇠줄을 당기기만하면 깡충깡충 튀면서 폭발되기때문에 수백개의 파편이 날아나게 된다. 이런 《깡충이》들은 정찰병들에게 잘 알려져있다. 인발선만 잘 끊어놓으면 터지지 않은채로 제 자리에 있을수 있는것이다.

정찰병들은 인발선들을 자르고 통로를 열어나가면서 마을어귀까지 무사히 당도하였다. 그곳에서 련대에 무선으로 보고하였다. 《중간계선은 2415호, 2415호구역에 있음, 2512호구역에 지탱점이 있음, 남쪽우회로들에는 지뢰가 매설되여있음, 2117－2011호방향으로 계속 전진하고있음.》

최근 닷새동안에 와씰리의 정찰조는 그런 계선을 몇개 더 발견했다. 적들과 직접 한번도 맞서지 않고 전투를 성과적으로 피해갔다.

어느날 정찰병들은 파쑈방화자들이 마을에서 집들에 석유를 마구 뿌리고 불살라버리는것을 보았다. 당장 엄페호에서 뛰쳐나와 그 더러운놈들을 처단해버리고싶었다. 그러나 그들은 꾹 참았다. 임무수행을 앞둔 시각에 그렇게 할수 없었다.

엿새째 되던 날이였다.

어느덧 서산에 해가 져서 신선한 기운이 떠돌고 농가들을 몽땅 태워버리고 스러지기 시작한 불길이 하늘가에 불안스러운 검붉은 잔광을 희미하게 비치고있었다. 나무들사이로는 넓은 강줄기가 번뜩이였다.

드네쁘르다!

모두들 지도를 보면서 인차 나타나리라고 기대하던 강이였다. 고요하게 흐르는 강의 거창한 모습은 정찰병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였다. 하마트면 그들은 강물에 막 뛰여들번했다. 그러나 자신을 로출시킬가봐 나무뒤에서 문득 멈춰서지 않으면 안되였다.

보그단만이 더 참지 못하여 강기슭으로 몰래 기여가서 수풀속에 쪼그리고앉아 그것이 마치 살아있는것인듯 물결을 매만지면서 속살거리였다.

《나의 드네쁘르여… 나의 사랑하는 드네쁘르여… 그대를 찾아 우리는 왔노라. …》

어둡기전에 정찰병들은 위장을 잘하고 정찰을 하였다. 도이췰란드

놈들은 량쪽 강기슭에서 방어공사를 하면서 지뢰들을 매설해놓았다. 서쪽기슭에서는 졸병들과 함께 강제로 끌려온 녀인들이 일하고있었다. 와씰리는 쌍안경으로 그들의 알락달락한 머리수건을 똑똑히 가려보았다.

서쪽기슭은 높고 가파로와서 마치도 자연이 방어를 위해 천연적으로 만들어놓은듯했다. 세키로메터의 수중장애물을 화력으로 제압하기가 힘들것 같았다. 그런 낭떠러지를 빠져나간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부대들이 드네쁘르강을 쉽게 강행도하하게 하자면 적의 내막과 방어상태에 대한 자료를 될수록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자면 정찰병들이 서쪽기슭에로 먼저 건너가야 한다.

그들은 어둠속에서 폭풍에 넘어진 두개의 마른 나무통으로 떼를 무어 거기에 배낭과 옷이며 무기를 동여매고 옆에서 헤염치며 떼목을 밀면서 건너가고있었다. 강 한복판에 이르러 여러 대원들의 팔과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근육은 어찌나 긴장했던지 뻣뻣해졌다. 와씰리는 돌덩이처럼 강바닥에 자꾸 가라앉았다. 이발이 떨리고 가슴은 쇠뭉치로 조이는듯 숨쉬기가 가빴다.

그렇게 헤염치다가는 끝까지 가낼것 같지 못한 생각이 들었다. 사위가 전혀 보이지 않아 얼마나 건너왔는지, 저쪽기슭까지 아직도 멀었는지 도무지 분간할수가 없었다. 주위에는 차겁고 시꺼먼 물결만이 출렁이고있었다.

그런데 바로 앞에서는 검은 색갈의 짙은 기슭이 두드러지게 보이는것 같았다. 발끝이 강바닥에 깔린 이끼에 닿았다. 다행히도 건너왔다.

완전히 녹초가 된 정찰병들은 겨우 좁다란 여울목에 이르렀다.

그들은 여울에 밀리워 멀리 왼쪽으로 내려갔다.

그들은 기슭에 드러누워 숨을 돌리였다. 온몸은 추위에 와들와들 떨리였다. 일어나서 자기 련대구역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강기슭을 따라간다는것은 위험하다. 기슭에 지뢰를 묻었을수도 있으며 감시병들도 배치해놓았을것이다.

《드네쁘르강에서 한키로쯤 안쪽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갑시다.》 와씰리가 지시했다.
정찰조원들은 우로 빠져나와 다시금 땅우에 엎디여 귀를 강구었다. 멀지 않은 곳에서는 하모니카의 삑삑하는 소리와 도이췰란드놈들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오른쪽으로 약간 기여가다가 규정대로 파놓은 전호를 발견했다.
흙이 생생한것으로 보아 갓 파놓은것이 틀림없었다. 좌지에는 기관총이 있었다. 쁘로레뜨낀이 지휘관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가자고 하였다. 와씰리는 그에게 주먹을 내보였다.
전호를 넘어 앞으로 나가는 길에 또 한개의 전호와 마주쳤다. 어둠속에서 구령소리가 울려왔다.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것으로 추측되였다. 땅을 뚜지는 곡괭이소리와 쟁그렁거리는 삽소리가 똑똑히 들렸다. 여기서는 밤에도 일하고있었다.
한키로쯤 더 뚫고들어간 정찰병들은 깊은 숲속에 이르러 휴식하기로 했다. 두개의 적방어선을 넘어서인지 그들은 퍼그나 안전한감을 느끼였다. 지금 도이췰란드놈들의 주의는 숲속으로 쏠리였다. 그러나 와씰리의 정찰조는 놈들의 배후에서 휴식하고있었다. 여기서는 낮에도 정찰하는데 편리하였다.
쥬크는 서쪽기슭의 방어상태에 대한 첫 정보를 전달하였다. 그에 대한 회답으로 성공을 축하하면서 새로운 성과를 바랬다.
그런데 아침이 되여 정찰병들은 갑자기 매우 위험한 곳에 들어있다는것을 알아차렸다. 앞뒤에서 도이췰란드놈들이 웅성거리고있었다. 가까운 곳에서는 박격포병들이 포좌지주위에 흙을 파올리고있었다.
두명의 도이췰란드병정이 정찰조가 위장하고 숨어있는 숲속으로 막 걸어오고있었다.
《조용히 놔두시오.》 와씰리가 소곤거리였다.
모두가 긴장되였다.
도이췰란드놈들이 뭐라고 지절거리면서 그들앞으로 걸어왔다. 한놈은 도끼를 쥐고 다른놈은 노끈을 쥐고있었다. 자작나무들을 잘라다가 참호벽을 보강하려는 모양이였다. 놈들은 코앞에서 일하고있었다. 와씰리는 미안수와 이약냄새가 뒤섞인 특유한 냄새까지 맡았다. 누구든지 재채기만 하는 날에는 영낙없이 정찰조는 발각될것이였다.

놈들은 나무단을 묵직하게 묶어놓고 서로 날라가라고 다투었다.
종시 한놈이 다른놈의 잔등에 나무단을 올려놓고 키득거리면서 뒤에서 따라갔다.
정찰병들은 숲속으로 좀더 깊숙이 기여들어갔다. 그때였다. 먼저 왔다간 그 두놈을 따라 네놈이 또 따라왔다. (아니, 여기로 옹근 한개 소대가 달려들면 어쩐다?) 와씰리는 숨을데가 없겠는가고 주위를 유심히 살펴보았지만 숲뒤로는 허허벌판이여서 적당한 곳이 없었다.
그날은 어찌나 힘들었던지 담배도 피우지 못하고 다리를 주물새도 없었다. 황혼이 깃들무렵에야 정찰병들은 시꺼멓게 불탄 자리로 기여갔다. 한때 여기에 농가가 있었던 모양이였다. 지금은 여기에 뻬치까굴뚝이 외로이 솟아있고 불에 그을린 벽돌장들이 지저분하게 널려있는데다가 불에 타서 새까맣게 된 울타리흔적이 남아있었다. 와씰리는 도이췰란드놈들이 여기로 다시 오지 않을것이며 또 올 일도 없으리라고 믿었다.
그들은 페허로 된 농가주변을 살피면서 좀더 믿음직하게 위장할수 있는 곳을 찾아보았다. 남새밭 이랑사이에서 잎사귀를 덮고 누워있을수도 있었으며 울바자를 따라 무성하게 자란 잡초속에 숨어있을수도 있었다. 그러나 쁘로레뜨낀은 그보다도 더 좋은 곳을 찾아냈다.
그는 이전에 분명 고간이 있던 곳으로 와씰리를 데리고갔다. 발로 불에 탄 장작개비와 재를 슬슬 파헤치니 네모난 나무들이 나타났다.
《움입니다.》 쁘로레뜨낀이 말했다.
다른 정찰병들도 다가와서 타다남은 뚜껑을 쳐들어올렸다. 컴컴한 구멍에서 누기와 감자썩은 냄새가 확 풍기였다. 쁘로레뜨낀은 발로 사다리를 더듬으며 아래로 내려갔다. 쁘로레뜨낀을 따라 와씰리도 내려갔다. 손전지를 비치면서 움안을 살펴보았다.
《고급려관입니다.》 쁘로레뜨낀은 자기의 발견을 대견하게 여겼다.
《게다가 또 안주도 있구요.》 그는 나무통에 손을 넣더니 와씰리앞에 큼직한 절인오이를 꺼내놓았다.
《그럼 좋소. 여기에 자리를 잡읍시다.》 와씰리가 말했다.
움은 배좁았지만 저마다 자기 앉을 곳을 찾아냈다. 구멍우에는 불

에 타서 이그러진 철침대를 가로지르고 거기에 남은 울타리판자들을 덮어놓고 그 짬으로 감시를 할수 있었다. 모두들 일제히 소리를 내면서 오이를 질근질근 씹어먹었다.

나무통에 올라앉은 쁘로레뜨낀은 가슴을 쭉 내보내고 입을 열었다.

《동무들, 순서를 지키자구! 로가찐같은 대식가에겐 기준을 정하는게 어떻소?》

와씰리는 대원들과 함께 웃었다. 그는 한순간에 마치 제3자의 립장에서 수리개들을 바라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방금전만해도 파멸적인 위험을 겪었는데 어느새 벌써 축축한 움안에 앉아서 절인오이를 먹으며 좋아들 하며 흥겹게 시간을 보내고있다. 어디에서? 적후에서 눈깜짝할사이에 우리가 발견될수 있지 않을가. 그때에는…) 《그때에는》 어떻게 되리라는것을 와씰리는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생각하고싶지 않았다.

조원들은 나머지 밤시간을 강기슭에 배치된 적의 공병설비를 정찰하는데 리용하였다. 좀 서둘러야 했다. 련대는 벌써 가까이 접근했다. 드네쁘르강너머에서 울리는 포성이 어느새 여기까지 미치였다.

도이췰란드놈들은 바삐맞았다. 밤에도 작업을 한순간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였다. 사방에서 곡괭이와 지레대 부딪치는 소리, 도끼소리가 들려왔다. 작업장사이로는 매우 조심스럽게 기여서만 지나갈수 있었다.

와씰리는 강기슭에서 다시금 드네쁘르강의 넓은 수역을 바라보았다. 지금 거기에서는 달빛이 령롱하게 비치면서 물결이 반짝거리는것 같았다. 맞은편기슭은 멀리서 거무스레하게 보였다. 혹시 이 순간에 꾸르자꼬브와 까자꼬브 그리고 까라바예브가 여기를 지켜볼수도 있지 않을가? 그들은 대체로 여기서 강력한 방어에 조우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있었다. 파시스트들이 펑장하게 떠들었던 《동방의 교두보》라는 요란한 이름은 다름아닌 난공불락의 콩크리트영구화점과 지하엄페부와 반전차호를 가진 핀란드의 만네르헤임방어선과 류사한 보루를 상징하여 이르는것일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기에는 그와 같은 보루란 전혀 없었다.

이 모든것이 눈에 띄지 않게 세밀히 위장되여있을수 있지 않을가? 와씰리는 위구심을 가지고 추측해보았다.

이른 새벽까지 와씰리는 도이췰란드놈들의 방어선을 발칵 뒤졌으나 철근콩크리트시설이라고는 끝내 찾아내지 못했다. 그것도 그를 기쁘게 하였다. 지금 주요하게 제기되는 걱정거리는 강수역이 굉장히 넓은것이였다. 이런 강을 도하함에 있어서 기본장애는 화력이 들씌워지는것보다 전사들과 전투기재들을 쉽게 도하시킬수 없다는것이다.

와씰리는 자신도 지난 밤에 온몸이 꽛꽛해져서 하마트면 강물에 빠져 죽을번한 일이 회상되였다. 병사들이 어떻게 헤염치겠는가? 그들을 향하여 기관총과 포들이 입을 열것이며 공중에서도 그들을 폭격할것이다. 그렇다고 쾌속정이나 뽀트도 없지 않는가. 수중기재만을 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들의 속도는 얼마나 되는가? 기껏해야 원시적인 떼목에다가 짚단 아니면 빈 나무통일것이니 그것으로 속도를 낸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아침에 무전기를 통하여 화력수정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와씰리는 이미 목표물의 좌표를 계산하여 략도에 그려넣음으로써 전투가 한창일 때에 그것을 계산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했던것이다.

조원들모두가 절인오이를 먹은 후에 고통을 겪은 무서운 갈증만이 아니라면 또 하루가 무사히 지나갔을것이다. 물통은 벌써 반나절도 못되여 텅 비여있었다. 조원들은 앞을 다투어 쁘로레뜨낀을 책망하기 시작하였다.

《제기랄, 자네가 공연히 오이새끼를 찾아내지만 않았어두 이렇게까지야 목이 마르지 않을걸 괜히…》골로샤뽀브가 투덜거리였다.

《혼자서 반통나마 제꼈으니 목이 마를만도 하지. 목만 마를라구.》

정찰병들은 땅거미가 질 때까지 가까스로 참아냈다. 그러나 고통은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강가에 접근할수가 없었다. 포사격이 진행되면서 포탄이 날아와 사방에서 터졌다. 그들은 야음을 타서 도

하가 개시되였다는것을 포착하였다.
그들은 드네쁘르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도무지 볼수가 없었다. 강이 내려다보이는 모든 언덕들은 도이칠란드놈들이 차지하고있었다. 포들의 발사소리를 듣고 방향을 비슷이 가늠할뿐이였다. 포성은 온 강변을 따라 우르릉거렸다.
드네쁘르강기슭에 남먼저 당도한 부대가 벌써 도하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주력을 기다리지 않게 되였던것이다. 무엇보다도 불의성에 의하여 도하의 성공이 담보된다.
와씰리는 좌우켠에서 련발로 쏘아대는 자동총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어느 구분대들이 벌써 오른쪽강안에 달라붙는데 성공했다는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까라바예브련대구역에서는 아직도 잠잠하였다.
와씰리는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정말 모두가 물에 빠지지 않았을가? 련대가 단번에 물에 떠내려갈수야 없지 않는가? 련대는 물론 우리보다 우에서 기슭을 떠났을것이다. 우리가 이곳의 류속이 얼마라는것을 대주지 않았던가.)
강력한 포화에 정찰병들자신이 여러번 뼈도 못추릴번하였다.
그바람에 더럭 겁이 나면서도 아군이 답새긴다는 생각에 기쁘기도 하였다.
《죽이지는 않는군.》 쁘로레뜨낀이 주석을 달았다. 그는 어찌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해쓱해졌는지 어둠속에서도 가려볼수 있었다.
《죽이지 말게 하라구. 강변에 나가는게 더 나을걸.》 로가찐이 분명치 않게 호응하였다.
《아무렴, 내가 반대할라구? 어서 나가자면 나가자구.》 쁘로레뜨낀이 공감하였다.
드디여 자동총소리와 수류탄터지는 소리, 고함소리가 연방 들려왔다. 가까이 접근한것이 틀림없었다. 누군가 절망적으로 울부짖었다. 아마 총창 아니면 칼에 찔린것 같았다. 강기슭의 첫번째 전호에서는 분명 육박전이 벌어졌다. 자기 편을 도우러 달려나가지 않고서는 견딜수가 없었다. 쁘로레뜨낀이 바람에 나무잎이 날리듯 결김에 수군거리였다.

《상위동지,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상위동지…》

조용하던 로가찐까지도 앞에 나타나서 지휘관을 꾸짖는 눈초리로 흘겨보았다.

《동무들, 기다리시오. 공격할바에는 제일 긴요한 순간에 해야 하오.…》 와씰리가 그들을 제지시켰다.

대원들을 진정시키고나서 와씰리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그 순간을 어떻게 포착하겠는가? 혹시 련대가 당장 이 시각에 공격하고있지 않을가? 그렇다면 언제 강기슭에 달라붙었을가? 아니면 거기에 얼마 남지 않은게 아닐가? 바로 지금이 그들을 돕는데 적절한 기회가 아닐가?)

첫번째 전호에서는 여전히 사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은 총알이 정찰조가 있는쪽으로도 날아들고있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성급한 구두발소리, 뛰면서 말하는 소리, 세찬 숨소리가 울리였다.

와씰리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도이췰란드놈들의 중대가 주위에서 반공격을 위하여 돌아치고있었다. (그러니까 아군이 기슭에 달라붙는데 성공한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 또 새로운 중대가 습격하고 있으니 강변에서 적을 물리치는 그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와씰리는 더는 기다릴수 없었다. 그는 몸을 약간 일으키면서 자동총을 끌어올리고 조용히 구령을 내렸다.

《날따라 앞으롯!》

대원들은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다 리해하였다. 그들은 도이췰란드놈들의 산개대형으로부터 얼마간 떨어진 곳에서 그림자처럼 살금살금 걸어나갔다. 혹시 어느 한 도이췰란드놈이 주위를 돌아다보고 그들을 발견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말 그놈이 로씨야정찰병들이 자기를 따라온다고 생각이나 할수 있겠는가!

《하일!》하는 소리가 우렁차게 울리더니 놈들의 중대가 앞으로 바삐 내달리였다. 강안의 전호에서 중대를 마주향해 자동총사격을 하였다. 전호까지는 엎어지면 코닿을듯했다. 피할길없는 반공격의 파도가 아군을 휩쓸려는 순간 와씰리가 웨쳤다.

《저놈들을 향하여 쏴! 동무들, 놈들을 족치시오.》

열두정의 기관단총이 공격하는 놈들의 배후에서 련발로 후려갈겼다. 검은 그림자들이 꼬꾸라지면서 아우성을 치며 땅우에서 허우적거리였다.
기골이 장대한 도이췰란드장교놈이 절망적으로 소리치면서 와씰리를 향하여 달려오고있었다.
《쏘지 마시오. 쏘지 마시오. 아군이요.》
쥬크는 그놈을 련발로 맞이했다. 바로 앞에서 골로샤뽀브가 같은 말로 웨쳤다.
《여보시오, 슬라브형제들! 잠간만 쏘지 마시오. 우리는 아군이요.》
정찰병들이 재빨리 전호에 뛰여들었다. 기슭에 있던 병사들이 그들을 둘러쌌다. 기쁨의 환성이 터져오르기 시작하였다.
《난데없이 어디서 나타났소?》
《당신들을 구출하지 않았소.》
《우린 다 죽은줄 알았구만.》
《정말 고맙소, 정찰병동무들!》
와씰리는 낯익은 청년이 전호에서 지휘하는것을 보았다.
《어디서 딱 본것 같은데…》 와씰리는 말하면서도 그닥 확신이 없었다.
《아무렴, 보구말구요. 제가 쁘랴힌이 아닙니까.》 그 청년이 응답하였다. 《보충인원들중에서 정찰병들을 고르던 일이 생각납니까? 제가 그때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던 그 꾸쟈 쁘랴힌이랍니다.…》
《동무가 벌써 중사가 됐소?》
《좀 수고를 할뿐입니다.》
《동무는 어느 중대에 속해있소? 지휘관들은 어데 있소?》
《꾸르쟈꼬브가 우리 중대장입니다. 그는 팔을 부상당하여 저쪽 강기슭에 떨어졌습니다. 다리라도 상하게 되면 그럭저럭 헤염쳐오겠는데 그만 팔을 부상당해서 어쩔수 없었지요. 소대장들도 사격하는바람에 물에 잠기고말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제일 높은 상급이 된셈이지요. 이제는 당신의 지휘를 받게 해주십시오. 상위동지.》
《동무는 일이 잘되는 축이요. 행동하시오. 내가 도와주겠소. 당장

화력지원을 요구합시다. 쥬크, 무전기를 전개하시오.》
와씰리는 지휘를 맡지 않았다. 그것은 임의의 순간에 자기들에게 새로운 임무가 하달될수 있기때문이였다. 게다가 솔직히 말해서 와씰리는 쁘랴힌에 대한 불신임으로 하여 그를 다시한번 모욕하고싶은 생각이 없었다.
강 한복판에서는 떼목인지 뽀트인지 분간할수 없는 검은 물체들이 보이였다. (두번째 상륙의 파도구나.) 하고 와씰리는 추측하였다.
사방에서 떠드는 사람들을 둘러싸고 흰 물기둥이 분수처럼 솟구쳐 오르고 련이어 포탄이 터지면서 그들을 장벽처럼 가리워버리였다. 그러한 장벽속에서 어떤 희미한 물체들이 떠올랐다. 그것이 무엇일가? 널판자인가, 산 사람인가 아니면 희생된 사람들인가?
그러는 사이에 적의 한개 중대가 또 반공격으로 넘어왔다. 별로 복새통이 없이 부단한 사격으로 물리쳤다. 쁘랴힌중사가 전호로 뛰여가면서 어린애같이 새된 목소리로 소리쳤다.
《탄알을 함부로 허비하지 마시오. 탄약공급은 저쪽기슭에서 하겠소. 한방에 한놈씩 잡으시오. 알았소?》
《어디 모를게 있소.…》 전사들이 대꾸하였다.
《상위동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준이 정확합니까?》
《장하오. 쁘랴힌, 화력지원은 아직 멀었소. 강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지 못했소?》
《봤습니다.》
그들은 또 한차례의 반공격을 물리쳤다. 그동안에 도이췰란드놈들은 드네쁘르를 도하하려는 까라바예브련대의 두번째 시도를 파탄시켰다.
와씰리는 동쪽을 바라보면서 점점 커져가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였다. (오래지 않아 날이 밝을것이다. 그러면 온종일 방조를 받지 못하고 홀로 남아있게 된다. 매우 준엄한 하루가 다가온다.)
와씰리는 쁘랴힌을 찾아보았다. 그가 부름을 받고 뛰여왔을 때에는 날이 새여 얼굴에 배긴 큼직한 주근깨가 똑똑히 보일것이라고 확신하였다.
《더 잘 파야겠소. 낮이 되면 우리를 박격포탄으로 파묻어버리자구

할게요.》 와씰리가 귀띔해주었다.
《알았습니다.》 쁘랴힌은 눈치빠르게 대답하고 전호로 가서 대원들에게 《여우굴》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와씰리는 모스크바부근의 격전에서 그 《여우굴》이 믿음직한 대피호였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구멍은 전호바닥에서 먼저 앞으로 내판 다음 아래로 파들어가면 된다. 땅의 웃부분이 두터우면 날아드는 먼지와 파편으로부터 전사들을 믿음직하게 은페시켜준다. 이런 구멍에서는 직탄을 맞아야만 죽을수 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천번중 단 한번도 있으나마나하지 않는가.
날이 밝아오면서 주변이 환히 다 보이였다. 전투는 모든 기슭에서 벌어지고있었다. 어떤 곳에 아군의 구분대들이 한키로메터가량 전진해갔다. 도이췰란드놈들은 넓은 상륙구역에서 기동의 자유를 잃었다. 놈들은 다른 구간에서 진격이 개시되자 한개의 위험구역에 력량을 집중하였다.
와씰리는 이 기회를 리용하였다. 그는 력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도이췰란드놈들의 두번째 전호를 돌파하였다. 손실은 별반 없었다. 량익측이 개방되였다. 조금전에 그들은 드네쁘르강가의 활등처럼 생긴 자그마한 거점을 지탱하고있었다.
지금은 강가에서 300메터가량 떨어져서 정찰병들과 쁘랴힌의 대원들이 량쪽에서 방어선을 뚫고나갔다. 여기서는 아직도 사방에서 도이췰란드놈들의 포가 증강된 력량으로 마구 갈겨대고있었다.
그들은 반대쪽기슭에서 어떤 형편에 처해있는가를 리해하고 도이췰란드놈들의 대대가 화력을 약화시키지 않으면 안되도록 하였다. 그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 전투원들은 또다시 《여우굴》을 파기 시작하였다. 쁘랴힌은 몇명의 대원들을 보내여 로획한 자동총과 장탄된 탄창을 주었다.
대양에서 몰아치는 폭풍, 사막의 광풍, 하늘높이 솟구치는 산정에서의 화산분출, 이 모든것을 합친다면 아마 여기서 벌어지고있는 광경과 대비할수 있을것이다.
반공격은 파도처럼 꼬리를 물었다. 와씰리는 미처 자동총의 탄창을 갈아대기가 바빴다. 게다가 폭격기들까지 두번씩이나 들이닥쳤다.

수많은 부상자들이 생겨났다. 희생자들도 있었다. 정찰병들중에서는 찜발류크와 라즈고노브가 전사하였다. 와씰리도 파편에 팔을 다치였다. 붕대도 다 떨어져서 적삼을 뜯어 상처를 감지 않으면 안되였다.

드네쁘르상공에는 뽀얀 먼지와 연기가 점점 짙어갔다. 이러한 연막을 리용하여 동쪽기슭에서는 력량을 증강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적의 포병이 다시금 떼목을 들부시였다. 겨우 두명의 전사가 헤염을 쳐서 와씰리한테 와닿았다. 전사들은 온몸이 흠뻑 젖고 부상당한데다가 피로해서 간신히 숨을 쉬며 물었다.

《그래, 여기 형편은 어떻습니까? 견제해낼수 있습니까?》

《견제해낼수 있소.》

《그럼 좋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증원하러 왔습니다, 상위동지.》

와씰리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비록 두명의 전사에 불과한 보잘것없는 지원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마치도 그쪽기슭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충동을 체현한듯싶었다. 지금 거기서는 기회가 생기면 지원하느라고 애쓰고있다는것을 더 확고히 믿을수 있었다.

무전기로도 격려해주었다. 정치부련대장 가르부즈는 침착한 어조로 말하였다.

《전체 대원들에게 전달하시오. 도하는 모든 전선에 걸쳐 성과적으로 진행되고있소. 우리는 동무들을 자랑하오. 동무들모두에게 국가수훈을 내신했소.》

그러나 도이췰란드놈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해나섰다. 밤이 되면 진지에 력량을 보강한다는것을 잘 알고있기때문에 밝기 전에 진지를 탈환하려고 기를 썼다. 벌써 땅크들도 공격해오고있었다. 우익에서 특별히 위험한 정황이 조성되였다. 그리하여 와씰리는 그쪽으로 달려갔지만 가는 동안에 위험은 사라지고말았다. 로가찐은 축축해진 이마를 닦고 쁘로레뜨낀은 신경질적으로 담배만을 빨고있었다. 전호바닥에는 놈들의 시체가 널려있었다.

《더러운놈같으니, 하마트면 내가 밟힐번했군! 죽은 말새끼처럼 너부러진것들한테!》 쁘로레뜨낀이 떨리는 목소리로 욕하였다.

로가찐은 자기 친구를 경탄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와씰리에게 설명하였다.
《그 개놈들이 우리한테 달려들자 난 세놈이나 말았지요. 그런데 싸샤가 죽은 사람처럼 넘어지더니 글쎄 이 신사가 엎디여 아래에 대고 사격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특한 생각을 다 꾸며냈지요!》
뻬로레뜨낀은 자신을 꾸짖으면서 성이 나서 맞대꾸를 하였다.
《좋아, 자네는 또 얼마나 잘했나. 글쎄 자네가 총탁을 휘두르는바람에 단번에 두놈이나 마대자루처럼 너부러지지 않던가. 그런데 난 어떻게 했겠나? 한놈이 나한테 달려들어 용을 썼네. 지금도 가슴이 뻐적지근해죽겠네. 장화를 신고 막 달려드는데 자칫하면 밟힐번했지.》 뻬로레뜨낀은 능청맞게 눈을 슴뻑이였다. 《그찰나에 나도 그놈을 아래에 몰아넣고 련발로 사격하니까 그놈은 참호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뛰여나오더군. 저기 뒈져서 뻐드러진걸 보게. 여직껏 분해하는 저 상판대기를 보라구.》
와씰리는 전호에서 밖을 내다보았다. 거기서는 진짜 바지가랭이에 붉은 피가 내밴 파쑈놈이 길다랗게 뻐드러져있었다.
정찰병들은 과연 그처럼 어려운 정황에서도 롱담할줄 알았다.
와씰리도 그들의 롱담을 만족하게 생각하였다. 이러한 전우들과 함께 있으면 어떠한 백열전도 무서울것이 없는것이다.
반공격이 중단되는 짧은 순간에 대원들은 와씰리에게 정찰에서 주의를 끄는 모든 사실을 죄다 보고하였다. 쥬크는 얻어낸 정보를 왼쪽기슭으로 련이어 전달하였다.
…어둠이 깃들자 드네쁘르를 거쳐 뽀트와 나루배며 떼들이 다시금 건너오기 시작하였다. 도이췰란드놈들이 미친듯이 쏘아댔다. 그러나 마사진 떼목에서 살아남은 병사들은 오직 앞으로만 헤염쳐오고있었다.
포탄이 와씰리곁에 날아와 터졌다. 또다시 귀가 멍멍해졌다. 그는 폭발할 때 들씌워진 흙먼지를 털면서 누군가 팔소매를 쥐여당기는것을 감촉하였다. 그앞에는 쥬크가 서있었다. 면도를 하지 않아 파리해보이는 그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떠올랐다. 쥬크가 무슨 신호를 하였다. 그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그러나 와씰리는 도무지 듣지 못

하였다. 귀에서는 윙윙하기만했다.
쥬크는 와씰리에게 바싹 다가가서 귀에 대고 직접 큰 소리로 말하였다.
《우리모두에게 표창을 내신했습니다! 당신과 쁘랴힌중사에게는 영웅칭호를 주는 모양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와씰리는 (아마 잘못 알았을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믿지 않았다.
지금 와씰리의 귀에서는 윙윙하는 소리가 없고 마치 차거운 겨울바람이 울부짖는것 같았다. 와씰리는 있는 힘을 다하여 일어서려고 하였다. 그는 쥬크가 기쁨의 감정을 잃을수 있다는 생각에 넘어져있는것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타박상을 입어서인지 대지가 마치 물우에 뜬 뗴목처럼 흐늘거리였다. 와씰리는 전호모서리를 부여잡았다. 전호도 그네줄에 매달린듯 아래우로 흔들거리였다. 나중에는 대지가 와락 뒤집히면서 와씰리는 자기 잔등이 마치 딱딱한 하늘에 부딪치는듯한 감을 느끼였다.
와씰리는 이따금씩 정신을 차리군하였다. 그때마다 그는 자동총소리를 신통히도 쁘랴힌의 발작적인 목소리처럼 들었다. 당장 일어나서 쁘랴힌을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나 기력이 없었다.
얼마 지나서 와씰리는 전혀 뜻하지 않게 축축한 강기슭에 누워있었다. 옆에서는 물결이 출렁거리였다. 병사용각반을 감은 무수한 다리들이 얼른거리며 지나갔다. 뗴목에서 내린 병사들은 여울을 따라 뛰면서 가파로운 비탈면에 엎디였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는 가르부즈의 목소리도 울려왔다.
《빈 뽀트를 잡으시오. 그를 의무소로 급히 데려가시오. 그럼 조심하시오.》

× ×

사위는 온통 새하얗게 보였다. 와씰리는 마치 흰눈이 덮인 겨울의 전야에 파묻힌듯하였다.
와씰리의 눈우에서는 무슨 하얀 동그라미가 기울어지고있었다.

그 동그라미에서는 낯익은 명랑한 눈길이 나타났다.
《상위동지, 어떻게 참아냈습니까?》
쁘랴힌중사의 눈이였다. 그의 목소리는 새되고 날카로왔다. (이게 무슨 환상인가? 왜 여름에도 눈이 내릴가? 어찌하여 이다지도 조용할가? 혹시 도이췰란드놈들이 새로운 공격을 준비하는게 아닐가?)
와씰리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자그마한 농가였다. 통나무벽에는 백포를 쳐놓았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옆침대에 앉아있던 쁘랴힌이 와씰리에게 상기시키면서 말하였다.
《제가 쁘랴힌입니다. 상륙지점에서 도이췰란드놈들의 담배를 같이 피우지 않았습니까. 기억납니까?》
《기억나오.… 다 기억나오. 헌데 거기서는 전투가 어떻게 끝났소? 우리를 드네쁘르강에 처박지 않았소? 도하는 어떻게…》와씰리는 길다란 말을 다 끝맺을 힘이 없었다.
《제대로 됐습니다. 다들 도하했습니다. 아군이 서쪽으로 내밀고있습니다.》 쁘랴힌은 큰 소리로 말하였다.
와씰리는 무엇에 빠져들어가는것같이 느껴졌다. 그러나 의식은 잃지 않고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을 내걸고 고수한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마지막생각이 안개속에서와 같이 몽롱하게 떠올랐다.
와씰리의 부상은 그리 위험한것이 아니였으나 타박상은 심하였다. 후에 안 일이지만 그것은 그가 련 사흘동안을 꼬박 새운탓으로 하여 밀려든 극도의 피로에서 온 일종의 환각이였다. 그가 잠을 실컷 자고나서 세수도 하고 면도도 하니 모든것이 말끔히 가셔졌다. 한주일 지나서 자리에서 완전히 일어날수 있었다.
야전병원은 촌락에 자리잡고있었다. 농가들은 병실로, 구락부는 식당으로, 꼴호즈관리위원회는 병원참모부로 리용하였다. 귀틀집사이로는 흰 위생복을 입은 간호원들이 분주히 오가고있었다. 흰 내의를 입은 부상자들이 쌍지팽이를 짚고 절룩거리며 정원과 남새밭으로 걸어다니였다. 그들은 전호의 단조로운 식사가 싫증났던것이다. 울타리곁에 있는 사과와 홍당무며 가지 등 그 모든것은 구미를 돋구는 것들이였다. 촌락에는 주민들이 없었다. 도이췰란드놈들이 그들을

죽이고 추방했는지 아니면 아군이 동쪽으로 후퇴할 때에 스스로 떠나갔는지 모른다.

동작이 꽤 날랜 축인 쁘랴힌이 와씰리에게 무우를 뽑아다주었다. 한번은 그가 빨간 딸기를 한웅큼 뜯어오기까지 하였다.

《상위동지 드십시오. 병사들이 숲속 가장자리까지 샅샅이 뒤져서 몽땅 따온겁니다. 정작 수풀속으로 기여다니자니까 다리가 뻣뻣해서 어디 기여다닐수가 있어야지요. 그래두 그럭저럭 참으면서 제 배는 채우구 요걸 가져왔습니다.》

《누가 쁘랴힌이요? 참모부에 가시오. 동무를 부르고있소.》 련락병이 문뒤에서 소리쳤다. 그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목에는 붕대를 감고 흰 바지를 입은 부상병이였다. 팔에 두른 붉은 띠가 그가 근무집행중에 있다는것을 겨우 알려줄뿐이였다.

《내가 무엇때문에 필요될가요?》 쁘랴힌은 저으기 이상스러웠다.

《어서 가보라구. 거기 가면 알게 되겠지.》라고 말하면서도 와씰리는 불안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무슨 장례식이 있는게 아닐가? 혹시 그의 형이 죽은게 아닐가? 아니면 그의 아버지가…)

쁘랴힌은 헐레벌떡 달려갔다. 그는 노상 뛰여다니는데 습관되였다.

촌락에서는 벌써 새 소식이 나돌고있었다.

《영웅칭호를 주었다네!》

《누구한테?》

《머리에 붕대를 감은 그 주근깨많은 동무에게말이요.》

《적의 보루에서 잘 싸워서 련대의 도하를 성과적으로 보장했다더군.》

병실로 돌아온 쁘랴힌의 눈은 마치 푸른 조명등처럼 환히 밝았다. 그는 와씰리의 침대로 다가가 죄송스럽다는듯이 재잘거리였다.

《상위동지,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습니까? 그 상륙거점을 견제한것이 당신이 아니라 나란말입니까? 게다가 당신한테 영웅칭호를 준게 아니라 나한테 주니, 이거야 부당하게 받는게 아닙니까?》

와씰리는 그의 주근깨배긴 코와 영채도는 파란 눈이며 남새국을 먹느라 덞어진 입술주변의 붕대 그리고 단추대신에 천끈을 맨 샤쯔를 유심히 바라보면서 언젠가 자기가 정찰에 받아주지 않았던 바로 그 쁘랴힌이 쏘련영웅이라는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축하하오.》 와씰리가 감동적으로 말하였다.

《뭘 축하할게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구요? 깔리닌동지께 편지를 쓰겠습니다. 부당하게 결정됐다구말입니다.》

《함부로 떽떽거리지 말구 군대질서대로 말해야 해.》

《그럼 나를 부르게 되면 직접 보고하겠습니다. 정령이 내렸다면서 복장을 단정히 하구 최고표창을 받으러 모스크바로 오라구 전화가 있을겁니다. … 그래서 제가 그곳 크레믈리에 가게 되면 깔리닌동지께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다하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소. 거기 가서 그런걸 말하게 돼있지 않소. 상관이 누가 영웅이구 누가 영웅이 아닌가를 더 잘 본단말이요. 그러니 동무도 기억나겠지만 어떤 백병전을 치렀소. 그만큼 공로를 세웠으니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않소.》

《당신도 내열에서 나보다 전투지휘를 더 하지 않았습니까.》

《다 료해한건데…》

쁘랴힌의 이름은 삽시에 병원안에 쫙 퍼지였다. 창고에서는 그에게 내의며 침대하불이며 담요까지도 모두 새것으로 내주었다. 처치실에 있는 간호원처녀들이 그의 머리에 감은 붕대를 풀어서 영웅을 돋보이게 하였다. 그러자 주근깨가 배긴 능청맞은 그의 얼굴이 환히 드러났다. 이발은 울퉁불퉁한데다가 파란 눈은 장난꾸러기같은 인상을 주었다.

처녀들이 키득거리며 웃었다. 그들은 《총각은 그만하면 괜찮게 생긴 축이야…》 하고 내심으로 강조하였다.

와씰리는 쁘랴힌에 대해 기뻐하면서도 마음속 깊이에서는 서운한 생각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적의 보루에서는 내가 모든것을 지휘하지 않았는가. 쁘랴힌도 내가 지휘했다. 그런데 오히려 쁘랴힌이 영웅으로 되고 나한테는 표창을 하지 않았다.) 당장 련대를 찾아 떠나고싶었다. 그 모든 일이 어떻게 진행

되였을가? 해명해보자는것이 아니라 쁘랴힌의 곁에 같이 있기가 거북해서였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기쁜 마음을 흐리게 하여 그의 가슴을 쓰라리게 할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병원에서 기한전에 나갈수 있을가? 지난번에 모스크바부근에서는 군의가 도와주었다. 그때에는 아버지가 사망되여 의기소침해진 기분을 고려했던것이다. 여기서는 누구도 도와주지 못한다. 또 그럴만한 리유도 없었다.

그러나 정찰병은 어디까지나 자기 후방에서 정찰병으로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것은 정찰병이라면 누구보다 관찰력이 예민하고 기민하기때문이다.

병원에는 로력이 부족하여 부상병들이 많은 일을 자체로 해나갔다. 제 발로 서서 다니기만하면 부엌이나 관리부병실에서 아무 일이건 닥치는대로 해야 한다. 간호원들은 걸어다니지 못하는 사람들만 붕대를 갈아주었다. 환자들은 저절로 붕대를 풀어 빨아서 나무에 매달아 말리였다. 상처를 의사에게 보이면 그는 간호원에게 무슨 고약을 바르라고 지시하며 간호원이 고약을 발라주면 서로 붕대를 감아주군 하였다.

와씰리는 처치실에 있으면서 말하는것을 엿들었다. 많은 환자들이 미리 내보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이가 지긋하고 통통하게 생기고 확대경처럼 묵중한 유리알을 넣은 안경을 낀 의사가 거절하였다.

《열흘동안 더 입원해야 하겠습니다. 돌아가시오.》

와씰리는 병실로 돌아왔다. 개인물품을 한곳에 모아놓고 붕대는 보이지 않게 감추고 웃고름을 비끄러맨 다음 틀림없이 성공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병원관리부의 니나 빠블로브나를 찾아갔다.

니나 빠블로브나는 엄격한 시선을 가진 젊고 매력있는 녀자였다. 그는 늘 제기되는 일을 날래게 처리해나갔다. 차례가 다가오자 와씰리는 그의 얼굴을 곧바로 쳐다보면서 일부러 활기없는 사람처럼 입을 열었다.

《샤뻬로군의가 퇴원하라구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한테 온지 얼마되지 않았다구 보는데요.》 니나 빠블

로브나가 친절하게 말하였다.

와씰리는 폭로될가봐 겁이 나서 그의 동정심을 외면하려는 생각으로 철면피하게 굴며 도전적으로 말하였다.

《결국 내가 얼마전에 들어왔다구 설명해주었는데두 샤뻬로는 막무가내거든요. 보다싶이 다 낫지 않았는데두 막 내쫓지 않습니까. 저기 후방에서 전호를 파라는거지요.…》

《글쎄, 동무는 어쩐지 그닥 씨원치 않구만요.》 니나 빠블로브나는 시답지 않게 대꾸하였다. 《동무의 이름은?》

《와씰리 로마슈낀입니다.》

《샤뻬로소좌가 퇴원시키라고 했으면야 때가 됐다는걸 의미하지요.》 니나는 미리 마련해놓았던 문건들에 이름을 써서 와씰리에게 주었다.

《군복을 받아입고 전선으로 가시오. 용맹한 군인동무.》

와씰리는 경험있는 화선군인이였던만큼 목적지로 가는 로정에 대한 설명이 따로 요구되지 않았다. 물론 그는 파견장에 쓴대로 군관예비역으로 가지 않았다. 행길에 나선 그는 마주오는 자동차를 잡아타고 사단에 당도하여 저녁에는 자기의 정든 련대로 돌아왔다.

지휘관들과 정찰병들이 와씰리를 기쁘게 맞이하였다. 정찰소대장의 직무는 비여있었다. 그를 위하여 특별히 남겨두었던것이다.

《대단히 빨리 완쾌됐구만.》 가르부즈가 의심스럽게 말하면서 와씰리의 수척해진 얼굴을 쳐다보며 그를 자기의 엄폐호로 오라고 하였다. 《가서 차나 마시면서 즐겨봅시다.》

가르부즈는 와씰리를 포탄상자로 만든 탁상에 마주앉히고 차고뿌를 밀어놓으면서 일일이 물어보기 시작했다.

《그래 무슨 불쾌한 일은 없었소? 병원에서는 제기된 일이 없소?》

《다 정상입니다, 소좌동지, 다 나았습니다.》

《그렇다면 좋소… 이젠 됐소. 나는 동무를 보니 매우 기쁜것이 첫째요. 그리구 국가표창을 받은데 대해 축하하는것이 둘째요. 동무에게는 드네쁘르강을 도하할 때 세운 공로로 적기훈장을 수여하게 되오. 훈장은 군단장이 수여하게 되오.》

가르부즈는 와씰리와 악수하면서 다시금 그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와씰리는 온몸이 화끈 달아올랐다. 아니다. 이런 표창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욕하면서 진정하려고 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적기훈장을 보면서 가슴이 설레였다. 그 훈장이 가장 영예로운 표창이라고 생각했던것이다. 그런데 오늘은 얼마나 자고자대해졌는가를 보라. 이제 와서는 기뻐하지도 않는다.)

가르부즈는 웬일인지 우울해있었다.

《여보게, 나도 그런 표창을 기다리지 않았네.》

가르부즈가 불쑥 말을 꺼냈다.

와씰리는 놀랐다. 정치부련대장이 어떻게 자기 생각을 그처럼 신통히도 알아맞혔을가?

《동무는 금별메달을 탈만한 공을 세운지 오래되였소. 〈혀〉만해도 얼마나 잡아왔소. 쉰놈이나마 되지 않소?》

《마흔다섯놈입니다.》

《그것보지, 내 생각에는 정찰병들에게도 비행사들처럼 군공을 회계해야 된다구 보오. 적비행기를 몇대 떨구면 영웅이 되는것처럼 〈혀〉를 몇놈 잡아오면 영웅이 되게말이요.》

가르부즈는 분명 기분이 상했다. 《군단참모부에 전화를 걸었는데 맨 먼저 도하하여 방어진을 장악한 구분대장이 쁘랴힌중사였다구 하더군. 하지만 괴로워하지 마시오. 와씰리, 우리는 동무를 잘 알고있소. 우리 앞에는 아직도 기회가 얼마든지 있지 않소.》

와씰리는 그처럼 불쾌해진 가르부즈를 본적이 한번도 없었다. 그리하여 어차피 자신이 가르부즈를 진정시키지 않으면 안되였다.

《괴로워마십시오. 정치위원동지, 표창을 위해서 싸우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옳소, 와씰리. 그러나 표창이라는게 존재하는이상 공로에 따라 주어야 하거든.》

《제 생각에는 쁘랴힌중사가 금메달을 받을만한 공을 세웠다구 봅니다. 그는 중대장을 대신해서 영웅적으로 싸웠습니다. 제가 부상당한 후에도 혼자서 지휘하면서 진지를 지켜내지 않았습니까.》

가르부즈는 유감스럽다는듯이 손을 내저었다.

《그걸 말하자는게 아니요. 쁘랴힌은 장한 동무요. 나는 원칙적으로…》

와씰리는 웬일인지 가르부즈가 이전에 구역당비서로서 전야에서 뜨락또르결에서와 꼴호즈원들속에서 역할을 하던 일이 떠올랐다.

그곳에 있을 때에도 그는 사리깊고 공정하게 일하였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였다. 아마 전쟁이 끝나면 더 좋아할것이다. 그것은 그가 더욱더 다정다감하고 현명해졌기때문이다.

《전쟁이 끝나면 저를 같이 데려가주십시오.》 와씰리가 부탁하였다. 《사실 저는 거기서 일할수 있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부즈의 얼굴이 환해졌다.

《같이 갑시다. 동무를 기꺼이 데려가겠소. 그런데 어떻게 한다? 정말 그때 가면 온 구역에 동무를 소개하구 동무가 영웅정찰병이라는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해주는것이 나의 첫째 의무로 될게요. 그리구 동무를 구역공청비서로 선거하게 할테요. 다음에는 자기의 마지막 〈혀〉로서 알따이에서 제일 고운 처녀를 골라잡으시오. 그렇게 되면 그 처녀는 동무한테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포로되여 올것이요.》 가르부즈가 호탕하게 웃었다. 《그럼 당분간 자기 소대에 가있으시오. 나는 꾸르자꼬브한테 가봐야겠소. 그는 부상당한 후에 대대의무소가 거절하는통에 할수없이 련대후방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소. 헌데 할 일이 없어서인지 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소. 글쎄 제 마음대로 견장에 네번째 별을 주어붙이고 대위라고 뽐내면서 흔들거리지 않겠소. 규정대로 하면 대위칭호가 해당되는건 사실이요. 하지만 아직은 수여하지 않았으니 기다려야 할게 아니요. 그런데 그는 기다릴수 없다고 하면서 우둔한짓을 하고있소. 그러구보면 대위라고는 비슷한데가 없소.》

와씰리는 자기도 꾸르자꼬브와 흡사하다고 생각하고 빙그레 웃으며 가르부즈에게 부탁하였다.

《당신은 그를 욕하지 마십시오. 주게 됐으면 당장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옳지만 그를 좀 고쳐주어야겠소. 그러니 겸사겸사해서 동무가 그에게 말해주시오. 동무는 그의 옛친구가 아니요.》

《그는 아마 저한테 분풀이는 못할겝니다.》
《왜 그러겠소? 그것은 동무를 존중하기때문일거요.》
《저는 그런걸 한번두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꾸르쟈끄브자신이 나에게 동무를 칭찬해서 말한적이 있었소. 와씰리는 훌륭한 사람이구 또 대담하고 총명한 사람이라구…》
가르부즈는 그 말끝을 파묻어버리였다. 죽음에 대해 상기하고싶지 않았다. 꾸르쟈끄브는 그때 이렇게 말하였다. 《왜서 매일밤 그 동무를 임무를 수행하러 내보냅니까? 〈혀〉를 끌어왔으면 그만 푹 쉬게 놔두십시오. 정말 도이췰란드놈들의 전호에 매일밤 기여다니는걸 생각해보십시오. 그 동무를 죽이고는 후회할겝니다.》

× ×

모스크바에서는 드네쁘르의 영웅들을 축하하여 축포가 올랐다.
후방인민들은 낮과 밤이 따로없이 하루에 스무시간나마 일하였다.
그들도 역시 화선병사들이 전혀 자지 않고 싸운다고 생각하였다.
사실 화선병사들은 거의나 눈을 붙이지 못하는 때가 있군했다. 꾸르쓰크전선에서와 드네쁘르강계선에서는 한달동안씩 눈을 붙이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 그때마다 그들은 《자, 드네쁘르강을 도하하고 실컷 자보자구.》하며 자신을 위로하군하였다. 그러나 일은 예상한대로 되지 않았다. 도이췰란드놈들이 동쪽요새를 견제하려고 발악하였다. 그들의 모든 예비대와 제발로 움직이며 총을 쏠수 있는 모든 력량이 드네쁘르강 서쪽기슭에서 쏘련군대가 장악한 교두보를 없애는데 투입되였다.
배우단이 선물을 가지고 쏘련군부대를 찾아 전선으로 왔다.
손님들은 넓은 드네쁘르강기슭에 와서 머무르게 되였다. 강건너쪽에서는 가장 힘겨운 전투들이 계속되고있었다. 그러나 손님들은 계속 받아들여야 했다. 그들은 병원과 예비부대들에서, 2제대와 참모부들에서 그리고 비행장들에서 련일 공연을 하였다.
손님들은 까라바예브의 련대에도 찾아왔다. 그때 까라바예브는 감

시소에 있었다. 후방부련대장 골로바체브중좌가 전화로 손님이 왔다고 보고하였다.
《좋소.》 까라바예브는 피로한듯이 말하고나서 (참, 때아닌 때에 왔군. 어떻게 한다?) 하고 생각했다. 《그럼, 당신이 거기서 점심식사를 조직하고 잘 대접하시오.》
《잘해주는건 알겠는데 문제는 그들이 최전선에 나가겠다고 하는겁니다. 영웅적인 전투원들을 직접 만나보고싶답니다.》
《절대로 안되오. 여기서 그런 일을 벌려놓았다가는 숨이 막혀 죽을거요. 방금 여섯차례의 반공격을 물리쳤소. 내가 동무한테 가르부즈를 보내주겠소. 그가 다 처리할게요.》 송수화기를 놓고 정치부련대장 가르부즈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보시오. 안드레이 다닐로위치, 그건 당신이 맡은 부문이 아니요. 나는 여기서 당신이 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감당해내겠소. 당신이 손님들을 맡으시오.》
《알겠습니다.》 가르부즈가 침울해하면서 동의하였다. 《거기서 내가 해야 할게 뭣이 있습니까? 손님들이 영웅들을 보구싶다구 하는데…》
《성은 내지 마시오. 다닐로위치, 우리한테는 모두가 영웅이요. 참모부에서 여유군관들을 집합시키시오. 그리구 와씰리와 정찰병들도 데리고가시오. 그들은 지금 할게 없소. 뽀차뜨낀과 공병대원들도 데리고가시오. 진짜 영웅들이요.》
《그거야 예비병들인데.》
《예비병이야 그들 하나만이 아니지 않소. 그들이 없이도 견제해내겠소. 도이췰란드놈들도 밑빠진 항아리는 아니요. 그래 하루동안에 얼마나 많은놈들이 너부러졌는가말이요.》 까라바예브는 적의 시체가 널려진 전야를 보며 머리를 기웃거리였다. 《사수해내겠소. 걱정마시오. 안드레이 다닐로위치, 이제 대대에 전화를 걸어 당신에게 진짜 영웅인 쁘랴힌중사를 보내주라고 하겠소. 그러면 완전한 정원이 될게요.》
그렇게 되여 전투가 한창 벌어질 때에 와씰리도 뜻밖에 행사에 참가하게 되였다.
왼쪽기슭으로 건너간 정찰병들도 주마첸꼬한테로 바삐 뛰여가서 신발을 깨끗이 닦고 옷도 단정히 차려입고 앞가슴에 훈장과 메달을

달았다.

《정말 우크라이나땅에서 싸움할 때에두 그렇게 노래를 들었지요.》

보그단이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연을 차리기는 너무 이르네.》 골로샤뽀브가 반의했다. 《도이췰란드놈들이 드네쁘르에 개구리처럼 뛰여드는 그런 마님의 역은 얼마든지 놀수 있단말이요.》

《부랴부랴 도망이나 치자구 교두보로 기여든건 아닐세.》로가찐이 웅글은 음성으로 말했다.

《그만 칭찬하라구. 아직은 뛰여넘지 못했으니… 비록 우리는 뛰여넘긴 했지만.》 보그단이 비웃었다.

《두고보지, 도이췰란드놈들이 자네한테 한자리 주면서 자네가 넘어왔다구 곱다고 쓰다듬어주지 않나.》 골로샤뽀브가 지분거리였다.

와씰리는 새 군복저고리에 받은 훈장들을 하나하나 달았다. 그가 첫번째로 받은 《군공》메달에 《용감성을 위하여》메달과 두개의 붉은별훈장이 보충되였다. 그는 이제 드네쁘르강을 넘어가게 되면 적기훈장을 받게 된다.…

주마췐꼬는 대원들의 군복저고리도 잡아당기며 곧게 펴주었다.

부지런히 돌아치는바람에 몸이 달아오르면서 축축해진 그는 손수건으로 둥그스름한 얼굴과 대머리와 목을 닦았다.

《동무도 옷을 갈아입고 우리와 함께 갑시다.》 와씰리가 사관장에게 말하였다.

《나야 어떻게 가겠습니까.》 주마췐꼬는 부러운 마음에서 한숨을 쉬였다.

와씰리는 그 한숨이 제나름으로 내쉰것이라고 리해하였다. (그의 가슴에는 달아맬것이란 없다. 우리가 어떻게 못본체 할수 있겠는가. 사관장이 착한 일인들 얼마나 많이 했는가. 정찰병들은 늘 잘 입고 구두도 제대로 신고 배불리 먹고있다. 사관장은 자주 소대를 찾아헤매다가 우연히 도이췰란드놈들과 맞다들게 되면 그놈들을 족치지 않았는가. 그는 스스로 정찰도 하며 경비도 서고 직접 소대를 찾아 보온병과 음식자루를 끌고다니면서 필요한것을 날라다주는 운반공의 역할도 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사관장에게 사의를 표하지

못했다. 큰 참모부의 후방일군들은 훈장을 받고있는데 그것은 응당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 못지 않게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자기의 부양자를 잊어버렸다. 잘된것이 못된다. 오늘 당장 가르부즈에게 말해주자.)

참모부가까이에 세워놓은 방수포를 씌운 자동차에서는 활발하고 명랑한 녀인이 과자와 담배며 바느실과 단추들을 팔고있었다. 군상에서 나온것이였다.

와씰리한테로 뽀차뜨낀이 다가왔다.

《저기 차안에는 웨르무트술(약초를 넣어 만든 흰 포도주—역주)이 한통이나 있습니다. 만약경우를 생각해서 그 병들에 채워넣으십시오. 그렇지 않다간 대장어른이 눈치채면 글리예브의 머리가 떨어질텐데요.》

《옳은 말이요. 그 병들이 어데 있소?》

뽀차뜨낀이 가방을 가지고 자동차에 다가가서 병들을 주었다.

《어서 채워주시오.》

《누굴 속일라구 그러오?》 판매원이 추측하였다. 《에끼, 병이 참 멋진데.》

《우리 전선에서는 속이는 법이 없답니다.》 뽀차뜨낀이 무뚝뚝하게 대꾸했다.

《진짜 신중해지는군.》 판매원이 언짢은 기분에 입을 꾹 다물고 병에다 웨르무트를 쏟아부었다.

와씰리와 뽀차뜨낀은 그 자리에서 맛을 보았다.

《거참 맛이 이상한데.》 와씰리가 말하였다.

《불에 탄 코르크냄새가 풍깁니다.》 뽀차뜨낀이 지지했다. 《아! 일없습니다. 도이췰란드놈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킵시다. 어느놈이 이 멋진 병에다 폐물을 쏟아넣었다구말입니다.》

《병모가지에다가 봉랍이라도 찍기요.》 와씰리가 묘안을 내놓고 엄페부에 가서 봉랍떡을 가져왔다. 성냥불로 그것을 녹이여 병모가지에 붙이였다.

《나한테 뭣이 있는것 같소.》 와씰리가 말하였다.

그는 호주머니에서 도이췰란드엽전을 꺼내여 그의 한쪽을 뜨거운

봉인떡에 대고 도장처럼 지그시 눌렀다.

《아주 잘됐습니다.》 뽀차뜨낀이 치하했다.

그들은 가방을 글리예브한테 가져다주고 그 걸음으로 공연을 보러 갔다.

도착한 배우들이 야외에서 출연하고있었다. 무대는 두대의 짐차적재함을 제끼여 서로 맞붙여놓았다. 관중들은 솔밭에 앉아 구경하였다. 나이든 소개자가 앞깃을 매끈하게 제끼고 앞가슴호주머니에 수건을 끼운 검은 양복을 입고 얼굴에 환한 미소를 담고 우스개말을 엮어가다가 직접 늙은 시계방주인에 대한 노래를 부르면서 박자에 맞추어 부산스레 마루바닥을 발로 구르기도 하였다.

노래는 히틀러군대가 오래지 않아 멸망할것이며 아직도 놈들이 달려들고있지만 낡은 시계처럼 끝장날 때가 멀지 않다는 말로 끝맺었다. 여느때처럼 청중들은 그 노래를 재미있게 듣고는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다.

다음에는 반짝거리는 장미색원피스를 길게 차려입은 금발머리 녀배우 끄왈쓰까야가 《푸른 손수건》에 대한 노래를 불렀다. 그에게 보내는 박수소리는 더 요란하였다. 그리고 나이는 들어보이지만 면도를 반반히 하고 얼굴에 분칠을 하고 풀을 먹여 빳빳하게 다린 흰 천을 가슴에 댄 연미복을 입은 저음가수가 《나를 기다려다오》와 《어두운 밤》을 불렀다.

그 모든 노래들은 와씰리한테는 슬그머니 애틋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아마도 그가 진정한 사랑도 처녀의 부드러움도 그렇게 체험할 기회가 없을런지 모른다. 지금 드네쁘르강너머에서 요란한 포성이 울리지만 베를린까지 가자면 멀고도 멀었으니 아직도 수십수백밤을 지새우면서 《혀》를 잡으러 다녀야 할것이다.

공연이 끝난 후 련대의 이름난 군인들과 함께 배우들을 점심식사에 초청하였다. 식탁은 공연이 있은 곳에서 멀지 않은 수림변두리에 차려놓았다. 연회집행자의 역을 맡은 가르부즈가 봇나무밑의 식탁중심에 앉고 그옆에 골로바체브중좌가 앉았다. 그는 손님들에게 련대장이 직접 축하하지 못하게 된 원인을 설명해주고 모든것을 전선의 승리를 위하여 다 바치고있는 후방근로자들을 축하하여 첫 잔을 들

자고 하였다. 그리고는 참가한 군인들을 소개하였다.
《인사들 하십시오. 이 동무는 쏘련영웅 쁘랴힌중사입니다. 제일 먼저 드네쁘르강을 도하하구 부상당한 중대장 꾸르쟈꼬브대위를 대신하여 적의 보루를 탈취하고 사수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살아남은 모든 대원들이 두세번은 다 부상당했습니다. 쁘랴힌자신도 방금 얼마전에 병원에서 돌아왔습니다. 그에게는 금별메달이 아직 수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동무의 영웅칭호가 최고쏘베트상임위원회 정령으로 나왔습니다.》
모두들 쁘랴힌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그는 얼굴이 어찌나 빨개졌던지 주근깨가 사라지고 당장 구멍을 통하여 피가 쏟아져나올것만 같았다.
《쁘랴힌동무, 손님들에게 아무 얘기나 한마디 하시오.》 가르부즈가 요청하였다.
《제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쁘랴힌은 더욱더 당황해지면서 마치 식탁밑에라도 기여들려는듯이 그렇게 허리를 구부리였다.
와씰리는 보루에서 쁘랴힌이 전호를 뛰여다니며 천성적인 새된 목소리로 대원들을 고무해주면서 직접 자동총으로 도이췰란드놈들을 갈기며 육박전에서도 총탁으로 때려눕히던 일을 회상하였다. 손님들이 쁘랴힌을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을수 있다는 섭섭한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와씰리는 그를 위하여 불쑥 일어났다.
《동무들, 쁘랴힌은 저쪽에서 보아야 합니다.》 와씰리는 드네쁘르강의 건너편쪽을 향하여 머리를 기웃하였다. 《그는 늘 이렇게 수집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전투에서는 대담성으로 뛰여난 동무입니다. 말하자면 진짜 영웅이지요. 그 동무의 곁에서 같이 싸우기가 매우 쉽습니다.》
손님들은 다시금 박수를 보냈다. 가르부즈가 련이어 설명해주었다.
《방금 당신들에게 자기의 전우를 소개한 동무는 우리의 유명한 정찰병인 와씰리상위입니다. 그는 마흔다섯놈의 〈혀〉를 잡았습니다. 그는 쁘랴힌중사와 함께 보루탈취전에 참가하여 적기훈장을 받았습니다.》
가르부즈의 뒤에서는 눈섭이 새까만 글리예브의 능청맞은 얼굴이

와씰리에게 미소를 던지였다. 그의 손에는 상자비슷한 저주로운 가방이 쥐여있었다.
와씰리는 뽀차뜨낀에게 걱정스러운 눈길을 돌렸다. 그런데 글리예브는 어느새 가르부즈한테 슬금슬금 걸어가서 그의 귀에 대고 다급히 무슨 말을 해주었다.
《아주 좋소!》 가르부즈가 큰 소리로 공개하였다. 《련대장이 우리에게 전리품을 보내왔습니다.》
《참 희한한데요!》 끄왈쓰까야가 비로도천을 댄 가방안에서 우아한 상표가 붙어있는 멋진 병들을 보고 감탄하였다.
《지금 이처럼 진귀한 포도주야 전방에서나 대접할수 있는겁니다.》 저음가수가 의미심장하게 말하였다.
(제가 먼저 맛을 보구나서 말할게지.)하고 와씰리는 내심으로 그를 책망하였다.
가르부즈는 첫 병을 꺼내여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씩 부어주었다.
《참, 상쾌한 포도주인데요.》 끄왈쓰까야가 인정하였다.
《무슨 독특한 맛이 있는것 같습니다.》 저음가수가 미미하게 말했다.
(그것은 속이지 못할것이다.)하고 와씰리는 생각하였다.
하늘에서는 《융케르쓰》들의 동음이 울리였다. 식탁은 조용하였다. 모두가 머리를 우로 쳐들었다. 고사총수들이 마치 기침을 깇기나 하듯 비행기를 향하여 사격하였다. 폭발하는 검은 구름이 상공에 떠돌았다. 그러나 폭격기들이 여전히 선회하면서 강 저쪽기슭의 보루를 향하여 급강하하기 시작하였다.
《아군에 대고 폭격하고있소.》 가르부즈가 말하면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강한 반공격을 준비하고있는것이 틀림없소.》
모두가 일어섰다. 가르부즈는 참가한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어쩐지 유감스럽다는듯이 손님들에게 미소를 던지였다.
《미안합니다. 동무들, 우리는 가야 합니다. 거기서는 지금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당신들은 골로바체브중좌가 돌봐줄것입니다.》
《융케르쓰》들이 보루방어자들을 계속 긴장시키려고 폭탄을 조금

씩 던지였다. 그러나 아군추격기들이 나타나자 놈들은 두회전도 채 못하고 달아났다. 《융케르쓰》한대가 대번에 연기를 내뿜었다. 오른쪽에서 다른 한대가 날개를 기우뚱하더니 땅에 내려와 박산났다. 또 한대는 멀리 도이췰란드놈들의 진지상공에서 연기에 휩싸였다.

《배우동무들, 바로 그거요!》 저음가수가 환성을 올리였다.

그러나 드네쁘르강너머에서는 포사격이 더욱 격렬해졌다. 때때로 중박격포탄이 요란스럽게 터지는바람에 전반적인 소음을 억누르군 하였다. 가르부즈는 와씰리와 뽀차뜨낀, 쁘랴힌과 방금 식탁에 앉아있던 모든 정찰병들과 그리고 공병들을 데리고 도하장으로 달려갔다.

× ×

맞은편기슭의 숲속에서 머리에 붕대를 감은 한 중사가 그들을 향하여 뛰여나왔다.

《소좌동지, 더 나가지 못합니다. 도이췰란드놈들이 있습니다.》

《도이췰란드놈들이 어떻다는거요? 련대장이 어데 있소? 까라바예브가 어데 있는가말이요?》 가르부즈가 소리쳤다.

《저기 고지에 있습니다. 대대들도 거기에 있습니다. 도이췰란드놈들이 그들을 우회했습니다. 익측이 뚫리였습니다.》

《그런데 동무는 왜 여기 와있소?》

《우리는 부상병들입니다. 도하하려고 왔습니다. 아직은 여기서 도이췰란드놈들을 견제하고있습니다.》

《동무들은 몇명이나 되오?》

《스무명은 됩니다. 또 통신병들도 옵니다.》

《도이췰란드놈들은 어데 있소? 그놈들이 많소?》

《한개 중대는 못됩니다. 바로 저기 낡은 참호들에 매복하고있습니다.》

가르부즈는 쌍안경으로 중사가 가리키는 곳을 살피고나서 명령하였다.

《와씰리는 정찰병들을, 뽀차뜨낀은 자기 대원들을 데리고 나를 따라오시오.》

가르부즈는 자기와 함께 온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낭떠러지에 의거하여 기슭을 따라나갔다. 그 다음에 우로 기여올라가 숲속을 통하여 도이췰란드놈들이 차지한 전호에 접근하였다. 그들을 발견한 놈들은 박격포와 기관총으로 사격하기 시작하였다. 모두들 그 자리에 엎디였다.

《사격만 하지 않으면…》 가르부즈가 한숨을 쉬였다.

쁘랴힌이 전리품 라이타를 켰다.

《포사격도 이렇지는 않는데.》 가르부즈가 빙그레 웃었다. 땀에 축축해진 머리칼이 이마에 들어붙었다. 그는 경계심을 가지고 귀를 강구었다.

멀리서는 전투가 한창이였다. 땅크들이 우르릉거리고 수류탄터지는 소리와 련발로 쏘아대는 기관총소리가 들리였다.

《련대장을 구원해야 하오.》 가르부즈가 말하였다.

《대담하게 공격합시다.》 쁘랴힌이 그의 말을 지지하였다. 《우리도 중대나 다름없습니다. 보루에서 첫날에는 불과 스무명밖에 안되였지만 그래도 저는 중대로 타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다들 끌끌한데요. 정찰병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것 보지. 곧잘 말하는걸. 왜 식탁에서는 입이 붙었댔소? 쁘랴힌, 어서 부상자들한테 뛰여가서 일어설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공격에 나서게 하시오. 도이췰란드놈들을 유인하시오. 우리는 여기서 공격하겠소.》

《알았습니다.》 쁘랴힌이 씩씩하게 대답하고 명령을 집행하려고 달려갔다.

《와씰리, 우리한테 탄약과 수류탄이 얼마나 있소?》

《한번 공격하기는 충분합니다.》

《좀더 가까이 접근합시다.》

《당신은 여기에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해내겠습니다.》 와씰리가 부탁인지 권고인지 분간할수 없게 말하였다.

《그래 동무는 내가 축배잔이나 들자구 말하는 사람으로 보이오?》

《당신이 어떻게 될지 알게 뭡니까?》

《저런, 모욕하지 말라구.》 가르부즈가 책망하고나서 대원들과 함께 기여나갔다. 숲변두리에서 자동총소리가 나고 《만세》소리가 맥없이 울리였다. 와씰리에게는 쁘랴힌의 약하고 새된 목소리가 들리는것만 같았다.

《쁘랴힌이 죽으면 섭섭하겠는데. 금별메달도 달아보지 못하구.》 가르부즈가 불쑥 말을 꺼냈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구령을 내렸다.

《날따라 앞으롯!》

조용히 행동하는데 습관된 와씰리는 (이런데서는 소문없이 만세도 부르지 말고 숲속으로 가까이 접근해야 하는데…)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공병들과 그들의 조에 배속된 모든 대원들이 어느새 《만세!》를 웨치며 전호를 향하여 돌진하면서 사격하였다.

도이췰란드놈들이 기관총을 미친듯이 쏘아댔다. 총알에 맞아 잘라진 나무가지들이 공격하는 대원들의 머리우에 날아떨어졌다. 기관총수들이 좀 높은 곳을 차지하였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기에서 구출할수 있게 하였다.

로가찐은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팔을 휘둘러 기관총에 수류탄을 연방 두개 던지였다. 두개의 수류탄이 거의 동시에 터지였다.

정찰병들이 숲속에서 뛰여나왔다. 와씰리는 기관총 하나가 모로 나딩구는것을 보았다. 다른 기관총옆에는 무엇인가 걸려있었다. 철갑모를 쓴 기관총수들이 미친듯이 쏘아대고있었다. (성공이냐 아니면 실패냐?) 하는 생각이 뇌리를 쳤다. (만일 패하게 되면 우리는 마지막이다. 그럼 좋아. 내가 하겠다.) 하는 결심이 절로 내려졌다. 와씰리는 목표를 겨냥하여 자동총을 련발로 갈기였다. 총알이 기관총주변에 날아가 박혔다.

정찰병들은 전호가 있는 언덕으로 달려갔다. 그들은 전호에 미끄러내려가지 않고 언뜻거리는 놈들의 철갑모에 대고 사격하면서 우에서 훌쩍 뛰여들었다. 전호굽인돌이에서 마주친 놈들은 죽은놈들을 넘어서 기여나갔다.

와씰리의 곁에서 기관총이 울부짖기 시작하였다. 와씰리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쁘로레뜨낀이 도이췰란드놈들의 기관총으로 놈들을 후려갈기였다. 그는 지체하지 않고 총탁을 배에 붙이고 긴 탄띠를 질질 끌면서 자기 앞에 내대고 눈보라처럼 불을 토하였다.
《자, 어서, 장해!》 가르부즈가 그를 유쾌하게 부추기였다.
도이췰란드놈들이 전호끝에 몰켜서서 저항하려고 했다. 쁘로레뜨낀이 기관총으로 놈들이 운집한 곳을 향해 갈기자 거기서는 고함소리, 신음소리, 《히틀러가 망했다.》는 소리가 울려왔다.
《손들엇!》 와씰리가 명령하였다.
몇개의 팔이 전호에서 올라왔다.
뽀차뜨낀이 놈들에게 달려들려고 했으나 와씰리가 그의 군복저고리를 틀어잡았다.
《잠간, 덤비지 마시오. 혹시 손을 쳐들지 않은놈이 있을수 있소.》
뽀차뜨낀이 멈춰섰다.
그런데 그찰나에 여기서는 돌이킬수 없는 사고가 생기였다. 전호에서 한방의 총성이 울리였다. 도이췰란드놈들이 대응사격이 있을가봐 겁이 나서 무릎을 꿇고앉았다.
《자. 보라구.》 와씰리가 말하는 순간에 누군가 넘어지는 소리가 뒤에서 났다.
《정치위원이요.》 쁘로레뜨낀이 웨쳤다.
와씰리가 뒤를 돌아다보니 가르부즈가 땅에 넘어졌다. 관자노리에서 피가 옷깃으로 흘러내렸다.
《소좌동지!》 와씰리는 가르부즈를 들여다보면서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큰 소리로 불렀다.
등뒤에서는 다시금 사격소리와 수류탄터지는 소리가 울리였다. 와씰리는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있는지 짐작하고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는 가르부즈의 싸늘한 손목을 쥐고서 속살거리였다.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위원동지. 따라와서는 안된다구.… 우리가 다 해내겠다구 그만큼 말했는데두…》
여섯명의 정찰병들이 가르부즈를 방수포에 눕혀서 도하장으로 날라갔다.
와씰리는 련대감시소에 전화를 걸어 비상사고에 대해 보고하였다.

까라바예브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송수화기에서 그의 숨결이 들리는것만 같았다. 그리하여 그는 남처럼 랭정한 목소리로 명령하였다.
《정치위원동무를 저쪽기슭으로 날라가시오. 온 련대가 장례를 치르겠소.》
《보루에는 누구를 남기겠소?》
《성스러운 장소를 비워두는 법이 없소. 밤에 우리를 교대해줄게요.》

방금전만해도 공연을 볼 사람이 없었던 왼쪽기슭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새로운 사단도 당도하였다. 피로해진 병사들이 언덕비탈면에 앉아있었다. 차후 구분대가 한조씩 드네쁘르를 건너올 동안에 모두들 여기에 온 배우들의 간단한 공연을 볼수 있었다. 전투원들의 한조가 건너가면 다시금 다른 조가 와서 같은 순서대로 배우들의 공연을 보았다.
정찰병들이 비애에 잠겨 자기의 정치위원을 사다리로 올려가는동안에 끄왈쓰까야가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
그대를 전송하면서 약속하지 않았던가
푸른 손수건을 아끼라고…

소개자는 병사들이 몹시 흥분되여있다는것을 눈치챘다. 그에게는 어쩐지 말할줄 모르던 그 인상깊은 불머리영웅이 전사했다고 생각되였다. 그처럼 새파랗게 젊은 사나이가…
휴식을 선포하자 배우들이 자기들에게 점심식사를 차려주었던 수림변두리로 달려갔다. 끄왈쓰까야가 우아한 장미빛치마자락을 쳐들고 라크칠을 한 장화를 신고 풀밭으로 잽싸게 걸어갔다. 연미복을 입은 저음가수가 그를 도와 팔을 부축해주었다.
푸른 수건을 덮은 시체의 주위에는 첫 관객들이 군모를 벗고 서있었다.
《이게 누구예요?》 끄왈쓰까야가 묻고나서 입술을 깨물었다.

와씰리는 한마디도 말할수 없었다. 음성이 떨리고 자기가 벌을 받는다고 생각되였다. 그는 수건가장자리를 말없이 쳐들고 정치위원의 얼굴을 보여주었다.

《어이구!》 끄왈쓰까야가 웨쳤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다. …

밤에 련대의 나머지력량이 2제대로 이동하게 되였다.

가르부즈는 어제 손님들을 맞이했던 수림변두리의 바로 그 봇나무밑에 안치하였다. 장례식에서 까라바예브가 한 연설은 짧으면서도 가장 괴로운 연설이였다. 그는 자주 말문이 막히였다. 그럴 때마다 련대장에게 힘을 모을 기회를 주기나하듯 모두가 얼굴을 아래로 떨구었다. 까라바예브는 다시 입을 열군했지만 또 말문이 막히였다.

와씰리의 눈앞에는 해빛에 차넘치는 멀리 알따이의 전야가 펼쳐졌다. 그는 언제 한번 그곳에 가본적이 없었지만 가르부즈의 이야기를 통하여 너무나도 선히 잘 떠올랐다. 그 전야에서는 뜨락또르들이 우르렁거리고 꼼바인이 돌아가고 꿀호즈원들이 웅성거리고 있는듯했다. 오직 거기에는 구역당비서 가르부즈가 보이지 않을뿐이였다.

조포가 일제히 울리자 뒤줄에서 누군가 조용히 물었다.

《여기 배우들이 어데 갔소?》

《왜 그러시오?》 소개자가 뒤를 돌아보았다.

《우리도 저쪽기슭으로 갑시다. 그래 당신들이 우리한테 보여준 모든 공연을 다 보여주었으면 하는데요. …》 얼굴이 가무잡잡하고 코수염이 긴 사관장이 불안한 기색으로 청하였다.

× ×

련대에는 새로운 정치부련대장이 왔다. 까라바예브는 참모부군관들과 대대장들에게 그를 소개하였다. 모두가 새로 임명되여온 정치부련대장을 보면서 저도모르게 가지가 퍼진 봇나무밑에 있는 가르부즈의 묘지에 시선이 갔다. 와씰리는 린뜨와레브중좌를 알고

있었다. 그는 병원에 입원할 당시에 대대정치위원이였다. 와씰리는 붉은광장에서 있은 열병식을 찍은 기록영화를 가지고 그와 불쾌한 론쟁을 하던 일도 기억났다. 린뜨와레브는 다림질을 잘한 군복을 입고 가슴에는 두개의 적기훈장을 달고 번뜩이고있었다. 그의 얼굴은 병원에 있을 때처럼 매끈하였고 눈은 신중하고 총명해보였다.
린뜨와레브가 첫번째로 준 지시는 간단명료하고 실무적이여서인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들었다.
《동무들은 잠을 잘 자야 합니다. 우리는 목욕도 조직하고 일과를 제대로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세수도 할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요즘 동무들은 전투를 하느라고 신문을 볼 짬도 없을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문도 한꾸레미 가져왔는데 동무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낡은 신문이라도 다 읽으시오. 거기에는 흥미있는 소식들도 많습니다.》 린뜨와레브는 지휘관들이 가르부즈의 묘지쪽으로 시선을 돌리고있는것을 눈치채고 말을 계속하였다. 《나는 가르부즈동무를 잘 알고있습니다. 나도 동무들과 같이 커다란 손실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그와 여러번 만나기도 하고 전화로 자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련대에 임명되여오기전에 나는 우리 군단정치부에서 일했는데 우리는 사업상 늘 련계를 가지고있었습니다.》
와씰리는 새로운 정치부련대장에 대하여 반감을 가질 근거란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러고보면 병원에서 있은 자그마한 충돌은 마치도 실수와 비슷했다. 그러나 와씰리에게 그 사람은 여전히 불쾌감을 주었다. 그렇다고 무슨 일인지 설명할수도 없었다.
회의가 끝난 즉시 중대들에는 참모부련락병들이 왔다. 련대가 정렬할데 대한 긴급지시가 하달되였다.
넓직한 벌판에서 와씰리는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쓴 석대의 승용차를 보았다. 그옆에서는 장령들이 서서 말하고있었다. 한쪽에는 원수가 뒤짐을 지고 왔다갔다하고있었다. 그의 견장에는 국장과 큰 별이 있었다.
련대가 정렬하자 원수가 가까이 다가왔다. 와씰리는 그가 쥬꼬브라는것을 알았다.

쥬꼬브는 넓은 전선에서 전쟁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수중장애물을 리용한 강행도하시에 발휘한 완강성과 용감성에 대하여 전체 군인들에게 감사를 주었다.
《이것은 오직 당신들, 쏘베트군인들만이 해낼수 있는 일입니다.》
짤로꼴리쩨브중좌가 수훈자명단을 읽기 시작했다. 첫번째로 쏘련영웅 쁘랴힌을 불렀다. 쁘랴힌이 씩씩한 걸음으로 탁상에 다가섰다. 쥬꼬브가 그처럼 줄곧 미소를 짓기는 처음이였다.
《고맙소. 쁘랴힌중사!》
《쏘련을 위하여 복무함!》쁘랴힌이 새된 목소리로 응답하자 쥬꼬브는 다시금 미소를 지었다.
《장하오. 군무생활을 잘하시오.》 쥬꼬브는 그에게 새빨간 면직천을 씌운 쏘련영웅증서를 전달하였다. 열려진 곽에서는 금별메달이 해빛에 반짝이였다. 다른 곽에는 레닌훈장이 금빛을 령롱하게 뿌리였다.
쁘랴힌이 대렬에 들어서자 곁에 선 동무들이 그에게 훈장을 달아주었다. 모두들 호기심이 나서 영웅을 곁눈질해보았다. 그러나 대렬질서는 파괴되지 않았다.
《꾸르쟈꼬브대위에게는 적기훈장이 수여됩니다.》 참모장이 불렀다.
꾸르쟈꼬브는 시꺼먼 붕대를 감은 손을 부여잡고 탁상으로 다가갔다. (그가 도하초기에 부상만 당하지 않았으면 지금쯤은 영웅이 되였을텐데.) 하고 와씰리가 생각하였다. 꾸르쟈꼬브를 알기 시작하면서 품고있던 와씰리의 반감이 사라진지는 퍼그나 오래되였다. 그는 꾸르쟈꼬브를 존경하고 그의 대담성앞에서 남몰래 머리를 숙이기까지 했다. 지금은 꾸르쟈꼬브의 악의와 무례한 행동이 나오게 된 까닭을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사람이 전투에서 꾸르쟈꼬브처럼 자신의 모든것을 남김없이 깡그리 바칠 때 어떠한 버릇없는 행동도 용서를 받을수 있는것이다. 사실 와씰리에게는 꾸르쟈꼬브의 주정군같은 불순한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방금전만해도 꾸르쟈꼬브는 중립지대에서 무성한 딸기밭을 발견하고 노발대발하였다.
《도이칠란드놈들이 우리 딸기를 그냥 처먹게 할수 없소.》

꾸르쟈꼬브는 교통호를 파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전화를 걸어 전투원들에게 다르게 지시하였다.
《딸기를 모조리 따먹으시오.》
그의 새로운 기도를 알아차린 꼴로꼴리쩨브는 전화로 물어보았다.
《당신은 지금 어데 있소?》
꾸르쟈꼬브는 눈 한번 깜박거리지 않고 대답하였다.
《딸기밭에 있습니다.》
《롱담을 걷어치우고 자기 감시소로 돌아가시오.》 꼴로꼴리쩨브가 명령하였다.
《나한테는 여기에 예비감시소가 있습니다. 중좌동지, 내가 앞에 나와있으니까 앞으로구령만 주십시오.》
《됐소, 꾸르쟈꼬브, 롱담했으니 속이 씨원할텐데.》 꼴로꼴리쩨브는 말하기 피곤했다.
꾸르쟈꼬브는 참모장의 말을 존중하여 그만 들어오고말았다.
… 훈장을 받을 다음차례 사람으로 까자꼬브를 불렀다. 그에게도 적기훈장이 수여되였다. 와씰리의 차례가 되였다. 그는 심장을 들먹이면서 정보로 원수앞으로 다가가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의 검은 눈섭은 낮게 드리우고 묵중하게 생긴 아래턱에 가운데가 움푹하게 들어가 얼굴이 위엄있어보였으며 그의 시선은 동정에 어려있었다.
(그의 시선이 훈장을 수여할 때이니 선량하겠지.)하고 와씰리는 생각하였다. 그는 쥬꼬브의 엄격성에 대한 말을 많이 들어왔다. 사실 그가 어느 한 전선구역에 나가기만하면 사람들은 대번에 그의 견결한 의지를 느끼군하였다. 쥬꼬브는 명령을 집행하지 않거나 잘못 집행하는데 대해서는 참지 못했으며 과오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였다. 하지만 누구도 그를 나무람한적은 없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가 부대를 큰 손실로부터 구출하며 승리를 앞당기려는데서 정당하게 처벌한다고 보았기때문이다. 쥬꼬브는 얼마전에 린접사단에 머무르면서 참모부일군들이 피로해서인지 게을러서인지 련대의 공격준비를 잘하지 못한것을 발견하였다.

《보병중대에 직접 가봅시다. 나는 총공격날자를 미룰수 없소. 당신과 같은 그런 지휘관을 만난 병사들은 싸우기 힘들어한다는것을 명심하시오.》라고 쥬끄브가 욕했다는것을 와씰리는 들었었다.

쥬끄브는 와씰리의 손을 굳게 잡았다. 훈장곽을 받은 와씰리는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응답하였다.

《쏘련을 위하여 복무함!》

훈장수여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장령들이 쥬끄브를 도와주었다.

정찰병들인 로가찐, 쁘로레뜨낀, 골로샤뽀브는 조국전쟁훈장 2급을 받았으며 와씰리와 쁘랴힌과 같이 보루에서 싸운 나머지 모든 동무들은 붉은별훈장을 받았다. 아직 수많은 훈장과 메달들이 탁상우에 남아있었다. 그것들을 받게 된 사람들은 지금 땅우에 누워있거나 혹은 강바닥에 가라앉아있었던것이다.

얼마후 와씰리와 모든 수훈자들이 공연을 보았다. 이번에는 화선협주단이 출연하였다.

× ×

철조망을 뚫고나갈 통로는 이미 준비되였다. 이제 남은 일이란 그곳을 한사람씩 빠져나간 다음 전호를 뛰여넘어 교대가 갓 진행된 틈을 타서 도이췰란드놈들의 후방으로 들어가는것이였다. 그전까지 보초소에 있던 보초병은 기관총좌지와 정찰조로부터 왼쪽으로 떨어져서 전호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보초병은 다리를 놀리여 긴장된 근육을 풀면서 몸도 녹일겸 한쪽으로 멀리 걸어나갔다. 그리하여 바로 이곳에 통로를 낼 작정을 했던것이다. 새로운 보초병이 기관총우측에서 준비된 통로옆을 지나갔다.

와씰리는 도이췰란드놈의 검은 대가리와 어깨를 보면서 분해했다. 그놈은 사격장의 《가슴》목표판처럼 전호의 눈무지우로 스쳐지나갔다. 무엇보다도 철조망밑을 통과하여 전호에 내려가기만하면 도이췰란드놈은 저절로 손아귀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찰병들앞에 다른 임무가 나섰다. 와씰리는 까라바예브대좌와 한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있었다.

《바로 여기로부터 〈혀〉가 필요하오. 할수 있겠소?》 까라바예브는 지도에서 도이췰란드참모부가 표식된 파란 기발을 가리키며 와씰리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나한테만 필요한게 아니요. 대상은 군단참모부가 지적해준것이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와씰리와 함께 다섯명의 조원들이 철조망앞에 엎디여있는것이다. 조에는 쁘로레뜨낀, 로가찐, 보브까, 끌로샤뽀브와 무전수 쥬크가 속해있었다. 그들은 철조망까지 조용히 접근하여 감시병을 발견하고 통로를 개척했다.… 이처럼 만사가 순조롭게 시작되였다. 그 도이췰란드놈이 그들쪽으로 와야 한다. 그놈을 제낄수 없다. 잘못하면 적후로 들어가는 정찰조의 흔적이 발견될수 있다. 군견을 들이대는 날에는 피하지 못한다. 다른 통로를 낼가?

그러면 시간이 랑비된다. 새로운 곳으로 슬그머니 기여가서 그곳에서 보초병을 찾아내야 한다. 그것도 상당한 모험일것이다. 여기서 교대를 기다리는편이 나을것이다. 모름지기 다음번 보초병이 이쪽으로 올수도 있지 않을가. 와씰리는 위장복팔소매를 걷어올리고 정찰병들에게 시계판을 가리키면서 그우에 손가락을 대고 시침의 방향으로 돌리였다. 모두들 교대를 기다리자는 신호라고 리해했다.

와씰리는 장갑에 얼굴을 대고 눈을 조용히 감았다. 부드러운 눈우에서 잠이라도 들었으면 좋을것이다. 그가 정말 도이췰란드놈들을 지척에 두고 잠들수 있겠는가. 그러한 일은 오래동안 도이췰란드놈들을 찾아다니면서 중립지대나 적후에서 위험을 이겨내지 않으면 안되였던 때에도 있군했다. 위험속에서도 사람들은 모든것에 습관된다. 와씰리는 까쟈끄브가 전호에서 처음으로 자기를 데리고나올 때 심장이 얼마나 고동쳤던가를 회상하였다. 도이췰란드놈들이 어디선가 아주 먼 곳에서 난데없이 나타났다. 와씰리에게는 숲속뒤에 숨어있는 파쑈놈이 어렴풋이 보이였다.

그러나 그놈은 현실적으로 진짜 몇메터안팎에 있었다. 그놈은 기관총압철을 충분히 누를수 있다. 그때는 모든것이 끝장이다. 와씰리는 졸음이 왔다. 그의 마음은 완전히 평온하다. 그것은 그보다 더 힘든 작전을 열번도나마 했기때문일것이다. 와씰리는 파쑈놈이 정찰조를 발견하게 되면 기관총을 쏠 사이가 없으며 앞질러 자동총을 갈기며 수류탄을 던질것이라고 확신했다. 언젠가 그러한 속단으로 하여 끄스쨔 끄를레위치가 생명을 바치였다. 그들은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서로 도와주지 못했다. 사태를 좌지우지해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시간을 놓치지 말고 대담하게 확신성있게 행동하면서 퇴각하는것이다.

한시간이 지나서야 교대가 진행되였다. 도이췰란드놈들은 잠시 뭐라고 중얼거렸다. 그중 한놈이 키득거리더니 교통호로 해서 사라졌다. 새로운 감시병이 기관총옆에 서서 예광탄을 우로 쏘아대면서 자기앞의 중립지대를 내다보며 자기의 기관총《성능》을 시험해보려는듯 어방대고 아무렇게나 사격했다. 와씰리는 그놈을 살피고나서 얼굴을 들지 않고 급히 생각하였다. 《자, 어서 산보나 하라구. 네놈이 어디로 갈셈인가?》 도이췰란드놈은 제 자리에서 서성거리다가 걸음을 떼서 정찰조가 있는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에잇, 개자식같으니라구.》 하고 와씰리는 욕했다.

《네놈때문에 얼마나 기다리며 시간을 허비했는지 아는가. 네놈이 여기로 오는게 아니야. 네놈한테는 썩 좋은게 못돼. 자비심을 좀 베풀어주자구 했지만 네놈을 혼내우고말테다.》

와씰리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으면서 정찰병들의 계획을 파탄시킨 사나운 보초놈을 보자 악이 올랐다.

와씰리곁에는 보브까가 엎디여있었다. 그는 지휘관으로부터 한걸음도 떨어지지 않았다. 지금은 그의 장난군같은 시선이 탐구심에 사로잡혀 묻기라도 하듯 번뜩이였다.

보초병은 마치도 박두한 위험을 느끼기나 한듯 기관총옆을 지나 왼쪽으로 걸어나갔다. 그놈은 기관총 좌우측으로 왔다갔다하였다.

와씰리는 즉시 안도감을 가지고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 보초놈

이 정찰조로부터 제일 먼 거리에 사라지자마자 와씰리는 쁘로레뜨낀에게 손을 흔들었다. 순간 그는 철조망밑으로 빠져나와 전호우를 날아넘어 눈이 덮인 숲속에 몸을 감추었다. 그렇게 한사람씩 모두 슬그머니 빠져나왔다. 와씰리는 맨 나중에 기여나왔다. 아직도 멀어져가는 보초놈의 잔등이 보이고있는데서 와씰리는 철조망밑을 빠져나와서는 받침대를 치웠다. 통로는 와씰리가 체르웬느이한테 대준 그런 방법으로 만들어놓았다. 그것은 도이칠란드놈이 새벽에 통로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필요했던것이다. 받침대를 치우고 가시줄이 종전 위치에 내려진것을 확인한 와씰리는 재빨리 전호의 컴컴한 구뎅이를 넘어섰다. 전호는 그에게 도이칠란드놈들의 특유한 냄새를 풍겨주었다.

그들은 오래동안 걸어갔다. 숲속을 뚫고 도랑을 건느며 웅뎅이를 에돌아 이 나무에서 저 나무를 지나 걷고 또 걸었다. 새벽에 모두가 지정된 곳에 당도할수 있었다. 자그마한 숲속에서 위장을 했다. 시장기도 풀고 물도 마시고 누워서 잠도 잤다. 와씰리가 먼저 남아서 감시를 하였다. 낮동안에 모두가 차례로 감시근무를 서면서 대상물을 연구해야 하였다.

참모부의 엄페호들은 골짜기의 비탈면에 파놓았다. 눈우에 밟아서 다져진 오솔길은 비탈면에서 바닥의 중심도로를 따라 뻗어나갔다. 도이칠란드놈들이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했다. 어떤놈들은 허리춤까지 발가벗고 체조를 했다. 쌍안경에는 군복을 입고 군모를 쓰고 장화를 신은 여러명의 녀자들이 얼씬거렸다. 와씰리는 활기를 띠였다. (그러니 그중에서 한놈을 잡아가자. 나는 여직껏 그런 《혀》를 잡지 못했다.) 그는 도이칠란드녀자들이 어느 엄페부로 들어가며 그놈들의 숙소가 야간습격에 유리하겠는가를 살피였다.

중요하게는 모든 작전을 소문없이 감쪽같이 해치우는것이다.

정찰병들은 여섯명이다. 만일 꼬리가 잡히기 시작하면 구원되지 못한다. 1선까지는 네키로메터 잘된다.

도이칠란드녀자들은 참모부가 배치된 중심구역의 큰 엄페부로 들어갔다. 거기로 접근한다는것은 위험하다. 그러나 혹시 거기에 작업장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그들은 잠을 자려면 바로 어느 변두

리에 있는 작은 엄페부들에 갈수 있다. 와씰리는 자기를 교대한 쁘로레뜨낀에게 쌍안경을 넘겨주면서 녀자들에 대해 말해주었다. 쁘로레뜨낀은 이마살을 찌프리면서 까다롭게 말했다.

《제발 엄페호에서 한놈도 맞다들지 말았으면…》 와씰리가 빙그레 웃었다.

《그럼 됐소. 녀자들과 련관시키지 맙시다. 저기 끝에서 두번째 엄페호를 살피시오. 거기에 두놈의 장교가 들어갔소. 지금 그놈들이 그안에 있소. 감시를 하면서 저녁켠에 거기에 몇놈이나 남아있는가를 확정하시오.》

저녁이 되면서 《혀》를 체포할 시간이 가까와오자 와씰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해명되지 않은것으로 하여 걱정스러워졌다. 어디로 접근해야 하는가를 확정해야 했다. 지적된 엄페호에는 세놈밖에 없으며 그중 두놈은 장교라는것도 알고있었다.그런데 보초소는 어데 있는가? 참모부에 보초를 세우지 않고 그냥 내버려둘수는 없다. 틀림없이 어딘가 보초소가 있을것이다. 정찰병들이 아직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뿐이다. 그러니 그들의 처지에서 이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적참모부가 와씰리와 같은 정찰조의 습격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자면 필경 잘 은폐된 보초소가 있을것이다.

와씰리가 이제는 하는수없이 련대에 무선을 날려 하루 더 지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있는 때에 쌍안경을 들고 감시근무를 서고있던 로가찐이 갑자기 손짓하며 그를 자기한테로 불렀다.

《보초소가 있습니다. 상위동지, 저기 보십시오. 쌍보초를 서고있습니다. 좀 우로 걸어갔습니다.》

와씰리는 쌍안경을 가져다댔다.

《알겠소. 그러니 야간에는 보초를 세운다는거요. 보초병들을 위해 유리한 경로가 선택되였소. 그들에게는 접근로와 골짜기아래에서 움직이고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이오.》

《해제끼지 않겠습니까?》보브까가 물었다. 그는 아직 한번도 보초놈을 제껴보지 못했다. 그래서인지 그는 손이 몹시 근질거리였다.

《나는 로가찐이나 골로샤뽀브하구 감쪽같이 해치우겠습니다.》

보브까가 참지 못해 간청해나섰다.

《동문, 제 말만 하라구. 날 건드리지 말게.》골로샤뽀브가 큰 소리로 말했다. 《난 기발옆에 있던 보초놈을 제껴본적이 있네. 아직도 그 생각을 하면 옆구리에 칼이 선뜩하는것 같네. 참 그놈이 나를 얼마나 쳤다구.》

《조용히 해치웁시다.》 와씰리가 정찰병들의 말을 막았다. 그는 벌써 시간을 재면서 필요한 계산을 했다. 그리고는 대원들에게 설명했다. 《보초병들은 7～8분동안에 한번씩 참모부주변을 돌고있소. 쥬크동무는 놈들을 놓치지 말고 시시각각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알아야겠소.》

《알았습니다.》

《엄폐호에는 나와 로가찐이 가겠소.》

《혹시 저두 데리고가지 않겠습니까?》 보브까가 물었다.

《보브까는 왼쪽에서, 쁘로레뜨낀은 오른쪽에서 엄폐호입구를 엄호하시오. 골로샤뽀브는 문앞에 남아있으시오. 극단한 경우에만 사격을 하시오.》

그들은 캄캄한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그사이에 보초병이 몇번이나 바뀌였다. 아직 달은 뜨지 않았다. 어두운 골짜기에서는 등불을 켠 창문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참모부는 잠자고있었다. 오직 엄폐호의 굴뚝에서 연기가 가불가불 피여오를뿐이였다.

정찰병들은 보초병이 다니는 오솔길로 기여내려갔다. 마치도 수축된 용수철처럼 긴장된 그들은 보초놈을 주시하면서 지휘관의 신호를 기다리였다. 보초놈이 퍼그나 멀리 떨어졌을 때 와씰리는 벌떡 일어나서 허리를 구부리고 조용히 아래로 내려갔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모두가 자기를 따라올것이라는것을 알고있었던것이다. 지정된 엄폐호앞에서 와씰리는 땅에 엎드렸다. 실오리같이 가는 빛살이 흘러나오는것을 발견하고 창문가에로 기여갔다. 유리창은 안쪽에서 검은종이로 가리워졌다. 좁다란 틈새기를 통하여 와씰리는 신문을 펴놓은 식탁에 보온병과 포도주병, 뚜껑을 뗀 통졸임통과 과자며 담배들이 놓여있는것을 보았다. 군복을 완전히 차려입은놈은 대위였다. 다른놈은 군복저고리를 벗어던지고 풀색와이샤쯔를 입고있었다. 군복저고리와 자동권총이 달린 혁띠는 벽에 박은 못에 걸어놓

았다. (왜서 이놈들이 늦도록 잠을 자지 않고있을가? 혹시 직일장교들이 아닐가? 아무튼 우리는 마찬가지가 아닌가. 장교들이라면 다 좋은것이다.)

와씰리는 쥬크를 쳐다보았다. 쥬크는 자기 시계를 들여다보고 손을 쳐들어 지금 보초병이 어디에 있다는것을 가리켜주었다. 보초병들이 옆을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나서 와씰리는 재빨리 출입문으로 통하는 교통호로 들어갔다. 와씰리는 문앞에서 멈춰섰다. 심장이 어찌나 높뛰였던지 엄폐호안에 있는 장교들이 그의 맥박소리를 듣는것만 같았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있을수 있다는 생각에 놀란 와씰리는 갑자기 문을 제끼고 권총을 내대며 날쌔게 문턱을 넘어섰다. 그뒤에는 로가찐이 자동총사격준비를 갖추고 바싹 따라섰다. 그는 밖에서 불빛과 있을수 있는 격투를 보지 못하게 얼른 문을 닫았다. 와씰리는 나직하지만 위엄있게 구령을 쳤다.

《핼트! 헨데 호크!》(섯! 손들엇!)

(그들이 아무데도 도망치지 않는다. 나는 왜 《핼트》라고 했을가?) 하는 생각이 와씰리의 뇌리를 쳤다.

완전한 복장을 하고 와씰리곁에 서있는놈은 손을 쳐들고 눈이 둥그래서 흰 위장복을 입고 난데없이 나타난 사람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식탁쪽에 서있는 다른놈은 우물쭈물하면서 한손은 다른 손보다 더 높이 쳐들고 옆을 흘겨보았다. 와씰리는 즉시 그 거동을 포착하고 다시한번 《손들엇!》하고 구령을 치려고 했으나 미처 그럴 사이가 없었다. 장교놈이 혁띠를 걸어놓은 벽앞으로 달려가 권총집에서 권총을 빼내려고 했다. 모든 행동이 몇초동안에 벌어졌으나 와씰리는 권투선수의 솜씨로 장교놈을 단매에 꺼꾸러뜨릴수 있었다. 그러나 식탁이 방해가 되였다. 벌써 권총집에서 권총이 반쯤 나왔다. 위기일발의 순간이다. 사격해야 한다. 와씰리는 방아쇠를 당기였다. 장교놈은 식탁쪽으로 꼬꾸라졌다. 곁에 서있던놈의 눈이 갑자기 번뜩이며 리지적인 인상을 주었다. 그놈은 총소리를 듣고 누가 도우러 오지 않는가고 귀를 강구고있었다. 와씰리와 로가찐도 당장 발자국소리가 들려오고 엄호하는 정찰병들의 사격이 시작되리라고 긴박감을 가지고 기다리였다.

모든 일은 정찰병들에게 무사하게 끝났다. 어느 누구도 문이 닫긴 엄페호안에서 울린 총성을 듣지 못했다. 로가찐은 민첩한 동작으로 포로를 처리했다. 어느새 그의 입에 헝겊뭉치를 틀어막고 그에게 외투와 흰 위장복을 입히고 손을 등뒤로 동여맸다. 경험있는 로가찐은 그 모든 일을 도이췰란드놈이 쇼크상태에 있을 때에 재빨리 해야 하며 그놈이 정신이 들게 되면 반항하리라는것을 잘 알고있었던것이다.

그사이에 와씰리는 엄페호안에 있는 물건들과 죽은 장교놈의 증명서와 무기를 걷어모았다. 엄페호안을 다시한번 둘러보고나서 초불을 끄고 문을 열었다. 처음에 와씰리는 어둠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이윽고 보초병쪽으로 향한 쥬크의 손을 가려보았다. 문옆에 숨은 와씰리는 보초놈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거무스레한 그림자가 가까이에서 얼른거리였다. 보초병이 지척에 나타나자 갑자기 포로놈이 골로샤뽀브를 발로 걷어차고 그를 치면서 교통호에서 빠져나와 보초병의 주의를 끌려고 시도했다. 포로는 알아듣지 못할 소리로 웅얼거리더니 머리를 내저으며 입에서 헝겊뭉치를 내뱉으려고 했다. 골로샤뽀브는 침착하게 다리를 틀어잡아 땅우에 넘어뜨리고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헝겊뭉치를 내려눌렀다. 그놈은 계속 발버둥질을 했다. 보초병은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옆을 지나갔다.

와씰리는 도이췰란드놈을 세워놓고 기쁜 마음으로 생각했다. (오늘 우리는 운이 튼셈이다. 보초놈들이 총성을 듣지 못하고 이놈이 기를 쓰는것도 몰랐으니까.) 포로가 또다시 빠져나오려고 악을 쓰며 발길질을 했다. 와씰리는 피끗 그놈의 무게를 가늠해보았다. (짐승처럼 피둥피둥한놈이 80키로는 잘되겠군. 가져가자면 꽤 무겁겠는데.) 와씰리는 고집을 쓰는 《혀》에게 정신을 잃지 않을 정도로 턱밑에 짧은 주먹을 한대 먹이였다. 포로는 딸꾹질을 하면서 눈이 둥그래지더니 쓸데없는 망상을 가지고 장난질하다가는 좋지 못하리라는것을 얼른 깨닫고 가만있었다. 와씰리는 정찰병들에게 손을 흔들어 신호하고 비탈면을 따라 우로 뛰여갔다.

그후 그들은 기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면서 날쌔게 전방

계선으로 철수했다. 적참모부에서 실종사건을 발견하기전에 될수록 빨리 철수해야 했다.

깊은 밤의 차거운 대기와 작전의 성공은 대원들의 용기를 한결 북돋아주었다. 그들은 피로한줄도 모르고 달리였다. 와씰리는 경계심을 가지고 정찰병들을 제지시켰다.

《동무들, 조용하시오. 말처럼 뛰여서야 되겠소!》

1선전호에서 멀지 않은 곳에 당도했을 때는 구름뒤에서 달이 비죽 나오면서 정찰병들의 얼굴을 밝게 비쳐주었다. 주위의 만물은 누르끼레한 반사광에 휘덮였다.

《빌어먹을 자식.》 쁘로레뜨낀이 욕설을 퍼부었다.

와씰리는 포로놈의 뺨에서 두줄기의 눈물자국을 발견했다. 그놈은 울고있었다. 그것은 와씰리를 매우 놀라게 했다. 와씰리는 지금까지 심문하면서 파렴치한 도이췰란드장교놈들이 도전적으로 나오는것을 여러번 보아왔던것이다. 그놈한테는 아직 한마디도 묻지 않았는데 벌써 흐느껴울기까지 한다. 괴상한 도이췰란드놈이다. (내가 그놈의 면상을 먹인게 그다지도 강한 모욕감을 주었을가? 제가 잘못해가지구두 불평을 부릴게 있는가. 참 신경이 예민한놈이군.)

정찰병들은 허공으로 치달아오르는 예광탄을 통하여 1선전호에서 도이췰란드신호총수들사이의 거리가 좀더 넓은 곳을 찾아냈다. 전호앞으로 조심스레 기여갔다. 그곳 전호는 텅 비여있었다. 가까운 굽인돌이에 아무도 없는가를 확인했다. 쁘로레뜨낀은 배낭안에서 가위를 꺼내들고 전호를 뛰여넘어 철조망을 자르기 시작했다. 이제는 통로를 은페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통로는 더 널직하게 내야 한다. 포로놈이 좁다란 틈을 빠져나가지 못할수 있는것이다. 통로가 다 준비되자 쁘로레뜨낀이 손을 흔들고 중립지대로 재빨리 빠져나가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철조망쪽을 향해 자기의 자동총으로 정찰조를 엄호할 태세를 갖추고있었다.

와씰리는 포로의 어깨를 잡아당기였다. 그놈이 돌아서자 통로에로 나가라고 대주었다. 그리고는 주먹으로 그놈의 면상을 갈겨놓고는 자기가 요구하는대로 고분고분 움직이라고 했다. 포로는 머리를 끄덕이며 순순히 말을 들었다. (이젠 제대로 하는군.) 하고 와씰리는

생각했다. 그는 포로가 일어나도록 부축해주었다. 등뒤로 손을 묶어놓았기때문에 그놈은 저절로 일어설수가 없었다. 정찰병들은 자동총사격준비를 하고 좌우측을 엄호하고있었다. 와씰리가 포로놈의 혁띠를 부여잡고 그놈이 힘을 느끼도록 하고는 그를 당겨올리였다. 그리고는 철조망쪽으로 머리를 기웃해보이며 포로의 혁띠를 잡고 그와 함께 전호를 뛰여넘었다. 와씰리는 포로놈과 같이 엎디여 그놈의 목덜미를 잡아 철조망밑으로 끌어당기였다.

련대참모부에서는 정찰참모 률렌꼬브와 직일통신수들만이 자지 않고있었다. 포로놈의 손목을 풀고 입에서 헝겊뭉치를 꺼냈다. 포로가 숨을 돌리자 와씰리는 호기심을 가지고 물었다.

《당신은 왜 울었소? 내가 때려서 울었소?》

포로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정찰병을 힐끔 쳐다보았다. 그놈은 지금 자기 앞에 상위가 서있는것을 보고 반발적으로 돌아서서 얼굴을 률렌꼬브대위한테 돌리고 《만일 내가 그러한 가능성을 얻을수 있었다면 난 당신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산산이 짓밟아서 죽은 자리밖에 남지 않게 했을것이요.》하고 악에 받쳐 목구멍에서 가르릉소리를 내며 말했다.

《한대 먹인게 그다지도 분통이 터지는가? 내가 네놈을 아껴서 쉽게 해주었으니 망정이지…》

《난 얻어맞기만해서 분한게 아니요. 당신은 나의 일생을 망쳐버렸소. 난 당신이 살해한 프랑크소좌에게 직무를 넘겨주었소. 난 새로 임명되여 예비련대로 가게 됐단말이요. 아침에 떠나게 되여있었소. 나에게 있어서 전쟁은 끝난셈이요. 며칠 지나면 난 나의 사랑하는 안해 길다와 나의 귀여운 자식들인 케텐과 아돌프를 만나게 됐을텐데. 헌데 만사가 이렇게 뒤집힐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소. 나에게 몇분간 여유를 주었어도 난 당신의 목을 이발로 물어 끊어놓았을거요.》

처음에 와씰리는 그놈을 비웃었다. 《이제 와선 네놈이 나한테 삿대질까지 하는군.》

와씰리는 침착하게 말을 했다.

《나는 네놈에게 어떠한 불행도 가져다준게 없다. 거기서 네놈의 전

쟁이 끝났다면 여기서도 전쟁은 끝났어. 거기서 네놈이 살아있으면 여기서도 살아있게 돼.》 갑자기 와씰리는 분노의 파도에 휩싸였다. (그처럼 탐욕스러운 승냥이놈에게 아직도 관대성을 베풀다니. 혹시 이 더러운 자식이 나의 아버지를 죽인게 아닌가. 필경 이놈이 1941 년도에 모스크바부근에 기여들어왔을것이다.) 하고 와씰리는 생각했다. 그는 포로놈의 악에 받친 시선과 마주치자 커다란 적의를 품고 뚫어지게 쏘아보면서 말했다. 《만일 네놈이 자기 처와 자기 자식들을 사랑한다면 무엇때문에 우리 로씨야땅에 기여들었는가. 나한테도 어머니가 있다. 나의 아버지도 네놈이 죽이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네 녀편네한테 주자구 내 어머니의 원피스를 빼앗으러 왔는가?》

포로놈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졌다. 그놈은 화제가 그렇게 뒤집히리라고는 전혀 예상 못하고 (이제 이 상위가 나를 쏴죽이겠지.) 하고 생각했다.

《진정하라구. 와씰리.》 률렌꼬브대위가 와씰리의 어깨를 잡고 말했다. 《그따위 개자식때문에 신경쓰지 말게.》

까라바예브가 잠이 가셔지지 않은채 성급히 엄페호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걸어오면서 군복저고리단추를 채웠다. 포로놈은 대좌견장을 달고 얼굴에 미소가 어려있는 로씨야지휘관을 보고 일루의 희망을 가지고 《각하, 제가 구원되였다고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하고 말했다.

까라바예브는 포로놈을 슬쩍 훑어보고 와씰리한테로 가서 두손으로 악수를 청했다.

《참 훌륭한 정찰병이요. 자기 임무에 충실한 뛰여난 명수들이요. 〈혀〉는 주문만하면 끌어오는구만. 전방에서 잡아오라면 잡아오구 적후에서 끌어오라면 끌어오니말이요. 이번에도 참모장교를 요구했더니 또 잡아오지 않았소. 고맙소, 와씰리!》

와씰리는 손을 모자옆에 가져다댔다.

《쏘련을 위하여 복무함!》

《그만하오. 그런 격식은 필요없소.》 까라바예브는 두팔을 앞으로 내뻗치고 와씰리의 어깨를 반가이 두드려주면서 미소가 어린 그의

소박한 얼굴을 만족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래 동무는 무사하오? 부상당한 동무들은 없소? 률렌꼬브동무, 우리한테 따끈한게 좀 없소?》
《얻어보겠습니다, 대좌동지.》
까라바예브는 포로를 잊은듯싶었다. 그놈은 주위에서 벌어지고있는 모든 사실을 리해할수 없었다. 왜서 대좌가 그처럼 허물없이 상위를 대하며 상위와 대위는 대좌의 앞에서 놀랄만치 꺼리낌없이 마음놓고 행동하고있는지. 그 모든것이 도이췰란드놈에게는 군사적으로 용납할수 없는 위반행위로 간주되였다. 그리하여 포로는 경멸감을 가지고 생각했다. (초보적인 군사도덕규범도 모르는 야만들이군. 무식한 짐승들아, 우리가 너희들을 대도이췰란드제국에서 일하도록 해주마.) 포로는 자기가 경멸감을 자아내는 로씨야사람들의 손에 재수없이 잡히게 된것이 몹시 부끄러웠고 고통스러웠다.
도이췰란드놈은 제 목숨을 구원해달라거나 처자들을 보존해달라고 애걸하는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한가지만을 빌었다. 《제발 부탁하지만 이 저주로운 로씨야인들을 멸살시키고 그들의 집들을 불사르고 이 땅에서 모든것을 다 소멸할 기회를 주십시오. 대도이췰란드를 위하여 나를 놓아주십시오.》 총통께 충성다할 비상한 열정에 휩싸여있는 포로는 별안간 흐뭇한 감정을 가지고 파쑈분자들의 인사법으로 손을 올리고 고함을 쳤다.
《하일 히틀러!》
까라바예브는 이가 쑤시는듯 이마를 찌프리고 도이췰란드놈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와씰리, 그만하기요. 어서 저녁을 먹고 푹 쉬시오. 대원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전하시오. 래일 만나서 얘기하기요.》

× ×

드네쁘르강을 탈취하기 위한 승리의 격전도 이미 끝났다. 우크라이나에서도 벌써 강점자들을 몰아냈다.
전쟁의 세번째 겨울도 지나갔다. 준엄한 겨울이였건만 그래도 지

나간 겨울보다 즐거웠다. 당면하게는 벨라루씨를 해방하는것이였다.

쏘련군대를 재편성할 때 도브로호또브의 사단은 방금 생긴 제3벨라루씨전선으로 이동되였다. 그 새로운 전선참모부에서는 갑자기 와씰리를 오라고 불렀다.

긴급호출이였다. 긴급한것만큼 차까지 보내왔다. 까라바예브는 와씰리를 데리러 소좌를 보내였다. 이런 경우에 아무 말도 물어보지 않게 되여있지만 와씰리는 조바심이 나서 물었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거기에 가면 다 알게 될거요.》 말이 적은 소좌가 간단히 대꾸했다.

달력을 보면 봄철이였다. 때늦은 눈이 겨울처럼 퍼그나 내려쌓였다. 찦차뒤로 눈보라가 날렸다. 전선참모부까지 당도했을 때는 와씰리의 온몸이 뼈속까지 얼어들었다.

소좌는 그 길로 와씰리를 정찰국장 알레힌소장한테로 안내했다. 와씰리는 그의 이름을 여러번 들어왔지만 만날 기회는 없었다. 알레힌장령은 키가 꺽두룩하고 위엄이 있으며 이 소좌처럼 말도 적고 매우 엄격하리라고 상상하였었다. 그러나 알레힌은 와씰리가 상상했던것과는 달리 키가 작고 오달지게 생겼다. 그의 눈은 소아과의사처럼 친절하고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대체로 전선의 정찰국장은 전혀 꾸밈새가 없는 소탈한 사람으로 보였다.

《상위동무, 위쩹쓰크로 가시오.》 소장이 와씰리에게 말했다. 《거기서 우리 사람들이 얻은 적방어선략도를 여기로 가져오시오.》

알레힌은 전선너머에 있는 도시에서가 아니라 마치 옆방에서 략도를 가져와야 하는것처럼 그렇게 태연하게 말하였다.

와씰리는 알레힌이 자기를 놀래우거나 처음부터 의혹을 자아낼가봐 우정 그렇게 목소리를 낮추었다고 짐작했다. 실제로 알레힌의 은근한 신뢰감이 와씰리에게 조용히 전달되였다.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늘 하는 일인데.》

와씰리는 그 장령이 임무수행에 대하여 생각하듯이 랭담하게 말했

다. 말이 끝날무렵에 장령이 《동무는 전선사령관과 직접 말하게 되오.》라고 하자 심장이 막 두근거리였다.

순간 와씰리의 침착성은 간데없이 사라졌다. 와씰리는 알레힌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다. (소장동지, 안됩니다. 그런 일은 특별한것인데 당신은 훌륭한 심리학자이며 자제할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총에 맞은 참새가 아닙니까. 집행자에게 직접 지시를 주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리해됩니다. 당신은 아마 저를 고르기전에 다른 정찰병들을 오래동안 골라봤을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제가 그것을 해내겠는지, 가져올수 있겠는지 하는것을 줄곧 생각해봐야 합니다. …)

알레힌은 어느새 전화를 걸어 사령관이 만나보려는 군관이 도착했다는것을 보고하고 송수화기를 놓고 책상에서 일어났다.

《갑시다. 사령관이 기다리오. 기가 죽어서는 안되오. 그는 동무의 전투소식을 다 알고있소. 동무의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동무가 성공할것을 바라고있소. 그러니 모든것이 다 좋게 될거요.》

알레힌은 갑자기 도이췰란드어로 바꾸었다. 그는 체르냐홉쓰끼가 정찰병들을 반가와한다고 알려주었다. 그리고나서 그는 도브로호또브가 정찰사업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물었다. 이윽고 그들이 깊은 골짜기로 내려갈 때 도이췰란드말로 추상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와씰리는 자기를 검토하고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짤막한 말로 대답했다.

골짜기 좌우측비탈에 이르니 나들문과 창문들이 보이였다. 거기에는 참모부의 전문과들이 자리잡고있었다. 널판자를 갓 깔아놓은 계단을 따라 한 나들문으로 올라갔다. 응접실에서는 금빛견장을 단 부관이 그들을 맞이했다. 와씰리는 금빛견장을 본적이 없었다.

부관은 누런 레자를 붙인 두번째 문에서 나오더니 인차 돌아섰다.

《들어가시오.》

와씰리는 푸근하고 불이 환한 방안으로 들어갔다. 체르냐홉쓰끼는 책상을 마주하고 앉아있었다. 그는 단단하고 건장한 체구에 씩씩해보였다. 굽실굽실한 머리카락은 검고 밝은 밤빛을 띠였다.

사령관이 마주나오며 와씰리의 손을 잡고 고개짓으로 의자를 가리켰다.

《앉으시오.》

자신도 곁에 와 앉아서는 임무에 대한 말을 시작했다.

《위쩹쓰크까지는 스무키로 잘되오. 종심까지는 전술구역으로 되여있소. 때문에 여기서는 1제대와 2제대보병들과 포병대 그리고 참모부들과 창고를 비롯한 군부대들이 도처에 널려있소. 그렇다구 이 구역에 락하산을 타고 침투한다는것은 너무나 모험적이요. 만일 락하가 성공된다쳐도 어쨌든 땅으로 돌아야 하니까. 결국 비행기는 거기에 갈수 없소. 알만하오?》

《알겠습니다. 사령관동지.》 와씰리는 재빨리 일어섰다.

《앉소. 어서 앉으시오.》 사령관은 그의 팔목을 쥐여당기고 말을 계속했다. 《나한테는 동무가 아주 용감하고 능란한 정찰병이며 완전히 믿을수 있다고 소개하여주었소.》

《사령관동지, 당신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좋소. 오늘중으로 떠나갔다 될수록 빨리 돌아오시오.》 사령관은 알레힌을 쳐다보았다. 《증명서들은 준비됐소?》

《네. 준비합니다. 사령관동지, 도이췰란드군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면 됩니다. 증명서는 한시간이면 다됩니다.》

《조를 무어가면 힘드니까 혼자서 놈들의 옷을 입고 가시오. 그러나 될수록 놈들과 맞다드는것을 피하시오. 동무는 도이췰란드말을 잘하오?》

《십학년과정과 강습소수준에서 알고있습니다. 사령관동지…그것도 겨우 3점밖에 안됩니다.》 와씰리는 이렇게 말해놓고 (임무수행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리해하지 않을가?) 하고 위구심을 가지고 생각했다. 아니다. 체르냐홉쓰끼는 그의 말을 정확히 리해하고 알레힌과 서로 눈짓했다.

《겸손해서 그럽니다.》 알레힌이 확신있게 말했다. 《십학년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도이췰란드말을 곧잘 합니다. 제가 말해봤습니다. 발음이 인차 알릴뿐입니다.》

《억양이 틀리면 벙어리보다 더 위험한 때가 있소.》 체르냐홉쓰끼가 강조했다. 《그러니 필요없이 도이췰란드놈들과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겠소.… 우리한테는 도이췰란드말을 나무랄데없이 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정찰병들이여서 야전조건에서 행동할줄 모르오. 동무에게는 군대들이 욱실거리는 구역이 오히려 친숙한 고향마을이나 다름없을거요. 자, 악수나 하기요. 정찰병동무.》 그는 와씰리를 《임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임자앞에 나선 임무는 결코 쉬운것이 아니야. 몸을 조심하라구.》 사령관은 와씰리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허물없이 말을 보태였다. 《나한테는 그 략도가 몹시 필요해서 그러네. 정찰병…》

와씰리는 오던 골짜기로 다시 돌아갔다. 그의 마음은 류달리 날아갈듯하고 자유로왔다. 그는 사령관이 부탁한것을 빨리 수행하려는 일념으로 휩싸여있었다. 그렇다. 사령관은 명령만 한것이 아니라 부탁도 하는것이다.

정찰국에서 와씰리는 도이췰란드놈의 상등병옷을 입고 사진을 찍은 다음 접선장소, 주소, 암호 등 아지트에 대한 자료를 료해하고 시내배치상태를 연구하는데 몰두했다. 이전에 그는 위쩹쓰크에 가본적이 없었다. 따라서 어느쪽에서 들어가야 여기저기 헤매지도 않으며 누구한테도 길을 묻지 않고 유유히 침투할수 있겠는가를 미리 가늠해봐야 한다. 그는 북남쪽으로 뻗은 120～130번도로를 횡단하게 되면 필요한 《슈트랏쓰》구역에 들어설수 있다고 타산했다. 이상한것은 벨라루씨도시에 갑자기 《슈트랏쓰》라는 말이 나타난것이다.

다음에 와씰리는 위쩹쓰크에로 가는 로정의 정세와 지형도를 깐깐히 연구했다. 그는 어디서 특별히 조심해야 하며 어떤 대상물을 어느쪽에서 우회하는것이 낫겠는가를 따져보았다.

40분 지나서 와씰리에게 사진이 붙은 근무증명서를 가져다주었다. 증명서에는 그가 제186보병련대 상등병 파울 슈테르로 등록되였다. 그 모든것은 독수리와 십자표식이 있는 공인으로 확인되였다. 증명서는 어느 포로병의것을 회수한것인지 진짜였다. 거기에 사진만 바꾸어붙였을뿐이였다.

와씰리를 전선으로 넘겨보내는 일도 말이 없던 그 소좌에게 위임

되였다. 다시금 찦차를 타고 그의 곁에 앉아서 전방으로 나갔다. 어느 한 촌락에서 사단정찰과장인 대위가 그들을 맞이했다.

거기서부터는 걸어갔다. 가는 길에 대위는 5키로 종심에 있는 도이췰란드놈들의 방어시설체계와 그 구역에서 적의 행동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해주었다.

전연에서 다섯명의 련대정찰병과 세명의 공병이 와씰리와 작별인사를 나누고 면목이 없던 전투원들의 안내를 받아 전호에서 뛰여나갔다. 그들은 허리를 구부리고 숲을 지나 골짜기로 걸어갔다. 그의 안내자들은 이곳의 중립지대를 손금보듯 환히 꿰들고있어서 자신있게 행동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기관총사격을 하고있었다. 도이췰란드놈들이 정찰병들을 발견해서가 아니라 놈들의 질서가 그러했던것이다. 놈들은 짧은 점발로 중립지대에 대고 수색사격을 하군했다. 와씰리는 놈들의 기관총들이 《말》하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기관총들은 자기의 련발사격으로 《나한테는 무사하다》든가 《여기서는 공격준비를 하고있다》는 식으로 서로 련락을 하군했다. 지금 기관총들은 《따-따-뜨라-따-따》하면서 사격을 했다. 이것은 그들이 무사하다는것을 의미했다.

멀리 하늘로는 예광탄이 날아올랐다. 그것이 백광을 뿌리며 지대를 환히 비칠 때에는 정찰병들이 눈에 얼굴을 묻고 엎디군하였다. 그러나 예광탄이 꺼지기만하면 그들은 쏜살같이 앞으로 내달리였다. 와씰리는 능란한 사람들이라고 확신했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눈이 어둠속에 익숙되기를 기다렸을것이다. 그들은 예광탄이 꺼진후 생기는 암흑속에서는 눈앞이 캄캄하여 적감시병들도 전혀 보지 못한다는것을 알고있었다. 적의 기관총이 쏘아댈 때에는 소리가 날가봐 그닥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그들이 경험있는 사람들이라는것을 다시한번 확증해주는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햇내기는 필경 그 자리에 엎디여 숨는다. 그러나 경험있는 사람들은 기관총수가 사격할 때에 자기 기관총소리밖에는 들리는것이 없다는것을 알고있다. 총알이 휘휘 날아가는 소리는 무서울수 있다. 하지만 전투에 익숙된 사람들이라면 총알이 옆으로

지나가는 소리이며 자기한테 날아오는 총알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있다.

앞에서는 하얀 벌판으로 재빛구간이 지나갔다. 그것은 철조망이였다. 공병들이 맨손으로 눈속을 더듬으면서 인발용지뢰가 없는가를 살피고있었다. 철조망말뚝앞에 이르러 한 공병이 반듯이 누워서 두 손으로 가시줄을 잡으면 다른 공병은 그것을 가위로 잘라버리였다.

또다시 예광탄이 하늘로 오르면서 뱀처럼 사르륵거리였다. 그것은 가볍게 휙 소리를 내더니 확 퍼지며 적진을 대낮같이 환히 비쳐주었다. 다 타버린것들은 정찰병들의 발치에 와서 떨어졌다. 신호총수놈은 어딘가 곁에 있었다. 와씰리는 분명 신호총이 장탄될 때 잘칵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어둠속에서 공병들이 자기의 전투를 계속했다. 드디여 통로가 열리였다고 신호가 왔다. 와씰리는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밤 두시였다.

가시줄에 걸릴가봐 조심하면서 철조망밑으로 빠져나갔다. 앞에는 거무스레한 전호가 나타났다. 여느때처럼 이 순간이 제일 어렵다. 자신을 컴컴한 전호에 접근하도록 재촉하기가 제일 바쁘다.

반드시 두 보초병사이의 중간지역으로 돌입해야 한다. 그런데 그놈들이 어데 있는가? 어둠속에서 눈우에 얼굴을 대고 이렇게 엎디여도 발견할수 있을가?

스스로 판단하기 위한 투쟁이 몇초간 진행되였다.

와씰리는 수류탄을 쥐였다. 전호쪽으로 기여가다가 멈춰서 귀를 강구었다. 혹시 도이췰란드놈이 추워서 발을 동동 구르거나 옆놈과 말할수 있지 않을가? 그러나 사위는 쥐죽은듯 고요하였다.

눈에 덮인 평탄한 벌판이 끝나고 앞에는 흙덩이와 불룩하게 둔덕이 진 흉장이 나타났다. 그것은 참호의 흉장이다. 그렇다면 참호까지는 두메터도 안된다.…

와씰리는 조심스레 손을 짚고 몸을 비스듬히 일으켜 좌우측을 살피며 근처에 철갑모가 삐여져나온게 없는가를 확인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참호까지 마지막 한메터를 남기고 아래를 살펴보았다. 수류탄을 던질 만단의 준비를 갖추었다.

전호의 가까운 굽인돌이까지는 텅 비여있었다. 몸을 낮추고 전호

를 뛰여넘어 재빨리 어두운 숲속으로 사라졌다.
뒤에서는 예광탄들이 터져올랐다. 기관총들이 종전처럼 무사하다는식으로 짖어댔다.
두번째 전호는 쉽게 넘었다. 이곳에는 감시병들을 적게 배치하고 근무도 경각성없이 서고있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누군가 장작을 패는 소리가 들리였다. 몇놈이 자기 엄페호앞에서 조용히 지절거리고 있었다.
예광탄의 섬광이 계속 타올랐다. 이제는 걸어갈 필요가 없다. 와씰리는 나무옆에서 몸을 일으키고 주위를 살피면서 다음번에 멈춰설 곳을 확정하고 길가에서 부닥치게 될 모든것을 기억해두었다. 그리고는 허리를 구부정하고 그쪽으로 넝큼넝큼 뛰여갔다. 계속 이런식으로 뛰였다. 정찰병들은 이 방법을 《토끼뜀》이라고 불렀다.
어느새 차들이 다녀서 다져진 길가에 들어섰다. 와씰리는 길 좌우켠을 둘러보았으나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하여 길을 따라 오른쪽으로 나갔다. 그는 오른쪽으로 가면 위쩹쓰크로 빠지는 신작로가 나진다는것을 기억하고있었다.
한키로쯤 지나서 와씰리는 거밋한 물체가 마주오는것을 보았다. 그는 길옆에서 벗어나 숲속에 숨었다. 몇분이 지나서 짐썰매가 옆으로 지나갔다. 말의 코구멍에서는 구름같이 흰 김이 새여나왔다. 말몰이군은 도이췰란드놈이였다. 온몸에 성에가 하얗게 낀 그놈은 썰매옆자리에서 가고있었다. 다른 때 같으면 그놈은 틀림없이 《혀》로 잡혔을것이였지만 지금은 다칠수 없다.
그처럼 와씰리는 마주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길을 비켜주면서 신작로에 이르렀다.
마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르고 곧바로 들어간다는것은 위험하다. 그렇다고 에돌게 되면 숱한 시간을 잃는다. 어떻게 할가?
(사단정찰과장이 이 마을에 대해 뭘 말해준게 없던가?) 똑똑하게 떠오르는것이란 하나도 없었다. 줄지어 늘어선 컴컴한 집들이 괴상하게 보였다.
젊은 정찰병들은 흔히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것을 알아맞힐수 있는

자그마한 징후라도 찾아내군한다. 그러나 정찰에 퍼그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있는 와씰리였으나 조그마한 징후도 전혀 발견할수 없었다.
와씰리는 좀더 가까이 접근했다. 만일 마을에 적참모부가 있다면 집들에 전화줄이 늘어져있어야 한다. 그러나 눈을 아무리 똑바로 뜨고 봐도 어둠속에서 전화줄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일부 창문들에서 차광막을 통하여 가느다란 불빛이 새여나오는것을 발견했다. 바로 이것이 징후이다. 이것이면 충분하다. 이 고장 사람들이라면 깊은 밤에 불을 켜놓고 앉아있을수 없다. 전선지대에서 그들은 대체로 어두워지기만하면 불을 켜지 않는다.
마을을 에돌아 다시금 신작로에 나섰다. 위쩹쓰크가 가까와올수록 자동차들과 짐수레들이며 무리지어가는 사람들과 자주 맞다들리군했다. 그들을 피해 몸을 숨긴 와씰리는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더디게 가는군. 그러다가는 날밝기전에 가닿지 못하지 않겠는가. 무슨 수를 써야 한다.)
와씰리는 자기의 흰 위장복을 벗어 나무밑구뎅이에 파묻고 거기에 표식을 해두었다. 돌아갈 때 필요한것이다. 신작로에 들어서서 사민이 탄 썰매가 오지 않는가를 살피였다. 곧 그런 썰매가 나타났다. 마부는 끄덕끄덕 졸고있었다.
와씰리는 털외투를 입은 마부에게 로씨야말과 도이췰란드말을 섞어가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위쩹쓰크로 가는 길이요?》
《네, 위쩹쓰크로 갑니다. 장교나리.》 마부는 그를 장교로 보았다.
《나는 장교가 아니라 상등병이요.》 와씰리가 고쳐대주고 썰매에 올라탔다.
썰매가 달리였다. 위장을 할겸 알리지 않게 썰매에 실어놓은 향긋한 냄새가 풍기는 건초더미에 몸을 잠그고 마부에게 명령했다.
《위쩹쓰크로 가자. 잠을 자야겠다. 알겠는가?》
《알구말구요. 왜 모를라구요.…자구싶으면 어서 자시우.》 마부가 대꾸했다.
와씰리는 건초더미에 누워서 길가를 살피였다. 한편 마부도 살펴

야 했다. 그가 무슨 꿍꿍이를 하는지 누가 알랴. 외로이 졸고있는 《파쑈놈》을 유인하여 골통을 까서 골짜기에 처넣을수도 있다.
새벽이 되여 교외에 이르렀다. 와씰리는 차단봉과 그 옆에서 몸이 꽁꽁 얼어서 오락가락하는 보초병을 발견했다. 거기서는 증명서를 검열하고 무엇이든지 물어볼수 있다. 이것은 와씰리에게 전혀 필요없는 일이다.
《핼트!》 와씰리는 마부에게 소리치고 썰매에서 내리겠다고 손을 흔들었다. 마부는 공손히 길을 떠났다. 와씰리는 신작로에서 벗어나 눈이 덮인 조용한 골목길을 통하여 시내로 들어갔다.
위쩹쓰크는 아직 잠을 자고있었다.
여기 어딘가 페허와 성한 집들이 있는 곳에 찾아내야 할 집이 있을것이다. 거기서는 와씰리를 기다리고있다. 와씰리가 떠나가면 무선으로 그곳에 알리게 되여있었다.
와씰리는 거리를 세여보았다. 열네번째 거리가 꼭 있어야 한다. 시내로 깊이 들어갈수록 집들은 점점 우중충하였으며 허물어진 집들도 많았다. 창문틀과 유리창이 빠져나간 컴컴한 문구멍들이 침울하게 보고있는것만 같았다.
열번째 교차점을 지나 집모퉁이에서 문득 꼭 알아야 하는 《슈트랏쓰》라는 이름이 보였다. 그러니 교외에서부터 세개의 거리를 잘못 계산했단말인가. 불행이 닥쳐온게 아닌가?
27번지를 찾아보았다. 산뜻하고 불밝은 현관으로 들어갔다. 집은 1층에 있었다. 만약경우를 생각하여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권총을 잡았다. 혹시 오는 동안에 이곳 정찰병들이 로출되여 지금 문뒤에 매복을 배치했을수 있지 않을가.
옆집사람들을 깨울가봐 조용히 문을 두드리였다. 잠시후 녀자의 목소리가 들리였다.
《누구세요?》
도이췰란드놈인체하면서 암호를 말했다.
《나는 대위 백케르가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당신들에게 급한 용건이 있다고 합니다.》
문이 열리더니 녀인이 응답했다.

《전쟁때에야 무슨 일이든지 다 긴급하지요.》
와씰리를 들여놓고 문을 잡근 다음 녀인이 악수하면서 소곤거리였다.
《방안으로 들어가세요. 동지.》하고 녀인은 구석으로 달려갔다.
《꼴랴, 이분이 그 사람이예요.》
그제야 와씰리는 복도끝에서 마흔살쯤되는 남자를 발견했다. 그 사람이 다가서면서 자기 소개를 했다.
《니꼴라이 마르꼬위치요.》
와씰리는 군복외투를 벗어 옷걸개에 걸려고 했으나 녀인이 막아나섰다.
《여기서는 안돼요.》
녀인은 외투를 방안으로 가져갔다.
그들은 식탁에 마주앉았다. 와씰리는 그 소박하고 대담한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게스타포에서 이들을 찾느라고 얼마나 혈안이 되여 날뛰였을가. 이들은 매일과 같이 게스타포와 맞다들지만 살아가고있었으며 일을 하고있었다.
한편 니꼴라이 마르꼬위치는 와씰리를 훑어보고 칭찬하듯 말했다.
《참 빨리 왔소. 나는 래일에야 올거라구 생각했는데.》
《좀 서둘렀습니다. 다음날 밤까지 기다리자니 그럴곳도 없구 또 발각될수도 있구 게다가 추위라는게 어찌나 지독한지 얼어죽겠는데요.》
주인이 인차 눈치챘다. 《아무거나 있는 차를 좀 가져오오. 이 사람은 너무 얼었소.》
나쥬샤가 부엌으로 나갔다. 그들은 마주앉아있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주인은 와씰리에게 광활한 대지에서의 생활을 물었다.
와씰리는 그 물음에 기꺼이 대답했다. 그러나 긴장성이 겨우 풀리자 피로가 몰려들기 시작했다. 집주인들은 그것을 제꺽 알아차렸다. 니꼴라이 마르꼬위치가 일어서며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는 일하러 나갈 때가 됐소. 당신은 누워서 쉬시오. 힘을 얻어야 저녁에 돌아갈수 있지 않겠소.》

그들은 밖으로 나갔다. 와씰리는 잠자리에 누웠다. 창문밑에서 이따금씩 도이췰란드놈들의 구두발소리가 들리고 그들의 날카로운 말소리가 울리였다.

와씰리는 땅거미가 질 때에야 잠에서 깨여났다. 《집》으로 떠날 차비를 해야 한다. 여기에 지체해있을 리유가 없다. 략도를 찍은 필림은 나쥬샤가 와씰리의 웃깃령장밑에 넣어서 실로 기웠다. 필림원본은 보초병들이 경비를 서는 금고에 있었다.

(부대로 돌아가자면 나에겐 약 일곱시간이 요구된다.) 와씰리가 타산해보았다. (돌아갈 때도 그만한 속도를 유지하면 밤 두시에는 부대에 가닿게 된다. 그렇다고 덤벼서는 안된다. 늦어서 밤 세시에 전선을 넘어서는것이 더 나을것이다. 그때엔 보초병들이 곤드라져서 방어선에는 빈둥거리는놈이 하나도 없을것이다. 이제 철조망을 넘어서는 일이 더 복잡해질것이고 공병도, 통로를 낼 가위도 없지 않는가. 물론 나는 지난번에 낸 통로를 찾아내지 못한다. 바닥을 파든가 말뚝으로 기여넘어야만한다. 손을 째면서도 끊어내기만 하면 빠질수 있으련만.)

니꼴라이 마르꼬위치와 나제쥬다 와씰리예브나가 거리 맞은편으로 그를 안내하면서 시내에서 빠져나가는것을 살피기로 약속하였다. 니꼴라이 마르꼬위치는 와씰리에게 주의를 주었다.

《만일 당신에게 무슨 불행이 생겨도 우리는 아무것도 도와줄수 없소. 당신도 알겠지만 우리는 그럴 권한이 없소.》

그는 와씰리가 그 말을 소심성으로 하여 접수하지 않을가봐 꺼려하면서 불안스럽게 말했다.

작별을 앞두고 성공을 위하여 한잔씩 마시였다. 그 잔은 후에 뜻밖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놀았다.

거리에는 인적기가 없었다. 간혹 길가던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와씰리에게 길을 내주었다. 와씰리는 천천히 걸어갔다. 권총은 바지주머니에 넣고 임의의 순간에 쏠수 있게 준비해놓았다. 맞은편에서는 니꼴라이 마르꼬위치와 그의 안해가 마치도 산보라도 하는것처럼 슬

금슬금 따라왔다.

번화한 길목에 이르렀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와씰리를 보고 당황해하였다. 그는 새벽에 오던 그 길로 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에는 모든 거리가 한결같이 고요했지만 지금은 저녁산보시간이여서 사람들이 많이 나다니였다.

유보도를 따라 도이췰란드장교들이 오가고있었다. 어떤놈들은 혼자서 거닐기도 하고 어떤놈들은 녀자를 끼고 다니였다.

와씰리는 신작로에 군인들이 뜸해지자 앞으로 걸어나가 유보도로해서 차가 다니는 행길을 지나갔다. 순간 옆길의 어둠속에 몸을 감췄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때마침 일이 안될 때라 그 거리모퉁이에서 순찰대원 두놈이 와씰리를 향해 곧바로 걸어왔다. 그들은 팔소매에 검은 파쑈상징을 그린 흰 완장을 끼고있었다.

순찰대원들이 와씰리를 단속하여 무엇인가 물어보았다. 머리꼭대기에서부터 발끝까지 뜨거운 격정이 용솟음치고 반대로 다리에서부터 머리까지는 차거운 파도가 밀려들었다.

와씰리는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갈가봐 두려워서 묵묵히 증명서를 꺼내보였다.

빼빼마르고 광대뼈에 딴딴한 혹이 삐여져나온 순찰대원이 군인수첩을 주의깊게 들여다보고 트집이나 잡을가 해서 물었다.

《당신은 왜 여기에 왔소? 당신의 련대야 전방에 있는데 혼돈한게 아니요?》

질문은 사리에 맞았다. 그러나 와씰리는 도이췰란드놈들에게 서둘러 말하지 않았다.

이런 때 말하다가는 랑패를 보기 쉽다.

와씰리는 입을 봉했으나 순찰대원은 왜 전방에서 몰래 들어왔는가를 계속 끈덕지게 따지였다. 주위에는 한가한 구경군들이 둘러섰다. 그중에는 군인들도 많았다. 도망칠수도 없었다.

와씰리는 주위사람들을 슬며시 곁눈질해보았다. 누가 더 높은 상관인가를 가려보았다. 몸에 있는 권총을 수색하지 않았다. 자기 생명을 건드릴 때 써야 한다.

갑자기 순찰대원이 웃었다. 그놈은 와씰리한테 머리를 숙이고 냄

새를 맡더니 유쾌하게 말했다.
《이 비렬한 자식이 주정군이군.》
와씰리는 그놈의 사냥개같은 포착력에 놀랐다. 니꼴라이 마르꼬위치와 함께 성공을 위하여 불과 한잔밖에 마시지 않았다.
그것이 성공인가 아니면 실패인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어쨌든 잠시나마 사태는 완화되였다. 만일 주정군이라면 문제는 간단하다. 순찰대원은 건방지게 머리를 흔들면서 와씰리를 필요한쪽으로 돌려세워 《가자.》고 했다. 그를 위수사령부쪽으로 데리고 갔다.
몸수색을 하지 않은게 다행이다. 권총은 경고하듯 다리를 툭툭 쳤다. 와씰리는 진짜 주정군처럼 약간 흔들거리면서 걸어갔다. 그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순찰병들은 이따금씩 웃으면서 저희들끼리 지껄이다가 와씰리가 천천히 걷게 되면 잔등을 밀치군했다.
《걸엇. 빨리.》
와씰리는 겉으로는 벌어지고있는 일에 전혀 무관심한체 했지만 머리속에서는 한가지 생각만이 맴돌아쳤다. (행동을 해야 한다. 무슨 계책을 꾸며야 한다. 집안에 끌고들어가는 날에는 만사가 끝장이다. 거기서는 빠져나가지 못한다. 위수사령부는 어데 있을가? 혹시 현관이 환한 바로 저기가 아닐가?)
폭격에 허물어진 2층집옆을 지나가고있었다. 집안은 컴컴하였다.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을것이다.
와씰리는 권총을 틀어잡았다. 순찰병들에게 명중탄을 안기고 창문턱을 뛰여넘어 집안으로 들어갔다. 뒤에서 비명소리가 울리였다. 권총소리가 요란하게 났다.
와씰리는 모든 행동을 능동적으로 해나갔다. 그는 언제인가 《꼬리를 떼버리는 법》을 배운대로 추격자가 굽인돌이에서 뛰여나오자마자 담벽에 의거하여 뒤따르는 첫번째놈의 면상을 쏴눕히였다. 다음에 창문턱에서 뜨락으로 뛰여내려 울타리를 넘어 정원을 가로질러 나갔다. 대문뒤에서 거리쪽을 내다보고 재빨리 그곳을 건너 다시 뜨락에 숨었다.
이렇게 와씰리는 울타리를 기여넘어 뜨락으로 해서 빠져나갔다.

뜨락에서는 녀인이 나무가지에 걸어놓은 속내의를 벗기고있었다. 와씰리는 말없이 조용히 대문쪽으로 지나갔다. 녀인은 울타리를 기여넘는 수상한 도이췰란드놈을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주변에는 공공건물이 없었다. 울타리문들은 채워져있었다.

와씰리는 조용한 거리로 걸어갔다. 거기에는 다니는 사람들이 적은것 같았다. 차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길복판에는 생눈이 그대로 쌓여있었다.

아직은 추격해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슈테르의 이름으로 된 군인증은 순찰병에게 있었다. 와씰리는 도이췰란드사령부에서 186보병련대에 전화를 걸었으리라는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지금은 모두가 슈테르라는 놈이 없다는것을 확정했을것이다. 그러니 시내와 길가에서뿐아니라 도처에서 그를 찾기 시작할것이 아닌가.

와씰리는 걸어가면서 정세를 판단했다.

(지금이 여덟시다. 나는 시내를 빨리 지나왔다. 울타리들을 뛰여넘는데 시간이 지체되지 않았다. 앞에는 아직 옹근 밤시간이 남아있다. 그 시간이면 부대에 넉근히 가닿을수 있을것이다.)

갈림길에 이르렀다. 거리표식말뚝에는 어느쪽에 무슨 마을이 있고 거기까지 몇키로 되는가가 상세히 씌여있었다. 갈림길에서 수림쪽으로 뻗은 촌길이 있었다. 와씰리는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수림속에서는 위장하기가 쉽기때문이였다. 그런데 수림속에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꽉 차고넘치였다. 땅크엔징소리가 우르렁거리였다. 아마 땅크를 예열하는것 같았다. 도이췰란드놈들이 고아대면서 부러진 나무가지를 토막내고있었다.

와씰리는 길에서 벗어나 인츰 넓은 공지에 들어섰다. 그곳의 눈은 땅땅하게 다져진것이였다. 그것을 본 와씰리는 경각성을 높이였다. 공지를 지난 그는 넘어진 나무에 다가가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나무가 아니라 포신이였다.

와씰리는 뒤로 돌아 걸음을 재촉했다. 지금은 눈우에서 빠드득거리는 군화소리만이 높게 들릴뿐이다. 아직은 이렇다할 위험은 없었으며 눈에 띠우지도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빠드득소리가 귀에 거슬리였다.

포병대대를 에돌아 다시금 동쪽으로 걸어나갔다. 수림이 끝났다. 지평선 맨끝에서는 예광탄이 날아올랐다가 꺼졌다. 이제는 전호계선에 진출했다는 생각에 와씰리는 기뻤다. 그러나 여기에는 도이췰란드놈들이 욱실거리고있다. 위장복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없다. 와씰리가 자기의 흰 위장복을 파묻어놓은 나무는 어딘가 전혀 다른곳에 있었다.

(이렇게 퍼런 외투를 입고 어떻게 기여가겠는가. 눈우에 서있는 내가 한키로안팎에서도 다 보일것이다.)

와씰리는 숲속에 들어가 옷을 홀딱 벗었다. 맵짠 바람이 그를 후려치며 지나갔다. 바지와 잠바를 날쌔게 껴입고 속내의는 겉에다 입었다. 외투는 버려야만했다. 외투우에다 속내의를 입을수 없었다. 자신을 둘러보며 유감스러운 생각이 들었다.(눈우에서는 손과 발이 얼핏 눈에 뜨인다. 손과 발은 극단한 경우에 눈속에 밀어넣을수 있을것이다. 그런데 머리를 어떻게 위장한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여 끝을 매듭지었다. 어린 시절에 강가에서 목욕하면서 와씰리도 그런 모자를 솜씨있게 만들어썼었다. 물론 위장은 그닥 씨원치는 않지만 그만하면 비슷하게 된셈이다.

와씰리는 《토끼뜀》을 하면서 전진했다. 아무런 장애도 없이 두키로가량 유유히 통과했다. 페허앞에서 정황을 판단했다. 페허는 50메터구간에 널려있었다. 거기로 달려갔다. 그것은 페허가 아니였다. 방수포를 씌워놓은 탄약더미였다. 야전창고주변에 널려진 상자들을 보고 페허로 착각했던것이다.

탄약더미 맞은편끝에 보초병의 검은 그림자가 얼른거리였다. 와씰리는 조심스레 다른쪽으로 기여갔다.

와씰리는 바로 그렇게 기여가기도 하고 《토끼뜀》을 하기도 하는 바람에 흠뻑 젖었다. 눈속에 한동안 엎디여있어야 할 때는 뼈속까지 얼었다.

드디여 예정된 목적지에 이르렀다. 그곳과 중립구역어간에는 한개의 전호와 철조망이 있었다. 그 순간에 와씰리는 어찌나 지쳤던지 겨우 움직일수 있었다. 몸은 나무막대기처럼 꽛꽛했다. 철조망을 빨리 넘어야겠다는 한가지 생각뿐이였다. 지척에 있는 전호에는 도이

췰란드놈이 다니고있었다.
와씰리는 도이췰란드놈의 철갑모를 발견했다. 철갑모는 오른쪽으로 스무발자국, 왼쪽으로 열발자국씩 움직이였다. 와씰리는 발자국을 여러번 세보았다. 보초병이 오른쪽으로 갈 때는 열다섯발자국을 디디였다. 아직 다섯발자국을 더 가야 했다. 와씰리는 그놈이 등을 돌려대는 순간 전호쪽으로 바싹 접근했다. 보초병이 돌아오자 와씰리는 까딱하지 않았다.
보초병은 코앞에 와있었다. 손을 내뻗쳐도 그놈의 철갑모를 다칠수 있는 거리다.
가장 정확한 방도는 조용히 그놈을 없애고 중립지대로 진출하는것이였다. 그러나 와씰리는 지금 그것을 해낼만한 힘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너무도 지치고 추위에 얼어서 도이췰란드놈이 그의 기습을 쉽게 물리칠수 있을 지경이였다.
(권총을 쓰게 되면 린접 보초병들이 알아듣고 도우러 달려들것이다. 어떻게 한다? 보초놈이 나에게 등을 돌려대고 서있을 때 전호를 넘어설가? 그러나 나는 미처 기여나갈수 없다. 지금은 내가 뒤에 있기때문에 그놈이 나를 보지 못한다. 그렇지만 그놈은 아군의 진지쪽을 내다볼것이다. 전호의 반대쪽에서 나는 그놈의 코앞에 있게 된다.
… 하지만 이렇게 더는 엎디여있지 못한다. 얼어죽을수 있다. 유일한 출로는 힘을 모아 파쑈놈이 곁을 지나는 순간 권총으로 대가리를 까는것이다.)
와씰리는 손가락을 조금이라도 녹여보려고 입김을 불어보았지만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손에 권총이 잡히지 못하면 타격이 성공하지 못한다.
드디여 와씰리는 보초놈이 다시금 자기곁에 서는 찰나에 권총으로 그놈의 철갑모를 내리쳤다. 실패다. 타격이 빗나갔다. 보초놈이 기겁해서 고함을 치며 도망쳤다. 사격을 해야 했다. 와씰리는 번개같이 철조망앞으로 다가갔다. 말뚝을 틀어잡고 거기로 기여올라가 발로 가시줄을 밟았다. 벌써 뒤에서는 고함소리와 사격소리가 요란하게 났다.
가시줄에 옷과 살이 찢기우면서 와씰리는 두번째 가시줄을 넘어섰

다. 그 순간 무엇인가 묵직한것이 뒤통수를 때리였다. 와씰리는 의식을 잃었다.

정신이 든 와씰리는 첫 순간에 아무것도 리해할수 없었다. 눈앞에서는 감색과 보라색동그라미가 아물거리였다. 심한 아픔을 느꼈다. 그러나 바로 어디가 아픈지 인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지나간 일을 기억속에 더듬어보려고 했다. 마치도 퍽 오래전에 있었던듯 의식이 몽롱하게 떠올랐다.

(철조망을 기여나갔다. 타격에 의식을 잃었다. 부상당한것이다. … 그런데 어디를 다쳤는가? 지금 내가 어데 와있는가?)

와씰리는 눈우에 누워있었다. 주위는 캄캄한 어둠속에 잠겼다. 곁에서는 도이췰란드말소리가 들려왔다. (왜서 나를 일으켜세우지 않고 묶지도 않을가?) 뒤에서는 누군가 삽질을 하고있었다. (혹시 죽은줄 알고 파묻으려는게 아닐가?) 와씰리는 귀를 강구었다. 다시금 철조망을 다치는 삽소리와 헐떡거리는 숨소리가 들리였다. 그 소리를 가늠해보았다. (그렇다. 파쑈놈이 나를 죽은것으로 보고있다. 놈들은 철조망 저쪽에 있고 나는 이쪽에 와있다. 나를 자기들쪽으로 끌어가려고 철조망밑을 파는중이다. … 당장 일어나서 도망쳐야 한다. 그런데 내 다리가 꺾어졌다면…) 와씰리는 자기한테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눈우에서 권총을 발견했다. 몇발이나 쏘았던지 탄창에 탄알이 한알이라도 남아있겠는지. 기억을 더듬어보았다. (산채로는 잡히지 않겠다. 고통을 당하기야 마찬가지가 아닌가.)

와씰리가 생각을 더듬는 동안에 어느새 그의 다리있는데까지 파들어왔다. 끌어당겨보았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와씰리는 가시줄을 따라 세로방향으로 누워있었다. 다리를 잡아당기자 옷이 가시줄에 걸리였다. 도이췰란드놈들이 삽자루를 길게 들여밀고 잔등을 밀치여 가시줄에서 그를 떼내여 《시체》가 철조망을 자유로이 빠져나오도록 돌리려고 했다.

더 기다릴수 없었다. 와씰리는 와닥닥 일어나서 자기 전호쪽으로 냅다 뛰였다.

순간 도이췰란드놈들은 죽은 사람이 도망치는바람에 혼비백산해서

어쩔줄을 몰랐다. 얼마후 놈들은 정신이 들자 부랴부랴 사격하기 시작했다. 와씰리는 뛰다가는 넘어지기도 하면서 아군쪽으로 달려갔다. 예광탄들이 어둠속을 헤가르며 날아올랐다.

와씰리는 숲속에 뛰여들었다. 거기서부터 전선을 따라 평행으로 기여갔다. 적들은 여전히 아군의 진지방향에 대고 사격을 했다. 적들은 그가 자기편으로 곧바로 도망쳤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아군쪽에서 포가 입을 열었다. 그것은 매우 적절한 사격이였다. 그러나 리해되지 않는것은 무엇때문에 아군포가 그처럼 빨리 혼란에 빠진 적들을 대항해나섰는가 하는것이다. 뜻하지 않게 사태가 변했단말인가?

와씰리는 가는 길에 얼어붙은 강과 맞다들었다. 와씰리에게는 아직 얼음우로 기여나갈 힘이 충분했지만 그는 다시금 의식을 잃었다. 극도로 지친데다가 출혈이 심했다.

와씰리는 충격으로 하여 정신을 차렸다.

《도이췰란드놈이요. 참 불쾌하군.》

와씰리에게는 쌀쌀한 그 몇마디의 말이 매혹적인 선률처럼 들리였다. 한숨을 쉴수가 있었다.

《나는 도이췰란드놈이 아니요. 동무들!》

《보라구. 로씨야말을 하지 않소?》 와씰리를 도이췰란드놈이라고 한 사람이 이상하게 여겼다. 《그럼 동무들. 그를 데려가시오.》

와씰리는 자기가 어떻게 되여 전혀 모르는 코수염이 긴 련대장의 엄페호에 와있게 되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겨우 머리에 붕대를 감은 와씰리는 저고리옷깃을 뜯어내여 그 필림을 전선참모부의 정찰국으로 긴급히 보내줄것을 요구했다.

거기서는 모두가 걱정스레 기다리고있다고 생각되였다. 와씰리는 니꼴라이 마르꼬위치가 도이췰란드순찰병과의 충돌과 추격으로부터 무사히 벗어난데 대하여 무선으로 알릴것이라고 짐작했다.

전선사령관은 1제대의 매 련대에 정찰병들과 포병대들이 준비태세에 들어갈것을 명령했었다. 와씰리가 전선을 넘어선 구역에서 도이췰란드놈들이 몹시 불안해하자 아군포병은 적들의 전연진지에 대

고 지체없이 화력지원을 했다. 동시에 정찰조가 중립구역으로 진출했다. 정찰조가 와씰리를 얼음우에서 발견했다.

지금 와씰리는 아늑한 엄페부에 누워서 자기에게 있어서 그처럼 귀중한 로씨야사람들을 보고 또 보았으나 싫증나지 않았다. 와씰리는 그들을 옹근 백년동안이나 보지 못했던것처럼 생각되였다.

《내 상처는 어떻소?》와씰리는 자기 머리에 붕대를 감아준 준의에게 물었다.

준의는 머뭇거리였다. 보건대 그러한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기가 점잖은 행동이 아니라고 인정한것 같았다.

《당신을 야전병원으로 시급히 후송해야 합니다. 머리에 부상을 당하면 늘 위험하니까.》

코수염이 짙은 련대장이 조급해하면서 그를 즉시 썰매로 실어가라고 명령하고나서 와씰리에게 반외투를 입혀주고 준의가 직접 병원까지 호송하도록 지시했다.

련대장은 헤여지면서 와씰리에게 물통을 주고 소곤거리였다.

《동무는 출혈을 많이 했소. 그러니 혹시 길가에서 얼수 있으니 조금씩 마시라구.》

썰매는 가볍게 천천히 미끄러졌다. 동시에 와씰리의 마음도 한결 가뿐해졌다. (끝끝내 빠져나왔군. 사령관의 임무도 수행했다.) 물통뚜껑을 풀고 기쁜김에 몇모금 넘기였다.

(어머니는 편안히 주무셨을것이다. 어머니는 내가 죽을번했다가 어떻게 기적적으로 구원되였는가를 의심하지도 않는다.) 와씰리는 어머니를 위해 한모금 마시였다.

자기 부대 주둔구역에서는 모든것이 아름답게 보였다. 때늦은 추위도 상관없고 바람도 정답게 부는것만 같았다. 《길가에서 얼수 있으니 조금씩 마시라구.》하던 코수염이 짙은 련대장의 말이 되살아났다. 꽁꽁 언 사람들은 몸이 따스해지면 늘 졸린다고들 한다. 와씰리는 다시한번 물통을 입에 가져다댔다. 아니다. 그는 잠을 자고싶은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명랑한 기분에 휩싸여 노래까지 불렀다.

병원에서 부상당한 정찰병을 기다리고있던 외과의사가 위로하면서 말했다.

《이젠 노래까지 부르는걸 보니 모든게 좋아질거요.》
와씰리는 웬일인지 외과의사와 마스크를 끼고 히히닥거리는 간호원들과 말하고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편안히 누우세요. 후에 말하자요.》 한 간호원이 약속했다.
《참, 부상당하구두 그렇게 쾌활해요. 우리한테는 아직 그런 환자들이 없었어요.》 다른 간호원이 말했다.
《맞았소.》 와씰리가 긍정했다. 《동무는 내가 왜서 도이췰란드놈의 복장을 입었는지 모르지요? 동무는 내가 도이췰란드놈이라구 생각하면 안되오.》
《우린 다 알고있소. 어서 편안히 누워있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동무를 비끄러매놓겠소.》 외과의사가 을러멨다.
와씰리는 호탕하게 웃었다. 그에게는 자기 사람들이, 그것도 그처럼 마음씨 고운 처녀들이 비끄러매놓겠다는 말이 매우 우습게 생각되였다.
《어서 비끄러매시오.》 와씰리가 쾌히 허락했다. 그러나 그 찰나에 참을수 없는 아픔이 머리를 찔렀다. 와씰리는 이마를 찡그리고 신음소리를 냈다. 《으흐흠…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사선생! 모든게 퍼그나 좋아졌습니다.…》
《일없소. 친구, 기뻐하라구요. 뇌수는 다치지 않은것 같소. 동무머리가 어찌나 단단한지 총알이 부딪쳐서 튀여나갔소.》
와씰리는 다시금 미소를 지었다.
《말하자면 또 살아날수 있다는거지요?》
와씰리는 눈을 감고 마치도 포근한 요람속에서 흔들거리듯 잠을 자기 시작했다.…
《참, 장해요.》 간호원들이 속살거리였다. 그들은 옆에 와서 와씰리의 수척해진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 사람만 봐도 정찰병들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다 알수 있소.》 외과의사가 의미있게 말했다. 《사실상 이 사람은 우리 후방사람들과는 비교도 안되오.》 와씰리를 비범한 인간이라고 리해하는 의사는 그를 깨울가봐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그 누구라 해도 의사는 이지경으로 지친 사람에게는 잠만 들게 되면 마취제가 없이도 외과수

술칼을 댈수 있다고 생각했다.

× ×

와씰리는 수술한 후에 자그마한 독립병동으로 옮겨갔다. 벽에 흰 천을 한겹 씌워놓은 병동은 난로가 있어 훈훈하였다.
와씰리는 자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우연한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아마 이것은 전선사령관이 념려해주는 덕분일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저 누구도 그것을 알려주지 않고 성과적으로 돌아왔다고 축하해주지 않았을뿐이다. 그것으로 저도모르게 분한 생각이 들었다. 분한 생각은 머리상처보다 훨씬 더 아픔을 주면서 그를 괴롭히였다. 생각끝에 와씰리는 자신을 위로하기 시작했다.(내가 겪은 일에 대하여, 어떻게 적강점도시로 뚫고들어가 순찰병을 제끼고 추격을 피했으며 살을 에이는듯한 차거운 바람도 맞으며 옷을 벗고 맨몸으로 보초놈을 없애고 산채로 묘지로 끌려갈번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나만이 알고있지 않는가. 다른 사람에게는 그 일이 다르게 보일것이다. 말하자면 귀중한 정보를 제공할데 대한 명령을 받은 정찰병 와씰리 로마슈낀이 임무를 수행했다. 그 과정에 부상도 당했다. 그것이 전부일것이다. 나머지는 서정적인 이야기로 된다. 공격을 앞두고 각자는 할 일이 많다. 부상자와 다정다감한 이야기를 나눌새도 없다. 개별천막에 누워서 치료받으며 배불리 먹고있는데 자신에게 뭣이 더 필요한가?)
그리하여 와씰리는 어느새 흥분되였던 신경이 완전히 가라앉았다. 마음속의 모든것이 제대로 회복되고있던 때 갑자기 천막끝이 들리더니 맵시있게 지은 외투를 입고 반들반들하게 닦은 장화를 신고 라크칠을 한 채양이 달린 모자를 쓴 균형이 잡힌 병사가 들여다보았다. 마치 그림에서 본딴것처럼 생기였다. 전선에는 아직 그러한 병사들이 없었다.
《건강하길 바랍니다. 상위동지.》 멋지게 생긴 병사가 미소를 띄고 말했다. 《우리는 화선협주단 배우들입니다.》 그는 손으로 천막입구를 가리켰다. 와씰리는 천막밖에서 나는 많은 사람들의 조용한

말소리를 들었다.

와씰리는 그 모든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자기가 협주단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도저히 리해할수 없었다. 그 병사가 자초지종을 설명해주었다.

《전선사령관이 우리를 이리로 보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부상당한 정찰병이 이 병원에 입원하고있는데 그를 기쁘게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것입니다.》

감개무량한 감사의 격정이 와씰리의 심장을 때리였다. (잊지 않았구나. 틀림없이 일이 몹시 바쁠 때인데. 고맙습니다. 사령관동지!)

《동무들은 어떻게 공연하겠소? 천막안에는 네댓명밖에 들어올수 없는데.》 와씰리는 당황해서 물었다. 그 말을 하고는 인차 다른 출로가 있다고 생각했다. 《동무들이 대중식당같은데서 전체 병원을 위해 공연하고 명령을 수행했다고 사령관동지께 보고하면 안되겠소?》

《우리는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당신의 기분을 좋게 하라고 친히 명령한것입니다. 병원을 위해서는 따로 출연하게 됩니다.》 병사가 주장했다.

《아무래도 출연 못하오. 나는 아직 걸어다니지 못하니 혹시 나를 담가에 앉혀 모든 사람들이 다 볼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게 어떻소?》

《명령은 어디까지나 명령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 조직하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이고리이고 성은 체쉬힌입니다. 동무들이 롱담을 하면서 소문을 퍼뜨렸는데 이것은 가명이지요. 말하자면 제가 기쁜 일을 할 때는 혀가 근질거린다고 해서 체쉬힌이라는거지요. 제가 공연소개자이니까 군대식으로 하면 협주단의 주요역을 맡은 셈이랍니다.》

직일의사가 나타났다. 간호원들이 와서 와씰리에게 이불을 두개 더 덮어주고 천막구멍을 들어올렸다. 와씰리는 체쉬힌을 닮은 형제들처럼 화려하게 차려입은 병사들이 서있는것을 보았다.

전문가답게 미소를 지으며 체쉬힌은 하나밖에 없는 관중에게 그들을 소개했다. 무대에서처럼 쟁쟁하게 말했다.

《쑤르꼬브시 리스또브작곡 〈토굴집〉. 노래는 협주단 독창가수

구바노브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옆에서는 바얀의 부드러운 선률이 울리고 저음으로 부르는 노래소리가 울리였다. 와씰리는 가수의 군복저고리혁띠와 비비꼬는 손가락과 어딘가 우로 올라가기도 하는 팔까지 볼수 있었다.
멋지게 생긴 배우들과 우아한 선률, 흥겨운 노래— 이 모든것으로 하여 공연은 유쾌한 환상세계를 련상시켰다. 그 세계에서 깨나고싶은 생각이 없었다. 꿈이든 잠꼬대이든 깨지 말게 놔두라. 중요한것은 가사가 완전히 현실을 반영하고있는것이다. 《좁다란 난로에서 불길이 타오른다.》 바로 이것이 난로가 아닌가. 그속에서 시뻘건 불길이 이글거린다. 《장작개비에선 눈물같은 송진이 흘러내리는데 나는 토굴집에 앉아서 손풍금만 타노라.》 그러니 토굴은 아니지만 천막이 아닌가. 바로 와씰리앞에서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눈동자는 어머니의 눈동자나 다름없었다. 어머니, 어머니, 그대에게 부모친척도 아무도 없단말인가. 《그대는 지금 머나먼 곳에 있지만 … 죽음은 네발자국밖에 남지 않았네.》
지금은 아마 네발자국이 넘을것이다. 그러나 위젭쓰크에서 순찰병들이 끌고들어가면서 자동총구로 잔등을 밀치던 때의 그 걸음보다 작은것이였다. 손가락이 얼어서 죽일수 없었던 도이췰란드놈이 하마트면 나를 명중할번했다. 어떻게 살아났을가? 리해되지 않는다. 철조망을 넘어서는 순간 사방에서 자동총을 쏘아댔지만 겨우 총알 하나가 맞았다.
《당신은 자지 않습니까? 상위동지?》 체쉬힌이 걱정스레 물었다.
《아니 자지 않소. 다 듣고있소. 잘 보이오. 배우동무들이 밖에서 노래불러도 일없겠소? 그들의 목청이 높아놔서.》
《우리는 습관됐습니다. 온 겨울내내 추운 밖에서 노래불렀습니다. 전방에는 공연무대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꾀꼴새같은 목소리도 가수들도 잃었지요. 전쟁이니까.》
노래를 부르고 춤도 추었다. 무용수들에게는 천막앞의 좁은 길이 배좁았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열성스레 돌아가며 더 훌륭하게 휘파람을 불었다.
공연이 끝난 후에도 와씰리의 기쁜 마음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한사람을 위하여 예술단을 보내다니. 완전한것은 아니라도 몇사람밖에 안된다 하더라도 정말 나 하나를 위해 사령관이 보내지 않았는가.) 이러한 전설같은 꿈이 계속되듯이 또 저녁에는 그의 천막으로 군사위원 보이꼬브가 육중한 몸으로 들어왔다.
《누워있소? 잘하는구만. 일을 많이 했으니 휴식해야지.》
보이꼬브는 외투단추를 벗기고 모자를 벗고 등받이없는 의자에 걸터앉았다. 그는 와씰리를 보면서 친절하게 미소를 지었다.
《잠간 숨이나 돌리자고 들렸소.》
(앓는 몸인데도 낮에 밤을 이어 전연으로 분주히 다니고있지 않는가.) 하고 와씰리는 장령의 눈언저리에 난 부종을 보며 생각했다.
보이꼬브는 인차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단추를 다 채우고 모자를 쓰면서 바로 썼는가를 살피였다. (그는 어디로 가자고 그러는가?) 와씰리는 이상하게 느껴졌다. (아무 말두 하지 않고… 정말 숨이나 돌리자구 들린게 아닌가?) 그러나 보이꼬브는 떠나가지 않았다. 그는 누워있는 와씰리 맞은편에 《차렷》자세로 꿋꿋하게 서서 나직하면서도 엄숙한 어조로 말했다.
《전선사령관 체르냐홉쓰끼대장의 위임에 의하여 상위 와씰리 로마슈낀에게 특수임무를 수행한데 대해 적기훈장을 수여하오.》 보이꼬브는 훈장곽을 주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적황색훈장과 략장판에 씌운 적백색띠를 보았다. 《진심으로 축하하오. 빨리 완쾌되여 조국의 행복을 위하여 영웅적인 위훈을 더 많이 세우기 바라오!》 보이꼬브는 와씰리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물었다.
《동무의 훈장은 어데다 달겠소?》 잠간 생각하다가 결심했다.
《흰 속내의에다 달면 안되겠소? 동무는 지금 환자복을 입고있지 않소.》 그는 훈장을 달고 오동통한 손바닥으로 철썩 때리였다.
《잘 있으라구! 와씰리, 동무한테 기쁜 일이 또 생겼는데 건강이 회복되면 15일간 휴가를 갈수 있소. 사령관이 승인했소. 그리구 동무를 직접 반가이 만나자고 했었는데 그만 일이 밀려서 만나지 못한다고 알려달라고 했소.… 나도 바빠서 그러니 미안하오. 큰 작전을 준비하고있소. 부디 건강하시오. 어머니한테도 인사를 전해주오.》
보이꼬브는 악수를 하고 천막밖에서 기다리고있는 승용차에로 갔

다. 발동기가 부르릉거리더니 나무가지들이 바작바작거리는 소리와 함께 떠나갔다.

와씰리는 간호원들을 애원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요구했다.

《간호원동무, 나한테 아무거나 가지구 찌르던가 찬물을 막 끼얹어 주시오.》

《어디 아파서 그래요? 곧 직일의사를 부르겠어요.》

《아니, 일없소. 죽을 때까지는 일없소.》

간호원은 부드럽게 말했다.

《일없어요. 기뻐서 죽은 사람은 지금까지 없어요.》

× ×

휴가갔다가 돌아온 후 련대에서는 슬픈 소식이 와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위쩹쓰크부근에서 와씰리의 선임자인 이완 뻬뜨로위치 까자꼬브대위가 전사하였다. 그가 죽었다고 믿어지지 않았다. 그의 검은 수염밑에 결기가 어린 미소가 띄면 누런 금이발들이 반들거리였고 능청맞은 시선은 늘 유쾌하게 빛났다. 와씰리는 까자꼬브의 목소리를 듣는것만 같았다. 《나는 전쟁마당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요. 가슴에는 훈장을 달고 배낭에는 선물을 가득 넣고…》와씰리의 가슴에는 까자꼬브가 영원히 유쾌하게 살아있는 전우로 새겨졌다.

1944년 하반기에 남쪽에 있는 쏘련군부대들이 로므니아, 뽈스까에서 파쑈놈들을 몰아내고 유고슬라비아와 벌가리아, 체스꼬슬로벤스꼬, 마쟈르땅에 들어섰다.

북쪽에서 와씰리가 복무하고있는 사단은 동프로씨아국경으로 바싹 접근했다. 도이췰란드땅에 첫 발자국을 내디디게 될 임무가 떨어졌다. 모두가 흥분된 감정으로 그것이 성공되기를 손꼽아 기다리였다.

《우린 벌써 도이췰란드땅에 쏘고있소.》포병이 정찰병들에게 자랑스럽고 명랑하게 말했다.

《우린 거기에 가봤댔소.》 쁘로레뜨낀이 확신성있게 말했다.

《그래, 도이췰란드땅이 어떻든가?》

《포병들이 할 일이 많더군. 온 땅덩어리가 콩크리트로 막혀있으니까.》

《마사버립시다. 이제는 우릴 멈춰세우지 못하오.》 와씰리는 정찰병들과 함께 도이췰란드땅에 처음으로 들어간 사람이였다. 도이췰란드에 있는 수림과 초원, 강과 나무들은 리뜨바와 벨라루씨에 있는것과 다름없었다. 금빛으로 단장된 단풍나무들과 강가에서 출렁이는 물결도 여기나 거기나 마찬가지였다. 잡초가 무성한 푸른 초원은 어디서 갈라지는지 그 계선을 가늠할수 없었다. 국경표말과 표식도 없었다. 도이췰란드놈들이 그것을 뽑아치웠던것이다.

지도에서 정확한 방위를 판정한 와씰리는 자기의 정찰조를 데리고 숲속을 지나 강가로 접근하여 얕은 곳으로 건너갔다. 그는 행복의 숨결을 감축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동무들, 바로 여기가 도이췰란드땅이요.》

정찰병들은 무성한 숲과 나무들과 잡초를 보면서 바로 그것이 너무도 단순하고 평범하여 도이췰란드땅이라는것을 믿지 못했다. 보그단은 축축한 흙을 한줌 쥐고 그것을 짓눌러 비비면서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는 깊은 생각에 잠겨 말했다.

《흙은 어디까지나 흙이요.》

《아무렴, 흙이야 아무데서나 같은거지.》 로가찐이 말했다.

《그저 거기서 자라는 식물들이 서로 다를뿐이네. 밀, 쐐기풀, 양딸기와 산딸기, 향기그윽한 장미와 씁쓸한 쑥대든…》

로가찐은 연설조로 말하였다. 그는 정찰병들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웃거나 롱담하는 사람도 없었다. 모두가 마음속으로 의기양양해지고 흥겨워졌다.

그날밤에 그들은 도이췰란드땅에서 첫번째 《혀》를 끌어왔다. 고간밑에 위장된 영구화점을 둘러싸고있는 참호에서 그놈을 잡아왔다.

도이췰란드놈은 한동안 발악했다. 그놈은 헝겊을 틀어막는 쁘로레뜨낀의 손가락을 깨물었다. 로가찐만이 그놈을 진정시킬수 있었다. 로가찐은 그놈의 목덜미를 어찌나 꽉 틀어쥐였던지 뿌지직 하는 소

리까지 났다. 포로된 상등병 와이너는 심문중에 철면피하게 날뛰였다.
《당신들은 앞으로 한걸음도 나가지 못할것이요. 모두가 여기 대도이췰란드제국의 국경에서 쓰러지고말것이요.》
와씰리는 낯바닥이 두텁고 나이가 든 도이췰란드놈을 흘겨보았다. 그놈의 눈은 둔하고 생기가 없었다. 와씰리는 그런 놈들을 보는지 퍼그나 오래되였다. 벨라루씨와 리뜨바땅에서 그놈들을 번개같이 몰고나갈 때에도 지금 체포된 이 좀도적처럼 가련하게 겁에 질린 놈들과 맞다들었던것이다. 그런데 지금 바로 이놈이 얼마나 허풍을 치고있는가. 제 땅에서 무슨 새힘이라도 느낀게 아닌가. 그렇다. 놈들은 여기서 필사적으로 저항할것이다. 놈들은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징벌을 두려워하고있다.
《아, 저주로운 카쩨헤쉬텐!》 와이너는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대해서 나에게 예고해주었소. 그래서 놀라고있다고 생각했소!》
《〈카쩨헤쉬텐〉이란건 뭘 의미하는가?》 와씰리는 그 말을 리해하지 못했다. 《〈카쩨〉는 고양이, 〈헤쉬텐〉은 사건이라는건데 참 괴상한 결합이군.》
《고양이사건이라는 말이요.》 포로가 설명해주었다. 《그건 내가 당한 일을 두고 하는 말이요. 당신들이 나를 고양이 쥐잡듯이 붙잡지 않았소. 우리 병사들은 바로 당신들이 야간에 벌리는 행동을 그렇게 부르고있소.》
와씰리는 포로한테서 회수한 증명서와 문건들을 보면서 프랑스에서 찍은 사진에 주의를 돌리였다. 거기에는 처녀들과 함께 명랑하고 만족스러운 기분에 휩싸여있는 와이너가 프랑스식광고와 간판들이 있는 카페를 배경으로 서있었다. (이게 언제 찍은것일가?) 하고 와씰리는 생각했다. (프랑스를 강점하던 때가 아니면 최근에 찍은것일가. 혹시 서쪽에서 투입된 새로운 사단일수 있지 않을가. 비슷할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포로가 아군의 공격위력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철면피하게 행동하지 않았을것이다.) 와이너의 철면피한 넉두리를 고려하여 와씰리는 그놈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고 자그마한 수를 썼다.

《그러니까 당신은 전쟁 전기간에 프랑스에 눌러앉아있었겠소? 친구들이 싸움하고있는데 당신은 계집들과 같이 흐뭇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있었으니 좋지 않군그래.》

《나는 동쪽에서 두해겨울이나 보낸 사람이요.》와이너는 군복저고리에 매달린 띠를 보여주었다. 《부상당해서 퇴원한 후에 그냥 프랑스에 머물러있었소.》

《말하자면 프랑스가 료양소격이군. 치료하러 거기로 보낸다는거요? 당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소? 와이너, 거기서도 전쟁이 벌어지고있소. 금년 6월에 노르만디에 우리 동맹국들이 상륙했소.》

포로는 쓰거운 웃음을 지었다.

《당신들의 동맹국들말이요? 만일 당신들이 아니라면 그들도 상륙하지 못했을거요.》

와씰리는 군인증과 와이너가 받은 편지를 읽어보았다. 편지들은 야전우편함으로 보내온것들이였다. 그것은 프랑스에서 여기에 보내온것들이였다. 그렇다면 새로운 사단이 언제 여기로 왔는가?

《당신이 프랑스에서 보낸 마지막편지를 7월말에 집에서 받았소. 그런데 여기서는 편지를 받지 못했소.》 와씰리는 포로의 경각성을 늦춰주면서 평범한 어조로 말했다.

《우리모두는 여기에…》포로는 입을 열었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지 긴장해서 와씰리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와씰리는 아무데도 필요없는 이야기를 그저 심심풀이로 하는체했다. 그리하여 와이너는 아마 모든것을 그냥 스쳐지나가고 장교는 자기가 지껄이는 말에 관심을 두지 않을수 있다고 생각했다. 와씰리가 수를 썼지만 와이너는 다음번 질문을 듣고 그것을 눈치챘다.

《당신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오게 됐소?》와씰리는 이것으로 사단의 도착날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려고 했다.

와이너는 얼굴이 빨개졌다가 창백해지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를 궁리했다. 말할것인가 아니면 말하지 말것인가. 아직은 모든것이 괜찮게 되여간다. 자기를 때리지도 고문하지도 않는다. 장교가 묻는것이 진짜 비밀일가? 로씨야인들이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정말

케닌스베르그같은 도시들을 모르고있을가. 와이너는 꺼리낌없이 그 도시들을 댔다.
《그럼 당신은 언제 거기를 떠나 언제 여기에 도착했소?》 와씰리는 마지막으로 그의 목을 조였다.
와이너는 머리가 핑 돌았다. 마분지에 빈침으로 꽂아놓은 딱정벌레처럼 빠질 구멍이 없었다. 그리하여 억지로 입을 열었다.
《8월 초하루에 배를 타고 떠나 한주일후에 여기에 도착했소.》…
국경에 진출한 쏘련군대는 1941년 6월에 파쑈놈들이 침공을 개시했던 그 저주로운 땅을 공격하면서 전진했다.
포병준비사격이 개시되였다. 도이췰란드놈들의 진지에서는 통나무들과 콩크리트쪼각들과 자동차와 대포바퀴들, 생나무들이 뿌리채 빠져 하늘로 높이 날아올랐다. 병사들이 전호에서 밖으로 나와 《앞으로 전진》신호만 기다리고있었다.
《파쑈도이췰란드야, 얼마나 견디나 보자.》
포병들은 말그대로 땅우에서 방어축성물들을 날려보냈다. 그러나 히틀러도배들은 여전히 쏘련군대의 첫번째 돌격을 견제하고있었다. 련대들은 겨우 7~8키로밖에 전진 못했다. 손실도 많았다. 그리하여 공격을 중지하고 보루에 대한 공격준비를 진지하게 해야 했다. 네임강과 케닌스베르그주변에 있는 인스터부르그요새는 그 위력에 있어서 가장 현대적인 방어선인 마지노전선이나 지흐프리드, 만네르헤임전선보다 못하지 않다. 두께가 3메터나 되는 다층철근콩크리트장벽으로 된 영구화점과 포대들, 거기에 있는 많은 예비의 식료품과 탄약물 등은 완전포위속에서도 오래동안 방어할수 있게 되여있었다.
쏘련군사단들은 전연에서 서로 교대하면서 싸웠다. 한 교대가 전투를 하는 동안에 다른 교대가 전투준비를 하고있었다.
습격해야 할 포대들과 철근콩크리트화점들을 연구하고 영구방어선돌파훈련을 했다.
전선사령관 체르냐홉쓰끼가 훈련장에 나타났다.
《오늘 여기서는 승리가 마련되고있소.》 사령관은 꾸준한 훈련으로 하여 피로해진 병사들과 군관들을 고무해주었다. 《동무들, 땀을 많이 흘릴수록 피를 적게 흘리게 되오.》

이튿날 정찰병들은 반나마 물이 찬 전호에 앉아서 탄약창고를 지키고있는 도이췰란드보초소를 몰래 감시하고있었다.
전호는 보초소로부터 300메터 떨어진 벌거숭이된 산고지에 자리잡고있었다. 창고와 잇닿은 길, 위병대가 있는 집 그리고 창고경계를 맡은 고사포대대 등 사방에서 전호는 잘 보이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정찰병들이 그곳을 골라잡았던것이다. 내버려둔 전호는 주변에 있는 도이췰란드놈들의 의심을 전혀 사지 않았다. 정찰병들은 그곳에서 창고구역과 빨간 벽돌로 담벽을 두른 보초소의 뜨락도 잘 살필수 있었다.
뒤로는 로씨야의 수림과 아담한 주민부락들이 있었다. 여기 동프로씨아에서는 누가 정찰병들을 보든지간에 모두가 적이였다. 정찰조는 전호에 들어박혀있다가 밤이 되면 위병대가 있는 집과 창고에 둘러친 철조망을 넘어 담벽으로 접근했다.
군단정찰부가 정찰조에 위임한 임무는 비록 창고를 소멸하라는 두마디의 말밖에 안되지만 결코 간단한것이 아니였다.
지금까지 와씰리와 그의 대원들은 매복하여 정찰을 하면서 《혀》를 잡아오는것과 같은 순수 정찰만 해왔다.
아군부대들의 진격속도가 높아진 결과에 전선으로부터 아주 가까운 곳에 폭탄과 포탄을 저장한 적의 창고들이 나타났던것이다. 이것은 국가적의의를 가지는 저장고가 아니라 보통 군부대들의 창고였다. 그러나 사령부는 적의 수중에 있는 탄약들을 화력진지로 날라가기전에 될수록 빨리 소각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비행기로 습격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콩크리트저장고는 지하에 있는데다가 고사포화력의 엄호까지 받고있었다. 빨찌산도 도이췰란드땅과 군대들이 욱실거리는 전선구역에는 아직 없었다. 그리하여 그 전투임무를 부대정찰병들에게 위임하지 않으면 안되였던것이다.
임무가 매우 중요한것만큼 정치부련대장 린뜨와레브중좌는 정찰조의 조직책임자를 임명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완 로가찐을 당조직책임자로 지명했다. 련대에서는 그를 잘 알고있었다. 여러번 영예로운 수훈을 지닌 용감한 정찰병이다. 로가찐은 두개의 적기훈장과 붉은별훈장 그리고 《용감성을 위하여》메달 두개를 받았다. 그런데

다가 이 건장한 정찰병의 과묵한 성미도 잘 알려져있었다. 린뜨와레브는 로가찐을 자기한테로 불렀다. 말수더구가 전혀 없지도 않던 건장한 사나이는 자기를 무엇으로 임명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완전히 벙어리가 되고말았다.

린뜨와레브는 당조직책임자가 수행해야 할 일들을 말해주었다. 그러나 로가찐은 그무렵에야 비로소 용기를 내여 입을 열었다.

《저는 할줄 모릅니다.…》

《내가 동무에게 다 말해주지 않았소. 동무야 경험이 많고 오랜 정찰병이니 얼마든지 해낼수 있다구 보오. 임무는 매우 중요하오. 그러니 당적인 영향도 꼭 필요하오.》 린뜨와레브는 침착하고 확신성있게 가르쳐주었다.

《저는 하지 못합니다. 말할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린뜨와레브는 빙그레 웃었다. 그는 순박한 씨비리사람의 정신상태도 충분히 알고있었다. 하지만 다른 출로는 없었다.

《동무는 정치사업을 잘못 리해하고있소. 진짜 정치사업이 말하는데 있다구 생각하오? 왜 정치일군이 공격마당에 섞이지 않는줄 아오? 총도 쏘지 않구말이요. 육박전에서 왜 원쑤들을 족치지 않구있겠소? 정치일군들도 전투에서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싸우고있소. 게다가 다른 대원들을 직접 불러일으켜세우구 고무도 해주며 신심을 넣어주는 일을 더 한단말이요. 우리 사업에서 기본은 명령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는데 있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소. 환경이 다 암시해주게 되오. 때로는 누구보다먼저 자주 열정적인 연설도 하게 되오.》

《안됩니다. 저는 할줄 모릅니다.》 로가찐은 딴데를 보면서 확고히 말했다.

《정찰에서는 말이 필요없소.》 린뜨와레브가 계속 설복했다. 《어떻게 거기서 말하겠소? 사방에 적들인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명령이 무조건 집행되도록 하시오. 이게 다요.》

《동무들이 내없이두 다 해내지 않습니까. 와씰리상위도 명령을 집행하지 못하는걸 보구 허용하겠습니까?》

《지휘관에게는 따로 걱정해야 할 일이 많소. 동무는 사람들을 그

의 결심관철에로 불러일으키시오. 이것이 동무가 할 사업범위요.》
그전까지만해도 로가찐은 얼떨떨한 기분에 싸여있었지만 《결심》과 《사람들을 불러일으키시오.》, 《사업범위》와 같은 말들을 듣고나서는 완전히 당황해났다.
《안됩니다. 저는 할수 없습니다.》로가찐은 지어 일어나서 피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린뜨와레브는 널직하고 둥그스름한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제지시켰다.
《동무는 공산당원이 아니요?》
《공산당원입니다.》
《이 임무를 수행하는것이 우리 부모처자들의 생명에 관계된단말이요. 동무한테도 자식들이 있겠지?》
《있구말구요.》
《모름지기 그 창고에는 동무와 나의 집에 던질 폭탄이 쌓여있을수 있소.》
로가찐은 어깨를 움찔거리면서 《다 알만합니다.》하고 말했다.
《동무한테 친우가 있소?》
《있습니다.》
《저기 창고에 있는 포탄 한개가 그 친우의 생명을 앗아갈수 있지 않겠소?》
《저를 놔주십시오. 정치부련대장동지, 제가 그 저주로운 창고를 직접 폭파해치우겠습니다.》
《참 훌륭하오. 자신이 직접 하든 다른 누가 하든 기본은 창고를 없애치우는거요. 나는 동무가 대체로 임무를 옳게 리해했다구 보오.》
로가찐은 이렇다하게 반대할만한 근거를 찾아낼수 없었다. 린뜨와레브는 그에게 악수를 청하고 그와 함께 엄페호에서 나왔다.
로가찐이 당조직책임자로 임명되였다. 정찰조는 폭발물을 가지고 적후로 무사히 들어가 대상물을 찾아낸 뒤 위장하고있었다. 꼬박 두주야동안 내버려둔 전호에 앉아있었지만 아직 창고로 접근할 가능성을 찾아내지 못했던것이다. 보초병 두놈이 철조망을 친 울타리쪽으로 오락가락했다. 게다가 그놈들은 타원모양으로 정상적으로 서로 마주향하여 다니였다. 다른놈이 보기때문에 한놈의 뒤나 옆으로 몰

래 접근할수가 없었다. 헌데 가시줄까지 1메터너비로 감겨있으니 어떻게 몰래 접근하겠는가.

교대를 마친놈들이 휴식하고있는 위병소는 창고로부터 멀지 않은 자그마한 집에 있었다. 벽돌담벽에 둘러싸여있으며 모든것이 위병근무규정대로 설비되여있었다. 쇠살창을 해넣은 창문에는 밤이 되면 안쪽에서 나무로 만든 덧창을 막아놓아서 기여들지 못하고 수류탄도 던질수 없었다. 위병소주위에는 고정보초를 세워놓았다. 그놈은 외부에서 누가 대문을 두드리게 되면 열어주군하였다. 대문은 안에서 빗장으로 계속 채워놓고있었다. 그것을 열기전에 보초병은 감시구를 통하여 누가 왔는가를 내다보는것이였다. 담벽안에는 연유저장고가 있는것 같았다. 마당은 아스팔트포장을 하여 풀이나 나무 한대없이 반반했다. 눈이 담벽쪽에 몰켜있었다. 벽돌로 지은 모든 시설은 깨끗하고 모서리에는 포탑을 교묘하게 쌓아놓았다. 대체로 모든것이 도이췰란드식으로 깐깐하게 꾸려져있었다.

두주야동안 위병소의 생활을 연구하면서 정찰병들은 인원과 근무수행절차를 완전히 확정했다. 18시에는 새로운 위병대가 자동차를 타고온다. 그것은 하사관을 책임자로 하고 보초장과 여섯명의 보초병 모두 여덟명으로 되여있다. 두명으로 구성된 보초교대는 두시간 간격으로 보초장이 진행한다. 보초장이 철조망에 접근하면 보초병 한놈이 자기 사람들이 왔다는것을 확인하고 나무로 네모나게 짜서 쇠줄로 감은 대문을 열어놓는다. 이때 교대가 담장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보초소를 넘겨받는다.

로가찐은 다른 정찰병들과 함께 이틀동안 감시하면서 어떻게 대상물에 접근하겠는가를 골똘히 생각해보았다.

그동안에 로가찐은 퍼그나 수척해지고 빳빳한 검은 수염이 더부룩해졌다. 눈의 흰자위에는 수면부족으로 가느다란 피발이 섰다.

차겁고 끈끈한 전호에서는 발이 노상 젖어있었다. 밤낮으로 축축한 안개가 휘덮고 하늘에서는 물렁물렁한 얼음같기도 하고 진눈까비같기도 한것이 자주 내렸다. 전호안은 죽탕이 되여 누울수도 편안히 앉아있을수도 없었다.

정찰병들은 오한이 나서 벌벌 떨었다.《만일 우리가 이 임무를 수

행하다가 얼어죽지 않으면 감기에 걸려 죽을수 있다.》하고 와씰리는 생각했다. 《통분할 노릇이다. 전쟁 전기간을 무사히 싸워오다가 이젠 끝날 날도 눈앞에 보이는데 갑자기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무슨 페염에 걸려 속절없이 죽는단말인가.》

로가찐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괴로워했다.

《그래 내가 그한테 뭐라고 말하겠는가?》

그는 울적한 생각이 들었다.

《당신의 위임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보고한단말인가?》

그는 이렇게 대답할것이다.

《책상에 당증을 내놓으시오.》

로가찐은 감시를 진행하는 동무들을 바라보면서 정치부련대장 린뜨와레브가 가르치던 말을 되새기였다.

(《동무의 사업은 사람들을 불러일으키는것이요.》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일으켜세운다? 어디로 불러일으키겠는가? 내가 직접 보지만 여기에는 접근할 곳이 없지 않는가. 《열변을 토하자.》 그래 내가 연설한다고 해서 위병소의 질서가 달라지겠는가?) 그의 머리속에는 바로 이런 생각이 밀려들었다. (《실천적인 행동으로 명령을 수행하시오.…》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했던가? 옳지. 《지휘관이 결심을 내리면 동무는 그 수행을 보장하시오.》라고 말했다. 무엇을 보장해야 하는가? 상위동지는 물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다해도 여기서는 아무런 방안도 생각해내지 못한다.)

로가찐은 와씰리한테로 바투 다가가서 말없이 그의 곁의 턱진 곳에 걸터앉아 잔등을 전호벽에 기대였다. 우에서는 질척한 진흙물이 흘러내렸다. 로가찐은 그것이 다 흘러내리기를 기다리다가 악이 나서 그만 자기 발치에 침을 탁 뱉고말았다.

와씰리는 로가찐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신경질을 쓰는군.)

광대뼈가 두드러진 로가찐의 순박한 얼굴에 우울한 빛이 비꼈다. 젖은 수염으로 하여 얼굴은 더욱더 침울해보였다. 로가찐은 지휘관의 시선을 피했다. 불만스러운듯 씩씩거리며 괴로움에 모

대기였다.

와쎌리는 전호턱에 몸을 기울이고 피로한 시선으로 위병소쪽을 다시한번 살펴보았다. 실현될수 없는 생각이 꼬리를 물고 지나갔다. (신위병대로 가장하고 줄을 지어 대문으로 접근할가. 그러나 위병대는 정각 열여덟시에 찦차를 타고온다. 만일 10분이나 15분 먼저 오게 되면 의심하게 될것이다. 구위병대와 마주쳐 결판을 내지도 못한다. 신위병대가 도착하게 된다. 게다가 도이췰란드놈의 복장도 없다. 야간에 교대로 가장하고 보초병에게 접근할가. 그들은 철조망담장쪽에 있으면서 소리쳐 알려줄것이다. 그러면 놈들을 조용히 해치우지 못한다. 사격하게 되면 위병소에서 알아듣게 된다. 고사포를 로획하여 그것으로 위병소를 들부시고 복새통에 창고를 소각할가? 이것은 벌써 마인리드(영국 모험소설가—역주)식모험에 속한다. 고사포 하나를 장악하면 다른 고사포들은 잠을 자고있겠는가?)

정찰병들은 서로 말 한마디 주고받지 않았다.

그들모두가 우울한 기분이였다. 그들은 겨우 손목을 움직이고 어깨를 이쪽저쪽으로 흔들거리면서 언몸을 풀었다. 강추위와 습기로 하여 몹시 뻣뻣해진 몸에서는 바작바작 소리가 나는것 같았다. 식사도 아껴가며 했다.

량식은 두주야분을 착용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날자를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이 늦잡아지고있다. 모두가 그렇게 앉아있어서는 소용없다는것을 리해하고있었다. 한주일동안 앉아있어도 위병소에서 달라질것은 없다. 그러나 누구도 감히 자기 생각을 입밖에 내지 못했다. 모든 사람들이 지휘관이 먼저 말하기를 기다리였다.

와쎌리는 돌아갈 결심을 내리기가 괴로왔다. 그렇다고 여기에 무작정 눌러앉아있을수도 없는 일이였다. 와쎌리는 명령을 수행하려는 자기의 불타는 욕망을 사령부에 보여주려고 무슨 경솔한 대책을 함부로 취하고싶은 생각은 없었다. 용감하고 성실한 그는 모험을 하거나 걸치레를 할수 없었다. 와쎌리는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데 대하여 당장 책임을 질 용의는 있어도 무턱대고 임무가 수행되리라는 굳은 확신도 없이 정찰병들의 생명을 함부로 내걸수 없었다.

먹을것도 다 떨어진 사흘째 되는 날 저녁에 와씰리가 로가찐에게 이렇게 물었다.

《당조직원동무, 저, 돌아가는게 어떻소? 여기서 그저 얼어죽을수야 없지 않소.》

로가찐은 그런 말이 나오리라고 예견했다. 그는 벌써 지휘관의 얼굴에 그런 물음이 떠오르는것을 여러번 보았다. 그리고 눈에서는 약한 전류가 온몸으로 계속 흐르는것만 같았다. 로가찐은 와씰리상위를 매우 존경해왔다. 와씰리는 그의 마음속에 공인된 권위자였으며 여러차례나 생명을 내걸고 함께 싸워왔으며 와씰리의 기민성과 용감성으로 하여 살아남았던것이다. 로가찐은 그를 성실한 동지애를 가지고 아껴왔으며 탄우속에서도 그를 막아나설 준비가 되여있었지만 지금은 지휘관의 그러한 제의에 선뜻 응해나설수 없었다. 로가찐은 당조직책임자였다. 그런만큼 그는 덤비지 말고 침착해야 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생명이나 죽음에 있는것도 아니며 자기의 당증을 내놓는가 아니면 간직하는가 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고 똑똑히 판단했다. 자기의 개인적인 모든 문제를 어딘가 한쪽으로 밀어내놓고보면 그는 어디까지나 당조직을 책임진 사람이였다. 로가찐은 자기가 있는 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은채 남아있는것을 허용할수 없었다. 로가찐은 와씰리가 공청원이라는것도 알고있었다. 그는 진심으로 임무를 수행하려고 하지만 실현가능성을 찾지 못하고있다.

로가찐자신도 이것이 사실상 그렇게밖에는 될수 없다고 확신했다. 그가 당조직책임자가 아니였다면 와씰리의 의견에 동의하고 뒤로 물러났을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당조직책임자라는데 있었다. 그를 당조직책임자로 여기로 파견한것은 바로 불가능한 조건에서도 현실적으로 출로를 찾아내야 하는 그러한 경우를 위해서일수 있다.

로가찐은 지휘관의 질문에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그저 애원하듯 면구스럽게 바라보고만 있을뿐이였다. 와씰리는 외면했다. 그는 씨비리사람의 정신상태를 리해하고 그에게 공감을 표시했다.

《하루 더 살펴봅시다.》 와씰리는 짤막하게 말하고 자기의 자동총을 벽에 세워놓았다.

로가찐의 머리속에서는 괴롭고도 불안스러운 생각이 꿈틀거렸다. (내 생각대로 되였다. 당조직책임자를 존중했다. 그럼 어떻게 할것인가?)

철수준비를 다해놓았던 정찰병들이 폭발물과 배낭과 총을 제자리에 가져다놓고 싫증이 난 전호에 묵묵히 제각기 걸터앉았다. 그들의 움직임이 활기없는것으로 보아 그들도 아마 불만스러운듯했다. 로가찐은 그것을 보지 않고 질책하는 동무들의 얼굴과 마주칠가봐 증오스러운 시선으로 위병소를 응시하고있었다. 그는 철조망을 친 담장너머에서 오락가락하는 도이췰란드놈들의 거무스레한 그림자를 보면서 그것을 당장 날려보낼 생각을 가다듬고있었다. 《모든것이 네놈들때문이다. 악귀같은놈들.》

로가찐은 동무들을 슬그머니 둘러보았다. 어떤 동무는 전호벽에 잔등을 기대고 앉아있고 어떤 동무는 팔굽을 고이고 비스듬히 누워있었다. (내 자리에 진짜 당조직책임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열변을 토하면서 불러일으켰을것이다. 그러나 나는 동무들에게 복수심을 불러일으킬수 있는 말을 얼마나 했던가?)

로가찐은 자기의 비겁성과 고통스럽게 투쟁하면서 자신의 입을 열지 않으면 안되였지만 모든 일이 그것으로 다 해결될수 없었다.

《우리가 그놈들을 우리 고향땅으로 불러들였소? 모두가 제 고장에서 일하자구 했을거요. 나는 지금쯤은 기계를 수리하구있었을거요. 파종준비도 하구.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늘 일하던 곳에서 그렇게들 했을거요. 그런데 마을에서 그놈들은 무슨짓을 했소? 모든것을 불태워버리구 사람들을 마구 잡아죽였소.》

로가찐은 잠시 침묵을 지키면서 무슨 말을 계속할지 모대기고있었다. 정찰병들이 그를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모두가 씨비리사람이 당조직책임자로 임명됐기때문에 그 말을 하고있다고 리해했다. 그 고립무원한 로가찐을 보기가 어색했다. 그들이 자기의 괴로움을 느낀다고 생각하기도 부끄러웠다. 로가찐은 임무를 수행하러 열번 갔다 오기보다 말하는게 더 힘들었다. 명령을 수행하기만했어도 이렇게 머리가 아플 정도로 괴로운 일은 없었을것이 아닌가?

로가찐은 자기의 선동적인 연설을 채 맺지 못하고 어줍게 돌아서

서 전호에서 얼굴을 불쑥 내밀고 잠시 생각했다. 와씰리는 로가찐의 옆에 자리를 잡고 위병소쪽을 살피였다. 그곳 생활은 여전히 엄격히 제정된 절서대로 진행되였다. 보초병이 문앞에서 서성거리고 대문은 닫겨있었다. 휴식하는 교대는 집안에 들어박혀있었다. 와씰리는 집안에서 벌어지고있는 일도 훌륭히 상상하였다. 위병장은 아마 자기 방에 앉아서 책을 읽지 않으면 보초장과 장기를 두고있을것이다. … 보초병 두놈은 보초소에 나가기전에 규정대로 잠을 자고있으며 다른 한놈은 출입문앞에 서있고 또 다른놈은 난로에 불을 지피지 않으면 휴계실에 앉아서 편지를 쓰고있을것이다. 그리고 두놈은 창고앞 보초소에 서있었다. 모두 합하여 여덟놈이다.

와씰리가 이리저리 궁리하고있는데 위병소에서 외투를 뒤집어쓴 병정놈이 나오더니 마당 한구석에 있는 변소로 들어갔다. 잠시후 그놈은 바지혁띠를 바로잡으면서 뒤로 돌아나왔다. 위병소를 경비하던 보초병은 그쪽을 보지도 않았다.

와씰리와 로가찐은 다같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들은 꼭같은 생각을 하고있었다. 그럴듯한 실마리를 잡았다. 그들은 대번에 그것을 리해했다. 전호로 내려온 와씰리는 정찰병들에게 자기의 계획을 내놓았다. 그것은 방금 발견된것으로서 임무를 수행할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였다.

작전은 극히 모험적이였지만 그의 성공여부는 작전의 가장 위험한 부분을 담당수행해야 하는 한사람에게 달려있었다.

《제가 가겠습니다.》 와씰리는 물론 모든 정찰병들이 그것을 누구에게 위임할것인가를 생각하고있던 그 순간에 로가찐이 확고하게 말했다. 어둠이 깃들자 정찰조는 전호에서 기여나와 위병소의 변소가 있는 구석의 담장으로 슬그머니 접근했다. 로가찐과 쁘로레뜨낀이 동무들의 도움으로 조용히 담장을 넘어 변소에 들어가 숨었다. 어둑컴컴한 밤이여서 도이췰란드놈들의 창고부근에서와 위병소에서는 조명위장이 잘되였다. 오직 어둠속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말소리가 여기가 적후라는것을 상기시켜줄따름이였다.

오래동안 기다려야만했다. 그런데 방금 발자국소리가 들려왔다. 도이췰란드놈이 변소로 걸어오고있었다. 정찰병들이 총과 수류탄을

준비했다. 만일 도이췰란드놈이 소리치게 되면 위병대전체를 대상하여 전투를 벌려야 하는것이다. 검은 그림자가 변소문을 열고 들어왔다. 와씰리는 간단한 결투가 벌어지며 마루에 무거운것이 부딪치는 소리를 엿들었다. 인차 잠잠해졌다. 일분 지나서 사람의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와씰리는 담장을 통하여 널직한 어깨를 흔들거리며 걷는 모양을 보고 대뜸 로가찐이라는것을 짐작했다. 로가찐은 문에서 떨어져 발을 녹이느라고 동동 구르고있는 보초병의 곁을 지나갔다. 와씰리는 열려진 문에서 순간적으로 내비친 불빛을 통하여 도이췰란드놈의 외투를 입은 로가찐을 볼수 있었다.

와씰리는 시계의 초침을 들여다보면서 지금 위병소안에서 벌어지고있을 일을 상상해보았다. 로가찐은 휴계실위치를 재빨리 확정하고 거기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만일 그가 위병장이나 보초장과 맞다들게 되면 그놈들은 그의 얼굴을 보고 제꺽 낯선 사람이라는것을 알아차리게 되지 않겠는가. 그는 사격을 할수 있을것이다. 그의 호주머니에는 와씰리가 준 권총이 장탄되여있다. 초침이 열눈금을 지나갔다. 총성은 들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로가찐이 침실에 들어간것이 틀림없다. 지금 그는 어둠속에서 자고있는 도이췰란드놈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손더듬하면서 찾을것이다. 그놈들은 두명을 넘지 말아야 한다. 보초병의 3분의 1만이 잠자게 되여있다. 매사에 깐깐한 도이췰란드놈들이 그 규정을 어길리 만무하다. 초침은 어느새 열다섯눈금을 가리켰다. 두놈을 단번에 칼로 해제끼는데 몇초가 필요할가? 모든것이 잠잠하다. 그러니 잠자던 어느 한놈도 소리치지 않았다.

지금 로가찐은 아마 열려진 문짬을 통하여 전실을 내다보고있을것이다. 거기에 어느놈이 있겠는가? 보초장과 위병장일가? 아니다. 위병장만 있을것이다. 보초병 한놈은 위병소 나들문앞에서 보초를 서고있고 다른 한놈은 여기 변소안에 뒈져있다. 만일 전실에 위병장이 들어가있다면 그때에는 로가찐에게 두놈이 달려들것이다. 사격준비를 해야 한다. 와씰리는 손을 흔들고 선참으로 담장에서 변소벽쪽으로 내려갔다. 쁘로레뜨낀이 그가 조용히 내려가도록 도와주었다. 와씰리는 열려진 문을 통하여 까딱하지 않고있는 도이췰란드놈의 검은 몸뚱아리를 보았다. 정찰병들이 그림자처럼 담장에서 련이어 아래로

미끄러져내렸다. 와씰리가 마당안을 살피였다. 위병소의 담장이 벽돌로 된것이 다행이였다. 만일 복새통이 벌어지는 경우에 누구도 다른쪽에서 우리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며 정황에 따라 사격하기도 편리하다.

와씰리는 자기곁에 서있는 쥬크가 떨고있는것을 감촉했다. 그것은 그가 공포심에서가 아니라 흥분으로 하여 떨고있는것이였다. 와씰리는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갑자기 위병소안에서 외마디총성이 울리였다. 보초병이 문쪽으로 달려갔다. 와씰리도 즉시 위병소로 뛰여갔다. 그러는사이에 또 한방의 총성이 울렸다. 문가로 다가서는 순간 보초병의 몸에 발이 걸채였다. 로가찐은 방안복판에 있었다. 그의 앞에는 막대기처럼 곧은 손을 높이 쳐들고 떨고있는 하사관이 서있었다. 출입문을 통하여 전실바닥에 팔을 쩍 벌리고 너부러진 도이췰란드놈이 보였다.

《그 두놈을 제대로 해치웠습니다.》로가찐이 침실문쪽으로 머리를 기웃하면서 억제하는듯한 어조로 말했다.

《참 멋지게 했소. 장하오!》 와씰리가 소곤거렸다. 다음 보초병이 소멸되였으니 숨길 필요가 없다는것을 제꺽 알아차리고 똑똑하게 말했다. 《쥬크, 총성에 놀라 도망친놈이 없는가를 검열하시오.》

쥬크는 대문쪽으로 달려갔다.

《없을겁니다. 전실에서 쏴죽였는데.》 쁘로레뜨낀이 말했다. 그리고는 하사관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놈을 어떻게 하랍니까. 상위동지? 혹시 저놈을 슬쩍 죽여치워도 되지 않겠습니까?》

《물적증거로 끌고갑시다.》와씰리는 아직 절반일밖에 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자, 동무들, 하미둘린과 보브까, 옷을 갈아입으시오. 나는 보초장으로 가장하고 가겠소. 보초소를 해치워야 하오. 시간이 없소.》

《혹시 그놈을 앞세울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놈이 통행암호를 알고있겠는데.》 쁘로레뜨낀이 여전히 손을 천정쪽으로 쳐들고있는 도이췰란드놈을 가리키며 말했다. 도이췰란드놈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졌다. 그놈의 뺨이 떨리고 눈알은 멍청해서 데룩거리고있었다.

모자밑에서는 진땀이 흘러내렸다.
《만일 통행암호대신에 그놈이 보초병에게 소리쳐 알리게 되면 어떻게 하겠소?》 와씰리는 반대했다.
《자식! 하겠어?》 로가찐은 어마어마하게 말하며 권총으로 보초장의 배를 쿡 찔렀다. 그놈은 무슨 말을 하는지 리해못하고 줄곧 손만 쳐들고있었다.
《저놈은 대담한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탕 하고 갈기니까 제 방에서 뛰여나오자바람으로 빳빳해서 손을 제꺽 높이 쳐들지 않겠습니까.》
《그놈을 리용하는건 위험하오. 그놈을 쏘게 되면 보초병이나 고사총수들이 들을수 있소.》
와씰리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미 결심한대로 행동합시다.》
와씰리와 두명의 정찰병은 도이췰란드놈들의 자동총을 검열한 다음 거기에 장탄하고 일렬종대로 줄을 지어 대문쪽을 향하여 걸어갔다.
위험하고 어려운 임무가 남아있었지만 정찰병들은 저도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대문앞에서 와씰리는 조를 멈춰세웠다. 그는 교대가 나타나야 할 시간을 기다리다가 위병소에서 설정된 질서대로 정확히 대원들을 이끌고나갔다.
교대는 창고쪽으로 걸어갔다. 화력진지쪽에서 고사총수들이 떠들썩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사총수들은 캄캄한 밤에 자기들의 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있는지 관심도 하지 않았다.
정찰병들은 정보행진을 멈추지 않고 척척 걸어나갔다. 그들은 그동안에 보아둔것처럼 다리도 끌지 않고 신통히도 교대가 하는식으로 태연하게 전진했다.
(셋이서 두놈을 감쪽같이 해치울수 있을가?) 하고 와씰리는 생각했다. (만일 철조망으로 갈라지지만 않았어도 하미둘린이 혼자서 그놈들을 뼈도 못추게 모조리 편포짝을 만들어놓았을텐데. 기본문제는 철조망을 넘어서도록 하는것이다.)
와씰리에게는 교대가 오는것을 보고 천천히 대문쪽으로 걸어나오는 보초병들의 검은 그림자가 보였다. 어느새 대문빗장이 삐그덕거

리더니 규정대로 한놈이《누구얏! 군호!》하고 소리쳤다. 앞에서 걸어가던 와씰리가 똑똑하게 응답하고 걸음을 재촉했다. (될수록 빨리 접근해야 한다.) 보초병들이 와씰리가 말한것을 리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보초장으로 알고 교대를 통과시켰다. 다음순간 자동총으로 대가리를 내리치는바람에 두놈이 정신이 나간채 바닥에 쓰러졌다.

대문밖에서 교대하는것을 감시하고있던 정찰병들이 폭발물과 도화선이 든 배낭을 메고 창고쪽으로 달려왔다. 와씰리는 창고끝쪽문으로 다가가다가 멈춰서고말았다. 그앞에는 문이 아니라 완전한 철벽이 어슴푸레 번뜩이였다. 문은 꽉 닫겨져있었다. 어떻게 열가? 정찰병들에게는 그것을 열만한 공구가 없었다. 정찰병들은 당황해서 그저 서성거릴뿐이였다. 보초장도 제끼고 보초병도 해치웠는데 창고로 들어가지 못하고있다.

쁘로레뜨낀은 소화기재를 설치한 곳에서 지레대를 가져왔다. 그러나 와씰리는 그를 제지시켰다. 지레대로 치는 소리를 고사총수들은 물론 부근의 수비대원들도 다 들을것이라고 생각되였다.

와씰리의 머리속에는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우리가 강습소에 있을적에 창고를 닫은 후 열쇠는 봉인되여 위병소에 인계했다. 혹시 도이췰란드놈들도 그렇게 했을수 있지 않을가?)

와씰리는 자기를 기다리라고 하고는 죽은 보초병들만 있는 위병소로 뛰여갔다. 그는 위병장의 책상빼람을 모조리 뒤지였다. 그리고 벽장을 보니 봉인떡에 도장이 찍힌 가죽주머니가 놓여있었다. 그것을 가지고 와씰리는 성급히 되돌아갔다. 그는 고사총수들이 발자국소리를 들을가봐 꺼려하면서 될수록 가볍게 발을 옮겨디디며 달리였다. 종전에 여기서는 누구도 뛰여다니지 않았다. 창고에서의 생활은 평온했다. 뛰여다니는 사람은 당장 의심을 받을수 있었다. 와씰리는 가볍게 바쁜 걸음을 옮기면서 흥분으로 하여 숨이 가빴다. 드디여 자기를 기다리고있는 정찰병들한테로 다가갔다.

…폭발소리가 울리자 사위는 붉은빛으로 물들었다. 첫번째 폭발로 하여 타오르던 불길이 캄캄한 밤하늘에서 채 사라지기도전에 어느새 아래에서는 두개의 새로운 불기둥이 타래쳐올랐다. 포로된 위병장의 눈알이 공포로 하여 방금 삐여져나올것만 같았다. 그에게 있어서 이

폭발은 자기가 상관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날에는 당장 총살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의미했던것이다. 그것을 리해한 위병장놈은 발악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정찰병들과 함께 전선쪽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와씰리는 작전을 서둘렀다. 시간이 허용되는한 이 구역에서 빨리 벗어나야 했다. 곧 포위수색이 시작되였다. 모두가 불안스러워하면서도 기뻤다. 그날밤에 정찰조는 전선을 무사히 넘어섰다. 아침에 정찰병들은 벌써 련대참모부에 와있었다. 와씰리는 까라바예브대좌가 자기에게 물어보는 말에 깜짝 놀랐다.

《그래 일이 어떻게 됐소? 사령부에 뭐라고 보고하겠소?》

정찰병들에게는 창고가 날아나고 삼단같은 불길이 하늘로 치달아오른것을 모스크바와 베를린에서도 듣고 보았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이곳 련대에서는 전혀 깜깜이였다.

와씰리는 임무를 수행한데 대하여 보고하고 《혀》가 있는쪽으로 머리를 기웃하면서 한마디 보태였다.

《이놈이 다 보았으니 확증할수 있습니다. 이놈은 위병장입니다.》

련대장은 정찰병들의 성과를 축하하고 매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고 이렇게 약속했다.

《동무들, 오늘중으로 모든 동무들의 표창을 내신하겠소.》

와씰리는 점직해하며 헛기침을 했다. 그리고는 패기있게 머리를 쳐들고 련대장에게 말했다.

《이미 표창에 대한 말이 났으니만치 련대장동지, 정찰조의 당조직원 로가찐전사에게 꼭 표창을 내신해주길 바랍니다. 그가 아니였다면 우리는 임무를 해낼수 없었을것입니다.》

린뜨와레브는 뜻밖에도 손벽을 철썩 치면서 로가찐에게 힘차게 말했다.

《그것 보라구, 동무가 〈말할줄 모릅니다.〉하구 거절까지 하더니.》

《저 동무는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중좌동지, 말도 우리보다 곧잘 합니다. 그저 혀가 좀 정찰병들의 혀처럼 특수하다뿐입니다.》 와씰리는 정치부련대장 린뜨와레브에게 롱담이 섞인 어조로 말하다가 신중하게 보태였다.

《표창에 대해서 다시한번 부탁하지만 이완 로가찐전사에게 훈장을

내신해주길 바랍니다.》

와씰리는 모든 과정을 사령부에 상세히 보고했다.

× ×

거의 석달째나 부대는 동프로씨아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있었다. 정찰병들은 적의 방어선에 접근하는데 유리한 구역을 찾으며 영구화점의 위치를 확정하고 지도에 표식해두면서 거기에서 어떤놈들이 방어하고있으며 무슨 기도를 꾸미고있는가를 밝혀냈다. 수백수천의 눈들이 쌍안경과 포대경을 뚫어지게 내다보면서 적의 진지를 살피고 연구하며 판단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탈환하겠는가를 궁리해보았다.

참모부에서도 비행기로 도이췰란드놈들의 진지를 촬영하여 사진과 대조해보면서 전선과 적의 방어종심에서 달라진것이 없는가를 알아보았다. 아군의 후방에서는 포탄과 박격포탄, 수류탄, 탄약을 비롯한 전투예비물자들이 불어났다. 그것들은 방수포로 덮어놓고 나무가지들로 위장했다. 와씰리는 포병들이 대포를 배치할 곳이 없다고 자리다툼을 하는것을 보았다. 련대주둔구역에서 와씰리는 거의 500여문의 곡사포와 대포며 박격포가 있다는것을 알았다. 이것은 전선 1키로메터구간에 250여문의 포가 배치된것으로 된다.

그 석달동안에 와씰리는 화선생활의 모든 구석에서 마치도 무슨 내적인 용수철이 나사로 타래지면서 긴장되는듯한 감을 느끼였다. 그용수철은 계속 팽팽하게 압축되여 어찌나 탄성이 강해졌는지 이제는 그것을 감당해낼 힘이 모자랄지경이였다. 긴장성을 완화시키고 공격을 해야 했다. 그러한 공격은 1945년 새해에 시작되였다.

공격전야에 까라바예브대좌는 와씰리를 엄숙하게 바라보면서 말했다.

《이 계선에서 도이췰란드놈들을 족칩시다. 동무는 인스터강쪽으로 뚫고나가게 되오. 동무에게 땅크중대와 자동총수 한개 소대를 맡기오. 자기 대원들을 땅크에 다 태우고 전속으로 내달리시오. 모든것은 신속성이 결정한다는것을 명심하시오. 산고지 그리고 적의 저

항에 부딪칠수 있는 계선들은 우회해나가시오. 그런 적을 소멸하는 것은 동무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오. 적들은 우리한테 놔두시오. 날이 밝기전에 우리는 인스터에 진출해야 하오. 련대의 남은 력량은 얼마 되지 않소. 나에게는 가장 정확한 적정이 요구되오. 만일 적정을 수집하게 되면 우리는 강을 도하하고 보루를 점령하게 될것이요. 바로 여기가 동무네 구분대가 활동할 구역이요.》

련대장은 지도에서 빨간 연필로 표식된 계선을 가리켰다.

《알겠소?》

《네, 알았습니다.》하고 와씰리는 대답하고나서 련대장이 이 임무를 자신만만하게 수행하리라는것과 자기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말할 근거도 없다는것을 느끼도록 빙그레 웃었다. 까라바예브대좌에게는 공격을 앞두고 걱정해야 할 일이 산더미같이 많았다. 그리하여 와씰리의 미소에 주의를 돌리지 못하였다. 그는 지금 자동차가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하여 괴롭기도 하고 부아가 나기도 했다. 까라바예브는 련대에 지적된 구간의 계선에서 도이췰란드놈들을 소멸하리라는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그놈들을 추격하겠는가? 자동차는 기껏해야 한개 대대분밖에 되지 않았다. 그것으로 와씰리의 구분대를 따라갈수 있을뿐이였다. 그러나 그 대대는 전투에 말려들어갈수 있으므로 성과를 확대해나갈수 없게 된다. 까라바예브는 책상우의 지도를 들여다보며 신경질적으로 연필을 똑똑 두드리면서 말했다.

《옛날력사가 되풀이되오. 우리가 한계선에서 놈들을 두들겨대면 그놈들은 다른 계선으로 밀려가게 되오. 그러면 다시금 그놈들과 맞다들어 접전하게 된단말이요. 그렇게 싸우는게 좋겠소? 우리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남아야겠소. 우리는 살아남은 놈들을 따라앞서 그놈들보다 먼저 다음계선에 진출해야 하오. 알겠소? 반대하는 사람은 없소? 우리는 공격을 계속합시다. 알겠소?》

《알겠습니다. 대좌동지.》와씰리가 대답했다.

《그러니 놈들이 어디에 어떤 력량을 가지고있는가를 알리는것은 동무가 하게 되오. 다 리해했소?》

와씰리는 미처 대답을 하지 못했다. 방안에 린뜨와레브와 그뒤를

따라 허약하게 생긴 낯모를 대위가 들어왔던것이다. 그의 군복저고리에는 조국전쟁훈장과 붉은별훈장이 있었다. 대위의 령리한 눈이 근시처럼 실눈을 지으며 친절하게 바라보았다.

《자, 련대장동지, 우리한테 손님이 왔습니다.》

와씰리는 가까스로 미소를 참았다. 지금 련대장에게는 손님을 치를 겨를이 없었다.

《이 동무는 종군기자 뽀찌찐대위입니다.》

《그건 내가 참여할 일이 아닌데.》까라바예브가 말을 꺾었다.

《나는 충분히 리해합니다. 련대장동지.》린뜨와레브는 완강하면서도 확고하게 말했다. 《기자동무는 와씰리 로마슈낀에 대한 기사를 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 내가 저 동무를 당신에게 데려온겁니다.》

《지금 와씰리는 기자하구 담화할새가 없소.》까라바예브가 잘라말했다. 《그는 정찰부대를 준비하여 당장 떠나야 하오.》

《저는 상위동무를 방해하지 않겠습니다.》기자가 타협조로 말했다. 《아무것도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저 그들과 같이 떠나면서 직접 제눈으로 보면서 쓰겠습니다.》

까라바예브의 파란눈이 완전히 쌀쌀해지더니 기자의 말을 중단시켰다.

《와씰리는 적후로 떠나오. 거기서 기자가 할 일이란 하나도 없소. 아무튼지 좋으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쓰시오. 린뜨와레브중좌가 동무에게 대상자를 선정해줄것이요. 가보시오. 와씰리동무. 후에 준비정형을 참모장에게 보고하시오.》

와씰리는 밖으로 나오면서 기자가 여전히 부드럽고 친절하게 련대장과 말하는것을 들었다.

《저는 적후에 다녀본 일도 있습니다. 그리구 빨찌산과도 땅크병들과 기병들과도 원정을 같이해왔습니다.》

와씰리는 사관장 주마첸꼬를 보고 정찰병들을 준비시키라고 명령하고 자신은 자기에게 배속된 땅크중대와 보병소대를 찾아갔다. 그는 그곳 지휘관들과 일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다 처리하고 돌아왔다. 와씰리는 전진로정을 연구하고 가는 도중에 맞다들수 있는 정황을

따져보면서도 기자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러나 꼴로꼴리쩨브한테로 왔을 때는 거기서 낯익은 기자를 다시 보게 되였다.
《자, 이 동무가 당신의 미래의 주인공이요.》와씰리가 나타나자 꼴로꼴리쩨브가 말했다. 기자는 활기를 띠고 와씰리에게 구면처럼 악수를 청했다.
(꽤 이악스럽군.) 하고 와씰리는 생각했다. (기어코 자기 목적을 달성했군. 헌데 제발 그한테서 무슨 일이 생기지만 말았으면, 내가 잘못될수 있으니까.) 와씰리는 기분이 거슬렸다. 그는 기자의 손목을 맥없이 잡고 그를 외면하면서 꼴로꼴리쩨브에게 말했다.
《기자동무를 어디다 두랍니까? 중좌동지. 적후로 가는데.》
기자는 그 순간에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친절성을 가지고 상급의 그러한 태도를 꾹 참아왔지만 보건대 와씰리의 모욕적인 언사를 그냥 지나치려는 잡도리가 아닌것 같았다.
《나를 아무데도 두지 않아도 되오. 자기 문제나 해결하시오. 같이 가기만하면 되오.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는 내자신이 잘 알고 있소.》
와씰리는 꼴로꼴리쩨브를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는 어깨를 으쓱할뿐이였다.
《아무것도 변경시킬수 없소. 기자동무는 상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소.》
정찰구분대는 골짜기에 집결되였다. 땅크들(도합 넉대였다.)은 눈이 덮인 숲속에 박혀있었다. 승무원들이 곧 전진하리라는것을 알고 완전히 파묻어두지 않았다. 정찰병들과 자동총수들이 모닥불옆에서 몸을 덥히면서 구령만 울리면 장갑에 뛰여오를 준비를 하고있었다.
땅크중대장 우골리꼬브상위는 검은 승무복을 입고 모자단추를 풀어놓은채 기름묻은 장갑을 벗으면서 와씰리와 같이 온 기자 쁘찌찐대위에게 인사를 했다.
《기자동무를 아무 땅크에나 앉히시오.》와씰리가 말했다. 그는 기자가 자기를 방해해나선것을 분하게 생각하고 오는 길에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우골리꼬브는 기자가 자기 상관이 아니라는것을 리해하고 와씰리

만 보면서 모욕적으로 말했다.
《기자동무를 어디다 태우겠소? 어데말이요? 포탄을 열개 더 싣는게 낫지 않겠소. 동무가 싸움판에서 사격하라고 하시오. 그러면 내가 기자로서 사격하는게 어떻소?》
기자가 호탕하게 웃었다.
《부질없는 공담은 그만두시오. 동무들, 나는 자동총수들과 함께 장갑우에 앉아가겠소.》기자는 지휘관들에게 더는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생각에 전투원들한테로 갔다.
《어째서 기자를 하필 동무한테 맡겼소?》우골리끄브가 물었다.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 있었소.》와씰리는 유감스러운듯 손을 내저었다.
포병준비사격은 여느때처럼 일찌기 아침에 시작된것이 아니라 대낮에 도이췰란드놈들이 남새국과 지진 가두배추에 쏘쎄지를 먹고 뜨거운 음식에 온몸이 나른해지면서 끄덕끄덕 졸고있을 점심시간에 시작했다. 대대들은 적의 일선방어진을 돌파했다. 린접사단구역에서 한개 사단력량의 땅크들이 보병을 우회하면서 앞으로 돌진했다.
와씰리는 즉시 《전진》하라는 신호를 받았다. 그는 물이 고여 질벅해진 우묵한 곳을 따라 자기 구분대를 이끌고나갔다. 2대대 익측에서는 불의의 습격으로 적을 혼란에 빠뜨렸다. 여기서 살아남은 도이췰란드놈들을 화력으로 각개격파하면서 우익에서 전진하는 땅크부대의 동음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계속 나아갔다.
쁘찌찐은 땅크포탑뒤의 와씰리곁에 앉아서 손잡이를 꽉 틀어쥐고 사방을 경각성있게 살피였다. 와씰리도 륙전병들을 위해 특별히 붙여놓은 란간을 잡고 우골리끄브를 내심으로 《빨리, 빨리!》하고 재촉했다. 땅크우에 륙전대원으로 앉아있는것보다 전투에서 더 불쾌한 일이란 없었다. 총알과 포탄이 날아오는 날에는 그것들이 곧바로 그들에게로 날아올것이다. 땅크가 좌우로 돌아가며 우로 쳐들렸다가 웅뎅이아래로 내려가기도 했다. 길들이지 못한 말처럼 땅크는 자동총수들과 정찰병들을 떨어뜨리려고 안깐힘을 다 쓰는것 같았다. 떨어만지면 죽는다.
땅크들이 우르릉거리며 무한궤도로 질척한 진흙을 휘뿌리면서 앞

으로 내달렸다. 륙전대원들이 자기들을 향해 사격하는 도이췰란드놈들을 보았다. 그러나 대응사격을 할수 없었다. 손잡이를 놓으면 떨어질수 있었던것이다. 쁘로레뜨낀이 한손으로 수류탄을 꺼내서 입으로 고리를 물어빼고 전호에서 기관총을 쏘는 도이췰란드놈들을 향하여 던지였다. 그리하여 그는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원할수 있었다. 쁘찌찐이 새파란 입술에 미소를 담고 엔징소음을 누르려는듯 환성을 올렸다.

《장하오. 장해!》

파도처럼 밀려드는 땅크들이 전호를 넘으면서 적진으로 깊이 들어갔다. 와씰리는 전투경험에 의하여 도이췰란드놈들의 두번째 진지가 세개의 전호로 이루어져있으며 다음에 한키로내지 한키로반쯤 떨어져서 세번째 진지가 있는데 그것 역시 두번째 진지와 마찬가지라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러나 도이췰란드놈들은 자기 땅에서 웬일인지 알수 없게 진지를 파놓았다. 와씰리는 그 전호구역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스물두개의 전호들을 세였다. 매개 전호들은 전투를 하면서 탈환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전호주변에는 아군의 희생자들도 있을것이다. 지금 전호들은 텅 비여있고 영구화점들에만 수비대원들이 상시적으로 틀고앉아있었다. 야전군의 주력은 배후 앞계선에 남아있었다. 모든 도이췰란드놈들이 그곳에 남아서 미처 퇴각할새 없게 해야 한다는 까라바예브의 말이 옳았다.

강력한 방어진을 형성한 도이췰란드놈들은 아군이 그처럼 신속히 자기들을 돌파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못했다. 와씰리의 부대가 초원과 작은 촌락들을 지나가고있을 때 날개달린 모자를 쓰고 털을 댄 가죽잠바를 입은 늙다리 도이췰란드놈들이 붉은군대땅크들을 보고 어리둥절해하였다. 잠시후 엔징에서 내뿜는 연기가 가라앉자 그 사복을 입은 도이췰란드사람들이 자기 물건짝들을 싸가지고 도망쳤다. 그들은 자기 땅에서 로씨야사람들을 만날 생각을 하지 못했다. 붉은기와를 해넣은 깨끗한 집들로 둘러싸인 헨스히슈켄촌락의 광장에는 땅크의 소음을 듣고 자기의 땅크병들을 환영하려고 맥주집에서 나온 장교들과 하사관들이 늘어섰다. 한 땅크가 포신으로 그놈들을 서서히 겨누자 그들은 고뿌를 내던지고 맥주집으로 도로 뛰여들어갔다.

포성이 울리더니 맥주집 진렬대가 있던 곳에서는 시커먼 연기기둥이 타래쳐올랐다.
《이건 네놈들의 맥주안주다.》우골리꼬브가 땅크문에서 가슴을 내밀고 소리쳤다.
《와씰리, 꼴로꼴리쩨브가 동무에게 전하라고 했소. 그들모두가 제대로 전진하고있으니 임무는 종전대로 변동이 없다는것이요. 련대장은 될수록 빨리 인스터강으로 진출할것을 요구하고있소.》
《지금처럼 조기라구.》와씰리가 대꾸했다.
《제대로 가기만하라구. 어련히 싸우지 않으리.》
다시금 땅크의 동음이 요란히 울렸다. 그들은 보리수나무를 심은 촌길을 따라 달리였다. 진눈까비들이 나무가지에서 떨어졌지만 땅크들이 지나면서 흩날려버렸기때문에 정찰병들한테는 맞지 않았다.
와씰리는 도이췰란드놈들이 땅크를 타고 돌진하는 아군부대에 대해 자기 후방에 전화로 알렸으리라고 확신했다. 정찰병들에게는 전화선을 자를새가 없었다. 땅크병들이 전주대를 성냥가치처럼 꺾어버리고 계속 질주했다. 물론 도이췰란드놈들이 무전으로도 자기편에 알렸을수 있었다. 그러니 어딘가 종심깊은 길가에 매복을 배치하지 않았는지 모른다. 그러나 와씰리는 그 매복이라야 그닥 강한 력량이 아닐것이라고 타산했다. 지금 도이췰란드놈들이 몹시 걱정하는것은 자기 부대보다 린접구역에서 공격해오는 붉은군대 땅크련합부대인것이다.
여섯시에 정찰부대는 예정된 구역에 진출했다. 그러나 땅크가 강가에로 접근하는 길에는 수림이 빽빽하게 막아나섰다. 땅크는 굵은 나무들을 넘어뜨릴수 없었다. 강기슭까지는 한키로 남짓했다. 그 수림뒤로 강이 있는데 어떻게 그 기슭으로 뚫고나가겠는가? 우회하자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게다가 강기슭을 따라 도이췰란드놈들의 방어계선이 뻗어나갔다.
《동무는 여기에 남아있으시오.》와씰리가 우골리꼬브에게 말했다.
《나는 대원들을 데리고 수림을 통과하겠소.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를 살피겠소.》
쉐골레브중위가 지휘하는 자동총수들과 정찰병들이 두줄을 지어

수림을 향해 전진하고있었다. 쁘찌찐기자는 와씰리곁에서 걸어갔다. 그는 침착하게 행동하면서 자기의 동행자를 주시했다.

《도이칠란드놈들한테 있는 모든것은 우리 식이 아닙니다. 수림까지도 다르단말입니다.》

《옳소. 수림도 그쯘하게 가꾸었소.》 쁘찌찐이 동의하면서 수림이 정찰병들의 마음에 들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와씰리는 전혀 다른것을 념두에 두었다.

《이것은 수림이 아니라 문화공원이지요. 풀숲과 관목들도 다 잘라버리고 둔덕도 그루터기가 없이 반반한게 멀리서도 다 꿰뚫어보이지 않습니까. 멸균된 수림이니까 아마 딸기도 버섯도 자라지 못할겁니다.》

수림변두리는 강가에 못미처 300메터 떨어져 끝났다. 강건너편에는 이 고장에서 흔히 보는 나무들로 둘러싸인 아스팔트도로가 뻗어나갔다. 재빛나무들과 숲이 무성한 그쪽에 인스터부르그의 보강된 방어선이 은폐되여있을것이다. 아스팔트를 따라 차들이 꼬리를 물고 지나갔다. 길은 오른쪽에서 강쪽으로 돌아갔다. 다리를 통하여 저쪽 기슭으로 건너가 수림뒤에로 사라졌다. 다리에는 보초병이 경비를 서고 멀지 않은 곳에는 벽돌집이 있었다. 거기에는 아마 보초병들이 휴식하고있을것이다.

《만일 다리를 장악한다면.》 쁘로레뜨낀이 입을 열었다. 와씰리는 쌍안경으로 접근로를 살피면서 생각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와씰리가 긍정했다.

《그런데 왜 그럽니까? 이 사람들이면 충분한데…》

쉐골레브가 활기를 띠며 말했다.

《장악하는데는 충분한데 견제는 어떻게 해내겠소?》 와씰리가 물었다.

《견제할수 있습니다. 땅크들도 오면 도와줄겁니다.》

《오래 지탱하지는 못하오. 도이칠란드놈들이 우리를 없애버리겠다구 별의별짓을 다할것이요. 여기가 목에 걸린 가시처럼 될것이요. 련대가 오기전에 다리를 불의에 습격하여 아군이 건늘수 있게 해야 하오.》와씰리가 감시하면서 말했다. 《그러면 이 다리는 까라

바예브에게 있어서 간단한 선물이 아닐거요. 타격을 받으며 강을 도하하지 않고 편안히 다리를 통과하게 될거요. 쥬크, 지금 선두대대가 어데 있는가를 문의하시오.》

련대에서 답전이 왔다. 《첫번째 동생은 동무들을 따라간다. 동무들의 자취를 밟을것이다.》

(까라바예브도 이것을 전하라고 했다.) 와씰리는 생각했다. (재촉하고있다.) 《그럼 지금 당장 우리는 당신을 기쁘게 해주겠습니다. 련대장동지!…》

《만일 대대가 접근로에 있다면 즉시 다리를 장악해야 하오. 쉐골레브, 자기 대원들을 데리고 여기서 강을 건느시오. 아마 얼음이 견딜수 있을거요. 신작로에 나서서 우리가 보초병들을 처리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왼쪽을 엄호하시오. 나는 정찰병들과 함께 수림으로 해서 다리쪽으로 바싹 접근하겠소. 우리를 감시하시오. 우리가 시작하면 동무는 즉시 도로를 차단하시오. 쎄워스찌야노브와 꼬주하리는 되돌아와서 땅크들이 수림을 우회하여 다리쪽으로 오도록 안내하시오. 자 갑시다. 조용히 하시오.》 와씰리의 말 에 《나도 동무와 함께 가겠소.》 하고 쁘찌찐이 말했다.

《혹시 여기서 구경하는게 어떻습니까? 다 보이는데 여기서 땅크중대를 기다리는게 좋겠습니다.》

《아니요. 나는 동무와 같이 가겠소.》

《그럼 좋을대로 하시오. 갑시다.》

와씰리는 나무뒤에 숨어서 다리쪽으로 100메터가량 접근하여 뚱뚱하고 게저분하게 생긴 보초놈을 똑똑히 가려보았다. 저쪽기슭의 보초막근처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굴뚝에서 연기가 피여올랐다. (난로를 때는 모양이군. 이제 우리가 네놈들을 덥혀주마.) 하고 와씰리는 생각했다.

《보그단, 동무가 저놈을 단방에 해치우지 못하겠소?》 와씰리가 물었다.

《왜 못하겠습니까? 저는 총알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해제끼겠습니다.》

《가까이 접근하시오. 소동이 일어날거요.》

보그단은 자동총을 가슴에서 벗기고 지휘관을 쳐다보았다.

《지금 당장 없애치우랍니까?》

《잠간만, 로가찐과 나머지 동무들은 문을 겨누고있으시오. 만일 총성이 울리면 달아나오겠는데 그때 문을 향해 사격하시오. 쁘로레뜨낀, 오른쪽에서 도로를 감시하시오. 보브까는 왼쪽에서 감시하시오. 접근로에 아무도 없을 때 시작합시다. 모두 준비하시오.》

와씰리는 쁘찌찐이 권총집에서 자기 권총을 꺼내든것을 보았다.

《도로는 어떻소?》 와씰리가 물었다.

《저한테는 아무도 없습니다.》 쁘로레뜨낀이 대답했다.

《저한테는 자동차가 두대 옵니다.》 보브까가 다그쳐 대꾸했다.

《기다려서 차를 통과시키시오.》 와씰리가 구령을 내렸다.

차체가 길다랗고 나지막한 두대의 짐차가 연기를 내뿜으면서 다리를 건너갔다. 보초병이 무엇인가 운전사에게 소리쳤다. (이젠 다야. 도이췰란드놈아, 그건 너의 마지막목소리다.) 하고 와씰리는 생각하면서 아직도 그리 멀리 가지 못한 짐차들의 엔징소리에 총성이 들리지 않을수 있는 순간에 명령을 내렸다.

《보그단, 사격하시오.》

보그단이 자동총을 쳐들고 나무에 의지하여 탕—하고 쏘았다. 보초병이 가볍게 모로 꼬꾸라졌다.

《날, 따랏!》 와씰리는 집을 감시하면서 다리쪽으로 달려가며 소리쳤다.

《쁘로레뜨낀, 보브까, 그놈들에게 빨리 수류탄을 던져서 덥혀주시오. 나머지 모든 동무들은 다리밑에 숨어서 보초병을 치우시오.》

보브까와 쁘로레뜨낀은 집쪽으로 향하였다. 와씰리는 내심으로 강조했다. (우리 애들이 매끈한 벽으로 다가간다. 거기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다.) 가까이 접근한 그들이 서성거리고있는것을 보고 와씰리는 불안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쁘로레뜨낀이 웬일인지 벽을 의지하고 서있는 보브까의 어깨우에 기여올랐다.

쁘로레뜨낀은 지붕에 올라서서 굴뚝에 수류탄 두개를 집어넣었다. 요란한 폭음이 울리고 유리가 날아나고 문이 박산났다. 그러나 밖으로 뛰여나오는 놈은 없었다. 문은 폭풍에 떨어져나간것 같았다. 희

미한 연기가 나들문에서 빠져나왔다. 보브까가 자동총사격태세를 갖추고 집안으로 들어가더니 인차 되돌아나오며 소리쳤다.
《제대로 됐소.》
벌써 도로에서는 쉐골레브가 손을 흔들었다. 그도 위임대로 도로에 나섰다.
《작전은 쉽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특별히 한것입니다.》 쥬크가 쁘찌찐에게 명랑하게 말했다.
《옳소. 아주 높은 수준이요.》 쁘찌찐이 감탄했다.
《동무네 소대에 대한 소문이 공연히 나돌고있는게 아니요. 훌륭한 자료가 될게요.》
《떠들지 마시오.》 보그단이 주의를 주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오.》 와씰리는 긍정했다.
《약과란말이요.》 그는 다 말할수 없었다. 방수포를 씌운 석대의 짐차가 나타났던것이다.
《약과는 바로 저것들이요. 접근로에 있지 않소.》
와씰리는 걱정스러운 어조로 말을 끝냈다.
《모두들 가만히 앉아있으시오. 혹시 지나갈수 있을거요.》
그는 보브까와 쁘로레뜨낀에게 손을 흔들었다.
《집안으로 피하시오.》
짐차들이 천천히 다가왔다. (짐만 날라가면 좋은데 만일 보병이라면?) 와씰리는 더러운 거미줄이 낀 다리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생각했다.
짐차들은 엔징소리를 내며 매캐한 디젤가스냄새를 정찰병들에게 들씌우면서 느릿느릿 다리를 지나갔다. 정찰병들은 수류탄을 던질 준비를 하고있었다. 차들이 계속 지나갔다. 와씰리는 불안스럽게 그들의 뒤를 바라보았다. (쉐골레브가 어떻게 행동할가? 지금 전투에 진입해서는 안된다.) 자동총수들은 와씰리가 차들을 통과시키는것을 보고 그들을 사격하지 않았다. (장하오. 쉐골레브, 잘 생각했소.)
《상위동지, 여기에 전화가 있습니다.》 쁘로레뜨낀이 대주었다.
와씰리는 전주를 쳐다보고 명령했다.
《로가찐, 어서 전화줄을 끊어놓으시오.》 그리고는 쁘로레뜨낀에게

대답했다.

《이제 전화줄을 끊어놓겠소. 어디 동무가 찾아낸걸 보여주시오. 무슨 전리품이든 없소?》

《별로 특별한건 없습니다. 군인수첩, 보온병에 넣은 커피, 딴딴한 빵들뿐입니다.》

《이제는 전쟁이 끝나가는판입니다.》와씰리가 기자에게 말했다. 《그전같으면 정찰병들이 그 저주로운 군인수첩을 구하느라구 목숨까지 바쳤는데 지금은 그것을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놈들의 후방에는 벌써 사단과 련대들은 물론 무슨 혼합부대들과 소부대들과 소집단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집단에서 〈혀〉를 잡았댔자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한주일동안 한집단에 있다가 지금은 다른 집단에 와있다나니 누가 상관이고 임무는 무엇인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누구도 모르고있지요. 말하자면 우리가 도이췰란드놈들의 질서를 파탄시킨셈이지요. 지금 그놈들은 지점에 따라 계선별로, 시간별로 제각기 명령을 내리고있습니다. 그러나 전투마당에서 우리는 자기 식대로 마음놓고 계속 돌아치고있으니 도이췰란드놈들은 싸움을 다한셈이지요.》

《동무 말에 동의할수 없구만.》쁘찌찐이 반대했다.

《우리는 그놈들의 땅에서 겨우 첫걸음을 뗀데 불과하오. 우리앞에는 온 도이췰란드땅이 놓여있소. 놈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해나설거요. 직접 봤겠지만 요새들을 어떻게 구축해놨소? 깊이 들어갈수록 콩크리트로 설비한 영구방어구역들이 많지 않소. 놈들은 우리가 국내깊이로 들어가는것을 스스로 단념하리라고 타산하고있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로가찐이 말했다.

《일단 시작했으니 반드시 승리할것입니다. 저는 어떤 철근콩크리트라도 다 뚫고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베를린에 가서 백그람을 다 마시겠습니다.》

《됐소. 동무들, 다리는 도중에서 맞다든 문제요. 기슭을 정찰해야겠소. 곧 련대가 도착할수 있소.》와씰리가 말했다.

《로가찐, 동무는 쁘로레뜨낀과 보브까와 함께 다리 우측에서 무엇을 하고있는가를 살피시오. 보그단은 나하구 같이 가기요. 나머지

동무들은 여기에 남아있으시오. 쥬크, 련대에 보고하시오. 여기서 다리를 준비하고 기다린다구말이요.》

와씰리는 쌍안경으로 주변의 초원을 살피면서 쉐골레브소대에로 갔다. 참호들이 많았다. 모두가 눈에 덮인게 파놓은지 퍼그나 오래된것들이였다. 참호들에는 병졸놈들이 보이지 않았다. 오직 헛간들과 건초더미근처에서 그리고 독립가옥들에서 푸르스름한 그림자들이 언뜩거리였다.

(위장된 영구화점들에는 수비대원들이 만단의 전투태세를 갖추고있다. 아직 야전군들은 없다.) 와씰리는 정황을 판단하고 지도에 표시해놓았다. (놈들은 물론 우리를 발견했을것이다. 우리가 정찰이라는것을 알면서도 자기들의 화점을 은폐시키려고 쏘지 않고있다. 그러나 놈들은 우리를 소멸하기 위해 무슨 대책을 세울것이다.)

와씰리는 아직 자동총소대에 당도하지 못했는데 거기서는 벌써 맞불질이 시작되였다. 그리하여 와씰리는 길옆에 파놓은 물도랑을 따라 달려갔다. 쉐골레브곁에 다가간 그는 나무뒤에 엎디여 성긴 산개대형을 향하여 점발로 사격하였다. 적의 대형은 엎디기도 하고 길옆으로 조심조심 전진하기도 했다. 짐차 두대가 멀리 떨어져있었다.

《우리가 저놈들을 소멸해버립시다.》 쉐골레브가 조용히 말하면서 도이췰란드놈들을 겨냥하여 쏘았다.

《그다음엔?…》

《곧 대대가 오고있소.》 와씰리는 그를 진정시켰다.

자동총수들이 명중탄을 안기였다. 어느새 푸른 옷을 입은 놈들의 태반이 너부러졌다. 살아남은 놈들은 짐차쪽으로 물러났다.

《탄알을 아끼시오.》

쉐골레브는 자동총수들에게 소리치고나서 쌈지와 부시돌을 꺼내여 담배를 피워물었다.

갑자기 다리목에서 수류탄이 터지며 자동총소리가 났다. 와씰리는 쌍안경을 들었다. 다리에서는 파괴된 짐차들이 불타고있었다. 짐차대렬이 가까운곳에 와서 멎었다. 적재함에서는 도이췰란드놈들이 뛰여내렸다. 그놈들은 얼마 되지 않았다. 아마 짐을 지키고있었던 모양이다.

《자, 이젠 저기서도 시작되였소.》
와씰리가 말하고나서 떠나기에 앞서 쉐골레브에게 명령했다.
《될수 있는대로 여기를 견제하시오. 동무네를 차단하려고 하면 우리한테로 퇴각해오시오. 다리를 기어이 사수합시다.》
와씰리는 보그단을 불러내여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
《우리는 최악의 경우에 다리를 끊어놓기로 했습니다.》 로가찐이 보고했다.
《당신의 배후로 통과시킬수 없습니다.》
《잘했소.》하고 와씰리는 긍정하고 명령을 내렸다.
《그럼 모두들 놈들의 전호에 가서 어려운 싸움을 준비하시오.》
와씰리는 도이췰란드놈들이 다리를 방어하려고 파놓은 전호로 내려갔다. 질벅하게 젖어있는 흙벽에 옷이 들어붙었다. 그러나 바닥은 굳어보였다. 놈들은 예견성있게 배수로를 만들었던것이다. 와씰리는 입을 봉하고 쌍안경으로 짐차들을 살펴보았다. 골로샤뽀브는 투덜거리면서 하미둘린을 따라 뜨적뜨적 걸어갔다.
반시간 지나서 도이췰란드놈들이 공격해왔다. 뒤에 있는 인스터부르그요새구역에서는 박격포와 대포들이 사격을 하고있었다. 여러개의 포탄들이 강에 떨어져 터지면서 물기둥이 솟구치고 얼음쪼각이 날아났다. 정찰병들은 수림속에서 놈들을 놓아주어 빈 벌판으로 나갈수 있게 했다. 도이췰란드놈들은 자기들을 특별히 접근시키는것이라고 의심하면서 천천히 위구심을 가지고 엎디는듯한 자세로 슬금슬금 다가들었다. 장교들이 고아대면서 졸병들을 내몰았다. 공격하는 놈들이 아스팔트에 들어서자마자 아군의 자동총수들이 사격을 퍼부었다. 살아남은 놈들은 모두가 물도랑에 엎디고 죽은놈들은 길우에 널려있었다.
《옳지. 잘하는군. 랭수욕이나 실컷 하라구.》하고 보그단은 말하면서 자기가 질벅한 눈과 물이 출렁이는 도랑에서 뛰던 일을 생각했다.
《어때? 파쑈놈들아, 어서 목욕하란말이다.》하고 보그단은 도랑에서 대가리를 내미는 놈들을 쏘면서 말했다.
두시간 지나서 정찰병들에게는 위험한 정황이 조성되였다. 한개대대나 되는 놈들이 그들을 포위했다. 이것은 주력대대는 아니고 차를 잡아타고 도로를 따라 무리지어 모여든 오합지졸이였다. 그러나

그대신에 포병들과 박격포병들이 요새구역에서 정확한 사격을 하고 있었다. 석대의 땅크가 기여들었다. 그 기슭에서는 정찰소대의 전호에 대고 사격이 시작되였다. 땅크 한대가 다리를 건느려고 파괴된 자동차를 짓뭉개며 나갔다. 이때 지뢰에 걸려들었다. 폭음이 울리더니 무한궤도가 짤랑거리면서 굴레에서 벗어났다. 땅크병들이 급해맞아 정찰병들을 향해 속사를 했다. 아마 격상된 땅크에서 나오기전에 완전정량의 탄알을 다 써버리려고 한 모양이였다. 땅크는 가까이 접근했다. 폭음과 총성이 합류되여 마치도 탄띠에 포탄을 재운 무슨 기관총으로 사격하는것 같았다. 다른 모든것보다 땅크가 더 극성스레 정찰병들을 향하여 미친듯이 불을 토했다. 그리하여 정찰병들은 다리쪽으로 물러났다. 그러나 그들은 개활지대에서도 사격에 맞다들었다. 쉐골레브중위와 그의 소대의 절반인원이 전사했다. 두대의 다른 땅크가 기슭으로 바싹 접근했다. 도이췰란드놈들은 로씨야인들에게 포가 없으며 그렇다고 강을 건너 수류탄을 던지지도 못한다는것을 알고있었다. 땅크들이 정찰병들을 소멸하려고 정면으로 사격했다. 한사람당 한발의 포탄이 차례지게 날려보냈다. 끄쥬하리가 죽음을 앞두고 비명을 질렀다. 쎄워스찌야노브가 자동총을 가슴에 대고 서 있던 곳에서 흙무지가 곧추 날아오르더니 연기가 자욱했다.

(이젠 다구나.) 하고 와씰리는 생각했다. (소대를 데리고 빠져나갈 곳도 없다. 앞에는 인스터부르그방어선이 막아나서고 다리뒤에는 적 땅크들이 득실거리고있다. 전호에 남아있으면 괴멸될것이다. 땅크포들이 경사면을 파헤치고있지 않는가.) 와씰리는 쁘찌찐을 쳐다보았다. 그는 무릎에 지도가방을 올려놓고 조용히 앉아서 글을 쓰고있었다.

《정황을 리해하지 못하고있군.》 와씰리는 그를 부러워하기까지 했다. 《저렇게 쉽게 죽다니. 왜서 우리가 그를 데리고왔는가? 훌륭한 기자인데 살아서 신문사에서 일해야 할게 아닌가. 애당초 그는 정찰병들과 련계를 가지지 말아야 했을걸.》

그러나 와씰리는 죽기직전에 느끼는 가슴속의 섬찍함을 조금도 감촉하지 못했다. 이번에도 살아남으리라는것을 확신했다.

와씰리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 우골리꼬브가 그를 건져냈다.

수림변두리에서 네문의 포가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두대의 도이

칠란드땅크가 연기속에 휩싸였다. 한대는 인차 불길이 훨훨 타오르고 다른 한대는 시누런 연기를 내뿜었다.
《때마침 왔소, 동무들!》 와씰리는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그러나 어느새 종전에 쉐골레브의 자동총수들이 있던 그쪽에서 도이칠란드땅크들이 기여오고있었다. 얼음우로 강을 건너온 도이칠란드놈들의 한 집단이 불의에 수림뒤에서 뛰여나와 정찰병들한테로 달려들었다. 육박전이 벌어졌다.
와씰리는 파쑈놈들에게 명중탄을 안기면서 쁘찌찐을 잊지 않고 그를 사격으로 엄호해나섰다. 그러나 그자신도 당황해하지 않고 팔을 우습게 끌어올리면서 후방 어디에서 배운것처럼 권총을 쏘았다. 드디여 맞혔다. 도이칠란드놈들이 그앞에 꼬꾸라졌다. 와씰리는 그것을 직접 보았다.
공격을 물리쳤다. 그러나 와씰리는 오래동안 견제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부아가 나서 쥬크에게 큰소리로 말했다.
《그래 나타난다던 대대는 어데 있소?》
무전수 쥬크는 죄송스러운듯 고개를 떨구고 호출하기 시작했다.
《홍옥수》, 《홍옥수》, 나는 《순무》…
탄알은 거의 떨어져갔다. 와씰리는 기슭에서 죽은 도이칠란드놈들의 자동총과 탄창을 걷어오라고 명령했다.
《놈들을 멋지게 해제꼈소.》하고 쁘찌찐은 기뻐했다.
와씰리는 그의 행복스러운 시선을 통하여 기자가 전투에서 이처럼 가까이에서 적들을 구경한적이 없었다고 리해했다. 물론 포로병들은 만나서 말도 해봤을것이다. 하지만 바로 이렇게 코를 맞대고 육박전을 해보지 못했을것이다.
갑자기 쁘찌찐이 어이쿠 하고 소리치며 권총을 떨구더니 허리를 구부리고 전호바닥에 쓰러졌다. 와씰리와 쁘로레뜨낀이 그한테로 달려갔다. 그의 몸을 일으켜세우고 앉혔다.
《이젠 다요. 배를 맞았소. 이건 치명상이요.》 쁘찌찐은 억제하는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잠간만. 어디 보기요.》 와씰리는 군복저고리앞섶을 칼로 째면서 진정시켰다. 총알은 진짜 그의 배꼽옆을 뚫고들어갔다. (이젠 살 가

망이 없군.) 하고 와씰리는 슬픔에 잠겨 생각했다. (우리 주둔구역에 외과의사라도 있으면 구원할수 있으련만…)
와씰리에게는 죽음도 평온하고 태연하게 맞받아나갔던 기자가 몹시 애석하게 여겨졌다. 참된 인간으로서 싸움마당에 나섰다. 경험있는 군인들도 당황해하는 육박전에서도 그는 훌륭하게 처신했다. 그를 어떻게 도와주겠는가?
쁘찌찐기자는 와씰리의 아래우를 서글프게 훑어보는데 마치 성상에 그려져있던 성자를 방불케 했다. 그에게는 와씰리가 말하는것이 사형선고처럼 들렸다. 그러나 와씰리는 그처럼 고립무원한 상태에서도 그를 구원할 가능성을 줄곧 찾아보았다.
와씰리는 붕대로 상처를 감고 비옷을 가져다가 전호바닥에 깔아놓고 그를 눕혀놓으라고 했다. 기자는 입술을 깨물면서 옆으로 쓰러졌다.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조용히 신음소리를 냈다.
《로가찐과 보그단, 땅크에 데려가시오. 나머지 동무들은 우리를 화력으로 엄호하시오.》 와씰리가 명령했다.
정찰병들은 다리목에서 타다남은 자동차와 격상된 땅크뒤에 숨어서 부상당한 기자를 데리고 우골리꼬브 땅크들이 사격을 하고있는 수림속으로 슬그머니 빠져들어갔다. 우골리꼬브는 유쾌한 기분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그러나 피투성이가 된 기자를 보고 놀랐다.
《아니, 동무가? 저런 변이라구야!…》
《유능한 조종사와 땅크를 주시오. 거기에 기자를 태우고 전속으로 참모부로 되돌아가야겠소. 기자동무가 더 기다려낼수가 없소. 알겠소?》
《일단 하자고 한 일이니 합시다.》 땅크병이 침울하게 말했다.
《그럼 잘 가시오. 기자동무, 어서 회복되길 바라오. 일이 그렇게 돼서 미안합니다.》
《뭘, 동무가 잘못했다구 그러오.》 기자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와 같이 다니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됐습니다, 어서 건강을 회복하시오. 우골리꼬브, 정황을 정확히 판단했소. 우리를 구출해주어서 고맙소. 주의하시오. 동무가 성해있으니 다행이요.》 와씰리가 말했다.
《나는 원형방어를 조직했습니다.》 우골리꼬브는 명랑하게 말했다.

《우리가 돌아가는것을 엄호해주시오.》하고 와씰리는 요구했다.
《엄호하겠습니다.》 우끌리꼬브가 호응했다. 《자 동무들, 파쑈놈들을 겨누시오. 어느 한놈도 우리 상위동무를 감히 쏘지 못하도록 합시다.》
정찰병들이 다리로 돌아왔다. 뚜껑을 닫은 땅크들이 수림변두리를 따라 조심스레 물러섰다.
저녁이 되였다. 날씨는 침침하고 축축한데다가 몹시 맵짰다. 연기와도 같은 안개때문에 눈이 쓰리고 숨쉬기조차 가빴다. 정찰병들은 전호에서 우들우들 떨었다. 습기에 젖은 외투는 천근같이 무거워지고 장화는 흙탕물에 후줄근해졌다.
《참, 여기 겨울이라는것이 무던히두 구질구만. 아마 우리 추위가 마음에 들지 않던 모양이지. 겨울이 어떻게 된판인지 이건 겨울이라기보다 순전히 군인들을 못살게 하자는거요.》
와씰리는 몸이 으시시해지면서도 어쩐지 속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올라왔다. (앓지 말아야겠는데. 평화로운 시기라면 이런 궂은 날씨에 벌써 감기에 걸려 넘어진지도 오랬을것이다. 게다가 끓는 물도 먹지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두주야째 싸우지 않았는가. 이 밤에 대대가 오지 못하면 도이췰란드놈들이 우리를 조일것이다.)
련대에서도 정찰병들의 형편을 리해하고있었다. 뽈로뽈리쩨브도 린뜨와레브도 까라바예브자신도 무전으로 그들을 고무해주었다.
《곧 가겠소. 계속 견제하시오.》
정찰병들의 우익에서와 좌익에서는 진짜 커다란 싸움이 한창 벌어지고있었다. 응당 그곳 린접사단들이 강가에 진출했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무엇인가를 실수했다.) 하고 와씰리는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보다 떨어지고있다. 꾸르쟈꼬브는 없다. 정말 부상당하지 않았던가? 그러니 밤에는 우리를 소멸할수 있다.…)
사실 도이췰란드놈들은 로씨야인들이 명중사격을 할수 없는 캄캄한 어둠이 깃들게 되면 정찰부대를 소멸하려고 했다. 그러나 놈들의 기도를 미리 간파한 와씰리는 뜻밖의 선물을 마련했다. 그는 우끌리꼬브의 땅크가 다리를 건너 자기한테로 오게 했다. 도이췰란드놈들이 기를 쓰며 기여드는 순간에 땅크병들의 포화력과 기관총사격으로

그놈들을 맞이했다. 밤이 이슥하여 갈기갈기 찢기여 만신창이 된 대대가 끝끝내 정찰소대에 당도했다.
《꾸르쟈꼬브가 어데 있소?》 와씰리는 낯모를 소위한테 물었다.
《대대장은 부상당했습니다. 거기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소위가 맥없이 손을 흔들고는 허리를 구부정하고 인스터부르그요새 영구화점을 향해 나아가는 자기 대원들의 뒤를 따라 달려갔다.
자기 련대의 그 낯모를 소위를 보는 순간 자기 다리가 구부러드는감을 느꼈다. 몸은 마치도 뼈가 고무로 변화된듯 나른해지면서 말을 듣지 않았다. 진드기처럼 끈덕지게 달라붙는 극복할수 없는 피로가 폭신한 이불마냥 와씰리의 머리를 내려덮었다.
그는 불덩이같은 이마를 십자로 가로지른 손목에 올려놓고 질척한 전호벽에 비스듬히 기대였다. 몸은 그 무슨 따스하고 컴컴한 미궁속으로 잦아드는것만 같았다.
와씰리는 얼마동안 눈을 붙였다. 주마첸꼬가 그를 깨웠다.
《안녕하십니까. 상위동지, 자 용기를 돋구게 어서 마시시오.》
그는 술이 든 물통을 내밀었다.
와씰리는 주마첸꼬가 물통을 가지고 여기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았다. 마시면서도 그것이 물인지 술인지도 가리지 못했다. 몇모금 넘기고서야 그는 카—하면서 잠에서 완전히 깨났다.
《동문 어떻게 여기에 다 왔소?》 와씰리는 주마첸꼬에게 물었다.
《난 어데 있어야 합니까? 난 맨앞에서 전진하는 대원들과 함께 왔지요. 어떻게 내가 상위동지를 버릴수 있겠습니까?》 주마첸꼬는 아낙네같은 목소리로 상냥스럽게 말했다. 《나는 대대를 앞질러 몇번이고 뚫고나오려고 했지만 어디 놔주어야지요. 헌데 다행히도 일이 비슷이 될 때라 우리는 두명이 죽고 세명이 부상됐을뿐인데 자동총수들은 거기서 거지반 쓰러졌지요.》
《기자가 무사히 갔는지 모르겠소?》
《그 대위동무말입니까?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상당했습니까? 난 보지 못했습니다.》
주마첸꼬는 말을 하면서 삶은 고기덩이와 흘레브와 감자알을 꺼내놓았다. 와씰리는 맛도 모르고 정신없이 집어삼켰다. 곁에는 정찰병

들이 서있었다. 그들도 말없이 물통을 내고 얼마간 요기를 했다.
《하필 우리가 이 묘지에 앉아있을게 뭐요? 저기 집으로 갑시다.》
쁘로레뜨낀이 입을 열었다. 그들은 방금전만해도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편리하게만 생각하던 미끈미끈하고 질척한 구뎅이에서 기여나왔다.
《상위동지, 참모부에서 찾습니다.》 와씰리가 감시소로 다가갔을 때 주마첸꼬가 알리였다.
《그런데 왜 여직껏 잠자코 있었소?》
《그렇게 식사를 시켜야 했으니깐요.》
《참모부는 어데 있소?》
《바로 저기 다리뒤 수림속에 있습니다.》 만약경우를 생각하여 와씰리는 쁘로레뜨낀을 데리고갔다. 질벅거리는 눈우로 걸으면서 와씰리는 비칠거리는 감을 느꼈다. (정말 내가 앓는게 아닐가?) 하고 그는 풀기없이 판단하였다. 배후에서는 야간전이 치렬하게 벌어지고있었다. 중대들은 보강된 구역을 깊이 밀고들어갔다. (우리는 임무를 다 수행했다. 방어선도 탐지해냈다. 다리도 선사했다.) 와씰리는 칭찬하리라고 지레짐작했다. 그는 공을 세웠다고 생각했다.
(이번에도 무사히 살아났군. 어머니, 저는 참으로 기쁩니다. 어머니는 아직 제가 죽었다고 울지 않아도 됩니다.)
참모부는 자그마한 진지에 자리잡고있었다.
까라바예브는 와씰리를 보고 즉시 찦차의 기관실덮개에 펼쳐놓은 지도앞으로 불렀다.
거기에는 꼴로꼴리쩨브와 린뜨와레브도 와있었다.
그들은 로획한 손전지를 지도에 비치고있었다.
《자기 부대를 당장 데리고오시오.》 까라바예브가 말했다.
《임무는 다음과 같소. 야간에 앞으로 뚫고나가서 새로 보강된 구역을 정찰하는것이요. 바로 여기요. 케닌스베르그에서 40키로쯤 떨어져있소. 이 구역을 데이머방어선이라고 부르고있소.
참모장동무, 와씰리에게 조회자료를 보장해주시오. 정찰구역말이요.…자기 지도를 보고 표시해두시오.》
와씰리는 촌락들의 이름에 반원을 그려넣으면서 마치 잠에 취한듯 멍청해서 지휘관의 말을 듣고있었다. 상관이 명령을 할 때에는 귀담

아들어야 했다. 그러나 극도의 불쾌감이 먼저 덮쳐들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인사도 나누지 않았다. 나의 부대에 누가 있으며 다 죽지 않았는지도 묻지 않았다.)

와씰리는 까라바예브의 가무잡잡한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는 요즈음 한순간도 쉬지 못한것 같았다. 얼굴에는 뼈만 앙상했다. 눈언저리는 어찌나 움푹해졌는지 눈색갈이 무엇인지도 가려보기 어려웠다. 그의 몸짓은 패기있고 강렬해보였다. (그는 내가 준 용수철에 의지하고있다. 그에게 있어서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와씰리는 문득 그 용수철이 그의 힘살을 팽팽하게 당겨주고 튼튼하게 해주며 힘을 얻게 한다고 느꼈다.

새로운 임무는 그에게 새힘을 북돋아주는것만 같았다. 까라바예브가 인사도 나누지 않고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는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였다. 와씰리는 지휘관에게 있어서 분초가 귀중하다고 생각했다. 전투는 계속되였다. 전진하기 위해서는 련대에 새로운 적정이 필요된다. 그것은 오직 와씰리만이 얻어낼수 있다.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자기 존재와 자기보다 임무를 더 잘 수행할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으로 하여 와씰리의 마음속에서는 불쾌감이 사그러지고 어느정도 자신을 위안했다. 와씰리는 련대장의 말을 주의깊이 들으면서 기어코 해내야 한다는것을 똑똑히 리해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잘 신속히 수행하겠는가를 궁리해보았다.

까라바예브는 임무를 하달하고 한마디로 《어서 가시오.》하고 말했다. 와씰리는 벌써 마음속의 준비를 갖추고 인스터부르그보다 더 강력한 데이머요새를 정찰하기 위한 당면한 전투에 필요되는 힘을 모으고있었다.

린뜨와레브는 와씰리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와씰리동무, 정찰병들에게 지휘부의 감사를 전해주시오.》 방금전에 바라마지 않던 그러한 칭찬은 이제 와서 쓸데없는것으로 되였다. 서둘러야 했다. 당장 행동해야 한다. 말하고있을 정황이 못된다. 와씰리는 참모장한테서 조회문건을 받았지만 그것을 읽어볼새가 없는것이 안타까왔다. 꼴로꼴리쩨브는 그것을 리해하고 두손을 흔들었다.

《가지고가서 읽어보시오. 여러부 복사해뒀소. 그럼 성공을 바라오.》

그동안 꾸르쟈꼬브는 축축한 비탈면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아래로 굴러내려왔다. 그의 한쪽팔은 붕대로 목에 걸어놓았다. 다른 팔은 나이가 든 도이췰란드대좌놈을 움켜잡고있었다. 그놈은 외투팔소매를 뽑으려고 했지만 꾸르쟈꼬브가 꽉 움켜잡고 다급히 끌고왔다. 그는 와씰리를 보고 반가와했다.

《아니 동무가 살아있소? 드디여 나타났군. 바로 이런 삼치를 잡아야 해. 정찰병동무.》하고 말하고나서 까라바예브에게 보고했다.

《대좌동지, 받으십시오. 이놈은 우리 맞은편에 있는 913련대장입니다.》

《동무는 왜 구급소에 있지 않소? 동무에게 대대를 인계해주라고 하지 않았소.》 까라바예브는 엄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러한 거짓위엄은 오히려 열정적인 군관으로 하여금 매혹을 느끼게 했다.

《그래서 저는 지휘하지 않습니다, 대좌동지.》 꾸르쟈꼬브는 장난군같은 시선을 번뜩이며 대꾸했다.《구급소에서 붕대를 감아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멀쩡하니 앉아있겠는가고 생각했지요. 걸어다닐수 있겠는지 했더니 일없어서 대대로 돌아갔습니다. 때마침 이 게사니새끼를 잡았지요. 저하구 대대장 둘이서 이놈의 련대를 다 뒤졌습니다. 저는 땅크병들과 함께 적 배후로 들어가고 쓰삐리도노브는 정면으로 들이쳤습니다. 놈들은 발을 거꾸로 쳐들고있었습니다. 놈들은 야외방어선의 전호에 앉아있었지요. 영구화점에 박혀있는 놈들은 아직도 으르렁대고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까라바예브는 포로에게 물었다.

률렌꼬브소좌가 련대장과 포로사이에서 통역을 해주었다.

《클라우스 한쎈대좌요. 913련대장이요.》 포로가 희끄무레한 머리를 버쩍 쳐들고 존엄있게 대답했다.

까라바예브는 미소를 지었다.

《사실 당신한테는 〈13〉이라는 수자가 신수사나운 수자요. 우리는 당신네 방어선을 1월 13일에 돌파했소. 당신의 련대번호가 공교롭게도 수자 〈13〉으로 끝나고있소. 그래서 바로 당신도 포로된

거요.》
《그건 우연한 일치지요. 내가 포로된것은 완전히 우연입니다. 당신의 땅크들이 요새를 우회하여 지휘소에서 나를 체포했소. 나의 련대는 나에게 위임된 진지를 방어하고있소. 당신들은 돌파하지 못합니다.》 포로가 거만하게 대꾸했다.
까라바예브는 꾸르쟈꼬브를 의심스럽게 쳐다보았다.
《그놈은 잘 모르고있습니다.》 꾸르쟈꼬브가 응대했다. 《놈들의 모든 포병도 박격포병도 다 장악했습니다. 바로 저기 수림속길가에 놈들이 있습니다.》
까라바예브는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거무틱틱하고 바람과 추위에 마른 그의 얼굴은 활기를 띠지 못했다.
《그럼 대좌나리, 나는 당신과 공담할새가 없소. 직접 자기 련대포로들을 안내하시오. 련대전원이 다요. 당신도 알겠지만 살아남은 졸병들이 줄을 지어 서있단말이요.》
《그렇게 될수 없습니다.》 포로가 큰소리로 말했다. 그의 어조에는 교만성보다 놀라움이 더 컸다.
《가보시오. 당신에게 련대를 보여줄게요. 포로병대렬을 책임지시오.》
포로는 옆으로 물러섰다. 그놈은 잠간 말이 없다가 풀이 죽어서 맥없이 조용히 까라바예브에게 간청했다.
《당신은 나한테 탄알을 한개만 주지 못하겠소? 당신도 장교이구 련대장이니까 리해할수 있을거요.…》
《그런 생각은 미리 했어야 할걸 그랬소.》 까라바예브는 준렬하게 말했다. 《끌어내가시오.》
와씰리는 받은 조회문건을 감추고 질척한 눈우로 성급히 뛰여갔다. 걸어가면서 그는 어떻게 전투예비물자를 신속히 받아 땅크에 공급하며 적의 종심을 더 잘 돌파하자면 어디로 가야 하겠는가를 골똘히 생각했다. 쁘로레뜨낀은 겨우 뒤따라가면서 오른쪽에 서기도 하고 왼쪽에 서기도 하면서 물었다.
《새로운 임무입니까?》
《그렇소.》

《이제 우리는 어데로 가야 합니까?》

《데이머계선으로.》

와씰리는 비록 그 방어선의 일반적특징이라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몇분간을 소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꼴로꼴리쪠브한테서 받은 문건을 야전가방에서 꺼냈다. 손전등을 비치고 쁘로레뜨낀도 들을수 있게 소리내여 읽었다.

《〈데이머방어선은 데이머강의 서쪽기슭에 늘어져있다. 40년도에 건설되였다. 철근콩크리트영구축성물은 가파로운 강기슭에 접해있다. 완전전투정량과 물과 식량을 예비로 가지고있는 다층영구화점들은 벽의 두께가 1메터나 된다. 완전한 포위속에서도 전투를 할수 있게 설비되였다. 포화력의 지원도 요구할수 있다. 방어중심은 10～15키로메터이다. 영구시설물사이에는 야외방어선이 구축되여있다.…〉바로 여기요. 쁘로레뜨낀, 우리가 갑시다. 도이췰란드놈들은 자기 영구화점에 앉아있게 합시다. 지금 놈들은 벌판에서 우리를 견제해내지 못하고있소.》

와씰리의 소대가 데이머계선의 어느 한 집에서 휴식한지 사흘이 지나서 사관장 주마첸꼬가 다리에 털이 부시시한 도이췰란드놈의 역말을 타고 달려왔다. 그는 로획한 말을 길들이느라고 고생했다.

《우리 구령을 영 알아듣지 못하는군, 악마같은게. 에잇, 서라. 너한테 말하는거다.》

주마첸꼬는 여느때처럼 보온통에 따끈따끈한 식사를 날라왔다. 그밖에 반가운 소식도 가져왔다.

《동무들, 보시오. 신문에 동무들에 대한 기사가 실렸소! 임무를 수행하러 동무들과 함께 다니던 그 기자동무가 쓴거요.》

《그러니 살아있단말이요!》 와씰리는 기뻤다.

주마첸꼬는 기념으로 남겨두라고 매 사람에게 신문을 한장씩 다 나누어주었다. 그 신문은 자기 대원들에 대한 기사가 소개된것을 알고 주마첸꼬가 아직 헤치지도 않은 새 신문을 통구리채로 움켜잡고 《매 정찰병들에게 다 차례지게 주시오. 결사전에 나서는 동무들이요.》하고 특별히 더 가져온것이였다.

와씰리는 기사를 읽었다. 거기에는 모든것이 사실대로 씌여있었다. 그

런데 어딘가 모르게 극구찬양한데가 있었다. 기자가 정찰병들에 대하여 얼마나 존경심을 가지고 썼는지 와씰리는 흥분과 긍지감으로 하여 목이 꽉 메였다. (이게 진짜 우리란말인가?)라고 생각하면서 믿지 못했다.

《기자가 어느새 그 모든것을 쓰고 기억해냈소?》 쁘로레뜨낀이 감탄했다. 《그가 우리와 함께 싸우긴 했어두…》

《참 빨리두 썼소.》 보브까가 놀랐다.

《죽을가봐 걱정인들 얼마나 했소.》 로가찐이 엄숙히 말했다. 모두가 로가찐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침묵을 지켰다. 기자는 중상을 당했었다. 그는 아마 자기가 사랑하는 정찰병들의 자랑을 묘지에 날라갈가봐 서둘러 썼을런지도 모른다.

《정말 이것은 훌륭한 옛말이요.》 쁘로레뜨낀이 말했다.

《나는 이전에 기자에 대해서 그저 차나 마시구 기사나 쓰는 후방의 서기로만 생각해왔댔소. 알고보니 기자는 사람들과 함께 전투도 해야 하고 큰것을 기사로 쓰기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으며 더구나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다는것이요.》

《그가 그걸 다 쓰자니 얼마나 힘들었겠소.》 와씰리가 긍정했다.

《모름지기 죽음의 고비를 이겨낸것만해도 여러번 될거요. 이 훌륭한 사람들에 대하여 글을 쓰게 좀 기다려주려무나라고 했을거요. 그러나 자신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소.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몇갑절 어려운 고비를 겪지 않으면 안되였소. 사람들은 기사를 읽으면서도 누구도 그가 배에 총알이 박힌채로 쓴것이라는것을 모르고있지 않소!》

《혹시 그 기자가 죽지 않았을가요?》 보그단이 물었다.

《수술이 이미 끝난 후에 썼다면 물론 살아있을거요!》

《그러면 우리한테 또 올거요.》 정찰병들은 기자가 잘되기를 바라며 겨끔내기로 떠들썩하게 말하였다.

× ×

1945년 1월 13일부터 28일까지사이에 까라바예브의 련대가 속한 제3벨라루씨전선군은 동프로씨아의 종심을 120키로나 돌파하

고 케닌스베르그시의 요새에로 진출하였다.

그동안 제2벨라루씨전선군은 공격을 들이대면서 동남쪽에서 발뜨해까지 파쑈도배들을 밀고나갔으며 프로씨아와 도이췰란드를 련결하는 모든 도로들을 다 차단해버렸다.

케닌스베르그에는 13만명의 도이췰란드군이 포위된채로 남아있었다.

공격하는 과정에 와씰리는 자기 련대에서 같이 복무하는 사람들과 함께 최고사령관으로부터 네차례에 걸치는 감사를 받았다. 감사는 신문에 발표되였으며 매 개인에게 표창장 비슷하게 두툼한 종이로 찍은 명령을 전달하였다. 모스크바에서는 련이어 축포가 올랐다.

《바로 그렇게 우리를 축하하고있소.》 뻐로레뜨낀이 눈을 반짝거리면서 자랑스럽게 말했다.

신문들에서는 거의 매일과 같이 새로운 승리에 대하여 소개했다. 뻐로레뜨낀도 그 소식을 읽으면서 해설했다.

《이전같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만 읽었겠는데 지금은 모두들 우리가 시시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것도 알리고있소! 자, 들으시오. 동무들!

〈최고사령관 명령

제3벨라루씨전선군사령관

체르냐홉쓰끼대장

전선참모장

뽀크롭쓰끼대장 앞

제3벨라루씨전선군은 공격에로 넘어가면서 포병대와 항공대의 집중적인 타격지원을 받아 동프로씨아에서 도이췰란드놈들의 종심깊이에 종장으로 배치된 영구방어선을 돌파하였으며 적의 완강한 저항을 물리치고 5일간의 공격전투에서 45키로메터나 전진함으로써 60키로메터까지 전선돌파구를 확대하였다. 공격과정에 전선군은 요새화된 필할렌시와 라트니트시를 공격하여 점령하였으며 도이췰란드놈들의 강력한 방어지탱점들인 쉴레넨, 라즈데넨, 쿠쎈, 나우이에닌켄, 렌흐웨텐, 크라우피쉬켄, 브라후페넨을 장악하고 전투를 통하여 600개이상의 촌락들을 해방하였다.…》

계속하여 지휘관들의 이름이 있었다. 그속에는 까라바예브의 이름은 없었다. 최고사령관의 명령에는 려단장과 사단장이상급의 지휘관들 이름만 밝혀져있었다. 도브로호또브장령은 물론 있었다.

쁘로레뜨낀은 계속 읽었다.

《〈…오늘 1월 19일 21시에 우리 조국의 수도 모스크바에서는 조국의 이름으로 동프로씨아에서 도이췰란드놈들의 방어선을 돌파한 제3벨라루씨전선군의 용맹무쌍한 부대들을 위하여 224문의 대포로 각각 21발의 례포를 울린다.

도이췰란드놈들의 방어선을 돌파하는 전투에 참가한 지휘관들에게 특출한 전투행동들을 축하하여 감사를 보낸다.

우리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희생된 영웅들에게 영원한 영예가 있으라!

도이췰란드침략자들에게 죽음을 주라!〉 이렇소. 동무들, 참 일이 멋들어지게 됐소.》 쁘로레뜨낀은 환희에 휩싸여 말을 끝냈다.

인스터부르그의 강력한 방어선을 쟁탈하기 위한 전투가 있은 후 신문들에는 새로운 명령이 발표되였다.

《오늘 1월 22일, 제3벨라루씨전선군은 동부프로씨아에서 주요한 도로분기점이며 케닌스베르그로 가는 로상에서 강력히 보강된 도이췰란드놈들의 방어구역인 인스터부르그를 장악하였다.…》

와씰리는 시가지가 굉장한 우등불처럼 그렇게 불붙는것을 본 일이 없었다. 인스터부르그는 극장무대처럼 시뻘건 화염에 잠겨있었다. 연기는 거의나 없었고 도처에 불길만이 너울거리였다. 그 불바다속에서 여기저기에 다층건물들의 기둥만이 앙상하게 보였다.

며칠 지나서 정찰병들은 체르냐홉쓰끼대장에게 온 전투상보를 읽었다.

《제3벨라루씨전선군은 오늘 1월 26일 전투를 하면서 동프로씨아의 도시들인 타피아우, 알렌부르그, 노르덴부르그, 레흐쩬과 동프로씨아의 중심구역을 엄호하는 도이췰란드놈들의 영구방어선의 강력한 지탱점들을 장악하였다.…》

이것은 체르냐홉쓰끼앞으로 보낸 마지막상보이였다. 1945년 2월 18일 전선군사령관은 멜리자크시부근에서 가슴에 맞은 포탄파편

으로 하여 전사하였다. 와씰리는 률렌끄브소좌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믿어지지 않았다.
《그럴수 없소! 누가 꾸며낸것이요!》
《사단참모부에서 방금 전화로 알려왔소.》 률렌끄브는 그 슬픈 소식이 틀림없다고 했다.
와씰리에게는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다. 공격을 하거나 육박전을 할 때, 사격을 하거나 폭격을 할 때 장병들이 희생되는것이 와씰리는 전쟁인것만큼 이것을 불가피한 일로 생각해왔었다. 그러나 체르냐홉쓰끼가 어떻게 희생될수 있는가?! 와씰리에게는 전선사령관의 용감하고 멋지게 생긴 얼굴이며 친절한 시선 그리고 곱실곱실한 머리카락이 선히 떠올랐다. 순간 그는 사령관이 자기곁에 와앉았을 때 맡았던 상쾌한 미안수냄새까지 느끼는것만 같았다.
《그가 죽었다고 그저 상상할수 없소.》 와씰리는 실망에 잠겨 말했다. 《그야 력사적인 인물이 아니요. 그런 사람은 희생될수 없단 말이요.》
률렌끄브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오래전에 신중히 생각해낸것처럼 비애에 잠겨 말했다.
《모든 사람들이 죽기는 마찬가지요. 그러나 력사적인간의 죽음은 항상 잘 믿어지지 않소.
마치 그런 사람들은 죽음을 초월한 인간처럼말이요. 그들은 력사에 기록되고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영생하는것이요.》
그들은 말없이 침묵을 지키면서 담배연기만을 내뿜었다. 그들은 장령을 생각하며 비통해하였다.
체르냐홉쓰끼가 전사한 후 제3벨라루씨전선군은 와씰렙쓰끼원수가 지휘하게 되였다. 그는 케닌스베르그에 대한 부대들의 공격준비를 직접 지휘하였다.
와씰리는 종전과 같이 자기 정찰병들과 함께 선참으로 시가지로 진출했다. 전쟁기간에 그는 강력한 요새들을 수많이 보아왔다. 참모부에서 보내온 조회자료에는 적들이 케닌스베르그부근에서 그들을 기다리고있다고 예측되여있었다. 와씰리는 쌍안경으로 계속 성시를 살피면서 강한 충격을 받았다.

와씰리는 자기가 보고있는 모든것이 위장되지 않은 요새의 자그마한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나머지것들은 땅속에 깊숙이 은폐되여있다고 판단했다.
《저런것을 돌파하자면 아마 누구나 힘에 부칠거요.》하고 와씰리는 조용히 말했다. 그는 련달아있는 영구화점과 토목화점, 콩크리트반전차주와 철조망들을 보느라니 말도 크게 할수 없을 정도로 긴장해졌다. 앞에는 지뢰마당도 있다는것이 알렸다.
《일없습니다. 상위동지.》 쁘로레뜨낀이 말했다. 《먹고 자면서 기운을 얻느라면 케닌스베르그가 한상 차려놓을겁니다.》
그처럼 《먹고 자고 기운을 얻는 일》이 두달째나 계속되였다. 부대들은 공격준비를 하면서 요새의 략도와 모형을 연구하고 현지에서 훈련도 하고 보병과 포병, 화염방사기수들과 땅크병들사이의 협동동작을 익혀갔다.
대대와 중대들에는 고급기능공들과 기사들, 상급참모부에서 보내온 정찰병들이 당도했다. 그들은 케닌스베르그요새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극복하겠는가에 대해 전투원들에게 이야기해주었다. 정치일군들은 조국땅에서 선조들이 쟁취한 영광스러운 승리에 대하여, 지금 다른 전선들에서 세우고있는 위훈들에 대하여 담화를 하였다.
까라바예브련대에는 군사참모군관 끼르끄중좌가 내려와서 도이췰란드의 어느 한 공장의 텅 빈 직장벽에 큰 도면들과 사진들을 걸어놓고 군관들과 보병대대들과 전문구분대 병사들에게 강의를 해주었다.
이러한 강의들은 자주 생활적인 담화로 넘어가군했다.
《인스터부르그와 데이머방어선은 매우 견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냈습니다.》 끼르끄중좌가 말꼭지를 뗐다. 《케닌스베르그도 견디여내지 못하리라는 근거가 다 있습니다.》
《참빗으로 살살이 빗어줍시다.》 앞줄에 앉은 코수염이 난 중사가 유쾌하게 호응했다.
《하지만 동무들, 요새의 위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끼르끄가 계속했다. 《그것은 700년동안 건설되고 완비된것입니다.

그동안에 요새의 모든것이 발전되고 완성되여왔습니다. 케닌스베르그는 파쑈도이췰란드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요새입니다. 베를린도 다른 모든 도시도 그와는 대비조차 할수 없습니다. 이 략도를 보십시오.》

끼르꼬는 련달아 그어놓은 몇개의 동그라미가 있는 큰 략도에 다가가서 시구역에 네모나게 검은 테두리를 그려넣었다.

《첫번째 방어선은 바깥테두리라고 합시다. 여기에는 세개의 진지가 있는데 전호가 넉줄로 늘어져있습니다. 반전차호와 지뢰폭탄과 착발지뢰며 철근콩크리트로 된 반전차주와 반전차레루와 철조망에다가 눈에 겨우 뜨이는 특별한 장애물도 있습니다. 이 모든것들이 요새접근로에 있습니다. 그것들은 여러층의 포병과 기관총화력의 엄호를 받게 되여있습니다.》

끼르꼬는 다른 략도에로 넘어갔다.

《도이췰란드놈들은 요새의 전연을 〈케닌스베르그의 잠옷〉이라고 부르고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편안히 드러누워 잘수 있다는것을 념두에 둔것입니다. 말하자면 자기들의 생각에는 난공불락의 요새라는거지요.》

《잠옷을 벗겨서 필요한데 줍시다.》 코수염이 난 그 중사가 유쾌하게 맞장구를 쳤다.

《이와 같이 열다섯개의 보루는 요새축성물의 기초를 이루고있습니다. 이것들은 련결된 고리로써 도시를 둘러싸고있는데 매개 보루는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있습니다. 자, 보시오. 〈프리드리흐왕〉, 〈마리엔베르그〉, 〈크웬다우〉, 〈루이스녀왕〉, 〈칼헨〉, 〈칸니쯔〉, 〈렌도르프〉, 〈포카르트〉…모든 보루들은 륜환식도로를 통하여 서로 련결되여있습니다. 매개 보루에는 다층철근콩크리트축성물이 있는데 여기에는 발전소와 량식창고며 예비물자와 병원도 있습니다. 벽의 두터이는 세메터가 넘습니다. 무장장비는 수십정의 기관총과 두세개의 포병대대들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대대까지 위병대를 가지고있습니다. 보루앞에는 너비 20메터, 깊이 7메터의 반전차호를 파놓았습니다. 거기에는 도하기재를 리용하기 힘들게 물을 절반밖에 채우지 않았습니다.》

유쾌한 중사는 롱담을 할념도 못하고 묵묵히 략도만 쳐다보고있다

가 강의가 끝난 후에야 조용히 끼르끄를 욕하면서 말했다.
《중좌동지는 왜 우리를 놀래우려고 합니까? 어쨌든 우리가 당신의 요새를 까부시면 될게 아닙니까.》
《내것이 아니라 놈들의 요새요.》 중좌가 타협조로 말했다.
《나도 동무들과 함께 그것을 점령하겠소. 나는 아직 말을 다하지 않았소. 이제 마저 들으시오. 이 시설물의 약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이요.》
《아, 그런 말은 우리한테 쓸모가 있습니다.》
《아시다싶이 어떤 기계나 어떤 요새도 사람이 없이는 죽은것이나 다름없소. 동무들도 말하지만 그 요새에는 사람들이 있소. 그럼 어떤 사람들이겠소? 우리한테 여러번 얻어맞아 만신창이 된 파쑈놈들이요. 이것들은 1941년도에 자신을 초인간이라고 자처하던 그때의 그런 도이췰란드놈들이 아니요.》
와씰리의 귀에서는 파렴치한 웃음소리가 들리였다. 모스크바부근 신작로에서 폭격이 진행될 때 눈앞에는 체육인답게 생긴 건장한 도이췰란드놈이 서있었다. 그놈들이 얼마나 자만심을 가지고 태연스럽게 웃어댔던가! 그러던 놈들이 포로되였던것이다.
《히틀러군대의 사기는 저락되였습니다.》 끼르끄가 계속했다. 얼마전에 이 콩크리트장벽너머에 앉아있었던 포로들이 잘 말해주고있다. 그는 문건을 뒤지였다.
《자, 이거라도 보시오. 이것은 와씰리상위의 정찰병들이 끌어온놈입니다.》
《그런놈을 알고있습니다.》
《포로는 강제로 징발된 요한 아이켄이라는 놈이요. 그놈이 말하기를 〈우리는 싸우고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전쟁에서 졌다는거야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장교들과 에쓰에쓰대원들은 우리를 내몰고있습니다. 매일과 같이 우리를 보구 비겁쟁이라고 하면서 총살된 사람들의 명단을 읽게 했습니다. 시내광장에서는 탈주병들을 거꾸로 달아매고있습니다. 총통은 새로운 비밀무기가 나온다고 약속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젊은 돌격대원들은 가사를 바꾸어 노래부릅니다. 우리는 늙은 원숭이들의 새로운 무기노라구말입니다.

시내에서는 열여섯살부터 예순살까지의 남자들은 다 격전장에로 내몰리고있습니다. 우리한테서도 진지에서 퇴각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아냈습니다. 우리보구 퇴각하면 총살한다.〉는겁니다.》

적의 방어시설을 연구하면서 정찰병들은 그 요새에 들어박혀있는 놈들의 정신상태를 료해하려고 했다.

《우리한테 쓰딸린그라드에서 싸워본 사람이 없소?》하고 어느날 와씰리는 물었다.

《제가 싸웠댔습니다.》 하미둘린이 말했다.

《동무들은 며칠간 견제했댔소?》

《반년동안 지켜냈습니다.》

《화점에서 어떻게 살았으며 무엇을 했는지 말해보시오.》

《우리에게는 그렇게 철근콩크리트로 된 굉장한 요새가 없었습니다. 그저 전호와 엄페호에 앉아있었지요. 머리우에 한두대의 통나무를 얹어놓았을따름이지요. 집들은 수없이 파괴됐습니다. 거기는 여기처럼 요새도 아니고 그저 도시가 있었을뿐입니다.》

《그래 질서는 어떠했소?》

《어떠했는가구요? 하루에 스무차례나 공격을 물리쳤지요. 바로 그런 질서가 있었답니다. 한걸음도 뒤로 물러설수 없었지요. 도이췰란드놈들을 볼가강뒤로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어코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동무, 말귀를 좀 알아들으라구.》 와씰리가 집질기게 들이댔다. 《우리한테는 영구방어선에서의 생활세부가 필요하단말이요.》

하미둘린은 모욕감을 느꼈다.

《우리한테 파쑈놈의 생활을 알수 있는 그런 세부가 있는가말입니까? 네?》

《참 피벽하군. 왜 노여워하오? 새로운 정찰조건에 우리를 순응시켜주어야 한단말이요.》

《방어선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상위동지, 지금 우리는 어떠한 요새도 우리앞에서는 배겨내지 못할 그런 용사들로 되지 않았습니까.》

돌격준비과정에 련대에서 가장 인기있는 사람들은 비르낀기사와 공병들이였다. 뽀차뜨낀은 벌써 상위가 되여 공병중대를 지휘하고있

었다. 그는 《창조와 파괴》 (공병작업을 그렇게 불렀다.)의 복잡한 과학을 섭취하였다.

밤마다 뽀차뜨낀은 와씰리와 함께 중립지대를 다니면서 보루와 영구화점에 몰래 접근했다. 그는 요새를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련대에 안전하게 길을 열어줄것인가를 생각해내야 했다. 와씰리는 자기 정찰병들과 함께 야간기습을 하면서 항상 그를 엄호해주었다.

《또 나를 호송해주는군.》 뽀차뜨낀은 자기들이 첫 상봉하던 때를 암시하면서 롱담을 했다.

《동무네 뇌수를 지켜주자는거요.》하고 와씰리는 대꾸했다.

《자, 어서 생각해내라구. 쓸데없는 공론을 할새가 없소.》

밤이면 그들은 반전차호로 슬그머니 기여가 바줄을 잡고 썩은 냄새가 풍기는 고요한 운하바닥으로 내려갔다. 고무뽀트를 타고 물우에 솟아있는 거밋한 화구가 난 3층짜리 콩크리트담벽에로 접근했다. 정찰병들과 공병들이 푸른 물이끼가 썩은 냄새로 들어찬 반전차호바닥에 가라앉게 하자면 또 한번의 점발사격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포대에서는 사격을 하지 않았다. 콩크리트담벽안에 있는 도이췰란드놈들은 앞에 있는 야외전호들에서 사단과 련대들이 자기들을 지키고있다는것을 알고 편안히 잠자고있었다. 도이췰란드놈들은 무슨 로씨야인들이 감히 여기로 기여들며 기관총구아래에서 헤염칠 용맹을 발휘하겠는가고 속단하고있었다.

뽀차뜨낀은 포대의 차거운 담벽을 더듬으면서 돌과 콩크리트로 쌓은 기슭을 살피고 돌과 콩크리트쪼각을 뜯어내여 호주머니에 넣고 물깊이와 물면에서 반전차호의 높이를 쟀다.

바줄을 잡고 올라올 때 우에서는 쁘로레뜨낀과 로가찐, 보그단이 머리를 숙이고있었다. 그들과 함께 뽀차뜨낀중대의 공병들도 있었다. 그 기슭에서 그들은 반전차호도 재고 진흙과 콩크리트견본도 수집했다.

《혹시 〈혀〉를 잡을수 있지 않겠소?》 와씰리가 물었다.

이전같으면 뽀차뜨낀은 이런 제안을 선뜻 반대해나서지 않았을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머리를 흔들며 소곤거리였다.

《절대로 안됩니다. 우리의 정보는 동무의 열놈이나 되는 이투성이

도이췰란드놈들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들은 적진에서 무사히 빠져나왔다. 자기 전호에서 뽀차뜨낀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동무가 포로를 끌어온다면 그가 요새의 구조와 견고성에 대해 말할수 있을것 같소? 병사는 물론 장교라도 그런것을 어떻게 알겠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알아내고있지 않소.》
낮에 휴식하고나서 와씰리는 비르낀소좌의 엄페부에 앉아서 뽀차뜨낀이 련대기사와 함께 계산해낸 자료를 들었다. 그들은 어떤 각도를 재면서 편람에 있는 자료를 찾아보았다. 거기에는 길다란 수자와 공식들이 씌여있었다.
와씰리는 자기의 친구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군사칭호상 소좌며 군대기사라고 해도 뽀차뜨낀은 그들이 말한것들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더 잘 분석해나갔다. 비르낀자신도 와씰리에게 말하면서 자기 방조자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였다.
《머리가 아주 비상하군. 생기발랄하구 담차구 기민한 지혜를 가졌소. 저 동무에게 공장을 건설하라구 했으면 좋겠소.》
《나의 첫 중요한 계획이 그 무슨 튼튼한 재질로 건설된 구조물을 파괴하는데 이바지하리라고 생각해본적은 없습니다.》 뽀차뜨낀은 종이장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참모부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와씰리는 이렇게 물었다.
《무슨 일로 비르낀이 동무를 그렇게 칭찬하오? 동무가 뭘 고안해냈길래?》
뽀차뜨낀은 빙그레 웃으면서 마지 못해 대답했다.
《내가 제기한건 그저 단순하게 예상한대로 기슭과 포대를 파괴하자는게 아니라 목적지향성있게 폭파해버리자는거지요. 말하자면 담벽들이 물이 있는 운하쪽으로 무너져서 뚝을 형성하도록 하자는거지요. 그러면 뚝을 따라 공격자들이 통과할게 아닙니까.》
《동무야말로 천재요!》 와씰리는 환성을 올리였다.
진짜 누구누구해도 바로 뽀차뜨낀의 구상이 참으로 기특하며 훌륭한 구원수단이라는것이 와씰리에게도 제꺽 리해되였다. 그는 물이 차있는 반전차호에 련대가 들어서게 된다면 모든 세개층의 화구에서

일시에 기관총들이 전투원들을 향하여 사격하리라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여기서는 한초가 아니라 백분의 일초라도 귀중하다. 휴대한 도하기재를 투하하는동안 놈들이 알아차리지 않을가? 물에 내려가는 동안에는… 3메터두께의 콩크리트담벽뒤에 숨은 10정의 대구경기관총이 불을 토할것을 생각하면 무서워졌다.

《어떻게 되겠는지 좀 생각해봤소?》 뽀차뜨낀이 계속했다.

《반전차호에 돌격조가 접근하고있소. 그러자 여기서는 폭발이 일어난단말이요. 그러면 반전차호가 메워지오. 모두가 멈추지 않고 별반 손실도 없이 저쪽기슭으로 넘어가게 되오. 일없겠는지, 어떻게 생각하오?》 뽀차뜨낀이 물었다.

《이미 말했지만 동무는 천재요. 동무를 호송해온건 결코 헛된 일이 아니였소.》

《여기서 아직 다는 생각해내지 못했소.》 뽀차뜨낀이 말했다.

《어떻게 하면 폭발물을 미리 날랐다가 틀어막겠는가 하는거요. 공격자들이 접근할 때는 모두가 자기 위치에 있어야 하거든. 오직 그런 경우에만 우리의 기도가 실현될수 있소.》

와씰리는 무엇인가 유익한 방안을 내놓고싶었다. 그는 모든 세부에 이르기까지 그 작전을 상상해보면서 그것을 자기가 참가했던 다른 작전들과 내심으로 대비해보았다.

그러는사이에 그들은 지주저택의 널직한 방안에 놓여있는 식당으로 다가갔다. 초상으로 그려넣은 고운 선녀들이 천정에서 금물을 먹인 식탁에 둘러앉은 군관들을 놀라운 기색으로 내려다보았다.

와씰리와 뽀차뜨낀은 말없이 식사를 하며 폭파를 어떻게 조직할것인가를 모색해보았다. 돌아가는 길에 와씰리는 이렇게 제기했다.

《여보게, 만일 대낮에 정찰하면 어떻겠소? 기억나지만 한번은 대원들을 데리고 꼭대기에 잔디를 가리워놓은 구뎅이에 하루종일 앉아있던 일이 있었소. 지금 그렇게 해보는게 어떻소? 거기로 미리 기여가서 다 준비해놓고 기다린단말이요.》

뽀차뜨낀은 그 방안을 즉시 거절했다.

《그때는 전혀 다른 환경이 아니였소? 하지만 여기에는 가장 위력한 항공과 포병대준비사격이 예견되는데 그러면 자기 편에 맞아죽지

않겠소?》
《동무 말도 그럴듯하오.》 와씰리는 긍정했다.
《출로는 하나뿐이요.》 뽀차뜨낀이 말했다.
《모든것을 미리 준비했다가 땅크를 타고가면서 동시에 공격해야 하오. 그 땅크들의 화력엄호를 받으면서 폭발물을 장진하고 폭파시켜야 하오.》
《만일 땅크가 잘못되면?》
《별일이 다 있을수 있지. 그러니까 공병들이 행동방안을 여러가지로 선택하고 폭발물도 몇조 더 준비하기요. 그리고 경험있는 폭파수들과 지휘관들도 몇명 더 붙여줍시다.》

× ×

드디여 돌격의 밤, 4월 6일의 밤이 닥쳐왔다. 선두대대들은 파쑈놈들을 짓부시며 요새에로 바싹 접근했다.
아침 10시에 5천문이 넘는 대포가 장벽으로 둘러싸인 요새를 향하여 입을 열었다. 두시간동안이나 맹렬한 집중포화를 들씌웠다.
공병들의 행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찰소대가 선발되였다. 와씰리는 뽀차뜨낀과 함께 엄폐호에 앉아있었다. 공병중대가 돌격대에서 갈라져나왔다. 뽀차뜨낀자신은 한개 소대와 같이 행동하기로 했다. 그 소대는 기본방향에서 진출하면서 제방을 폭파해버려야 했다.
련속사격이 있은지 한시간 지나서 포탄들이 요새와 영구화점의 모든 위장을 다 벗겨버렸다. 수십메터에 달하는 땅의 걸면과 숲들과 나무, 벽돌로 쌓은 벽이며 상부구조물들과 보조시설물들이 날아났다. 요새와 영구화점들은 벌거숭이가 되여 지금은 불에 그슬리고 재빛으로 변하여 불타버린 산처럼 놓여있었다.
위력이 센 포들이 자기의 포성으로 모든것을 삼켜버리면서 멸적의 아가리를 벌렸다. 3메터의 벽이 처음에 포탄을 내뱉으며 우르렁거리더니 쿵쿵거리다가 가라앉았다.
비행기들이 요새상공에서 세겹으로 선회하고있었다. 추격기들은 다른 비행기들보다 높게 뜨고 그아래에는 폭격기들이 또 그아래에

는 습격기들이 날아들었다. 연기에 휩싸인 요새구역에서는 축성물 쪼각들과 뿌리채 뽑아진 나무들이 허공으로 솟구쳐올랐다.

낮 한시에 총공격이 시작되였다.

《자 동무들, 갑시다.》 뽀차뜨낀은 통로를 내야 하는 곳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땅크들이 짜르릉거리면서 가스를 내뿜으며 공격마당으로 나갔다. 포병들은 포신을 앞으로 내밀고 포를 끌고갔다. 보병들은 파도처럼 밀려나갔다. 모두가 걸음을 멈추지 않고 적화구를 향해 계속 사격했다. 그 화력의 엄호를 받으며 기습조들이 전진했다.

뽀차뜨낀은 공병들과 함께 첫장약을 폭파했다. 뽀차뜨낀의 가까운 기슭이 물속으로 미끄러져내렸다. (참 장하다. 모든것을 얼마나 멋지게 계산해냈는가.) 하고 와씰리는 땅크뒤를 따라 달려가면서 생각했다.

땅크로 끌어당기는 떼목우에 폭발물을 올려놓고 공병들이 화구에서 불길과 연기를 내뿜고있는 요새에로 다가갔다.

《더 빨리 쏘시오. 놈들에게 사격할 틈을 주지 마시오.》 와씰리는 포병들과 땅크병들에게 소리질렀지만 누구도 그러한 폭음속에서 그의 말을 듣지 못했다. 와씰리는 직접 자동총으로 화구를 정확히 겨냥하고 사격했다. 땅크뒤에서 저격수들이 련이어 명중탄을 안기였다. 적기관총들이 헐떡거리다가 잠잠해졌다. 그러나 도이췰란드놈들은 죽은 기관총수들을 즉시 갈아대면서 다시금 사격을 했다.

마침내 공병들은 물우에 수직으로 삐여져나온 콩크리트담벽에 당도했다. 떼목우의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었다. 그들은 물속에 빠지기도 하고 폭약통구리우에 넘어지기도 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폭약을 재빨리 장약하고 폭발을 피하려고 뒤로 노를 젓기 시작했다.

떼목이 이쪽 기슭에 와닿았을 때는 거기에 뽀차뜨낀 혼자 남아있었다. 그는 와씰리가 서있는 땅크뒤로 날쌔게 뛰여왔다.

뽀차뜨낀의 심장은 열병에 걸린 사람처럼 높뛰였다. 그의 몸은 파도에 젖은것도 아니며 자기 땀에 젖은것도 아니였다.

《이제…이제…》하고 뽀차뜨낀은 시계를 보면서 폭발을 기다리며 저도 모르게 되뇌이였다. 전투의 요란한 소음속에서도 와씰리에게는

갑자기 정적이 깃들었다고 생각되였다. 폭발이 없었다.
뽀차뜨낀은 당황해서 와씰리를 쳐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도화선이 끊어졌소.》 그는 외투를 벗고 반전차호로 달려갔다. 그는 머리를 아래로 수그린채 기슭에서 멀리 뛰여들어 물속으로 자맥질하였다.
총탄과 파편으로 하여 끓어번지는 컴컴한 물속에서 헤염쳤다.
그를 본 모든 사람들은 도와나서려고 했다. 포사격으로 요새를 짓부시고 자동총으로 화구를 답새기였다. 뽀차뜨낀은 자기가 장약한 위치로 계속 헤염쳐갔다. 물결에 언뜻거리는 그는 반전차호의 기슭으로 기여올랐다. 와씰리는 마치 송수화기에서 울릴것 같은 가느다란 목소리를 들었다고 생각되였다.
《잘 있소. 와씰리.》
그 순간 요란한 폭음이 울리였다. 폭풍에 와씰리는 땅에 넘어졌다. 모든것이 시꺼멓고 뿌연 연기에 휩싸였다. 누르끼레하고 매캐한 화약내에 숨이 막히고 기침이 났다. 꼭대기에서는 콩크리트와 벽돌쪼각과 흙덩이들이 와르르 떨어졌다. 그것들은 땅크에 부딪쳐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물속에서 첨벙거리였고 땅바닥을 두드리였다. 와씰리는 떨어지는 돌멩이에 얻어맞을가봐 손으로 머리를 가리웠다.
연기가 엷어지자 울퉁불퉁하게 메워진 반땅크참호가 보였다. 첫순간에 와씰리는 뽀차뜨낀에 대한 슬픔과 동정심이 아니라 임무를 수행하는 련대의 손실도 적어지리라는 기쁨에 휩싸여있었다. 그리하여 그 기쁨은 마치도 모든 사람에게 다 전달된것 같았다. 우렁찬 《만세》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드는 보병들속에서 오래 울려퍼졌다. 그들은 메워진 반전차호로 내달리였다. 뽀차뜨낀이 폭파하여 뚫어놓은 벽구멍에서는 재빛 외투와 둥근 모자들이 얼른거리였다. 병사들은 서로 어깨를 들여밀고 기여들면서 화구에 수류탄을 던져넣었다. 요새에서는 불길과 연기가 터져나왔다.
병사들은 숨이 진 요새주변에 더 지체하지 않고 바리케트로 가로막은 거리로 달려나갔다.
폭탄과 포탄에 얻어맞아 불길과 연기속에서 여기저기가 갈라져나가고 허물어지고 불타버렸다.

와씰리는 쓸쓸하게 뚝으로 걸어가면서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물렁물렁해진 흙탕에 빠지기도 했다.

그는 뽀차뜨낀을 찾아내리라 희망을 가지였지만 찾아내지 못했다.

뽀차뜨낀이 갈기갈기 찢기우지 않았으면 이 뚝밑에 파묻혀있을것이였다.

처음에 와씰리는 까라바예브에게 지휘관을 동정하려는 마음에서 모든것을 상세히 말하려고 하지 않았다. 더우기 자신이 방금 목격했던 사실을 상기하기조차 괴로왔다. 전쟁마당에서 흔히 희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희생되였다고 하는수밖에 없다.

그러나 후에는 요새와 시커먼 물이 찬 반전차호를 죽음을 각오하고 헤여건너간 뽀차뜨낀을 회상하면서 와씰리는 마치도 각성된듯싶었다.

정말 내가 입을 다물고있을수 있는가? 뽀차뜨낀은 위훈을 세우지 않았는가?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바쳐 돌격로를 열어놓은 그가 아니였다면 온 련대는 이 반전차호앞에 쓰러졌을것이다.

도화선이 끊어져나간 위기일발의 순간에 그는 지체없이 직접 뢰관을 때려 장약을 폭발시켰다. 흔히 우리는 위훈과 용감성, 고결성을 제눈으로 직접 목격했을 경우에 그것들을 충분히 리해하며 또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우리는 신문에 실린 영웅적인 위훈이 어딘가 저기 다른 사람들한테서 발휘된다고 하면서 자기의것은 잊으며 평범한 일로 지나쳐버리고있다. 와씰리는 다행히도 그 모든것을 리해하고 까라바예브대좌가 있는 참모부로 갔다. 그는 바로 최고사령부앞에서라 할지라도 그 어디에서든 자기가 목격한 뽀차뜨낀의 불멸의 위훈에 대하여, 그가 우연히 전사한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자신을 희생시켰다는것을 보고할 용의가 있었다. 와씰리는 《잘 있소, 와씰리.》하는 그의 마지막 말을 듣는것 같았다.

그러나 와씰리는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되였다. 련대감시소에서는 포대경과 쌍안경으로 돌격대원들이 어떻게 행동했으며 하마트면 련대에 파멸을 가져다줄번한 그 위험한 장애가 어떻게 조성되였으며 공병중대장 예브게니 뽀차뜨낀이 자기 련대의 수백명의 생명을 어떻게 구원했는가를 잘 보았던것이다.

와씰리는 일부 자세한 내용만을 이야기했다. 무엇을 말하거나 침묵을 지킬 때, 밥을 먹거나 담배를 피울 때 그리고 련대장이 준 임무를 수행하면서 케닌스베르그의 불타는 집 한복판을 걸어갈 때나 그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와씰리의 귀에서는 송수화기에서 울리는 말처럼 나지막하게 멀어져가는 《잘있소, 와씰리!》하는 목소리가 울리였다.

그러면 다시금 눈앞에 늘 쾌활하고 소탈하던 용감한 뽀차뜨낀이 삼삼히 떠올랐다. 그의 체격은 얼마나 아름답게 잘 발달되였던가! 그런데 장례식을 하려고 해도 남은것이란 하나도 없지 않는가… 그가 얼마나 정찰병이 되고싶어했던가! 그는 훌륭한 정찰병이 되였을것이다. 아, 줴냐. 전쟁이 끝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흘째 되는날에 련대는 페허와 화재속을 뚫고 자그마한 비좁은 광장에 들어섰다. 그뒤에서 병사들은 이발이 뾰족하게 돋은 높다란 둥근탑을 보았다. 그것은 프로씨아왕의 옛성이였다. 광장과 린접한 거리들에서는 《룡의 이발》처럼 앙상하게 생긴 반전차주들이 막혀있었다.

육중한 대문우에서는 펑장히 둥근 시계가 번뜩이고있었다. 쁘로레뜨낀은 집모퉁이에 의지하여 시계에 대고 사격하면서 말했다.

《파쑈놈들의 시계를 멈춰세우시오.》

시계는 멎었다. 두개의 바늘이 맥없이 드리워졌다.

로가찐이 쁘로레뜨낀을 욕하며 달려들었다.

《그래 자넨 왜 못쓰게 만들었는가? 400년묵은 시계라고 하는데. 자넨 분별없이 무례한짓을 하는데 이골이 났구만. 언젠가는 기린과 하마새끼를 쏘더니 이제 와서는 력사적인 시계까지 마사버렸단말이야. 무례한 야만이야.》

쁘로레뜨낀은 다른 동무들도 자기의 행동을 찬양하지 않는것을 보고 몹시 당황해하면서 변명해나섰다.

《저녁에는 이 성새에 깨진 벽돌장밖에 남을게 없을텐데. 그 시계가 어데 박혀있는지 자넨 찾아내지도 못할걸세.》

《전투할 때에야 어떻게 하겠나. 거야 할수 없지.》로가찐이 투덜거리였다. 《하지만 그렇게 맹랑한짓을 할 필요야 없지 않나?》

성새의 빨간 벽돌담벽에는 고지크식문자로 이렇게 새겨져있었다.

《로씨야의 영광스러운 쎄와쓰또뽈리성새는 250일간 강력한 도이췰란드군을 견제하였다. 유럽의 가장 훌륭한 성새인 케닌스베르그는 영원히 점령하지 못할것이다!》

난데없이 빼빼마르고 등이 갈구리처럼 굽어든 우울한 눈언저리에 잔그물처럼 주름살이 간 한 로인이 정찰병들한테로 다가왔다. 그는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무릎을 꿇고 벌벌 떨면서 말했다.

《로씨야병사나리들, 어서 저길 보시우. 수류탄도 없구 쏠것도 없수다. 참 저것은 지하실이웨다.》

로인은 인도에 절반이 드러난 나지막한 창문을 가리켰다.

《거기엔 도이췰란드병사는 없수다. 앓는 불쌍한 헤르투루와가 있수다.》

《무서워마십시오. 우리는 평화적인 주민들을 다치지 않습니다.》하고 와씰리는 말했다.

《네, 알겠수다.》로인은 한숨을 쉬면서 쁘로레뜨낀이 정지시킨 시계를 바라보았다.

《만일을 생각해서 바로 저기처럼 창문우에 흰 기발을 달아매시오.》

와씰리는 연기에 휩싸인 거리의 구석진 곳에서 창문에 달아맨 흰 하불을 가리키며 귀띔해주었다.

《아, 알겠수다. 제가 그런 기발을 달자구 했지만 그 장교들과 에쓰에쓰대원들이 무서워서 그만… 그들은 흰 기발이 있는곳에다 무작정 수류탄을 던지고있수다.》

《당신은 로씨야말을 어떻게 압니까?》

《난 제1차세계대전때 로씨야포로로 있었댔수다.》

《동무들, 이 로인은 력사적인 〈혀〉요.…》 쁘로레뜨낀이 유쾌하게 말했다.

와씰리는 이렇게 생각했다.(혹시 꼴로꼴리쩨브가 이 령감을 체포했던게 아닐가? 그는 그 전쟁에서 《사냥군》으로 있었다. 그러나 그때 《혀》와 정찰병들도 얼마 안되지 않았던가. 이 로인한테서 무엇인가 좀 쓸모있는 소식을 알아낼수 있을것이다.)

《성안에 지하통로가 없소? 벽밑에 무슨 운하든가 강이라든가 하는

것이 없소?》

《아, 없소. 없수다. 데르케니켄궁전에는 대단히 견고한 방어선이 있지요.》 로인은 잠시 침묵을 지키고나서 밝은 시선으로 병사들을 쳐다보고 누르끼레한 갈구리같은 손가락으로 붉은 벽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문안으로…》

《대문말이요?》 쁘로레뜨낀이 귀띔해주었다.

《예, 알겠수다. 대단히 고맙수다. 이 대문안으로 수워로브대원수가 들어갔댔수다. 그는 프로씨아의 오스텐대장을 죽였지요.》

로인은 자기 말에 감동을 받는것을 보고 친절하게 말했다.

《이 대문을 통하여 보나파르트 나뽈레옹이 모스크바로 갔수다.》

《후퇴할 때는 이 대문을 에돌아서 도망쳤지요.》 쁘로레뜨낀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참견했다.

정찰병들이 호탕하게 웃었다. 로인은 웃는 까닭을 모르고 계속 고집했다.

《에돌아가지 않았수다. 직접 여기로 행진해갔지요.》

로인이 별다른 력사적인 자료를 더 말하지 않게 되자 와씰리는 이렇게 물었다.

《41년 6월 22일에는 누가 이 대문을 통과해나갔소?…》

로인은 죽을 운명에 맞다들기나 한듯 도리머리를 흔들었다.

《아 제발 그런 일은 하지 말았어야 했지요. 현명한 비스마르크가 로씨야와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것은 아주 옳은 말이요. 그날 여기로는 폰 레예브원수가 차를 타고 지나갔수다.》

《고맙습니다.》 와씰리는 자기들이 더 말할 시간이 없다는것을 리해시키고 사의를 표했다.

로인은 걸어가면서 머리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제발, 제발…》 정찰병들의 머리우로 비행기들이 파도처럼 밀려들면서 성새에 포탄을 떨구었다. 대지가 뒤집어지는것 같았다. 빨간 벽돌먼지와 시커먼 연기가 톱날모양의 탑우로 날아올랐다. 자행포가 돌파구를 내려고 한곳을 연방 타격했다. 그러나 벽의 두께가 네메터나 되여 포탄으로 뚫기가 조련치 않았다.

몇시간 지나서 온 성새가 마마자국처럼 깊은 웅뎅이로 파헤쳐졌다. 성벽들과 몇개의 탑들이 마당으로 무너져내리고 그우에서는 연기가 타래쳐오르고 불길이 훨훨 타올랐다. 그처럼 치렬한 사격과 련속적인 맹폭격속에 누가 살아남을수 있겠는가? 공격신호가 내렸다. 련대들은 최후의 돌격마당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알고보니 프로씨아왕의 성새는 아직도 숨이 붙어있었다. 단말마적인 사격과 기관총과 대포와 파우스트포의 붉고흰 섬광이 모든 틈새기와 화구들에서 튀여나왔다. 광장은 재빛 외투를 입은 병사들과 불에 탄 솜옷과 반외투며 비옷과 어지러워진 위장복을 입은 병사들의 시체로 덮였다. 이 병사들은 전쟁의 마지막날을 앞두고 희생되였다.

성새에 대한 첫 돌격은 실패했다.

폭격과 포격이 반복되였다. 저녁이 되여서야 와씰리는 성안으로 다닐수 있었다. 성새를 점령한 병사들은 벽들이 무너져내린 마당에 앉아서 솥에서 끓는 남새국과 죽을 숟가락으로 퍼담아먹었으며 페허속에서 얻어낸 포도주도 마시고 전리품담배도 태웠다.

4월 9일은 력사적인 날로 지나갔다. 마지막총성은 케닌스베르그 동물원쪽에서 울렸다. 거기서는 더러운 군복을 걸치고 얼굴에 검댕이가 묻은 침울한 인상을 한 포로병대렬이 움직였다.

포로들은 줄이 간 수감옷을 입은 기진맥진한 수용자들이 자기들을 마주 향해오자 겁이 나서 길을 비켰다. 그것은 수용소와 감옥, 지하공장에서 석방된 뽈스까인, 프랑스인, 네데를란드인, 영국인, 유고슬라비아인, 로므니아인, 그리스인, 이딸리아인들이였다. 그들은 명랑한 기분에 휩싸여 걸어가면서 꽉 틀어쥔 주먹을 높이 쳐들고 우리 병사들을 향하여 웨쳤다.

《붉은군대동무들!》

《고맙소!》

볼이 움푹하게 들어가고 머리카락이 거밋한 프랑스사람이 줄이 간 수감옷을 입고 베레모까지 쓰고 앞에 나서서 행복한 눈을 반짝이며 와씰리에게 어떤 종이를 내밀었다.

《동지, 이것을 당신의 사령부에, 당신의 정부에 전해주시오.》

그리고는 손을 반갑게 흔들면서 걸어갔다.

와씰리는 그것을 읽었다.

《내각수상각하, 쏘베트 장령각하들, 쏘베트병사동지들, 파쑈놈들의 수인이였던 우리 프랑스사람들은 당신들에게 우리의 가장 행복한 날에 우리에게 자유와 삶을 가져다준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바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언제나 잊지 않을것입니다. 친애하는 벗들, 파시즘에게 저주가 있으라!

붉은군대 만세!

붉은군대 만세!

프랑스 만세!》

그아래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표가 있었다.

와씰리는 그 종이를 린뜨와레브중좌에게 주었다.

《이것은 대단히 가치있는 문건이요.》 린뜨와레브가 말했다.

《이것을 신문사에 보내야겠소.》

초강대성을 자랑하던 난공불락의 요새 케닌스베르그는 사흘동안에 함락되였다.

전쟁전기간에 처음으로 서두르거나 부대를 재편성하거나 다른 구역으로 떠나갈 필요가 없게 되였다. 동프로씨아에서의 전투는 끝난것이나 다름없었다. 오직 제몰랜드반도에서와 쿠리쉐스－호프만기슭에 만신창이 된 프로씨아집단군의 잔당들이 몰켜있을뿐이였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군부대들이 많이 있었다. 케닌스베르그를 장악한 부대들은 그만 할 일이 없는듯싶었다.

와씰리는 전쟁전기간에 전투가 끝나면 한번 실컷 자볼것을 바라면서 한주일동안 쓰러져서 깨지 않고 자겠다고 생각했다. 헌데 그런 가능성은 좀처럼 주어지지 않았다. 이제 와서는 자고픈 생각도 아예 없어지고말았다. 병사들과 군관들이 큰 시가지에 나가서 어딘가 아직도 장작개비들이 불타고있는 거리를 거닐고있었다. 속이 다 타버린 건물사이로 다닌다는것은 안전한 일이 못되였다. 때때로 5～7층에서 갑자기 커다란 벽체가 움찔거리다가 쾅 하고 떨어지면서 옆집들에 먼지를 들씌우군했다.

와씰리는 대원들과 함께 다른 세계를 바라보면서 산보하고는 자기련대의 모닥불곁으로 돌아왔다. 그때에 《가스》형자동차를 타고 군

사위원 보이꼬브와 사단장 도브로호또브가 내려왔다.
《그래 생활이 어떻소? 동무들!》하고 보이꼬브는 명랑하게 물었다.
와씰리가 그를 마지막으로 만난 때로부터 보이꼬브는 몸이 좀 뚱뚱해지고 얼굴도 둥그스름해졌다. 눈은 여전히 싱글거리며 다정해보였다. (이젠 걱정할 일이 적어졌겠지.) 하고 와씰리는 생각했다. (그래서 몸이 좋아진게 아닐가.)
보이꼬브는 와씰리를 보고 웨쳤다. 《아직 살아있구만!》 그는 와씰리를 마주향해 걸어와서 손을 내밀었다.
정찰병들은 우리 지휘관이 그렇게 높은 상관과 허물없이 만나고있다는 긍지로 자기들 두리의 병사들을 자랑스럽게 쳐다보았다.
《어쩐지 동문 전쟁기간에 얼마 크지 못한것 같구만. 훌륭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해놓았소, 계속 중위로 있으면서.》
《저는 상위입니다.》하고 와씰리는 고쳐말했다.
《도브로호또브동무, 이 사업을 바로잡아야겠소. 곧 평화적인 복무기간으로 넘어가게 되오. 와씰리를 비록 대위로라도 전쟁을 끝내게 해야 하오. 군공을 많이 세우지 않았소.》
《고쳐주겠습니다, 군사위원동지.》 도브로호또브가 말했다. 《전투에서는 사람들이 싸우고있는이상 자기 일도 잘 처리해야겠는데 우리는 마치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응당한것으로 습관이 돼놔서, 오늘 당장 제의서를 내겠습니다.》
《저는 직무상 그렇게 되여있지 않습니다.》 와씰리는 당황해서 말했다.
와씰리는 자기의 정찰병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니 그들과 헤여져야 한단말인가? 자기 사람들을 떠나서 어디로 무엇때문에 사라지겠는가? 혹시 련대에서 영영 다른데로 내보낼수 있지 않을가?) 와씰리는 조급해서 간청했다.
《장령동지, 전승의 날까지 자기 련대에서 같이 싸우게 해주십시오.》
《다요, 싸움은 벌써 끝났소. 우리앞에는 전투임무가 없소. 우리는 전쟁을 끝냈소.》
그 이야기를 말없이 듣고있던 병사들이 갑자기 설레이면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럼 베를린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베를린으로 가고싶습니다!》
《여직껏 싸웠는데 우리없이 베를린을 어떻게 점령할수 있습니까?》
보이꼬브는 미소를 짓고 모두가 조용하도록 낮은 어조로 말했다.
《동무들은 자기 일을 다했소. 이렇게 살아남았는데 뭣이 더 부족하오?》
《부족합니다. 우리는 베를린을 함락하겠습니다.…》
《이제는 막 행패질을 하는구만.》 도브로호또브는 웃었다.
그가 떠난 뒤에도 병사들은 그냥 베를린에 가야 한다고 하면서 오래동안 말들을 했다.
까라바예브련대에서는 병사들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물론 그것은 병사들이 바라서도 아니며 사단장이 그들의 요구를 고려해서도 아니였다. 그것은 베를린으로 공격하는 집단을 보강할 필요성으로부터 해결되였던것이다. 명령이 내려왔다. 일부 부대들은 자동차대대들의 차를 타고 도이췰란드의 중심부를 향하여 강행군을 하게 되였다. 그 부대들중에는 까라바예브의 련대도 끼워있었다.
고속도로를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갔다. 밀차를 끌고가는 사람들, 잔등에 배낭을 진 사람들, 자전거에 짐을 싣고가는 사람들, 유모차를 밀고가는 사람들… 로씨야사람들, 벨라루씨사람들, 우크라이나사람들, 뽈스까사람들이 구속에서 벗어나 동쪽으로 걸어가고있었다. 서쪽으로는 영국사람들, 프랑스사람들, 벌가리아사람들, 체스꼬사람들 …유럽의 모든 사람들이 움직여가고있었다. 그들은 파쑈놈들을 무찌르려고 차를 타고 베를린으로 가는 병사들을 향해 친절히 손을 흔들어주었다.
수많은 부대들이 베를린으로 밀려들었다. 사단들은 적의 《소굴》을 들이칠 가능성을 예견하면서 일렬로 늘어섰다.
까라바예브의 련대는 교외에 집결되여 뒤떨어진 후방부대를 기다리고있었다. 모두들 승리의 날이 다가온다고 기뻐했다. 그러면서도 어째서인지 정말 전쟁이 끝난다고는 믿어지지 않았다.

× ×

이제는 베를린전체가 아니라 그의 중심구역만이 파시스트들의 수중에 남아있었다. 그러면 바로 이러한 순간에 정찰병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수 있겠는가? 아군이나 도이췰란드놈들도 싸움이 오래 계속되지 못하리라는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전같으면 와씰리는 자기의 정찰병들과 함께 적의 력량과 집단을 확정하고 그 예비대를 찾아내며 포진지와 참모부들의 위치를 알아내고 도이췰란드군사령부의 기도를 간파해야 했을것이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필요없다. 모든것이 명백해졌다. 바로 페허로 된 베를린에서는 연기가 피여오르고있으니 파쑈군대가 더는 존재하지 않으며 예비대도 없다는것을 의미한다. 적의 반항기도도 없다.

와씰리는 정찰병들을 데리고 페허속으로 기여들어가 손쉽게 많은 포로들을 잡아왔다. 크게 애를 쓰지 않고도 아무 지하실에서나 파쑈장교를 두서너명은 쉽게 잡을수 있었다.

이따금씩 놈들은 나무막대기에 흰 걸레를 매달고 저절로 투항하여 걸어오군했다. 어느날 와씰리의 머리속에는 단순하면서도 놀라운 생각이 떠올랐다. 히틀러가 어데 있는가? 바로 그놈이 어딘가 여기 가까운곳에, 연기에 휩싸여 불타는 페허속에 있을것이다. 어느놈을 잡아내겠는가? 그럼 좋다. 히틀러가 아니라도 어떤 고위급인물들, 말하자면 게링그나 겝벨라도 잡아내야 한다. 지금 그놈들은 모두 한곳에 몰켜 공포에 떨면서 제각기 도망치자고 할것이다.

와씰리는 정찰참모 률렌꼬브소좌를 찾았다. 그는 주인없는 집안에서 빨래를 하고있었다.

《글쎄 모직저고리를 전쟁전기간에 끌고다녔는데 이제 와서야 필요하게 되는군. 내 생각엔 승리를 축하해서 큰 연회가 있을것 같네. 거리를 따라 식탁을 쭉 차려놓고 적어도 사흘 남짓하게 주연을 베풀것 같소.》

와씰리가 자기 계획을 말했을 때 률렌꼬브는 그를 꾸짖는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옛날에는 내가 동무를 보내여 임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면 오늘은 당신이 나를 설복시키는구만. 그래, 무슨 일로 그런 작전을 하자는 거요? 영웅칭호를 받자구 그러오? 동무야 금메달이 없다뿐이지 영웅이나 다름없지 않소. 살아남은것은 바로 동무한테 차례진 가장 큰 표창이요. 살아서 마음껏 즐기시오. 게다가 히틀러는 우리가 참견하지 않아도 되오. 상급참모부에서 그놈을 맡아보고있으니까. 그놈은 도망치지 못하오.》

《내가 말하자는건 우리가 혼자서 그놈을 잡자는게 아닙니다.》하고 와씰리가 주장했다. 《정해진 사람들은 자기 맡은 일을 하게 하라지요. 허지만 우리는 만일경우를 생각해서 안전대책을 세우자는겁니다.》

《동무는 오히려 방해가 될수 있소. 우린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지 모르고있지 않소.》

《동의할수 있을겁니다. 허가해달라고 합시다. 꼴로꼴리쩨브한테 같이 갑시다. 그가 무슨 조언을 주겠는지 궁금합니다.》

참모장은 싸모와르를 마주하고 앉아있었다. 그는 차고뿌를 들고 진하게 끓인 차를 마시면서 그것을 어루만지며 옛 친우에게처럼 《자, 이젠 우리는 싸움을 끝냈어.…》라는 말까지 하는것이였다.

참모장은 와씰리와 륨렌꼬브를 친절하게 맞이하여 식탁에 마주 앉히고 특유한 향기가 풍기는 차를 권했다.

그들이 오게 된 사연을 듣고나서 참모장은 자기 차고뿌를 보며 오래동안 골똘히 생각했다. 와씰리는 참모장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인지 반반하게 면도한 얼굴의 피부가 처지고 눈언저리가 조금 부어오른것을 알아차렸을뿐이였다. (아마 그는 몹시 피로한 모양이다.)라고 와씰리는 생각했다. (그에게는 평온과 고요한 환경이 필요될것이다. 젊고 건장한 륨렌꼬브같은 사람이 나를 설복한다면 지칠대로 지친 참모장은 두말할것없이 지지하지 않을것이다.)

참모장 꼴로꼴리쩨브는 침착하게 말했다.

《동무의 구상에는 〈그런데〉가 너무 많소. 가령 전선참모부와 군단참모부가 승인한다고 하기요. 그럼 동무는 어데서 히틀러를 찾아내겠소? 지금 거기에는…》하고 그는 전투가 벌어지고있는쪽으로 손

을 흔들었다. 《동무가 본부로 뚫고들어갈수 없으리만큼 그렇게 군집되여있으며 비좁아졌소. 게다가 히틀러한테는 틀림없이 대단히 강력한 경비진을 쳤을거요.》

《저는 그 모든것을 리해하기때문에 그의 참모부로 기여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딘가 멀지 않는곳에 숨어있자는것입니다. 그놈은 도망치려고 시도하지 않을가요? 비행기나 땅크 아니면 자동차를 타구말입니다. 그러니 바로 우리는 어딘가 비행기나 자동차에로 가는 길목을 지키자는겁니다. 히틀러는 아마 자기의 도주가 눈에 띄는것을 달가와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자기의 측근자들을 데리고 비밀리에 자취를 감추려고 할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순간에 그놈들을 생포하자는겁니다.》

꼴로꼴리쩨브는 이마를 찡그렸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오. 〈자취를 감춘다〉, 〈생포하자〉하면서, 동무야 미래의 간부가 될 군관이 아니요?》

《미안합니다, 중좌동지.》

《참 대담한 구상이요.》 꼴로꼴리쩨브는 갑자기 활기를 띠였다. 《사실 히틀러의 체포는 지금 전략적의의는 물론 작전적인 의의도 없소. 하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론리적인 종지부라는것이요. 말하자면 여기에 의의가 있소. 참 나이와 이 문건만 아니라면 나도 동무와 함께 가겠소.》

와씰리는 나이든 군관으로부터 그런 대담성이 나오리라고는 예상 못했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청춘시절을 회상하면서 마음설레이며 제1차세계대전의 《사냥군》의 심정을 토로하고있다는것을 제꺽 깨달았다. (보건대 정찰병이 되였던 사람은 그것을 마음속에 영원히 안고 있을것이다. 그러니 나도 살다가 늙게 되면 저렇게 될것이 아닌가.)

꼴로꼴리쩨브는 오래동안 전화를 걸면서 상관들과 어떤 옛 친우들과 말을 하고는 식탁에 돌아왔다.

《내가 리해한것처럼 상급에서도 필요한 대책을 세우고있소. 승인하지 않으려다가 후에 동의했소. 사실 동무에게는 도이췰란드사령부의 지하실로 들어가는것이 엄금되여있었소. 그러니 동무는 어디에 가있건 히틀러에 대해 무엇을 알고있건간에 무선으로 정상적으로 통

보해야 하오. 일체 결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상급의 특별허가를 받게 되여있소, 통신련락은 자기 무선기로 나를 통하여 가지시오. 히틀러가 베를린을 떠났다는 정보는 아직 없소. 그의 본부는 여기에 있소. 모든 지시는 베를린에서 하달되고있소.》 꼴로꼴리쩨브는 허리를 쭉 펴고 의미심장하고, 엄숙하게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럼 와씰리, 이번 작전에서 성공하길 바라오. 동무가 진짜 로씨야군관이고 성공하는 경우에 동무에게 영광이 기다리고있기때문에 구태여 설복하지 않겠소. 성공을 바라오.》 꼴로꼴리쩨브는 와씰리를 포옹하면서 세번이나 번갈아 입을 맞추었다. 《어서 가보오. 다 준비되면 함께 지휘관에게 보고합시다.》

작전에 앞서 정찰조를 훌륭하게 꾸려야만 했다. 와씰리는 늘 억세고 민첩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자그마한 정찰조를 구성할것을 주장하는 사람이였다. 그리하여 이번에도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려고 결심했다. 꼭 데리고 가야 할 첫 대상으로는 전쟁전기간을 같이 싸워온 로가찐과 쁘로레뜨낀이였다. (모든 임무를 수행하는데 함께 다녔으니 마지막임무를 수행하는데도 둘다 함께 가게 하자. 그리고 보그단과 하미둘린, 골로샤뽀브와 보브까, 또 무전수 쥬크도 데리고 가겠다.)

와씰리는 정찰병들의 기분이 명랑해지도록 했다. 정찰소대는 화장품상점에 자리잡고있었다. 상점의 널직한 진렬대는 다 마사져 통로로 리용되였다. 묵직한 문에는 열쇠가 채워져있었다. 문우에는 구부러진 간판과 유리판으로 된 네온광고판이 걸려있었다. 보브까가 가슴띠와 부인용고무띠를 매고 상점안으로 다니고있었다. 정찰병들이 매대에 걸터앉아 그를 보고 껄껄 웃었다.

《이런 싸개들을 우리 녀편네한테 꼭 선물하겠소.》 와씰리가 부서진 유리를 밟으면서 방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보브까가 말했다.

정찰병들의 온화한 기분은 와씰리로 하여금 더욱 긴장되고 당황하게 했다. 그들은 종전과 같이 늘 명랑했다. 그러나 지금은 전쟁이 끝났다. 혹시 그들이 임무를 수행하러 다니던 열정과 체육인의 흥분이 살수 있는 현실적가능성을 버리지 않았을가?

와씰리는 정찰병들에게 자기의 의도를 이야기해주었다. 설레이는 격정을 억누르며 침착하려고 애썼다. 말은 하면서도 위구심을 가지

고 대원들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그는 용맹스러운 사람이 더는 없지 않을가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들기까지 했다.
《나는 모두가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려는 동무들의 희망을 리해합니다. 그러니 자원병들만을 데리고가겠습니다.》와씰리가 말을 끝냈다. 쁘로레뜨낀이 경탄의 눈길로 지휘관을 쳐다보았다.
《상위동지! 훌륭한 생각입니다. 응당 그래야지요. 히틀러를 잡아야지 이런 상점에나 눌러앉아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로가찐은 자기의 순박한 성격그대로 입을 약간 벌리면서도 말한마디 터놓지 못하고 그저 쿨쿨거리면서 어깨를 으쓱하고는 떠날 차비를 했다.
와씰리의 위구심은 공연한것이였다. 정찰병들은 어디까지나 정찰병으로 남아있었던것이다. 그러나 전혀 다른 난관이 제기되였다. 와씰리는 누구를 선발해야 할지 모르고 모두에게 호소했다. 그것은 누구도 모욕을 하려는 생각이 없었기때문이였다. 보통 자신의 가치를 알고있는 소박한 대원들은 자기들의 위훈과 수완에 대하여 말할 때에는 거의나 입을 벌리지 않으면서도 이번만은 참지 못했던것이다. 그들은 지휘관의 앞으로 나서서 서로 말을 꺾으면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데려가달라고 청원했다. 제각기 무게있게 론증했다.
《상위동지, 내가 당신하구 주간정찰에 나가지 않았댔습니까.》하고 하미둘린이 상기시켰다.
《생각나십니까. 43년도에 얼음강판으로 해서 적후로 기여들어가던 일을말입니다. 그리고 기발도 떼오지 않았습니까.》골로샤뽀브가 귀띔해주었다.
《난 적기훈장을 두개나 탔는데요.》 보그단이 자기 가슴팍을 가리키며 말했다.
《날 데리고가지 않으면 내 혼자서라도 가겠습니다. 두고보시오. 지하실에서 그놈 총통의 수염을 몽땅 뽑아오지 않는가말이요.》
명령을 내리는수밖에 없었다. 그의 명령은 생포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서운하게 했지만 와씰리로서는 다른 도리가 없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성원들로는 로가찐, 쁘로레뜨낀, 보그단, 무전수 쥬크, 하미둘린, 보브까와 골로샤뽀브였다.

4월 27일 저녁 정찰병들은 공격하는 보병전투원들속에 섞이여 길건너 도이췰란드측 건물로 뛰여들었다. 도이췰란드놈들의 자동총사격, 수류탄터지는 소리, 거밋한 그림자와 고함소리가 그들을 맞이했다.

와씰리는 방안 깊은곳에서 일어나는 먼지와 연기속에서 얼른거리는 그림자들을 향해 사격했다. 겁에 질린 부상자들의 비명소리가 들리였다. 명중이다. 그는 자기앞쪽에 대고 계속 사격하면서 어슴푸레한 빛이 새여들어오는 창문가로 달려갔다. 뒤를 돌아보고는 정찰병들이 자기를 뒤따라오는가 확인했다. 와씰리는 창문턱을 넘어 담장쪽으로 뛰여갔다. 담장은 벽돌로 높이 쌓아서 뛰여넘을수 없었다. 그는 구석에서 오물통을 발견하고 뚜껑우에 훌쩍 뛰여올라 담장너머를 살피였다. 도이췰란드놈들을 발견하고 좁다란 골목에 뛰여내렸다. 로가찐, 쁘로레뜨낀, 보그단과 나머지 대원들도 그의 뒤를 따라 담장을 넘어섰다.

여기서 와씰리는 누군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을 확정할 겨를이 없었다. 정찰병들은 짝 벌어진 현관으로 들어가 마당 하나를 더 넘어섰다. 다음번 거리에서 도이췰란드놈들과 마주쳤다. 그놈들은 창문곁에서 소란을 피우고있었다. 꽥꽥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문앞에 가구들을 끌어다가 장애물을 만들어놓았다. 대원들은 슬그머니 누구도 보이지 않는 궁륭형아치쪽으로 내달렸다. 그들은 자그마한 공원을 지나갔다. 여기서는 도이췰란드놈들이 꽃이 핀 벗나무들과 사과나무들을 마구 잘라버리였다. (무엇때문에 잘라버렸을가? 우리가 덤벼들지 못하게 하느라고 잘랐을가?) 하고 와씰리는 나무들이 넘어진것을 보고 생각했다. 공원 다른쪽끝에 들어서서 그는 도이췰란드놈들이 사계를 정리한것이라고 생각했다. 공원뒤에는 큰 건물이 있었다. 지하실창문들은 벽돌장들을 쌓아 화구로 만들었다. 정찰병들은 건물한켠을 에돌아나갔다. 거기에는 옹근 한개 대대력량이 둥지를 틀고있었다. 제복은 훌륭한 위장수단이였지만 어쨌든 적들과의 정면충돌을 피해야 한다.

정찰병들은 도이췰란드제복도 자기들이 생각한것처럼 이제는 그닥 안전한 위장이 되지 못한다는것을 제꺽 확인했다. 그들은 몇채의 아빠트를 지나 빈집에 들어가 숨을 돌리였다. 여기에서 그들은 하미둘

린과 골로샤뽀브가 없다는것을 알았다.
《공격할 때 뒤에 떨어지지 않았으면 잃어버린게 아니요? 누가 본 사람이 없소?》 와씰리가 물었다.
《하미둘린은 잃어지지 않았습니다.》 쁘로레뜨낀이 쓸쓸하게 말했다. 《그는 우리가 지하실에서 뛰여나올적에 넘어졌는데 죽었는지 부상당했는지는 딱히 모르겠지만 그가 넘어진걸 봤습니다.》
《그럼 골로샤뽀브는?…》
모두가 말없이 비애에 잠겨있었다.
《몹시 부상당했습니다.》 쁘로레뜨낀이 확신있게 말했다. 《약간 다쳤으면 뒤떨어지지 않았을텐데, 일없을겁니다. 완치되겠지요. 전쟁이 인차 끝나겠는데.》
전쟁이 끝나간다는 말을 되풀이하는바람에 모두들 설레였다. 정찰병들은 전쟁이 당장 끝나고 자기들이 마지막임무를 수행하지 못할가봐 서두르기 시작했다.
집에서 나온 그들은 적군제복이 더는 믿음직하지 않다는것을 확인했다. 십자로에 짐차들이 서있었는데 적재함이 내리워져있었다. 차체에는 푸른 상보를 친 식탁이 우뚝 솟아있었다. 와씰리는 그것이 큰 관이라고 생각했다가 다음에는 그것이 진짜 보통 식탁이며 별다른것이 없다는것을 알았다.
식탁에는 장교 세놈이 마주앉아있었다. 한놈은 얼굴이 둥그스름하고 뚱뚱한게 료리사 비슷했다. 다른 두놈은 말라깽인데다가 얼굴은 컴컴하고 몰상스럽게 생겼다. 자동차는 정찰병들이 나가려는 길목을 가로막고있었다. 와씰리는 문을 비스듬히 닫고 쇠고리를 걸어놓고 틈새기를 통하여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가를 감시했다.
차에는 병사들과 장교들과 하사관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철갑모를 쓰고 앞에 자동총을 내든 에쓰에쓰대원들이 차있는데를 누구도 통과시키지 않았다. 쉰명가량 모이자 에쓰에쓰대원들이 그들을 포위하고 증명서를 검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큰소리로 이름을 불렀다. 식탁에 마주앉은 뚱뚱한 장교가 책에 이름을 적어나갔다. 조사사업이 끝나더니 뚱뚱보가 구속된 사람들을 황급히 욕하기 시작했다. 그놈은 소리치면서 손을 내휘두르며 분이 치밀어 눈알을 부라리였다.

와씰리는 그놈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뭣이라고 고아대는지 분간할수 없었다. 욕한다는것만은 틀림없었다. 5분쯤 지나서 그놈은 으르렁대다가 식탁에서 어느 병사의 수첩을 쥐고 이름을 불렀다. 그 병사로부터 군중들이 물러서면서 한켠으로 길을 내주었다. 뚱뚱보가 식탁에 마주앉아있는 놈들과 뭐라고 수군거리였다. 장난감처럼 생긴 놈들이 머리를 끄덕이였다.

에쓰에쓰대원들이 길복판에 푸른 옷을 입고 홀로 서있는 병사에게 다가서서 그를 밀치며 인도로 끌어왔다. 그를 벽에 얼굴을 맞대게 세워놓고는 구령도 없이 등에 대고 사격했다. 그 병사는 몸을 떨다가 포장도로우에 주저앉았다. 에쓰에쓰대원들이 다급히 몇방 더 갈기였다. 병사가 모로 넘어지면서 손을 움켜잡고 불편하게 쓰러졌다.

뚱뚱보가 또 뭐라고 소리치더니 사령관처럼 손을 높이 들고 손가락으로 전선을 가리키였다. 구속된 사람들이 일제히 돌아서서 겁에 질려 에쓰에쓰대원들을 돌아보며 달려나갔다.

와씰리는 놈들이 야전재판을 벌리고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장교들과 에쓰에쓰대원들이 담배를 피우면서 폭발이 일어나는쪽을 바라보며 새로운 조가 모일 때를 기다리였다. 두명의 병사들이 대문뒤에서 당황해하는 사람을 끌어왔다.

자기 부대에서 떨어진 병사들과 부상자들이 다시금 십자로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 기회를 리용하여 정찰병들은 빈 집안에서 마당으로 해서 린접거리로 살금살금 접근하여 그것을 따라 계속 걸어나갔다.

자그마한 광장에서 그들은 지나가던 대렬과 마주쳤다. 도이췰란드놈들은 철갑모를 쓰고 발을 맞추지 않고 무질서하게 걸어갔다. 그들은 전혀 군인다운 자세가 없었다. 대다수 놈들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나 누군가 가슴을 쑥 내보내고 활발하게 걸어갔다. 정찰병들은 자기들을 대렬에 들여세울가봐 걱정하면서 지하실로 통하는 계단에 날쌔게 몸을 감추었다.

여기서도 와씰리는 도이췰란드복장은 믿음직한 위장이 못된다는것을 다시금 느꼈다. 지하실입구에서 그들은 어린이를 데리고 서있는 얼굴이 해쓱하고 여윈 녀인들과 마주쳤다. 녀인들은 자기 사람들

인줄로 알고 병사들을 증오심을 가지고 쏘아보면서 그들의 길을 막아나섰다. 어쩐지 몹시 악에 받쳐 말을 걸었다. 와씰리는 총체적인 의미만을 리해했다. 그들은 병사들이 당장 피할것을 요구했다. 로씨야군대와 맞불질이 벌어지는 날에는 자기들도 모두 죽게 될가봐 두려워하는것을 본 와씰리는 몸짓으로 지금 피하겠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도이췰란드녀인들을 진정시키려고 했다. 그러면서 포장도로우에서 대렬이 발을 구르며 오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녀인들이 장교를 불러 도와달라고 소리치지 않을가 하는 한가지 생각으로 하여 걱정되였다. 도이췰란드녀인들은 그의 말을 거의 정확히 리해했다. 그들은 정찰병들을 탈주병으로 알고 목소리를 낮추고 게사니새끼처럼 성이 나서 갈린 목소리로 말했다. 거리에서 발구름소리가 잠잠해지자 정찰병들은 바삐 물러갔다.

거리에는 바리케트를 쌓아놓고 사방에 구뎅이를 파놓은데다가 집들이 허물어져 길바닥을 막아나서 걸어가기가 쉽지 않았다. 곳곳에서 어찌나 불이 많이 붙는지 도로를 에돌아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러한 혼잡속에서도 와씰리는 여전히 자기들이 어디에 위치하고있는가를 쉽게 판단했다. 번호가 있는 집들마다에는 거리이름들이 씌여져있었다. 그는 시내 전경도에서 그것을 찾아낸 다음 로정을 가늠해보았다. 작전조는 포쓰슈트라쎄방향으로 계속 뚫고나갔다.

도이췰란드놈들이나 사민들과 맞다들 때는 재빨리 옆을 스쳐지나갔다. 그처럼 긴장된 시각에 모두가 말한마디 할겨를이 없었다. 그들은 제각기 될수록 거리에서 사격을 피하여 어디론가 걸음을 재촉했다.

생포조가 어떤 방공호에 은페하여 숨을 돌리고있을 때 와씰리는 생각에 잠겼다. (정찰병들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위험한곳으로 감히 뛰여들어가겠는가. 비행사들, 땅크병들, 보병들모두가 적과 정면으로 맞다들어 공개적인 전투를 벌리고있다. 그러나 우리는 사방으로 도이췰란드놈들에게 에워싸여있다. 게다가 아군의 대포가 우리를 때리고 항공이 우리를 칠수 있지 않는가.)

생포조는 공습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나서 모퉁이를 지나 담벽을 에돌아 계속 전진했다. 적후에 깊이 들어갈수록 군인들과 사민들과

더 자주 맞다들었다. 피난민들과 예비병들과 후방성원들이 탄알이 비발치는 위험구역을 빠져나와 봉쇄된 베를린의 중심으로 점점 빽빽이 밀려들었다. 이곳 집들은 텅 비여있었으며 대다수가 파괴되고 불타버렸다. 누구도 불을 끌 생각을 하지 않았다. 집은 불붙고있었지만 사람들은 곁을 지나면서도 그저 불에 델가봐 혹은 타다남은 나무쪼각들이 머리에 떨어질가봐 줄곧 피해달아났다.

한 네거리에는 병사들이 집을 방어할 준비를 하고있었다. 창문에는 벽돌과 흙을 채운 포대를 쌓아놓았다. 한쪽에는 주글주글한 검은 옷을 입은 웬 늙은이가 앉아서 막대기를 깎고있었다. 늙은이는 분명 흰 기발을 만들어 투항할 차비를 하고있는것 같았다. 장교가 늙은이를 발견하고 그한테서 막대기를 빼앗아내여 흰 걸레를 짓밟아버리면서 무슨 소리를 치더니 발로 힘껏 걷어찼다.

와씰리는 파쑈놈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베를린에는 악명높은 악당들만이 모여들었다고 하는 말이 옳다. 무의미한 살륙을 중지할 대신에 그들은 병사들과 시민들을 죽이고 자기의 수도를 계속 파괴하고있다.)

어느 한 마당에는 전선에서 물러난 대대의 화력진지가 자리잡고있었다. 수많은 포병들이 사민복으로 변장했다. 아마도 아군부대들로부터 아주 가까이 있는 조건에서 로씨야사람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있는것 같았다. 교활한 생각들을 하고있었다. 대포에서 피해달아나 어느새 평화로운 주민으로 가장한걸 보니 《히틀러가 망했소. 로씨야병사들이 승리했소.》 하고 웨칠수 있을것이다.

드디여 저녁은 어두운 밤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실은 달라진것이 하나도 없었다. 와씰리는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1시반이였다. 그러니 벌써 4월 28일이다. 거리는 저녁때와 마찬가지로 침울하고 연기가 자욱했다. 밤이 되였어도 시가지에는 암흑이 가셔지지 않고 화재가 거리를 희미하게 비쳐주었다. 하늘에는 뿌연 장미빛노을이 비꼈다.

지하실들에서는 석유등불과 초불들을 켰다. 지금은 유보도에서도 창문과 뚫려진 벽구멍을 통하여 지하실에서 무엇을 하고있는지 잘 볼수 있었다. 한곳에는 녀인들과 아이들, 로인들이 마다라스와 주단

과 누더기우에 누워있었다. 매 가족은 옆에 트렁크와 보따리를 놓던가 가림천을 쳐서 갈라놓았다. 다른 곳에는 병사들이 아무렇게나 줄을 지어 누워서 담배를 피우고있었다. 담배불빛이 희미한 등불밑에서 밝아지군하였다.

그동안 정찰병들은 말없이 계속 전진했다. 말하지 말아야 한다. 로씨야말을 하게 되면 발각이다. 도이췰란드놈들이 길모퉁이에서 엿들을수 있다. 그때엔 피하지 못한다. 조심스레 걸어가면서 집들과 페허를 자주 에돌아갔다. 때로는 오래동안 앉아서 거리나 마당에 사람들이 뜸해지기를 기다리기도 했다. 와씰리는 여러번 고미다락에 올라가서 무선기로 본부와 련락을 가져보려고 했다. 그러나 쥬크가 아무리 애써봐도 한번도 할수 없었다. 모든 주파수대역이 근처에 있는 무전수들의 목소리로 차있었다. 포위환에서 백여대의 도이췰란드무선기들이 동작했다. 대공은 도시 못지 않게 소란스러웠다.

와씰리는 밤에 전진하는것이 더 쉬우리라고 믿었다. 그리하여 밤은 정찰병들의 동맹자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봉쇄된 베를린에서는 모든것이 류다르게 진행되였다. 밤이 왔으나 조용해지지 않았다.

전투물자를 실은 차들이 계속 전선으로 갔다가 돌아오고있었다. 탈주병들의 대렬이 불어났다. 낮에는 그들이 페허속이나 지하실에 숨어있다가 지금은 사방에서 틈새기로 기여나왔다. 아마 그때문에 순찰병들과 보초병들은 물론 다른 경비원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고함소리가 더 자주 들리였을것이다. 에쓰에쓰방차대들이 병사들과 길가는 사람들을 단속하여 증명서들을 세밀히 검열했다. 수많은 사람들을 체포해갔다. 그것을 눈치챈 정찰병들은 가까운 집으로 돌아들어가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를 토론했다.

《지붕으로 넘어가는게 어떻습니까?》 쁘로레뜨낀이 물었다.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지금 집들이 련달아 붙어있는게 없소. 불에 타고 무너져서 집들이 다 갈라졌소. 게다가 집높이도 서로 달라서 10층집옆에 5층집이 붙어있는데 어떻게 내려갈 작정이요?》

《수도관을 따라내려가지요. 바줄은 얻을수 있습니다.》

《어쨌든 불에 델게 아니요.》로가찐이 분명치 않은 목소리로 반박했다.

《내려가서 불을 피해 다시 고미다락으로 들어가면 되지.》 쁘로레뜨낀이 자기의 의견을 주장했다. 《지하철도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와씰리가 말했다. 《〈프리드리흐슈트라쎄〉정류소가 마침 의사당옆에 있소.》
《그 도이췰란드놈이 지하철도가 물에 잠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그단이 상기시켰다.
《혹시 천정까지 다 잠기지 않을수 있지 않소? 떼를 타고갑시다.》 와씰리자신도 아직 그 가능성을 믿지 못하면서 계속했다.
쁘로레뜨낀은 보통때처럼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지휘관을 열렬히 지지해나섰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도이췰란드놈들이 지하철도가 물에 잠겼다고 확인한 이상 우리는 철썩철썩 떼를 타고 총통의 코밑까지 접근합시다.》
《그만 조용하시오.》 로가찐이 제지시켰다.
모두들 듣기만하고 잠잠해있었다.
(지하철도의 물은 슈프레강 아니면 린스웨르운하에서 채웠을수 있다.) 하고 와씰리는 판단해보았다. (강의 물면이 턴넬보다 높은것은 사실이다. 물은 도중에서 정지될수 없다. 수문을 막지 않으면 물은 길바닥의 배수구까지 다 차올라왔을것이다. 다른 길을 찾아보자.)
정찰병들은 아스팔트포장을 한 컴컴한 마당에 나서서 거기서 열려진 배수로문을 발견했다. 쁘로레뜨낀이 선참으로 구멍에 다가가 그것을 손전지로 비치였다. 벽돌로 쌓아놓은 구멍이 땅속깊이로 나있었다. 거기에는 거무스레한 손잡이가 있었다. 쁘로레뜨낀은 지휘관에게 묻기라도 하듯 쳐다보았다. 와씰리는 머리를 끄덕이였다. 쁘로레뜨낀은 손잡이를 잡고 아래로 내려갔다. 모두가 시커먼 구멍을 보면서 무슨 일이 생기지 않겠는지 흥분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신중하고 세심한 사람인 로가찐은 도이췰란드놈들이 나타나면 제때에 알려주자고 나들문과 대문을 감시했다. 바로 아래에서는 불빛이 몇번 깜박거리였다. 쁘로레뜨낀이 내려오라고 했다. 그들은 내려

가기 시작했다. 로가찐은 여기서 자기의 선견지명을 시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남아있었다. 와씰리는 머리우에서 묵중한 지붕이 쾅하는 소리를 들었다. 문구멍을 막은것은 잘한 일이였다. 그 구멍에 주의가 쏠려서는 안된다. 와씰리는 발로 더듬을 하며 아래로 내려갔다. 누군가 그의 팔소매를 잡아당기였다. 사위는 캄캄하고 더러운 목욕탕에서와 같은 썩은 냄새가 풍기였다.

쁘로레뜨낀은 손전지를 깜빡거리였다. 와씰리는 궁륭식으로 된 턴넬과 바닥의 콩크리트도랑을 살필수 있었다. 거기로는 시커먼 죽탕같은 물이 흘렀다. 도랑을 따라 두개의 계단이 있었다. 생포조는 한계단에 다 올라섰다. 정찰병들은 귀를 강구었다. 어떤 이상한 소리도 듣지 못하고 다시한번 손전지를 비치였다. 턴넬안은 도랑에서 꿜깍거리며 흐르는 물만이 아니라면 완전히 조용할것이였다. 거리에서 겪은 아슬아슬한 위험을 모면한 지금에 와서 턴넬은 머리에 장작개비가 그냥 떨어지고 벽돌장이 막 무너져내리는 페허보다는 훨씬 유리했다. 여기에는 매캐한 연기도 없었다.

정찰병들은 첫번째 교차점을 지나서 멈춰섰다. 어디로 갈것인가? 와씰리는 시내 전경도와 라침판을 꺼내여 방위를 판정해보았다. 서쪽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라침판이 정확하겠는지? 주변에 철판들이 늘어져있으므로 그것들이 자침에 영향을 줄수 있는것이다. 지상에서 방향을 잡아야 했다. 와씰리는 그것을 정찰병들에게 말해주었다. 모두들 출구로 돌아갔다. 로가찐과 와씰리가 땅우로 올라왔다. 와씰리는 손전지를 비치면서 포쓰슈트라쎄방향을 확정하고 1키로메터밖에 남지 않았다고 타산했다. 그들은 다시금 아래로 내려가 손전지를 켜지 않고 조용히 걸어나갔다.

앞에서는 보브까와 보그단이 걸어갔다. 그들은 손으로 축축한 벽을 어루만지면서 걸음을 떼기전에 먼저 발로 도랑뚝을 조심스레 짚어나갔다. 모두가 덤비면 위험하다는것을 알았다. 그들이 발각되면 좁다란 굴안에서 갈데올데 없다. 주위에는 콩크리트와 벽돌뿐이다. 기관총이나 자동총을 몇방 갈기면 모두들 쓸어눕힐수 있다. 어느새 보그단의 손이 벽끝을 만지였다. 앞에는 컴컴한 공간이였다.

《무슨 구멍이 있는게 아니요? 아무리 만져봐야 벽앞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모두들 멈춰서서 정신을 차리고 들었다. 발밑에서 꽐깍꽐깍 흐르는 물소리밖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와씰리는 사격준비를 갖추고 손전지를 짧은 순간 켰다. 알고보니 교차점에 나섰던것이다. 컴컴한 굴이 좌우켠으로 뻗어나갔다. 와씰리는 라침판으로 방향을 확정했다. 자침은 속이지 않았다. 와씰리는 곧바로 나가야 한다는것을 판단했다.

별안간 우르렁거리는 위협적인 소리에 모두들 멈춰섰다. 그들을 마주향하여 어떤 사태가 밀려오는것 같았다. 정찰병들은 손전지를 켰다. 와씰리는 도이췰란드놈들이 수문을 열어놓아 턴넬을 침수시키는것이라고 생각했다. 물은 꽉 막힌 벽을 따라 굽인돌이에서 당장 밀려나와 사품칠것이다. 밖으로 뛰여나가자 해도 부근에 나들문이 없다. 우르렁거리는 소리는 점점 커졌다. 와씰리는 갑자기 무슨 쇠소리같은것을 포착했다. 머리우에서 굴러가는것이였다. 와씰리는 모든것을 알아차리고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그것은 거리에서 지나가는 땅크소리였다.

정찰병들은 퍼그나 멀리 전진했다. 와씰리가 계산한데 의하면 머리우에는 이미 포쓰슈트라쎄가 있어야 했다. (어딘가 기여나갈수 있는 출구옆에 히틀러의 대피호로 가는 유리한 접근로가 있을수 있지 않을가? 그놈을 생포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 통로로 해서 끌어오자.)

벽돌로 쌓아놓은 쇠손잡이가 달린 홈을 찾아내여 땅밑에서 무사히 빠져나왔다. 무늬로 장식한 살창으로 만든 묵직한 문을 열고 컴컴한 현관으로 들어갔다. 이전에는 살창이 유리를 보호했는데 지금은 거기에 굵직하고 얼음비슷한 쪼각들만 남았을뿐이였다.

나들문에는 고지크식의 큼직한 문자로 《포쓰슈트라쎄》라고 쓴 흰 글자판이 보였다.

와씰리는 거리를 살피였다. (히틀러는 어디에 있을가? 포쓰슈트라쎄는 바로 여기가 아닌가. 그 도깨비같은 《집무실》은 어느 집일가?) 문득 그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포로를 잡아야 한다. 포로가 다 말할것이다. 그런데 내가 왜 그런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을가? 전

쟁 전기간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혀》를 잡아오고는 당장 자신에게 필요할 때는 그렇게도 머리가 돌지 않는가. 밤에 포로를 잡기가 더 쉽다. 그래도 일없다. 지금도 도이췰란드놈들이 물에 빠진 병아리새끼처럼 떠돌아다니고있다. 그런것을 못해낼리 없다.)

와씰리는 자기의 의도를 정찰병들에게 이야기해주었다.

《첫째로 우리한테는 포쓰슈트라쎄를 잘 아는 이 고장놈이 필요하오. 둘째로는 맞은편 집에서 우리를 발견할수 있을것이요. 헌데 포로가 반항하면서 고함을 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소?》

《그까짓 반항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로가찐은 자기의 묵직한 주먹을 내보이면서 안심시켰다.

《동문 주의해야 하네.》 쥬크가 말했다.

《경험이 있지 않소, 게다가 장수힘까지…》 로가찐이 웃었다.

《맞은편 집에서 나오는 에쓰에쓰대원들을 잡아오면 좋겠는데. 그놈들은 여기 실정을 잘 알고있을거요.》 하고 와씰리는 말했다.

정찰병들은 구리기둥을 세운 건물주변에 있는 마당과 정원안의 도이췰란드놈들을 감시했다. 장교들은 비오는 날에 쓸데없이 밖에 나다니지 않았다. 두시간간격으로 여기에서 각이한 방향으로 소대력량이 되나마나한 작은 대렬이 떠나갔다가 그만큼 작은 인원이 돌아오군했다. 이 인원들은 규정된 위병근무를 서고있었던것이다. 대문앞과 가까운 네거리에 파놓은 전호에서도 같은 시간에 보초가 교대되였다. 이따금 차가 다가오게 되면 장교들이 황황히 건물안으로 뛰여들어갔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빈차가 번들번들한 아스팔트로 다가오면 장교가 나들문에서 나와 차를 마주향해갔다. 웃층의 창문들은 구멍이 훤했다. 깨여져나간 유리들이 창문턱에 널려있었다.

첫째로 와씰리의 주의를 끌고 지어 놀라게까지 한것은 에쓰에쓰대원들의 키였다. 그놈들은 키가 한결같이 그쯘하게 컸고 어깨가 쩍 벌어지고 건장하게 생겼다. 모두가 로가찐보다 작지 않았다.

《정예부대인것 같소.》 하고 와씰리는 정찰병들에게 소근거리였다.

《우량종 개같은 자식들입니다.》 쁘로레뜨낀이 긍정했다.

도이췰란드놈들이 마당에 나타났다. 자동차와 모터찌클을 타고 오가고있었다. 담장밖으로 나다니는 놈은 드물었다. 그들에게 외출이

허용되지 않은 모양이였다. 아니면 비를 맞으며 옷을 적시고싶은 생각이 없을수도 있었다.

아무런 소득도 없이 되돌아오지 않으면 안되였다. 와씰리는 창문곁에 서서 맛이 없는 섬유성통졸임고기를 씹으면서 건물을 계속 살피였다. 우에서는 잘 보였다. 아래에서는 담장이 막히여 잘 보이지 않는데다가 지나가는 차들과 땅크들, 행군하는 대렬때문에 주위가 산만해졌다. 그러나 여기서는 비록 나무가지들이 좀 막히긴 했어도 마당과 정원이 깊숙이 다 들여다보였다. 정원에는 쇠장대가 솟아있었다. 출력이 큰 무선국안테나가 아니면 피뢰침같았다. 혹시 기발대일수도 있다.

어두워지자 그들은 아래로 내려갔다. 와씰리는 대렬을 인솔했다. 사실 대렬은 보잘것없이 네명밖에 안되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순찰대나 교대보초병 비슷하여 의심을 적게 받았다.

거리를 가로질러 정원과 린접한 마당안으로 들어섰다. 와씰리는 마당에 경비를 서지 않고있다는것을 알고있었다. 서로 부축하면서 담벽을 넘어섰다. 발견되는 날에는 피할길이 없다. 그러면 이것으로 전쟁의 마지막날을 보내게 될것이다. 몇분간 모두들 까딱하지 않고 서서 현지를 익히였다. 정찰병들에게는 그러한 순간이 있군한다. 그러한 순간은 심장이 세차게 들먹이며 온몸에서 경련이 일어나기까지 하며 순간이 지나가면 자제력이 회복되면서 머리속에는 다시금 똑똑한 생각이 재빨리 떠오르군하는 경기장에서의 공포감과 비슷했다.

그러한 정황에 있을 때 와씰리는 쁘로레뜨낀에게 몸짓으로 집모퉁이를 살피라고 신호했다. 쁘로레뜨낀은 조심스레 발을 옮겨디디면서 걸어나갔다가 인차 씩씩한 걸음걸이로 되돌아왔다. 그러니 아무도 없다는것이다.

《계속 감시하시오.》 하고 와씰리는 그와 보그단에게도 명령했다.

그들은 모퉁이로 나갔다. 로가찐은 창문틀을 어루만지면서 틈새기에 부엌에서 가지고나온 도끼를 끼웠다. 그 도끼로는 그 집 녀편네가

까틀레트를 만들었던 모양이다. 로가찐은 도끼를 가볍게 움직거리면서 틈새기를 넓히여 창문을 열려고 했다. 나무가 바삭바삭했지만 문은 움직이지 않았다. 로가찐은 도끼를 눌렀다. 못이 새된 소리를 내며 약간 빠져올랐다. 빠드득거리는 소리가 칼로 유리를 긁는 소리 비슷했다.

와씰리는 아래턱이 떨리고 등골이 오싹했다.

그 순간 모퉁이에서 쁘로레뜨낀과 보그단이 뛰쳐나오며 손을 흔들어 주의하라고 했다. 모두가 몸을 감추고 무거운 발걸음소리를 듣고 있었다. 한놈이 걸어오고있었다. 아마 건장한 에쓰에쓰대원일수 있다. 쁘로레뜨낀은 모퉁이밖을 내다보고 인차 물러서며 한숨을 내쉬였다.

《장교로군.》 정찰병들은 준비태세를 갖추었다.

다음순간 에쓰에쓰장교는 잔등을 땅에 대고 나가넘어졌다. 어느새 그놈은 로가찐의 꺽쇠같은 손에 잡혀 씩씩거리였다. 쁘로레뜨낀은 그놈의 다리를 혁띠로 묶고 골루보이는 손을 묶었다. 어찌나 날쌔게 그놈을 묶었는지 미처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꽁꽁 묶이운 그놈은 몸을 비틀면서 태질을 했다. 로가찐과 보그단이 그놈을 닁큼 들어 담장밑으로 날라갔다. 주택에 있는 도이췰란드놈들이 정찰병들을 멍청히 바라보았다.

량쪽사람들이 다같이 놀랐다. 도이췰란드놈들은 어째서 제편사람들을 묶어가는지 리해하지 못하였다.

정찰병들은 자기가 붙잡은놈이 장교도 아니며 에쓰에쓰대원도 아니며 더우기 중사가 아니여서 무척 놀랐다.

《뭐라고 이놈이 지껄여대오?》 로가찐이 쁘로레뜨낀앞으로 다가가서 물었다.

《나는 이놈이 장령이상급이라고 생각하오. 치장이 굉장한걸…》

도이췰란드놈은 로씨야말을 듣고 그제야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겼는가를 알게 되였다.

그놈은 고개를 저으며 낑낑대면서 혁띠를 풀려고 기를 썼다.

포로를 목욕탕으로 끌고갔다. 문을 비스듬히 닫고 손전지를 비치면서 다시한번 주의깊게 살피였다. 《혀》한테는 특별증명서가 있었다.

여느 병사들처럼 보통 증명서가 아니였다. 얇다란 가죽케스에 두툼한 고급종이로 만들었다. 보통놈이 아닌것 같았다. 에쓰에쓰대원의 하전사제복은 왜서인지 질이 좋은 엷은 캬바진으로 만든것이였다. 그렇다. 이놈은 보통인물이 아니다. 이놈의 풍채는 사실상 장령다운데가 있었다.

짐승처럼 뚱뚱하고 두볼은 축 처지였다. 혹시 어떤 굉장한 고위급장군이 모든 표식물을 다 뜯어버리고 병사견장을 달고 도이췰란드에 림종의 시각이 도래하면 도망치자고 한게 아닐가?

와씰리는 손전지를 비쳐 포로의 증명서를 읽어보았다.

그놈은 한스 크라우제였다. 1912년생이다. 파시스트당원이다. 보통련대와 사단번호를 밝히는 칸에는 어떤 수수께끼같은 수자와 두개의 문자 《아－히》라고 찍혀있었다.

와씰리는 로가찐과 쁘로레뜨낀을 불렀다. 그 대책은 결코 필요없는것이 아니였다. 에쓰에쓰대원이 황소처럼 건장하기때문에 그놈이 어떤 흉계를 꾸밀지 누구도 모른다. 셋이서 목욕탕에 들어갔다. 여기서는 보그단이 켜놓은 초불이 가물거리고있었다. 그놈은 종전자리에 그대로 누워있었다.

와씰리는 도이췰란드말로 말했다.

《당신이 좀 말해보오. 그러나 소리를 지르면 죽여버릴테요.》

포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헝겊을 빼내자 그놈은 안도의 숨을 쉬면서 목멘소리로 나직이 말했다.

《풀어주시오.》

《단번에 다 풀어주지 않겠소. 당신의 이름은?》 와씰리는 군인증을 의도적으로 펼치면서 물었다.

《한스 크라우제요.》

《출생년도는?》

《1912년도요.》

《어느 부대에서 복무했소?》

《아돌프 히틀러의 호위부대요!》 도이췰란드놈은 거만하게 대답했다. 바로 문자 《아－히》는 히틀러를 의미하는것이다. 이제 와서 여기에 있는 에쓰에쓰대원들이 왜 그쯘하게 선별되고 그런 복장을

해입었는가 하는것이 리해되였다.
아직은 모든것이 순조롭게 되였다. 문자도 해득되였다. 그러나 《호위대대》라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와씰리는 포로를 놀래울가봐 일부러 무관심한체 하면서 물었다.
《당신의 대대는 무슨 임무를 수행하오?》
《우리는 총통을 호위하고있소.》 도이췰란드놈은 자랑스럽게 대꾸했다.
그놈은 자기를 체포한 사람들이 로씨야사람이며 총체적으로 벌어진 모든 일이 진짜 심문에로 넘어가려는것이라는것을 생각한 모양이였다. 그러나 히틀러의 개인호위병이라는 말에 와씰리의 심장은 얼마나 높뛰였던가. 바로 이 포로가 히틀러의 집무실로 통하는 길을 대줄수 있는 놈이다.
와씰리는 기쁨을 애써 숨기려고 하면서 야유적인 미소를 짓고 여전히 증명서를 들여다보며 롱담을 꺼냈다.
《당신은 빈집만 지키고있지 않소. 히틀러야 자기 친구 프랑꼬를 찾아 에스빠냐에 간지 오랬겠는데.》
자기가 숭배하는 총통을 그렇게 비난하는데 모욕감을 느낀 포로는 확고하게 말했다.
《거짓말이요. 난 그를 아침에 봤소. 그는 여기 정부청사의 지하실에 있소.》
《나는 그것이 수염을 꼭같이 해붙인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는 사람들의 주의를 딴데로 끌자고 쌍둥이를 남겨두었소.》하고 와씰리는 주장했다.
《그럼 에바 브라운은?》 하고 포로가 물었다. 《정말 누구도 그 녀자를 대신할수 없소. 총통은 그 녀자를 언제나 버리지 않고있소. 그리고 총통의 개인비행사 비츠와 바우에르도 여기에 있소.》
《그래 히틀러의 비행기는 어데 있소?》
《모르겠소. 그건 모르오.》 크라우제는 경계심을 가진것이 분명했다.
《당신은 호위대에서 무슨 일을 맡아보오?》
《난 엄페부입구에서 직일을 서고있소.》
《위병대는 두시간간격으로 어디에 갔다오군하오?》

《그건 에쓰에쓰대대요. 그들은 외부경비를 맡았소. 그들의 초소는 청사주변의 집들마다에 있소.》

(그러니까 여기에는 호위대대외에 또 개인호위대대가 있다는것이다.) 하고 와씰리는 속으로 생각했다. (정부청사가 어데 있는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명할것인가? 만일 우리를 여기서 눈먼 고양이새끼같다고 보면 그놈은 대려고 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할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거짓흔적을 따라가게 할것이다.) 와씰리는 쓸데없는 공담이나 하듯 웃으며 생각했다.

《히틀러도 밤이면 몰래 산보하러 나다니겠소?》

총통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부르는것이 포로에게는 불손한 태도로 여겨졌다. 그놈은 증오심을 가지고 와씰리를 바라보며 악의에 차서 대꾸했다.

《총통을 어쩌지 못하오. 나와 당신은 그에 대해 말하자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자기 총통을 지켜낼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소.》 포로는 자기를 체포했던 집쪽으로 머리를 기웃했다.

(정말 그 재빛건물이 제국청사가 아니란말인가?) 하고 와씰리는 생각했다. 뒤이어 엄하게 말했다.

《크라우제, 이제는 당신이 히틀러를 직접 지키지 못하게 됐소.》

포로의 교만성이 대번에 사그러졌다. 그놈은 공포심을 감추고 물었다.

《총살하겠소?》

《아니요. 여기선 소동을 피울수 없소. 우리는 당신을 목매달겠소.》 와씰리는 손가락으로 천정을 가리켰다.

크라우제는 완전히 원기를 잃었다. 그의 살찐 볼가죽이 바르르 떨리면서 축 처지였다. 와씰리는 그가 어떤 정신상태에 있다는것을 리해하고 표현력이 풍부한 단어를 골라가면서 전후생활에 대한 말을 꺼냈다.

《이제 며칠 지나면 전쟁이 끝나게 되오. 그러면 모두가 자기 처자들한테로 돌아갈거요. 사람들은 자기 일터에서 일하면서 휴식할거란 말이요.》 와씰리는 포로의 뚱뚱한 배를 쳐다보면서 (이자는 틀림없

는 식충이다.) 하고 생각하며 이렇게 보태였다. 《모두가 맛있는 료리를 먹게 될거요. 말하자면 닭고기며 게사니고기며 어린 돼지고기를말이요. 얼마나 좋소! 커피와 워드까를 마시며 권연도 피우구. 그래 당신은 죽겠소? 당신을 바줄에서 풀어서 땅속에 파묻어버릴게요. 친구들은 당신을 겁쟁이로 자살자로 치부할거란말이요. 누구도 우리가 당신을 목매달은줄 모를게요.》

크라우제는 눈을 치뜨고 쳐다보았다. 아, 만일 그가 손목만 풀어놓았더라면 와씰리를 찢어죽이려고 했을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가 입을 벌리게 하겠는가? 시간은 흐르고 시가지에서 전투의 소음은 멎지 않았다. 곧 여기로 아군부대들이 몰려올것이다. 그러면 히틀러는 코밀에서 도망친다. 그리하여 와씰리는 포로를 계속 유혹하였다.

《하지만 당신은 살아남을수도 있소.》

크라우제는 믿지 못하겠다는듯이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러자면 난 어떻게 해야 하오?》

와씰리는 꾀를 썼다.

《우리는 자기편으로 돌아가야 하오. 헌데 여기는 사방에 삼엄한 경계망이요. 우리를 이 구역에서 빼내주기만 하면 우리는 당신을 놔주겠소.》

《거짓말을 하는게 아니요?》

《군관으로서 약속을 하오.》

《당신들은 도이췰란드장교의 제복을 입었는데 우리 장교들은 약속을 지킬줄 아오.》

《로씨야군관들도 마찬가지요.》

크라우제는 호기심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며 인정했다.

《진실한 로씨야장교를 처음 보오.》

《당신은 동의하오?》

《그렇소.》

《그러나 속이려고 하는 날에는 첫방이 당신에게 꽂힌다는것을 명심하시오.》

와씰리는 권총집에서 권총을 꺼내들었다. 포로의 다리만 풀어주자

고 했다. 다음에 그를 홀로 데려내갔다. 창문옆에서 멈춰섰다. 주위에는 정찰병들이 다 전투준비를 하고 서있었다. 와씰리는 재빨리 질문을 했다.

《위병대의 보초병들을 어디로 실어가오?》

《여기로 접근하는 모든 거리에 실어가오. 주택구역에 있는 큰 집들은 요새로 전변되였소.》

와씰리는 건물의 컴컴한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놈은 정찰병들과 함께 굴을 따라 에쓰에쓰대원들이 늘어선 주택구역의 중심으로 뚫고 들어갔다.

크라우제는 그동안 말을 계속했다.

《두번째 경비진은 제국청사외부에서 대문과 나들문을 경비하고있소. 두개의 경비진은 에쓰에쓰대대가 맡고 우리 호위대대는 청사내부에서 직일을 서고있소.》

《당신의 보초소는 어데 있소?》

《이 청사의 익측에 있소.》 크라우제는 가까운 건물모퉁이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였다.

《제기랄, 그러니 우린 이틀째나 히틀러의 곁에 와있는셈이 아니요.》 와씰리는 자기의 억양에서 기쁜 감정을 포로가 포착할가봐 조용히 말했다.

《그런즉 당신은 방공호입구에 서있었다는건데 그러면 정원으로 나가는 문들은 누가 경비를 서고있소?》

《매개 문들은 에쓰에쓰대대에서 네명씩 각각 담당하고있소.》

《휴식을 하는 교대는 어디에 위치하고있소?》

《그들은 1층과 2층에 있는 이전 근무실에서 잠자고있소. 지금은 그 집이 비여있소. 모든 장병들이 콩크리트지하실에 들어가있으니까.》

《그럼 히틀러의 비행기는 어데 있소?》

《정말이요. 그건 모르오. 4월 24일까지 비행기는 하또브비행장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 비행장을 쓰지 못하고있소. 나는 진실을 말하는 거요. 25일에 우리는 주민들을 동원하여 간선도로를 리륙장소로 꾸려놓았소. 날이 밝으면 보일거요. 바로 거기에서 나무들을 잘라내고 전주들을 다 넘어뜨려놨소. 우리는 리륙에 지장될수 있는 모든것을

다 없애치웠소. 그 거리에는 벌써 비행기가 한대 내려와있소. 폰 그레임장령이 타고왔댔소. 비행기는 그의 처가 직접 조종했소. 처는 훌륭한 스포츠비행사요. 그레임장령은 게링그원수대신에 공군총사령관으로 임명된다고 하더군요.》
《한느이 레이츠비행기는 어데 있소?》
《그것은 여기 어디에 위장되여있을거요. 폰 그레임장령은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총통결에 있었습니다.》
크라우제는 이 구역에서 빠져나가자면 어떻게 마당을 통과해야 하는가를 대주었다. 그러나 와씰리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벌써 차후행동에 대하여 생각했다.(경비초소를 뚫고 지하로 들어가지 못한다. 히틀러를 생포하는데 가장 유리한 시간은 비행기에 오를 때이다. 그런데 우리가 보초를 해제끼지 못하면? 어쨌든 놈들은 우리보다 수적으로 우세하다. 사실 우리한테는 불의성이 요구된다. 히틀러를 생포하여 그 비행장에서 떠나가면 리상적이다. 하지만 우리는 비행기조종상식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히틀러는 비행기를 타고 도망칠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가장 긴급한 임무는 한느이 레이츠비행기를 찾아내여 엔징을 못쓰게 만드는것이다. 그러나 도이췰란드놈들이 그것을 모르도록 해야 한다. 결정적인 순간에 비행기는 뜨지 못하고 우리 수중에 있게 된다. 적들은 벌써 가까운곳에 있다.
그러니 엔징을 어떻게 파괴할것인가? 비행기에 어떻게 접근하여 슬그머니 잠복할수 있겠는가?)
《우린 언제 가겠소?》 크라우제가 물었다.
《정세가 급변했소. 좀 지체해야겠소.》
《속이는게 아니요?》 크라우제는 비난하는 어조로 말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하오? 당신을 목매달 차비도 하지 않고있는데.》
와씰리는 정찰병들에게 포로한테서 알아낸 모든것을 다 말해주었다.
《어떻게 해야겠는지 생각들 해보시오. 로가찐, 포로를 목욕탕으로 데려가서 누워있게 하시오.》

《혹시 제가 그놈을 때려죽여도 되지 않겠습니까?》보브까가 물었다. 《왜 그놈을 더 데리구있겠습니까? 그저 방해될것밖에 없는데요.》

《안되오. 죽일 필요가 없소. 그를 목욕탕에 데려가시오. 후에 보기로 합시다.》 하고 와씰리는 보브까에게 말했다.

조성된 정황을 토의한 후 비행기를 찾아내기로 했다. 두명씩 조를 나누어 와씰리와 보그단, 로가찐과 쁘로레뜨낀이 각각 한조가 되였다. 무전수 쥬크와 보브까는 포로를 지키라는 임무를 받았다.

나머지 밤시간에 정찰병들은 페허속을 기여나갔다. 와씰리와 보그단은 나무들과 전주가 넘어진곳에 이르렀다.

거리는 진짜 말끔히 정리되였다. 포탄구뎅이들은 다 메워졌다.

크라우제는 거리가 리륙활주로로 준비되였다고 진실을 말했다. 그러나 비행기를 발견할수 없었다. 새벽에 와씰리는 자기의 기지로 돌아가기로 했다. 로가찐과 쁘로레뜨낀도 인차 왔다.

그들도 비행기를 찾아내지 못했다.

《낮에 페허지대를 연구해봅시다. 다른 집으로 가서 모든 방향을 살핍시다. 혹시 다른 창문들에서 비행기가 보일수 있지 않겠소.》

4월 29일 새벽에 정찰병들은 전투소음을 통하여 아군부대들이 아주 가까이 있다는것을 확정했다. 그들은 안갈역과 포츠담광장을 장악하고 의사당을 향해 윌헬름슈트라쎄쪽으로 접근했다.

의사당은 연기에 휩싸였다. 그러나 아직 접근하지 못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음산하게 흐린 날씨가 계속되였다. 하늘에서는 비방울이 떨어졌다. 포성이 울리였다. 거리에는 여전히 연기가 자욱했다. 와씰리는 대낮에 의사당을 살피였다. 우중충한 건물은 그전엔 어마어마하게 보였을것이다.

지금 그들앞에는 포탄에 찢기운 큰 페허가 있었다. 수많은 기둥들이 넘어가고 모든 창문들이 깨여져 날아나고 대리석벽들이 부서져나갔다.

낮에도 여전히 비행기를 찾아내지 못했다. 와씰리는 리륙장구역에 있는 한놈을 포로로 잡으려고 했다. 진짜 그놈이야말로 그 비행기를 어디에 감추었는지 알수 있을것이다. 하지만 와씰리의 모든 계획은

급작스레 뒤집혀진 사변으로 하여 헝클어지고말았다. 10시 30분에 포병준비사격이 개시되였다. 와씰리는 쏘련군대의 총공격이 준비되였다는것을 알았다. 정찰병들이 머물러있던 집이 떨리면서 달리는 전차에서처럼 남아있는 창문유리가 드르릉거리기 시작했다. 집꼭대기에서는 모든것이 잘 보이였다. 포탄이 지붕우에 날아와 터졌다. 거리와 집사이의 골목들에는 연막이 자욱했다. 거리의 곳곳에서 삼단같은 불길이 타래쳐올랐다.

맞은편 집에서는 대혼란이 일어났다. 파시스트놈들이 불타는 둥지에서 나오는 개미떼처럼 도망치고있었다. 그러나 도망칠곳도 없었다. 오히려 여기로 사방에서 녹아난 도이췰란드군부대들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제국청사의 경비는 계속 서고있었다. 에쓰에쓰대원들이 담장너머로 퇴각해오는 사람들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첫번째 경비진이 접근로와 요새로 보강된 집들에 배치되여있었지만 뚫리고 말았다. 포쓰슈트라쎄를 향하여 만신창이 된 더러운 병사들과 자동차들과 땅크들이 무질서하게 움직이고있었다. 그들을 지휘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그저 나갈수 있는쪽으로 가고있었다.

한낮이 되여 정찰병들은 《프리드리흐 슈트라쎄》지하철도역 근처에서 울려오는 자동총사격소리를 똑똑히 가려들었다.

이곳은 아주 가까운곳이였다. 와씰리는 제국청사를 계속 살피고 있었다. 여기서는 틀림없이 무슨 꿍꿍이가 있을것 같았다. 에쓰에쓰대원들이 정원안에서 아홉개의 휘발유통을 가져다가 줄지어 나란히 놓았다. 한놈이 남아서 그것을 지키고 다른놈들은 사라졌다.

《포로를 데려오시오.》 와씰리가 말했다.

크라우제를 창문곁에 세우고 가림천을 비스듬히 제끼고 물었다.

《그들이 뭘 하고있소?》

크라우제는 잠시 주시해보다가 대답했다.

《휘발유통곁에 있는것이 총통의 개인운전사인 켐프케요.》

《그들은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을 차비를 하고있소?》

《모르겠소.》

히틀러의 운전사는 자기 자리에 한시간가량 서있었다. 그때 바로

문옆에서 에쓰에쓰장교들이 보였다. 그들은 통구리모양으로 감아놓은 커다란 주단을 날라왔다. 그뒤로는 두놈이 따라섰다. 그들은 무엇인지 좀 가벼운것을 가져왔다. 가림천같지도 않고 쏘파씌우개같지도 않은 길다랗게 감은것이였다.

정찰병들은 괴이한 행동을 흥미있게 감시했다. 주단에는 무엇인가 묵직한것이 감겨있었다. 장교들이 피로해하는것이 알리였다. 위병소의 에쓰에쓰대원들이 그들을 도와주었다. 그러나 장교들은 병사들이 자기 짐을 다치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이 직접 그것을 포탄구뎅이 있는데까지 날라가서 조심스레 바닥에 내려놓았다.

병사들과 히틀러의 운전사가 즉시 거기에 휘발유통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다음에 한 장교가 라이타를 켜서 웅뎅이에 던졌다. 시퍼런 불길이 순간적으로 우로 솟구쳐올랐다. 주위에 서있던 에쓰에쓰대원들이 물러섰다. 그러나 헤쳐가지 않고 웅뎅이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지켜보고있었다.

뒤늦게야 신문에서 히틀러가 음독자살했으며 역시 자살로 목숨을 끊은 예바 브라운과 함께 집무실마당에서 그를 불태웠다는것이 알려졌다. 정찰병들은 바로 이 무대의 증인으로 될수 있었다. 그렇지만 와씰리는 자기들이 바로 총통이 불에 타는것을 보았다고 주장할수 없었다.

에쓰에쓰대원들이 먼저 왁자지껄하면서 분주히 돌아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무슨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흥분되여 손을 내흔들면서 무엇인지 서로 가리켜주기도 했다.

와씰리는 그들이 가리키는쪽에 시선을 던졌지만 별다른것이 없었으며 놈들이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주의깊게 살피다가 모든것을 다 리해한 그는 한순간 기쁨에 어쩔줄 몰랐다. 연기에 휩싸인 국회의사당(브란덴부르그 대문기둥뒤 멀지 않은곳에 있었다.)의 둥근 지붕에서는 조국의 붉은 기발이 나붓기고있었다. 주위에서는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있었다. 국회의사당의 건물도 연기에 휩싸여있었다. 그리하여 와씰리는 기발을 인차 발견하지 못했던것이다.

정찰병들은 기쁨에 발을 구르고 뛰면서 발각될가봐 나직한 소리로

《만세》를 웨쳤다. 로가찐은 도이췰란드놈의 어깨를 흔들며 행복에 겨워 그의 얼굴에 바싹 대고 큰소리로 말했다.

《망할놈의 파쑈종자야, 보라구. 히틀러가 망했어. 전쟁에서 망했어.》

제국청사마당에서는 아직도 주단꾸레미들이 불타면서 지독한 연기를 내뿜고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도 거기에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 ×

5월 2일 베를린은 함락되였다.

정찰소대전원이 옷을 단정히 입고 해방된 거리로 나섰다.

국회의사당건물에는 붉은기가 휘날리고있었다.

브란덴부르그성문에도 선홍색기발들이 나붓기였다. 모두가 의사당으로 가고있었다. 웅장한 건물은 안쪽이 다 타버리고 창문우도 연기에 꺼멓게 그슬리고 지붕이 무너져내려 둥근 지붕에는 철근 골격만이 앙상했다. 포탄과 총알에 찢기우고 쪼각쪼각 부서진 벽돌장과 미장층들이 인도와 화단들에 지저분하게 널려있었다. 광장에는 땅크와 대포와 자동차들로 차고넘치였다. 의사당을 점거한 사람들이 휴식하고있는것이였다.

병사들과 군관들이 벽과 기둥들에 자기의 이름을 써넣었다.

쁘로레뜨낀은 칼을 꺼내면서 말했다.

《그래 우리가 베를린을 함락하지 않았소? 게다가 우리가 남들보다 하루 먼저 이 의사당을 보지 않았소?》

그는 창문턱에 기여올라가 《로스또브에서 온 쁘로레뜨낀》이라고 새겨놓았다.

그뒤를 따라 다른 대원들도 올라갔다. 와씰리는 우로 기여오르지 않고 창문밑에 빈자리를 얻어내여 인도에 서서 자기의 핀란드칼로 《로마슈낀의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써놓았다.

벽에 글자를 새겨넣은 와씰리는 이렇게 생각했다. (아버지는 쓰지 못했지만 이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새겨놓았습니다. 저는 아버지

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싸웠습니다.)

아버지에 대하여 회상하면서 와씰리는 서글픈 감정에 사로잡혔다.

승리의 기쁨은 그에게만 괴로움을 가져다준것이 아니였다. 모두가 베를린으로 오는 기나긴 로정에서 적탄에 맞아 쓰러진 전우들과 곁에서 함께 걸어왔지만 지금 자기들처럼 이렇게 의사당벽에 자기 이름을 써넣을수 없었던 전우들을 회상하였다.

와씰리는 승리자들의 이름을 읽으면서 희생된 전우들에 대해 생각했다. 그들모두는 와씰리에게 살아있는것처럼 느껴졌다. 바로 훈장을 단 푸른 옷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늘 시내에서 무슨 일을 걱정하던 실무적수완이 있는 아버지가 보였다. 와씰리는 종시 군복을 입은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의 사복을 입은 아버지를 회상했던것이다. 기억속에는 금이발을 번쩍거리며 미소를 머금은 용감한 이완 뻬뜨로위치 까자꼬브가 떠올랐다. 그의 집에서는 지금 슬픔에 모대기고있을것이다. 부모들은 뻬뜨로위치가 전후에 물이 찬 웅뎅이에 친척들을 밤새껏 앉아있게 하겠다고 한 그의 롱담에 대하여 모를것이다.

또한 현명하고 친절한 정치위원 가르부즈가 와씰리의 속마음을 환히 들여다보기나 하듯 떠올랐다.

《동무를 알따이로 데려가겠소. 동무에게 구역에서 제일 고운 색시감을 골라주겠소.》뒤이어 늘 명민한 기질을 가진 열정적인 쥐냐 뽀차뜨낀이 소곤거리였다. 《잘 있게. 와샤, 평화로운 생활에서 가장 큰 행복이 있기를 바라오.》쥐냐는 훌륭한 기사가 되였을텐데.… 그리고 겸손한 성품에 항상 옷을 단정하게 입고 남보다 뛰여나게 규률을 잘 지키는 꼬노뽈레브, 그도 나처럼 전쟁전에는 학생이지 않았는가.

와씰리는 다른 훌륭한 전우들도 회상했다. 건장한 사나이였던 나일 하미둘린은 고리끼공장에서 자동차를 더는 만들수 없게 되였다. 순박한 불머리힘장수였던 제빵공 자하르 쎄와스찌야노브도 자기 공장사람들에게 갓 구워낸 향기그윽한 흘레브를 먹이겠다고 념원하지 않았던가.

모스크바로 들어가 접근로의 땅에 엎디여있던 말이 다사한 젊은 소위들의 그 시절은 아득히 먼 옛일로 되고말았다. 와씰리는 지금 력사의 이 시각에 1941년 11월 7일 열병식때와 같은 그러한 감정에 휩싸여있었다. 바로 이것은 력사이다. 이 력사의 진군을 느끼는 것이였다. 방금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는 기쁨에 넘치는 명랑한 시대로 될것이다. 이 시대는 위대한 승리가 가져온 행복으로 시작된다.
《이것은 다 지워질겁니다.》 로가찐은 의사당의 벽과 기둥에 새겨놓은 이름들을 보며 고개를 기웃거리며 말했다.
《시간은 글자와 우리모두를 다 사라지게 할거요.》 골로샤뽀브는 한숨을 쉬였다.
《우리를 사라지게 하지는 못하오. 우리는 지금 력사의 대변자가 아니요!》 쥬크가 반대했다. 《그럼 학교들에서 아이들이 직접 쥬크라는 영웅적인 무전수가 살고있었다고 그렇게 외우란말이지.》 골로샤뽀브가 비꼬아 말했다.
《매 사람을 개별적으로는 알지 못하오.》 쥬크가 조용히 대꾸했다.
《하지만 우리전체에 대해 말하게 될거요. 말하자면 여기서 1945년에 쏘련군부대들이 싸웠다. 그들은 제일 강력하다고 하는 보루들을 돌파하고 케닌스베르그와 바로 이 베를린을 함락했다구말이요.》
갑자기 골로샤뽀브가 전혀 다른 말을 했다. 보건대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으로 모대긴것 같았다. 이제 와서 로병사가 그 생각을 털어놓았다.
《동무들도 알겠지만 난 안해를 앞으로는 때리지 않겠소.》
정찰병들은 처음에는 호탕하게 웃어대다가 다음엔 잠잠해졌다.
그들은 그 말이 다름아닌 골로샤뽀브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것을 리해했던것이다. 대체로 사람들은 승리의 날에 자기의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생각을 털어놓게 되는것이다.
《나는 영원한 우의를 맺겠소.》 하고 보브까는 말했다.
《나는 운전기술을 배우러 가겠소.》 하고 쁘로레뜨낀이 소리쳤다.
《난 갈랴에게 일생을 다 바치겠소.》 보그단이 점잖게 말했다.
《그런데 자넨 왜 입이 붙었나?》 쁘로레뜨낀이 로가찐에게 물

었다.
《내가 뭘하겠는가말이요? 난…》로가찐이 당황해하며 눈을 슴벅이였다. 《난말이요, 바줄을 꼬는 일을 하겠소.》
《그럼 상위동지는?》 쁘로레뜨낀은 진정하지 못했다.
와씰리도 로가찐처럼 어리둥절해졌다. 그는 전후에 무슨 일을 하겠는가? 물론 평온한 나날에는 군대에 복무할데 대하여, 대학에서 공부할데 대하여, 지나에게 장가들데 대하여 생각해왔다.
그리고 일하면서 제손으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유익한 일을 하겠다는 순결한 욕망으로 하여 심장이 들먹이던 일들이 한두번이 아니였다. 그러한 꿈은 총알이 날아드는속에서 미신적인 위구심으로 하여 순간적으로 사라지고말았다.
지금 와씰리자신도 자기에게 귀중한 꿈이 있었던지를 모르고있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말을 해야만 했다. 그것도 모든 대원들처럼 솔직하게 진실을 털어놔야 한다. 그리하여 와씰리는 말꽉지를 뗐다.
《집에 돌아가 어머니를 돕겠소. 어머니를 돕겠소. 어머니가 전시에 고생인들 얼마나 많이 했겠소. 그래서 아마 장가는 후에 가야 될것 같소. 오래오래 살면서 아이들도 낳아키우겠소.》
5월 9일 와씰리는 꼴로꼴리쩨브중좌와 커다란 참나무탁상에 마주앉았다. 탁상주위에는 조각장식을 한 등받이가 높은 의자 열두개가 놓여있었다. 구석에서는 책장처럼 높다란 시계가 조용히 똑딱거리였다. 벽들에는 액틀에 금물을 올린 그림들이 걸려있었다.
꼴로꼴리쩨브가 이 부유한 옛날식 방안에 자리잡은것은 아주 잘된 일이였다. 그는 마치도 축축한 엄페부에서 몇해동안 살아보지 않은것 같은 감을 느끼였다. 그의 거동은 침착하고 우아했다.
와씰리는 지금 정찰참모로 되였다. 보이꼬브장령의 암시가 있은후 사단에서는 재빨리 문건을 수속했다. 와씰리는 승급됨과 함께 대위의 군사칭호를 받았다. 률렌꼬브도 섭섭해하지 않았다. 그는 린접사단의 정찰과장으로 조동되였다.
참모장의 정찰보좌관으로 된 와씰리는 진종일 꼴로꼴리쩨브의 곁

에서 일했다.

오늘 끌로끌리쩨브는 와씰리를 이 방안으로 우연히 불러들인것이 아니였다. 단정하고 신중한 그는 와씰리의 맞은편에 서서 뜻있는 말을 하였다.

《와씰리 로마슈낀, 나는 동무에게 자그마한 기념품을 하나 주자고 하오. 나는 로씨야차관에 대한 나의 취미가 동무의 마음에 들었으리라고 믿소. 그러니 어서 받소. 후에라도 차를 마시게 되면 나를, 이 늙은이를 잊지 마시오.》

끌로끌리쩨브는 번들번들한 푸른 천으로 씌운 곽을 헤쳤다. 와씰리앞에서는 초록색에나멜로 장식된 차관이 어슴푸레하게 비치였다. 그옆의 특별한 홈에는 손잡이에 차관과 같은 문양이 난 숟가락이 꽂혀있었다.

와씰리는 그의 관심사에 대하여서와 선물을 마련한데 대하여 감동되였다.

《고맙습니다. 워또르 일리이치, 일생동안 차를 마시면서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와씰리는 감정에 북받쳐 말했다.

《그렇다면 좋소. 지금 우리가 그것을 처음으로 써봅시다. 쎄레긴!》

참모장은 련락병을 불러 싸모와르가 어떻게 됐는가를 물었다.

《준비됐습니다, 중좌동지.》

《좀 가져다주시오.》

그들은 조각장식을 한 묵직한 의자에 앉아 푹 끓인 향기가 도는 투명한 진정차를 마시였다.

《나는 동무의 장래에 대해 생각해봤소. 와씰리 뻬뜨로위치.》 끌로끌리쩨브는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내 생각엔 동무가 간부로 남아있어야 될것 같소. 동무야 훌륭한 전투군관이 아니요. 나는 동무가 련대에 처음 올 때의 그 혈기왕성하고 열정적인 동무를 회고해봤소. 위훈에 대해 꿈꾸었던 모양이지?》

《아직도 여전합니다.》 와씰리는 확언했다.

《지금은 동무가 훌륭한 전투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소. 동무는 자신이 직접 체험도 하고 또 까라바예브한테서도 많은걸 배웠다고 생각

되오. 례컨대 지휘관의 랭철성과 강의성, 사람들에 대한 관심성을 말이요. 그리고 가르부즈한테서는 당적인 선견지명과 원칙성을 배웠구, 동무의 전우인 꾸르쟈꼬브한테서는 원쑤에 대한 증오심을 배우지 않았소.
또 뽀차뜨낀과 수많은 전우들로부터는 두려움을 모르는 대담성과 용감성을 배웠소.》
와씰리는 꼴로꼴리쩨브가 자신에 대해 말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중좌가 침묵을 지키는바람에 와씰리는 (나는 당신한테서 참모부의 문화수준은 물론 애국주의 그리고 요란하게 목청을 돋구지 않고 구호를 웨치지 않아도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정신을 배웠습니다.)라고 생각했다.
《동무는 군사아까데미야에 입학할 준비를 하여 꼭 시험을 쳐야 하오. 동무는…》꼴로꼴리쩨브는 미처 말을 다하지 못했다. 그것은 창밖에서 린접된 모든 거리와 멀리에서 무질서하게 총성이 점점 커갔기때문이였다.
《무슨 일이요?》 꼴로꼴리쩨브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와씰리는 만약 경우를 생각해서 권총을 꺼내들었다. 《도이췰란드놈들이 무슨 꿍꿍이를 꾸미는게 아닌가?》
현관에서 련락병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군관들을 맞이했다. 그는 목청껏 웨쳤다.
《이젠 답니다! 평화가 왔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방금 방송으로 선포했습니다. 오늘 5월 9일은 완전승리의 날입니다.》
와씰리에게는 그 순간에 자기의 정찰병들과 함께 있고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워또르 일리이치, 우리 동무들한테 가도 되겠습니까?》
《어서 가보시오.》
정찰병들은 자동총을 허공에 대고 사격했다. 신호탄도 발사하고 소리치면서 머리우에 손을 흔들었다. 와씰리는 권총을 공중에 대고 쏘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무엇인지 열광적으로 웨쳤다. 기쁨의 희열이 약간 사그러지자 이렇게 제기했다.
《갑시다. 동무들, 베를린시내를 산보합시다.》

그날 까라바예브대좌는 련대군관들을 모이기로 했다. 후방일군들이 자그마한 카페에서 식사를 준비해놓았다.

면도를 반반히 하고 바지주름을 잡고 구두를 윤기나게 닦아신어서 한결 젊어보이는 까라바예브가 일어섰다. 《식사를 하기전에 방금 내려온 명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명령이요? 오늘같은 날에야 명령이 없어야겠는데.》 누군가 홀에서 말했다.

《있어야 하오.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정령이요.》 군관들이 조용해지자 까라바예브는 엄숙하게 말했다. 《일어들 서시오.》 그리고는 용감하게 전사한 뽀차뜨낀에게 쏘련영웅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최고쏘베트상임위원회의 정령을 말해주었다.

잠시 정적이 깃들었다. 와씰리는 마음속으로 귀중한 이름을 되새기였다. (아, 쥐냐. 참 동무가 이 행복한 날까지 살지 못한것이 한스럽네. 동무가 아예 싸움판에 나오지 말았어야 하는걸. 련대에는 동무의 절름발이병에 대해 아는 사람이 적었네. 그것이 부상때문이라고 생각했었지. 동무야 군대에 복무하게 돼있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제부터는 명령을 들으시오.》 하고 까라바예브가 계속했다. 《대대장 그리고리 아끼모위치 꾸르쟈꼬브에게는 중좌의 군사칭호가 수여되였소.》 군관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다.

《잘 싸웠소.》

《앞으로만 나가는 돌격대대장이요.》

와씰리는 그와 기차칸에서 싸웠던 일을 회상했다.

와씰리는 꾸르쟈꼬브의 숙소로 갔다.

꾸르쟈꼬브는 낚시대를 드리우고앉아 조용히 무슨 생각에 잠겨있었다. 견장에는 벌써 중좌의 별이 반짝이고있었다.

《동무가 어떻게 여기에 다 왔소?》

《중좌를 축하하려구…》

꾸르쟈꼬브를 보면서 와씰리는 어찌하여 그가 기뻐하지 않는지 리해되지 않았다.

꾸르쟈꼬브는 물속을 들여다보며 말을 했다.

《드디여 전쟁은 끝나구 나는 승리를 쟁취했소.》 꾸르쟈꼬브는 실

눈을 지으며 와씰리를 탐욕스러운 시선으로 쏘아보았다.
《동무가 기차칸에서 날보구 뭐라고 불렀는지 생각나오?》
와씰리는 당황해났다. 그는 미련한 행동에 대해 자신을 질책한지 오랬다.
《풋내기여서 전혀 몰랐으니까.》
《그때 내가 동무의 이마에 맞구멍을 냈더라면 이렇게 지금 베를린에서 주연에 참가하지도 못했을텐데. 그만하기요. 그래 이제는 전쟁도 끝났는데 동문 어머니한테 가구, 다른 사람들은 안해와 늙은 부모들을 찾아가겠지. 그런데 나는 어디로 간다? 단신으로 남았으니, 그래서 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살고싶은 생각이 없었네. 동무도 알겠지만 죽음을 찾아다녔지. 그러나 죽음이란것이 단음식만 좋아하는지 행복한 사람을 찾아가더군. 나같은 사람은 피해갔단말이요. 불행한 우리를말이요. 사람들도 불행한자를 좋아하지 않고 계속 멀리하고있소. 그래서 난 이렇게 피해왔소. 명절날에 동무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구말이요.》
《저런 변이라구, 그런걸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소?》
《말하자면 쓰쩬까라진에 대한 노래에서처럼 〈우리를 아낙네로 바꿨네〉하고 노래가락을 부르면서 생각했지요.》 와씰리는 불쾌한 이야기를 롱담으로 넘겨보려고 했다.
《그건 동무가 거짓말을 하는거요. 나를 그렇게 생각할수 없소. 나한테 아낙네들이 따라다닌적은 한번도 없었으니까.》
《전쟁도 일어났댔으니 지금은 누구도 비난하지 않을겁니다. 장가간들 뭐랍니까? 젊구 멋지게 생긴데다가 가슴엔 온통 훈장인데…》
꾸르자꼬브의 코구멍이 바르르 떨렸다.
《내가 동무를 처음으로 만났을 때 면상을 후려갈겼지. 우리의 교제를 그것으로 끝내지 말기요.》
《사실 동무를 모욕하려고 한건 아니였는데.》
《41년도에 도이췰란드땅크가 나의 사랑하는 안해와 아들 렌까를 깔아죽였소. 사단이 국경가까이에 있을 때였지.》
그 말을 하면서 꾸르쟈꼬브의 눈은 굳어졌다. 그는 눈을 떴지만 아

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미안하오. 그리샤, 난 그런줄도 몰랐소. 동무는 그에 대해 한번도 이야기한적이 없지 않았소.》
《그래서 나는 파쑈도이췰란드놈들과 회계를 했던것이요. 도이췰란드땅까지 들어가면서 안해에 대한 복수로 백놈의 도이췰란드계집을, 렌까에 대한 복수로 백놈의 도이췰란드아이들을 쏴죽이겠다고 마음먹었댔소. 그런데 정작 와보니 손이 올라가지 않았소. 난 대대식당에서 병사들이 먹을 국을 그놈들에게 먹이였단말이요. 그래 동문 어떻게 생각하오. 안해와 렌까가 보면 뭐라고 말하겠소?》
《그들은 동무를 리해했을거요.》
《그런데 땅크로 깔아뭉갠 그 악귀들은 왜서 그것을 리해못했소?》
《전쟁이 끝났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그들에게 물어봅시다.》
《아무리 보아도 죽은 사람들이야 땅밑에서 일어설리 만무하지 않소. 나의 모든것은 그들에게 가있소. 그때 싸움하던 그곳에말이요.》
와씰리는 꾸르쟈꼬브를 괴로운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오. 그리샤, 산 사람이야 산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해야지 않소.》
꾸르쟈꼬브가 한숨을 쉬였다.
《동무는 정치일군이 됐어야 하는걸 그랬소. 동무는 가르부즈한테서 뭘 넘겨받은것 같구만. 가르부즈를 잊지 않았겠지? 그는 동무를 무척 사랑했소.》
《그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했지요.》
《참 나한테 본때를 보여주었지. 호되게 비판을 하여 한깝대기 벗겼으니까. 문화적으로 점잖게 비판했지만 뼈속까지 때를 벗겨주었지요. 나도 사랑해주었소. 대바른 사람이였으니까. 진짜 볼쉐위크였소. 그래서 내가 여기에 앉아 고기도 낚으면서 지금 가르부즈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해주었던가를 생각하고있지 않소. …〈동무한텐 많은걸 관대히 봐주었소. 전투마당에서 제명했단말이요. 지금같으면 용서치 않았을거요. 평화로운 생활이라면 모든게 규정과 법에 따라 다르게 처리됐을거요. 술을 마시는 버릇을 버리지 못하겠으면 동

무한테서 훈장과 군사칭호를 떼치우겠소.〉라고 말이요.》 꾸르쟈꼬브는 와씰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차있었다. 계속하여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난 마실수 없소. 모든것을 단념했소. 바로 그래서 명절놀이에서 빠져나온거요. 내가 동무를 때릴 때 내가 어떤 사람이였던가를 잘 알지 않았소.》

꾸르쟈꼬브는 실눈을 지으며 이야기를 바꾸려고 했다. 와씰리는 비양조로 물었다.

《그럼 실컷 싸워봤습니까? 수닭모양으로 전선에 나가던 일이 기억나지 않는가요?》

《기억나구말구. 동무도 이젠 승리를 위해 모든걸 용서하라구.》

《됐습니다. 자기 사람들이 다 인정할텐데요. 게다가 중좌동지야 잘 싸우지 않았습니까. 자신에 대해 모욕감을 느낄 필요가 없지요.》

《솔직히 말해서 살아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못했소. 총체적으로 모두가 정상이요. 모두들 제자리에 있으니 동무는 대위가 되구 나도 중좌가 되구. 이거야 응당한거지.》 꾸르쟈꼬브는 웃었다.

《그리샤, 함께 가기요. 거기선 우리를 기다릴텐데.》

《가기요. 하지만 마시지는 않겠소.…》

꾸르쟈꼬브는 역시 정력적인 《돌격대대장》이였다. 그는 공격할 때에는 항상 적의 방어선에 박아놓은 쐐기의 첨단에 위치하고있었던 것이다.

× ×

드디여 전승열병식날이 왔다. 어제만해도 해가 비치는 따스한 날이였다. 그러나 6월 24일은 하늘에 음산한 구름이 끼고 가랑비가 내리였다. 하지만 이것은 명절을 그르치지 못했다.

와씰리는 대렬에 들어서서 서정적으로 울리는 시계종소리를 들었다. 그리하여 또다시 전진하는 력사의 장엄한 동음이 그를 틀어잡았다. 그가 마치도 고난과 충격으로 하여 머리가 희여진듯 눈이 내려와 덮인 새하얀 이곳 광장에 서있었던 때가 어제런듯싶었다.

어딘가 곁에서 파시스트놈들이 3면에서 포위하고 뚫고들어오려고

했다. 베를린에서 히틀러는 열병식에 대해 알고 미친듯이 날뛰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 히틀러도 그의 군대도 없다. 시원한 비방울은 얼굴을 상쾌하게 해주었다. 마음속은 평온하고 즐겁기만하다. 여름날의 맑아진 시원한 공기로 가볍게 숨을 쉬였다. 그러나 여전히 어딘가 모르게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침울한 하늘과 멀리서 우르릉거리는 천둥소리가 이제는 영원히 곁에서 일어나지 않을 전쟁을 련상시켜주기때문이다. 비에 젖어 우산을 든 관람대에는 모스크바시민들과 손님들로 붐비였다.
9시 55분 레닌묘에는 정부요인들이 올라갔다. 주석단을 향하여 박수를 보냈다.
여러가지 음조로 시계종소리가 울렸다. 금으로 만든 갑옷처럼 가슴에 훈장을 가득 단 열병대사령관 로꼬숍쓰끼원수가 《열병대 차렷!》 하고 구령을 내렸다. 그리고 말을 멋지게 속보로 달리던 그는 열병대를 인수하려 쓰빠쓰까야탑의 아치형문아래에서 나오는 쥬꼬브원수를 마주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두 원수는 진짜 기수처럼 말을 타고있었다. 가슴은 쩍 벌리고 등은 곧게 펴고 얼굴은 당당하게 쳐들고있었다.
원수들은 처음에는 전선부대의 련대부터 시작하여 군사대학과 군사학원들을 사열하였다. 멋진 말들은 그들이 대렬앞에 멈춰설 때면 다리를 둥둥 구르며 재촉했다. 쥬꼬브는 전우들의 건강과 승리를 축하했다.
사열이 끝난 후 쥬꼬브는 확성기앞에서 전쟁의 준엄한 나날에 대해, 쏘련군인들의 용맹성과 후방근로자들의 불굴의 정신에 대해 말했다.
열병행진이 시작되였다.
와씰리는 1941년도에 누구의 밥통에서 숟가락이 절컥거리는바람에 자기가 당황하여 쓰딸린동지를 미처 뵙지 못했던 일을 회상했다.
이번에는 흥분되고 긴장되였다 할지라도 최고사령관동지를 계속 바라보면서 감탄해마지 않았다. 대리석연단뒤에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수령이 서계시였다. 와씰리는 자기가 초상화들에서 눈익혀왔던

그런 모습과 다른 쓰딸린동지를 보았다. 그이께서는 나이가 지긋하고 웃수염도 희끄무레해지고 피로한 기색이였다. (그렇다. 전쟁은 그이께 중하를 가져다주었다.) 하고 와씰리는 동정심을 가지고 생각했다.

군악이 뚝 끊겼다. 고요한 정적속에서 북을 치는 소리만이 불안스럽게 들리였다. 병사들이 주석단을 향하여 머리를 돌리였다. 적들의 기발이 땅우에 놓여있었다. 그것을 짓밟고 행진은 계속되였다. 기발들과 검고 흰 십자가들, 파시스트상징표식들, 금빛술장식들이 쓰레기처럼 널려있었다. 이것은 온 유럽을 강점하고 온 세계를 제패하려던 《불패》의 히틀러군대가 남긴 유산의 전부였다.

장편소설

생 포 하 라

제 2 판

저 자 울라지미르 까르뽀브
역 자 리동일 편 집 선우연희
그림 및 장정 안영호 교 정 안은숙

낸 곳 금성청년출판사
인 쇄 소 외국문출판사인쇄공장
1판발행 주체 79(1990)년 8월 25일
2판인쇄 주체 94(2005)년 1월 5일
2판발행 주체 94(2005)년 1월 10일

ㄱ－06156